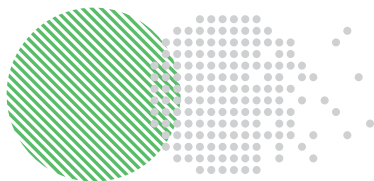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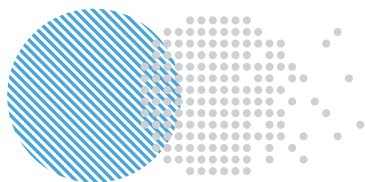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II: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배상률 · 김영지 · 모상현 · 김남희 · 조제성 · 김다은 · 홍서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협동연구총서 25-37-01  
연구보고25-일반05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II: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저 자 배상률, 김영지, 모상현, 김남희, 조제성, 김다은, 홍서아

연구진 연구책임자\_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김남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조제성(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다은(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_홍서아(동원대학교 경찰행정과 강사)  
연구보조원\_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 연구보고서명                                            | 연구기관           |
|--------------|---------------------------------------------------|----------------|
| 25-37-01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br>연구Ⅱ: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2. 참여연구진

| 연구기관           |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연구보조원   |
|----------------|------------------|-----------------------------------|--------------------------|---------|
| 저자             |                  | 배상률, 김영지, 모상현, 김남희, 조제성, 김다은, 홍서아 |                          |         |
| 주관<br>연구<br>기관 | 한국청소년<br>정책연구원   | 배상률 선임연구위원<br>(총괄책임자)             | 김영지 선임연구위원<br>모상현 선임연구위원 | 허효주 연구원 |
| 협력<br>연구<br>기관 | 한국형사·법제<br>정책연구원 | 김남희 부연구위원                         | 조제성 부연구위원                |         |
|                | 상지대학교            |                                   | 김다은 교수                   |         |
|                | 동원대학교            |                                   | 홍서아 강사                   |         |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약물별 노출 경로와 영향 구조를 분석하며, 기존 정책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행 연구가 특정 약물이나 개별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술, 담배, 고카페인, 의료용·불법 마약류에 이르는 포괄적 범위를 다루며,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의 진입-확산-이탈-재유입으로 이어지는 전환 패턴을 규명하고자 함.
- 예방-조기개입-회복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정책 구조를 설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가능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둠.

### ■ 연구내용

-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고카페인, 환각물질, 의료용·불법 마약류 등)의 사용 실태 및 인식·동기·노출 경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였음. 다양한 유형의 유해약물과 그 노출·사용 맥락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자료를 분석하였음.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디지털 환경, 위기청소년의 다중 취약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체계 이론 및 문제행동 이론 등을 함께 검토하였음.
- 현행 청소년 유해약물 관련 법·제도 및 정부 정책(성평등가족부,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등)을 점검하여, 예방교육-조기 개입-치유·회복 지원 체계 전반의 정책 공백과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법·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한 핵심 영역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는 당초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제1]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제2]의 두 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본 보고서는 [과제1]의 연구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와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임.

|         | 과제1                                                                     | 과제2                                       |
|---------|-------------------------------------------------------------------------|-------------------------------------------|
| 보고서 제목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br>연구 II: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br>정책방안 연구               |
| 문헌 연구   | 마약류 중심                                                                  | 유해약물 전반                                   |
| 해외 사례   |                                                                         |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사례                         |
| 양적 설문조사 | - 조사대상: 위기청소년<br>- 설문조사 내용: 동일(포괄적 실태 조사)<br>- 마약류 인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심층분석 | - 조사대상: 중고등학생<br>- 설문조사 내용: 동일(포괄적 실태 조사) |
| 심층 면접조사 | -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br>- 조사 주제: 마약류 중심                                       | -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br>- 조사 주제: 유형별 유해약물       |

## ■ 연구방법

- 양적 실태조사(설문): 중·고등학생 3,384명, 위기청소년 297명 대상 이원화 조사
- 질적 조사: 마약 포함 유해약물 경험 청소년 18명 대상 심층면접(IDI) 수행

| 추진 단계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특징                                                           |
|----------------|-------------------------------|-------------------------------------------------------------------------------------------------------------------------------------------------------------------------------------------|--------------------------------------------------------------|
| 환경<br>진단<br>단계 | Step 1<br>문헌연구                | [과제1] 유해약물 전반<br>: 음주·흡연, 고카페인부터 마약류까지<br>포괄적 접근<br>[과제2] 마약류 중심<br>: 청소년 마약류 사용 현황과 쟁점,<br>마약 경험 요인 등                                                                                    | Two track 접근<br>: 일반청소년 vs. 위기청소년                            |
|                | Step 2<br>해외사례 분석             | [미국] 연방 기반 다부처·지역 협력,<br>위해 감소(harm reduction)접근<br>[독일] 공중보건 관점의 중독 예방 전략,<br>사전 예방과 효과 감소 제도화<br>[호주] 보건+사법 공동 책임형 통합 거버넌스,<br>법제 기반 강력 규제 구조<br>[일본] 법·제도 기반의 강력한 중앙 통제,<br>한국 시스템과 유사 | 4개국 정책제도 비교를 통한<br>벤치마킹 및 개선방향 도출                            |
| 실증<br>분석<br>단계 | Step 3<br>설문조사                | 청소년 대상별 정량조사<br>[과제1] 전국 중·고등학교<br>[과제2]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 사용 실태 정량적 파악,<br>마약류 긍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br>요인 심층분석                |
|                | Step 4<br>면접조사                | 유해약물 유형별 면접조사<br>: 음주·흡연, 고카페인, 의약품 마약류,<br>마약 등                                                                                                                                          | 사용 동기, 접근 경로, 진압·이탈의<br>전환 계기를 중심으로 관련 위험행동<br>발생 메커니즘 질적 분석 |
| 정책<br>도출<br>단계 | Step 5<br>정책실무협의회<br>& 전문가 지문 | 관계부처 기관 및 학계 전문가 대상                                                                                                                                                                       | 정책 실행 가능성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                | Step 6<br>정책 제언               | 정책 방향성 및 세부정책 방안 도출                                                                                                                                                                       | 실효성 강화된 증거 기반 정책화                                            |

## ■ 연구결과

| 조사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현황 및 정책분석 | • 유해약물은 음주흡연에서 마약류로 이어지는 교차·연계적 위험구조로 확산                  | • 단일 물질 중심이 아닌 '통합적 유해약물 정책' 체계 필요                         |
|           | • SNS·다크웹·메신저 기반의 비대면 유통 확산으로 청소년 접근 장벽 급격히 악화            |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민간·플랫폼 사업자 연계 거버넌스 필요                       |
|           | • 현행 정책은 단속·사후처벌 중심으로 '예방·조기개입·회복지원' 연계 미흡                | • 전주기(Prevention-Intervention-Recovery) 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           | • 교육부·복지부·법무부·경찰·방통위 등 부처별 단편 대응이 지속                      | • 국가 컨트롤타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
|           | •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는 암수범죄 영역으로 통계 기반 정책설계 한계                    | • 실태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위기청소년 대상 정밀 조사체계 강화 필요                    |
|           | • 유해약물 노출 경로가 시·추천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                   | • 디지털 환경 및 알고리즘 위험 요인을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
| 해외사례 조사   | •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가동 및 통합적 접근(합법/불법/행동 중독 포함)                | •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컨트롤타워) 필요                |
|           | • 마약류 공급망 차단, 예방, 치료·회복 병행, 연구 및 데이터 체계 구축.               | •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조기개입·치료·재활·복귀로 이어지는 전주기 단계별 개입 필요 |
|           | • 학교·지역사회 기반 연계형 예방교육: 상황예방, 조기예방 심리사회정서 등과 연계된 통합프로그램 운영 | • 사회정서, 학교폭력예방 등과 연계된 학생 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 체계 강화               |
|           | • 예방 교육 필수화 전략 및 전문가 역량 강화 필요                             | • 유해약물 예방 역량 강화 및 생활지도 품질 향상을 위한 예비교원 및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 설문조사      | • 유해약물 접근이 '쉽다'고 인식하며, 온라인 기반 정보·유통 경로 확산                 | • 온라인 플랫폼 및 비대면 유통에 대한 실시간 감시·차단 체계 구축 필요                  |
|           | • 유해약물 진입은 '호기심'보다 스트레스·우울·관계 갈등 등 정서적 취약성이 핵심 요인         | • 정서 기반 예방·상담 개입 및 정신건강 연계형 조기개입 체계 강화 필요                  |
|           | • 고카페인·차방약 등 기능/성과 지향적 약물 사용이 일상화                         | • '성과압박·정서압력' 기반 맞춤형 위험 인식 교육 및 의료 관리 강화 필요                |
|           | • 학교 징계는 낙인·반발로 이어지고, 법적 개입과 상담치료는 회복 계기로 작용              | • 단순 처벌 중심 아닌 회복적 정의·중단 유도형 대응체계 전환 필요                     |
|           | • 유통 차단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 (예방보다 공급 차단 요구 강함)                | • 공급 경로 차단과 예방·회복 연계형 전주기 통합 정책 설계 필요                      |
|           | • 위기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정보 접근 격차로 자발적 회복 어려움                      | • 전문 회복 지원 인프라 및 다기관 연계형 지원 체계 확충 필요                       |
| 심층면접      | • 유해약물에 진입, 접촉하게 되는 경로와 계기가 주로 온라인(SNS), 친구               | •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약물 유통과 접근에 대한 강력 규제 필요                       |
|           | • 학업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 사회정서적 취약성이 유해환경 접촉을 이끔, 도움을 요청할 곳 부재  | •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약물 전문성과 청소년 치유·회복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 필요 |

| 조사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남용 예방교육 효과 부재, 유해약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참여 중심 예방교육 필요</li> <li>·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종합정보시스템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담배, 고카페인 음료, 의료용 마약류 등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신종약물의 등장과 확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유해약물 유인을 끌어내는 각각의 약물에 대해 접촉 차단 법제도 필요</li> </ul>                        |

## 핵심 정책제언

-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에 대한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국가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구축, ②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강화, ③ 데이터 기반 위험 감시체계 구축, ④ 유형별 법·제도 정비, ⑤ 치유·회복 지원 인프라 확충 등 5대 핵심 정책과제를 도출함.

**정책목표 : 청소년 유해약물의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 정책과제1.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 1-1. 국가 차원의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 수립
- 1-2.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 1-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정책과제2. 유해약물 교육 역량 강화

- 2-1. 학생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
- 2-2.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 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 정책과제3.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3-1. 과학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 3-2. 유해약물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3-3.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 정책과제4. 유해약물 유형별 법·제도 개선

- 4-1. 전자담배 및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법제도 개선
- 4-2.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법제도
- 4-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약물 유통·접근 차단

### 정책과제5.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인프라 구축

- 5-1.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 5-2. 청소년 전담 치유 지원 센터 설립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협동연구총서 25-37-01  
연구보고25-일반05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3  |
| 2. 연구내용 .....              | 5  |
| 3. 연구 방법 .....             | 7  |
| 4.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의 차별성 ..... | 11 |

**II. 이론적 배경**

|                               |    |
|-------------------------------|----|
| 1. 국내 마약류 개념과 현안 .....        | 17 |
| 2.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현황 .....       | 26 |
| 3. 청소년 마약 사용 경험의 원인 .....     | 32 |
| 4.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관련 쟁점 .....   | 36 |
| 5.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관련 대응 논의 ..... | 42 |

**III. 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    |
|---------------|----|
| 1. 조사개요 ..... | 49 |
|---------------|----|

|                                   |     |
|-----------------------------------|-----|
| 2.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 57  |
| 3. 술·담배 .....                     | 106 |
| 4. 고카페인 음료 .....                  | 129 |
| 5. 의료용 마약류/약물 .....               | 150 |
| 6. 환각물질 .....                     | 196 |
| 7. 마약류 .....                      | 216 |
| 8. 예방 교육 .....                    | 252 |
| 9. 학교 징계, 법적 처벌, 상담·치료 경험 .....   | 285 |
| 10. 주변인의 유해약물 사용 수준에 대한 인식 .....  | 295 |
| 11.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 300 |
| 12. 요약 및 시사점 .....                | 311 |

#### **IV. 마약류 사용 경험 위기청소년 면접조사**

|                        |     |
|------------------------|-----|
| 1. 조사개요 .....          | 323 |
| 2. 면접참여자 배경 및 특성 ..... | 327 |
| 3. 심층면접 분석결과 .....     | 333 |
| 4. 요약 및 시사점 .....      | 368 |

#### **V. 정책 제언**

|                            |     |
|----------------------------|-----|
| 1. 정책 개발 수립 절차 및 시사점 ..... | 377 |
| 2. 정책 제언 .....             | 382 |

|                   |            |
|-------------------|------------|
| <b>참고문헌 .....</b> | <b>437</b> |
|-------------------|------------|

|                      |            |
|----------------------|------------|
| <b>부     록 .....</b> | <b>451</b> |
|----------------------|------------|



## 표 목차

|                                                                      |    |
|----------------------------------------------------------------------|----|
| 표 I -1.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개요 .....                                      | 8  |
| 표 I -2. 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                                       | 8  |
| 표 I -3. 면접조사 개요 .....                                                | 9  |
| 표 I -4. 해외사례 조사 내용 .....                                             | 10 |
| 표 I -5. 콜로키움 개요 .....                                                | 10 |
| 표 I -6. 연구과제별 설계 및 분석 범위 비교 .....                                    | 12 |
| 표 II -1. 자연 마약류의 구분 .....                                            | 18 |
| 표 II -2.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 20 |
| 표 II -3. 합성 마약 분류 .....                                              | 22 |
| 표 II -4. 청소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020년~2024년) .....                      | 24 |
| 표 II -5. 국내·외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br>(2024년~2025년) .....         | 39 |
| 표 II -6. 마약류 관리 관련 국제협약 요약 .....                                     | 43 |
| 표 III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문항 내용 및 출처 .....                               | 52 |
| 표 III -2. 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                                        | 55 |
| 표 III -3. 응답자 분포표 .....                                              | 56 |
| 표 III -4.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br>문제의 심각성 - ① .....     | 59 |
| 표 III -5.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 -<br>① .....              | 61 |
| 표 III -6.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유해약물(마약류 제외)<br>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① ..... | 63 |
| 표 III -7.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의<br>심각성 - ① .....          | 65 |
| 표 III -8.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br>제외) 접근 용이성 - ① .....    | 67 |
| 표 III -9.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br>- ① .....             | 69 |
| 표 III -10.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br>관리 정책 시행 정도 - ① .....  | 71 |

|                                                           |     |
|-----------------------------------------------------------|-----|
| 표 Ⅲ-11.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 표현의 영향 - ①                   | 73  |
| 표 Ⅲ-12.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또래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7  |
| 표 Ⅲ-13. 마약류 인식 - 마약류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8  |
| 표 Ⅲ-14.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79  |
| 표 Ⅲ-15. 마약류 인식 - 일부 마약류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80  |
| 표 Ⅲ-16.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81  |
| 표 Ⅲ-17. 마약류 인식 - 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 82  |
| 표 Ⅲ-18. 마약류 인식 -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83  |
| 표 Ⅲ-19.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 84  |
| 표 Ⅲ-20.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 85  |
| 표 Ⅲ-21.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86  |
| 표 Ⅲ-22.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남용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88  |
| 표 Ⅲ-23.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89  |
| 표 Ⅲ-24.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 90  |
| 표 Ⅲ-25. 마약류 인식 -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 91  |
| 표 Ⅲ-26.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92  |
| 표 Ⅲ-27.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93  |
| 표 Ⅲ-28.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순위) - ①            | 98  |
| 표 Ⅲ-29.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2순위) - ①          | 100 |
| 표 Ⅲ-30.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순위) - ①            | 102 |

|                                                                                                  |     |
|--------------------------------------------------------------------------------------------------|-----|
| 표 III-31. 유해악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br>(1+2순위) - ① .....                                      | 104 |
| 표 III-32. 음주 및 흡연 인식 -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br>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108 |
| 표 III-33. 음주 및 흡연 인식 -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br>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109 |
| 표 III-34. 음주 및 흡연 인식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br>음주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                            | 110 |
| 표 III-35. 음주 및 흡연 인식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br>담배 피우는 장면을 자주 본다 .....                          | 111 |
| 표 III-36. 음주 및 흡연 인식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br>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                   | 112 |
| 표 III-37. 음주 및 흡연 인식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br>등장인물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                  | 113 |
| 표 III-38. 음주 및 흡연 경험 - 술(주류) .....                                                               | 118 |
| 표 III-39. 음주 및 흡연 경험 - 일반담배(꺾련형) .....                                                           | 119 |
| 표 III-40. 음주 및 흡연 경험 - 액상형 전자담배 .....                                                            | 121 |
| 표 III-41. 음주 및 흡연 경험 - 꺾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                                                      | 122 |
| 표 III-42.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술(주류) .....                                                     | 125 |
| 표 III-43.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일반담배(꺾련형) .....                                                 | 126 |
| 표 III-44.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액상형 전자담배 .....                                                  | 127 |
| 표 III-45.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꺾련형<br>전자담배(가열담배) .....                                         | 128 |
| 표 III-46.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공부, 아르바이트, 여가 활동<br>등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br>의향이 있다 ..... | 130 |
| 표 III-47.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건강에 주는<br>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                   | 131 |
| 표 III-48.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피로회복에<br>도움을 줄 수 있다 .....                                    | 132 |
| 표 III-49.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집중력에<br>도움을 줄 수 있다 .....                                     | 133 |
| 표 III-50.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중독의 위험이<br>있다 .....                                          | 134 |
| 표 III-51.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br>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                                  | 136 |

|                                                                                   |     |
|-----------------------------------------------------------------------------------|-----|
| 표 III -52. 최근 6개월 이내 커피 음용 횟수 .....                                               | 139 |
| 표 III -53. 최근 6개월 이내 고카페인 음용 횟수 .....                                             | 140 |
| 표 III -54.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br>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         | 142 |
| 표 III -55.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시험공부,<br>과제를 할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      | 143 |
| 표 III -56.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오랫동안 온라인<br>게임을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 | 144 |
| 표 III -57.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br>음료를 평소에 즐겨 마시는 편이다 .....             | 145 |
| 표 III -58.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카페인을<br>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 .....          | 146 |
| 표 III -59.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br>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        | 148 |
| 표 III -60.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br>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      | 149 |
| 표 III -61.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수면제 .....                                     | 153 |
| 표 III -62.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br>신경안정제/항불안제 .....                           | 155 |
| 표 III -63.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ADHD치료제 ..                                    | 156 |
| 표 III -64.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마약성 진통제 ..                                    | 157 |
| 표 III -65.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식욕억제제 ..                                      | 158 |
| 표 III -66.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근육강화제 ..                                      | 159 |
| 표 III -67.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마취제 .....                                     | 160 |
| 표 III -68.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진해거담제/기침<br>억제제 .....                         | 161 |
| 표 III -69.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수면제 .....                        | 163 |
| 표 III -70.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신경안정제/항불안제 .....                 | 164 |
| 표 III -71.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ADHD치료제 .....                    | 165 |
| 표 III -72.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마약성 진통제 .....                    | 166 |
| 표 III -73.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식욕억제제 .....                      | 167 |

|                                                                                                           |     |
|-----------------------------------------------------------------------------------------------------------|-----|
| 표 III-74.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근육강화제 .....                                               | 168 |
| 표 III-75.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마취제 .....                                                 | 169 |
| 표 III-76.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br>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                                        | 170 |
| 표 III-77. 최근 6개월 이내 의료 목적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 175 |
| 표 III-78. 의료용 약물 인지 경로 - ① .....                                                                          | 176 |
| 표 III-79. 의료용 약물 구입 경로 - ① .....                                                                          | 178 |
| 표 III-80.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유 .....                                                                             | 180 |
| 표 III-81.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                                                                 | 181 |
| 표 III-82.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br>느꼈다 .....                                                     | 182 |
| 표 III-83.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그만두기<br>어려웠다 .....                                                 | 183 |
| 표 III-84.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br>있다 .....                                                    | 184 |
| 표 III-85.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br>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185 |
| 표 III-86.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외모를<br>개선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187 |
| 표 III-87.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학교 성적을<br>높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188 |
| 표 III-88.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신체 능력을<br>향상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189 |
| 표 III-89.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스트레스를<br>줄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190 |
| 표 III-90.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자존감이나<br>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br>있다 .....                 | 191 |
| 표 III-91.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기분<br>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 192 |
| 표 III-92.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스스로 잘<br>조절하면, 처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약물을<br>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193 |
| 표 III-93.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약물 사용은 개인의<br>선택일 뿐,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194 |

|                                                                                  |     |
|----------------------------------------------------------------------------------|-----|
| 표 III-94.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195 |
| 표 III-95. 환각물질 사용 경험 -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                                        | 200 |
| 표 III-96. 환각물질 사용 경험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                                        | 201 |
| 표 III-97. 환각물질 사용 경험 -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                                      | 202 |
| 표 III-98. 환각물질 사용 경험 - 기타 ······                                                 | 203 |
| 표 III-99.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                              | 204 |
| 표 III-100.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                             | 205 |
| 표 III-101.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                           | 206 |
| 표 III-102.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기타 ······                                      | 207 |
| 표 III-103.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 ······                                          | 210 |
| 표 III-104.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                                    | 211 |
| 표 III-105.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                           | 212 |
| 표 III-106.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                         | 213 |
| 표 III-107.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                          | 214 |
| 표 III-108.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215 |
| 표 III-109. 마약류 사용 경험 - 대마초, 마리화나 ······                                          | 218 |
| 표 III-110. 마약류 사용 경험 - 합성대마 ······                                               | 219 |
| 표 III-111. 마약류 사용 경험 -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                                   | 220 |
| 표 III-112. 마약류 사용 경험 - 코카인(코크), 크랙 ······                                        | 221 |
| 표 III-113. 마약류 사용 경험 - LSD, 엘(L) ······                                          | 222 |
| 표 III-114. 마약류 사용 경험 -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                              | 223 |
| 표 III-115. 마약류 사용 경험 - 케타민, K(케이) ······                                         | 224 |
| 표 III-116.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대마초, 마리화나 ······                                | 225 |
| 표 III-117.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합성대마 ······                                     | 226 |
| 표 III-118.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                         | 227 |
| 표 III-119.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코카인(코크), 크랙 ······                              | 228 |
| 표 III-120.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LSD, 엘(L) ······                                | 229 |

|                                                                                                             |     |
|-------------------------------------------------------------------------------------------------------------|-----|
| 표 III-121.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엑스터시, E, 엑스,<br>캔디, MDMA .....                                             | 230 |
| 표 III-122.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케타민, K(케이) .....                                                           | 231 |
| 표 III-123.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br>- ① .....                                                    | 236 |
| 표 III-124. 마약류 인지 경로 - ① .....                                                                              | 238 |
| 표 III-125. 마약류 구입 경로 - ① .....                                                                              | 240 |
| 표 III-126.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 .....                                                                           | 243 |
| 표 III-127.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                                                                 | 245 |
| 표 III-128.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br>느꼈다 .....                                                     | 246 |
| 표 III-129.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br>어려웠다 .....                                                   | 248 |
| 표 III-130.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br>생각이 있다 .....                                                    | 249 |
| 표 III-131.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br>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 251 |
| 표 III-132.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br>생각하는 대책 (1순위) - ① .....                                           | 254 |
| 표 III-133.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br>생각하는 대책 (1+2순위) - ① .....                                         | 256 |
| 표 III-134.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br>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 260 |
| 표 III-135.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예방 교육은<br>각종 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 261 |
| 표 III-136.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현재 청소년을<br>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br>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 | 263 |
| 표 III-137.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을<br>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br>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 264 |
| 표 III-138.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예방<br>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br>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266 |
| 표 III-139.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지식 전달<br>위주의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더 도움이<br>된다고 생각한다 .....               | 267 |

|                                                                                                            |     |
|------------------------------------------------------------------------------------------------------------|-----|
| 표 III-140.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br>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사용자에 대한<br>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269 |
| 표 III-141.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br>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판매 및 유통자에<br>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 270 |
| 표 III-142.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                                                                 | 273 |
| 표 III-143. 마약류 예방 교육 도움 정도 .....                                                                           | 274 |
| 표 III-144.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br>(1순위) - ① .....                                                 | 276 |
| 표 III-145.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br>(1+2순위) - ① .....                                               | 278 |
| 표 III-146.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예방 교육을 받은<br>이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                               | 280 |
| 표 III-147.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귀하가 가장<br>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의 강사는 관련 분야<br>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         | 282 |
| 표 III-148.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마약류 예방<br>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었다 .....                                   | 283 |
| 표 III-149.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예방 교육은<br>지루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                                        | 284 |
| 표 III-150.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br>받은 경험 .....                                                   | 287 |
| 표 III-151.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                                                                | 288 |
| 표 III-152.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br>받은 경험 .....                                                    | 289 |
| 표 III-153.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                                                                  | 292 |
| 표 III-154. 법적 처벌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                                                                   | 293 |
| 표 III-155. 상담이나 치료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                                                                 | 294 |
| 표 III-156.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br>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 .....                                       | 295 |
| 표 III-157.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br>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                                      | 296 |
| 표 III-158.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br>중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 .....                                 | 297 |
| 표 III-159.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br>중에 마약류를 사용해 본 사람이 많다 .....                                   | 298 |



|                                             |     |
|---------------------------------------------|-----|
| 표 Ⅲ-160.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 관련 변수 구성 및 측정 개요     | 303 |
| 표 Ⅲ-161. 변수 생성 및 구성                         | 306 |
| 표 Ⅲ-162. 청소년 마약류 긍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08 |
| 표 Ⅳ-1. 2023년 경찰청 마약범죄 성별, 연령대별 현황           | 324 |
| 표 Ⅳ-2. 면접조사 사례유형 및 대상자 수                    | 324 |
| 표 Ⅳ-3. 위기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정보                    | 325 |
| 표 Ⅳ-4. 위기청소년 면접영역 및 면접내용                    | 327 |
| 표 Ⅳ-5.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가족 배경                    | 335 |
| 표 Ⅳ-6.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회적 관계                   | 337 |
| 표 Ⅳ-7.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생활 변화                    | 340 |
| 표 Ⅳ-8.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정신 건강                    | 343 |
| 표 Ⅳ-9.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범죄 유발 환경 조성              | 345 |
| 표 Ⅳ-10.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유입               | 349 |
| 표 Ⅳ-11.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후 반응과 변화         | 354 |
| 표 Ⅳ-12.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후 대처             | 356 |
| 표 Ⅳ-13.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여성청소년의 취약성              | 359 |
| 표 Ⅳ-14.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법체계, 치료상담, 예방교육 경험     | 362 |
| 표 Ⅳ-15.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각지대와 개선요구도             | 366 |
| 표 Ⅴ-1.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380 |
| 표 Ⅴ-2.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 388 |
| 표 Ⅴ-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기능과 전달체계 별 예상 성과         | 390 |
| 표 Ⅴ-4. 유해약물 대응을 위한 전주기 전달체계 별 과제와 정책효과      | 392 |
| 표 Ⅴ-5. 통합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식,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397 |
| 표 Ⅴ-6. 예비교원(청소년 지도자) 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연계 방안 | 401 |
| 표 Ⅴ-7. 예비교원(청소년지도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한 성과        | 401 |
| 표 Ⅴ-8. 영국 마약류 정보 제공 사이트, ‘talk to Frank’ 사례 | 413 |
| 표 Ⅴ-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구조문대비표            | 419 |
| 표 Ⅴ-10. 유럽 EUDA 모범사례 레지스트리 ‘Xchange’ 사례     | 429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                            | 11  |
| 그림 II-1. 청소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추세 현황1) .....               | 24  |
| 그림 II-2. 청소년 마약류 사범 유형별 단속 추세 현황 .....                | 27  |
| 그림 II-3.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자 수 .....                      | 28  |
| 그림 II-4.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개) .....                     | 29  |
| 그림 II-5. 청소년 압수된 마약류 현황1) .....                       | 31  |
| 그림 III-1. 설문도구 개발 절차 .....                            | 51  |
| 그림 III-2.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 및 접근 용이성 .....                 | 58  |
| 그림 III-3.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 .....                         | 75  |
| 그림 III-4. 마약류에 대한 부정 인식 .....                         | 76  |
| 그림 III-5.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          | 95  |
| 그림 III-6.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          | 96  |
| 그림 III-7.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인식 .....                        | 106 |
| 그림 III-8. 음주 및 흡연 경험 유무 .....                         | 115 |
| 그림 III-9. 음주 및 흡연 최초 경험 시기 .....                      | 116 |
| 그림 III-10.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 123 |
| 그림 III-11. 커피 및 카페인 음료에 대한 인식(긍정+부정) .....            | 129 |
| 그림 III-12. 최근 6개월간 카페인인 든 커피 음료 한 달 평균 음용 횟수<br>..... | 137 |
| 그림 III-13.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 한 달 평균 음용 횟수 ..            | 137 |
| 그림 III-14.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 141 |
| 그림 III-1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 ① .....                      | 151 |
| 그림 III-16.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 ② .....                      | 151 |
| 그림 III-17. 의료용 마약류 최초 경험 시기 .....                     | 152 |
| 그림 III-18.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한 달 평균 횟수<br>..... | 162 |
| 그림 III-19. 최근 6개월 이내 가장 많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 .....          | 171 |
| 그림 III-20. 의료용 마약류 인지 경로 .....                        | 171 |
| 그림 III-21. 의료용 마약류 구입 경로 .....                        | 172 |

|                                                             |     |
|-------------------------------------------------------------|-----|
| 그림 III-22.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유 .....                              | 172 |
| 그림 III-23.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 173 |
| 그림 III-24. 의료용 마약류/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br>대한 생각 ..... | 186 |
| 그림 III-25. 환각물질 사용 경험 .....                                 | 196 |
| 그림 III-26. 환각물질 최초 경험 시기 .....                              | 197 |
| 그림 III-27.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 198 |
| 그림 III-28.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 .....                      | 208 |
| 그림 III-29. 환각물질을 사용한 이후 느낀 경험 .....                         | 209 |
| 그림 III-30. 마약류 최초 경험 시기 .....                               | 217 |
| 그림 III-31.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              | 232 |
| 그림 III-32. 마약류 인지 경로 .....                                  | 232 |
| 그림 III-33. 마약류 구입 경로 .....                                  | 233 |
| 그림 III-34.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 .....                           | 234 |
| 그림 III-35.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 244 |
| 그림 III-36. 청소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br>대책 .....      | 252 |
| 그림 III-37.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 258 |
| 그림 III-38.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                  | 271 |
| 그림 III-39. 마약류 예방 교육의 도움 정도 .....                           | 271 |
| 그림 III-40.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던 이유 .....                    | 272 |
| 그림 III-41.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br>받은 경험 .....    | 285 |
| 그림 III-42.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                 | 285 |
| 그림 III-43.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br>경험 .....     | 286 |
| 그림 III-44.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                       | 290 |
| 그림 III-45. 법적 처벌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                        | 291 |
| 그림 III-46. 상담 및 치료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                      | 291 |
| 그림 III-47. 주변 사람들의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 299 |
| 그림 V-1. 정책 제언 도출 프로세스 .....                                 | 378 |
| 그림 V-2. 연구 설계 및 단계별 수행 체계 .....                             | 379 |
| 그림 V-3.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                                   | 382 |
| 그림 V-4. 거버넌스 체제 간 연계 구성 및 흐름도 .....                         | 388 |
| 그림 V-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 : 마약류 취급업무<br>흐름도 .....           | 410 |

|                                                      |     |
|------------------------------------------------------|-----|
| 그림 V-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br>흐름도 ..... | 410 |
| 그림 V-7.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안) .....                        | 426 |
| 그림 V-8.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 427 |
| 그림 V-9. 한걸음센터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 431 |
| 그림 V-10. 정책추진 로드맵 .....                              | 434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 방법
- 4.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의 차별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및 기타 유해약물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5.; 김남희, 이선형, Weisheit, 2023).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다크웹, 메신저 등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경로를 넘어서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접촉 기회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으로 접한 정보와 미디어 콘텐츠로 인해 특정 약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거나, 학업이나 다이어트 등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오인하도록 만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집중력 강화나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고농도 카페인을 남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ADHD 치료제(예: 메틸페니데이트), 디에타민(일명 나비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약’이나 ‘다이어트 약’으로 인식하고 오·남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유해약물 남용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약물 의존 및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차 데이터를 분석한 심혜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생각, 계획, 시도에 약물 오남용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 남용이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생명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1) 이 장은 배상률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않고 유통 및 제조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한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연계되는 양상도 나타난다(김남희, 이선형, 이다미, 김정희, 2023). 이러한 흐름은 청소년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거나 유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위험을 높이며,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 치료·재활 지원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의 다양한 사용 양상과 변화하는 유통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정교한 개입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차위험(cross-cutting risk) 관점에서 특정 유해약물 사용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른 약물 사용 및 비행과 연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술, 담배와 같은 초기 약물 사용 경험이 이후 더 강한 약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문이론(Gateway Theory)’을 지지하는 연구(예: 허원빈, 오영심, 2023)가 속속 발표되고는 있으나, 이 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보다 복합적인 유해약물 경험 및 중독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교육부·질병관리청이 매년 공동 주관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과 건강행태에 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조사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술, 담배, 고카페인 음료,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예: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주요 유해약물 사용 수준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특정 약물 간 연관성이나 교차 위험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약물 사용이 다른 약물로 확장되는 전이 과정과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조사는 유해약물 문제에 특화되기보다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건강행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해약물의 실태와 관련 위험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의 전반적 경향과 위험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약물별 노출 경로와 파급효과를 규명하며, 기존 정책 대응의 한계를 검토하여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의 패턴과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고, 유해약물 노출 요인의 규명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상술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알코올과 니코틴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약물을 포괄적으로 다루되, 사회적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마약류, 환각물질, 신체기능 및 외모 이미지 향상 약물(PIED: Performance & Image Enhancing Drugs), 고카페인 음료 등에 대한 사용 실태와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학업 성취나 신체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온라인 기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유해약물 관리체계를 토대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건강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중보건 및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약물의 사용 실태나 개별적 요인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의 패턴과 파급효과를 규명하고, 사회적·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2. 연구내용

### 1)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사용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실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학술연구와 정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술, 담배, 환각물질, 신체기능 및 외모 이미지 향상 약물(PIEDs), 고카페인 제품 등 다양한 유해약물 유형을 중심으로 사용 동기, 노출 경로, 건강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위험 요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집단의 다중 취약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체계 이론, 문제행동 이론 등 주요 이론적 틀도 함께 검토하였다.

## 2) 유해약물(마약류) 대응 관련 법·제도 고찰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약물 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를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이며,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정책과 사업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기 개입, 상담·치유 체계 등 분야별 제도적 보완 과제와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 3)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사용 실태 및 특성 분석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약물의 사용 경험과 인식에 관한 정량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순 사용 수준을 넘어 약물에 대한 태도와 위험 인식의 양상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용 의도와 중독 위험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긍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가정적·포래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약물 사용이 확산되는 구조를 파악하고, 예방 및 조기 개입이 필요한 정책적 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성적 분석을 위해 주요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사용 동기와 접근 경로, 사용 지속 및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 분석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험적 맥락을 보완하고,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4) 관련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 도출

국내외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및 회복·지원 등과 관련한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3.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국내외 학술논문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의 정기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경찰청의 「경찰백서」와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유해약물 관련 범죄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정책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정책 흐름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학술논문을 검토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경험의 요인과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양적 조사(설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해약물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는 중·고등학생 시기로, 이에 근거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학교급별 할당표집을 적용하여 총 3,384명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년원, 소년부류심사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교정시설 소속 청소년과 유해약물 관련 치료·상담센터 이용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및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병행하여 총 297명을 조사하였다.

### (1) 중·고등학생 대상

표 1-1.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모집단  | 전국의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 표집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24년 하반기 교육통계 |
| 표본수  | 총 3,384명(중학생 1,814명, 고등학생 1,570명)     |
| 표집방법 | 다단계층화 집락표집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기반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 실사기간 | 2025년 8월 18일(월) ~ 9월 10일(수), 24일 간    |

### (2) 위기청소년 대상

표 1-2. 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개요

| 구분   | 내용                                                 |
|------|----------------------------------------------------|
| 모집단  | 전국 만 13세~18세 위기청소년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속 청소년)         |
| 표본수  | 총 297명(중학생 86명, 고등학생 211명)                         |
| 표집방법 |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온·오프라인 병행)                |
| 실사기간 | 2025년 6월 29일(목) ~ 9월 17일(수)                        |

### 3) 질적조사(면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경험과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개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을 기본 방식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또는 참여 청소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규모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병행하였다. 총 1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명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였고, 나머지 8명은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과제2) 보고서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모든 면접은 사전 동의를 거쳐 녹취·전사하였으며, 유해약물 사용의 동기, 사회·심리적 요인, 디지털 환경과의 상호작용, 연령집단 간 사용 패턴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요인과 회복 지원의 주요 지점을 도출하였다.

표 1 -3. 면접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용                                                                                         |
|------------|--------------------------------------------------------------------------------------------|
| 참여자 수      | • 총 18명                                                                                    |
| 참여자 유형별 특성 | • 과제1: 마약류 사용 경험 있는 위기청소년 10대~20대 청소년·청년 총 10명<br>• 과제2: 유해약물 사용 경험 있는 중고등학생 7명, 학교밖청소년 1명 |
| 면담방식       | •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 개별 심층면접 IDI 면담<br>•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된 소집단 FGI 면담(필요/요청 시)                    |
| 면담자료 기록방식  | • 녹취 후 전사                                                                                  |
| 조사 시기      | • 2025년 7~9월                                                                               |
| 면담자        | • 연구진                                                                                      |

#### 4) 해외사례 조사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 정책의 국제적 벤치마킹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제도적 대응체계의 성숙도와 예방·개입 정책의 발전 단계가 상이한 미국, 독일, 일본, 호주 4개국을 사례 연구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는 연방·분권형 구조, 복지 중심 접근, 형사정책 중심 대응, 학교 기반 예방 강화 모델 등 서로 다른 정책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 분석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하였다.

각국의 정책적 접근 방식과 법·제도 구조,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치료·재활 체계, 온라인 유통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정책 형성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청소년 대상 약물 예방교육의 체계성, 지역사회 기반 개입 모델, 부처 간 협력 구조, 민관 거버넌스 운영 방식 등을 주요 비교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해외 사례 분석은 해당 국가의 청소년 정책 및 약물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집필진이 수행하였으며, 각 국가별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실행 환경, 정책 효과성 및 한계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 정책의 제도적 보완 방향과 실행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4. 해외사례 조사 내용

| 선정 국가 | 내용                                                    |
|-------|-------------------------------------------------------|
| 미국    | • 강력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정책 시행, 최근 탈범죄화 및 예방·치료 중심 접근 확대       |
| 독일    | •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공공 기반 맞춤형 정책 추진 및 협력 체계 강화            |
| 일본    | • 학교 중심 예방 교육과 보건소 연계 조기 개입, 지역사회 기반 약물 오남용 방지 캠페인 추진 |
| 호주    | • 위해 감소, 예방·조기 개입·치료 중심 통합적 정책 시행,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예방 교육 |

####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실천 경험을 보유한 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 부처·현장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양적·질적 조사 문항 개발부터 정책방안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들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은 연구진 내부 논의를 거쳐 조사 설계, 자료 해석, 정책 제언의 구체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실무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연계 가능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 6) 해외 정책 사례 콜로키움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심화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 7월 「청소년 유해약물 해외 정책 사례」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유해약물 대응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예방·개입 및 제도적 대응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해외 정책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5. 콜로키움 개요

| 개최시기 | 주제                                            | 참가자                             |
|------|-----------------------------------------------|---------------------------------|
| 7월   |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진단 및 해외 정책 사례<br>(미국, 독일, 일본, 호주) | • 학계, 현장전문가, 공공기관<br>종사자, 공무원 등 |

#### 4. 연구 추진체계 및 연구의 차별성

[그림 I-1]은 본 연구의 연차별 추진 계획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당초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을 단계적으로 다루는 종합 연구로 기획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유해약물 영역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는 중·고등학생과 위기청소년을 포괄하는 통합 설계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다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범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분석 대상을 구분하여 보고서를 분리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 사용 실태 조사 결과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배상률 외, 2025) 보고서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                 |    |                                                                                                                                                                                                                                                                                                                                                                 |
|-----------------|----|-----------------------------------------------------------------------------------------------------------------------------------------------------------------------------------------------------------------------------------------------------------------------------------------------------------------------------------------------------------------|
| 1차년도<br>(2024년) | 목적 | •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이슈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정책 개선 방안 도출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사행성게임/도박 접촉을 통한 유해환경 영역 간 연계 양상 및 수준 2차 자료 분석</li> <li>• 청소년(중·고생, 학교밖청소년) 도박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li> <li>• 청소년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개정(안) 도출</li> <li>• 청소년 도박 초기접촉 및 대응지원 정책 방안 도출</li> <li>• 청소년 도박문제 발굴 및 개입 정책방안 도출</li> </ul>                                                                                       |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고찰 및 분석</li> <li>• 2차 자료 분석</li> <li>• 정책포럼</li> <li>•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li> <li>•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li> <li>• 정책연구실무협의회</li> </ul>                                                                                                                                                                                    |
| 2차년도<br>(2025년) | 목적 | •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고가폐인, 의료용·불법 마약류 등) 이슈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 방안 도출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관련 법제 2차 자료 분석</li> <li>• 미국, 독일, 일본, 호주의 해외 정책 사례 분석</li> <li>• 청소년(중·고생, 위기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li> <li>• 청소년 마약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개인심리, 사회환경 등) 분석</li> <li>• 청소년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개정(안) 도출</li> <li>•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및 초기접촉 경험자에 대한 대응 및 지원 정책 방안 도출</li> <li>• 청소년 마약류 경험자에 대한 회복적</li> </ul> |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고찰 및 분석</li> <li>• 해외사례 분석</li> <li>• 해외 정책 콜로키움</li> <li>•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li> <li>•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및 분석</li> <li>• 정책연구실무협의회</li> </ul>                                                                                                                                                                               |

그림 I-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두 보고서는 동일한 조사 체계를 공유하되, 분석 대상과 초점에 따라 연구 범위에 차이를 두어 수행되었다. <표 I-6>은 과제1과 과제2의 설계 및 분석 범위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양적 설문조사는 동일한 유해약물 포괄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두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다만, <과제1>은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와 위험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에, <과제2>는 일반 청소년의 유해약물 전반 실태와 확산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과제1>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실제 사용으로 전이되는 위험 구조에 주목하여, 인식·태도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역시 <과제1>은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경험 구조에, <과제2>는 중·고등학생의 유형별 유해약물 사용 양상에 초점을 두어 차별화하였다. 한편 정책 제언은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의 전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과제1> 보고서에 종합 수록하였다.

표 I-6. 연구과제별 설계 및 분석 범위 비교

|         | 과제1                                                                                                             | 과제2                                       |
|---------|-----------------------------------------------------------------------------------------------------------------|-------------------------------------------|
| 보고서 제목  | (변경 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유해약물<br>(변경 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b>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b> | <b>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b>           |
| 연구진 구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문헌 연구   | 마약류 중심                                                                                                          | 유해약물 전반                                   |
| 해외 사례   | -                                                                                                               | 미국, 독일, 호주, 일본 사례                         |
| 양적 설문조사 | - 조사대상: 위기청소년<br>- 설문조사 내용: 동일(포괄적 실태 조사)<br>- 마약류 인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심층분석                                         | - 조사대상: 중고등학생<br>- 설문조사 내용: 동일(포괄적 실태 조사) |
| 심층 면접조사 | - 조사 대상: 위기청소년<br>- 조사 주제: 마약류 중심                                                                               | -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br>- 조사 주제: 유형별 유해약물       |
| 정책 제언   |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의 전주기적 통합 정책 제언 제시                                                                                  | -                                         |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이 공식 통계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 가능한 실증 자료를 직접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교정시설 수용 청소년과 마약류 사용 위험군 등 조사 접근성이 매우 낮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심층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성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약물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음주, 흡연, 고카페인, 의료용 약물, 불법 마약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미디어 이용 행태, 가정환경, 또래 관계, 심리·정서 요인 등 약물 사용의 위험 전이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환원하기보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적·거시적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국내 마약류 개념과 현안
- 2.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현황
- 3. 청소년 마약 사용 경험의 원인
- 4.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관련 쟁점
- 5.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관련 대응 논의



## 1. 국내 마약류 개념과 현안

### 1) 국내 마약류 개념

마약류의 개념은 법적 정의와 임상적·기능적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대마, 아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컫는다. 그러나 환각이나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의료적 목적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비의료적 사용이나 오남용의 경우에는 물질 사용 장애의 범주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진정제, 항불안제, 자극제, 수면제 등은 합법적 처방 약물이지만, 남용 시 의존성과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취약성과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 DSM-5-TR(APA, 2024: 132-133, 150-151)에서도 다양한 물질의 사용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심리적 취약성은 물질 사용 문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국내 마약류 관련 환경을 고려하여, 법적 규제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향정신성 물질과 일부 처방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에서 마약류를 정의하고자 한다.

#### (1) 물질(Substance Use)

알코올과 담배는 대표적인 정신 활성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지 기능과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두 물질은 합법적으로 유통되지만, 반복 사용 시 의존과 금단 증상

2) 이 장은 조제성 부연구위원의 초고를 바탕으로, 배상을 선임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였음.

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손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질 사용 장애는 강한 사용 욕구, 사용 통제의 어려움, 내성 증가, 금단 증상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지속하는 패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의존 증후군은 특정 물질에 국한되지 않으며, 알코올과 담배 역시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물질 사용이 다른 정신 활성 물질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음주로 시작된 비행 행동이 대마, 메스암페타민 등 강한 마약류 경험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안동현 외, 2018: 218).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과 담배를 포함한 정신활성 물질 전반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물질 간 전이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2) 자연 마약류(Natural Narcotics)

자연 마약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연 마약류 상당수는 순수한 식물 상태가 아니라 정제·가공 과정을 거친 형태로 유통된다는 점이다. 둘째, 자연 마약류는 헤로인, 코카인 등 정제 마약류의 원재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마약류 생산 및 유통 구조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자연 마약류로는 아편(Opium), 코카잎(Coca Leaf), 대마(Cannabis)가 있다. 이들 물질은 각각 양귀비, 코카나무, 대마초에서 추출되며, 국제적으로도 주요 마약류 원식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1961년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를 통해 국제적으로 제도화되었다(UNODC, 1961: 4-5). 이 외에도 크라툼(Kratom), 카트(Khat)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자연 유래 물질이 존재하나, 국제 시장에서 정제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주요 마약류는 위 세 유형이 중심을 이룬다.

표 II-1. 자연 마약류의 구분

| 분류 | 원료 식물 | 주요 성분    | 대표 효과          |
|----|-------|----------|----------------|
| 아편 | 양귀비   | 모르핀, 코데인 | 진통, 진정, 환각     |
| 코카 | 코카나무  | 코카인      | 각성, 피로도 감소, 흥분 |
| 대마 | 대마초   | THC, CBD | 환각, 기분 고양      |

\* 출처: UNODC. (1961). Narcitic Drug Report. p. 4-5 일부내용과 선행연구를 통해 재구성.

아편은 양귀비에서 채취된 OPIUM 및 주요 알칼로이드(예: Morphine, Codeine)가 주요 성분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마약류의 전형적이 예이다. 복용시 진통, 진정, 환각의 효과<sup>3)</sup>가 있다. 아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는데, 아편에서 추출된 모르핀의 주요 증상으로 이미 확인된 것은 진통이 대표적으로 마취 효과<sup>4)</sup>를 가지나 고용량 복용 시 호흡 억제나 졸립 그리고 환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코카는 코카나무의 잎 그 자체이며, 일종의 자연 유래 “자극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씹거나 차로 음용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코카 잎의 대표적인 성분은 코카인인데, 중추신경계를 자극 하는 코카인 성분은 흥분, 각성, 집중력, 성적 욕구를 증가시키며, 자극제 계열인 코카인은 심박수, 혈압 등 정신적 각성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바 있다(Hans C. B. et. al., 1997: 602). 대마의 경우 가장 잘 알려진 자연 마약류로 THC와 CBD의 2가지 주성분으로 이루어져있다. THC는 환각성 기분변화와 감각 왜곡, 이완, 긴장 감소등의 심리적 효과를 유발<sup>5)</sup>하며, CBD는 비환각성 물질로 불안 완화, 안정을 통해 치료용도로 적합하다는 논의<sup>6)</sup>도 있다. 자연 마약류는 과거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일부 치료 목적으로 활용된 바 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정제 마약류의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합성·가공 과정을 거쳐 고위험 물질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물질은 정제 및 합성 과정을 통해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형태로 시장에 공급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및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3)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Drugs)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이미 마약에 대해 ICD-10<sup>7)</sup>를 통해 1) 약물 사용의 욕구가 스스로에게 강제에 이를정도(의존성), 2) 사용 약물의 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내

3) Wikipedia. Homepage. [https://en.wikipedia.org/wiki/Opium?utm\\_source=chatgpt.com](https://en.wikipedia.org/wiki/Opium?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3일 인출.

4) Wikipedia. Homepage. [https://en.wikipedia.org/wiki/Morphine?utm\\_source=chatgpt.com](https://en.wikipedia.org/wiki/Morphine?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3일 인출.

5) Government of Canada. Home page. [https://www.canada.ca/en/services/health/campaigns/cannabis/health-effects.html?utm\\_source=chatgpt.com](https://www.canada.ca/en/services/health/campaigns/cannabis/health-effects.html?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6) Verywell health. Homepage. [https://www.verywellhealth.com/understanding-cannabinoids-and-what-they-do-8636699?utm\\_source=chatgpt.com](https://www.verywellhealth.com/understanding-cannabinoids-and-what-they-do-8636699?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7)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성), 3) 사용하다가 중단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금단 증상), 4)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의 4개 정의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보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남용부터가 진정한 마약류의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여러 효과(각성, 진통 등)를 목적으로 개발된 약품 중 오용 및 남용의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LSD, 혼한 용어로 필로폰, 줄피렘, 프로포폴 등이 여기 해당된다(대검찰청, 2024: 16).

표 II-2.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 분류 | 품명                                                         | 비고                                                |
|----|------------------------------------------------------------|---------------------------------------------------|
| 가목 | LSD, Methcathinone, Kratom, JWH                            |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 나목 | Amphetamine, Methamphetamine, MDMA, Ketamine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 다목 | Barbital, Lysergic acid amide, Flunitrazepam               |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 라목 | Diazepam, Fenfluramine, Zolpidem, GHB, Zopiclone, Propofol |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 출처: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p. 14. 재구성

가목은 의료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강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특성을 지닌다. 나목은 제한된 의료 목적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나, 심각한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을 포함한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다목은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며,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류된다. 라목은 의료적 활용성이 인정되며, 다목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 위험이 더욱 낮은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가목에서 라목으로 갈수록 중독성과 환각 효과의 강도는 감소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4) 합성 마약

합성 마약은 자연 식물에서 직접 추출된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 합성 과정을 통해 제조된 정신활성 물질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Fentanyl)은 대표적인 합성 오피오이드에 해당한다. 합성 마약은 작용 기전과 약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① 합성 오피오이드류, ② 합성 자극제, ③ 합성 환각제, ④ 디자이너 드럭(신종 합성 마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합성 오피오이드는 강력한 진통 효과와 함께 높은 의존성과 치명적 호흡 억제 위험을 수반하며, 소량으로도 과다복용(overdose)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상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UNODC(2020)의 논의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는 천연 재료(아편의 모르핀, 코데인 등)를 화학적으로 변형 또는 새로운 구조로 합성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트라마돌, 메타돈, 펜타닐이 된다. 당연히 효과는 진정과 진통이 있고 도취감을 겸하여 느낄 수 있다. 다만, 앞서 정의된 물질, 자연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이러한 마약은 작제는 호흡억제, 급성 중독, 사망위험에 이를 수 있으며, 펜타닐의 경우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진통효과이면서 당연히 위험성도 그만큼 큰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합성 자극제의 경우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 흥분을 유발하는 합성물질로 정의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필로폰<sup>8)</sup>, MDPV, 메페드론 등 강력한 각성제나 집중력 향상의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자극제는 지속 복용했을 때 오히려 불면, 망상, 정신병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해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려로 합성 마약에 대해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WHO, 2025: 11). 합성 환각제는 말 그대로 지각, 감각, 사고에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 합성 환각 물질로 대표적인 물질은 2c-b, DOM, NBOMe 등이 있다. 물질의 효과로는 환각, 시공간의 왜곡, 감각의 과민등이 되며, 공황발작이나 정신병적 증상 그리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문제가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유럽 사회에서 GHB와 케타민의 합성 마약에 대한 동일한 문제점과 LSD에 따른 환각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미 오래전 지적하고 있었다(EMCDDA, 2019: 54). 마지막 디자이너 드럭은 일명 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로 기존 마약류와 화학구조는 유사하지만

---

8)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과 혼동해서 안되는 것은 의약품으로서 만들어진 필로폰(그 밖의 다른 합성 마약도 동일함)은 순수한 의약품으로서 분류되기도 하지만 강한 자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조합된 물질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로 이해해야함

법률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탄생한 신종마약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합성 대마초 등이 여기 해당되며, 탄생의 목적에 맞게 당연히 기존 마약류 증상보다 환각, 각성 등의 증상이 더 높게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이너 드럭의 핵심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이다. 이는 쉽게 이야기 하면, 역설적으로 순도가 높은 마약류가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유해하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복용방법, 복용량 등에 따라 위험성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점과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현상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NPS 총 1,000종을 모니터링<sup>9)</sup>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그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합성 마약은 신종 물질의 출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분류 체계와 대표 물질, 약리적 효과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하의 정리는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3. 합성 마약 분류

| 분류       | 대표 물질 <sup>1)</sup> | 주요 효과        | 위해성          |
|----------|---------------------|--------------|--------------|
| 합성 오피오이드 | 펜타닐, 메타돈, 트라마돌      | 진통, 진정, 도취감  | 호흡억제 사망위험    |
| 합성 자극제   | 메쓰암페타민, 암페타민        | 각성, 피로감소, 흥분 | 중독, 망상 정신병   |
| 합성 환각제   | LSD, 2c-b, NBOMe    | 환각, 지각왜곡     | 공황발작 정신병적 증상 |
| 디자이너 드럭  | 합성 대마초, 합성 카티논      | 기존 효과 증대     | 예측 불가        |

출처 : EUDA Homepage. [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에서 2025년 09월 11일 인출 내용, WHO. (2025). WHO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보고서 내용,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 and Drug Addiction. (2019). European Drug Report.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주: 1) 대표물질은 자칫 항정신성의약품과 자연 마약류로 오해될 수 있으나 여기서 언급된 대표물질은 합성된 상태의 물질로 변형된 화학구조나 전혀 다르게 재조합된 물질로 이해해야함

## 2) 국내 마약류 관련 현안

최근 국내 마약 문제는 과거의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 마약의 유입 증가와 사용자 수 확대는 공공안전 및 청소년

9) EUDA. Homepage. [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에서 2025년 09월 11일 인출.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단속 및 수사 강화 등 법 집행 중심의 대응이 확대됐으나, 중독 문제의 특성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수요 억제와 재사용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관계망 등 ‘사회적 자본’의 구조와도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마약 광고 노출, 관계 맥락에서의 부정적 자극, 낮은 자기통제력은 마약 경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조제성, 강소영, 2025). 이는 청소년의 마약 경험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마약 광고 노출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개 요인으로 기능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를 형성한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SNS를 통해 광고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기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은 의도하지 않게 관련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텔레그램, 다크웹 등 비가시적 공간을 통한 유통 및 홍보 역시 병행되고 있어, 청소년을 둘러싼 마약 접근 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마약이 온라인 공간에서 홍보되는 현상은 거래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마약 유통이 다크웹, 보안 메신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과 단속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이원상, 2020: 357-358).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 방식은 자금 흐름을 은폐하는 데 용이하여,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유통 구조는 청소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증가는 단순 소비 차원을 넘어,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청소년이 운반 역할 등으로 가담하는 사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수요자이자 공급 구조의 일부로 동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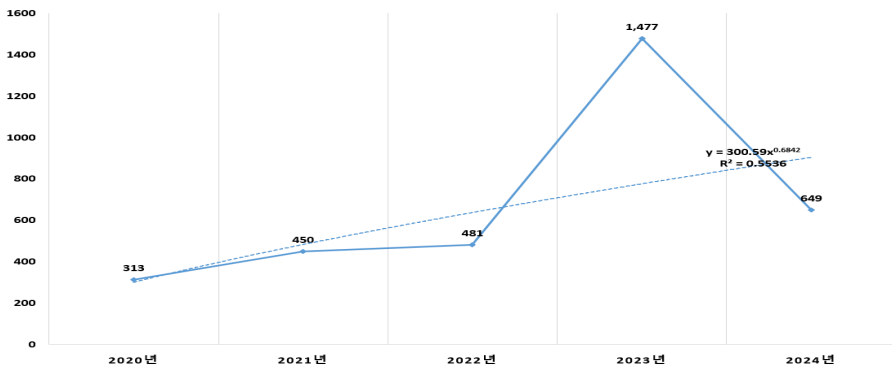
최근 마약류 사범 통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부 확인된다. 지난 5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 비율은 평균 3.04%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1,477건으로 급증하였다. 2024년에는 649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유통 확대와 국제적 공급망 확장이 청소년의 마약 노출 및 접근성을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4. 청소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2020년-2024년)

| 구분    |    | 19세 미만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마약류 사범 전체 현황 |
|-------|----|---------------------|--------------|
| 2020년 | 건수 | 313                 | 18,050       |
|       | 비율 | (1.7)               | (100.0)      |
| 2021년 | 건수 | 450                 | 16,153       |
|       | 비율 | (2.8)               | (100.0)      |
| 2022년 | 건수 | 481                 | 18,395       |
|       | 비율 | (2.6)               | (100.0)      |
| 2023년 | 건수 | 1,477               | 27,611       |
|       | 비율 | (5.3)               | (100.0)      |
| 2024년 | 건수 | 649                 | 23,022       |
|       | 비율 | (2.8)               | (100.0)      |

\* 출처: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p. 196-197.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선형 추세선으로 분석한 결과, 결정계수 $R^2=0.5536$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2023년의 급증은 일시적 요인과 단속 강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 마약류 사범 규모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 출처: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p. 196-197. 재구성

주: 1) 2024년 감소된 수치는 정책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것이 “압수”화 되었는지 새로운 마약류(검출 어려움 등)의 등장 때문인지 속단하기 어려워 전체 추세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해석해야 함

그림 II-1. 청소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추세 현황<sup>1)</sup>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마약 유통이 국제 조직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다. UNOD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마약 거래가 카르텔 및 다국적 범죄조직과 결합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ODC, 2024a: 13-35). 이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역시 국제 범죄 구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약의 국제 유통과 관련하여, 밀입국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운반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유재두, 노호래, 2018: 134-135). 해외 사례에서도 코카인이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운반되는 등 해상 경로를 통한 이동이 주요 유통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경제 외, 2021: 72-75). 이러한 국제적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해상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잠재적 경유지 또는 유입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다국적 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 유통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일명 '강남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관된 사례로 보도되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시도가 조직적·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우편을 통한 소량 밀반입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국제 유통 방식은 더욱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청소년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 유통과 국내 소비 구조를 연계한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국내 청소년과 마약류 관련 동향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인되기도 한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과거 특정 조직범죄의 영역으로 다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청소년이 이러한 유통과정에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의 마약류 경험은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 착취 등의 피해나 사기 및 갈취 그리고 도박이라는 여러 범죄가 피해의 매개요인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송혜진, 오세연, 2023: 139; 조제성, 김다은, 2024: 132). 또한 이러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청소년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마약류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범죄가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이은영, 전영규, 2022: 88), 청소년 마약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현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마약의 국내 현안은 크게 1) 마약류 사용에는 복합적 요인 존재, 2) 범죄조직 연관성, 3) 온라인 및 국제화된 유통 시장, 4) 각 종 범죄의 가·피해 연관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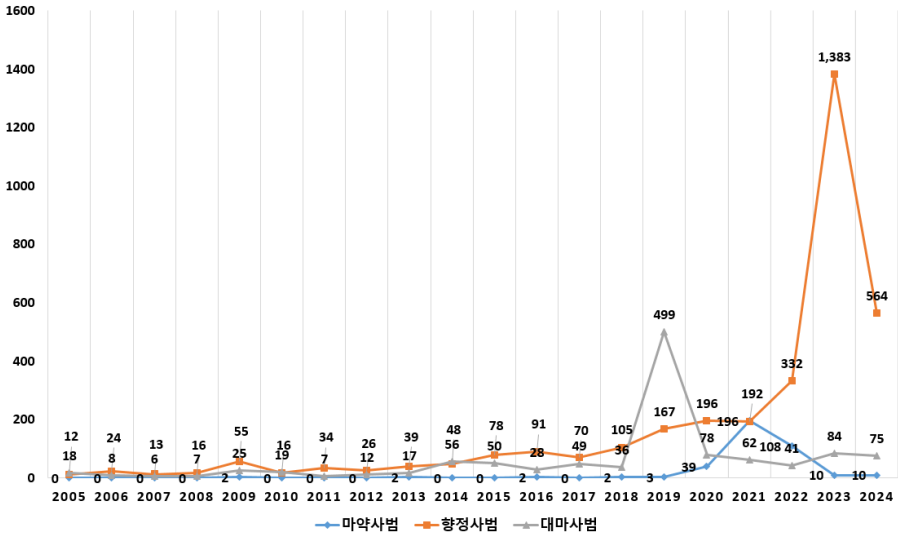
## 2.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현황

위기청소년 범주에 해당하는 마약류 사용 현황은 현재까지 별도로 구축된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위기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왔다. 최근 수행된 마약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10대 청소년을 일반 집단과 위기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소년 전반의 마약류 사용 현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영역은 크게 ① 형사사법 체계 내 적발된 마약사범 현황, ② 의료용 마약류 이용 현황, ③ 압수 마약류의 검출 현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관련 마약 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최근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1) 청소년의 마약류 단속 현황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향정신성의약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19세 이하 단속 건수는 마약 10건(0.6%), 대마 75건(2.2%), 향정신성의약품 546건(3.2%)으로 나타났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대검찰청, 2025: 71). 이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서 전통적 마약이나 대마보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증가는 청소년 집단뿐 아니라 20대와 30대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대검찰청, 2025: 2001). 이러한 연령대별 동향은 청소년기의 향정신성의약품 오용 및 남용이 이후 성인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 출처: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p. 198, 200, 20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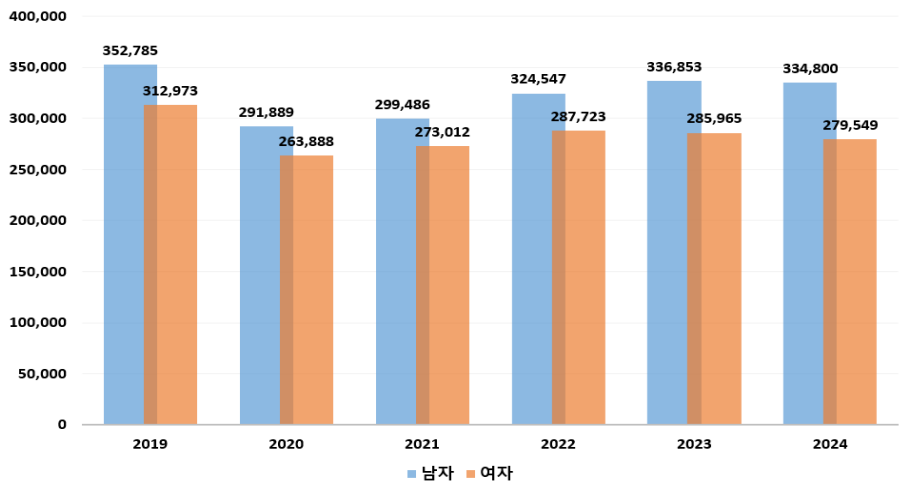
그림 II-2. 청소년 마약류 사범 유형별 단속 추세 현황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유형별 단속 추세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범죄 사실의 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이른바 ‘지계꾼’ 또는 ‘드라페’로 불리는 유통·운반 역할에 청소년이 관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2024년 A지검 관할 사건에서 해당 유형으로 적발된 16명 중 4명이 청소년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2명은 단순 가담이 아닌 공모 형태로 기록되었다(대검찰청, 2025: 103-104). 이는 청소년이 단순 소비자 수준을 넘어 마약 유통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는 사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일시적·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 범행에 연루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경계가 요구된다.

## 2)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 현황

의료용 마약류 현황은 청소년 마약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단속 추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마 및 전통적 마약은 감소한 반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남희, 이선형, Weisheit, 2023: 27). 해당 연구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으로

단속된 청소년 사범은 2021년 192건에서 2022년 332건으로 증가하여 약 1.72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0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자 수 변화와도 일정 부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합법적 의료용 처방을 둘러싼 관리 체계와 오·남용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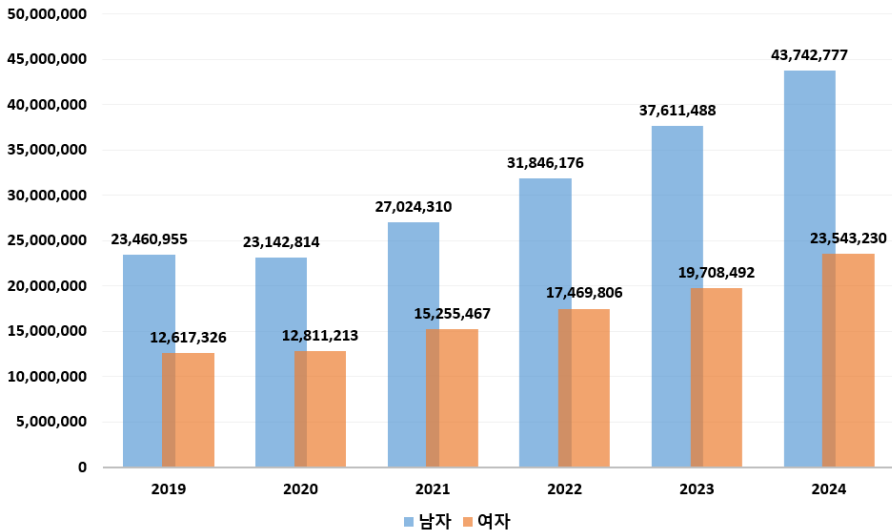
\* 출처: KOSIS.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에서 2025년 09월 15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그림 II-3.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자 수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청소년의 처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여성 청소년은 2022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자 수가 곧바로 중독 또는 불법 사용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 집단에서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 및 모니터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충동성, 자기통제력의 미성숙, 또래 영향 등에 취약한 발달 단계에 해당하므로, 의료적 처방 이후의 복용 관리와 오·남용 예방 체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은 향후 비의료적 사용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점검하는 관점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출처: KOSIS.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에서 2025년 09월 15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그림 II-4.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개)

처방자 수뿐 아니라 처방량 역시 중요한 지표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남성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여성 청소년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며, 2024년 기준으로는 약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다. 일부 차이는 체격이나 대사 능력 등 생리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격차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처방 구조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처방약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일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이른바 ‘중복 처방’ 또는 ‘처방 쇼핑’ 가능성은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적 오남용뿐 아니라 조직적 수집 및 유통으로 연결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처방량 증가 자체를 곧바로 불법 유통이나 중독 확산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집단, 특히 가출 청소년 집단 내에서 의료용 마약류 경험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김남희 외, 2024: 318). 이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와 청소년 보호 정책을 연계하여 보다 정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3) 청소년 압수품 중 마약 검출 현황

압수품에 대한 마약류 검출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총 30,669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국내에서는 분말 형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사기, 식물 자체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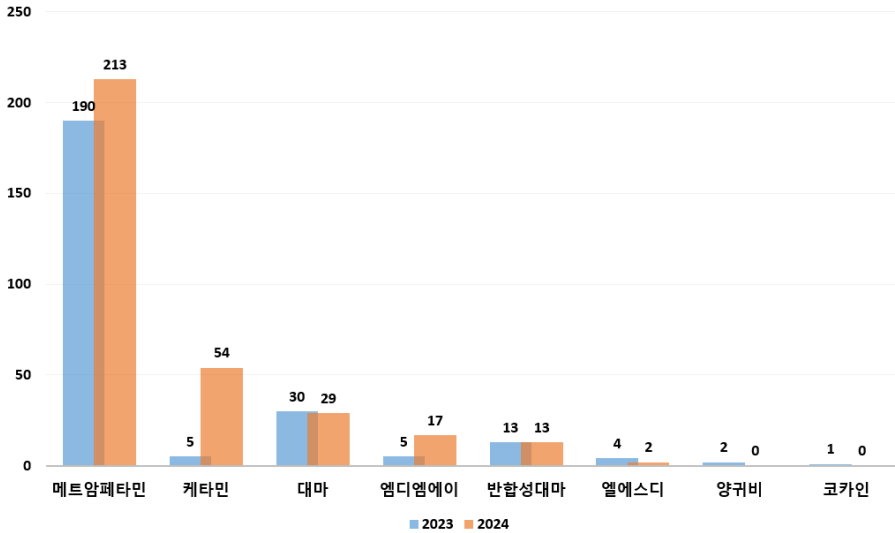
청소년 관련 사례를 별도로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총 136건 중 89건이 분말 형태, 34건이 주사기 형태였으며, 케타민은 총 33건 중 28건이 분말, 1건이 주사기 형태로 나타났다. 식물 형태로만 소지가 가능한 대마와 양귀비를 제외하면, 청소년 관련 검출 유형 역시 전체 동향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 96-98).

이러한 현황은 특히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더욱 우려되는 지점이다. 마약 복용은 과거 일부 특정 약물을 제외하면 폐쇄적·은밀한 범죄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른바 ‘가출팸’, ‘그룹 복용’ 등의 형태로 집단화·일상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상태 왔다<sup>10)</sup>’와 같은 은어가 형성되어 사용될 정도로, 마약 복용 경험이 또래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코드로 작동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 경험 청소년은 개인적 위험 인식보다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의 영향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마약 사용의 집단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김남희 외, 2024: 318). 즉, 마약 사용이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또래 집단 내 관계 맥락 속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 집단은 구조적으로 더 높은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

10) 함께 마약류를 복용한 뒤 마약에 취한 모습에 대해 기억을 잃은 친구에게 설명하는 용어로 마약 복용 효과가 왔다는 의미로 사용됨



\* 출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3). 마약류 감정백서. p. 68,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4). 마약류 감정백서. p. 94. 재구성

주: 1) 각 연도별 불일치된 항목(델타9-THC, 지에이치비, 합성대마는 비교에서 제외하였음)

## 그림 II-5. 청소년 압수된 마약류 현황<sup>1)</sup>

청소년 압수 마약류 현황을 2024년 기준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메스암페타민이 190건에서 213건으로 증가되었으며, 케타민의 경우 5건에서 54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대마의 경우 30건에서 29건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옴디엠에이는 5건에서 17건 증가해 3배 이상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합성대마도 각각 13건으로 수치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압수된 마약류 현황을 곧바로 청소년의 실제 사용 양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이 주로 노출되는 유통 경로와 접점이 온라인·집단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 물질의 유형과 변화 양상은 잠재적 노출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도별 비교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매년 새롭게 검출되거나 관리 대상으로 추가되는 물질이 상이하여 통계 항목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순 수치 증감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보다는, 검출 유형의 다양화와 고위험 물질의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는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마약류의 유형이 해를 거듭하며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지닌 대표적

마약으로, 해당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고위험 마약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헤로인 등 이른바 ‘하드 드럭(hard drug)’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2024년부터 통계에 포함된 합성대마의 경우, 주로 20~30대에서 남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0대 특히 위기청소년 집단에서도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4: 93-94)은 그 원인 중 하나로 합성대마의 외형이 전자담배와 유사하여 사용 방식이 니코틴 흡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압수 마약류 현황을 통해 ① 마약류 유형의 다양화, ② 위기청소년 집단에서의 고위험 약물 노출 가능성, ③ 합성대마 사용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 3. 청소년 마약 사용 경험의 원인

#### 1) 사회 관계적 요인

그렇다면 청소년이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로와 원인은 무엇일까? 범죄학에서는 범죄 억제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유대(social bond)를 강조한다.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이 안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사회적 통제 효과가 강화되어 일탈 가능성이 낮아진다.

최근 연구 역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비행 행동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Kemppainen et al., 2024).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가정 내 갈등과 정서적 단절은 청소년의 마약 사용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의 약화는 범죄 및 일탈과 연관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도 연결된다(Sampson & Laub, 1993; Mears & Stafford, 2022). 특히 오래나 친밀한 관계망 내에서 이미 마약 또는 유사 유해약물에 노출된 인물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의 위험 행동 가능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예방과 개입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지점은 가족 관계의 안정성, 오래 네트워크의 특성, 그리고 청소년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의 위험 노출 수준이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동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 사용 진입 동기 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요인은 ‘호기심’이며, 또래 집단의 압력과 문화적 영향이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선영·박현나·배성희, 2023). 특히 체중 감량이나 학업 집중과 같은 도구적 목적이 결합될 경우, 해당 약물을 ‘각성제’ 또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여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박선영·박현나, 2023a).

아울러 청소년기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과 낮은 자존감은 또래 문화 속에서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취약성은 성인보다 빠른 중독으로 연결될 위험을 높인다(박소희·홍가혜, 2023). 따라서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뿐 아니라, 가족 및 또래 관계에서의 안정적 사회적 지지망 형성이 중요하다(최유정·신소라, 2022). 결국 청소년의 마약 사용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기보다, 가족과 또래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 심리적 요인

청소년 마약 사용의 심리적 원인은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가치의 상실, 부정적 경험, 목표 달성의 좌절 등으로 형성된 긴장은 분노·좌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일탈이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핵심은 긴장 상태 자체가 아니라,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다.

다만, 모든 긴장 상태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가 범죄 기회를 접했을 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Morselli & Tremblay, 2004; McCarthy & Hagan, 2001; Lin, 2001; Descorimiers et al., 2011). 즉, 긴장 요인과 더불어 그 상황에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계망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청소년 마약 사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의는 가족 및 또래 요인과 긴밀히 연결된다. 최근 연구는 ① 부모의 마약 사용, 가족 갈등 등 가정 내부 요인, ② 친구의 마약 경험과 같은 또래 요인, ③ 비규범적 지역사회 환경 등 외부 구조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다(Zainudingasa et al., 2023). 또한 주변의 권유에 대해 이를 제어하거나 차단할 보호적

관계가 부재한 경우,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Wu et al., 2024). 이는 긴장 자체보다 ‘통제 기능의 약화’가 보다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성, 높은 감수성, 스트레스, 외로움 등 내재적 요인 역시 약물 의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태우·유수동, 2021). 폭력 피해 경험과 같은 외상적 사건은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강화하여 약물 남용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최유정·신소라, 2022).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 또래 문화의 영향이 마약류 남용과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박소희·홍가혜, 2023).

### 3) 사회 구조적 요인

청소년 마약 사용은 개인적·심리적 요인에만 환원될 수 없으며, 사회 구조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빈곤 지역에서는 예방·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범죄 노출 위험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FarrHenderson et al., 2024). 실업,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역시 마약 관련 범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Niazi et al., 2023).

마약 중단과 관련하여 가족 관계 개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나(Wah et al., 2024), 고용 유지나 사회적 안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단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izuno et al., 2024). 이는 성인 연구에서 주로 제기된 논의이나, 소년 원 수용 이후 사회로 복귀하는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즉, 재할 이후의 교육·고용·사회적 지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 재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마약 사용 경험이 있는 또래와의 네트워크 지속은 재발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된다(Rolova et al., 2023). 마약 사용자와의 지속적 교류 자체가 재발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망 관리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된다. 가정 내 갈등, 부모의 부재, 과도한 학업 경쟁, 사회적 차별과 고립감 역시 청소년의 마약 노출 취약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용주 외, 2023). 이는 양육 기능 약화, 학교 경쟁 구조, 유해환경 노출 등과 맞물려 마약 사용 위험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태우·유수동, 2021).

결국 청소년 마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 관리 체계, 사회경제적 구조, 경쟁 중심 문화, 정책 집행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

성수, 2023). 특히 처벌 중심 정책과 높은 재범률의 구조적 연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성인 중심의 대응 체계가 청소년에게 충분히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 역시 지적된다(박소희·홍가혜, 2023). 따라서 예방과 재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에 국한된 접근을 넘어, 교육·고용·가족·지역사회 차원의 통합적 개입 구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 4) 온라인 유통 및 확산 요인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의 배경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불법 유통 경로의 확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모방효과와 호기심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김태우·유수동, 2021), 이는 초기 관심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보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요인은 실제 온라인 노출 환경이다. 청소년의 마약 노출은 SNS 상의 마약 광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호기심으로 시작된 사용이 중독으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불법 광고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험성을 지닌다(이은영·전연규, 2022).

문제는 단순 노출을 넘어, 온라인 환경이 청소년을 유통 과정에 직접 개입시키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SNS, 다크웹, 가상화폐,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은 접근성과 은닉성을 동시에 높이며, 청소년이 수요자뿐 아니라 운반·중개 역할에까지 노출되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박소희·홍가혜, 2023). 최근 펜타닐과 같은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과정에서 청소년이 반복 처방에 동원되는 사례도 보고되었으며(양혜정·김채윤, 2022), 저가 신종마약의 확산 역시 청소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용주 외, 2023). 이는 온라인 공간이 단순한 정보 노출의 장을 넘어 조직적 유통 구조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 마약류 사용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유대의 약화, 부정적 긴장과 정서적 취약성,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마약 유통의 온라인화 및 또래 네트워크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족과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진입과 중단, 재발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정책적 개입의 주요 지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4.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관련 쟁점

### 1) 연령 하향화 및 관문이론에 대한 논의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마약사범의 비중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SNS와 다크웹을 통한 접근성 확대, 마약 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장지수 외, 2024),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냈다(오규철, 2024).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용 동기 또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다이어트, 외모 관리, 근육 강화 등 구체적 목적과 결합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우현재, 김혜영, 2025). 마약 범죄의 특성상 암수 범죄 규모가 상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연구는 마약 범죄의 암수율을 28배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실제 사용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지적한다(박선영, 박현나, 2023b).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마약 사용 연령의 하향화는 통계 수치 이상으로 심각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사용 연령의 하향화는 ‘관문이론(gateway theory)’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흡연 기간이 길수록, 음주량이 많을수록 마약 사용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허원빈, 오영삼, 2023) 유해물질 사용 경험이 보다 강한 약물로 전이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기 음주·흡연 경험을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중심 예방교육은 여전히 정보 전달 위주의 강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성용은, 2024). 특히 다이어트약, 집중력 향상제 등 ‘기능성 약물’의 외형을 띠는 물질이 중독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청소년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청소년 마약류 사용 연령의 하향화와 관문적 전이 가능성은 단순한 단속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유해물질 경험 관리와 인식 개선을 포함한 다층적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 2) 청소년 사용 경험 마약류의 비중 변화

최근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박선영, 박현나, 2023b). 이는 대마나 전통적 마약류보다 의약품성



향정류에 대한 접근성과 오남용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펜타닐, 합성 대마, 합성 오피오이드 등 신종 합성 마약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을 악용해 펜타닐 패치, 다이어트 약, ADHD 치료제 등을 대량 확보하거나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옥필훈, 2025). 이는 단순 사용을 넘어 유통 과정에 청소년이 개입하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NS, 다크웹, 가상화폐 기반 거래, ‘던지기’ 방식 등 비대면 유통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청소년이 사용자에서 판매·운반 등 범죄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박한솔, 김민, 2025). 알고리즘 기반 광고 노출 역시 호기심 기반 접근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성훈, 2025).

종합하면, 청소년 마약류 사용 경험의 비중 변화는 단순히 특정 약물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유통 구조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소비자이자 유통 참여자로 중첩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약물 유형의 재편뿐 아니라 정보 확산 경로와 유통 네트워크의 구조 변화와도 연결되며, 이는 다시 청소년 집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주의가 요구된다.

### 3) 마약사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 및 환각물질 사용은 비경험 집단과의 비교에서 개인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행복감, 소외감, 자살충동, 친구관계 스트레스 등이 제시되며, 구조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력·직업, 가정 구조, 교사의 불공정 경험 등이 포함된다(오규철, 2024).

범죄학 이론과 최근 연구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확인된다. 마약 중독자의 성장기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부모의 중독, 학대 및 방임, 빈곤, 애착 외상 등 가정 내 위험 요인이 청소년기 부적응 및 일탈행동과 결합되며 중독 위험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성혜연, 2024). 이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가정환경과 양육 경험, 개인의 기질 및 발달 경험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합적 결과임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마약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역시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일부 청소년은 이를 ‘강한 중독물질’로 인식하지 않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복적 미디어 노출과 온라인 정보 확산은 이러한 인식 왜곡을 강화하며, 사용에 대한 죄책감이나 문제의

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조아라 외, 2024).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또래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영향의 매개로 기능한다. 학업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우울·불안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또래 집단 내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과 왜곡된 정보가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또래 압력과 결합해 사용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김광래, 이상열, 2024). 청소년기 특유의 낮은 위험 인식과 또래 동조 성향, 자아정체감의 불안정성, 가족 갈등 등이 중첩될 경우 마약 사용 가능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최성훈, 2025).

종합하면,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은 개인의 정서적 취약성, 가정환경과 양육 배경, 왜곡된 약물 인식, 온라인 기반 또래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 4) 마약사용 관련 폐해와 대응 필요성

청소년 마약 사용의 정신적·신체적 폐해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용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범불안장애(GAD)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이현희, 전종설, 2025: 176-178). 이는 마약 사용이 단순한 비행 차원을 넘어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임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마약 사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예방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박한솔, 김민, 2025: 208).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마약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이봉한, 2025: 386).

마약 사용이 청소년의 신체적 손상과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용의 폐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기 예방과 사전 개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정신건강 지원, 위험군 조기 발견, 회복 지원 체계와 연계된 통합적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 5) 마약류 사용 경험 청소년과 범죄 메커니즘

마약류 사용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범죄 메커니즘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기존 비행 경험이나 취약한 사회적 관계망과 결합되면서 범죄

구조에 편입될 위험이 더욱 크다.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일부 위기청소년은 또래와 함께 마약을 공동 사용하거나, 성매매 과정에서 성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접하는 등 범죄적 상황과 결합된 사용 경험을 보이기도 했다(김남희 외, 2024).

Putnam(2000)의 논의를 적용하면, 또래 집단 내에서 마약 사용이 지속될 경우 범죄적 사회적 자본(Criminal Social Capital, CSC)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가해·피해 양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마약 사용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 네트워크가 유지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Tando & Damanik, 2024).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개인은 범죄 조직이나 비공식 유통망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Jiang, 2024), 빈곤, 낮은 교육 수준, 실업 등 구조적 요인 역시 이러한 경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Ali, 2023).

이러한 맥락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단순한 개인 교정 차원을 넘어 또래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개입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경우, 마약 사용 또래 집단과의 지속적 연결이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수용·재활 단계에서의 관계 재구성 전략이 중요하다. 다만, 분리 조치가 낙인 효과를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통합적 관리와 개별화된 개입 설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표 II-5. 국내·외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2024년-2025년)

| 현안 및 쟁점    | 선행연구                                                                                                                                                               | 주요 내용                                                                                                                                                                                                                                                                                                                                                                                                                                       |
|------------|--------------------------------------------------------------------------------------------------------------------------------------------------------------------|---------------------------------------------------------------------------------------------------------------------------------------------------------------------------------------------------------------------------------------------------------------------------------------------------------------------------------------------------------------------------------------------------------------------------------------------|
| 유통관련 현안    | 박한솔·김민(2025)<br>최성훈(2025)<br>옥필훈(2025)<br>성용은(2024)<br>UNODC(2024)<br>대검찰청(2025)<br>이은영, 전연규(2022)<br>이경제 외(2021)<br>이원상(2020)<br>유재두, 노호래(2018)<br>조제성, 강소영(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자본(광고 노출, 부정적 자극, 낮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마약 경험에 영향을 미침</li> <li>• 온라인 SNS 광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 결합으로 유통 구조 다변화</li> <li>• 국제 조직범죄, 밀입국 브로커, 해상 운반 경로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존재</li> <li>• 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했으며 2023년에 최고치를 기록</li> <li>• 학교 연계 예방교육은 강사 중심 전달식으로 한계 존재</li> <li>• 펜타닐, 합성 오피오이드,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의 오남용이 증가</li> <li>• SNS 알고리즘과 온라인 광고 노출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이 유통, 판매, 밀수에 직접 가담하는 범죄 네트워크화 양상 존재</li> </ul> |
| 마약류 사용의 원인 | 최유정, 신소라(2022)<br>박소희, 홍가혜(2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자녀 갈등과 가정 내 긴장이 비행 가능성을 높임</li> <li>• 또래 압력, 가족관계 문제, 사회적 유대 약화가</li> </ul>                                                                                                                                                                                                                                                                                                                     |

| 현안 및 쟁점            | 선행연구                                                                                                                                                                                                                                                                                                                                                                                                                                                                  | 주요 내용                                                                                                                                                                                                                                                                                         |
|--------------------|-----------------------------------------------------------------------------------------------------------------------------------------------------------------------------------------------------------------------------------------------------------------------------------------------------------------------------------------------------------------------------------------------------------------------------------------------------------------------|-----------------------------------------------------------------------------------------------------------------------------------------------------------------------------------------------------------------------------------------------------------------------------------------------|
|                    | 박선영, 박현나,<br>배성희(2023)<br>박선영, 박현나(2023b)<br>김남희, 이선행,<br>Weisheit(2023)<br>Niazi et al.(2023)<br>이은영, 전연규(2022)<br>김태우, 유수동(2021)<br>Wu et al.(2024)<br>Kempainen et al.(2024)<br>FarrHenderson et<br>al.(2024)<br>Mizuno et al.(2024)<br>Wah et al.(2024)<br>Rolova et al.(2023)<br>Zainudingasa et al.(2023)<br>Sampson & Laub(1993)<br>Mears & Stafford(2022)<br>Descorimiers et al.(2011)<br>McCarthy & Hagan(2001)<br>Morselli &<br>Tremblay(2004)<br>Lin(2001) | 청소년의 마약 사용을 촉진<br>• 긴장 상태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는 범죄 선택에<br>용이<br>• 실업,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br>취약성을 심화<br>•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정서 불안, 폭력 피해가 남용<br>위험을 높임<br>• SNS 광고와 왜곡된 정보 노출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br>약화 및 죄의식 감소<br>• 또래와의 관계망 속에서 권유를 방어할 보호자 부재가<br>위험 요인<br>• 지역사회 관리와 정책 감시 부재는 문제를 구조적으로<br>심화시키는 요인 |
| 위기청소년<br>마약류 사용 특성 | 우현재, 김혜영(2025)<br>장지수 외(2024)<br>오규철(2024)<br>하원빈, 오영삼(2023)<br>김남희 외(2024)                                                                                                                                                                                                                                                                                                                                                                                           | • 청소년 마약사범은 최근 4년간 급증했고 19세 이하<br>연령층이 뚜렷하게 증가<br>• 일반청소년의 경우 향정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음<br>• 일부 위기청소년은 처음부터 하드드럭에 노출<br>• 일반 청소년의 경우 다이어트, 외모 관리, 근육 강화<br>목적의 사용 경향이 확인<br>• 흡연과 음주는 강한 약물(마약류) 사용으로 이어질<br>가능성이 있어 관문이론 검증이 필요<br>• 위기청소년은 또래 집단과 함께 마약을 사용하거나<br>불법 아르바이트로 유통에 가담하는 특징 존재           |
| 개인의 피해와<br>범죄 연계   | 이현희, 전종철(2025)<br>이봉환(2025)<br>박한솔, 김민(2025)<br>조제성, 김다은(2024)<br>송혜진, 오세연(2023)<br>김남희 외(2024)<br>Ali(2023)<br>Jiang(2024)<br>Tando & Damanik(2024)                                                                                                                                                                                                                                                                                                                  | • 청소년 마약 사용자는 불안, 우울, 학업 성취 저하<br>등 정신/신체적 피해가 큼<br>• 예방 연구는 부족하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낮아 모방<br>위험이 큼<br>• 마약 경험은 성 착취, 사기, 갈취, 도박 등 다른 범죄와<br>결합될 가능성이 있음<br>• 낮은 사회적 자본은 범죄조직과의 연결을 촉진함<br>• CSC(Criminal Social Capital)가 형성되면 또래<br>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재범 위험이 높아지고 범죄                                     |

| 현안 및 쟁점 |                      | 선행연구                                                            | 주요 내용                                                                                                                                                                                     |
|---------|----------------------|-----------------------------------------------------------------|-------------------------------------------------------------------------------------------------------------------------------------------------------------------------------------------|
|         |                      | Putnam(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크화가 강화</li> <li>위기청소년의 경우 또래(마약류를 여전히 사용중인 또래)와의 분리가 필요</li> </ul>                                                                              |
| 기타 논의   |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와 저연령화    | 오규철(2024)<br>옥필훈(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li> <li>특히, 19세 이하 연령층의 마약 사범 비중은 낮으나 증가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아 매우 심각함</li> </ul>                                                |
|         | 향정신성의약품 중심 남용        | 박선영, 박현나(2023b)<br>이무송(2022)<br>우현재, 김혜영(2025)<br>박한솔, 김민(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마약사범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펜타닐 패치,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li> <li>청소년은 치료제로 왜곡된 상태로 인지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li> </ul>                                   |
|         | 디지털 환경 접근 용이성 증가     | 장지수, 최승원, 황은주(2024)<br>박한솔, 김민(2025)<br>최성훈(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온라인 거래 일반화 (던지기 등)</li> <li>이용자에 대한 쟁점 이외에도 판매, 운반, 밀수 등 범죄 가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li> </ul>                                                          |
|         | 정신건강 악화와 심리적 취약성     | 이현희, 전종설(2025)<br>성혜연(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마약 사용자의 건강 악화 (범불안장애, ADHD, 우울, 불안 등 발생)</li> <li>청소년의 경우 마약 사용 요인과 관련해 가정환경의 학대 및 방임, 애착 외상, 학교 부적응이 성장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함</li> </ul>    |
|         | 체형 인식과 외모 스트레스       | 우현재, 김혜영(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곡된 체형 인식과 외모 스트레스가 주요한 마약류 사용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 청소년 : 식욕 억제제</li> <li>- 남자 청소년 : 근육 강화 스테로이드</li> </ul> </li> </ul> |
|         | 마약 사용원인 가정의 역할과 개인요인 | 조아라 외(2024)<br>김광래, 이상열(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인지 (강한 중독에 대한 위험성 배제 등)</li> <li>청소년기 학업, 외모 스트레스 및 또래의 권유</li> <li>미디어의 광고를 통한 노출</li> </ul>                                          |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주요 현안과 쟁점은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 ①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와 연령 하향화,
-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심의 남용 확산
- ③ 디지털 환경을 통한 접근성 확대
- ④ 정신건강 악화 및 심리적 취약성과의 연계
- ⑤ 체형 인식 및 외모 스트레스와의 결합
- ⑥ 가정 환경과 개인 경험 요인의 영향

최근 논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위반을 제외하더라도, 청소년 전반에서 마약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위험성에 대한 둔감화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유통 경로 확대, 알고리즘 기반 광고 노출 등 디지털 환경의 변화가 마약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연령 하향화와 맞물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용이 선택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관련 대응 논의

### 1) 국내 대응 논의

국내에서는 주로 법·제도 강화와 수사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두어 왔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기반 마약 범죄 집단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범죄집단 개념에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상 조직적 거래 역시 범죄집단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범죄수의 입증의 어려움, 몰수제도의 한계, 제보자 신변보호의 미흡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주로 마약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 차원에 머무르며, 청소년의 사용 경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 예방 전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유통은 텔레그램, 비닉성 메신저, 가상화폐 활용 등으로 수사에 구조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으며(이원상, 2020), SNS를 통해 구매한 마약을 디딤을 통해 재판매하는 사례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박호정, 2018).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홍보 구조 자체를 차단하거나 관리하는 정책적 접근이 별도로 요구된다.

한편,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는 ① 심리치료 개입, ② 충동 및 감정조절 중심의 행동수정 프로그램, ③ 가족 중심 개입 전략 등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취약성과 가정 요인이 핵심 변수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마약 영역에서는 사회적 낙인 완화가 재사용 방지와 치료 지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마약 사용자와 주거 불안정 상태의 연관성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로 성인 사례에 기반한 논의이지만, 가정 밖·학교 밖 환경에 놓인 청소년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주거 안정성은 물리적 거주뿐 아니라 관계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참여와 환경 개선 역시 마약 사용 중단을 위한

치유적 개입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종합하면, 국내 대응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온라인 기반 유통 및 홍보 구조에 대한 제도적·수사적 대응 강화. 둘째, 마약 사용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전략으로서 낙인 완화와 관계 회복, 특히 가족 중심의 보호 체계 강화이다.

2) 국외 대응 논의

국제적 틀에서의 대응은 국제규범 준수와 공조 인프라가 구조적인 영역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마약은 국제조직범죄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UN SDGs의 목표 16을 통해 ‘불법금융 그리고 무기 거래에 대한 거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범죄로 잃게 된 재산에 대한 회수와 반환을 강화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UNODC 자료에 따르면, 마약이 인신매매, 테러 등 국제 안보위협 상황과 결합되어 있으며(조운오, 2018: 253), 마약 조직의 활동이 국내 조직과 협력하거나 유입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책에 동조하거나 나아가 협조(수사 등)가 잘되어야 할 필요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다(신상철, 2020: 87-90). 즉, 개별국의 단독 대응을 넘어 마약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 정책과 직결되는 영역은 포괄적인 대응을 협력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대검찰청 (2025)의 마약류 범죄백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이미 UNODC<sup>11)</sup>와의 법률적 대응 협력이 아주 오래전부터 국제조약으로서 근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 II-6. 마약류 관리 관련 국제협약 요약

| 국제 조약                              | 주요 내용                                                                                             |
|------------------------------------|---------------------------------------------------------------------------------------------------|
|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1961, 1972)          | • 국제아편협약(1912)등 국제 마약통제에 관한 9개 협약 단일화<br>• 마약류 사용 제한 및 마약류 범죄 국제 통제<br>•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설치 근거 마련 |
|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971)               | • 마약류 중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 통제 협약                                                                     |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 (1988) | • 국제 마약 밀거래 방지 및 불법거래 국제적 단속 협약<br>• 법 집행 및 국제협력 강화                                               |

\* 출처 : 김녕희 외(2024).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I) :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p. 21

11) CND, International Drug Control Conventions. [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ND/Mandate\\_Functions/conventions.html](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ND/Mandate_Functions/conventions.html)

실무의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인 현안은 마약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고 거래 방식이 가상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며, 비닉성 플랫폼 및 다크넷을 활용해 국경을 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개입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대응,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기반한 다층적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은 수요의 억제와 국외의 공급 차단이 얼마나 선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기보다 동시에 정책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3) 종합정리와 최근의 대응논의

종합해보면, 국내 차원에서 최근 대응 논의의 핵심은 ① 온라인 유통 차단, ② 청소년 맞춤형 개입 전략 마련, ③ 낙인 완화 및 가족·공동체 기반 회복 전략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① UN 등 국제조약 이행을 중심으로 한 공조 전략, ② 청소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수요 억제 정책, ③ 국제사회 차원의 공급 차단 전략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는 기존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응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① 전자담배 및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② 유통 과정에서의 실질적 신분확인 문제, ③ 신종 합성 마약의 확산 속도를 현행 법제가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제도적 한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담배와 관련해 이미 미국에서는 2019년 마약으로 분류되는 불법 제조된 THC 액상 카트리지 사용이 급증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입 가능한 마약류<sup>12)</sup>를 대마에 국한하지 않고 신종마약류(NPS)로 확대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국립과 학수사연구원, 2024). 이 부분에 대해 국내에서는 청소년 신분 확인에 대한 기술 활용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은 국내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이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와 유사한 중독성 물질에 접근 경로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본인 확인 절차의 실효성과 강제성<sup>13)</sup>을

12) 보고서는 액상 형태로 제조하고 전자담배로 흡입하는 경향을 보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용해해 베이핑하는 사례도 보고된바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13)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규정은 일부 영역(담배 자판기 등)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온라인 유통과정 및 무인판매점에서의 강제조항이 없는 상태임



점검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밀한 인증 기술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물질 접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AI 기반 인증 기술의 활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안면인식이나 신분증 대조 기술은 아직 상용화 수준에서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전자담배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의 경우 FDA에서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제정<sup>14)</sup>을 통해 제603조(a)의 규정에 따라 담배 등의 제품 판매 가능연령을 상향한 바도 있어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와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성니코틴이 현행 법률상 담배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합성니코틴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상 명확한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합성 형태의 물질이 빠르게 확산되고, 온라인·무인판매점 등 비대면 유통 구조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14) FEDERAL REGISTER. Homepage. Prohibition of Sale of Tobacco Products to Person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30/2024-19481/prohibition-of-sale-of-tobacco-products-to-persons-younger-than-21-years-of-age?utm\\_source=chatgpt.com](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30/2024-19481/prohibition-of-sale-of-tobacco-products-to-persons-younger-than-21-years-of-age?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09월 03일 인출.





## 제3장 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2.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3. 술·담배
- 4. 고카페인 음료
- 5. 의료용 마약류/약물
- 6. 환각물질
- 7. 마약류
- 8. 예방 교육
- 9. 학교 징계, 법적 처벌, 상담·치료 경험
- 10. 주변인의 유해약물 사용 수준에 대한 인식
- 11.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2.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및 내용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일탈행위의 수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음주·흡연과 같은 전통적 지위비행을 넘어, 고카페인 음료, ADHD 치료제 및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처방약물, 환각물질, 불법 마약류까지 약물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학업 수행, 체중 조절, 스트레스 해소 등 기능적 목적을 명분으로 한 오남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심리적 취약성, 또래 문화의 영향, 가정 내 정서적 지원의 공백과 더불어,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기반 유통과 광고 노출을 확대시키며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교육부·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유해환경 노출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유해약물 문제에 특화된 설계라기보다 전반적 건강 및 환경 실태를 포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전반적인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약물 간 전이 과정이나 교차 위험, 사용 동기와 구조적 영향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조사는 음주·흡연부터 고카페인 음료, 의료용 처방약물, 환각물질, 불법 마약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유해약물 전반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단순

15) 이 장의 제1절은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2절부터 제10절까지(기초 분석)는 김다은(상지대학교)이, 제11절(심층 분석)을 홍서아(동원대학교)가 각각 집필하였음. 제12절(요약 및 시사점)은 세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최초 진입 시점, 노출 경로, 사용 동기, 사용 후 정서 반응, 심리 요인, 가정환경 요인, 또래 영향, 디지털 환경 요인, 예방교육 경험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본 조사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이 어떠한 경로와 동기로 진입하고, 어떤 심리·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속되거나 이탈·중단되는 지에 대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전국의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소속된 위기청소년을 별도의 트랙으로 조사하여, 집단 간 위험 구조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일반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간 위험 요인의 구성과 작동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고, 보다 정교하고 맞춤형 정책 대응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는 위기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을 수록했으며,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청소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배상률 외, 2025)에서 다루고 있다. 두 조사는 동일한 설문 도구와 분석 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나, 본 보고서는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와 위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도구는 국내외 유해약물 관련 조사 도구와 선행 문헌 분석을 토대로 초안을 구성한 후,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1차 점검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조사 수행 기관과의 로직 정합성 및 문항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RB 승인 이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항 이해도와 응답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응답 환경에 적합한 조사 구조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상술한 설문도구 개발 및 검증 절차는 <그림 III-1>에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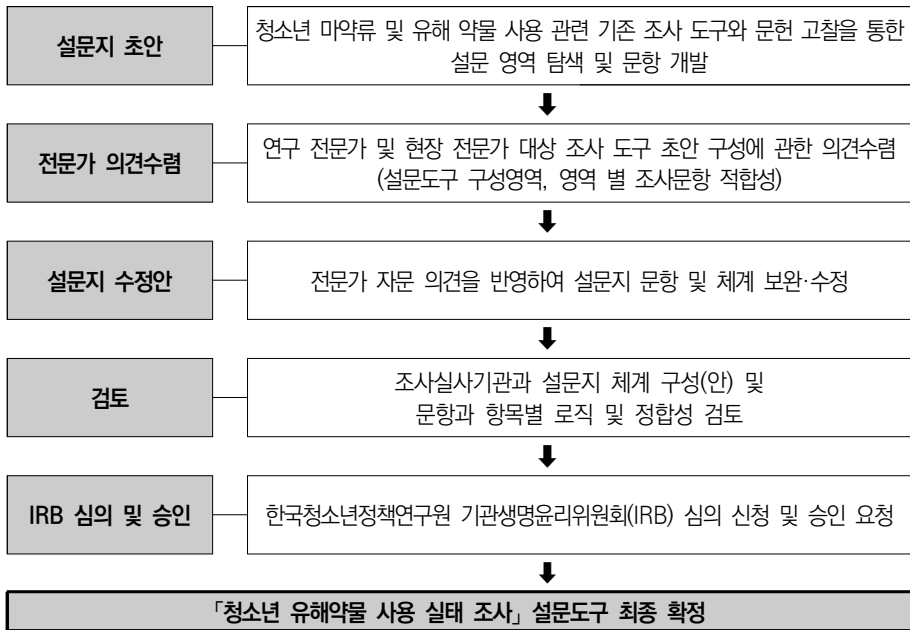


그림 III-1. 설문도구 개발 절차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약물(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
2.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태도
  - 1) 술·담배 2) 고카페인 음료 사용 3) 의료용 마약류/약물 4) 환각물질 5) 마약류
3. 예방교육 경험 및 인식
4. 교내 징계, 법적 처벌, 상담 경험 및 후속 효과
5. 기타(미디어 사용, 주변 환경, 또래 관계, 비행 경험, 심리·정서 등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을 단순 빈도 수준이 아니라 진입-확산-지속-이탈의 구조적 과정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약물에 대한 인식·태도와 유형별 사용 실태(최초 진입 시점, 사용 동기, 빈도, 재사용 의향 등)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교육 경험과 사후 개입 경로 및 체감 효과를 함께 파악하였다. 또한 미디어 이용, 가정·또래 환경, 심리·정서 요인을 포함하여 유해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보호요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 III-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문항 내용 및 출처

| 조사영역                 | 문항 내용                                                                                                                                                                                                                                                           | 문항 번호       | 출처                                   |
|----------------------|-----------------------------------------------------------------------------------------------------------------------------------------------------------------------------------------------------------------------------------------------------------------|-------------|--------------------------------------|
| I.<br>유해약물에<br>대한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에서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심각성</li> <li>- 청소년 사회에서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심각성</li> <li>- 한국사회와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 심각성 인식</li> <li>- 청소년의 유해약물 및 마약류 취득 용이성</li> <li>- 정부의 전반적인 유해약물 관리 정책 평가</li> <li>- 마약검발과 같은 용어의 친숙한 이미지 효과</li> </ul> | 1<br>1)~8)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br>손애리 외(2023) |
|                      | -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긍정·부정 효과, 단속·처벌·허용 등)                                                                                                                                                                                                                          | 2<br>1)~15)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br>손애리 외(2023) |
|                      | - 유해약물 확산 사회적 배경 요인                                                                                                                                                                                                                                             | 3           | 연구진 작성                               |
|                      | -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개인적 이유                                                                                                                                                                                                                                           | 4           | 연구진 작성                               |
| II.<br>술·담배          | -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인식                                                                                                                                                                                                                                                | 1<br>1)~6)  | 연구진 작성                               |
|                      | - 음주 및 흡연 경험 여부<br>(술, 일반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껌연형 전자담배)<br>음주 및 흡연 최초 경험 시기                                                                                                                                                                                            | 2<br>1)~4)  | 연구진 작성<br>교육부, 질병관리청<br>(2024)       |
|                      | - 음주 및 흡연 횟수 (최근 6개월)                                                                                                                                                                                                                                           | 3<br>1)~4)  | 연구진 작성                               |
| III.<br>고카페인<br>음료   | -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인식                                                                                                                                                                                                                                        | 1<br>1)~6)  | 연구진 작성                               |
|                      | - 커피 음료 섭취 경험 (최근 6개월)                                                                                                                                                                                                                                          | 2           | 연구진 작성                               |
|                      | - 고카페인 음료 섭취 경험 (최근 6개월)                                                                                                                                                                                                                                        | 3           | 연구진 작성                               |
|                      | - 고카페인 섭취 이유 및 중독 인식                                                                                                                                                                                                                                            | 4<br>1)~7)  | 연구진 작성                               |
| IV.<br>의료용 약물        | - 사용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br>(수면제, 신경안정제/항불안제, ADHD치료제,<br>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근육강화제, 마취제,<br>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 1<br>1)~8)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사용 횟수 (최근 6개월)                                                                                                                                                                                                                                                | 2<br>1)~8)  | 연구진 작성                               |
|                      | -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최근 6개월)                                                                                                                                                                                                                                         | 3           | 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처음 알게 된 통로                                                                                                                                                                                                                                       | 4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취득한 통로                                                                                                                                                                                                                                           | 5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조사영역          | 문항 내용                                                                                                     | 문항 번호       | 출처                    |
|---------------|-----------------------------------------------------------------------------------------------------------|-------------|-----------------------|
|               | -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사용한 이유                                                                                     | 6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사용 후 느낀 점                                                                                  | 7<br>1)~4)  | 연구진 작성                |
|               | - 의료용 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8<br>1)~9)  | 연구진 작성                |
| V.<br>환각물질    | - 환각물질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br>(부탄가스, 라이터가스, 해피벌론, 에어스프레이 등)                                                  | 1<br>1)~4)  | 연구진 작성                |
|               | - 최근 6개월 사용 경험 및 사용 횟수                                                                                    | 2           | 연구진 작성                |
|               | - 환각물질 사용 후 느낀 점                                                                                          | 3<br>1)~5)  | 연구진 작성                |
| VI.<br>마약류    | - 마약류 사용 경험 여부 및 최초 경험 시기<br>(대마초/마리화나, 해시시/해시시오일, 합성대마, 아편/양귀비, 헤로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LSD, 엑스터시, 케타민, 등) | 1<br>1)~11)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 (최근 6개월)                                                                                  | 2           | 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 처음 알게 된 통로                                                                                | 3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 취득한 통로                                                                                    | 4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 사용한 이유                                                                                    | 5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 사용 후 느낀 점                                                                                 | 6<br>1)~5)  | 연구진 작성                |
| VII.<br>예방 교육 | - 청소년 마약류 문제 해결 위한 대책                                                                                     | 1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마약류 문제와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br>1)~8)  | 연구진 작성<br>손애리 외(2023) |
|               | -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여부                                                                                         | 3           | 연구진 작성                |
|               | - 마약류 예방 교육의 도움 정도                                                                                        | 4           | 연구진 작성                |
|               | -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 5           | 연구진 작성                |
|               | -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6<br>1)~4)  | 연구진 작성                |

| 조사영역       | 문항 내용                                                 | 문항 번호          | 출처                                                                     |
|------------|-------------------------------------------------------|----------------|------------------------------------------------------------------------|
| Ⅷ.<br>기타   | - 마약류나 약물 문제로 학교 징계나 조치 받은 경험<br>- 징계나 조치 이후 후속 효과/상황 | 1<br>1-1       | 연구진 작성                                                                 |
|            | - 마약류나 약물 문제로 인해 법적 처벌 받은 경험<br>- 법적 처벌 이후 후속 효과/상황   | 2<br>2-1       | 연구진 작성                                                                 |
|            | - 마약류나 약물 문제로 인해 상담·치료 받은 경험<br>- 상담·치료 이후 후속 효과/상황   | 3<br>3-1       | 연구진 작성                                                                 |
|            | - 삶의 목표에 영향을 준 사람/대상                                  | 4              | 배상률 외(2021)                                                            |
|            | - 스마트폰 이용 시간                                          | 5              | 연구진 작성                                                                 |
|            | - 스마트폰 및 SNS 집착경향성                                    | 6              | 연구진 작성<br>배상률 외(2023)                                                  |
|            | - 미디어활동 시간<br>(유투브, 숏폼, 온라인 게임, SNS, 텔레비전)            | 7<br>1)~5)     | 연구진 작성                                                                 |
| Ⅸ.<br>배경질문 | - 사회적지지/교류                                            | 배문1<br>1)~3)   | 연구진 작성<br>김남희 외(2024)                                                  |
|            | - 성적 수준                                               | 배문2            | 연구진 작성                                                                 |
|            | - 가구 수준                                               | 배문3            | 연구진 작성                                                                 |
|            | - 키와 몸무게                                              | 배문4<br>1~2)    | 연구진 작성                                                                 |
|            | - 신체 건강 상태                                            | 배문5            | 연구진 작성<br>교육부, 질병관리청<br>2024                                           |
|            | - 거주 형태                                               | 배문6            | 연구진 작성                                                                 |
|            | - 종교/종교활동 여부                                          | 배문7            | 김남희 외(2024)                                                            |
|            | - 오프라인 비행/범죄 경험<br>(무단결석, 가출, 절도, 폭행)                 | 배문8            | 배상률 외(2023)                                                            |
|            | - 온오프라인 폭력 피해 경험                                      | 배문9            | 연구진 작성                                                                 |
|            | - 또래 동조성                                              | 배문10<br>1)~3)  | 오경희(1989)<br>Berndt(1979)<br>문항 수정보완                                   |
|            | - 자존감, 자아탄력성, 외로움, 좌절감, 공감능력 등                        | 배문8<br>1)~26)  | 황진구 외(2022).<br>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br>김지현 외(2022).<br>한국아동패널조사<br>김남희 외(2024) |
|            | - 음주, 흡연, 고카페인, 마약류하는 주변 사람                           | 배문8<br>27)~30) | 연구진 작성<br>손애리 외(2023)                                                  |

## 2) 조사 방법 및 응답자 구성

본 설문조사를 위해 2025년 6월에 본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202506-HR-고유-014)을 받았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에스티아이가 협업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집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위기청소년 교정 및 보호·회복 기관을 기반으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중학생 86명과 고등학생 211명으로 총 297명의 위기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교정시설 소속 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기기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종이 설문 기반 오프라인 대면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분반된 교실(각 30명 이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목적과 응답 비밀 보장 원칙을 안내한 후, 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지와 밀봉 봉투를 배포하였다. 응답 완료 후 참여 청소년이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연구진 또는 조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 익명성과 응답 비밀을 보장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 조사는 시차를 두고 2회, 소년원 조사는 1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8곳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각 시설 담당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고 참여 청소년이 직접 접속하여 응답하는 웹 기반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 257명, 소년원 28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2명이 응답하였다. 본 조사 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조사 설계 및 조사 방법

| 구분   | 내용                                                 |
|------|----------------------------------------------------|
| 모집단  | 전국 만 13세~18세 위기청소년                                 |
| 표본수  | 총 297명(중학생 86명, 고등학생 211명)                         |
| 표집방법 |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온·오프라인 병행)                |
| 실사기간 | 2025년 6월 29일(목) ~ 9월 17일(수)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29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78.0%, 여성이 22.0%로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 86명(29.0%), 고등학생 211명(71.0%)으로 고등학생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3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업 성적과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5점 척도로 조사한 뒤, 상(④ 중상위권+⑤ 상위권), 중(③ 중위권), 하(① 하위권+② 중하위권)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은 ‘하’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중’ 18.2%, ‘상’ 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학업 수행 측면에서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상’이 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 34.8%, ‘하’ 25.7%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 성적 분포와 비교할 때, 성적과 소득 수준 간의 단순한 일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긍정(③ 그렇다+④ 매우 그렇다)과 부정(① 전혀 그렇지 않다+② 그렇지 않다)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긍정 응답은 81.1%, 부정 응답은 18.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III-3. 응답자 분포표

(단위: 명, %)

| 구분 |      | 사례수 | 비율    | 구분          |    | 사례수 | 비율    |
|----|------|-----|-------|-------------|----|-----|-------|
| 전체 |      | 297 | 100.0 | 전체          |    | 297 | 100.0 |
| 성별 | 남    | 231 | 78.0  | 성적          | 상  | 35  | 11.8  |
|    | 여    | 65  | 22.0  |             | 중  | 54  | 18.2  |
| 교급 | 중학교  | 86  | 29.0  |             | 하  | 208 | 70.2  |
|    | 고등학교 | 211 | 71.0  | 가구소득        | 상  | 117 | 39.5  |
| 학년 | 중1   | 5   | 1.7   |             | 중  | 103 | 34.8  |
|    | 중2   | 33  | 11.1  |             | 하  | 76  | 25.7  |
|    | 중3   | 48  | 16.2  | 자아 긍정<br>태도 | 긍정 | 241 | 81.1  |
|    | 고1   | 67  | 22.6  |             | 부정 | 56  | 18.9  |
|    | 고2   | 89  | 30.0  |             |    |     |       |
|    | 고3   | 55  | 18.5  |             |    |     |       |

## 2.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 및 접근 용이성

유해약물 심각도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은 평균 7.7점으로 가장 높았고, ‘마약 표현의 영향’은 평균 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예: 술, 담배, 환각·중독성 물질 등)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해약물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5%(평균 7.5점)로, 대다수 위기청소년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92.3%, 남학생 81.8%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여학생의 인식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다른 응답자 특성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87.2%, 고등학생 77.3%로 중학생에서 ‘심각’ 응답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이르지 않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70% 후반에서 80% 후반에 분포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고1 85.1%, 고2 85.4%, 고3 92.7%로 학년이 높을수록 심각성 인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중2는 81.8%, 중3은 79.2%였다. 다만 중1은 표본이 5명에 불과해 심각 응답 40%라는 결과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심각도는 상집단 91.4%, 중집단 90.7%, 하집단 81.7%로 나타났다. 학업 성취 수준이 높아질수록 ‘심각’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되지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구소득 수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상위 소득 가구의 청소년 85.5%, 중위 소득 청소년 85.4%, 하위 소득 청소년 81.6%로 하위 소득은 그보다 약간 낮은 범위에 형성되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심각’ 응답이 더 많이 관찰되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아긍정이 긍정적인 집단 83.8%, 부정적인 집단이 87.5%로 자아형성이 부정적일수록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정리하면, 응답한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유해약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 특성 중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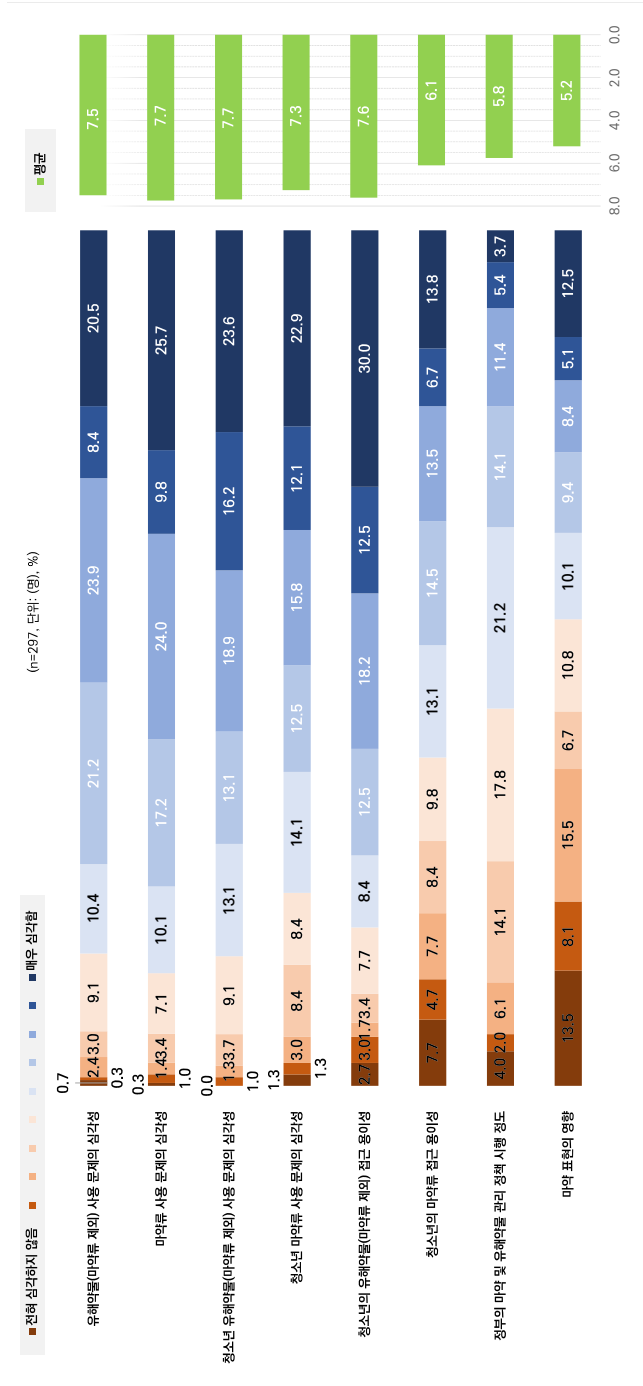


그림 III -2. 유해약물 문제의 심각성 및 접근 용이성

- ※ '청소년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접근 용이성' : ① 매우 구하기 어렵다 ~ ⑩ 매우 구하기 쉽다
- ※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 : ① 매우 구하기 어렵다 ~ ⑩ 매우 구하기 쉽다
- ※ '장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정책 시행 정도' : ① 매우 못하고 있다 ~ ⑩ 매우 잘하고 있다
- ※ '마약 표현의 영향'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⑩ 매우 그렇다

표 III-4.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심각<br>않음<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0.7              | 0.3 | 2.4 | 3.0 | 9.1  | 10.4 | 21.2 |
| 성별       | 남  | (231) | 0.9              | 0.4 | 2.6 | 3.9 | 10.4 | 11.3 | 22.9 |
|          | 여  | (65)  | 0.0              | 0.0 | 1.5 | 0.0 | 4.6  | 7.7  | 13.8 |
| 교급       | 중  | (86)  | 0.0              | 1.2 | 5.8 | 1.2 | 14.0 | 10.5 | 15.1 |
|          | 고  | (211) | 0.9              | 0.0 | 0.9 | 3.8 | 7.1  | 10.4 | 23.7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60.0 | 20.0 | 0.0  |
|          | 중2 | (33)  | 0.0              | 0.0 | 3.0 | 0.0 | 15.2 | 12.1 | 18.2 |
|          | 중3 | (48)  | 0.0              | 2.1 | 8.3 | 2.1 | 8.3  | 8.3  | 14.6 |
|          | 고1 | (67)  | 3.0              | 0.0 | 3.0 | 0.0 | 9.0  | 4.5  | 29.9 |
|          | 고2 | (89)  | 0.0              | 0.0 | 0.0 | 6.7 | 7.9  | 10.1 | 15.7 |
|          | 고3 | (55)  | 0.0              | 0.0 | 0.0 | 3.6 | 3.6  | 18.2 | 29.1 |
| 성적       | 상  | (35)  | 0.0              | 0.0 | 0.0 | 2.9 | 5.7  | 8.6  | 20.0 |
|          | 중  | (54)  | 1.9              | 0.0 | 1.9 | 0.0 | 5.6  | 5.6  | 27.8 |
|          | 하  | (208) | 0.5              | 0.5 | 2.9 | 3.8 | 10.6 | 12.0 | 19.7 |
| 가구<br>소득 | 상  | (117) | 0.9              | 0.9 | 3.4 | 4.3 | 5.1  | 11.1 | 17.9 |
|          | 중  | (103) | 1.0              | 0.0 | 1.9 | 1.9 | 9.7  | 9.7  | 25.2 |
|          | 하  | (76)  | 0.0              | 0.0 | 1.3 | 2.6 | 14.5 | 10.5 | 19.7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0.8              | 0.4 | 2.5 | 3.3 | 9.1  | 12.0 | 21.2 |
|          | 부정 | (56)  | 0.0              | 0.0 | 1.8 | 1.8 | 8.9  | 3.6  | 21.4 |

표 III-4.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⑧    | ⑨    | 매우<br>심각<br>⑩ | 심각<br>않음<br>①~⑤ | 심각<br>⑥~⑩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297)    | 23.9 | 8.4  | 20.5          | 15.5            | 84.5      | 7.5 | 1.9      |                  |
| 성별       | 남 (231)  | 22.5 | 8.2  | 16.9          | 18.2            | 81.8      | 7.3 | 1.9      | -3.735           |
|          | 여 (65)   | 29.2 | 9.2  | 33.8          | 6.2             | 93.8      | 8.3 | 1.6      | *** (0.000)      |
| 교급       | 중 (86)   | 26.7 | 7.0  | 18.6          | 22.1            | 77.9      | 7.3 | 2.0      | -1.382           |
|          | 고 (211)  | 22.7 | 9.0  | 21.3          | 12.8            | 87.2      | 7.6 | 1.8      | (0.168)          |
| 학년       | 중1 (5)   | 0.0  | 0.0  | 20.0          | 60.0            | 40.0      | 6.2 | 2.2      | 0.950<br>(0.449) |
|          | 중2 (33)  | 21.2 | 9.1  | 21.2          | 18.2            | 81.8      | 7.5 | 1.9      |                  |
|          | 중3 (48)  | 33.3 | 6.3  | 16.7          | 20.8            | 79.2      | 7.2 | 2.1      |                  |
|          | 고1 (67)  | 19.4 | 13.4 | 17.9          | 14.9            | 85.1      | 7.5 | 2.0      |                  |
|          | 고2 (89)  | 27.0 | 5.6  | 27.0          | 14.6            | 85.4      | 7.7 | 1.9      |                  |
|          | 고3 (55)  | 20.0 | 9.1  | 16.4          | 7.3             | 92.7      | 7.5 | 1.6      |                  |
| 성적       | 상 (35)   | 28.6 | 20.0 | 14.3          | 8.6             | 91.4      | 7.8 | 1.5      | 1.301<br>(0.274) |
|          | 중 (54)   | 27.8 | 9.3  | 20.4          | 9.3             | 90.7      | 7.7 | 1.8      |                  |
|          | 하 (208)  | 22.1 | 6.3  | 21.6          | 18.3            | 81.7      | 7.4 | 2.0      |                  |
| 가구<br>소득 | 상 (117)  | 24.8 | 12.0 | 19.7          | 14.5            | 85.5      | 7.5 | 2.0      | 0.171<br>(0.843) |
|          | 중 (103)  | 21.4 | 3.9  | 25.2          | 14.6            | 85.4      | 7.6 | 1.9      |                  |
|          | 하 (76)   | 26.3 | 9.2  | 15.8          | 18.4            | 81.6      | 7.4 | 1.8      |                  |
| 자아<br>긍정 | 긍정 (241) | 22.4 | 7.9  | 20.3          | 16.2            | 83.8      | 7.4 | 1.9      | -1.425           |
|          | 부정 (56)  | 30.4 | 10.7 | 21.4          | 12.5            | 87.5      | 7.8 | 1.7      | (0.155)          |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로,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86.8%가 마약류 사용 문제를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93.8%로 남학생의 84.8%보다 ‘마약류 사용 문제 심각성’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 수준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급의 경우 중학생이 82.4%, 고등학생이 88.6%를 수치상으로는 고등학생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80%에서 90% 초반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으나, 학년 전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심각성에서와는 달리,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서는 학업 성취가 낮아질수록(심각응답 상 80.0%, 중 87.0%, 하 87.9%) 그 정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 수준은 상·중·하 세 집단 모두 마약류 사용 문제 심각성에 대해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으며 이 또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아긍정 수준 또한 긍정 85.8%, 부정 91.1%로 부정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에서 여학생의 심각성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성(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은 수치상의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 -5.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심각<br>않음<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6) | 0.3              | 1.0 | 1.4 | 3.4 | 7.1  | 10.1 | 17.2 |
| 성별       | 남  | (230) | 0.4              | 1.3 | 1.3 | 3.9 | 8.3  | 12.2 | 17.4 |
|          | 여  | (65)  | 0.0              | 0.0 | 1.5 | 1.5 | 3.1  | 3.1  | 15.4 |
| 교급       | 중  | (85)  | 0.0              | 3.5 | 1.2 | 1.2 | 11.8 | 5.9  | 21.2 |
|          | 고  | (211) | 0.5              | 0.0 | 1.4 | 4.3 | 5.2  | 11.8 | 15.6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20.0 | 0.0  | 40.0 |
|          | 중2 | (33)  | 0.0              | 3.0 | 0.0 | 0.0 | 12.1 | 9.1  | 18.2 |
|          | 중3 | (47)  | 0.0              | 4.3 | 2.1 | 2.1 | 10.6 | 4.3  | 21.3 |
|          | 고1 | (67)  | 0.0              | 0.0 | 3.0 | 4.5 | 7.5  | 9.0  | 13.4 |
|          | 고2 | (89)  | 0.0              | 0.0 | 1.1 | 4.5 | 3.4  | 10.1 | 18.0 |
|          | 고3 | (55)  | 1.8              | 0.0 | 0.0 | 3.6 | 5.5  | 18.2 | 14.5 |
| 성적       | 상  | (35)  | 0.0              | 0.0 | 2.9 | 2.9 | 14.3 | 5.7  | 22.9 |
|          | 중  | (54)  | 0.0              | 1.9 | 1.9 | 5.6 | 3.7  | 7.4  | 9.3  |
|          | 하  | (207) | 0.5              | 1.0 | 1.0 | 2.9 | 6.8  | 11.6 | 18.4 |
| 가구<br>소득 | 상  | (117) | 0.0              | 1.7 | 1.7 | 4.3 | 6.8  | 8.5  | 15.4 |
|          | 중  | (103) | 0.0              | 1.0 | 1.9 | 1.9 | 4.9  | 11.7 | 18.4 |
|          | 하  | (75)  | 1.3              | 0.0 | 0.0 | 4.0 | 9.3  | 10.7 | 18.7 |
| 자아<br>긍정 | 긍정 | (240) | 0.4              | 1.3 | 1.3 | 3.8 | 7.5  | 10.8 | 16.7 |
|          | 부정 | (56)  | 0.0              | 0.0 | 1.8 | 1.8 | 5.4  | 7.1  | 19.6 |

표 III-5.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      | 매우<br>심각 | 심각<br>않음 | 심각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6) | 24.0 | 9.8  | 25.7     | 13.2     | 86.8 | 7.7 | 1.9      |                       |
| 성별       | 남  | (230) | 24.3 | 6.5  | 24.3     | 15.2     | 84.8 | 7.6 | 2.0      | -3.507<br>*** (0.001) |
|          | 여  | (65)  | 23.1 | 21.5 | 30.8     | 6.2      | 93.8 | 8.4 | 1.6      |                       |
| 교급       | 중  | (85)  | 21.2 | 8.2  | 25.9     | 17.6     | 82.4 | 7.6 | 2.1      | -0.775<br>(0.439)     |
|          | 고  | (211) | 25.1 | 10.4 | 25.6     | 11.4     | 88.6 | 7.8 | 1.9      |                       |
| 학년       | 중1 | (5)   | 0.0  | 0.0  | 40.0     | 20.0     | 80.0 | 7.8 | 2.2      | 0.282<br>(0.923)      |
|          | 중2 | (33)  | 24.2 | 9.1  | 24.2     | 15.2     | 84.8 | 7.7 | 1.9      |                       |
|          | 중3 | (47)  | 21.3 | 8.5  | 25.5     | 19.1     | 80.9 | 7.5 | 2.2      |                       |
|          | 고1 | (67)  | 23.9 | 10.4 | 28.4     | 14.9     | 85.1 | 7.8 | 2.0      |                       |
|          | 고2 | (89)  | 28.1 | 9.0  | 25.8     | 9.0      | 91.0 | 7.9 | 1.7      |                       |
|          | 고3 | (55)  | 21.8 | 12.7 | 21.8     | 10.9     | 89.1 | 7.6 | 1.9      |                       |
| 성적       | 상  | (35)  | 20.0 | 11.4 | 20.0     | 20.0     | 80.0 | 7.5 | 1.9      | 0.906<br>(0.405)      |
|          | 중  | (54)  | 24.1 | 13.0 | 33.3     | 13.0     | 87.0 | 8.0 | 2.1      |                       |
|          | 하  | (207) | 24.6 | 8.7  | 24.6     | 12.1     | 87.9 | 7.7 | 1.9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7.1 | 16.2 | 28.2     | 14.5     | 85.5 | 7.8 | 2.0      | 0.559<br>(0.572)      |
|          | 중  | (103) | 28.2 | 5.8  | 26.2     | 9.7      | 90.3 | 7.8 | 1.8      |                       |
|          | 하  | (75)  | 29.3 | 5.3  | 21.3     | 14.7     | 85.3 | 7.5 | 1.9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0) | 23.3 | 8.3  | 26.7     | 14.2     | 85.8 | 7.7 | 2.0      | -0.830<br>(0.407)     |
|          | 부정 | (56)  | 26.8 | 16.1 | 21.4     | 8.9      | 91.1 | 7.9 | 1.7      |                       |

다음은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8%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성별에서는 여학생 93.8%, 남학생 82.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의 심각성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급 별로는 통계적 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생이 87.2%,

중학생이 79.1%로 고등학생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학업성취수준은 중위 집단이 상·하보다 높은 ‘역U형’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문제 심각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긍정 수준별로는 긍정 83.4%, 부정 91.1%로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이 또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요약하면, 응답자 전반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문제를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에서 여학생의 심각성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성(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은 수치상의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Ⅲ-6.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심각<br>않음<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0.0              | 1.0 | 1.3 | 3.7 | 9.1  | 13.1 | 13.1 |
| 성별       | 남  | (231) | 0.0              | 1.3 | 1.7 | 4.3 | 10.4 | 14.3 | 14.3 |
|          | 여  | (65)  | 0.0              | 0.0 | 0.0 | 0.0 | 4.6  | 9.2  | 9.2  |
| 교급       | 중  | (86)  | 0.0              | 2.3 | 3.5 | 2.3 | 12.8 | 11.6 | 11.6 |
|          | 고  | (211) | 0.0              | 0.5 | 0.5 | 4.3 | 7.6  | 13.7 | 13.7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40.0 | 0.0  | 0.0  |
|          | 중2 | (33)  | 0.0              | 0.0 | 0.0 | 0.0 | 18.2 | 9.1  | 18.2 |
|          | 중3 | (48)  | 0.0              | 4.2 | 6.3 | 4.2 | 6.3  | 14.6 | 8.3  |
|          | 고1 | (67)  | 0.0              | 1.5 | 1.5 | 3.0 | 7.5  | 13.4 | 14.9 |
|          | 고2 | (89)  | 0.0              | 0.0 | 0.0 | 3.4 | 5.6  | 14.6 | 14.6 |
|          | 고3 | (55)  | 0.0              | 0.0 | 0.0 | 7.3 | 10.9 | 12.7 | 10.9 |
| 성적       | 상  | (35)  | 0.0              | 2.9 | 0.0 | 5.7 | 5.7  | 11.4 | 25.7 |
|          | 중  | (54)  | 0.0              | 0.0 | 1.9 | 1.9 | 9.3  | 9.3  | 11.1 |
|          | 하  | (208) | 0.0              | 1.0 | 1.4 | 3.8 | 9.6  | 14.4 | 11.5 |
| 가구<br>소득 | 상  | (117) | 0.0              | 1.7 | 0.9 | 4.3 | 8.5  | 8.5  | 13.7 |
|          | 중  | (103) | 0.0              | 1.0 | 2.9 | 2.9 | 7.8  | 19.4 | 12.6 |
|          | 하  | (76)  | 0.0              | 0.0 | 0.0 | 3.9 | 11.8 | 10.5 | 13.2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0.0              | 1.2 | 1.2 | 4.1 | 10.0 | 14.1 | 12.9 |
|          | 부정 | (56)  | 0.0              | 0.0 | 1.8 | 1.8 | 5.4  | 8.9  | 14.3 |

표 III-6.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      | 매우<br>심각 | 심각<br>않음 | 심각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7) | 18.9 | 16.2 | 23.6     | 15.2     | 84.8 | 7.7 | 1.9      |                  |
| 성별       | 남  | (231) | 19.5 | 13.9 | 20.3     | 17.7     | 82.3 | 7.5 | 2.0      | -4.690           |
|          | 여  | (65)  | 16.9 | 24.6 | 35.4     | 4.6      | 95.4 | 8.5 | 1.5      | ***<br>(0.000)   |
| 교급       | 중  | (86)  | 17.4 | 12.8 | 25.6     | 20.9     | 79.1 | 7.5 | 2.2      | -1.001           |
|          | 고  | (211) | 19.4 | 17.5 | 22.7     | 12.8     | 87.2 | 7.8 | 1.8      | (0.319)          |
| 학년       | 중1 | (5)   | 20.0 | 0.0  | 40.0     | 40.0     | 60.0 | 7.6 | 2.5      | 0.468<br>(0.800) |
|          | 중2 | (33)  | 18.2 | 15.2 | 21.2     | 18.2     | 81.8 | 7.7 | 1.8      |                  |
|          | 중3 | (48)  | 16.7 | 12.5 | 27.1     | 20.8     | 79.2 | 7.4 | 2.4      |                  |
|          | 고1 | (67)  | 16.4 | 16.4 | 25.4     | 13.4     | 86.6 | 7.7 | 2.0      |                  |
|          | 고2 | (89)  | 20.2 | 20.2 | 21.3     | 9.0      | 91.0 | 7.9 | 1.7      |                  |
|          | 고3 | (55)  | 21.8 | 14.5 | 21.8     | 18.2     | 81.8 | 7.6 | 1.9      |                  |
| 성적       | 상  | (35)  | 17.1 | 5.7  | 25.7     | 14.3     | 85.7 | 7.5 | 2.0      | 0.638<br>(0.529) |
|          | 중  | (54)  | 22.2 | 20.4 | 24.1     | 13.0     | 87.0 | 7.9 | 1.8      |                  |
|          | 하  | (208) | 18.3 | 16.8 | 23.1     | 15.9     | 84.1 | 7.7 | 2.0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7.9 | 17.1 | 27.4     | 15.4     | 84.6 | 7.8 | 2.0      | 0.540<br>(0.583) |
|          | 중  | (103) | 14.6 | 13.6 | 25.2     | 14.6     | 85.4 | 7.6 | 2.0      |                  |
|          | 하  | (76)  | 26.3 | 18.4 | 15.8     | 15.8     | 84.2 | 7.6 | 1.7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8.3 | 14.9 | 23.2     | 16.6     | 83.4 | 7.6 | 2.0      | -1.781           |
|          | 부정 | (56)  | 21.4 | 21.4 | 25.0     | 8.9      | 91.1 | 8.1 | 1.7      | (0.078)          |

다음은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7.4%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74.5%, 여학생 89.2%로 여학생이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심각성 인식이 더 높다는 점이 확인되며, 이는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급에서는 중학생 72.1%, 고등학생 79.6%가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분포, 성적 및 자아수준은 70%~83% 사이의 분포로 확인되나,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가구소득 수준은 상 76.1%, 중 77.7%, 하 78.9%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심각하다고 인식하나 집단 간 차이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종합하면, 응답자는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77.4%)하고 있으나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84.8%)보다는 그 심각성의 인식정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문제 심각성의 결과와 같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에서 여학생의 심각성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특성(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은 수치상의 경향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Ⅲ-7.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심각<br>않음<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1.3              | 1.3 | 3.0  | 8.4  | 8.4  | 14.1 | 12.5 |
| 성별       | 남  | (231) | 1.7              | 1.7 | 3.5  | 10.0 | 8.7  | 16.9 | 11.7 |
|          | 여  | (65)  | 0.0              | 0.0 | 1.5  | 1.5  | 7.7  | 4.6  | 15.4 |
| 교급       | 중  | (86)  | 3.5              | 1.2 | 5.8  | 9.3  | 8.1  | 14.0 | 11.6 |
|          | 고  | (211) | 0.5              | 1.4 | 1.9  | 8.1  | 8.5  | 14.2 | 12.8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20.0 | 20.0 | 0.0  |
|          | 중2 | (33)  | 3.0              | 0.0 | 0.0  | 12.1 | 15.2 | 12.1 | 12.1 |
|          | 중3 | (48)  | 4.2              | 2.1 | 10.4 | 8.3  | 2.1  | 14.6 | 12.5 |
|          | 고1 | (67)  | 0.0              | 1.5 | 1.5  | 9.0  | 11.9 | 11.9 | 13.4 |
|          | 고2 | (89)  | 0.0              | 1.1 | 2.2  | 6.7  | 6.7  | 13.5 | 15.7 |
|          | 고3 | (55)  | 1.8              | 1.8 | 1.8  | 9.1  | 7.3  | 18.2 | 7.3  |
| 성적       | 상  | (35)  | 0.0              | 5.7 | 8.6  | 8.6  | 8.6  | 8.6  | 17.1 |
|          | 중  | (54)  | 0.0              | 0.0 | 3.7  | 11.1 | 5.6  | 7.4  | 5.6  |
|          | 하  | (208) | 1.9              | 1.0 | 1.9  | 7.7  | 9.1  | 16.8 | 13.5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7              | 1.7 | 1.7  | 12.0 | 6.8  | 10.3 | 14.5 |
|          | 중  | (103) | 0.0              | 1.9 | 3.9  | 6.8  | 9.7  | 13.6 | 10.7 |
|          | 하  | (76)  | 2.6              | 0.0 | 3.9  | 5.3  | 9.2  | 21.1 | 11.8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7              | 1.2 | 3.3  | 9.5  | 8.7  | 16.2 | 11.2 |
|          | 부정 | (56)  | 0.0              | 1.8 | 1.8  | 3.6  | 7.1  | 5.4  | 17.9 |

표 III-7.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의 심각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⑧    | ⑨    | 매우<br>심각<br>⑩ | 심각<br>않음<br>①~⑤ | 심각<br>⑥~⑩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7) | 15.8 | 12.1 | 22.9          | 22.6            | 77.4      | 7.3 | 2.3      |                  |
| 성별       | 남  | (231) | 13.4 | 10.8 | 21.6          | 25.5            | 74.5      | 7.0 | 2.4      | -4.078           |
|          | 여  | (65)  | 24.6 | 16.9 | 27.7          | 10.8            | 89.2      | 8.1 | 1.7      | *** (0.000)      |
| 교급       | 중  | (86)  | 14.0 | 7.0  | 25.6          | 27.9            | 72.1      | 7.0 | 2.6      | -1.305           |
|          | 고  | (211) | 16.6 | 14.2 | 21.8          | 20.4            | 79.6      | 7.4 | 2.1      | (0.194)          |
| 학년       | 중1 | (5)   | 20.0 | 0.0  | 40.0          | 20.0            | 80.0      | 7.8 | 2.3      | 0.621<br>(0.684) |
|          | 중2 | (33)  | 15.2 | 6.1  | 24.2          | 30.3            | 69.7      | 7.0 | 2.4      |                  |
|          | 중3 | (48)  | 12.5 | 8.3  | 25.0          | 27.1            | 72.9      | 6.8 | 2.7      |                  |
|          | 고1 | (67)  | 16.4 | 10.4 | 23.9          | 23.9            | 76.1      | 7.3 | 2.2      |                  |
|          | 고2 | (89)  | 19.1 | 14.6 | 20.2          | 16.9            | 83.1      | 7.5 | 2.0      |                  |
|          | 고3 | (55)  | 12.7 | 18.2 | 21.8          | 21.8            | 78.2      | 7.3 | 2.4      |                  |
| 성적       | 상  | (35)  | 17.1 | 5.7  | 20.0          | 31.4            | 68.6      | 6.7 | 2.5      | 2.261<br>(0.106) |
|          | 중  | (54)  | 20.4 | 16.7 | 29.6          | 20.4            | 79.6      | 7.8 | 2.2      |                  |
|          | 하  | (208) | 14.4 | 12.0 | 21.6          | 21.6            | 78.4      | 7.2 | 2.2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4.5 | 12.0 | 24.8          | 23.9            | 76.1      | 7.3 | 2.4      | 0.194<br>(0.823) |
|          | 중  | (103) | 16.5 | 15.5 | 21.4          | 22.3            | 77.7      | 7.3 | 2.2      |                  |
|          | 하  | (76)  | 15.8 | 7.9  | 22.4          | 21.1            | 78.9      | 7.1 | 2.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2.9 | 11.6 | 23.7          | 24.5            | 75.5      | 7.2 | 2.4      | -1.839           |
|          | 부정 | (56)  | 28.6 | 14.3 | 19.6          | 14.3            | 85.7      | 7.7 | 1.9      | (0.069)          |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을 구하려 한다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해약물의 접근 용이성을 ‘구하기 쉽다’고 인식한 비율은 81.5%로,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낮지 않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89.2%, 남학생 79.2%로 여학생의 ‘구하기 쉬움’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여학생의 경우 체감적으로 10명 중 9명이 ‘쉽다’고 인식한 수준이다. 교급은 고등학생 84.4%, 중학생 74.4%로 나타나 고등학생에게 더 높게 나타났으며(유의수준에 근접), 학년별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하기 쉬움’ 인식이 높아지는 상승 패턴이 뚜렷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아긍정 수준은 부정 91.1%, 긍정 79.3%로,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구하

기 쉬움'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가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종합하면, 청소년 다수는 유해약물(마약류 제외)의 접근이 쉽다고 인식하며, 그 가운데 여학생·고학년(특히 고2·고3),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구하기 쉬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급·학업성취수준·가구소득수준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8.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접근 용이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매우 구하기<br>어렵다<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2.7                | 3.0  | 1.7  | 3.4 | 7.7  | 8.4  | 12.5 |
| 성별       | 남  | (231) | 3.0                | 3.9  | 1.3  | 3.9 | 8.7  | 9.1  | 13.4 |
|          | 여  | (65)  | 1.5                | 0.0  | 3.1  | 1.5 | 4.6  | 6.2  | 9.2  |
| 교급       | 중  | (86)  | 4.7                | 4.7  | 3.5  | 1.2 | 11.6 | 9.3  | 14.0 |
|          | 고  | (211) | 1.9                | 2.4  | 0.9  | 4.3 | 6.2  | 8.1  | 11.8 |
| 학년       | 중1 | (5)   | 0.0                | 20.0 | 20.0 | 0.0 | 0.0  | 0.0  | 0.0  |
|          | 중2 | (33)  | 9.1                | 6.1  | 3.0  | 0.0 | 12.1 | 12.1 | 21.2 |
|          | 중3 | (48)  | 2.1                | 2.1  | 2.1  | 2.1 | 12.5 | 8.3  | 10.4 |
|          | 고1 | (67)  | 3.0                | 3.0  | 1.5  | 3.0 | 10.4 | 13.4 | 9.0  |
|          | 고2 | (89)  | 1.1                | 1.1  | 1.1  | 4.5 | 4.5  | 3.4  | 13.5 |
|          | 고3 | (55)  | 1.8                | 3.6  | 0.0  | 5.5 | 3.6  | 9.1  | 12.7 |
| 성적       | 상  | (35)  | 2.9                | 8.6  | 0.0  | 5.7 | 2.9  | 14.3 | 8.6  |
|          | 중  | (54)  | 0.0                | 1.9  | 3.7  | 1.9 | 7.4  | 16.7 | 13.0 |
|          | 하  | (208) | 3.4                | 2.4  | 1.4  | 3.4 | 8.7  | 5.3  | 13.0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7                | 4.3  | 1.7  | 4.3 | 6.8  | 12.8 | 12.0 |
|          | 중  | (103) | 1.9                | 1.0  | 1.9  | 1.0 | 8.7  | 8.7  | 13.6 |
|          | 하  | (76)  | 5.3                | 3.9  | 1.3  | 5.3 | 7.9  | 1.3  | 11.8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2.9                | 3.7  | 1.7  | 3.3 | 9.1  | 9.1  | 13.3 |
|          | 부정 | (56)  | 1.8                | 0.0  | 1.8  | 3.6 | 1.8  | 5.4  | 8.9  |

표 III-8.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접근 용이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      | 매우 구하기<br>쉽다 | 구하기<br>어려움 | 구하기<br>쉬움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7) | 18.2 | 12.5 | 30.0         | 18.5       | 81.5      | 7.6 | 2.4      |                      |
| 성별       | 남  | (231) | 16.5 | 13.9 | 26.4         | 20.8       | 79.2      | 7.4 | 2.4      | -2.512<br>*(0.013)   |
|          | 여  | (65)  | 23.1 | 7.7  | 43.1         | 10.8       | 89.2      | 8.3 | 2.1      |                      |
| 교급       | 중  | (86)  | 14.0 | 9.3  | 27.9         | 25.6       | 74.4      | 7.2 | 2.7      | -1.972<br>(0.051)    |
|          | 고  | (211) | 19.9 | 13.7 | 30.8         | 15.6       | 84.4      | 7.8 | 2.2      |                      |
| 학년       | 중1 | (5)   | 20.0 | 0.0  | 40.0         | 40.0       | 60.0      | 6.6 | 3.8      | 2.779<br>*(0.018)    |
|          | 중2 | (33)  | 6.1  | 12.1 | 18.2         | 30.3       | 69.7      | 6.5 | 2.8      |                      |
|          | 중3 | (48)  | 18.8 | 8.3  | 33.3         | 20.8       | 79.2      | 7.6 | 2.4      |                      |
|          | 고1 | (67)  | 13.4 | 22.4 | 20.9         | 20.9       | 79.1      | 7.4 | 2.4      |                      |
|          | 고2 | (89)  | 22.5 | 6.7  | 41.6         | 12.4       | 87.6      | 8.2 | 2.1      |                      |
|          | 고3 | (55)  | 23.6 | 14.5 | 25.5         | 14.5       | 85.5      | 7.7 | 2.2      |                      |
| 성적       | 상  | (35)  | 11.4 | 11.4 | 34.3         | 20.0       | 80.0      | 7.4 | 2.8      | 0.194<br>(0.824)     |
|          | 중  | (54)  | 11.1 | 11.1 | 33.3         | 14.8       | 85.2      | 7.7 | 2.2      |                      |
|          | 하  | (208) | 21.2 | 13.0 | 28.4         | 19.2       | 80.8      | 7.6 | 2.4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5.4 | 10.3 | 30.8         | 18.8       | 81.2      | 7.5 | 2.4      | 0.651<br>(0.522)     |
|          | 중  | (103) | 21.4 | 10.7 | 31.1         | 14.6       | 85.4      | 7.8 | 2.1      |                      |
|          | 하  | (76)  | 17.1 | 18.4 | 27.6         | 23.7       | 76.3      | 7.5 | 2.7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6.6 | 12.0 | 28.2         | 20.7       | 79.3      | 7.5 | 2.5      | -2.688<br>***(0.008) |
|          | 부정 | (56)  | 25.0 | 14.3 | 37.5         | 8.9        | 91.1      | 8.3 | 2.0      |                      |

다음은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약류를 구하려 한다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마약류를 ‘구하기 쉽다’고 인식한 비율은 61.6%로, 대략 10명 중 6명 정도는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교급과 학년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교급에서 중학생이 44.2%, 고등학생이 68.7%로 고등학생에서 ‘구하기 쉬움’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년별에서도 중학교에서는 인식이 낮게 형성되었으나(중2 39.4%, 중3 45.8%), 고학년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고1 64.2%, 고2 71.9%, 고3 69.1%).



한편,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에서 앞의 분석 결과와 달리 성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성취수준 또한 상 62.9%, 중 66.7%, 하 60.1%로 세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가구소득 또한 상 56.4%, 70.9%, 57.9%로 ‘역U자형’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아긍정 수준은 긍정이 83.4%, 부정이 91.1%로 부정적 자아관을 가질수록 청소년 마약류 접근 용이성이 쉽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은 전체적으로 ‘구하기 쉽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고2·고3)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성적, 가구소득 및 자아긍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표 Ⅲ-9.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매우 구하기<br>어렵다<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7.7                | 4.7  | 7.7  | 8.4  | 9.8  | 13.1 | 14.5 |
| 성별       | 남  | (231) | 8.7                | 5.2  | 8.2  | 9.1  | 9.5  | 13.4 | 13.9 |
|          | 여  | (65)  | 4.6                | 3.1  | 6.2  | 6.2  | 10.8 | 10.8 | 16.9 |
| 교급       | 중  | (86)  | 15.1               | 8.1  | 9.3  | 9.3  | 14.0 | 10.5 | 9.3  |
|          | 고  | (211) | 4.7                | 3.3  | 7.1  | 8.1  | 8.1  | 14.2 | 16.6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0.0  | 0.0  | 0.0  | 0.0  | 0.0  |
|          | 중2 | (33)  | 15.2               | 6.1  | 12.1 | 9.1  | 18.2 | 9.1  | 9.1  |
|          | 중3 | (48)  | 14.6               | 8.3  | 8.3  | 10.4 | 12.5 | 12.5 | 10.4 |
|          | 고1 | (67)  | 7.5                | 4.5  | 3.0  | 13.4 | 7.5  | 19.4 | 14.9 |
|          | 고2 | (89)  | 1.1                | 2.2  | 10.1 | 5.6  | 9.0  | 10.1 | 16.9 |
|          | 고3 | (55)  | 7.3                | 3.6  | 7.3  | 5.5  | 7.3  | 14.5 | 18.2 |
| 성적       | 상  | (35)  | 2.9                | 11.4 | 2.9  | 14.3 | 5.7  | 14.3 | 17.1 |
|          | 중  | (54)  | 7.4                | 3.7  | 9.3  | 3.7  | 9.3  | 20.4 | 11.1 |
|          | 하  | (208) | 8.7                | 3.8  | 8.2  | 8.7  | 10.6 | 11.1 | 14.9 |
| 가구<br>소득 | 상  | (117) | 6.0                | 7.7  | 6.8  | 10.3 | 12.8 | 11.1 | 10.3 |
|          | 중  | (103) | 8.7                | 1.9  | 5.8  | 5.8  | 6.8  | 18.4 | 18.4 |
|          | 하  | (76)  | 9.2                | 3.9  | 11.8 | 7.9  | 9.2  | 9.2  | 15.8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7.5                | 5.4  | 7.1  | 8.3  | 10.8 | 14.9 | 13.3 |
|          | 부정 | (56)  | 8.9                | 1.8  | 10.7 | 8.9  | 5.4  | 5.4  | 19.6 |

표 III-9.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      | 매우 구하기<br>쉽다 | 구하기<br>어려움 | 구하기<br>쉬움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7) | 13.5 | 6.7  | 13.8         | 38.4       | 61.6      | 6.1 | 2.7      |                       |
| 성별       | 남  | (231) | 12.1 | 6.5  | 13.4         | 40.7       | 59.3      | 5.9 | 2.8      | -1.758<br>(0.080)     |
|          | 여  | (65)  | 18.5 | 7.7  | 15.4         | 30.8       | 69.2      | 6.6 | 2.5      |                       |
| 교급       | 중  | (86)  | 10.5 | 7.0  | 7.0          | 55.8       | 44.2      | 5.1 | 2.8      | -4.128<br>*** (0.000) |
|          | 고  | (211) | 14.7 | 6.6  | 16.6         | 31.3       | 68.7      | 6.5 | 2.6      |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20.0         | 40.0       | 60.0      | 6.0 | 4.2      | 4.492<br>*** (0.001)  |
|          | 중2 | (33)  | 12.1 | 3.0  | 6.1          | 60.6       | 39.4      | 4.9 | 2.7      |                       |
|          | 중3 | (48)  | 8.3  | 8.3  | 6.3          | 54.2       | 45.8      | 5.1 | 2.8      |                       |
|          | 고1 | (67)  | 14.9 | 4.5  | 10.4         | 35.8       | 64.2      | 6.0 | 2.5      |                       |
|          | 고2 | (89)  | 16.9 | 5.6  | 22.5         | 28.1       | 71.9      | 6.9 | 2.5      |                       |
|          | 고3 | (55)  | 10.9 | 10.9 | 14.5         | 30.9       | 69.1      | 6.4 | 2.7      |                       |
| 성적       | 상  | (35)  | 8.6  | 2.9  | 20.0         | 37.1       | 62.9      | 6.2 | 2.8      | 0.123<br>(0.884)      |
|          | 중  | (54)  | 11.1 | 11.1 | 13.0         | 33.3       | 66.7      | 6.2 | 2.7      |                       |
|          | 하  | (208) | 14.9 | 6.3  | 13.0         | 39.9       | 60.1      | 6.0 | 2.7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2.0 | 8.5  | 14.5         | 43.6       | 56.4      | 6.0 | 2.8      | 0.814<br>(0.444)      |
|          | 중  | (103) | 12.6 | 5.8  | 15.5         | 29.1       | 70.9      | 6.4 | 2.6      |                       |
|          | 하  | (76)  | 17.1 | 5.3  | 10.5         | 42.1       | 57.9      | 5.9 | 2.7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2.0 | 6.6  | 14.1         | 39.0       | 61.0      | 6.1 | 2.7      | -0.422<br>(0.673)     |
|          | 부정 | (56)  | 19.6 | 7.1  | 12.5         | 35.7       | 64.3      | 6.2 | 2.8      |                       |

다음 결과는 10점 척도에서 6-10점을 합산한 '잘하고 있음'(정부의 마약·유해약물 관리 정책을 잘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 비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관리 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5.9%(평균 5.8점)는 '잘하고 있음'으로 대답하여, 절반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부 정책 수행을 평가했다. 정책시행 인식에서 가구소득만이 집단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상 65.8%, 중 55.3%, 하 40.8%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긍정적 판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반면, 성별·교급·학년별·학업성취수준 및 자아긍정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정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반 정도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집단별 차이 중에서는 가구소득수준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표 III-10.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정책 시행 정도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매우 못하고<br>있다<br>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 전체       |    | (297) | 4.0               | 2.0 | 6.1 | 14.1 | 17.8 | 21.2 | 14.1 |
| 성별       | 남  | (231) | 3.9               | 2.2 | 6.5 | 13.9 | 18.2 | 22.5 | 14.3 |
|          | 여  | (65)  | 4.6               | 1.5 | 4.6 | 13.8 | 16.9 | 16.9 | 13.8 |
| 교급       | 중  | (86)  | 3.5               | 2.3 | 3.5 | 14.0 | 15.1 | 22.1 | 10.5 |
|          | 고  | (211) | 4.3               | 1.9 | 7.1 | 14.2 | 19.0 | 20.9 | 15.6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20.0 | 20.0 | 40.0 | 0.0  |
|          | 중2 | (33)  | 3.0               | 3.0 | 6.1 | 15.2 | 18.2 | 18.2 | 9.1  |
|          | 중3 | (48)  | 4.2               | 2.1 | 2.1 | 12.5 | 12.5 | 22.9 | 12.5 |
|          | 고1 | (67)  | 4.5               | 1.5 | 4.5 | 16.4 | 19.4 | 16.4 | 20.9 |
|          | 고2 | (89)  | 6.7               | 1.1 | 9.0 | 12.4 | 15.7 | 22.5 | 13.5 |
|          | 고3 | (55)  | 0.0               | 3.6 | 7.3 | 14.5 | 23.6 | 23.6 | 12.7 |
| 성적       | 상  | (35)  | 2.9               | 2.9 | 0.0 | 11.4 | 14.3 | 22.9 | 20.0 |
|          | 중  | (54)  | 1.9               | 0.0 | 9.3 | 18.5 | 11.1 | 22.2 | 16.7 |
|          | 하  | (208) | 4.8               | 2.4 | 6.3 | 13.5 | 20.2 | 20.7 | 12.5 |
| 가구<br>소득 | 상  | (117) | 2.6               | 2.6 | 4.3 | 12.8 | 12.0 | 21.4 | 19.7 |
|          | 중  | (103) | 5.8               | 1.9 | 6.8 | 12.6 | 17.5 | 24.3 | 7.8  |
|          | 하  | (76)  | 3.9               | 1.3 | 7.9 | 18.4 | 27.6 | 15.8 | 14.5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4.1               | 1.7 | 5.4 | 13.7 | 17.4 | 22.4 | 14.9 |
|          | 부정 | (56)  | 3.6               | 3.6 | 8.9 | 16.1 | 19.6 | 16.1 | 10.7 |

표 III-10.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 정책 시행 정도 - ②

(단위: (명),%)

|          |    | 사례    |      |      | 매우 잘하고<br>있다 | 못하고<br>있음 | 잘하고<br>있음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7) | 11.4 | 5.4  | 3.7          | 44.1      | 55.9      | 5.8 | 2.1      |                   |
| 성별       | 남  | (231) | 10.4 | 5.2  | 3.0          | 44.6      | 55.4      | 5.7 | 2.0      | -1.061<br>(0.289) |
|          | 여  | (65)  | 15.4 | 6.2  | 6.2          | 41.5      | 58.5      | 6.0 | 2.2      |                   |
| 교급       | 중  | (86)  | 16.3 | 10.5 | 2.3          | 38.4      | 61.6      | 6.0 | 2.1      | 1.500<br>(0.135)  |
|          | 고  | (211) | 9.5  | 3.3  | 4.3          | 46.4      | 53.6      | 5.6 | 2.0      |                   |
| 학년       | 중1 | (5)   | 20.0 | 0.0  | 0.0          | 40.0      | 60.0      | 5.8 | 1.5      | 0.550<br>(0.738)  |
|          | 중2 | (33)  | 12.1 | 9.1  | 6.1          | 45.5      | 54.5      | 5.9 | 2.3      |                   |
|          | 중3 | (48)  | 18.8 | 12.5 | 0.0          | 33.3      | 66.7      | 6.1 | 2.1      |                   |
|          | 고1 | (67)  | 7.5  | 4.5  | 4.5          | 46.3      | 53.7      | 5.7 | 2.1      |                   |
|          | 고2 | (89)  | 11.2 | 3.4  | 4.5          | 44.9      | 55.1      | 5.6 | 2.2      |                   |
|          | 고3 | (55)  | 9.1  | 1.8  | 3.6          | 49.1      | 50.9      | 5.6 | 1.8      |                   |
| 성적       | 상  | (35)  | 22.9 | 2.9  | 0.0          | 31.4      | 68.6      | 6.1 | 1.8      | 0.773<br>(0.462)  |
|          | 중  | (54)  | 11.1 | 5.6  | 3.7          | 40.7      | 59.3      | 5.9 | 2.0      |                   |
|          | 하  | (208) | 9.6  | 5.8  | 4.3          | 47.1      | 52.9      | 5.7 | 2.1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3.7 | 6.0  | 5.1          | 34.2      | 65.8      | 6.1 | 2.0      | 3.896<br>*(0.021) |
|          | 중  | (103) | 12.6 | 7.8  | 2.9          | 44.7      | 55.3      | 5.7 | 2.2      |                   |
|          | 하  | (76)  | 6.6  | 1.3  | 2.6          | 59.2      | 40.8      | 5.3 | 1.8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1.6 | 5.4  | 3.3          | 42.3      | 57.7      | 5.8 | 2.0      | 0.664<br>(0.507)  |
|          | 부정 | (56)  | 10.7 | 5.4  | 5.4          | 51.8      | 48.2      | 5.6 | 2.2      |                   |

다음은 마약 표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조사하여 6-10점을 '영향 있음', 1-5점을 '영향 없음'으로 합산한 결과이다. 응답자에게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과 같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음식명이나 상호에 노출되었을 때, 관련 표현들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의 문항으로 관련 인식을 측정하였다.

응답자 중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로 '영향이 없다' 54.5%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학생 10명 중 약 4-5명은 마약 관련 표현이 자신의 인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 수치가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규모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하위유형 중 가구소득만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상 41.9%, 중 49.5%, 하 46.1%로 중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에서 ‘영향 있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중·하위 소득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디어 노출·감시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외에 성별, 교급, 학년, 성적 및 자아긍정에서의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영향 있음’ 응답이 과반을 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약 46%)의 청소년이 마약 표현의 영향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중·하위 소득층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영향을 체감하는 집단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III-11.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 표현의 영향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전체       |    | (297) | 13.5      | 8.1  | 15.5 | 6.7  | 10.8 | 10.1 | 9.4  |
| 성별       | 남  | (231) | 16.0      | 7.4  | 14.3 | 6.1  | 12.1 | 8.2  | 10.0 |
|          | 여  | (65)  | 4.6       | 10.8 | 18.5 | 9.2  | 6.2  | 16.9 | 7.7  |
| 교급       | 중  | (86)  | 12.8      | 11.6 | 14.0 | 8.1  | 12.8 | 4.7  | 14.0 |
|          | 고  | (211) | 13.7      | 6.6  | 16.1 | 6.2  | 10.0 | 12.3 | 7.6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0.0  | 0.0  | 20.0 | 0.0  | 20.0 |
|          | 중2 | (33)  | 18.2      | 9.1  | 15.2 | 9.1  | 9.1  | 3.0  | 3.0  |
|          | 중3 | (48)  | 8.3       | 12.5 | 14.6 | 8.3  | 14.6 | 6.3  | 20.8 |
|          | 고1 | (67)  | 13.4      | 6.0  | 13.4 | 7.5  | 6.0  | 13.4 | 11.9 |
|          | 고2 | (89)  | 15.7      | 7.9  | 13.5 | 3.4  | 12.4 | 12.4 | 3.4  |
|          | 고3 | (55)  | 10.9      | 5.5  | 23.6 | 9.1  | 10.9 | 10.9 | 9.1  |
| 성적       | 상  | (35)  | 8.6       | 11.4 | 22.9 | 8.6  | 2.9  | 8.6  | 5.7  |
|          | 중  | (54)  | 7.4       | 13.0 | 13.0 | 14.8 | 11.1 | 1.9  | 14.8 |
|          | 하  | (208) | 15.9      | 6.3  | 14.9 | 4.3  | 12.0 | 12.5 | 8.7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6.2      | 6.8  | 21.4 | 7.7  | 6.0  | 8.5  | 12.0 |
|          | 중  | (103) | 5.8       | 7.8  | 9.7  | 8.7  | 18.4 | 10.7 | 7.8  |
|          | 하  | (76)  | 19.7      | 10.5 | 14.5 | 2.6  | 6.6  | 11.8 | 7.9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4.1      | 8.7  | 14.5 | 7.1  | 11.2 | 8.7  | 10.0 |
|          | 부정 | (56)  | 10.7      | 5.4  | 19.6 | 5.4  | 8.9  | 16.1 | 7.1  |

표 III-11. 유해약물 심각도에 대한 인식 - 마약 표현의 영향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      | 매우<br>그렇다 | 그렇지<br>않음 | 그려함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       | ⑧    | ⑨    | ⑩         | ①~⑤       | ⑥~⑩  |     |          |                   |
| 전체       |    | (297) | 8.4  | 5.1  | 12.5      | 54.5      | 45.5 | 5.2 | 3.0      |                   |
| 성별       | 남  | (231) | 9.5  | 5.6  | 10.8      | 55.8      | 44.2 | 5.1 | 3.0      | -0.996<br>(0.320) |
|          | 여  | (65)  | 4.6  | 3.1  | 18.5      | 49.2      | 50.8 | 5.5 | 2.9      |                   |
| 교급       | 중  | (86)  | 5.8  | 8.1  | 8.1       | 59.3      | 40.7 | 5.0 | 2.9      | -0.734<br>(0.463) |
|          | 고  | (211) | 9.5  | 3.8  | 14.2      | 52.6      | 47.4 | 5.3 | 3.0      |                   |
| 학년       | 중1 | (5)   | 0.0  | 0.0  | 20.0      | 60.0      | 40.0 | 5.0 | 3.7      | 0.433<br>(0.825)  |
|          | 중2 | (33)  | 3.0  | 15.2 | 15.2      | 60.6      | 39.4 | 5.2 | 3.4      |                   |
|          | 중3 | (48)  | 8.3  | 4.2  | 2.1       | 58.3      | 41.7 | 4.9 | 2.5      |                   |
|          | 고1 | (67)  | 10.4 | 3.0  | 14.9      | 46.3      | 53.7 | 5.5 | 3.0      |                   |
|          | 고2 | (89)  | 7.9  | 4.5  | 19.1      | 52.8      | 47.2 | 5.4 | 3.2      |                   |
|          | 고3 | (55)  | 10.9 | 3.6  | 5.5       | 60.0      | 40.0 | 4.9 | 2.6      |                   |
| 성적       | 상  | (35)  | 8.6  | 8.6  | 14.3      | 54.3      | 45.7 | 5.3 | 3.1      | 0.051<br>(0.951)  |
|          | 중  | (54)  | 5.6  | 1.9  | 16.7      | 59.3      | 40.7 | 5.3 | 2.9      |                   |
|          | 하  | (208) | 9.1  | 5.3  | 11.1      | 53.4      | 46.6 | 5.2 | 2.9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6.0  | 5.1  | 10.3      | 58.1      | 41.9 | 4.9 | 2.9      | 3.489<br>*(0.032) |
|          | 중  | (103) | 9.7  | 4.9  | 16.5      | 50.5      | 49.5 | 5.8 | 2.8      |                   |
|          | 하  | (76)  | 10.5 | 5.3  | 10.5      | 53.9      | 46.1 | 4.9 | 3.1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7.9  | 5.0  | 12.9      | 55.6      | 44.4 | 5.2 | 3.0      | -0.367<br>(0.714) |
|          | 부정 | (56)  | 10.7 | 5.4  | 10.7      | 50.0      | 50.0 | 5.3 | 2.8      |                   |

## 2) 마약류 인식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을 각각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긍정 인식은 '마약류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마약류 사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이 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 사용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1.3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 인식은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마약류 사용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마약류를 남용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이 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와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가 4.3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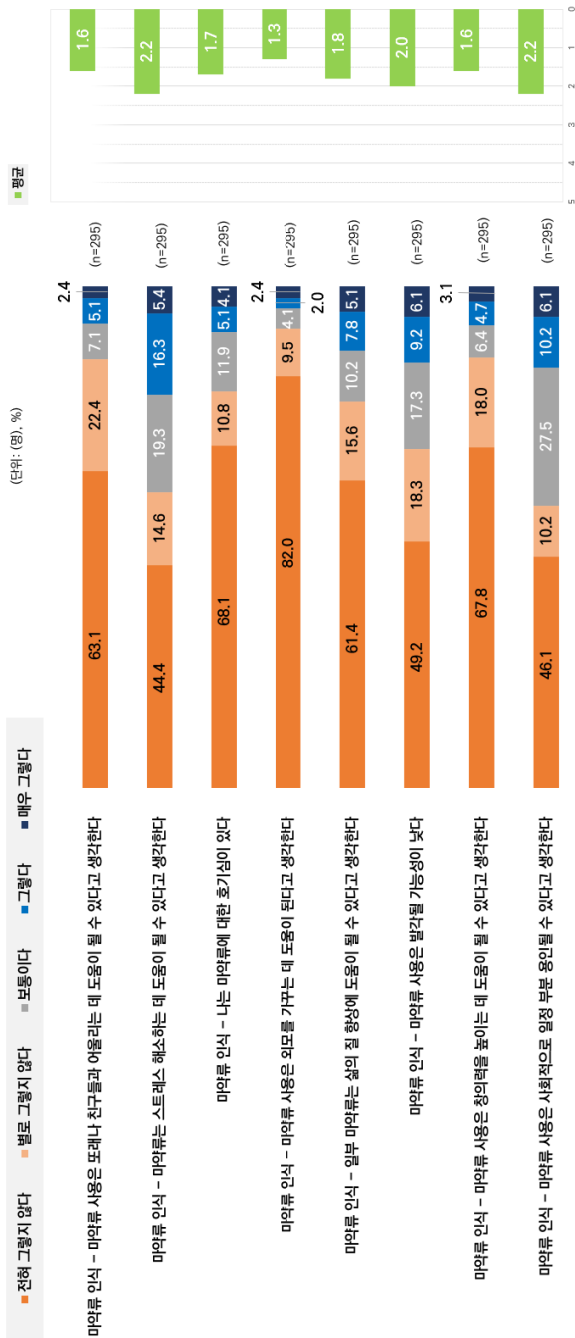


그림 III -3.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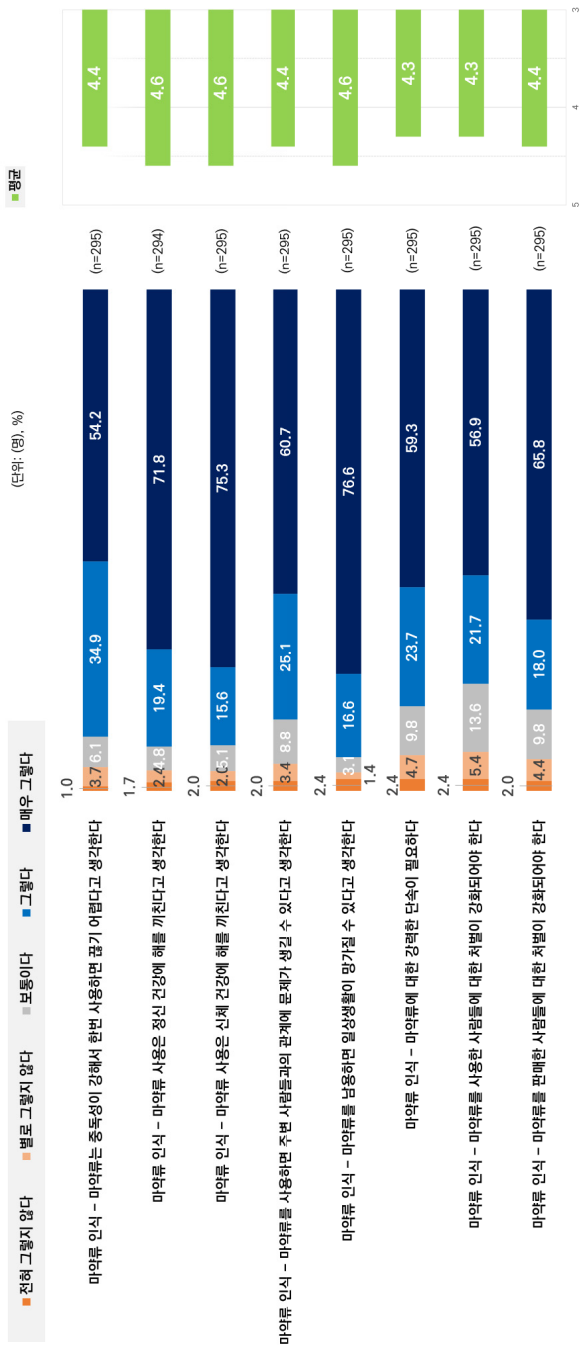


그림 III-4. 마약류에 대한 부정 인식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또래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비동의가 85.4%, 동의가 7.5%(보통은 7.1%)로 나타났다(평균 1.6점). 즉, 학생 10명 중 8~9명은 마약류 사용이 또래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단별로도 큰 흐름은 동일했다. 하위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는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학업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마약류 사용이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보인다(상 5.9%, 중 7.4%, 하 7.4%). 또한 자아긍정에서도 자아형성이 부정적인 경우의 동의 비율이 10.7%로 긍정비율의 6.7%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종합하면, 청소년 다수는 마약류 사용이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으며, 성별·교급·학년·성적·소득수준·자아긍정의 배경요인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12.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또래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63.1                 | 22.4                 | 7.1           | 5.1      | 2.4            | 85.4             | 7.5        | 1.6 | 1.0      |         |
| 성별       | 남  | (229) | 65.1                 | 21.4                 | 7.0           | 4.4      | 2.2            | 86.5             | 6.6        | 1.6 | 1.0      | -1.424  |
|          | 여  | (65)  | 55.4                 | 26.2                 | 7.7           | 7.7      | 3.1            | 81.5             | 10.8       | 1.8 | 1.1      | (0.156) |
| 교급       | 중  | (86)  | 62.8                 | 22.1                 | 10.5          | 2.3      | 2.3            | 84.9             | 4.7        | 1.6 | 0.9      | -0.229  |
|          | 고  | (209) | 63.2                 | 22.5                 | 5.7           | 6.2      | 2.4            | 85.6             | 8.6        | 1.6 | 1.0      | (0.819) |
| 학년       | 중1 | (5)   | 60.0                 | 0.0                  | 40.0          | 0.0      | 0.0            | 60.0             | 0.0        | 1.8 | 1.1      |         |
|          | 중2 | (33)  | 63.6                 | 18.2                 | 9.1           | 6.1      | 3.0            | 81.8             | 9.1        | 1.7 | 1.1      |         |
|          | 중3 | (48)  | 62.5                 | 27.1                 | 8.3           | 0.0      | 2.1            | 89.6             | 2.1        | 1.5 | 0.8      | 0.188   |
|          | 고1 | (65)  | 61.5                 | 27.7                 | 4.6           | 3.1      | 3.1            | 89.2             | 6.2        | 1.6 | 1.0      | (0.967) |
|          | 고2 | (89)  | 66.3                 | 16.9                 | 6.7           | 9.0      | 1.1            | 83.1             | 10.1       | 1.6 | 1.0      |         |
|          | 고3 | (55)  | 60.0                 | 25.5                 | 5.5           | 5.5      | 3.6            | 85.5             | 9.1        | 1.7 | 1.1      |         |
| 성적       | 상  | (34)  | 70.6                 | 20.6                 | 2.9           | 5.9      | 0.0            | 91.2             | 5.9        | 1.4 | 0.8      | 0.813   |
|          | 중  | (54)  | 64.8                 | 22.2                 | 5.6           | 7.4      | 0.0            | 87.0             | 7.4        | 1.6 | 0.9      | (0.445) |
|          | 하  | (207) | 61.4                 | 22.7                 | 8.2           | 4.3      | 3.4            | 84.1             | 7.7        | 1.7 | 1.0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1.2                 | 27.6                 | 5.2           | 4.3      | 1.7            | 88.8             | 6.0        | 1.6 | 0.9      | 0.300   |
|          | 중  | (102) | 63.7                 | 16.7                 | 9.8           | 7.8      | 2.0            | 80.4             | 9.8        | 1.7 | 1.1      | (0.741) |
|          | 하  | (76)  | 64.5                 | 22.4                 | 6.6           | 2.6      | 3.9            | 86.8             | 6.6        | 1.6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64.4                 | 21.8                 | 7.1           | 4.6      | 2.1            | 86.2             | 6.7        | 1.6 | 1.0      | -1.151  |
|          | 부정 | (56)  | 57.1                 | 25.0                 | 7.1           | 7.1      | 3.6            | 82.1             | 10.7       | 1.8 | 1.1      | (0.251) |

다음은 문항 “마약류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에 대한 것이다. 응답자 중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비율은 59%, ‘보통이다’ 18.6%, ‘그렇다’ 21.7%로 나타나(평균 2.2점), 10명 중 6명 정도는 비동의의 수준에 머물렀다. 반대로 살펴보면 동의의 비율이 40% 정도로, 그 수치가 과반에는 못 미치지만, 규모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비율이므로 해당 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도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그렇다’ 비율이 여학생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남 22.3%, 여 20.0%), 교급별로도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렇다’ 응답이 높게 관찰되었다(중 17.4%, 고 23.4%). 학업성취수준, 가구소득수준 및 자아긍정에서는 ‘그렇다’의 비율이 대체로 20%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요약하면, “마약류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동의하지 않는 인식이 더 많기는 하였으나(59%), 동의 수준 또한 낮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하위집단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동의 응답은 전반적으로 20%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

표 III-13. 마약류 인식 - 마약류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95) | 44.4                 | 14.6                 | 19.3          | 16.3     | 5.4            | 59.0             | 21.7       | 2.2 | 1.3      |                   |
| 성별       | 남  | (229) | 47.6                 | 11.4                 | 18.8          | 18.3     | 3.9            | 59.0             | 22.3       | 2.2 | 1.3      | -0.934<br>(0.351) |
|          | 여  | (65)  | 33.8                 | 26.2                 | 20.0          | 9.2      | 10.8           | 60.0             | 20.0       | 2.4 | 1.3      |                   |
| 교급       | 중  | (86)  | 48.8                 | 14.0                 | 19.8          | 17.4     | 0.0            | 62.8             | 17.4       | 2.1 | 1.2      | -1.596<br>(0.112) |
|          | 고  | (209) | 42.6                 | 14.8                 | 19.1          | 15.8     | 7.7            | 57.4             | 23.4       | 2.3 | 1.4      |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0.0           | 20.0     | 0.0            | 80.0             | 20.0       | 1.8 | 1.3      | 0.633<br>(0.674)  |
|          | 중2 | (33)  | 54.5                 | 9.1                  | 21.2          | 15.2     | 0.0            | 63.6             | 15.2       | 2.0 | 1.2      |                   |
|          | 중3 | (48)  | 43.8                 | 16.7                 | 20.8          | 18.8     | 0.0            | 60.4             | 18.8       | 2.1 | 1.2      |                   |
|          | 고1 | (65)  | 40.0                 | 21.5                 | 18.5          | 15.4     | 4.6            | 61.5             | 20.0       | 2.2 | 1.3      |                   |
|          | 고2 | (89)  | 44.9                 | 12.4                 | 16.9          | 13.5     | 12.4           | 57.3             | 25.8       | 2.4 | 1.5      |                   |
|          | 고3 | (55)  | 41.8                 | 10.9                 | 23.6          | 20.0     | 3.6            | 52.7             | 23.6       | 2.3 | 1.3      |                   |
| 성적       | 상  | (34)  | 41.2                 | 11.8                 | 17.6          | 17.6     | 11.8           | 52.9             | 29.4       | 2.5 | 1.5      | 0.954<br>(0.387)  |
|          | 중  | (54)  | 48.1                 | 14.8                 | 24.1          | 7.4      | 5.6            | 63.0             | 13.0       | 2.1 | 1.2      |                   |
|          | 하  | (207) | 44.0                 | 15.0                 | 18.4          | 18.4     | 4.3            | 58.9             | 22.7       | 2.2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48.3                 | 15.5                 | 17.2          | 13.8     | 5.2            | 63.8             | 19.0       | 2.1 | 1.3      | 0.759<br>(0.469)  |
|          | 중  | (102) | 42.2                 | 11.8                 | 21.6          | 19.6     | 4.9            | 53.9             | 24.5       | 2.3 | 1.3      |                   |
|          | 하  | (76)  | 42.1                 | 17.1                 | 18.4          | 15.8     | 6.6            | 59.2             | 22.4       | 2.3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46.0                 | 13.8                 | 18.8          | 16.3     | 5.0            | 59.8             | 21.3       | 2.2 | 1.3      | -0.871<br>(0.384) |
|          | 부정 | (56)  | 37.5                 | 17.9                 | 21.4          | 16.1     | 7.1            | 55.4             | 23.2       | 2.4 | 1.3      |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단 4.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은 1.3점이다. 즉, 청소년 다수는 마약류가 외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포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찾기 힘들었다. 성별,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및 자아긍정 모든 하위항목에서 대체로 90% 내외의 비동의 응답을 보여, 의미 있는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Ⅲ-14.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82.0                 | 9.5                  | 4.1           | 2.0      | 2.4            | 91.5             | 4.4        | 1.3 | 0.8      |                   |
| 성별       | 남  | (229) | 83.0                 | 9.6                  | 4.4           | 0.9      | 2.2            | 92.6             | 3.1        | 1.3 | 0.8      | -1.192<br>(0.236) |
|          | 여  | (65)  | 78.5                 | 9.2                  | 3.1           | 6.2      | 3.1            | 87.7             | 9.2        | 1.5 | 1.0      |                   |
| 교급       | 중  | (86)  | 80.2                 | 9.3                  | 4.7           | 1.2      | 4.7            | 89.5             | 5.8        | 1.4 | 1.0      | 0.976<br>(0.330)  |
|          | 고  | (209) | 82.8                 | 9.6                  | 3.8           | 2.4      | 1.4            | 92.3             | 3.8        | 1.3 | 0.8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0.698<br>(0.626)  |
|          | 중2 | (33)  | 78.8                 | 6.1                  | 9.1           | 0.0      | 6.1            | 84.8             | 6.1        | 1.5 | 1.1      |                   |
|          | 중3 | (48)  | 79.2                 | 12.5                 | 2.1           | 2.1      | 4.2            | 91.7             | 6.3        | 1.4 | 1.0      |                   |
|          | 고1 | (65)  | 83.1                 | 13.8                 | 1.5           | 1.5      | 0.0            | 96.9             | 1.5        | 1.2 | 0.5      |                   |
|          | 고2 | (89)  | 83.1                 | 6.7                  | 4.5           | 2.2      | 3.4            | 89.9             | 5.6        | 1.4 | 0.9      |                   |
|          | 고3 | (55)  | 81.8                 | 9.1                  | 5.5           | 3.6      | 0.0            | 90.9             | 3.6        | 1.3 | 0.7      |                   |
| 성적       | 상  | (34)  | 91.2                 | 5.9                  | 0.0           | 2.9      | 0.0            | 97.1             | 2.9        | 1.1 | 0.6      | 0.934<br>(0.394)  |
|          | 중  | (54)  | 77.8                 | 13.0                 | 5.6           | 1.9      | 1.9            | 90.7             | 3.7        | 1.4 | 0.8      |                   |
|          | 하  | (207) | 81.6                 | 9.2                  | 4.3           | 1.9      | 2.9            | 90.8             | 4.8        | 1.4 | 0.9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85.3                 | 5.2                  | 2.6           | 4.3      | 2.6            | 90.5             | 6.9        | 1.3 | 0.9      | 0.015<br>(0.986)  |
|          | 중  | (102) | 79.4                 | 12.7                 | 4.9           | 1.0      | 2.0            | 92.2             | 2.9        | 1.3 | 0.8      |                   |
|          | 하  | (76)  | 81.6                 | 10.5                 | 5.3           | 0.0      | 2.6            | 92.1             | 2.6        | 1.3 | 0.8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84.1                 | 7.9                  | 3.8           | 1.7      | 2.5            | 92.1             | 4.2        | 1.3 | 0.8      | -1.126<br>(0.261) |
|          | 부정 | (56)  | 73.2                 | 16.1                 | 5.4           | 3.6      | 1.8            | 89.3             | 5.4        | 1.4 | 0.9      |                   |

다음은 문항 “일부 마약류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76.9%는 ‘그렇지 않다’, 12.9%는 ‘그렇다’, 10.2%는 ‘보통이다’로 집계되었다(평균 1.8점). 즉, 다수의 청소년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 응답은 10명 중 1~2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렇다’와 ‘보통’을 합한 비율이 약 23%로 학생 다섯 중 한 명 이상이 마약류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긍정·중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소수이지만 간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므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하위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15. 마약류 인식 - 일부 마약류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 (295) | 61.4                 | 15.6                 | 10.2          | 7.8      | 5.1            | 76.9             | 12.9       | 1.8 | 1.2      |         |         |
| 성별       | 남  | (229) | 62.0                 | 16.6                 | 10.0          | 7.0      | 4.4            | 78.6             | 11.4       | 1.8 | 1.2      | -1.088  |         |
|          | 여  | (65)  | 60.0                 | 10.8                 | 10.8          | 10.8     | 7.7            | 70.8             | 18.5       | 2.0 | 1.4      | (0.277) |         |
| 교급       | 중  | (86)  | 54.7                 | 19.8                 | 10.5          | 11.6     | 3.5            | 74.4             | 15.1       | 1.9 | 1.2      | 0.904   |         |
|          | 고  | (209) | 64.1                 | 13.9                 | 10.0          | 6.2      | 5.7            | 78.0             | 12.0       | 1.8 | 1.2      | (0.367) |         |
| 학년       | 중1 | (5)   | 40.0                 | 40.0                 | 0.0           | 20.0     | 0.0            | 80.0             | 20.0       | 2.0 | 1.2      | 0.396   |         |
|          | 중2 | (33)  | 57.6                 | 18.2                 | 12.1          | 6.1      | 6.1            | 75.8             | 12.1       | 1.8 | 1.2      |         | (0.852) |
|          | 중3 | (48)  | 54.2                 | 18.8                 | 10.4          | 14.6     | 2.1            | 72.9             | 16.7       | 1.9 | 1.2      |         |         |
|          | 고1 | (65)  | 63.1                 | 20.0                 | 9.2           | 6.2      | 1.5            | 83.1             | 7.7        | 1.6 | 1.0      |         |         |
|          | 고2 | (89)  | 65.2                 | 11.2                 | 7.9           | 6.7      | 9.0            | 76.4             | 15.7       | 1.8 | 1.3      |         |         |
|          | 고3 | (55)  | 63.6                 | 10.9                 | 14.5          | 5.5      | 5.5            | 74.5             | 10.9       | 1.8 | 1.2      |         |         |
| 성적       | 상  | (34)  | 64.7                 | 14.7                 | 2.9           | 8.8      | 8.8            | 79.4             | 17.6       | 1.8 | 1.4      | 0.010   |         |
|          | 중  | (54)  | 63.0                 | 14.8                 | 9.3           | 5.6      | 7.4            | 77.8             | 13.0       | 1.8 | 1.3      |         | (0.990) |
|          | 하  | (207) | 60.4                 | 15.9                 | 11.6          | 8.2      | 3.9            | 76.3             | 12.1       | 1.8 | 1.2      |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2.9                 | 14.7                 | 12.9          | 6.9      | 2.6            | 77.6             | 9.5        | 1.7 | 1.1      | 0.523   |         |
|          | 중  | (102) | 61.8                 | 16.7                 | 6.9           | 7.8      | 6.9            | 78.4             | 14.7       | 1.8 | 1.3      |         | (0.598) |
|          | 하  | (76)  | 59.2                 | 14.5                 | 10.5          | 9.2      | 6.6            | 73.7             | 15.8       | 1.9 | 1.3      |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62.8                 | 14.2                 | 9.6           | 8.4      | 5.0            | 77.0             | 13.4       | 1.8 | 1.2      | -0.294  |         |
|          | 부정 | (56)  | 55.4                 | 21.4                 | 12.5          | 5.4      | 5.4            | 76.8             | 10.7       | 1.8 | 1.2      | (0.769) |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측정 응답 결과이다. 전체 중 ‘그렇지 않다’가 85.8%, ‘보통 6.4%’, ‘그렇다’ 7.8%로 집계되었으며, 대다수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성별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 7.9%, 여학생 7.7%로 유사했고, 교급도 중학생 8.1%, 고등학생 8.1% 수준이었다. 학년별 분포도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정 학년에 일관된 고저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구소득 하위 집단에서 ‘그렇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약 13% 내외) 나타났으며, 성적에서도 상위권의 응답이 11.8%,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도 다소 높게(12.5%) 나타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정리하면, 청소년 대부분은 ‘마약류가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집단 간 유의한 격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하위 소득, 부정적 자아 및 성적 상위권에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경향은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Ⅲ-16.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67.8                 | 18.0                 | 6.4           | 4.7      | 3.1            | 85.8             | 7.8        | 1.6 | 1.0      |                   |
| 성별       | 남  | (229) | 66.4                 | 19.2                 | 6.6           | 4.4      | 3.5            | 85.6             | 7.9        | 1.6 | 1.0      | 0.604<br>(0.547)  |
|          | 여  | (65)  | 72.3                 | 13.8                 | 6.2           | 6.2      | 1.5            | 86.2             | 7.7        | 1.5 | 1.0      |                   |
| 교급       | 중  | (86)  | 69.8                 | 20.9                 | 1.2           | 4.7      | 3.5            | 90.7             | 8.1        | 1.5 | 1.0      | -0.665<br>(0.507) |
|          | 고  | (209) | 67.0                 | 16.7                 | 8.6           | 4.8      | 2.9            | 83.7             | 7.7        | 1.6 | 1.0      |                   |
| 학년       | 중1 | (5)   | 60.0                 | 40.0                 | 0.0           | 0.0      | 0.0            | 100.0            | 0.0        | 1.4 | 0.5      | 0.138<br>(0.983)  |
|          | 중2 | (33)  | 69.7                 | 21.2                 | 3.0           | 3.0      | 3.0            | 90.9             | 6.1        | 1.5 | 0.9      |                   |
|          | 중3 | (48)  | 70.8                 | 18.8                 | 0.0           | 6.3      | 4.2            | 89.6             | 10.4       | 1.5 | 1.1      |                   |
|          | 고1 | (65)  | 64.6                 | 23.1                 | 3.1           | 6.2      | 3.1            | 87.7             | 9.2        | 1.6 | 1.0      |                   |
|          | 고2 | (89)  | 70.8                 | 13.5                 | 7.9           | 3.4      | 4.5            | 84.3             | 7.9        | 1.6 | 1.1      |                   |
|          | 고3 | (55)  | 63.6                 | 14.5                 | 16.4          | 5.5      | 0.0            | 78.2             | 5.5        | 1.6 | 0.9      |                   |
| 성적       | 상  | (34)  | 64.7                 | 14.7                 | 8.8           | 8.8      | 2.9            | 79.4             | 11.8       | 1.7 | 1.1      | 0.511<br>(0.601)  |
|          | 중  | (54)  | 72.2                 | 16.7                 | 3.7           | 5.6      | 1.9            | 88.9             | 7.4        | 1.5 | 0.9      |                   |
|          | 하  | (207) | 67.1                 | 18.8                 | 6.8           | 3.9      | 3.4            | 86.0             | 7.2        | 1.6 | 1.0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73.3                 | 14.7                 | 6.0           | 5.2      | 0.9            | 87.9             | 6.0        | 1.5 | 0.9      | 2.570<br>(0.078)  |
|          | 중  | (102) | 65.7                 | 22.5                 | 5.9           | 3.9      | 2.0            | 88.2             | 5.9        | 1.5 | 0.9      |                   |
|          | 하  | (76)  | 63.2                 | 15.8                 | 7.9           | 5.3      | 7.9            | 78.9             | 13.2       | 1.8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69.9                 | 17.2                 | 6.3           | 4.2      | 2.5            | 87.0             | 6.7        | 1.5 | 1.0      | -1.542<br>(0.127) |
|          | 부정 | (56)  | 58.9                 | 21.4                 | 7.1           | 7.1      | 5.4            | 80.4             | 12.5       | 1.8 | 1.2      |                   |

다음은 문항 “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비동의 79.0%, 동의 9.2%, 보통 11.9%로 나타났다. 평균은 1.7점으로, 대다수 청소년은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부인하나 약 10% 내외의 동의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별 차이를 보면, 성별·교급·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서는 남학생 동의 비율이 7%(평균 1.5점), 여학생 동의 비율이 16.9%(평균 2.1점)로 여학생의 호기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급 별로는 중학생 4.7%, 고등학생 11%로 고등학생이 유의하게 높아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에서 동기가 뚜렷이 높아지고, 특히 고2(동의 16.9%)에서 정점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과 고등학교 전환기(특히 고2)를 우선 표적군으로 설정하여 호기심 유발 요인(예: 포레, SNS 노출 등)을 다루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익명 상담·신고 채널 안내를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고1~고2 시기에 진로·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호기심이 실제 시도 행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업성취·가구소득수준 및 자아 긍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문항에 10명 중 8명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보통’과 ‘그렇다’의 동의의 비율도 20% 정도이므로 호기심이 실제 실행에 옮겨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표 III-17. 마약류 인식 - 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68.1                 | 10.8                 | 11.9          | 5.1      | 4.1            | 79.0             | 9.2        | 1.7 | 1.1      |             |
| 성별       | 남  | (229) | 71.6                 | 12.2                 | 9.2           | 4.4      | 2.6            | 83.8             | 7.0        | 1.5 | 1.0      | -2.888      |
|          | 여  | (65)  | 56.9                 | 4.6                  | 21.5          | 7.7      | 9.2            | 61.5             | 16.9       | 2.1 | 1.4      | **(0.005)   |
| 교급       | 중  | (86)  | 76.7                 | 15.1                 | 3.5           | 4.7      | 0.0            | 91.9             | 4.7        | 1.4 | 0.8      | -3.594      |
|          | 고  | (209) | 64.6                 | 9.1                  | 15.3          | 5.3      | 5.7            | 73.7             | 11.0       | 1.8 | 1.2      | *** (0.000)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
|          | 중2 | (33)  | 69.7                 | 15.2                 | 3.0           | 12.1     | 0.0            | 84.8             | 12.1       | 1.6 | 1.0      |             |
|          | 중3 | (48)  | 79.2                 | 16.7                 | 4.2           | 0.0      | 0.0            | 95.8             | 0.0        | 1.3 | 0.5      | 2.510       |
|          | 고1 | (65)  | 63.1                 | 13.8                 | 13.8          | 6.2      | 3.1            | 76.9             | 9.2        | 1.7 | 1.1      | *(0.030)    |
|          | 고2 | (89)  | 66.3                 | 6.7                  | 10.1          | 5.6      | 11.2           | 73.0             | 16.9       | 1.9 | 1.4      |             |
|          | 고3 | (55)  | 63.6                 | 7.3                  | 25.5          | 3.6      | 0.0            | 70.9             | 3.6        | 1.7 | 1.0      |             |
| 성적       | 상  | (34)  | 73.5                 | 14.7                 | 0.0           | 5.9      | 5.9            | 88.2             | 11.8       | 1.6 | 1.2      |             |
|          | 중  | (54)  | 70.4                 | 5.6                  | 20.4          | 1.9      | 1.9            | 75.9             | 3.7        | 1.6 | 1.0      | 0.339       |
|          | 하  | (207) | 66.7                 | 11.6                 | 11.6          | 5.8      | 4.3            | 78.3             | 10.1       | 1.7 | 1.1      | (0.713)     |
| 가구<br>소득 | 상  | (116) | 76.7                 | 8.6                  | 7.8           | 3.4      | 3.4            | 85.3             | 6.9        | 1.5 | 1.0      |             |
|          | 중  | (102) | 61.8                 | 14.7                 | 13.7          | 5.9      | 3.9            | 76.5             | 9.8        | 1.8 | 1.1      | 2.443       |
|          | 하  | (76)  | 64.5                 | 7.9                  | 15.8          | 6.6      | 5.3            | 72.4             | 11.8       | 1.8 | 1.2      | (0.089)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70.7                 | 10.9                 | 10.0          | 4.6      | 3.8            | 81.6             | 8.4        | 1.6 | 1.1      | -1.825      |
|          | 부정 | (56)  | 57.1                 | 10.7                 | 19.6          | 7.1      | 5.4            | 67.9             | 12.5       | 1.9 | 1.2      | (0.072)     |

다음은 문항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295명 중 마약류의 중독성을 끊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평균 4.4점)이며, 비동의는 4.7%에 불과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마약류의 강한 중독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항목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술통계상 중학생의 동의율이 94.2%로 고등학생(87.1%)보다 약간 높아,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독성에 대한 동의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10명 중 9명 이상)가 ‘마약류는 한 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하며, 하위 항목에서 대체로 높은 동의가 공통적으로 유지되어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8. 마약류 인식 -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1.0                  | 3.7                  | 6.1           | 34.9     | 54.2           | 4.7              | 89.2       | 4.4 | 0.8      |                  |
| 성별       | 남  | (229) | 1.3                  | 3.1                  | 7.0           | 32.3     | 56.3           | 4.4              | 88.6       | 4.4 | 0.8      | 0.722<br>(0.471) |
|          | 여  | (65)  | 0.0                  | 6.2                  | 3.1           | 44.6     | 46.2           | 6.2              | 90.8       | 4.3 | 0.8      |                  |
| 교급       | 중  | (86)  | 2.3                  | 2.3                  | 1.2           | 29.1     | 65.1           | 4.7              | 94.2       | 4.5 | 0.8      | 1.938<br>(0.054) |
|          | 고  | (209) | 0.5                  | 4.3                  | 8.1           | 37.3     | 49.8           | 4.8              | 87.1       | 4.3 | 0.8      |                  |
| 학년       | 중1 | (5)   | 0.0                  | 20.0                 | 0.0           | 20.0     | 60.0           | 20.0             | 80.0       | 4.2 | 1.3      | 1.188<br>(0.315) |
|          | 중2 | (33)  | 0.0                  | 0.0                  | 3.0           | 30.3     | 66.7           | 0.0              | 97.0       | 4.6 | 0.5      |                  |
|          | 중3 | (48)  | 4.2                  | 2.1                  | 0.0           | 29.2     | 64.6           | 6.3              | 93.8       | 4.5 | 0.9      |                  |
|          | 고1 | (65)  | 0.0                  | 4.6                  | 3.1           | 44.6     | 47.7           | 4.6              | 92.3       | 4.4 | 0.8      |                  |
|          | 고2 | (89)  | 1.1                  | 5.6                  | 9.0           | 34.8     | 49.4           | 6.7              | 84.3       | 4.3 | 0.9      |                  |
|          | 고3 | (55)  | 0.0                  | 1.8                  | 12.7          | 32.7     | 52.7           | 1.8              | 85.5       | 4.4 | 0.8      |                  |
| 성적       | 상  | (34)  | 0.0                  | 2.9                  | 0.0           | 32.4     | 64.7           | 2.9              | 97.1       | 4.6 | 0.7      | 1.227<br>(0.295) |
|          | 중  | (54)  | 1.9                  | 1.9                  | 9.3           | 33.3     | 53.7           | 3.7              | 87.0       | 4.4 | 0.9      |                  |
|          | 하  | (207) | 1.0                  | 4.3                  | 6.3           | 35.7     | 52.7           | 5.3              | 88.4       | 4.3 | 0.9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0.0                  | 4.3                  | 6.0           | 29.3     | 60.3           | 4.3              | 89.7       | 4.5 | 0.8      | 0.977<br>(0.378) |
|          | 중  | (102) | 2.0                  | 2.0                  | 6.9           | 37.3     | 52.0           | 3.9              | 89.2       | 4.4 | 0.9      |                  |
|          | 하  | (76)  | 1.3                  | 5.3                  | 5.3           | 39.5     | 48.7           | 6.6              | 88.2       | 4.3 | 0.9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0.8                  | 3.3                  | 6.3           | 34.3     | 55.2           | 4.2              | 89.5       | 4.4 | 0.8      | 0.896<br>(0.371) |
|          | 부정 | (56)  | 1.8                  | 5.4                  | 5.4           | 37.5     | 50.0           | 7.1              | 87.5       | 4.3 | 0.9      |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91.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중에서도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71.8%를 차지했다. 평균 점수는 4.6점으로, 청소년 대다수가 마약류의 정신건강 위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해롭다’고 본 셈이다.

집단별로 보면, 성별·학년·성적에서 집단 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동의률이 100%로 남학생(88.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3에서 고2까지 90% 이상의 높은 동의률은 보여준다. 학업성취수준에서는 집단별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는데, 상위집단 100%, 중위집단 90.6%, 하위집단 89.9%로,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위해성에 더 강하게 동의했다. 반면, 교급, 가구소득 및 자아긍정 수준은 집단 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절대다수는 마약류 사용이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학생, 고등학생, 학업성취 상위 집단에서 동의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표 III-19.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294)    | 1.7                  | 2.4                  | 4.8           | 19.4     | 71.8           | 4.1              | 91.2       | 4.6 | 0.8      |           |
| 성별       | 남 (229)  | 2.2                  | 3.1                  | 6.1           | 17.9     | 70.7           | 5.2              | 88.6       | 4.5 | 0.9      | -3.067    |
|          | 여 (64)   | 0.0                  | 0.0                  | 0.0           | 23.4     | 76.6           | 0.0              | 100.0      | 4.8 | 0.4      | **(0.002) |
| 교급       | 중 (86)   | 3.5                  | 3.5                  | 5.8           | 12.8     | 74.4           | 7.0              | 87.2       | 4.5 | 1.0      | -0.705    |
|          | 고 (208)  | 1.0                  | 1.9                  | 4.3           | 22.1     | 70.7           | 2.9              | 92.8       | 4.6 | 0.7      | (0.482)   |
| 학년       | 중1 (5)   | 20.0                 | 20.0                 | 0.0           | 0.0      | 60.0           | 40.0             | 60.0       | 3.6 | 1.9      |           |
|          | 중2 (33)  | 3.0                  | 3.0                  | 12.1          | 12.1     | 69.7           | 6.1              | 81.8       | 4.4 | 1.0      |           |
|          | 중3 (48)  | 2.1                  | 2.1                  | 2.1           | 14.6     | 79.2           | 4.2              | 93.8       | 4.7 | 0.8      | 2.940     |
|          | 고1 (65)  | 1.5                  | 1.5                  | 3.1           | 18.5     | 75.4           | 3.1              | 93.8       | 4.6 | 0.8      | *(0.013)  |
|          | 고2 (89)  | 0.0                  | 1.1                  | 2.2           | 22.5     | 74.2           | 1.1              | 96.6       | 4.7 | 0.6      |           |
|          | 고3 (54)  | 1.9                  | 3.7                  | 9.3           | 25.9     | 59.3           | 5.6              | 85.2       | 4.4 | 0.9      |           |
| 성적       | 상 (34)   | 0.0                  | 0.0                  | 0.0           | 8.8      | 91.2           | 0.0              | 100.0      | 4.9 | 0.3      |           |
|          | 중 (53)   | 1.9                  | 1.9                  | 5.7           | 17.0     | 73.6           | 3.8              | 90.6       | 4.6 | 0.8      | 3.449     |
|          | 하 (207)  | 1.9                  | 2.9                  | 5.3           | 21.7     | 68.1           | 4.8              | 89.9       | 4.5 | 0.9      | *(0.033)  |
| 가구<br>소득 | 상 (115)  | 0.9                  | 2.6                  | 3.5           | 16.5     | 76.5           | 3.5              | 93.0       | 4.7 | 0.7      |           |
|          | 중 (102)  | 2.0                  | 2.0                  | 6.9           | 22.5     | 66.7           | 3.9              | 89.2       | 4.5 | 0.9      | 0.974     |
|          | 하 (76)   | 2.6                  | 2.6                  | 3.9           | 19.7     | 71.1           | 5.3              | 90.8       | 4.5 | 0.9      | (0.379)   |
| 자아<br>긍정 | 긍정 (238) | 2.1                  | 2.5                  | 5.0           | 18.9     | 71.4           | 4.6              | 90.3       | 4.6 | 0.9      | -0.894    |
|          | 부정 (56)  | 0.0                  | 1.8                  | 3.6           | 21.4     | 73.2           | 1.8              | 94.6       | 4.7 | 0.6      | (0.372)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90.8%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그 중 ‘매우 그렇다’가 75.3%를 차지했다. 평균은 4.6점으로, 학생 10명 중 9명 가량이 마약류 사용의 신체 위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보면 성별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학생 95.4%, 남학생 89.5%로 여학생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반면, 교급·학년·성적·가구소득 및 자아 긍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마약류 사용의 신체적 위해성에 강하게 동의하며, 여학생의 동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 건강의 유해성과는 달리 학년, 성적에서의 집단 간 차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표 Ⅲ-20.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2.0                  | 2.0                  | 5.1           | 15.6     | 75.3           | 4.1              | 90.8       | 4.6 | 0.8      |           |
| 성별       | 남  | (229) | 2.6                  | 2.2                  | 5.7           | 17.5     | 72.1           | 4.8              | 89.5       | 4.5 | 0.9      | -2.813    |
|          | 여  | (65)  | 0.0                  | 1.5                  | 3.1           | 9.2      | 86.2           | 1.5              | 95.4       | 4.8 | 0.6      | **(0.005) |
| 교급       | 중  | (86)  | 4.7                  | 1.2                  | 3.5           | 15.1     | 75.6           | 5.8              | 90.7       | 4.6 | 1.0      | -0.547    |
|          | 고  | (209) | 1.0                  | 2.4                  | 5.7           | 15.8     | 75.1           | 3.3              | 90.9       | 4.6 | 0.8      | (0.585)   |
| 학년       | 중1 | (5)   | 20.0                 | 0.0                  | 0.0           | 0.0      | 80.0           | 20.0             | 80.0       | 4.2 | 1.8      |           |
|          | 중2 | (33)  | 3.0                  | 3.0                  | 9.1           | 21.2     | 63.6           | 6.1              | 84.8       | 4.4 | 1.0      |           |
|          | 중3 | (48)  | 4.2                  | 0.0                  | 0.0           | 12.5     | 83.3           | 4.2              | 95.8       | 4.7 | 0.8      | 2.160     |
|          | 고1 | (65)  | 1.5                  | 1.5                  | 3.1           | 20.0     | 73.8           | 3.1              | 93.8       | 4.6 | 0.8      | (0.059)   |
|          | 고2 | (89)  | 0.0                  | 2.2                  | 4.5           | 9.0      | 84.3           | 2.2              | 93.3       | 4.8 | 0.6      |           |
|          | 고3 | (55)  | 1.8                  | 3.6                  | 10.9          | 21.8     | 61.8           | 5.5              | 83.6       | 4.4 | 1.0      |           |
| 성적       | 상  | (34)  | 0.0                  | 2.9                  | 0.0           | 5.9      | 91.2           | 2.9              | 97.1       | 4.9 | 0.6      | 1.746     |
|          | 중  | (54)  | 3.7                  | 1.9                  | 5.6           | 13.0     | 75.9           | 5.6              | 88.9       | 4.6 | 1.0      | (0.176)   |
|          | 하  | (207) | 1.9                  | 1.9                  | 5.8           | 17.9     | 72.5           | 3.9              | 90.3       | 4.6 | 0.8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0.0                  | 1.7                  | 3.4           | 15.5     | 79.3           | 1.7              | 94.8       | 4.7 | 0.6      | 2.596     |
|          | 중  | (102) | 2.9                  | 0.0                  | 8.8           | 13.7     | 74.5           | 2.9              | 88.2       | 4.6 | 0.9      | (0.076)   |
|          | 하  | (76)  | 3.9                  | 5.3                  | 2.6           | 18.4     | 69.7           | 9.2              | 88.2       | 4.4 | 1.1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1                  | 1.7                  | 5.4           | 16.7     | 74.1           | 3.8              | 90.8       | 4.6 | 0.8      | -0.422    |
|          | 부정 | (56)  | 1.8                  | 3.6                  | 3.6           | 10.7     | 80.4           | 5.4              | 91.1       | 4.6 | 0.9      | (0.673)   |

다음은 문항 “마약류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85.8% ‘그렇다’고 답했으며, 평균은 4.4점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10명 중 8명 정도는 마약류 사용이 대인관계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집단 별로는 학업 성취와 가구소득 정도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적과 가구소득이 모두 상 집단일수록 마약류의 대인관계 유발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성적 상 97.1%, 가구소득 상 91.4%). 반면, 나머지 성별·교급·학년·자아긍정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종합하면, 청소년 대부분(10명 중 약 8~9명)이 마약류 사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정도가 성적과 가구소득이 상위권일수록 뚜렷하였다.

표 III-21.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전체    | (295)    | 2.0            | 3.4            | 8.8       | 25.1     | 60.7        | 5.4           | 85.8       | 4.4 | 0.9   |                    |
| 성별    | 남 (229)  | 2.6            | 3.1            | 7.9       | 25.3     | 61.1        | 5.7           | 86.5       | 4.4 | 0.9   | 0.182<br>(0.856)   |
|       | 여 (65)   | 0.0            | 4.6            | 12.3      | 24.6     | 58.5        | 4.6           | 83.1       | 4.4 | 0.9   |                    |
| 교급    | 중 (86)   | 3.5            | 4.7            | 9.3       | 27.9     | 54.7        | 8.1           | 82.6       | 4.3 | 1.0   | -1.592<br>(0.112)  |
|       | 고 (209)  | 1.4            | 2.9            | 8.6       | 23.9     | 63.2        | 4.3           | 87.1       | 4.4 | 0.9   |                    |
| 학년    | 중1 (5)   | 20.0           | 0.0            | 20.0      | 0.0      | 60.0        | 20.0          | 60.0       | 3.8 | 1.8   | 2.093<br>(0.066)   |
|       | 중2 (33)  | 0.0            | 3.0            | 12.1      | 33.3     | 51.5        | 3.0           | 84.8       | 4.3 | 0.8   |                    |
|       | 중3 (48)  | 4.2            | 6.3            | 6.3       | 27.1     | 56.3        | 10.4          | 83.3       | 4.3 | 1.1   |                    |
|       | 고1 (65)  | 0.0            | 1.5            | 3.1       | 24.6     | 70.8        | 1.5           | 95.4       | 4.6 | 0.6   |                    |
|       | 고2 (89)  | 3.4            | 1.1            | 9.0       | 21.3     | 65.2        | 4.5           | 86.5       | 4.4 | 1.0   |                    |
|       | 고3 (55)  | 0.0            | 7.3            | 14.5      | 27.3     | 50.9        | 7.3           | 78.2       | 4.2 | 1.0   |                    |
| 성적    | 상 (34)   | 0.0            | 0.0            | 2.9       | 14.7     | 82.4        | 0.0           | 97.1       | 4.8 | 0.5   | 3.768<br>*(0.024)  |
|       | 중 (54)   | 1.9            | 1.9            | 16.7      | 24.1     | 55.6        | 3.7           | 79.6       | 4.3 | 0.9   |                    |
|       | 하 (207)  | 2.4            | 4.3            | 7.7       | 27.1     | 58.5        | 6.8           | 85.5       | 4.3 | 1.0   |                    |
| 가구 소득 | 상 (116)  | 0.0            | 3.4            | 5.2       | 22.4     | 69.0        | 3.4           | 91.4       | 4.6 | 0.7   | 4.960<br>**(0.008) |
|       | 중 (102)  | 4.9            | 3.9            | 10.8      | 29.4     | 51.0        | 8.8           | 80.4       | 4.2 | 1.1   |                    |
|       | 하 (76)   | 1.3            | 2.6            | 11.8      | 23.7     | 60.5        | 3.9           | 84.2       | 4.4 | 0.9   |                    |
| 자아 긍정 | 긍정 (239) | 2.1            | 3.3            | 8.4       | 24.3     | 61.9        | 5.4           | 86.2       | 4.4 | 0.9   | 0.611<br>(0.542)   |
|       | 부정 (56)  | 1.8            | 3.6            | 10.7      | 28.6     | 55.4        | 5.4           | 83.9       | 4.3 | 0.9   |                    |

다음은 문항 “마약류를 남용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이다. 전체 93.2%는 ‘그렇다’고 응답하여 동의하였으며, 보통은 3.1%, ‘그렇지 않다’의 응답은 ‘3.7%’로 평균 4.6점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마약류 남용이 일상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집단별로 보면, 학년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2(97%)~고1(98.5%)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인 뒤 고2(91%)·고3(89.1%)에서 소폭 하락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개의 예방교육이 중학교 후반부~고1에 집중되어 예방교육 효과가 강하게 반영되는 반면,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예방 메시지에 대한 신선도 저하로 경각심이 완만히 완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 늘어나면서 ‘나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져 위험을 낮게 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고2·고3은 입시 부담이 커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장기적 위험성은 조금 덜 심각하게 느끼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SNS나 포대를 통한 간접 노출이 늘어나면서 ‘괜찮다’는 사례를 더 자주 접하는 것도 경각심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밖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마약류 남용의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마약류 남용이 일상생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며, 집단 차이 중 학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표 III-22.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남용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295) | 2.4                  | 1.4                  | 3.1           | 16.6     | 76.6           | 3.7              | 93.2       | 4.6  | 0.8      |         |
| 성별       | 남     | (229)                | 2.6                  | 1.3           | 2.6      | 16.6           | 76.9             | 3.9        | 93.4 | 4.6      | 0.059   |
|          | 여     | (65)                 | 1.5                  | 1.5           | 4.6      | 16.9           | 75.4             | 3.1        | 92.3 | 4.6      | (0.953) |
| 교급       | 중     | (86)                 | 3.5                  | 2.3           | 0.0      | 17.4           | 76.7             | 5.8        | 94.2 | 4.6      | -0.284  |
|          | 고     | (209)                | 1.9                  | 1.0           | 4.3      | 16.3           | 76.6             | 2.9        | 92.8 | 4.6      | (0.776) |
| 학년       | 중1    | (5)                  | 40.0                 | 0.0           | 0.0      | 0.0            | 60.0             | 40.0       | 60.0 | 3.4      | 2.2     |
|          | 중2    | (33)                 | 0.0                  | 3.0           | 0.0      | 27.3           | 69.7             | 3.0        | 97.0 | 4.6      | 0.7     |
|          | 중3    | (48)                 | 2.1                  | 2.1           | 0.0      | 12.5           | 83.3             | 4.2        | 95.8 | 4.7      | 0.8     |
|          | 고1    | (65)                 | 0.0                  | 0.0           | 1.5      | 12.3           | 86.2             | 0.0        | 98.5 | 4.8      | 0.4     |
|          | 고2    | (89)                 | 3.4                  | 1.1           | 4.5      | 15.7           | 75.3             | 4.5        | 91.0 | 4.6      | 0.9     |
|          | 고3    | (55)                 | 1.8                  | 1.8           | 7.3      | 21.8           | 67.3             | 3.6        | 89.1 | 4.5      | 0.9     |
| 성적       | 상     | (34)                 | 5.9                  | 0.0           | 0.0      | 5.9            | 88.2             | 5.9        | 94.1 | 4.7      | 1.0     |
|          | 중     | (54)                 | 0.0                  | 1.9           | 3.7      | 18.5           | 75.9             | 1.9        | 94.4 | 4.7      | 0.6     |
|          | 하     | (207)                | 2.4                  | 1.4           | 3.4      | 17.9           | 74.9             | 3.9        | 92.8 | 4.6      | 0.8     |
| 가구<br>소득 | 상     | (116)                | 2.6                  | 0.9           | 0.0      | 16.4           | 80.2             | 3.4        | 96.6 | 4.7      | 0.8     |
|          | 중     | (102)                | 2.0                  | 1.0           | 4.9      | 15.7           | 76.5             | 2.9        | 92.2 | 4.6      | 0.8     |
|          | 하     | (76)                 | 2.6                  | 2.6           | 5.3      | 18.4           | 71.1             | 5.3        | 89.5 | 4.5      | 0.9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9                  | 1.3           | 2.9      | 16.3           | 76.6             | 4.2        | 92.9 | 4.6      | 0.9     |
|          | 부정    | (56)                 | 0.0                  | 1.8           | 3.6      | 17.9           | 76.8             | 1.8        | 94.6 | 4.7      | 0.6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평균 2.2점으로 ‘그렇지 않다’ 56.3%, ‘보통’ 27.5%, ‘그렇다’ 16.3%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사회적 용인에 대한 동의는 소수(약 16%)에 머물지만, 보통 응답이 약 28%로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집단별로는 가구소득수준과 자아긍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은 상 16.4%, 중 10.8%, 하 23.7%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용인에 동의하는 경향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긍정 수준에서는 부정이 17.9%, 긍정이 15.9%로, 자아긍정이 낮을수록 용인 인식이 높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 하위와 자아긍정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회적 용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몇 가지 가설 수준의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경제·생활 스트레스가 높고 여가 대안 등 이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마약류에 대해 감정적 관용이 커지며 ‘어느 정도는 이해 가능하다’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취약 지역·또래 네트워크에서의 노출이 잦아지면 관련 행위가 일상화되어 정상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보인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마약류 사용의 사회적 용인에 동의하지 않지만, 중립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소득 하위·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용인 인식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표 III-23.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46.1                 | 10.2                 | 27.5          | 10.2     | 6.1            | 56.3             | 16.3       | 2.2 | 1.3      |          |
| 성별       | 남  | (229) | 48.9                 | 10.5                 | 25.3          | 9.2      | 6.1            | 59.4             | 15.3       | 2.1 | 1.3      | -1.660   |
|          | 여  | (65)  | 36.9                 | 9.2                  | 33.8          | 13.8     | 6.2            | 46.2             | 20.0       | 2.4 | 1.3      | (0.098)  |
| 교급       | 중  | (86)  | 48.8                 | 12.8                 | 25.6          | 9.3      | 3.5            | 61.6             | 12.8       | 2.1 | 1.2      | -1.215   |
|          | 고  | (209) | 45.0                 | 9.1                  | 28.2          | 10.5     | 7.2            | 54.1             | 17.7       | 2.3 | 1.3      | (0.225)  |
| 학년       | 중1 | (5)   | 60.0                 | 0.0                  | 20.0          | 20.0     | 0.0            | 60.0             | 20.0       | 2.0 | 1.4      |          |
|          | 중2 | (33)  | 45.5                 | 12.1                 | 24.2          | 9.1      | 9.1            | 57.6             | 18.2       | 2.2 | 1.4      |          |
|          | 중3 | (48)  | 50.0                 | 14.6                 | 27.1          | 8.3      | 0.0            | 64.6             | 8.3        | 1.9 | 1.1      | 0.536    |
|          | 고1 | (65)  | 43.1                 | 10.8                 | 30.8          | 9.2      | 6.2            | 53.8             | 15.4       | 2.2 | 1.3      | (0.749)  |
|          | 고2 | (89)  | 46.1                 | 9.0                  | 29.2          | 6.7      | 9.0            | 55.1             | 15.7       | 2.2 | 1.3      |          |
|          | 고3 | (55)  | 45.5                 | 7.3                  | 23.6          | 18.2     | 5.5            | 52.7             | 23.6       | 2.3 | 1.4      |          |
| 성적       | 상  | (34)  | 55.9                 | 8.8                  | 11.8          | 17.6     | 5.9            | 64.7             | 23.5       | 2.1 | 1.4      | 0.162    |
|          | 중  | (54)  | 48.1                 | 11.1                 | 16.7          | 22.2     | 1.9            | 59.3             | 24.1       | 2.2 | 1.3      | (0.851)  |
|          | 하  | (207) | 44.0                 | 10.1                 | 32.9          | 5.8      | 7.2            | 54.1             | 13.0       | 2.2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54.3                 | 11.2                 | 18.1          | 11.2     | 5.2            | 65.5             | 16.4       | 2.0 | 1.3      | 4.182    |
|          | 중  | (102) | 44.1                 | 11.8                 | 33.3          | 6.9      | 3.9            | 55.9             | 10.8       | 2.1 | 1.2      | *(0.016) |
|          | 하  | (76)  | 36.8                 | 5.3                  | 34.2          | 13.2     | 10.5           | 42.1             | 23.7       | 2.6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49.8                 | 10.5                 | 23.8          | 10.0     | 5.9            | 60.3             | 15.9       | 2.1 | 1.3      | -2.300   |
|          | 부정 | (56)  | 30.4                 | 8.9                  | 42.9          | 10.7     | 7.1            | 39.3             | 17.9       | 2.6 | 1.2      | *(0.022) |

다음은 문항 “마약류 사용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67.5%는 ‘그렇지 않다’, 15.3%는 ‘그렇다’, 17.3%는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평균 2.0점). 대다수는 ‘발각 가능성이 낮다’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지만, 대략 여섯 명 중 한 명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집단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학업성취수준이 낮아질수록 마약류 사용의 발각 가능성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상 8.8%, 중 11.1%, 하 17.4%).

요약하면, 청소년의 다수는 마약류 사용이 발각되기 쉽다고 보지만, 동의 비율도 15% 내외로 소수 집단은 ‘발각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예방 설계 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24. 마약류 인식 - 마약류 사용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49.2                 | 18.3                 | 17.3          | 9.2      | 6.1            | 67.5             | 15.3       | 2.0 | 1.3      |         |
| 성별       | 남  | (229) | 47.6                 | 18.3                 | 19.2          | 8.7      | 6.1            | 65.9             | 14.8       | 2.1 | 1.3      | 0.857   |
|          | 여  | (65)  | 55.4                 | 18.5                 | 10.8          | 9.2      | 6.2            | 73.8             | 15.4       | 1.9 | 1.3      | (0.392) |
| 교급       | 중  | (86)  | 51.2                 | 17.4                 | 17.4          | 9.3      | 4.7            | 68.6             | 14.0       | 2.0 | 1.2      | -0.517  |
|          | 고  | (209) | 48.3                 | 18.7                 | 17.2          | 9.1      | 6.7            | 67.0             | 15.8       | 2.1 | 1.3      | (0.606) |
| 학년       | 중1 | (5)   | 20.0                 | 40.0                 | 20.0          | 0.0      | 20.0           | 60.0             | 20.0       | 2.6 | 1.5      |         |
|          | 중2 | (33)  | 57.6                 | 15.2                 | 15.2          | 9.1      | 3.0            | 72.7             | 12.1       | 1.8 | 1.2      |         |
|          | 중3 | (48)  | 50.0                 | 16.7                 | 18.8          | 10.4     | 4.2            | 66.7             | 14.6       | 2.0 | 1.2      | 0.669   |
|          | 고1 | (65)  | 47.7                 | 15.4                 | 15.4          | 10.8     | 10.8           | 63.1             | 21.5       | 2.2 | 1.4      | (0.648) |
|          | 고2 | (89)  | 52.8                 | 16.9                 | 15.7          | 10.1     | 4.5            | 69.7             | 14.6       | 2.0 | 1.2      |         |
|          | 고3 | (55)  | 41.8                 | 25.5                 | 21.8          | 5.5      | 5.5            | 67.3             | 10.9       | 2.1 | 1.2      |         |
| 성적       | 상  | (34)  | 61.8                 | 11.8                 | 17.6          | 5.9      | 2.9            | 73.5             | 8.8        | 1.8 | 1.1      | 1.200   |
|          | 중  | (54)  | 50.0                 | 20.4                 | 18.5          | 3.7      | 7.4            | 70.4             | 11.1       | 2.0 | 1.2      | (0.303) |
|          | 하  | (207) | 46.9                 | 18.8                 | 16.9          | 11.1     | 6.3            | 65.7             | 17.4       | 2.1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53.4                 | 21.6                 | 12.1          | 8.6      | 4.3            | 75.0             | 12.9       | 1.9 | 1.2      | 1.643   |
|          | 중  | (102) | 45.1                 | 16.7                 | 20.6          | 10.8     | 6.9            | 61.8             | 17.6       | 2.2 | 1.3      | (0.195) |
|          | 하  | (76)  | 47.4                 | 15.8                 | 21.1          | 7.9      | 7.9            | 63.2             | 15.8       | 2.1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49.8                 | 17.2                 | 16.7          | 9.6      | 6.7            | 66.9             | 16.3       | 2.1 | 1.3      | 0.431   |
|          | 부정 | (56)  | 46.4                 | 23.2                 | 19.6          | 7.1      | 3.6            | 69.6             | 10.7       | 2.0 | 1.1      | (0.667) |

다음은 문항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83.1%는 강력한 단속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보통’은 9.8%, 비동의를 7.1%였으며,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다수는 마약류에 대한 강력

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보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약 17%가 단속 필요성에 대해 중립·비동의 입장을 보였다. 이는 소수이지만 단속의 효과·부작용에 대한 의문이나 과도한 처벌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향후 근거 중심의 효과성 제시와 예방·치료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하위 항목 모두에서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 -25. 마약류 인식 -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2.4                  | 4.7                  | 9.8           | 23.7     | 59.3           | 7.1              | 83.1       | 4.3 | 1.0      |         |
| 성별       | 남  | (229) | 2.2                  | 5.2                  | 8.7           | 24.9     | 59.0           | 7.4              | 83.8       | 4.3 | 1.0      | 0.172   |
|          | 여  | (65)  | 3.1                  | 3.1                  | 13.8          | 20.0     | 60.0           | 6.2              | 80.0       | 4.3 | 1.0      | (0.863) |
| 교급       | 중  | (86)  | 3.5                  | 8.1                  | 4.7           | 23.3     | 60.5           | 11.6             | 83.7       | 4.3 | 1.1      | -0.421  |
|          | 고  | (209) | 1.9                  | 3.3                  | 12.0          | 23.9     | 58.9           | 5.3              | 82.8       | 4.3 | 0.9      | (0.674) |
| 학년       | 중1 | (5)   | 20.0                 | 0.0                  | 20.0          | 20.0     | 40.0           | 20.0             | 60.0       | 3.6 | 1.7      |         |
|          | 중2 | (33)  | 3.0                  | 6.1                  | 3.0           | 27.3     | 60.6           | 9.1              | 87.9       | 4.4 | 1.0      |         |
|          | 중3 | (48)  | 2.1                  | 10.4                 | 4.2           | 20.8     | 62.5           | 12.5             | 83.3       | 4.3 | 1.1      | 0.743   |
|          | 고1 | (65)  | 1.5                  | 0.0                  | 13.8          | 23.1     | 61.5           | 1.5              | 84.6       | 4.4 | 0.8      | (0.592) |
|          | 고2 | (89)  | 2.2                  | 4.5                  | 12.4          | 19.1     | 61.8           | 6.7              | 80.9       | 4.3 | 1.0      |         |
|          | 고3 | (55)  | 1.8                  | 5.5                  | 9.1           | 32.7     | 50.9           | 7.3              | 83.6       | 4.3 | 1.0      |         |
| 성적       | 상  | (34)  | 2.9                  | 2.9                  | 0.0           | 20.6     | 73.5           | 5.9              | 94.1       | 4.6 | 0.9      | 1.749   |
|          | 중  | (54)  | 1.9                  | 7.4                  | 9.3           | 11.1     | 70.4           | 9.3              | 81.5       | 4.4 | 1.1      | (0.176) |
|          | 하  | (207) | 2.4                  | 4.3                  | 11.6          | 27.5     | 54.1           | 6.8              | 81.6       | 4.3 | 1.0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2.6                  | 5.2                  | 4.3           | 22.4     | 65.5           | 7.8              | 87.9       | 4.4 | 1.0      | 1.086   |
|          | 중  | (102) | 2.0                  | 4.9                  | 11.8          | 26.5     | 54.9           | 6.9              | 81.4       | 4.3 | 1.0      | (0.339) |
|          | 하  | (76)  | 2.6                  | 3.9                  | 15.8          | 22.4     | 55.3           | 6.6              | 77.6       | 4.2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5                  | 4.6                  | 7.5           | 24.7     | 60.7           | 7.1              | 85.4       | 4.4 | 1.0      | 1.257   |
|          | 부정 | (56)  | 1.8                  | 5.4                  | 19.6          | 19.6     | 53.6           | 7.1              | 73.2       | 4.2 | 1.0      | (0.210) |

다음은 문항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측정 결과이다. 응답자의 78.6%가 마약류 사용자 처벌 강화에 동의하였으며, 비동의의 비율은 7.8%, 보통의 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3.1%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단속 필요’ 대비 ‘처벌 강화’ 동의의

낮은 차이(83.1% vs 78.6%)는, 단속의 강화에는 공감하되 처벌의 강도와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응답 경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응답자들이 우려하는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에 대해 정책 설계 시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나머지 하위 항목에서의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중 학년별 차이가 유의수준에 근접하였는데, 중2(78.8%), 중3(83.3%)에서 상승을 보이다가 고1(87.7%)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학교 후반부~고1에 관련 교육이 집중되어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Ⅲ-26.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5) | 2.4                  | 5.4                  | 13.6          | 21.7     | 56.9           | 7.8              | 78.6       | 4.3 | 1.0      |                  |
| 성별       | 남  | (229) | 2.2                  | 5.2                  | 12.7          | 22.3     | 57.6           | 7.4              | 79.9       | 4.3 | 1.0      | 0.861            |
|          | 여  | (65)  | 3.1                  | 6.2                  | 16.9          | 20.0     | 53.8           | 9.2              | 73.8       | 4.2 | 1.1      | (0.390)          |
| 교급       | 중  | (86)  | 4.7                  | 8.1                  | 9.3           | 19.8     | 58.1           | 12.8             | 77.9       | 4.2 | 1.2      | -0.724           |
|          | 고  | (209) | 1.4                  | 4.3                  | 15.3          | 22.5     | 56.5           | 5.7              | 78.9       | 4.3 | 1.0      | (0.470)          |
| 학년       | 중1 | (5)   | 0.0                  | 40.0                 | 40.0          | 0.0      | 20.0           | 40.0             | 20.0       | 3.0 | 1.2      | 1.961<br>(0.085) |
|          | 중2 | (33)  | 3.0                  | 9.1                  | 9.1           | 18.2     | 60.6           | 12.1             | 78.8       | 4.2 | 1.1      |                  |
|          | 중3 | (48)  | 6.3                  | 4.2                  | 6.3           | 22.9     | 60.4           | 10.4             | 83.3       | 4.3 | 1.2      |                  |
|          | 고1 | (65)  | 0.0                  | 3.1                  | 9.2           | 29.2     | 58.5           | 3.1              | 87.7       | 4.4 | 0.8      |                  |
|          | 고2 | (89)  | 2.2                  | 3.4                  | 16.9          | 22.5     | 55.1           | 5.6              | 77.5       | 4.2 | 1.0      |                  |
|          | 고3 | (55)  | 1.8                  | 7.3                  | 20.0          | 14.5     | 56.4           | 9.1              | 70.9       | 4.2 | 1.1      |                  |
| 성적       | 상  | (34)  | 0.0                  | 8.8                  | 14.7          | 14.7     | 61.8           | 8.8              | 76.5       | 4.3 | 1.0      | 0.362<br>(0.697) |
|          | 중  | (54)  | 1.9                  | 5.6                  | 9.3           | 22.2     | 61.1           | 7.4              | 83.3       | 4.4 | 1.0      |                  |
|          | 하  | (207) | 2.9                  | 4.8                  | 14.5          | 22.7     | 55.1           | 7.7              | 77.8       | 4.2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7                  | 6.0                  | 9.5           | 19.8     | 62.9           | 7.8              | 82.8       | 4.4 | 1.0      | 1.086<br>(0.339) |
|          | 중  | (102) | 3.9                  | 2.9                  | 17.6          | 22.5     | 52.9           | 6.9              | 75.5       | 4.2 | 1.1      |                  |
|          | 하  | (76)  | 1.3                  | 7.9                  | 14.5          | 23.7     | 52.6           | 9.2              | 76.3       | 4.2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5                  | 5.4                  | 10.9          | 23.4     | 57.7           | 7.9              | 81.2       | 4.3 | 1.0      | 1.037            |
|          | 부정 | (56)  | 1.8                  | 5.4                  | 25.0          | 14.3     | 53.6           | 7.1              | 67.9       | 4.1 | 1.1      | (0.301)          |



다음은 문항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중 83.7%는 처벌강화에 동의하였으며, 비동의는 6.4%, 보통은 9.3%였으며, 평균은 4.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동의율 78.6%보다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은 수요(사용)보다 공급(판매) 주체에 더 큰 책임과 제재를 부여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는 마약류 판매 행위를 의도적·상업적 가해로 판단하고, 사용자는 치료·회복 지원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사용자에 대해서도 10명 중 약 8명이 처벌 강화를 지지한 만큼, 단지 치료·회복 대상만으로 보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도 법적·사회적 책임을 일정 부분 부과하되, 초범·경미 사안은 치료·교육과 연계하는 이원화 접근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다른 하위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학업성취 부분에서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처벌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는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상 94.1%, 중 85.2%, 하 81.6%).

표 Ⅲ-27. 마약류 인식 -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95) | 2.0                  | 4.4                  | 9.8           | 18.0     | 65.8           | 6.4              | 83.7       | 4.4 | 1.0      |         |
| 성별       | 남  | (229) | 2.2                  | 3.9                  | 9.6           | 19.7     | 64.6           | 6.1              | 84.3       | 4.4 | 1.0      | -0.067  |
|          | 여  | (65)  | 1.5                  | 6.2                  | 10.8          | 12.3     | 69.2           | 7.7              | 81.5       | 4.4 | 1.0      | (0.946) |
| 교급       | 중  | (86)  | 3.5                  | 5.8                  | 8.1           | 18.6     | 64.0           | 9.3              | 82.6       | 4.3 | 1.1      | -0.824  |
|          | 고  | (209) | 1.4                  | 3.8                  | 10.5          | 17.7     | 66.5           | 5.3              | 84.2       | 4.4 | 0.9      | (0.411) |
| 학년       | 중1 | (5)   | 0.0                  | 0.0                  | 20.0          | 40.0     | 40.0           | 0.0              | 80.0       | 4.2 | 0.8      |         |
|          | 중2 | (33)  | 3.0                  | 12.1                 | 3.0           | 21.2     | 60.6           | 15.2             | 81.8       | 4.2 | 1.2      |         |
|          | 중3 | (48)  | 4.2                  | 2.1                  | 10.4          | 14.6     | 68.8           | 6.3              | 83.3       | 4.4 | 1.0      | 0.546   |
|          | 고1 | (65)  | 0.0                  | 1.5                  | 7.7           | 24.6     | 66.2           | 1.5              | 90.8       | 4.6 | 0.7      | (0.741) |
|          | 고2 | (89)  | 3.4                  | 4.5                  | 10.1          | 12.4     | 69.7           | 7.9              | 82.0       | 4.4 | 1.1      |         |
|          | 고3 | (55)  | 0.0                  | 5.5                  | 14.5          | 18.2     | 61.8           | 5.5              | 80.0       | 4.4 | 0.9      |         |
| 성적       | 상  | (34)  | 0.0                  | 2.9                  | 2.9           | 26.5     | 67.6           | 2.9              | 94.1       | 4.6 | 0.7      | 1.100   |
|          | 중  | (54)  | 0.0                  | 1.9                  | 13.0          | 18.5     | 66.7           | 1.9              | 85.2       | 4.5 | 0.8      | (0.334) |
|          | 하  | (207) | 2.9                  | 5.3                  | 10.1          | 16.4     | 65.2           | 8.2              | 81.6       | 4.4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2.6                  | 6.9                  | 6.0           | 17.2     | 67.2           | 9.5              | 84.5       | 4.4 | 1.0      | 0.037   |
|          | 중  | (102) | 2.0                  | 1.0                  | 14.7          | 19.6     | 62.7           | 2.9              | 82.4       | 4.4 | 0.9      | (0.964) |
|          | 하  | (76)  | 1.3                  | 5.3                  | 9.2           | 17.1     | 67.1           | 6.6              | 84.2       | 4.4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1                  | 4.2                  | 7.9           | 19.2     | 66.5           | 6.3              | 85.8       | 4.4 | 1.0      | 1.062   |
|          | 부정 | (56)  | 1.8                  | 5.4                  | 17.9          | 12.5     | 62.5           | 7.1              | 75.0       | 4.3 | 1.1      | (0.289) |

### 3) 유해약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1, 2순위로 선택하게 했을 때, 1순위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23.5%)라는 응답이 높았다. 1, 2순위 응답을 종합해 보면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라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1, 2순위로 선택하게 했을 때, 1순위로는 '친구의 권유로'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22.4%)라는 응답이 높았다. 1, 2순위 응답을 종합해 보면 '친구의 권유로'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다.

(n=294)  
(단위: 명, %)

■ 1순위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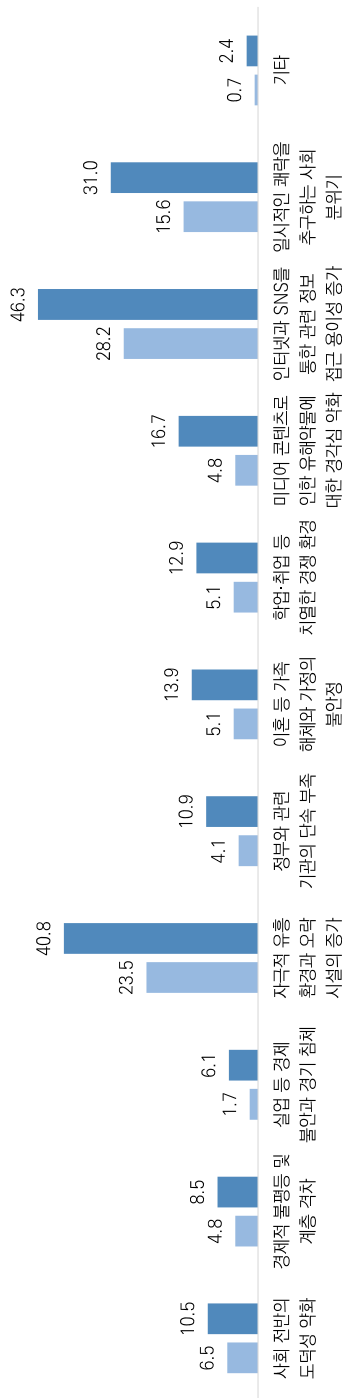


그림 III-5. 유희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n=295)  
(단위: 명, %)

■ 1순위  
■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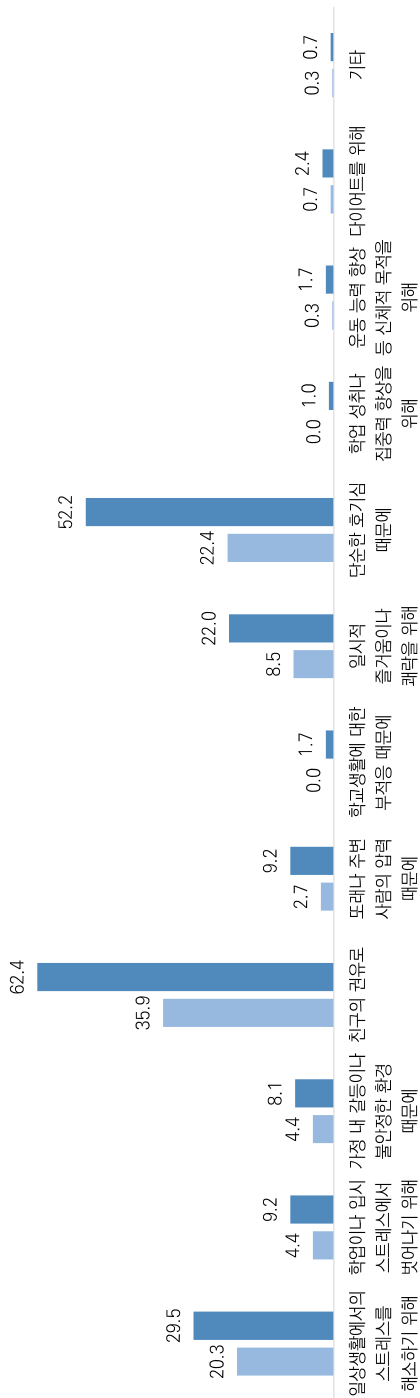


그림 III-6. 유헤약을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문항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순위”를 11개 보기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디지털 경로가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28.2%)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다음으로 ⑨와 짝을 이루는 환경 요인으로 볼 수 있는 ④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23.5%)가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15.6%)였다. 다만 집단별 차이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집단 간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청소년은 유해약물 확산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오프라인 유흥·오락 환경의 확대, 그리고 쾌락 지향적 사회 분위기를 1순위로 지목했다. 즉, 유해약물 정보의 전파 속도·도달 범위가 확산의 핵심 촉진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오프라인 접점의 밀도와 노출 빈도가 실제 시도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식되며, 개인 차원을 넘어선 규범·문화적 허용성이 확산 압력을 만든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마약류 정보유통)-오프라인 만남 환경(물리적 접점)-문화(물질만능주의 가치·규범)의 세 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8.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순위) - ①

(단위: (명),%)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294) | 6.5   | 4.8  | 1.7  | 23.5 | 4.1  | 5.1  |
| 성별    | 남     | (229) | 6.1  | 5.2  | 1.7  | 18.8 | 4.8  |
|       | 여     | (64)  | 7.8  | 3.1  | 1.6  | 39.1 | 1.6  |
| 교급    | 중     | (85)  | 9.4  | 7.1  | 2.4  | 15.3 | 4.7  |
|       | 고     | (209) | 5.3  | 3.8  | 1.4  | 26.8 | 3.8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0.0  | 0.0  | 0.0  |
|       | 중2    | (33)  | 6.1  | 6.1  | 6.1  | 12.1 | 12.1 |
|       | 중3    | (47)  | 10.6 | 6.4  | 0.0  | 19.1 | 0.0  |
|       | 고1    | (65)  | 4.6  | 1.5  | 3.1  | 29.2 | 1.5  |
|       | 고2    | (89)  | 2.2  | 3.4  | 0.0  | 24.7 | 5.6  |
|       | 고3    | (55)  | 10.9 | 7.3  | 1.8  | 27.3 | 3.6  |
| 성적    | 상     | (34)  | 5.9  | 8.8  | 0.0  | 20.6 | 0.0  |
|       | 중     | (54)  | 7.4  | 5.6  | 0.0  | 20.4 | 3.7  |
|       | 하     | (206) | 6.3  | 3.9  | 2.4  | 24.8 | 4.9  |
| 가구 소득 | 상     | (116) | 4.3  | 1.7  | 0.9  | 24.1 | 3.4  |
|       | 중     | (101) | 9.9  | 5.0  | 2.0  | 23.8 | 4.0  |
|       | 하     | (76)  | 5.3  | 9.2  | 2.6  | 22.4 | 5.3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6.3  | 5.4  | 1.7  | 23.0 | 4.6  |
|       | 부정    | (55)  | 7.3  | 1.8  | 1.8  | 25.5 | 1.8  |

- 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약화
- ② 경제적 불평등 및 계층 격차
- ③ 실업 등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
- ④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
- 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단속 부족
- ⑥ 이혼 등 가족 해체와 가정의 불안정
- ⑦ 학업·취업 등 치열한 경쟁 환경
- ⑧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 약화
-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 ⑪ 기타

표 III-28.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chi^2$ (df)  |
|-------|----|-------|-----|------|------|------|-----|----------------|
| 전체    |    | (294) | 5.1 | 4.8  | 28.2 | 15.6 | 0.7 |                |
| 성별    | 남  | (229) | 5.2 | 4.8  | 31.9 | 16.2 | 0.4 | 16.821<br>(10) |
|       | 여  | (64)  | 4.7 | 4.7  | 15.6 | 14.1 | 1.6 |                |
| 교급    | 중  | (85)  | 1.2 | 8.2  | 28.2 | 15.3 | 1.2 | 14.733<br>(10) |
|       | 고  | (209) | 6.7 | 3.3  | 28.2 | 15.8 | 0.5 |                |
| 학년    | 중1 | (5)   | 0.0 | 20.0 | 20.0 | 0.0  | 0.0 | 59.704<br>(50) |
|       | 중2 | (33)  | 0.0 | 9.1  | 30.3 | 18.2 | 0.0 |                |
|       | 중3 | (47)  | 2.1 | 6.4  | 27.7 | 14.9 | 2.1 |                |
|       | 고1 | (65)  | 3.1 | 3.1  | 32.3 | 15.4 | 1.5 |                |
|       | 고2 | (89)  | 9.0 | 3.4  | 32.6 | 15.7 | 0.0 |                |
|       | 고3 | (55)  | 7.3 | 3.6  | 16.4 | 16.4 | 0.0 |                |
| 성적    | 상  | (34)  | 2.9 | 5.9  | 35.3 | 17.6 | 0.0 | 14.598<br>(20) |
|       | 중  | (54)  | 3.7 | 9.3  | 31.5 | 14.8 | 1.9 |                |
|       | 하  | (206) | 5.8 | 3.4  | 26.2 | 15.5 | 0.5 |                |
| 가구 소득 | 상  | (116) | 6.9 | 9.5  | 30.2 | 16.4 | 0.9 | 26.211<br>(20) |
|       | 중  | (101) | 3.0 | 2.0  | 27.7 | 14.9 | 0.0 |                |
|       | 하  | (76)  | 5.3 | 1.3  | 26.3 | 14.5 | 1.3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5.0 | 4.6  | 28.5 | 14.6 | 0.8 | 3.940<br>(10)  |
|       | 부정 | (55)  | 5.5 | 5.5  | 27.3 | 20.0 | 0.0 |                |

- 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악화
- ② 경제적 불평등 및 계층 격차
- ③ 실업 등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
- ④ 자극적 유희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
- 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단속 부족
- ⑥ 이혼 등 가족 해체와 가정의 불안정
- ⑦ 학업·취업 등 치열한 경쟁 환경
- ⑧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 약화
-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 ⑪ 기타

다음은 문항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순위+2순위의 합”을 분석한 결과이다. 1순위의 결과와 똑같이,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46.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④ 자극적 유희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40.8%),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31.0%)가 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집단별로는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학생은 ⑨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48.5%)을 최우선으로 지목한 반면, 여학생은 ④ 자극적 유희·

오락 환경(46.9%)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여학생은 ⑥ 가족 해체·가정의 불안정(25.0%)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했고(남학생 10.9%), 남학생은 ⑤ 정부·기관의 단속 부족(남 13.1% vs 여 3.1%) ② 경제적 불평등(남 9.6% vs 여 4.7%)의 비중이 더 높았다. 요약하자면, 남학생은 정보유통과 제도적 요인, 여학생은 물리적·관계적 환경 요인을 더 두드러진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9. 유해악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2순위) - ①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 (294) | 10.5 | 8.5  | 6.1  | 40.8 | 10.9 | 13.9 |
| 성별    | 남  | (229) | 9.2  | 9.6  | 7.4  | 38.9 | 13.1 | 10.9 |
|       | 여  | (64)  | 15.6 | 4.7  | 1.6  | 46.9 | 3.1  | 25.0 |
| 교급    | 중  | (85)  | 11.8 | 8.2  | 9.4  | 42.4 | 10.6 | 18.8 |
|       | 고  | (209) | 10.0 | 8.6  | 4.8  | 40.2 | 11.0 | 12.0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20.0 | 20.0 | 0.0  | 20.0 |
|       | 중2 | (33)  | 6.1  | 9.1  | 12.1 | 39.4 | 24.2 | 15.2 |
|       | 중3 | (47)  | 14.9 | 6.4  | 6.4  | 46.8 | 2.1  | 21.3 |
|       | 고1 | (65)  | 12.3 | 6.2  | 3.1  | 41.5 | 9.2  | 9.2  |
|       | 고2 | (89)  | 5.6  | 7.9  | 5.6  | 39.3 | 13.5 | 12.4 |
|       | 고3 | (55)  | 14.5 | 12.7 | 5.5  | 40.0 | 9.1  | 14.5 |
| 성적    | 상  | (34)  | 8.8  | 8.8  | 2.9  | 32.4 | 5.9  | 11.8 |
|       | 중  | (54)  | 13.0 | 7.4  | 3.7  | 35.2 | 13.0 | 7.4  |
|       | 하  | (206) | 10.2 | 8.7  | 7.3  | 43.7 | 11.2 | 16.0 |
| 가구 소득 | 상  | (116) | 8.6  | 5.2  | 6.0  | 41.4 | 7.8  | 12.9 |
|       | 중  | (101) | 12.9 | 9.9  | 6.9  | 38.6 | 10.9 | 14.9 |
|       | 하  | (76)  | 10.5 | 11.8 | 5.3  | 42.1 | 15.8 | 14.5 |
| 자아    | 긍정 | (239) | 9.6  | 9.2  | 6.3  | 41.0 | 11.7 | 12.6 |
| 긍정    | 부정 | (55)  | 14.5 | 5.5  | 5.5  | 40.0 | 7.3  | 20.0 |

- 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악화
- ② 경제적 불평등 및 계층 격차
- ③ 실업 등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
- ④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
- 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단속 부족
- ⑥ 이혼 등 가족 해체와 가정의 불안정
- ⑦ 학업·취업 등 치열한 경쟁 환경
- ⑧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유해악물에 대한 경각심 악화
-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 ⑪ 기타



표 III-29.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1+2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chi^2$ (df)    |
|----------|----|-------|------|------|------|------|-----|------------------|
| 전체       |    | (294) | 12.9 | 16.7 | 46.3 | 31.0 | 2.4 |                  |
| 성별       | 남  | (229) | 13.1 | 16.6 | 48.5 | 31.0 | 1.7 | 25.129<br>(11)** |
|          | 여  | (64)  | 12.5 | 17.2 | 39.1 | 29.7 | 4.7 |                  |
| 교급       | 중  | (85)  | 10.6 | 18.8 | 41.2 | 25.9 | 2.4 | 8.611<br>(11)    |
|          | 고  | (209) | 13.9 | 15.8 | 48.3 | 33.0 | 2.4 |                  |
| 학년       | 중1 | (5)   | 20.0 | 40.0 | 40.0 | 0.0  | 0.0 | 47.890<br>(55)   |
|          | 중2 | (33)  | 12.1 | 15.2 | 39.4 | 24.2 | 3.0 |                  |
|          | 중3 | (47)  | 8.5  | 19.1 | 42.6 | 29.8 | 2.1 |                  |
|          | 고1 | (65)  | 12.3 | 13.8 | 49.2 | 41.5 | 1.5 |                  |
|          | 고2 | (89)  | 15.7 | 14.6 | 51.7 | 29.2 | 4.5 |                  |
|          | 고3 | (55)  | 12.7 | 20.0 | 41.8 | 29.1 | 0.0 |                  |
| 성적       | 상  | (34)  | 11.8 | 20.6 | 55.9 | 35.3 | 5.9 | 24.418<br>(22)   |
|          | 중  | (54)  | 3.7  | 22.2 | 55.6 | 37.0 | 1.9 |                  |
|          | 하  | (206) | 15.5 | 14.6 | 42.2 | 28.6 | 1.9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3.8 | 19.0 | 50.9 | 31.9 | 2.6 | 18.624<br>(22)   |
|          | 중  | (101) | 7.9  | 19.8 | 44.6 | 30.7 | 3.0 |                  |
|          | 하  | (76)  | 18.4 | 9.2  | 42.1 | 28.9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12.6 | 15.9 | 47.7 | 31.4 | 2.1 | 7.338<br>(11)    |
|          | 부정 | (55)  | 14.5 | 20.0 | 40.0 | 29.1 | 3.6 |                  |

- 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약화  
 ② 경제적 불평등 및 계층 격차  
 ③ 실업 등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  
 ④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  
 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단속 부족  
 ⑥ 이혼 등 가족 해체와 가정의 불안정  
 ⑦ 학업·취업 등 치열한 경쟁 환경  
 ⑧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 약화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⑪ 기타

다음은 문항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개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이다. 12개 보기로 순위를 조사한 결과, ④친구의 권유가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⑧단순한 호기심이 22.4%, ①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가 20.3%로 그 뒤를 이었다.

집단 비교에서는 학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세부적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⑧호기심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48.5%), 이후 학년에는 점차 낮아졌다(중3 20.8%, 고1·고2 20% 안팎, 고3 약 18.2%). 반대로, ④친구의 권유는 고등학교에서 더 두드러져, 고1 44.6%, 고3 41.8%로 나타났다. ①스트레스 해소는 전 학년에 걸쳐 고른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표 III-30.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순위)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남  | (295) | 20.3 | 4.4 | 4.4  | 35.9 | 2.7  | 0.0 |
|       | 여  | (229) | 19.2 | 5.2 | 4.4  | 33.6 | 2.6  | 0.0 |
| 성별    | 중  | (86)  | 24.6 | 1.5 | 4.6  | 43.1 | 3.1  | 0.0 |
|       | 고  | (209) | 24.4 | 3.5 | 5.8  | 26.7 | 4.7  | 0.0 |
| 교급    | 중1 | (5)   | 18.7 | 4.8 | 3.8  | 39.7 | 1.9  | 0.0 |
|       | 중2 | (33)  | 20.0 | 0.0 | 20.0 | 40.0 | 20.0 | 0.0 |
| 학년    | 중3 | (48)  | 15.2 | 3.0 | 9.1  | 12.1 | 9.1  | 0.0 |
|       | 고1 | (65)  | 31.3 | 4.2 | 2.1  | 35.4 | 0.0  | 0.0 |
| 성적    | 고2 | (89)  | 20.0 | 1.5 | 3.1  | 44.6 | 1.5  | 0.0 |
|       | 고3 | (55)  | 20.2 | 5.6 | 5.6  | 34.8 | 1.1  | 0.0 |
| 성격    | 상  | (34)  | 14.5 | 7.3 | 1.8  | 41.8 | 3.6  | 0.0 |
|       | 중  | (54)  | 14.7 | 2.9 | 5.9  | 35.3 | 0.0  | 0.0 |
| 가구 소득 | 중  | (54)  | 22.2 | 7.4 | 5.6  | 44.4 | 3.7  | 0.0 |
|       | 하  | (207) | 20.8 | 3.9 | 3.9  | 33.8 | 2.9  | 0.0 |
| 자아 긍정 | 상  | (116) | 14.7 | 7.8 | 2.6  | 36.2 | 1.7  | 0.0 |
|       | 중  | (102) | 25.5 | 2.9 | 4.9  | 35.3 | 4.9  | 0.0 |
| 자아 긍정 | 하  | (76)  | 22.4 | 1.3 | 6.6  | 36.8 | 1.3  | 0.0 |
|       | 긍정 | (239) | 20.1 | 4.2 | 2.9  | 37.2 | 2.5  | 0.0 |
|       | 부정 | (56)  | 21.4 | 5.4 | 10.7 | 30.4 | 3.6  | 0.0 |

- 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②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 ③ 가정 내 갈등이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 ④ 친구의 권유로
- ⑤ 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에
- ⑥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 ⑦ 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 ⑧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 ⑨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 ⑩ 운동 능력 향상 등 신체적 목적을 위해
- ⑪ 다이어트를 위해
- ⑫ 기타

요약하면, 청소년이 인식한 유해약물 확산의 개인적 촉발 요인은 크게 세 축으로 수렴한다. 첫째, 또래의 권유가 가장 직접적인 것으로 지목되어, 또래 규범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전염 경로가 주요 장치로 작동한다. 둘째, 단순한 호기심이 특히 중등 중반에서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 발달기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극추구(혹은 새로움 추구)가 초기 시도를 유인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일상 스트레스 해소 욕구가 전 학년에 걸쳐 꾸준히 관찰되어, 부족한 정서 조절·대처 기술이 지속적 취약요인으로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또래 규범(사회적 압력)-호기심(발달적 동기)-스트레스 해소(정서적 필요)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개인 차원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30.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순위) - ②

| (단위: (명),%) |       |       |      |      |     |     |     |               |                 |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chi^2$ (df) |                 |
| 전체          | (295) | 8.5   | 22.4 | 0.0  | 0.3 | 0.7 | 0.3 |               |                 |
| 성별          | 남     | (229) | 9.6  | 24.5 | 0.0 | 0.4 | 0.0 | 0.4           | 14.558<br>(9)   |
|             | 여     | (65)  | 4.6  | 15.4 | 0.0 | 0.0 | 3.1 | 0.0           |                 |
| 교급          | 중     | (86)  | 3.5  | 30.2 | 0.0 | 0.0 | 0.0 | 1.2           | 16.884<br>(9)   |
|             | 고     | (209) | 10.5 | 19.1 | 0.0 | 0.5 | 1.0 | 0.0           |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0.0 | 0.0           | 62.164<br>(45)* |
|             | 중2    | (33)  | 3.0  | 48.5 | 0.0 | 0.0 | 0.0 | 0.0           |                 |
|             | 중3    | (48)  | 4.2  | 20.8 | 0.0 | 0.0 | 0.0 | 2.1           |                 |
|             | 고1    | (65)  | 9.2  | 20.0 | 0.0 | 0.0 | 0.0 | 0.0           |                 |
|             | 고2    | (89)  | 10.1 | 19.1 | 0.0 | 1.1 | 2.2 | 0.0           |                 |
|             | 고3    | (55)  | 12.7 | 18.2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34)  | 5.9  | 35.3 | 0.0 | 0.0 | 0.0 | 0.0           | 14.021<br>(18)  |
|             | 중     | (54)  | 7.4  | 9.3  | 0.0 | 0.0 | 0.0 | 0.0           |                 |
|             | 하     | (207) | 9.2  | 23.7 | 0.0 | 0.5 | 1.0 | 0.5           |                 |
| 가구 소득       | 상     | (116) | 11.2 | 25.0 | 0.0 | 0.9 | 0.0 | 0.0           | 25.509<br>(18)  |
|             | 중     | (102) | 7.8  | 17.6 | 0.0 | 0.0 | 0.0 | 1.0           |                 |
|             | 하     | (76)  | 5.3  | 23.7 | 0.0 | 0.0 | 2.6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9.6  | 21.8 | 0.0 | 0.4 | 0.8 | 0.4           | 10.320<br>(9)   |
|             | 부정    | (56)  | 3.6  | 25.0 | 0.0 | 0.0 | 0.0 | 0.0           |                 |

- 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②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 ③ 가정 내 갈등이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 ④ 친구의 권유로
- ⑤ 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에
- ⑥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 ⑦ 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 ⑧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 ⑨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 ⑩ 운동 능력 향상 등 신체적 목적을 위해
- ⑪ 다이어트를 위해
- ⑫ 기타

문항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개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1순위와 2순위 합을 분석한 결과, 1순위와 동일하게 ④친구의 권유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⑧단순한 호기심이 52.2%, ①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가 2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에서는 교급, 학년, 자아긍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됐다. 먼저, 중학생은 ⑧호기심의 비중이 58.1%로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생은 ④친구의 권유(66.0%)가 더 두드러졌다. 학년별로는 중2에서 호기심 비중이 최고치(66.7%)를 보인 뒤, 고등 단계에서 친구의 권유가 강화되는 ‘호기심 → 또래영향’ 전환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③가정갈등·불안정(19.6%), ⑤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14.3%), ⑦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 동기(26.8%) 비중이 높아 관계 및 정서 취약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1+2순위) - ①

(단위: 명, %)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남  | (295) | 29.5 | 9.2  | 8.1  | 62.4 | 9.2  | 1.7  |
|       | 여  | (229) | 28.8 | 10.5 | 6.6  | 61.6 | 9.2  | 2.2  |
| 성별    | 중  | (65)  | 32.3 | 4.6  | 13.8 | 64.6 | 9.2  | 0.0  |
|       | 고  | (86)  | 30.2 | 12.8 | 11.6 | 53.5 | 16.3 | 1.2  |
| 교급    | 고  | (209) | 29.2 | 7.7  | 6.7  | 66.0 | 6.2  | 1.9  |
|       | 중1 | (5)   | 20.0 | 0.0  | 20.0 | 60.0 | 40.0 | 20.0 |
| 학년    | 중2 | (33)  | 24.2 | 9.1  | 15.2 | 42.4 | 24.2 | 0.0  |
|       | 중3 | (48)  | 35.4 | 16.7 | 8.3  | 60.4 | 8.3  | 0.0  |
| 학년    | 고1 | (65)  | 35.4 | 4.6  | 4.6  | 66.2 | 7.7  | 1.5  |
|       | 고2 | (89)  | 29.2 | 7.9  | 10.1 | 60.7 | 3.4  | 1.1  |
| 성적    | 고3 | (55)  | 21.8 | 10.9 | 3.6  | 74.5 | 9.1  | 3.6  |
|       | 상  | (34)  | 23.5 | 5.9  | 11.8 | 64.7 | 8.8  | 2.9  |
| 성적    | 중  | (54)  | 35.2 | 9.3  | 7.4  | 66.7 | 14.8 | 0.0  |
|       | 하  | (207) | 29.0 | 9.7  | 7.7  | 60.9 | 7.7  | 1.9  |
| 가구 소득 | 상  | (116) | 23.3 | 11.2 | 6.0  | 58.6 | 12.1 | 1.7  |
|       | 중  | (102) | 31.4 | 9.8  | 7.8  | 62.7 | 7.8  | 1.0  |
| 자아 긍정 | 하  | (76)  | 36.8 | 5.3  | 11.8 | 67.1 | 6.6  | 2.6  |
|       | 긍정 | (239) | 30.1 | 10.0 | 5.4  | 62.3 | 7.9  | 2.1  |
| 자아 긍정 | 부정 | (56)  | 26.8 | 5.4  | 19.6 | 62.5 | 14.3 | 0.0  |

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②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③ 가정 내 갈등이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④ 친구의 권유로

⑤ 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에

⑥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⑦ 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⑧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⑨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⑩ 운동 능력 향상 등 신체적 목적을 위해

⑪ 다이어트를 위해

⑫ 기타

요약하면, 청소년이 인식한 유해약물 확산의 개인적 초발 요인은 ‘또래권유-호기심-스트레스 해소’의 세 축으로 수렴하며, 특히 중등에서의 호기심, 고등에서의 또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발달적 변화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덧붙여 자아궁정이 낮은 집단에서는 관계·정서취약 요인의 비중이 커 관계 중심·정서대처 강화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Ⅲ-31. 유해약물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1+2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chi^2(df)$     |
|-------|----|-------|------|------|-----|-----|-----|-----|------------------|
| 전체    |    | (295) | 22.0 | 52.2 | 1.0 | 1.7 | 2.4 | 0.7 |                  |
| 성별    | 남  | (229) | 21.0 | 54.1 | 1.3 | 2.2 | 1.7 | 0.9 | 14.927<br>(12)   |
|       | 여  | (65)  | 26.2 | 44.6 | 0.0 | 0.0 | 4.6 | 0.0 |                  |
| 교급    | 중  | (86)  | 15.1 | 58.1 | 0.0 | 0.0 | 0.0 | 1.2 | 27.458<br>(12)** |
|       | 고  | (209) | 24.9 | 49.8 | 1.4 | 2.4 | 3.3 | 0.5 |                  |
| 학년    | 중1 | (5)   | 0.0  | 40.0 | 0.0 | 0.0 | 0.0 | 0.0 | 83.064<br>(60)*  |
|       | 중2 | (33)  | 18.2 | 66.7 | 0.0 | 0.0 | 0.0 | 0.0 |                  |
|       | 중3 | (48)  | 14.6 | 54.2 | 0.0 | 0.0 | 0.0 | 2.1 |                  |
|       | 고1 | (65)  | 21.5 | 52.3 | 1.5 | 3.1 | 1.5 | 0.0 |                  |
|       | 고2 | (89)  | 30.3 | 46.1 | 2.2 | 2.2 | 5.6 | 1.1 |                  |
|       | 고3 | (55)  | 20.0 | 52.7 | 0.0 | 1.8 | 1.8 | 0.0 |                  |
| 성적    | 상  | (34)  | 14.7 | 64.7 | 0.0 | 2.9 | 0.0 | 0.0 | 25.434<br>(24)   |
|       | 중  | (54)  | 16.7 | 40.7 | 0.0 | 5.6 | 3.7 | 0.0 |                  |
|       | 하  | (207) | 24.6 | 53.1 | 1.4 | 0.5 | 2.4 | 1.0 |                  |
| 가구 소득 | 상  | (116) | 27.6 | 56.0 | 0.0 | 2.6 | 0.9 | 0.0 | 31.377<br>(24)   |
|       | 중  | (102) | 21.6 | 51.0 | 1.0 | 2.0 | 2.0 | 2.0 |                  |
|       | 하  | (76)  | 14.5 | 47.4 | 2.6 | 0.0 | 5.3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20.9 | 54.8 | 1.3 | 2.1 | 2.1 | 0.8 | 24.214<br>(12)*  |
|       | 부정 | (56)  | 26.8 | 41.1 | 0.0 | 0.0 | 3.6 | 0.0 |                  |

- 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②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 ③ 가정 내 갈등이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 ④ 친구의 권유로
- ⑤ 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에
- ⑥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 ⑦ 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 ⑧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 ⑨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 ⑩ 운동 능력 향상 등 신체적 목적을 위해
- ⑪ 다이어트를 위해
- ⑫ 기타

### 3. 술·담배

#### 1) 음주 및 흡연 인식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자주 본다'의 평균이 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가 2.3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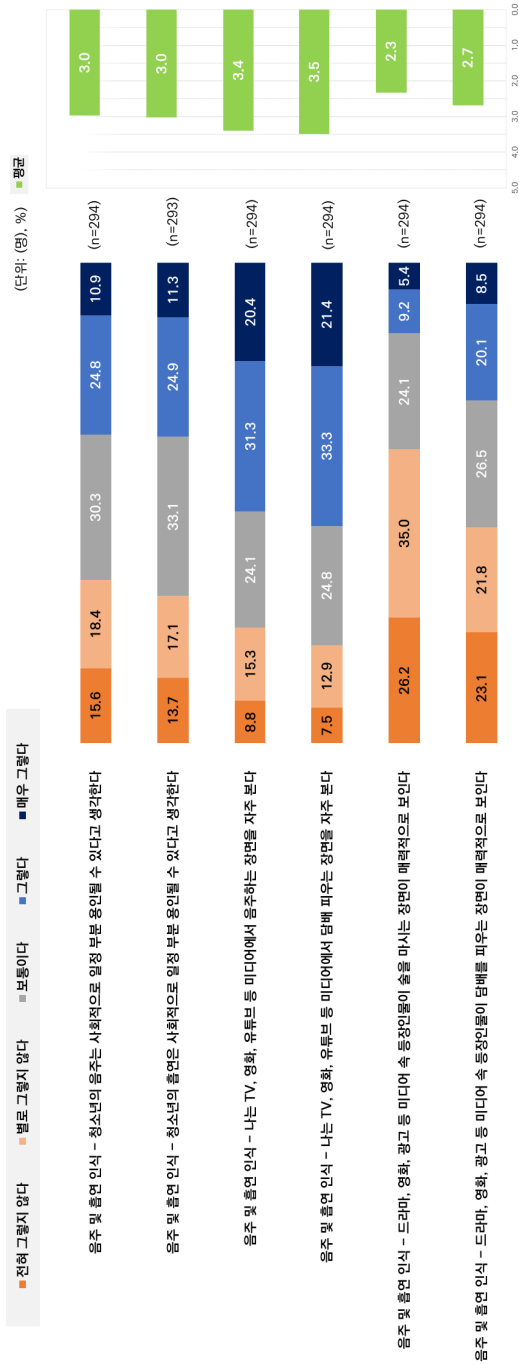


그림 Ⅲ-7.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인식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은 ‘그렇다’가 35.7%, ‘그렇지 않다’가 34.0%, ‘보통’이 30.3%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는 5점 기준 3.0으로, 용인·비용인이 거의 비슷한 비중을 이루되 동의가 소폭 높았다. 즉, 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 음주의 사회적 용인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집단별로는 교급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중학생은 동의 28.2%로 비용인(42.4%)보다 낮았으나, 고등학생은 동의 38.8%로 비용인(30.6%)을 상회했다. 학년별로 보면 중2의 용인 비율이 24.3%에서 중3 33.3%로 상승한 뒤, 고1 31.8%, 고2 44.3%로 정점을 보이고, 고3 39.1%로 소폭 하락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런 교급 차이(중 < 고)는 통제·감시와 노출 환경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은 가정·학교의 규제가 강하고 활동 범위가 좁아 음주 노출이 적지만, 고등학생은 동아리·야간 이동 등 사회적 접점 등 접근성이 커지며 ‘상황에 따라 용인’되는 인식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학년 패턴(고2에서 정점 → 고3 하락)은 고2의 대면활동·또래 규범 노출이 가장 활발한 반면, 고3은 수능 대비로 자기규제와 외부관리가 강화돼 보수적 인식이 회복되는 효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원인 검증이 필요하다. 반면, 성별, 학업성취, 가구소득, 자아긍정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음주 용인 인식은 전반적으로 팽팽하지만, 고등 단계, 특히 고2에서 동의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III-32. 음주 및 흡연 인식 -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15.6                 | 18.4                 | 30.3          | 24.8     | 10.9           | 34.0             | 35.7       | 3.0 | 1.2      |                     |
| 성별       | 남  | (228) | 16.2                 | 18.9                 | 31.6          | 23.2     | 10.1           | 35.1             | 33.3       | 2.9 | 1.2      | -1.263<br>(0.208)   |
|          | 여  | (65)  | 13.8                 | 16.9                 | 24.6          | 30.8     | 13.8           | 30.8             | 44.6       | 3.1 | 1.3      |                     |
| 교급       | 중  | (85)  | 20.0                 | 22.4                 | 29.4          | 22.4     | 5.9            | 42.4             | 28.2       | 2.7 | 1.2      | -2.265<br>*(0.024)  |
|          | 고  | (209) | 13.9                 | 16.7                 | 30.6          | 25.8     | 12.9           | 30.6             | 38.8       | 3.1 | 1.2      |                     |
| 학년       | 중1 | (4)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6      | 3.528<br>***(0.004) |
|          | 중2 | (33)  | 33.3                 | 24.2                 | 18.2          | 18.2     | 6.1            | 57.6             | 24.2       | 2.4 | 1.3      |                     |
|          | 중3 | (48)  | 8.3                  | 18.8                 | 39.6          | 27.1     | 6.3            | 27.1             | 33.3       | 3.0 | 1.0      |                     |
|          | 고1 | (66)  | 15.2                 | 19.7                 | 33.3          | 22.7     | 9.1            | 34.8             | 31.8       | 2.9 | 1.2      |                     |
|          | 고2 | (88)  | 17.0                 | 11.4                 | 27.3          | 22.7     | 21.6           | 28.4             | 44.3       | 3.2 | 1.4      |                     |
|          | 고3 | (55)  | 7.3                  | 21.8                 | 32.7          | 34.5     | 3.6            | 29.1             | 38.2       | 3.1 | 1.0      |                     |
| 성적       | 상  | (34)  | 5.9                  | 26.5                 | 20.6          | 32.4     | 14.7           | 32.4             | 47.1       | 3.2 | 1.2      | 1.772<br>(0.172)    |
|          | 중  | (54)  | 20.4                 | 16.7                 | 37.0          | 20.4     | 5.6            | 37.0             | 25.9       | 2.7 | 1.2      |                     |
|          | 하  | (206) | 16.0                 | 17.5                 | 30.1          | 24.8     | 11.7           | 33.5             | 36.4       | 3.0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9.0                 | 19.0                 | 29.3          | 23.3     | 9.5            | 37.9             | 32.8       | 2.9 | 1.2      | 1.096<br>(0.336)    |
|          | 중  | (101) | 12.9                 | 19.8                 | 34.7          | 20.8     | 11.9           | 32.7             | 32.7       | 3.0 | 1.2      |                     |
|          | 하  | (76)  | 14.5                 | 15.8                 | 25.0          | 32.9     | 11.8           | 30.3             | 44.7       | 3.1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17.6                 | 18.4                 | 27.6          | 24.7     | 11.7           | 36.0             | 36.4       | 2.9 | 1.3      | -0.796<br>(0.428)   |
|          | 부정 | (55)  | 7.3                  | 18.2                 | 41.8          | 25.5     | 7.3            | 25.5             | 32.7       | 3.1 | 1.0      |                     |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은 동의 36.2%, 비동의 30.7%, 보통 33.1%로 나타났다. 평균은 3점으로, 용인·비용인 비율이 비슷하되 동의가 소폭 높은 분포를 보인다. 즉, 청소년 흡연의 ‘사회적 용인 가능성’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 비교에서는 전체 하위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술통계 차원에서 몇 가지 경향이 보인다. 여학생은 남학생(35.1%)보다 동의비율이 40.6% 소폭 높았으며, 고등학생(38.5%)이 중학생(30.6%)보다 동의 응답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였다(상 동의 비율



35.3%, 중 34.0%, 하 37.4%).

종합하면, 청소년의 흡연을 둘러싼 사회적 용인 인식은 전반적으로 팽팽한 구도이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책·교육적 메시지는 특정 집단에 한정하기 보다는 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일관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접근이 적절해 보인다.

표 Ⅲ-33. 음주 및 흡연 인식 -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3) | 13.7                 | 17.1                 | 33.1          | 24.9     | 11.3           | 30.7             | 36.2       | 3.0 | 1.2      |                   |
| 성별       | 남  | (228) | 14.5                 | 17.5                 | 32.9          | 24.1     | 11.0           | 32.0             | 35.1       | 3.0 | 1.2      | -0.951<br>(0.342) |
|          | 여  | (64)  | 10.9                 | 15.6                 | 32.8          | 28.1     | 12.5           | 26.6             | 40.6       | 3.2 | 1.2      |                   |
| 교급       | 중  | (85)  | 16.5                 | 15.3                 | 37.6          | 21.2     | 9.4            | 31.8             | 30.6       | 2.9 | 1.2      | -1.038<br>(0.300) |
|          | 고  | (208) | 12.5                 | 17.8                 | 31.3          | 26.4     | 12.0           | 30.3             | 38.5       | 3.1 | 1.2      |                   |
| 학년       | 중1 | (4)   | 25.0                 | 50.0                 | 25.0          | 0.0      | 0.0            | 75.0             | 0.0        | 2.0 | 0.8      | 0.967<br>(0.438)  |
|          | 중2 | (33)  | 24.2                 | 15.2                 | 30.3          | 18.2     | 12.1           | 39.4             | 30.3       | 2.8 | 1.3      |                   |
|          | 중3 | (48)  | 10.4                 | 12.5                 | 43.8          | 25.0     | 8.3            | 22.9             | 33.3       | 3.1 | 1.1      |                   |
|          | 고1 | (65)  | 10.8                 | 18.5                 | 32.3          | 30.8     | 7.7            | 29.2             | 38.5       | 3.1 | 1.1      |                   |
|          | 고2 | (88)  | 17.0                 | 12.5                 | 31.8          | 20.5     | 18.2           | 29.5             | 38.6       | 3.1 | 1.3      |                   |
|          | 고3 | (55)  | 7.3                  | 25.5                 | 29.1          | 30.9     | 7.3            | 32.7             | 38.2       | 3.1 | 1.1      |                   |
| 성적       | 상  | (34)  | 14.7                 | 20.6                 | 20.6          | 29.4     | 14.7           | 35.3             | 44.1       | 3.1 | 1.3      | 0.604<br>(0.547)  |
|          | 중  | (54)  | 16.7                 | 14.8                 | 42.6          | 16.7     | 9.3            | 31.5             | 25.9       | 2.9 | 1.2      |                   |
|          | 하  | (205) | 12.7                 | 17.1                 | 32.7          | 26.3     | 11.2           | 29.8             | 37.6       | 3.1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8.1                 | 19.0                 | 27.6          | 24.1     | 11.2           | 37.1             | 35.3       | 2.9 | 1.3      | 0.878<br>(0.417)  |
|          | 중  | (100) | 9.0                  | 16.0                 | 41.0          | 23.0     | 11.0           | 25.0             | 34.0       | 3.1 | 1.1      |                   |
|          | 하  | (76)  | 13.2                 | 15.8                 | 31.6          | 27.6     | 11.8           | 28.9             | 39.5       | 3.1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15.5                 | 16.0                 | 31.1          | 24.4     | 13.0           | 31.5             | 37.4       | 3.0 | 1.2      | 0.103<br>(0.918)  |
|          | 부정 | (55)  | 5.5                  | 21.8                 | 41.8          | 27.3     | 3.6            | 27.3             | 30.9       | 3.0 | 0.9      |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의 51.7%가 동의했고, 비동意的는 24.1%, 보통은 24.1%로 집계되었다. 평균은 3.4점으로, 전반적으로 ‘자주 본다’ 쪽으로 기울어진 분포를 보인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성별·교급·학년·성적·가구소득·자아긍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의 비율이 절반 내외로 수렴했으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대체로 50% 안팎(고1 57.6%, 고2 52.3%, 고3 49.1%)으로 나타나 미디어 음주 장면 노출이 폭넓고 일관된 수준임이 나타났다. 즉,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음주 장면을 빈번히 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III-34. 음주 및 흡연 인식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8.8                  | 15.3                 | 24.1          | 31.3     | 20.4           | 24.1             | 51.7       | 3.4 | 1.2      |         |
| 성별       | 남  | (228) | 8.3                  | 15.8                 | 28.1          | 30.3     | 17.5           | 24.1             | 47.8       | 3.3 | 1.2      | -1.582  |
|          | 여  | (65)  | 10.8                 | 13.8                 | 10.8          | 33.8     | 30.8           | 24.6             | 64.6       | 3.6 | 1.3      | (0.115) |
| 교급       | 중  | (85)  | 11.8                 | 17.6                 | 22.4          | 32.9     | 15.3           | 29.4             | 48.2       | 3.2 | 1.2      | -1.506  |
|          | 고  | (209) | 7.7                  | 14.4                 | 24.9          | 30.6     | 22.5           | 22.0             | 53.1       | 3.5 | 1.2      | (0.133) |
| 학년       | 중1 | (4)   | 50.0                 | 0.0                  | 25.0          | 25.0     | 0.0            | 50.0             | 25.0       | 2.3 | 1.5      |         |
|          | 중2 | (33)  | 9.1                  | 21.2                 | 15.2          | 39.4     | 15.2           | 30.3             | 54.5       | 3.3 | 1.2      |         |
|          | 중3 | (48)  | 10.4                 | 16.7                 | 27.1          | 29.2     | 16.7           | 27.1             | 45.8       | 3.3 | 1.2      | 1.091   |
|          | 고1 | (66)  | 7.6                  | 15.2                 | 19.7          | 40.9     | 16.7           | 22.7             | 57.6       | 3.4 | 1.2      | (0.366) |
|          | 고2 | (88)  | 9.1                  | 13.6                 | 25.0          | 20.5     | 31.8           | 22.7             | 52.3       | 3.5 | 1.3      |         |
|          | 고3 | (55)  | 5.5                  | 14.5                 | 30.9          | 34.5     | 14.5           | 20.0             | 49.1       | 3.4 | 1.1      |         |
| 성적       | 상  | (34)  | 2.9                  | 17.6                 | 26.5          | 26.5     | 26.5           | 20.6             | 52.9       | 3.6 | 1.2      |         |
|          | 중  | (54)  | 5.6                  | 14.8                 | 27.8          | 29.6     | 22.2           | 20.4             | 51.9       | 3.5 | 1.2      | 0.650   |
|          | 하  | (206) | 10.7                 | 15.0                 | 22.8          | 32.5     | 18.9           | 25.7             | 51.5       | 3.3 | 1.2      | (0.523) |
| 가구<br>소득 | 상  | (116) | 7.8                  | 14.7                 | 25.9          | 31.0     | 20.7           | 22.4             | 51.7       | 3.4 | 1.2      |         |
|          | 중  | (101) | 5.0                  | 15.8                 | 28.7          | 32.7     | 17.8           | 20.8             | 50.5       | 3.4 | 1.1      | 0.276   |
|          | 하  | (76)  | 15.8                 | 15.8                 | 14.5          | 30.3     | 23.7           | 31.6             | 53.9       | 3.3 | 1.4      | (0.759)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8.8                  | 15.9                 | 26.4          | 29.7     | 19.2           | 24.7             | 49.0       | 3.3 | 1.2      | -1.287  |
|          | 부정 | (55)  | 9.1                  | 12.7                 | 14.5          | 38.2     | 25.5           | 21.8             | 63.6       | 3.6 | 1.3      | (0.199)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흡연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의 54.8%가 동의했고, 비동意的는 20.4%, 보통은 24.8%로 나타났다. 평균은 3.5점으로, 전반적으로 ‘자주 본다’로 응답하였다.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기술통계적으로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61.5%로 남학생 52.6%보다 다소 높았고, 교급별로는 고등학생 56.9%, 중학생 49.4%로 고등 단계에서 노출 체감이 약간 높은 경향이 관찰됐다. 학년별로는 중2 57.6%에서 중3 45.8%로 낮아진 뒤, 고1 60.6%, 고2 54.5%, 고3 56.4% 수준으로 절반 이상의 동의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정리하면, 미디어 속 흡연 장면 노출은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빈번하게 인지되고 있으며, 특정 하위집단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 집단에서 넓고 일관된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Ⅲ-35. 음주 및 흡연 인식 -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자주 본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7.5                  | 12.9                 | 24.8          | 33.3     | 21.4           | 20.4             | 54.8       | 3.5 | 1.2      |                   |
| 성별       | 남  | (228) | 7.0                  | 13.6                 | 26.8          | 32.9     | 19.7           | 20.6             | 52.6       | 3.4 | 1.2      | -0.919<br>(0.359) |
|          | 여  | (65)  | 9.2                  | 10.8                 | 18.5          | 33.8     | 27.7           | 20.0             | 61.5       | 3.6 | 1.3      |                   |
| 교급       | 중  | (85)  | 9.4                  | 16.5                 | 24.7          | 35.3     | 14.1           | 25.9             | 49.4       | 3.3 | 1.2      | -1.868<br>(0.063) |
|          | 고  | (209) | 6.7                  | 11.5                 | 24.9          | 32.5     | 24.4           | 18.2             | 56.9       | 3.6 | 1.2      |                   |
| 학년       | 중1 | (4)   | 50.0                 | 0.0                  | 25.0          | 25.0     | 0.0            | 50.0             | 25.0       | 2.3 | 1.5      | 1.421<br>(0.216)  |
|          | 중2 | (33)  | 9.1                  | 18.2                 | 15.2          | 39.4     | 18.2           | 27.3             | 57.6       | 3.4 | 1.2      |                   |
|          | 중3 | (48)  | 6.3                  | 16.7                 | 31.3          | 33.3     | 12.5           | 22.9             | 45.8       | 3.3 | 1.1      |                   |
|          | 고1 | (66)  | 9.1                  | 12.1                 | 18.2          | 39.4     | 21.2           | 21.2             | 60.6       | 3.5 | 1.2      |                   |
|          | 고2 | (88)  | 6.8                  | 12.5                 | 26.1          | 26.1     | 28.4           | 19.3             | 54.5       | 3.6 | 1.2      |                   |
|          | 고3 | (55)  | 3.6                  | 9.1                  | 30.9          | 34.5     | 21.8           | 12.7             | 56.4       | 3.6 | 1.0      |                   |
| 성적       | 상  | (34)  | 0.0                  | 20.6                 | 23.5          | 20.6     | 35.3           | 20.6             | 55.9       | 3.7 | 1.2      | 1.160<br>(0.315)  |
|          | 중  | (54)  | 5.6                  | 11.1                 | 25.9          | 33.3     | 24.1           | 16.7             | 57.4       | 3.6 | 1.1      |                   |
|          | 하  | (206) | 9.2                  | 12.1                 | 24.8          | 35.4     | 18.4           | 21.4             | 53.9       | 3.4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9                  | 10.3                 | 24.1          | 36.2     | 22.4           | 17.2             | 58.6       | 3.6 | 1.2      | 0.959<br>(0.385)  |
|          | 중  | (101) | 4.0                  | 12.9                 | 32.7          | 30.7     | 19.8           | 16.8             | 50.5       | 3.5 | 1.1      |                   |
|          | 하  | (76)  | 13.2                 | 17.1                 | 15.8          | 31.6     | 22.4           | 30.3             | 53.9       | 3.3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7.1                  | 13.4                 | 27.2          | 31.0     | 21.3           | 20.5             | 52.3       | 3.5 | 1.2      | -0.689<br>(0.492) |
|          | 부정 | (55)  | 9.1                  | 10.9                 | 14.5          | 43.6     | 21.8           | 20.0             | 65.5       | 3.6 | 1.2      |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은 비동의 61.2%, 동의 14.6%, 보통 24.1%로 집계되었다. 평균은 2.3점으로 전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집단 비교에서는 교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은 비동의가 69.4%로 고등학생 60.7%보다 높았고, 동의도 중학생 12.9%, 고등학생 15.3%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단계에서 ‘매력도’ 인식이 중등보다 다소 높지만 여전히 소수라는 점이 확인된다. 학년간 집단 비교는 유의하지 않으나, 기술적으로 중2의 비동의가 69.7%로 매우 높고, 이후 학년이 올라가며 동의가 소폭 늘어 고3 16.4%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학업성취, 가구소득, 자아긍정에서는 집단 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의 매력도는 전체적으로 낮고, 중등에서 특히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매력도 수준이 약간 증가하나, 여전히 다수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유지된다.

표 III-36. 음주 및 흡연 인식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26.2                 | 35.0                 | 24.1          | 9.2      | 5.4            | 61.2             | 14.6       | 2.3 | 1.1      |                    |
| 성별       | 남  | (228) | 26.3                 | 35.5                 | 22.8          | 9.6      | 5.7            | 61.8             | 15.4       | 2.3 | 1.1      | 0.037<br>(0.970)   |
|          | 여  | (65)  | 26.2                 | 32.3                 | 29.2          | 7.7      | 4.6            | 58.5             | 12.3       | 2.3 | 1.1      |                    |
| 교급       | 중  | (85)  | 35.3                 | 34.1                 | 17.6          | 10.6     | 2.4            | 69.4             | 12.9       | 2.1 | 1.1      | -2.164<br>*(0.031) |
|          | 고  | (209) | 22.5                 | 35.4                 | 26.8          | 8.6      | 6.7            | 57.9             | 15.3       | 2.4 | 1.1      |                    |
| 학년       | 중1 | (4)   | 75.0                 | 25.0                 | 0.0           | 0.0      | 0.0            | 100.0            | 0.0        | 1.3 | 0.5      | 1.503<br>(0.189)   |
|          | 중2 | (33)  | 27.3                 | 42.4                 | 15.2          | 15.2     | 0.0            | 69.7             | 15.2       | 2.2 | 1.0      |                    |
|          | 중3 | (48)  | 37.5                 | 29.2                 | 20.8          | 8.3      | 4.2            | 66.7             | 12.5       | 2.1 | 1.1      |                    |
|          | 고1 | (66)  | 24.2                 | 30.3                 | 31.8          | 9.1      | 4.5            | 54.5             | 13.6       | 2.4 | 1.1      |                    |
|          | 고2 | (88)  | 25.0                 | 36.4                 | 22.7          | 6.8      | 9.1            | 61.4             | 15.9       | 2.4 | 1.2      |                    |
|          | 고3 | (55)  | 16.4                 | 40.0                 | 27.3          | 10.9     | 5.5            | 56.4             | 16.4       | 2.5 | 1.1      |                    |
| 성적       | 상  | (34)  | 26.5                 | 44.1                 | 14.7          | 11.8     | 2.9            | 70.6             | 14.7       | 2.2 | 1.1      | 0.242<br>(0.786)   |
|          | 중  | (54)  | 22.2                 | 37.0                 | 33.3          | 1.9      | 5.6            | 59.3             | 7.4        | 2.3 | 1.0      |                    |
|          | 하  | (206) | 27.2                 | 33.0                 | 23.3          | 10.7     | 5.8            | 60.2             | 16.5       | 2.3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25.0                 | 37.9                 | 24.1          | 9.5      | 3.4            | 62.9             | 12.9       | 2.3 | 1.1      | 0.123<br>(0.884)   |
|          | 중  | (101) | 24.8                 | 37.6                 | 23.8          | 5.0      | 8.9            | 62.4             | 13.9       | 2.4 | 1.2      |                    |
|          | 하  | (76)  | 30.3                 | 27.6                 | 23.7          | 14.5     | 3.9            | 57.9             | 18.4       | 2.3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9) | 25.9                 | 36.0                 | 23.4          | 9.2      | 5.4            | 61.9             | 14.6       | 2.3 | 1.1      | -0.139<br>(0.890)  |
|          | 부정 | (55)  | 27.3                 | 30.9                 | 27.3          | 9.1      | 5.5            | 58.2             | 14.5       | 2.3 | 1.1      |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은 비동의가 44.9%, 보통 26.5%, 동의 28.6%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5점 척도 기준 2.7점으로, 전반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약 3명 중 1명은 매력적이라 응답하였다.

집단별 차이는 몇 가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교급에서는 중학생(20.0%)보다 고등학생(32.1%)의 동의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중등 초반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 뒤, 고등단계로 갈수록 동의가 증가하였다(중2 12.1%, 중3 27.1%, 고1 31.8%, 고2 28.4%, 고3 28.2%). 마지막으로 자아긍정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의 동의비율이 36.4%로 더 높았다(긍정집단 26.8%).

요약하면, 미디어 속 흡연 장면의 매력도 인식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등학교와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자아평가가 낮을수록 일부 학생들이 미디어 속 흡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표 III-37. 음주 및 흡연 인식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전체    |    | (294) | 23.1           | 21.8           | 26.5      | 20.1     | 8.5         | 44.9          | 28.6       | 2.7 | 1.3   |                      |
| 성별    | 남  | (228) | 23.7           | 21.9           | 26.8      | 20.2     | 7.5         | 45.6          | 27.6       | 2.7 | 1.2   | -0.713<br>(0.476)    |
|       | 여  | (65)  | 21.5           | 21.5           | 26.2      | 18.5     | 12.3        | 43.1          | 30.8       | 2.8 | 1.3   |                      |
| 교급    | 중  | (85)  | 31.8           | 23.5           | 24.7      | 14.1     | 5.9         | 55.3          | 20.0       | 2.4 | 1.2   | -2.645<br>** (0.009) |
|       | 고  | (209) | 19.6           | 21.1           | 27.3      | 22.5     | 9.6         | 40.7          | 32.1       | 2.8 | 1.3   |                      |
| 학년    | 중1 | (4)   | 75.0           | 25.0           | 0.0       | 0.0      | 0.0         | 100.0         | 0.0        | 1.3 | 0.5   | 2.312<br>* (0.044)   |
|       | 중2 | (33)  | 27.3           | 18.2           | 42.4      | 9.1      | 3.0         | 45.5          | 12.1       | 2.4 | 1.1   |                      |
|       | 중3 | (48)  | 31.3           | 27.1           | 14.6      | 18.8     | 8.3         | 58.3          | 27.1       | 2.5 | 1.3   |                      |
|       | 고1 | (66)  | 22.7           | 21.2           | 24.2      | 27.3     | 4.5         | 43.9          | 31.8       | 2.7 | 1.2   |                      |
|       | 고2 | (88)  | 19.3           | 20.5           | 31.8      | 14.8     | 13.6        | 39.8          | 28.4       | 2.8 | 1.3   |                      |
|       | 고3 | (55)  | 16.4           | 21.8           | 23.6      | 29.1     | 9.1         | 38.2          | 38.2       | 2.9 | 1.2   |                      |
| 성적    | 상  | (34)  | 26.5           | 20.6           | 17.6      | 26.5     | 8.8         | 47.1          | 35.3       | 2.7 | 1.4   | 0.003<br>(0.997)     |
|       | 중  | (54)  | 22.2           | 22.2           | 25.9      | 24.1     | 5.6         | 44.4          | 29.6       | 2.7 | 1.2   |                      |
|       | 하  | (206) | 22.8           | 21.8           | 28.2      | 18.0     | 9.2         | 44.7          | 27.2       | 2.7 | 1.3   |                      |
| 가구 소득 | 상  | (116) | 25.0           | 22.4           | 29.3      | 19.0     | 4.3         | 47.4          | 23.3       | 2.6 | 1.2   | 1.722<br>(0.181)     |
|       | 중  | (101) | 25.7           | 21.8           | 22.8      | 18.8     | 10.9        | 47.5          | 29.7       | 2.7 | 1.3   |                      |
|       | 하  | (76)  | 17.1           | 21.1           | 27.6      | 23.7     | 10.5        | 38.2          | 34.2       | 2.9 | 1.2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24.7           | 23.4           | 25.1      | 20.1     | 6.7         | 48.1          | 26.8       | 2.6 | 1.2   | -2.391<br>* (0.017)  |
|       | 부정 | (55)  | 16.4           | 14.5           | 32.7      | 20.0     | 16.4        | 30.9          | 36.4       | 3.1 | 1.3   |                      |

## 2) 음주 및 흡연 경험

살면서 음주나 흡연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술(주류), 일반담배(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모두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일반담배(궐련형)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89.6%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83.5%), 술(주류)(82.8%),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69.7%) 순이었다.

음주나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최초 경험 시기를 물었을 때, 술(주류)의 경우 ‘중2(14세)’(35.3%)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다. 일반담배(궐련형)는 ‘중1(13세)’(34.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1(13세)’(3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중1(13세)’(31.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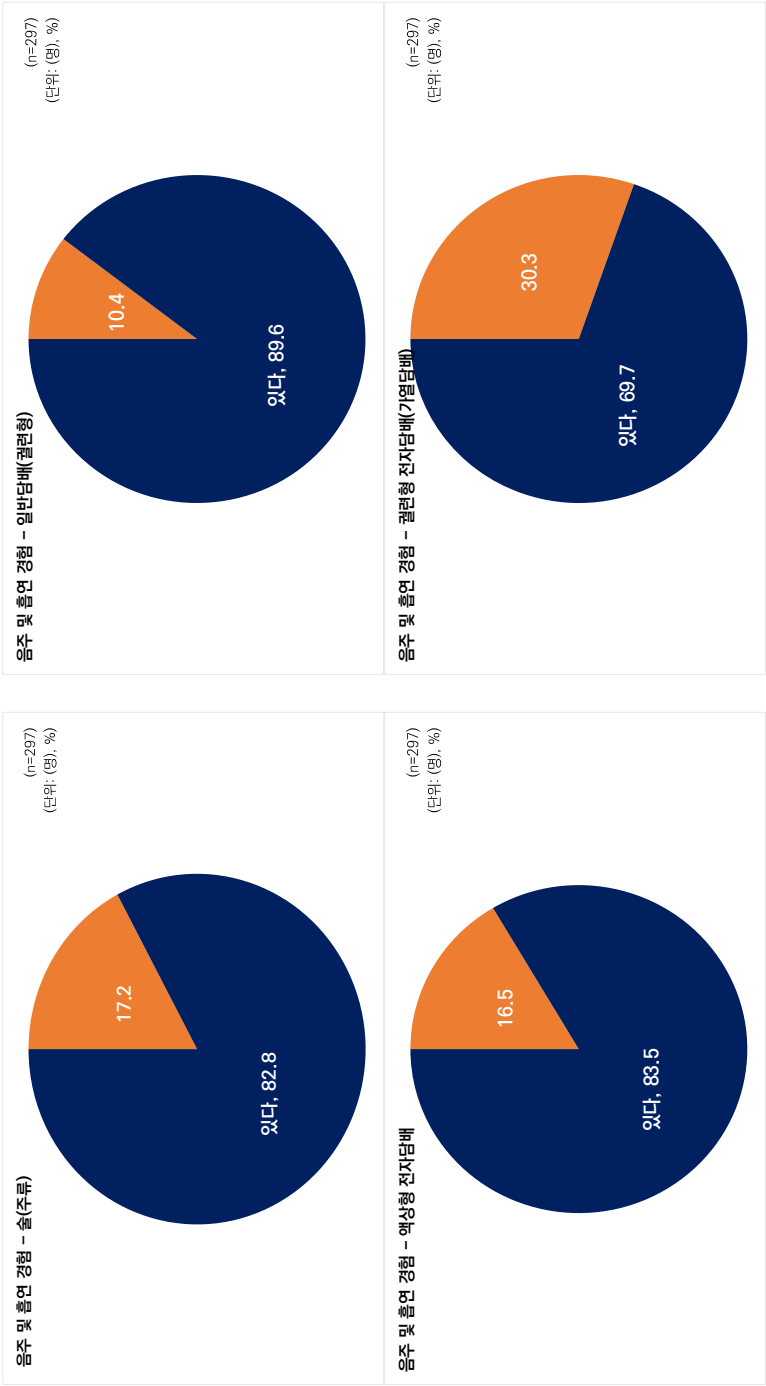


그림 III-8. 음주 및 흡연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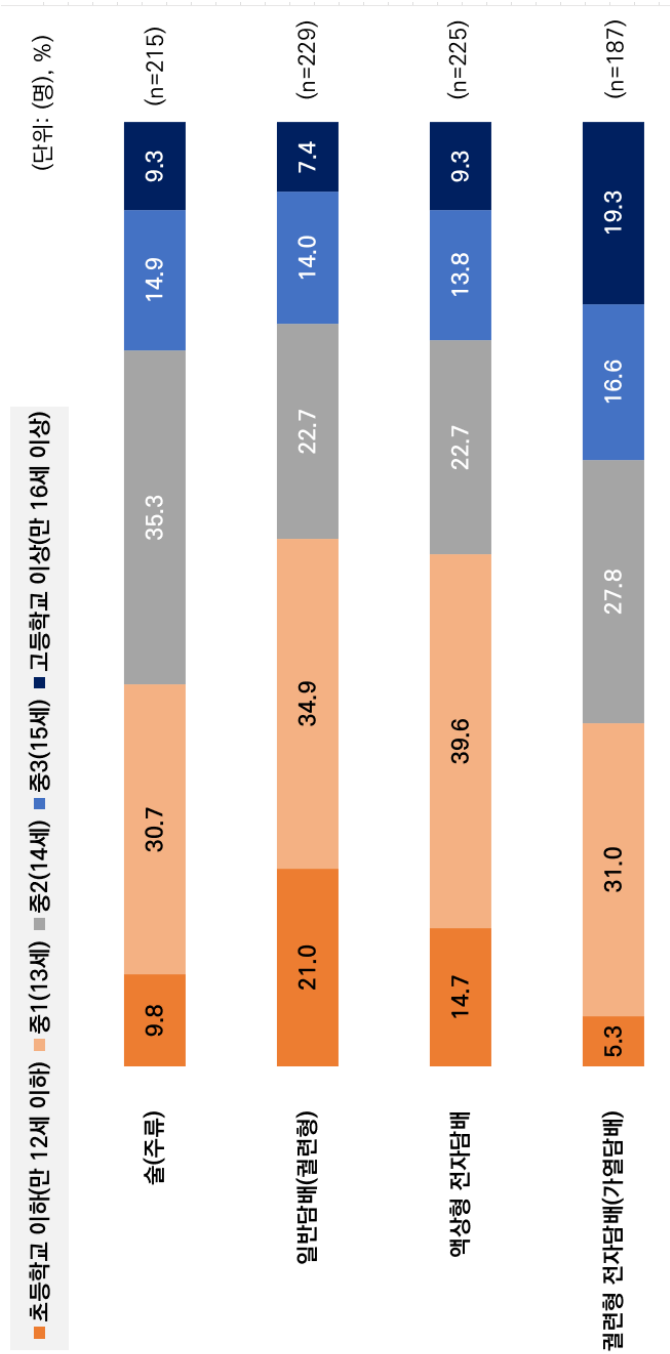


그림 III -9. 음주 및 흡연 최초 경험 시기



음주 및 흡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음주나 흡연한 경험이 있나요?”의 문항으로 그 유무와, 최초 경험 시기를 질문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82.8%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무경험 17.2%), 첫 음주시기는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중1 30.7%, 중2 35.3%, 중3 14.9%로, 중학교 1-2학년이 첫 음주 진입의 최대 구간(약 66%)이었다. 초등학교 이전은 9.8%, 고등학교 이후는 9.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험률(93.8%)이 남학생(79.7%)보다 높았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75.6%, 고등학생 85.8%로 고교에서 더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험률이 상승했다(중2 66.7%, 중3·고2 85.4%, 고3 87.3%). 학업성취도별로는 ‘하’ 집단(86.1%)이 ‘중’(77.8%)과 ‘상’(71.4%)보다 높아 성취도가 낮을수록 경험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최초 경험 시기의 분포는 교급·학년·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은 중1(40.0%)시기에, 고등학생은 중2(35.6%) 시기에 최초 경험이 형성된 비중이 가장 컸다. 성적의 경우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최초 경험 시기가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상의 경우 중1과 중2의 합이 43.5%, 중의 경우 67.5%, 하의 경우 71.5%였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대다수에게서 확인되며, 중학교 1·2학년에서 첫 경험이 핵심 시점이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조기 예방과 학업성취 하 집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38. 음주 및 흡연 경험 - 술(주류)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 (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 전체    |    | (297) | 17.2 | 82.8 |                | (215)    | 9.8   | 30.7 | 35.3 | 14.9 | 9.3   |                  |
| 성별    | 남  | (231) | 20.3 | 79.7 | 7.165          | (160)    | 10.0  | 33.1 | 32.5 | 16.3 | 8.1   | 5.090            |
|       | 여  | (65)  | 6.2  | 93.8 | (1)**          | (54)     | 9.3   | 24.1 | 44.4 | 9.3  | 13.0  | (4)              |
| 교급    | 중  | (86)  | 24.4 | 75.6 | 4.470          | (55)     | 18.2  | 40.0 | 34.5 | 7.3  | 0.0   | 17.206           |
|       | 고  | (211) | 14.2 | 85.8 | (1)*           | (160)    | 6.9   | 27.5 | 35.6 | 17.5 | 12.5  | (4)**            |
| 학년    | 중1 | (5)   | 60.0 | 40.0 | 14.148<br>(5)* | (2)      | 50.0  | 50.0 | 0.0  | 0.0  | 0.0   | 40.528<br>(20)** |
|       | 중2 | (33)  | 33.3 | 66.7 |                | (22)     | 31.8  | 45.5 | 18.2 | 4.5  | 0.0   |                  |
|       | 중3 | (48)  | 14.6 | 85.4 |                | (31)     | 6.5   | 35.5 | 48.4 | 9.7  | 0.0   |                  |
|       | 고1 | (67)  | 14.9 | 85.1 |                | (50)     | 8.0   | 36.0 | 30.0 | 16.0 | 10.0  |                  |
|       | 고2 | (89)  | 14.6 | 85.4 |                | (65)     | 9.2   | 16.9 | 41.5 | 20.0 | 12.3  |                  |
|       | 고3 | (55)  | 12.7 | 87.3 |                | (45)     | 2.2   | 33.3 | 33.3 | 15.6 | 15.6  |                  |
| 성적    | 상  | (35)  | 28.6 | 71.4 | 5.691<br>(2)   | (23)     | 8.7   | 17.4 | 26.1 | 21.7 | 26.1  | 16.073<br>(8)*   |
|       | 중  | (54)  | 22.2 | 77.8 |                | (37)     | 5.4   | 29.7 | 37.8 | 10.8 | 16.2  |                  |
|       | 하  | (208) | 13.9 | 86.1 |                | (155)    | 11.0  | 32.9 | 36.1 | 14.8 | 5.2   |                  |
| 가구 소득 | 상  | (117) | 20.5 | 79.5 | 2.494<br>(2)   | (83)     | 10.8  | 30.1 | 34.9 | 14.5 | 9.6   | 3.478<br>(8)     |
|       | 중  | (103) | 12.6 | 87.4 |                | (75)     | 8.0   | 32.0 | 30.7 | 17.3 | 12.0  |                  |
|       | 하  | (76)  | 18.4 | 81.6 |                | (56)     | 10.7  | 30.4 | 41.1 | 12.5 | 5.4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18.7 | 81.3 | 2.023          | (170)    | 8.2   | 33.5 | 34.1 | 14.7 | 9.4   | 4.450            |
|       | 부정 | (56)  | 10.7 | 89.3 | (1)            | (45)     | 15.6  | 20.0 | 40.0 | 15.6 | 8.9   | (4)              |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형) 경험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전체의 89.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10.4%에 그쳤다. 처음 담배를 피운 시기는 중학교에 집중되어 중1 34.9%, 중2 22.7%로 두 학년만 합해 절반을 넘어섰고, 초등학교 이전 경험도 21.0%로 적지 않았다. 중3은 14.0%, 고등학교 이후는 7.4%였다. 즉, 첫 흡연의 관문이 중학교 초·중반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험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다(남 89.7%, 여 96.9%). 고등학생과 중학생 간 전체 경험률은 비슷하지만, 최초 시기의 분포는 모두 중학교 초·중반에 몰려있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최초 경험시기가 초등이하에서 34.9%, 중1 41.3로 76.2%나 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초등이하 15.7%, 중1 32.5% 수준이었다.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서는 경험 유무의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상위권 74.3%에 비해 하위권은 92.3%로 경험률이 더 높았다. 다만 최초 경험 시기에서는 집단 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아긍정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초등 이전이나 중2 무렵처럼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첫 흡연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소년 흡연은 ‘경험 여부’ 자체가 널리 퍼져 있을 뿐 아니라, 시작 시점이 대체로 중학교 초입에 집중된다. 특히 여학생, 학업취약 집단,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중1 전후의 조기 예방교육과 더불어 정서·학습지원 및 맞춤형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39. 음주 및 흡연 경험 - 일반담배(궐련형)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초등<br>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br>이상 | $\chi^2(df)$     |
| 전체       |    | (297) | 10.4 | 89.6 |                 | (229)    | 21.0     | 34.9 | 22.7 | 14.0 | 7.4      |                  |
| 성별       | 남  | (231) | 12.6 | 87.4 | 4.859<br>(1)*   | (172)    | 20.3     | 39.0 | 20.3 | 14.5 | 5.8      | 7.082<br>(4)     |
|          | 여  | (65)  | 3.1  | 96.9 |                 | (56)     | 23.2     | 23.2 | 28.6 | 12.5 | 12.5     |                  |
| 교급       | 중  | (86)  | 10.5 | 89.5 | 0.000<br>(1)    | (63)     | 34.9     | 41.3 | 19.0 | 4.8  | 0.0      | 21.321<br>(4)*** |
|          | 고  | (211) | 10.4 | 89.6 |                 | (166)    | 15.7     | 32.5 | 24.1 | 17.5 | 10.2     |                  |
| 학년       | 중1 | (5)   | 20.0 | 80.0 | 3.160<br>(5)    | (3)      | 100.0    | 0.0  | 0.0  | 0.0  | 0.0      | 43.923<br>(20)** |
|          | 중2 | (33)  | 12.1 | 87.9 |                 | (27)     | 40.7     | 48.1 | 3.7  | 7.4  | 0.0      |                  |
|          | 중3 | (48)  | 8.3  | 91.7 |                 | (33)     | 24.2     | 39.4 | 33.3 | 3.0  | 0.0      |                  |
|          | 고1 | (67)  | 10.4 | 89.6 |                 | (52)     | 17.3     | 38.5 | 21.2 | 17.3 | 5.8      |                  |
|          | 고2 | (89)  | 13.5 | 86.5 |                 | (67)     | 16.4     | 29.9 | 26.9 | 17.9 | 9.0      |                  |
|          | 고3 | (55)  | 5.5  | 94.5 |                 | (47)     | 12.8     | 29.8 | 23.4 | 17.0 | 17.0     |                  |
| 성적       | 상  | (35)  | 25.7 | 74.3 | 10.441<br>(2)** | (23)     | 13.0     | 34.8 | 26.1 | 13.0 | 13.0     | 10.518<br>(8)    |
|          | 중  | (54)  | 11.1 | 88.9 |                 | (40)     | 12.5     | 40.0 | 15.0 | 17.5 | 15.0     |                  |
|          | 하  | (208) | 7.7  | 92.3 |                 | (166)    | 24.1     | 33.7 | 24.1 | 13.3 | 4.8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3.7 | 86.3 | 2.213<br>(2)    | (85)     | 22.4     | 35.3 | 21.2 | 15.3 | 5.9      | 3.942<br>(8)     |
|          | 중  | (103) | 7.8  | 92.2 |                 | (80)     | 17.5     | 32.5 | 27.5 | 15.0 | 7.5      |                  |
|          | 하  | (76)  | 9.2  | 90.8 |                 | (63)     | 23.8     | 38.1 | 17.5 | 11.1 | 9.5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1.2 | 88.8 | 0.801<br>(1)    | (181)    | 18.2     | 40.3 | 19.3 | 14.9 | 7.2      | 15.205<br>(4)**  |
|          | 부정 | (56)  | 7.1  | 92.9 |                 | (48)     | 31.3     | 14.6 | 35.4 | 10.4 | 8.3      |                  |

전체 응답자의 83.5%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없다 16.5%). 성별 차이는 뚜렷했다. 여학생 95.4%, 남학생 80.1%로, 여학생의 경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84.9%, 고등학생 82.9%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 후반과 고1에서 경험률이 높고, 고2에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78.7%)가 고3에서 85.5%로 다시 높아지는 패턴이 관찰된다(중3 87.5%, 고1 86.6%). 성적 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는데, 상위권 71.4%, 중위권 83.3%, 하위권 85.6%로,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작았으며(상 81.2%, 중 86.4%, 하 82.9%), 자아긍정감의 경우 부정 집단 91.1%가 경험했다고 응답해, 긍정 집단 81.7%보다 높았으나, 성별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최초 경험 시기는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중1 39.6%가 최빈값이며, 중2 22.7%, 중3 13.8%로 중학교 단계에서만 76.1%로 4명 중 3명 이상이 해당 시기에 경험을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이하에서도 14.7%를 보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최초 경험 시기에서는 교급과 학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번이라도 사용’ 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시기가 진입 창구의 역할을 한다. 성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여학생·학업성취 하위·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중학교 단계에 집중 예방과 또래규범 개선 등을 고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40. 음주 및 흡연 경험 - 액상형 전자담배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16.5 | 83.5 |                | (225)    | 14.7  | 39.6 | 22.7 | 13.8 | 9.3   |                   |
| 성별    | 남  | (231) | 19.9 | 80.1 | 8.594<br>(1)** | (169)    | 14.8  | 42.0 | 21.9 | 13.0 | 8.3   | 2.744<br>(4)      |
|       | 여  | (65)  | 4.6  | 95.4 |                | (55)     | 14.5  | 30.9 | 25.5 | 16.4 | 12.7  |                   |
| 교급    | 중  | (86)  | 15.1 | 84.9 | 0.168<br>(1)   | (64)     | 28.1  | 48.4 | 18.8 | 4.7  | 0.0   | 27.147<br>(4)***  |
|       | 고  | (211) | 17.1 | 82.9 |                | (161)    | 9.3   | 36.0 | 24.2 | 17.4 | 13.0  |                   |
| 학년    | 중1 | (5)   | 20.0 | 80.0 | 2.798<br>(5)   | (3)      | 100.0 | 0.0  | 0.0  | 0.0  | 0.0   | 74.545<br>(20)*** |
|       | 중2 | (33)  | 18.2 | 81.8 |                | (26)     | 38.5  | 46.2 | 7.7  | 7.7  | 0.0   |                   |
|       | 중3 | (48)  | 12.5 | 87.5 |                | (35)     | 14.3  | 54.3 | 28.6 | 2.9  | 0.0   |                   |
|       | 고1 | (67)  | 13.4 | 86.6 |                | (53)     | 9.4   | 43.4 | 28.3 | 15.1 | 3.8   |                   |
|       | 고2 | (89)  | 21.3 | 78.7 |                | (63)     | 12.7  | 28.6 | 27.0 | 22.2 | 9.5   |                   |
|       | 고3 | (55)  | 14.5 | 85.5 |                | (45)     | 4.4   | 37.8 | 15.6 | 13.3 | 28.9  |                   |
| 성적    | 상  | (35)  | 28.6 | 71.4 | 4.354<br>(2)   | (23)     | 13.0  | 17.4 | 34.8 | 17.4 | 17.4  | 10.666<br>(8)     |
|       | 중  | (54)  | 16.7 | 83.3 |                | (42)     | 14.3  | 31.0 | 23.8 | 19.0 | 11.9  |                   |
|       | 하  | (208) | 14.4 | 85.6 |                | (160)    | 15.0  | 45.0 | 20.6 | 11.9 | 7.5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8.8 | 81.2 | 1.099<br>(2)   | (87)     | 13.8  | 44.8 | 20.7 | 14.9 | 5.7   | 8.669<br>(8)      |
|       | 중  | (103) | 13.6 | 86.4 |                | (78)     | 12.8  | 38.5 | 19.2 | 17.9 | 11.5  |                   |
|       | 하  | (76)  | 17.1 | 82.9 |                | (59)     | 18.6  | 33.9 | 28.8 | 6.8  | 11.9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18.3 | 81.7 | 2.870<br>(1)   | (175)    | 13.7  | 43.4 | 20.0 | 14.3 | 8.6   | 6.581<br>(4)      |
|       | 부정 | (56)  | 8.9  | 91.1 |                | (50)     | 18.0  | 26.0 | 32.0 | 12.0 | 12.0  |                   |

전체 응답자의 69.7%가 궤련형 전자담배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경험없음 30.3%). 즉, 세 명 중 두 명 꼴로는 궤련형 전자담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과 자아긍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험률이 83.1%로 남학생 6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긍정에서는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 82.1%로 높은 집단 66.8%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이 외의 교급, 학년, 성적 및 가구소득에서는 집단별로 통계적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최초 경험 시기는 교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로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었는데, 경험 있는 중학생의 최초 경험 시기는 중1 46.3%, 중2 35.2%로 중학교

초반 시기에만 81.5%로 나타났다. 이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여학생은 고등학교 이후 첫 경험 비율이 26.1%로 남학생 16.4%보다 높아 시작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은 경향을 보였다.

정리하면, 결련형 전자담배 역시 경험률 자체가 약 70% 높은 편으로, 중학교가 주요 진입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1. 음주 및 흡연 경험 - 결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30.3 | 69.7 |              | (187)    | 5.3   | 31.0 | 27.8 | 16.6 | 19.3  |
| 성별    | 남  | (231) | 34.2 | 65.8 | 7.155        | (140)    | 5.0   | 35.7 | 26.4 | 16.4 | 16.4  |
|       | 여  | (65)  | 16.9 | 83.1 | (1)**        | (46)     | 6.5   | 17.4 | 32.6 | 17.4 | 26.1  |
| 교급    | 중  | (86)  | 27.9 | 72.1 | 0.329        | (54)     | 7.4   | 46.3 | 35.2 | 11.1 | 0.0   |
|       | 고  | (211) | 31.3 | 68.7 | (1)          | (133)    | 4.5   | 24.8 | 24.8 | 18.8 | 27.1  |
| 학년    | 중1 | (5)   | 40.0 | 60.0 | 4.469        | (3)      | 33.3  | 66.7 | 0.0  | 0.0  | 0.0   |
|       | 중2 | (33)  | 36.4 | 63.6 |              | (21)     | 4.8   | 61.9 | 23.8 | 9.5  | 0.0   |
|       | 중3 | (48)  | 20.8 | 79.2 |              | (30)     | 6.7   | 33.3 | 46.7 | 13.3 | 0.0   |
|       | 고1 | (67)  | 35.8 | 64.2 |              | (40)     | 5.0   | 32.5 | 37.5 | 7.5  | 17.5  |
|       | 고2 | (89)  | 31.5 | 68.5 |              | (54)     | 7.4   | 16.7 | 22.2 | 29.6 | 24.1  |
|       | 고3 | (55)  | 25.5 | 74.5 |              | (39)     | 0.0   | 28.2 | 15.4 | 15.4 | 41.0  |
| 성적    | 상  | (35)  | 37.1 | 62.9 | 5.029        | (19)     | 15.8  | 21.1 | 21.1 | 10.5 | 31.6  |
|       | 중  | (54)  | 40.7 | 59.3 |              | (27)     | 7.4   | 25.9 | 33.3 | 14.8 | 18.5  |
|       | 하  | (208) | 26.4 | 73.6 |              | (141)    | 3.5   | 33.3 | 27.7 | 17.7 | 17.7  |
| 가구 소득 | 상  | (117) | 29.9 | 70.1 | 2.357        | (74)     | 5.4   | 33.8 | 23.0 | 13.5 | 24.3  |
|       | 중  | (103) | 26.2 | 73.8 |              | (68)     | 7.4   | 26.5 | 26.5 | 22.1 | 17.6  |
|       | 하  | (76)  | 36.8 | 63.2 |              | (44)     | 2.3   | 34.1 | 36.4 | 13.6 | 13.6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33.2 | 66.8 | 5.061        | (146)    | 4.1   | 33.6 | 26.7 | 18.5 | 17.1  |
|       | 부정 | (56)  | 17.9 | 82.1 | (1)*         | (41)     | 9.8   | 22.0 | 31.7 | 9.8  | 26.8  |

### 3)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음주나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한 달 평균 횟수를 물었을 때, 술(주류)의 경우 '한 달 평균 1~2회'라고 응답한 경우가 29.3%로 가장 높았다. 일반담배(궤련형)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7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4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궤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3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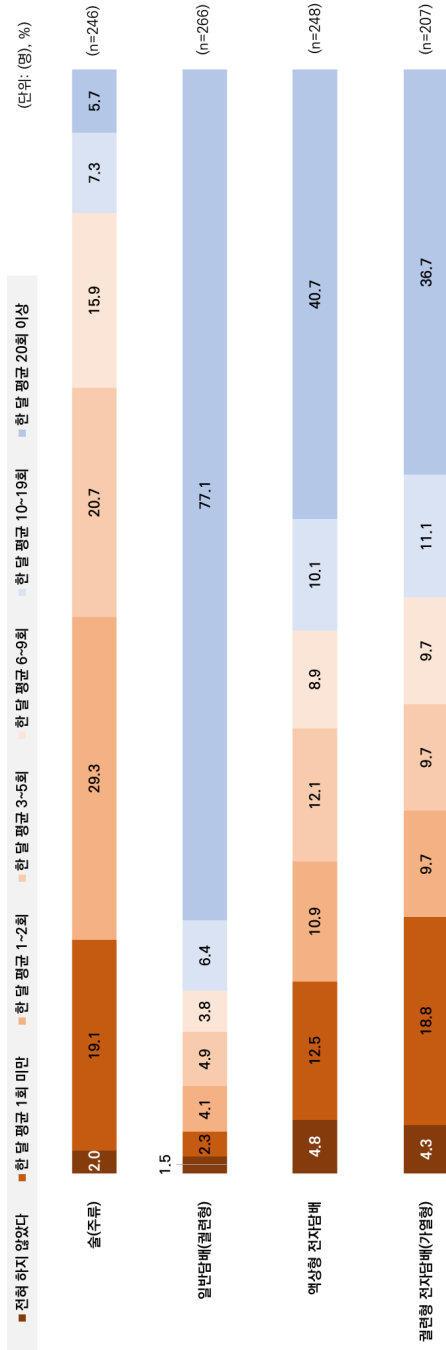


그림 III-10.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경험 결과, 비음주자는 2.0%에 그쳤고, 월 1회 미만 19.1%, 월 1-2회 29.3%, 월 3-4회 20.7%, 월 5-9회 15.9%, 월 10-19회 7.3%, 월 20회 이상 5.7%로 분포하였다. 월 10회 이상 고빈도 음주층이 13.0%(10-19회 7.3% + 20회 이상 5.7%)로 확인되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위험 집단이 존재한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대체로 중2와 중3 때 한달 평균 1~9회가 많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음주 빈도가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고2시절에는 한 달 평균 10~19회가 11.8%, 한 달 평균 20회 이상 10.5% 수준으로 고빈도 음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아긍정감 수준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였으며,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일수록 고빈도 음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아긍정 긍정 집단의 한 달 평균 20회 이상 음주 비율은 3.6%인 반면, 부정 집단의 경우 한달 평균 20회 이상이 14.0%로 높았다. 한편, 성별, 성적,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표본 청소년의 최근 6개월 음주는 간헐적·중간 빈도(월 1-4회)가 주류를 이루되, 고빈도 음주(한 달 평균 10회 이상, 13%)가 일정 규모로 존재하며, 이들은 고학년 및 낮은 자아긍정감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년별 발달 단계와 심리·정서적 자원을 고려한 표적 예방·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42.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술(주류)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246) | 2.0          | 19.1            | 29.3           | 20.7           | 15.9           | 7.3              | 5.7              |                 |
| 성별       | 남  | (184) | 1.6          | 21.2            | 28.8           | 22.3           | 15.8           | 6.0              | 4.3              | 6.193<br>(6)    |
|          | 여  | (61)  | 3.3          | 13.1            | 31.1           | 16.4           | 16.4           | 11.5             | 8.2              |                 |
| 교급       | 중  | (65)  | 0.0          | 10.8            | 38.5           | 16.9           | 20.0           | 7.7              | 6.2              | 9.186<br>(6)    |
|          | 고  | (181) | 2.8          | 22.1            | 26.0           | 22.1           | 14.4           | 7.2              | 5.5              |                 |
| 학년       | 중1 | (2)   | 0.0          | 0.0             | 50.0           | 0.0            | 0.0            | 0.0              | 50.0             | 45.800<br>(30)* |
|          | 중2 | (22)  | 0.0          | 13.6            | 36.4           | 9.1            | 22.7           | 9.1              | 9.1              |                 |
|          | 중3 | (41)  | 0.0          | 9.8             | 39.0           | 22.0           | 19.5           | 7.3              | 2.4              |                 |
|          | 고1 | (57)  | 0.0          | 26.3            | 29.8           | 31.6           | 10.5           | 1.8              | 0.0              |                 |
|          | 고2 | (76)  | 5.3          | 19.7            | 26.3           | 15.8           | 10.5           | 11.8             | 10.5             |                 |
|          | 고3 | (48)  | 2.1          | 20.8            | 20.8           | 20.8           | 25.0           | 6.3              | 4.2              |                 |
| 성적       | 상  | (25)  | 0.0          | 24.0            | 16.0           | 20.0           | 24.0           | 12.0             | 4.0              | 8.900<br>(12)   |
|          | 중  | (42)  | 2.4          | 16.7            | 23.8           | 23.8           | 23.8           | 4.8              | 4.8              |                 |
|          | 하  | (179) | 2.2          | 19.0            | 32.4           | 20.1           | 12.8           | 7.3              | 6.1              |                 |
| 가구<br>소득 | 상  | (93)  | 3.2          | 12.9            | 28.0           | 23.7           | 15.1           | 11.8             | 5.4              | 13.558<br>(12)  |
|          | 중  | (90)  | 2.2          | 21.1            | 30.0           | 21.1           | 18.9           | 2.2              | 4.4              |                 |
|          | 하  | (62)  | 0.0          | 24.2            | 30.6           | 16.1           | 12.9           | 8.1              | 8.1              |                 |
| 자아<br>긍정 | 긍정 | (196) | 1.0          | 19.4            | 31.6           | 20.4           | 16.3           | 7.7              | 3.6              | 14.688<br>(6)*  |
|          | 부정 | (50)  | 6.0          | 18.0            | 20.0           | 22.0           | 14.0           | 6.0              | 14.0             |                 |

최근 6개월 이내 일반담배(궤련형) 흡연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 월 20회 이상 흡연이 77.1%로 최빈 범주를 이루었고, 전혀 흡연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였다. 즉, 저·중빈도 구간(월 1회 미만~월 19회)의 합계(21.5%)가 소수에 머무는 가운데 다수가 고빈도 흡연 집단에 속하는 분포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 검정에서는 성별, 교급, 학년, 가구소득, 자아긍정감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성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적 '하' 집단의 월 20회 이상 흡연 비율이 가장 높고(80.7%), 이어 '중' 집단(70.8%), '상' 집단(61.5%) 순으로 나타나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흡연 빈도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 종합하면, 본 표본의 궤련 흡연은 고빈도 사용이 지배적인 패턴이며, 학업성취 정도가 흡연 빈도와 통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43.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일반담배(궐련형)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 전체 | (266) | 1.5          | 2.3             | 4.1            | 4.9            | 3.8            | 6.4              | 77.1             |                  |
| 성별       | 남  | (202) | 1.5          | 2.5             | 4.5            | 5.4            | 4.5            | 6.4              | 75.2             | 2.244<br>(6)     |
|          | 여  | (63)  | 1.6          | 1.6             | 3.2            | 3.2            | 1.6            | 6.3              | 82.5             |                  |
| 교급       | 중  | (77)  | 0.0          | 1.3             | 2.6            | 3.9            | 5.2            | 6.5              | 80.5             | 3.671<br>(6)     |
|          | 고  | (189) | 2.1          | 2.6             | 4.8            | 5.3            | 3.2            | 6.3              | 75.7             |                  |
| 학년       | 중1 | (4)   | 0.0          | 0.0             | 0.0            | 25.0           | 0.0            | 0.0              | 75.0             | 31.827<br>(30)   |
|          | 중2 | (29)  | 0.0          | 3.4             | 3.4            | 3.4            | 10.3           | 3.4              | 75.9             |                  |
|          | 중3 | (44)  | 0.0          | 0.0             | 2.3            | 2.3            | 2.3            | 9.1              | 84.1             |                  |
|          | 고1 | (60)  | 3.3          | 1.7             | 5.0            | 6.7            | 0.0            | 11.7             | 71.7             |                  |
|          | 고2 | (77)  | 0.0          | 1.3             | 3.9            | 2.6            | 3.9            | 6.5              | 81.8             |                  |
|          | 고3 | (52)  | 3.8          | 5.8             | 5.8            | 7.7            | 5.8            | 0.0              | 71.2             |                  |
| 성적       | 상  | (26)  | 0.0          | 11.5            | 3.8            | 0.0            | 3.8            | 19.2             | 61.5             | 30.623<br>(12)** |
|          | 중  | (48)  | 4.2          | 0.0             | 10.4           | 4.2            | 4.2            | 6.3              | 70.8             |                  |
|          | 하  | (192) | 1.0          | 1.6             | 2.6            | 5.7            | 3.6            | 4.7              | 80.7             |                  |
| 가구<br>소득 | 상  | (101) | 2.0          | 3.0             | 4.0            | 0.0            | 4.0            | 7.9              | 79.2             | 19.387<br>(12)   |
|          | 중  | (95)  | 0.0          | 1.1             | 7.4            | 8.4            | 4.2            | 7.4              | 71.6             |                  |
|          | 하  | (69)  | 2.9          | 2.9             | 0.0            | 7.2            | 2.9            | 2.9              | 8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14) | 1.9          | 1.9             | 4.2            | 5.6            | 4.7            | 7.5              | 74.3             | 8.410<br>(6)     |
|          | 부정 | (52)  | 0.0          | 3.8             | 3.8            | 1.9            | 0.0            | 1.9              | 88.5             |                  |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월 20회 이상 사용이 40.7%로 가장 높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음은 4.8%에 불과했다. 즉, 표본은 비사용 소수-고빈도 다수 구조를 보였다. 성별 차이에서는 여학생의 월 20회 이상 사용 비율(53.2%)이 남학생(36.8%)보다 높았다. 동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음’ 응답은 여학생 0.0%, 남학생 6.5%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교급과 학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고빈도 사용(월 20회 이상 61.6%)이 고등학생(3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 간 분포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년별로도 전반적으로 중2 66.7%, 중3 57.1%인 반면, 고1 31.0%, 고2 40.0%, 고3 21.3%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고빈도 비중이 작아지는 연령·학년 효과가 일부 관찰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또한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의 한 달 평균 20회 이상 비율이 74.3%인 반면, 부정 집단은 88.5%로 그 범주의 전체 비율(77.1%)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성적, 가구소득은 일관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고빈도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여학생·중학교 집단에서 특히 높은 사용 강도가 특징적이다.

표 III-44.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액상형 전자담배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 않았다 | 한 달 평균 1회 미만 | 한 달 평균 1~2회 | 한 달 평균 3~5회 | 한 달 평균 6~9회 | 한 달 평균 10~19회 | 한 달 평균 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248) | 4.8       | 12.5         | 10.9        | 12.1        | 8.9         | 10.1          | 40.7          |                 |
| 성별    | 남  | (185) | 6.5       | 14.6         | 11.4        | 12.4        | 9.7         | 8.6           | 36.8          | 12.221<br>(6)   |
|       | 여  | (62)  | 0.0       | 6.5          | 8.1         | 11.3        | 6.5         | 14.5          | 53.2          |                 |
| 교급    | 중  | (73)  | 1.4       | 8.2          | 6.8         | 8.2         | 8.2         | 5.5           | 61.6          | 20.261<br>(6)** |
|       | 고  | (175) | 6.3       | 14.3         | 12.6        | 13.7        | 9.1         | 12.0          | 32.0          |                 |
| 학년    | 중1 | (4)   | 0.0       | 0.0          | 0.0         | 25.0        | 0.0         | 0.0           | 75.0          | 44.550<br>(30)* |
|       | 중2 | (27)  | 0.0       | 3.7          | 7.4         | 3.7         | 14.8        | 3.7           | 66.7          |                 |
|       | 중3 | (42)  | 2.4       | 11.9         | 7.1         | 9.5         | 4.8         | 7.1           | 57.1          |                 |
|       | 고1 | (58)  | 10.3      | 8.6          | 6.9         | 17.2        | 10.3        | 15.5          | 31.0          |                 |
|       | 고2 | (70)  | 4.3       | 15.7         | 11.4        | 8.6         | 7.1         | 12.9          | 40.0          |                 |
|       | 고3 | (47)  | 4.3       | 19.1         | 21.3        | 17.0        | 10.6        | 6.4           | 21.3          |                 |
| 성적    | 상  | (25)  | 0.0       | 4.0          | 16.0        | 12.0        | 8.0         | 24.0          | 36.0          | 19.692<br>(12)  |
|       | 중  | (45)  | 6.7       | 4.4          | 13.3        | 15.6        | 2.2         | 15.6          | 42.2          |                 |
|       | 하  | (178) | 5.1       | 15.7         | 9.6         | 11.2        | 10.7        | 6.7           | 41.0          |                 |
| 가구 소득 | 상  | (95)  | 8.4       | 7.4          | 9.5         | 6.3         | 6.3         | 11.6          | 50.5          | 17.283<br>(12)  |
|       | 중  | (89)  | 2.2       | 15.7         | 12.4        | 16.9        | 10.1        | 9.0           | 33.7          |                 |
|       | 하  | (63)  | 3.2       | 15.9         | 11.1        | 12.7        | 11.1        | 9.5           | 36.5          |                 |
| 자아 긍정 | 긍정 | (197) | 5.1       | 13.2         | 10.7        | 12.7        | 9.1         | 10.2          | 39.1          | 1.523<br>(6)    |
|       | 부정 | (51)  | 3.9       | 9.8          | 11.8        | 9.8         | 7.8         | 9.8           | 47.1          |                 |

최근 6개월 이내 껴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흡연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 비사용자는 4.3%에 불과한 반면 월 20회 이상 사용자는 36.7%로 가장 큰 빈도를 이뤄 전반적으로 고빈도 사용이 지배적이었다. 성별에서 여학생의 월 20회 이상 사용 비율(44.4%)이 남학생(34.2%)보다 높았고, 비사용 비율은 남학생 5.9%로 여학생 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급과 학년에서 대체로 중학생에서 고빈도 사용 비중(약 44-53%)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용 강도가 유지·저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1 고빈도 32.6%, 고2 36.1%, 고3 26.8%). 자아긍정에서는 긍정범주의 고빈도 사용이 34.2%인 반면, 부정 범주의 고빈도 사용은 45.7%로 더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다. 다만, 하위 범주에서 집단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45. 최근 6개월 이내 음주 및 흡연 횟수 - 결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207) | 4.3          | 18.8            | 9.7            | 9.7            | 9.7            | 11.1             | 36.7             |                |
| 성별       | 남  | (152) | 5.9          | 21.7            | 9.2            | 10.5           | 9.9            | 8.6              | 34.2             | 11.046<br>(6)  |
|          | 여  | (54)  | 0.0          | 11.1            | 11.1           | 7.4            | 7.4            | 18.5             | 44.4             |                |
| 교급       | 중  | (62)  | 1.6          | 11.3            | 9.7            | 8.1            | 12.9           | 9.7              | 46.8             | 8.000<br>(6)   |
|          | 고  | (145) | 5.5          | 22.1            | 9.7            | 10.3           | 8.3            | 11.7             | 32.4             |                |
| 학년       | 중1 | (3)   | 0.0          | 0.0             | 33.3           | 0.0            | 0.0            | 33.3             | 33.3             | 43.581<br>(30) |
|          | 중2 | (21)  | 0.0          | 9.5             | 14.3           | 4.8            | 14.3           | 4.8              | 52.4             |                |
|          | 중3 | (38)  | 2.6          | 13.2            | 5.3            | 10.5           | 13.2           | 10.5             | 44.7             |                |
|          | 고1 | (43)  | 11.6         | 25.6            | 0.0            | 14.0           | 7.0            | 9.3              | 32.6             |                |
|          | 고2 | (61)  | 3.3          | 14.8            | 8.2            | 6.6            | 13.1           | 18.0             | 36.1             |                |
|          | 고3 | (41)  | 2.4          | 29.3            | 22.0           | 12.2           | 2.4            | 4.9              | 26.8             |                |
| 성적       | 상  | (22)  | 0.0          | 18.2            | 9.1            | 13.6           | 13.6           | 18.2             | 27.3             | 8.533<br>(12)  |
|          | 중  | (32)  | 6.3          | 15.6            | 6.3            | 9.4            | 3.1            | 18.8             | 40.6             |                |
|          | 하  | (153) | 4.6          | 19.6            | 10.5           | 9.2            | 10.5           | 8.5              | 37.3             |                |
| 가구<br>소득 | 상  | (82)  | 7.3          | 15.9            | 6.1            | 7.3            | 14.6           | 9.8              | 39.0             | 17.620<br>(12) |
|          | 중  | (76)  | 3.9          | 17.1            | 14.5           | 14.5           | 3.9            | 11.8             | 34.2             |                |
|          | 하  | (48)  | 0.0          | 27.1            | 6.3            | 6.3            | 10.4           | 12.5             | 37.5             |                |
| 자아<br>긍정 | 긍정 | (161) | 5.0          | 19.3            | 8.7            | 8.7            | 11.2           | 13.0             | 34.2             | 7.559<br>(6)   |
|          | 부정 | (46)  | 2.2          | 17.4            | 13.0           | 13.0           | 4.3            | 4.3              | 45.7             |                |

## 4. 고카페인 음료

### 1)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을 각각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긍정 인식은 ‘공부, 아르바이트, 여가 활동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의향이 있다’의 평균이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카페인 음료는 건강에 주는 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가 2.9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정 인식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의 평균이 3.8점, ‘카페인 음료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의 평균이 3.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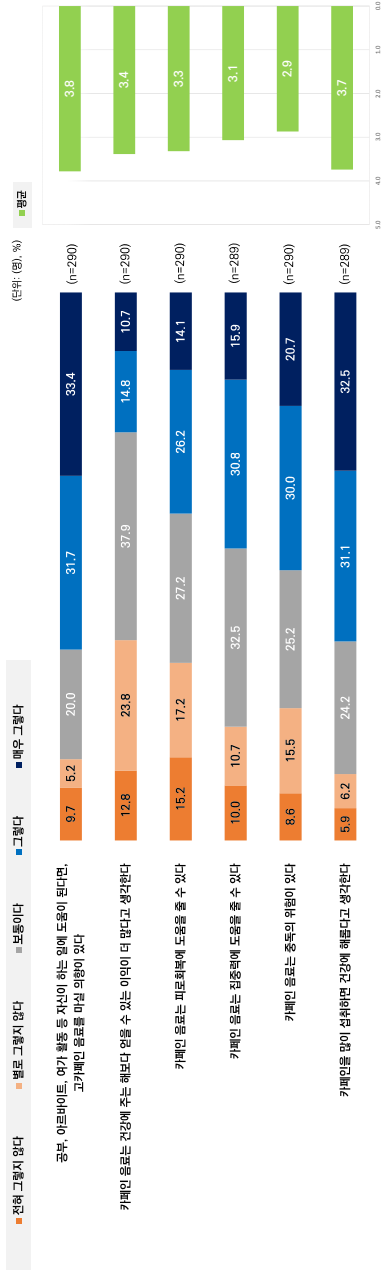


그림 3-11. 커피 및 카페인 음료에 대한 인식(긍정+부정)

“공부·아르바이트·여가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의 65.2%가 동의했으며, 비동意的는 14.8%, 보통은 20.0%로 나타났다. 평균은 3.7점으로, 청소년 다수가 상황에 따라 섭취 의향을 보였다.

집단 비교에서는 교급과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동의비율(70.2%)이 중학생(52.9%)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중2(63.5%)에서 중3(48.9%)으로 넘어가는 무렵 낮아지다가 고등으로 올라가며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고1 65.1%, 고2 72.4%, 고3 72.7%).

요약하면, 고카페인 음료 섭취 의향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고등학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성적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고, 소득 하·자아긍정 낮은 집단에서 약간의 높은 경향만 확인되었다.

표 III-46.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공부, 아르바이트, 여가 활동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 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 전체 | (290) | 9.7            | 5.2            | 20.0       | 31.7     | 33.4        | 14.8          | 65.2       | 3.7 | 1.2   |             |
| 성별    | 남  | (225) | 10.2           | 4.4            | 21.3       | 29.3     | 34.7        | 14.7          | 64.0       | 3.7 | 1.3   | -0.069      |
|       | 여  | (64)  | 7.8            | 7.8            | 15.6       | 39.1     | 29.7        | 15.6          | 68.8       | 3.8 | 1.2   | (0.945)     |
| 교급    | 중  | (85)  | 12.9           | 9.4            | 24.7       | 36.5     | 16.5        | 22.4          | 52.9       | 3.3 | 1.2   | -3.598      |
|       | 고  | (205) | 8.3            | 3.4            | 18.0       | 29.8     | 40.5        | 11.7          | 70.2       | 3.9 | 1.2   | *** (0.000)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0.0        | 0.0      | 20.0        | 80.0          | 20.0       | 2.0 | 1.7   |             |
|       | 중2 | (33)  | 12.1           | 9.1            | 15.2       | 45.5     | 18.2        | 21.2          | 63.6       | 3.5 | 1.3   |             |
|       | 중3 | (47)  | 8.5            | 8.5            | 34.0       | 34.0     | 14.9        | 17.0          | 48.9       | 3.4 | 1.1   | 4.454       |
|       | 고1 | (63)  | 9.5            | 6.3            | 19.0       | 31.7     | 33.3        | 15.9          | 65.1       | 3.7 | 1.3   | *** (0.001) |
|       | 고2 | (87)  | 9.2            | 2.3            | 16.1       | 31.0     | 41.4        | 11.5          | 72.4       | 3.9 | 1.2   |             |
|       | 고3 | (55)  | 5.5            | 1.8            | 20.0       | 25.5     | 47.3        | 7.3           | 72.7       | 4.1 | 1.1   |             |
| 성적    | 상  | (35)  | 11.4           | 0.0            | 11.4       | 25.7     | 51.4        | 11.4          | 77.1       | 4.1 | 1.3   |             |
|       | 중  | (54)  | 9.3            | 3.7            | 22.2       | 33.3     | 31.5        | 13.0          | 64.8       | 3.7 | 1.2   | 1.325       |
|       | 하  | (201) | 9.5            | 6.5            | 20.9       | 32.3     | 30.8        | 15.9          | 63.2       | 3.7 | 1.2   | (0.268)     |
| 가구 소득 | 상  | (114) | 13.2           | 5.3            | 21.1       | 35.1     | 25.4        | 18.4          | 60.5       | 3.5 | 1.3   |             |
|       | 중  | (101) | 7.9            | 2.0            | 22.8       | 24.8     | 42.6        | 9.9           | 67.3       | 3.9 | 1.2   | 2.580       |
|       | 하  | (74)  | 6.8            | 9.5            | 14.9       | 35.1     | 33.8        | 16.2          | 68.9       | 3.8 | 1.2   | (0.078)     |
| 자아 긍정 | 긍정 | (235) | 10.6           | 5.1            | 20.0       | 32.8     | 31.5        | 15.7          | 64.3       | 3.7 | 1.3   | -1.353      |
|       | 부정 | (55)  | 5.5            | 5.5            | 20.0       | 27.3     | 41.8        | 10.9          | 69.1       | 3.9 | 1.2   | (0.177)     |

“카페인 음료는 건강이 주는 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통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비동의 36.6%, 동의 25.5% 순으로 나타났다(평균 2.9점). 청소년들은 카페인 음료의 효익이 해를 상회한다는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며, 명확한 긍정보다는 중립·보수적 응답에 집중되었다.

집단 비교에서는 하위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위항목 전반에서 큰 차이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기술통계 차원에서 몇 가지 경향이 관찰되었다. 남학생(26.2%)의 동의율이 여학생(21.9%)보다 소폭 높았고, 중학생(27.1%)이 고등학생(24.9%)보다 약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중2(30.3%)와 고3(27.3%)에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고, 성취별로는 상위 성취 집단(37.1%)에서 중(20.4%)·하(24.9%)위 집단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청소년 대다수는 카페인 음료의 ‘순익’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중립적 입장에 머무르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III-47.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건강에 주는 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0) | 12.8                 | 23.8                 | 37.9          | 14.8     | 10.7           | 36.6             | 25.5       | 2.9 | 1.1      |                   |
| 성별       | 남  | (225) | 12.0                 | 23.1                 | 38.7          | 16.0     | 10.2           | 35.1             | 26.2       | 2.9 | 1.1      | 0.787<br>(0.432)  |
|          | 여  | (64)  | 15.6                 | 26.6                 | 35.9          | 9.4      | 12.5           | 42.2             | 21.9       | 2.8 | 1.2      |                   |
| 교급       | 중  | (85)  | 16.5                 | 25.9                 | 30.6          | 20.0     | 7.1            | 42.4             | 27.1       | 2.8 | 1.2      | -1.111<br>(0.267) |
|          | 고  | (205) | 11.2                 | 22.9                 | 41.0          | 12.7     | 12.2           | 34.1             | 24.9       | 2.9 | 1.1      |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0.0           | 20.0     | 0.0            | 80.0             | 20.0       | 1.8 | 1.3      | 1.224<br>(0.298)  |
|          | 중2 | (33)  | 18.2                 | 15.2                 | 36.4          | 21.2     | 9.1            | 33.3             | 30.3       | 2.9 | 1.2      |                   |
|          | 중3 | (47)  | 10.6                 | 34.0                 | 29.8          | 19.1     | 6.4            | 44.7             | 25.5       | 2.8 | 1.1      |                   |
|          | 고1 | (63)  | 11.1                 | 28.6                 | 38.1          | 12.7     | 9.5            | 39.7             | 22.2       | 2.8 | 1.1      |                   |
|          | 고2 | (87)  | 11.5                 | 21.8                 | 41.4          | 12.6     | 12.6           | 33.3             | 25.3       | 2.9 | 1.1      |                   |
|          | 고3 | (55)  | 10.9                 | 18.2                 | 43.6          | 12.7     | 14.5           | 29.1             | 27.3       | 3.0 | 1.2      |                   |
| 성적       | 상  | (35)  | 14.3                 | 28.6                 | 20.0          | 20.0     | 17.1           | 42.9             | 37.1       | 3.0 | 1.3      | 0.165<br>(0.848)  |
|          | 중  | (54)  | 11.1                 | 20.4                 | 48.1          | 11.1     | 9.3            | 31.5             | 20.4       | 2.9 | 1.1      |                   |
|          | 하  | (201) | 12.9                 | 23.9                 | 38.3          | 14.9     | 10.0           | 36.8             | 24.9       | 2.9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4) | 14.9                 | 25.4                 | 34.2          | 19.3     | 6.1            | 40.4             | 25.4       | 2.8 | 1.1      | 0.842<br>(0.432)  |
|          | 중  | (101) | 9.9                  | 19.8                 | 46.5          | 11.9     | 11.9           | 29.7             | 23.8       | 3.0 | 1.1      |                   |
|          | 하  | (74)  | 13.5                 | 27.0                 | 31.1          | 12.2     | 16.2           | 40.5             | 28.4       | 2.9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5) | 12.8                 | 23.4                 | 37.4          | 16.2     | 10.2           | 36.2             | 26.4       | 2.9 | 1.1      | 0.234<br>(0.815)  |
|          | 부정 | (55)  | 12.7                 | 25.5                 | 40.0          | 9.1      | 12.7           | 38.2             | 21.8       | 2.8 | 1.2      |                   |

“카페인 음료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은 동의 40.3%, 보통 27.9%, 비동의 32.4%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3.1점으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카페인 음료의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고 보되, 강한 확신보다는 중간 이상 수준에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단별로는 고급, 학년 및 성적에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우선 고급별 차이가 유의했는데, 고등학생의 동의율(41.5%)이 중학생(37.6%)보다 높았다. 학년별 차이도 유의했는데, 중2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고1이 49.9%, 고2 40.2%, 고3 36.4%로 내려가는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의 동의율이 약 62.9%로 중·하 집단(각각 약 37% 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카페인 음료가 피로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며, 그 경향은 고등학교와 학업성취 상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외 성별·소득 수준·자아긍정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48.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명), %)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0) | 15.2                 | 17.2                 | 27.2          | 26.2     | 14.1           | 32.4             | 40.3       | 3.1 | 1.3      |                    |
| 성별       | 남  | (225) | 14.2                 | 16.9                 | 29.8          | 24.9     | 14.2           | 31.1             | 39.1       | 3.1 | 1.2      | 0.358<br>(0.721)   |
|          | 여  | (64)  | 18.8                 | 18.8                 | 18.8          | 29.7     | 14.1           | 37.5             | 43.8       | 3.0 | 1.4      |                    |
| 고급       | 중  | (85)  | 21.2                 | 20.0                 | 21.2          | 29.4     | 8.2            | 41.2             | 37.6       | 2.8 | 1.3      | -2.032<br>*(0.043) |
|          | 고  | (205) | 12.7                 | 16.1                 | 29.8          | 24.9     | 16.6           | 28.8             | 41.5       | 3.2 | 1.2      |                    |
| 학년       | 중1 | (5)   | 60.0                 | 40.0                 | 0.0           | 0.0      | 0.0            | 100.0            | 0.0        | 1.4 | 0.5      | 3.002<br>*(0.012)  |
|          | 중2 | (33)  | 15.2                 | 15.2                 | 15.2          | 45.5     | 9.1            | 30.3             | 54.5       | 3.2 | 1.3      |                    |
|          | 중3 | (47)  | 21.3                 | 21.3                 | 27.7          | 21.3     | 8.5            | 42.6             | 29.8       | 2.7 | 1.3      |                    |
|          | 고1 | (63)  | 9.5                  | 12.7                 | 30.2          | 34.9     | 12.7           | 22.2             | 47.6       | 3.3 | 1.1      |                    |
|          | 고2 | (87)  | 13.8                 | 16.1                 | 29.9          | 19.5     | 20.7           | 29.9             | 40.2       | 3.2 | 1.3      |                    |
|          | 고3 | (55)  | 14.5                 | 20.0                 | 29.1          | 21.8     | 14.5           | 34.5             | 36.4       | 3.0 | 1.3      |                    |
| 성적       | 상  | (35)  | 8.6                  | 14.3                 | 14.3          | 34.3     | 28.6           | 22.9             | 62.9       | 3.6 | 1.3      | 4.352<br>*(0.014)  |
|          | 중  | (54)  | 7.4                  | 16.7                 | 38.9          | 24.1     | 13.0           | 24.1             | 37.0       | 3.2 | 1.1      |                    |
|          | 하  | (201) | 18.4                 | 17.9                 | 26.4          | 25.4     | 11.9           | 36.3             | 37.3       | 2.9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4) | 19.3                 | 14.9                 | 23.7          | 28.1     | 14.0           | 34.2             | 42.1       | 3.0 | 1.3      | 0.146<br>(0.865)   |
|          | 중  | (101) | 8.9                  | 16.8                 | 38.6          | 24.8     | 10.9           | 25.7             | 35.6       | 3.1 | 1.1      |                    |
|          | 하  | (74)  | 17.6                 | 21.6                 | 17.6          | 24.3     | 18.9           | 39.2             | 43.2       | 3.1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5) | 16.2                 | 17.0                 | 26.4          | 26.0     | 14.5           | 33.2             | 40.4       | 3.1 | 1.3      | -0.378<br>(0.705)  |
|          | 부정 | (55)  | 10.9                 | 18.2                 | 30.9          | 27.3     | 12.7           | 29.1             | 40.0       | 3.1 | 1.2      |                    |



“카페인 음료는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에 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 응답은 동의 46.7%, 보통 32.5%, 비동의 20.7%로 나타났다. 평균은 3.3점으로, 청소년 다수는 카페인의 집중력 보조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단별 차이에서는 교급, 학년,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50%)이 중학생(38.8%)보다 동의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도 유의했는데, 고1 59.7%, 고2 50.6%로 높다가 고3에서 38.2%로 하락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학업성취 수준별에서는 상 68.6%, 중 50.0%, 하 42.0%순으로 학업성적이 상위권일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절반 안팎이 카페인 음료의 집중력 향상 효과를 인정하며, 그 인식이 고등 단계(특히 고1, 고2)와 학업성취 상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II-49.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9) | 10.0                 | 10.7                 | 32.5          | 30.8     | 15.9           | 20.8             | 46.7       | 3.3 | 1.2      |                      |
| 성별       | 남  | (224) | 9.4                  | 8.9                  | 32.6          | 32.1     | 17.0           | 18.3             | 49.1       | 3.4 | 1.2      | 1.960<br>(0.051)     |
|          | 여  | (64)  | 12.5                 | 17.2                 | 32.8          | 26.6     | 10.9           | 29.7             | 37.5       | 3.1 | 1.2      |                      |
| 교급       | 중  | (85)  | 16.5                 | 9.4                  | 35.3          | 31.8     | 7.1            | 25.9             | 38.8       | 3.0 | 1.2      | -2.696<br>**(0.007)  |
|          | 고  | (204) | 7.4                  | 11.3                 | 31.4          | 30.4     | 19.6           | 18.6             | 50.0       | 3.4 | 1.1      |                      |
| 학년       | 중1 | (5)   | 60.0                 | 40.0                 | 0.0           | 0.0      | 0.0            | 100.0            | 0.0        | 1.4 | 0.5      | 4.047<br>**(0.001)   |
|          | 중2 | (33)  | 12.1                 | 6.1                  | 36.4          | 36.4     | 9.1            | 18.2             | 45.5       | 3.2 | 1.1      |                      |
|          | 중3 | (47)  | 14.9                 | 8.5                  | 38.3          | 31.9     | 6.4            | 23.4             | 38.3       | 3.1 | 1.1      |                      |
|          | 고1 | (62)  | 6.5                  | 11.3                 | 22.6          | 45.2     | 14.5           | 17.7             | 59.7       | 3.5 | 1.1      |                      |
|          | 고2 | (87)  | 8.0                  | 11.5                 | 29.9          | 25.3     | 25.3           | 19.5             | 50.6       | 3.5 | 1.2      |                      |
|          | 고3 | (55)  | 7.3                  | 10.9                 | 43.6          | 21.8     | 16.4           | 18.2             | 38.2       | 3.3 | 1.1      |                      |
| 성적       | 상  | (35)  | 2.9                  | 2.9                  | 25.7          | 37.1     | 31.4           | 5.7              | 68.6       | 3.9 | 1.0      | 7.275<br>*** (0.001) |
|          | 중  | (54)  | 1.9                  | 11.1                 | 37.0          | 35.2     | 14.8           | 13.0             | 50.0       | 3.5 | 0.9      |                      |
|          | 하  | (200) | 13.5                 | 12.0                 | 32.5          | 28.5     | 13.5           | 25.5             | 42.0       | 3.2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4) | 10.5                 | 9.6                  | 30.7          | 30.7     | 18.4           | 20.2             | 49.1       | 3.4 | 1.2      | 0.192<br>(0.825)     |
|          | 중  | (101) | 6.9                  | 11.9                 | 37.6          | 32.7     | 10.9           | 18.8             | 43.6       | 3.3 | 1.0      |                      |
|          | 하  | (73)  | 13.7                 | 11.0                 | 28.8          | 27.4     | 19.2           | 24.7             | 46.6       | 3.3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4) | 10.3                 | 9.8                  | 33.3          | 29.9     | 16.7           | 20.1             | 46.6       | 3.3 | 1.2      | 0.322<br>(0.747)     |
|          | 부정 | (55)  | 9.1                  | 14.5                 | 29.1          | 34.5     | 12.7           | 23.6             | 47.3       | 3.3 | 1.1      |                      |

“카페인 음료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에 대한 문항 응답 결과, 전체적으로 동의가 50.7%, 보통 25.2%, 비동의 24.1%로 집계되었고, 평균은 3.4점이었다. 즉,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카페인 음료에 중독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집단 비교에서는 학년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중학교에서는 중2가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1이 58.7%로 높았지만 점차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카페인 음료의 중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인식은 학년 단계에 따라 변동이 나타난다. 그 외 다른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표 Ⅲ-50.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 음료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0) | 8.6                  | 15.5                 | 25.2          | 30.0     | 20.7           | 24.1             | 50.7       | 3.4 | 1.2      |                    |
| 성별       | 남  | (225) | 8.0                  | 16.0                 | 27.6          | 28.0     | 20.4           | 24.0             | 48.4       | 3.4 | 1.2      | -0.307<br>(0.759)  |
|          | 여  | (64)  | 10.9                 | 14.1                 | 17.2          | 37.5     | 20.3           | 25.0             | 57.8       | 3.4 | 1.3      |                    |
| 교급       | 중  | (85)  | 7.1                  | 24.7                 | 17.6          | 37.6     | 12.9           | 31.8             | 50.6       | 3.2 | 1.2      | -1.254<br>(0.211)  |
|          | 고  | (205) | 9.3                  | 11.7                 | 28.3          | 26.8     | 23.9           | 21.0             | 50.7       | 3.4 | 1.2      |                    |
| 학년       | 중1 | (5)   | 40.0                 | 40.0                 | 20.0          | 0.0      | 0.0            | 80.0             | 0.0        | 1.8 | 0.8      | 3.135<br>**(0.009) |
|          | 중2 | (33)  | 0.0                  | 27.3                 | 6.1           | 39.4     | 27.3           | 27.3             | 66.7       | 3.7 | 1.2      |                    |
|          | 중3 | (47)  | 8.5                  | 21.3                 | 25.5          | 40.4     | 4.3            | 29.8             | 44.7       | 3.1 | 1.1      |                    |
|          | 고1 | (63)  | 7.9                  | 12.7                 | 20.6          | 33.3     | 25.4           | 20.6             | 58.7       | 3.6 | 1.2      |                    |
|          | 고2 | (87)  | 8.0                  | 9.2                  | 35.6          | 20.7     | 26.4           | 17.2             | 47.1       | 3.5 | 1.2      |                    |
|          | 고3 | (55)  | 12.7                 | 14.5                 | 25.5          | 29.1     | 18.2           | 27.3             | 47.3       | 3.3 | 1.3      |                    |
| 성적       | 상  | (35)  | 17.1                 | 5.7                  | 17.1          | 28.6     | 31.4           | 22.9             | 60.0       | 3.5 | 1.4      | 0.714<br>(0.491)   |
|          | 중  | (54)  | 9.3                  | 18.5                 | 25.9          | 33.3     | 13.0           | 27.8             | 46.3       | 3.2 | 1.2      |                    |
|          | 하  | (201) | 7.0                  | 16.4                 | 26.4          | 29.4     | 20.9           | 23.4             | 50.2       | 3.4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4) | 8.8                  | 14.0                 | 16.7          | 38.6     | 21.9           | 22.8             | 60.5       | 3.5 | 1.2      | 1.046<br>(0.353)   |
|          | 중  | (101) | 5.9                  | 14.9                 | 33.7          | 29.7     | 15.8           | 20.8             | 45.5       | 3.3 | 1.1      |                    |
|          | 하  | (74)  | 12.2                 | 18.9                 | 25.7          | 17.6     | 25.7           | 31.1             | 43.2       | 3.3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5) | 8.1                  | 16.6                 | 22.6          | 31.9     | 20.9           | 24.7             | 52.8       | 3.4 | 1.2      | 0.644<br>(0.520)   |
|          | 부정 | (55)  | 10.9                 | 10.9                 | 36.4          | 21.8     | 20.0           | 21.8             | 41.8       | 3.3 | 1.2      |                    |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63.7%, 보통 24.2%, 비동의가 12.1%로 나타났다. 평균은 3.8점으로, 청소년 다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집단별 비교에서는 가구소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소득 상 집단은 71.7%가 동의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중 62.5%, 하 54.1% 순으로 낮아졌다. 한편, 이러한 가구소득별 차이는 건강정보 접근성과 가정 내 규범의 격차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크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학력·건강 관심도가 높아 카페인 위해성에 대한 정보 노출과 이해가 충분하고, 섭취 제한 등 가정 규칙이 비교적 엄격해 ‘과다 섭취는 해롭다’는 인식이 강화되기 쉽다. 반대로 저소득층은 가격·프로모션에 민감한 고카페인 제품에 더 자주 노출되고 일상적 사용 경험이 많아 위험을 낮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가설 수준이므로 더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성별·교급·학년·학업성취·자아긍정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기술통계상에서는 여학생이 70.3%로 남학생 61.6%보다, 성적이 높을수록(상 동의비율 80.0%)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동의율이 다소 높았다(중 57.4%, 62.5%). 정리하면, 청소년의 3명 중 2명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의 건강 위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강하다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기타 배경 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51.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인식 -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89) | 5.9                  | 6.2                  | 24.2          | 31.1     | 32.5           | 12.1             | 63.7       | 3.8 | 1.1      |                   |
| 성별       | 남  | (224) | 5.4                  | 7.6                  | 25.4          | 31.3     | 30.4           | 12.9             | 61.6       | 3.7 | 1.1      | -1.146<br>(0.253) |
|          | 여  | (64)  | 7.8                  | 1.6                  | 20.3          | 31.3     | 39.1           | 9.4              | 70.3       | 3.9 | 1.2      |                   |
| 교급       | 중  | (84)  | 7.1                  | 6.0                  | 19.0          | 29.8     | 38.1           | 13.1             | 67.9       | 3.9 | 1.2      | 0.716<br>(0.475)  |
|          | 고  | (205) | 5.4                  | 6.3                  | 26.3          | 31.7     | 30.2           | 11.7             | 62.0       | 3.8 | 1.1      |                   |
| 학년       | 중1 | (5)   | 40.0                 | 0.0                  | 40.0          | 0.0      | 20.0           | 40.0             | 20.0       | 2.6 | 1.7      | 1.752<br>(0.123)  |
|          | 중2 | (32)  | 0.0                  | 9.4                  | 9.4           | 43.8     | 37.5           | 9.4              | 81.3       | 4.1 | 0.9      |                   |
|          | 중3 | (47)  | 8.5                  | 4.3                  | 23.4          | 23.4     | 40.4           | 12.8             | 63.8       | 3.8 | 1.3      |                   |
|          | 고1 | (63)  | 6.3                  | 7.9                  | 12.7          | 41.3     | 31.7           | 14.3             | 73.0       | 3.8 | 1.2      |                   |
|          | 고2 | (87)  | 3.4                  | 6.9                  | 35.6          | 20.7     | 33.3           | 10.3             | 54.0       | 3.7 | 1.1      |                   |
|          | 고3 | (55)  | 7.3                  | 3.6                  | 27.3          | 38.2     | 23.6           | 10.9             | 61.8       | 3.7 | 1.1      |                   |
| 성적       | 상  | (35)  | 5.7                  | 2.9                  | 11.4          | 31.4     | 48.6           | 8.6              | 80.0       | 4.1 | 1.1      | 2.119<br>(0.122)  |
|          | 중  | (54)  | 9.3                  | 5.6                  | 27.8          | 24.1     | 33.3           | 14.8             | 57.4       | 3.7 | 1.3      |                   |
|          | 하  | (200) | 5.0                  | 7.0                  | 25.5          | 33.0     | 29.5           | 12.0             | 62.5       | 3.8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3) | 4.4                  | 5.3                  | 18.6          | 31.0     | 40.7           | 9.7              | 71.7       | 4.0 | 1.1      | 3.509<br>*(0.031) |
|          | 중  | (101) | 5.0                  | 5.9                  | 26.7          | 34.7     | 27.7           | 10.9             | 62.4       | 3.7 | 1.1      |                   |
|          | 하  | (74)  | 9.5                  | 8.1                  | 28.4          | 27.0     | 27.0           | 17.6             | 54.1       | 3.5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4) | 6.0                  | 6.8                  | 21.4          | 32.5     | 33.3           | 12.8             | 65.8       | 3.8 | 1.2      | 0.657<br>(0.512)  |
|          | 부정 | (55)  | 5.5                  | 3.6                  | 36.4          | 25.5     | 29.1           | 9.1              | 54.5       | 3.7 | 1.1      |                   |

## 2) 커피 및 고카페인 음용 경험

최근 6개월간 카페인인 든 커피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물었을 때, ‘한 달에 10~19회’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6~9회’(13.9%), ‘한 달에 20~29회’(13.3%) 순이었다.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물었을 때, ‘한 달에 3~5회’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18.8%),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14.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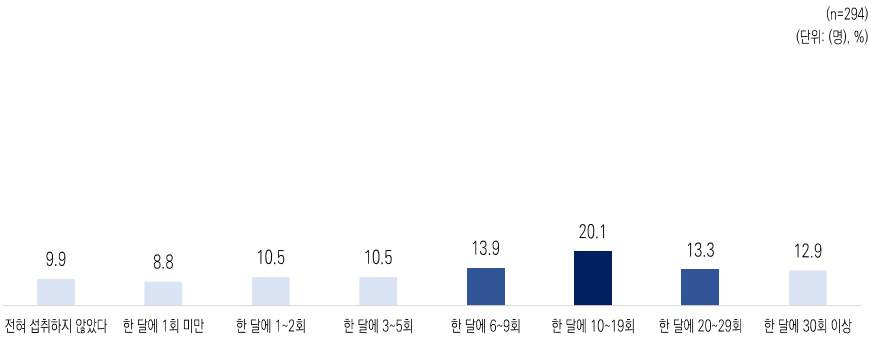


그림 III-12. 최근 6개월간 카페인인 든 커피 음료 한 달 평균 음용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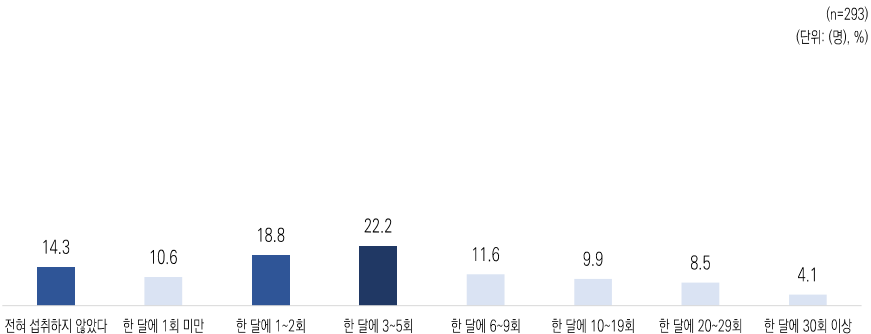


그림 III-13. 최근 6개월간 고카페인 음료 한 달 평균 음용 횟수

다음은 문항 “최근 6개월 동안 카페인이 든 커피 음료(예: 아메리카노, 라떼, 커피믹스 등)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마셨나요?”를 8개의 빈도로 묻은 결과, 전체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9.9%였고, ‘월 1회 미만’이 8.8%, ‘월 1-2회’와 ‘월 3-5회’가 각각 10.5%, ‘월 6-9회’가 13.9%이었다. 반면, 한 달 기준 1/3 이상 섭취라 할 수 있는 구간인 ‘월 10-19회’가 20.1%, ‘월 20-29회’가 13.3%, ‘월 30회 이상’이 12.9%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절반이 ‘월 10회 이상’(46% 안팎) 범주에 속했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교급·학년 및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은 ‘무섭취 및 저빈도(월 1-5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58.8%),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월 10-19회(23.4%)’ 및 ‘월 20-29회(15.3%)’, ‘월 30회 이상(16.7%)’의 비중이 각각 약 2명 중 1명 수준으로 높아, 고학년일수록 일상적 섭취자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성적의 경우 대체로 성적 상·중 집단은 ‘월 6-9’가 각각 28.6%, 16.7%로 높았으며, 성적 하 집단의 경우 ‘월 10-30회’ 이상이 50.2%로 고빈도 구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커피 섭취는 ‘월 10회 이상’의 규칙적 음용자가 적지 않으며, 특히 고등학생(그중에서도 고3)에서 일상적·고빈도 섭취가 두드러진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고빈도 섭취가 늘어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표 III-52. 최근 6개월 이내 커피 음용 횟수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294) | 9.9  | 8.8  | 10.5 | 10.5 | 13.9 | 20.1 | 13.3 | 12.9 |                  |
| 성별    | 남  | (228) | 9.2  | 10.5 | 8.3  | 8.8  | 14.0 | 21.9 | 14.0 | 13.2 | 13.919<br>(7)    |
|       | 여  | (65)  | 12.3 | 3.1  | 18.5 | 16.9 | 12.3 | 13.8 | 10.8 | 12.3 |                  |
| 교급    | 중  | (85)  | 14.1 | 14.1 | 14.1 | 16.5 | 17.6 | 11.8 | 8.2  | 3.5  | 27.115<br>(7)*** |
|       | 고  | (209) | 8.1  | 6.7  | 9.1  | 8.1  | 12.4 | 23.4 | 15.3 | 16.7 |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20.0 | 0.0  | 0.0  | 40.0 | 0.0  | 0.0  | 51.186<br>(35)*  |
|       | 중2 | (33)  | 12.1 | 18.2 | 12.1 | 12.1 | 18.2 | 6.1  | 15.2 | 6.1  |                  |
|       | 중3 | (47)  | 14.9 | 10.6 | 14.9 | 21.3 | 19.1 | 12.8 | 4.3  | 2.1  |                  |
|       | 고1 | (66)  | 4.5  | 10.6 | 10.6 | 7.6  | 18.2 | 25.8 | 12.1 | 10.6 |                  |
|       | 고2 | (88)  | 10.2 | 3.4  | 10.2 | 8.0  | 11.4 | 23.9 | 13.6 | 19.3 |                  |
|       | 고3 | (55)  | 9.1  | 7.3  | 5.5  | 9.1  | 7.3  | 20.0 | 21.8 | 20.0 |                  |
| 성적    | 상  | (35)  | 17.1 | 0.0  | 11.4 | 5.7  | 28.6 | 14.3 | 11.4 | 11.4 | 23.864<br>(14)*  |
|       | 중  | (54)  | 1.9  | 13.0 | 14.8 | 16.7 | 16.7 | 14.8 | 13.0 | 9.3  |                  |
|       | 하  | (205) | 10.7 | 9.3  | 9.3  | 9.8  | 10.7 | 22.4 | 13.7 | 14.1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4.5 | 10.3 | 9.4  | 10.3 | 14.5 | 19.7 | 9.4  | 12.0 | 11.676<br>(14)   |
|       | 중  | (102) | 4.9  | 6.9  | 10.8 | 10.8 | 11.8 | 23.5 | 18.6 | 12.7 |                  |
|       | 하  | (74)  | 9.5  | 9.5  | 12.2 | 10.8 | 14.9 | 16.2 | 12.2 | 14.9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9.6  | 10.0 | 10.0 | 11.7 | 13.4 | 20.1 | 11.7 | 13.4 | 6.927<br>(7)     |
| 공정    | 부정 | (55)  | 10.9 | 3.6  | 12.7 | 5.5  | 16.4 | 20.0 | 20.0 | 10.9 |                  |

①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2회

④ 한 달에 3~5회

⑤ 한 달에 6~9회

⑥ 한 달에 10~19회

⑦ 한 달에 20~29회

⑧ 한 달에 30회 이상

다음은 문항 “최근 6개월 동안 카페인이 든 고카페인 음료(예: 핫식스, 몬스터, 레드불 등)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마셨나요?”를 8개의 빈도로 묻은 결과, 전체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혀 섭취하지 않음’이 14.3%였고, ‘월 1-2회(18.8%)’, ‘월 3-5회(22.2%)’가 가장 큰 비중을 이뤄, 저·중빈도(월 1-5회)가 약 41%로 우세했다. 반면, ‘월 6-9회’는 11.6%, ‘월 10-19회’는 9.9%, ‘월 20-29회’ 8.5%, ‘월 30회 이상’ 4.1%을 합친 고빈도 섭취자는 약 22.5%로 나타났다. 즉, 다수는 ‘가끔 마시는’ 패턴이지만,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은 월 10회 이상으로 비교적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빈도 분석적으로만 보자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빈도 구간 응답이 다소 높았고, 고학년(특히 고3)에서 월 20회 이상 구간의 비중이 소폭 늘어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에서도 ‘월 10-19회’ 응답이 22.2%로 상대적으로 높아, 학업·수면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시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섭취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고카페인 음료는 전반적으로 저·중빈도 이용이 그 중심이지만, 의미 있는 규모의 고빈도 이용 집단도 약 22-23% 존재한다. 학기말·수험기 등 피로가 누적되는 시기에 안내문 제공, 카페인 총량 모니터링, 대체 음료 등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표 III-53. 최근 6개월 이내 고카페인 음용 횟수

| (단위: (명),%)   |    |       |      |      |      |               |      |      |      |     |                |
|---------------|----|-------|------|------|------|---------------|------|------|------|-----|----------------|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전체            |    | (293) | 14.3 | 10.6 | 18.8 | 22.2          | 11.6 | 9.9  | 8.5  | 4.1 |                |
| 성별            | 남  | (228) | 13.6 | 11.0 | 17.5 | 21.5          | 11.4 | 10.5 | 10.1 | 4.4 | 5.168<br>(7)   |
|               | 여  | (64)  | 17.2 | 9.4  | 23.4 | 25.0          | 10.9 | 7.8  | 3.1  | 3.1 |                |
| 교급            | 중  | (84)  | 16.7 | 10.7 | 16.7 | 25.0          | 11.9 | 9.5  | 8.3  | 1.2 | 3.605<br>(7)   |
|               | 고  | (209) | 13.4 | 10.5 | 19.6 | 21.1          | 11.5 | 10.0 | 8.6  | 5.3 |                |
| 학년            | 중1 | (5)   | 40.0 | 40.0 | 0.0  | 0.0           | 20.0 | 0.0  | 0.0  | 0.0 | 45.188<br>(35) |
|               | 중2 | (32)  | 9.4  | 12.5 | 15.6 | 21.9          | 15.6 | 12.5 | 9.4  | 3.1 |                |
|               | 중3 | (47)  | 19.1 | 6.4  | 19.1 | 29.8          | 8.5  | 8.5  | 8.5  | 0.0 |                |
|               | 고1 | (67)  | 9.0  | 10.4 | 23.9 | 29.9          | 4.5  | 4.5  | 13.4 | 4.5 |                |
|               | 고2 | (88)  | 20.5 | 6.8  | 18.2 | 18.2          | 17.0 | 11.4 | 3.4  | 4.5 |                |
|               | 고3 | (54)  | 7.4  | 16.7 | 16.7 | 14.8          | 11.1 | 14.8 | 11.1 | 7.4 |                |
| 성적            | 상  | (35)  | 11.4 | 2.9  | 22.9 | 20.0          | 14.3 | 5.7  | 14.3 | 8.6 | 13.856<br>(14) |
|               | 중  | (54)  | 9.3  | 13.0 | 16.7 | 25.9          | 5.6  | 13.0 | 13.0 | 3.7 |                |
|               | 하  | (204) | 16.2 | 11.3 | 18.6 | 21.6          | 12.7 | 9.8  | 6.4  | 3.4 |                |
| 가구 소득         | 상  | (116) | 16.4 | 6.9  | 22.4 | 20.7          | 12.9 | 9.5  | 9.5  | 1.7 | 15.298<br>(14) |
|               | 중  | (101) | 11.9 | 14.9 | 18.8 | 25.7          | 9.9  | 8.9  | 6.9  | 3.0 |                |
|               | 하  | (75)  | 14.7 | 9.3  | 13.3 | 20.0          | 12.0 | 12.0 | 9.3  | 9.3 |                |
| 자아 긍정         | 긍정 | (239) | 15.5 | 11.3 | 18.8 | 22.6          | 11.7 | 7.1  | 8.8  | 4.2 | 12.216<br>(7)  |
|               | 부정 | (54)  | 9.3  | 7.4  | 18.5 | 20.4          | 11.1 | 22.2 | 7.4  | 3.7 |                |
| ①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    |       |      |      |      | ⑤ 한 달에 6~9회   |      |      |      |     |                |
| ② 한 달에 1회 미만  |    |       |      |      |      | ⑥ 한 달에 10~19회 |      |      |      |     |                |
| ③ 한 달에 1~2회   |    |       |      |      |      | ⑦ 한 달에 20~29회 |      |      |      |     |                |
| ④ 한 달에 3~5회   |    |       |      |      |      | ⑧ 한 달에 30회 이상 |      |      |      |     |                |



### 3)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 행태 및 의존도

최근 6개월 이내 고카페인 음료를 한 번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의 평균이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가 1.7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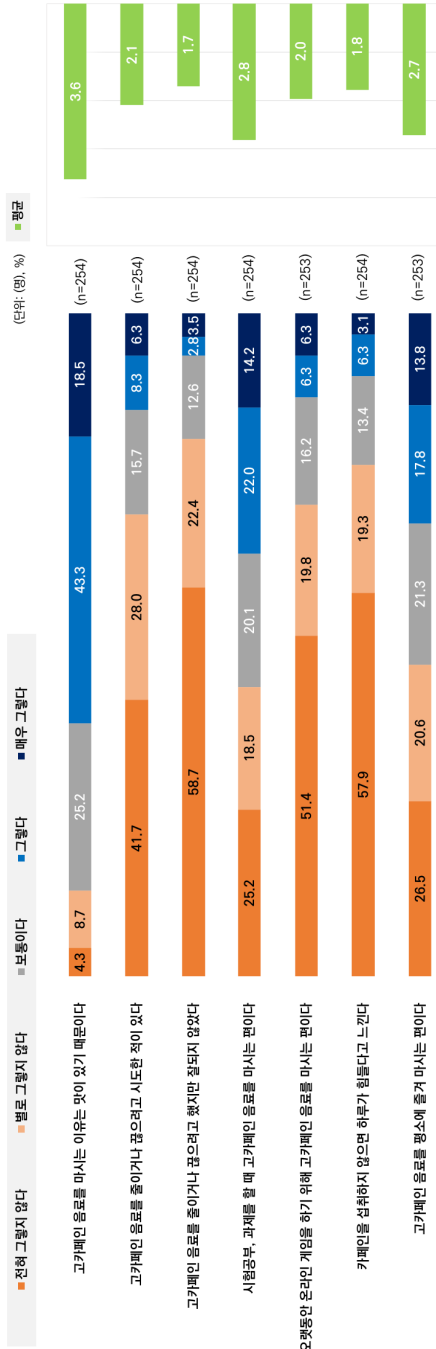


그림 III-14.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문항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전체의 61.8%가 동의하여 ‘맛’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5.2%, 비동의는 13.0%였으며, 평균 3.6점이었다.

집단별로는 학년만이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2·중3에서 각각 76.7%, 73.7%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1 59%, 고2 63.4%, 고3 49%로 다소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된다. 성적 수준별로는 상위 집단에서의 동의율이 77.4%로 가장 높고, 중위 집단은 53.1%, 하위 집단은 61.5%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고카페인의 음료 섭취는 ‘맛’이라는 감각적 요인에 영향받은 학생은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2와 중3에서 그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표 Ⅲ-54.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54) | 4.3                  | 8.7                  | 25.2          | 43.3     | 18.5           | 13.0             | 61.8       | 3.6 | 1.0      |          |
| 성별       | 남  | (200) | 4.5                  | 9.0                  | 26.0          | 43.0     | 17.5           | 13.5             | 60.5       | 3.6 | 1.0      | -0.860   |
|          | 여  | (53)  | 3.8                  | 7.5                  | 22.6          | 43.4     | 22.6           | 11.3             | 66.0       | 3.7 | 1.0      | (0.391)  |
| 교급       | 중  | (71)  | 4.2                  | 7.0                  | 16.9          | 49.3     | 22.5           | 11.3             | 71.8       | 3.8 | 1.0      | 1.550    |
|          | 고  | (183) | 4.4                  | 9.3                  | 28.4          | 41.0     | 16.9           | 13.7             | 57.9       | 3.6 | 1.0      | (0.122)  |
| 학년       | 중1 | (3)   | 33.3                 | 0.0                  | 66.7          | 0.0      | 0.0            | 33.3             | 0.0        | 2.3 | 1.2      |          |
|          | 중2 | (30)  | 6.7                  | 6.7                  | 10.0          | 50.0     | 26.7           | 13.3             | 76.7       | 3.8 | 1.1      |          |
|          | 중3 | (38)  | 0.0                  | 7.9                  | 18.4          | 52.6     | 21.1           | 7.9              | 73.7       | 3.9 | 0.8      | 2.391    |
|          | 고1 | (61)  | 4.9                  | 6.6                  | 29.5          | 49.2     | 9.8            | 11.5             | 59.0       | 3.5 | 0.9      | *(0.038) |
|          | 고2 | (71)  | 4.2                  | 8.5                  | 23.9          | 38.0     | 25.4           | 12.7             | 63.4       | 3.7 | 1.1      |          |
|          | 고3 | (51)  | 3.9                  | 13.7                 | 33.3          | 35.3     | 13.7           | 17.6             | 49.0       | 3.4 | 1.0      |          |
| 성적       | 상  | (31)  | 3.2                  | 0.0                  | 19.4          | 61.3     | 16.1           | 3.2              | 77.4       | 3.9 | 0.8      |          |
|          | 중  | (49)  | 6.1                  | 8.2                  | 32.7          | 34.7     | 18.4           | 14.3             | 53.1       | 3.5 | 1.1      | 1.212    |
|          | 하  | (174) | 4.0                  | 10.3                 | 24.1          | 42.5     | 19.0           | 14.4             | 61.5       | 3.6 | 1.0      | (0.299)  |
| 가구<br>소득 | 상  | (98)  | 5.1                  | 9.2                  | 25.5          | 40.8     | 19.4           | 14.3             | 60.2       | 3.6 | 1.1      |          |
|          | 중  | (91)  | 6.6                  | 6.6                  | 25.3          | 47.3     | 14.3           | 13.2             | 61.5       | 3.6 | 1.0      | 1.108    |
|          | 하  | (64)  | 0.0                  | 9.4                  | 25.0          | 42.2     | 23.4           | 9.4              | 65.6       | 3.8 | 0.9      | (0.332)  |
| 자아<br>긍정 | 긍정 | (204) | 4.4                  | 8.3                  | 22.5          | 45.1     | 19.6           | 12.7             | 64.7       | 3.7 | 1.0      | 1.316    |
|          | 부정 | (50)  | 4.0                  | 10.0                 | 36.0          | 36.0     | 14.0           | 14.0             | 50.0       | 3.5 | 1.0      | (0.189)  |

문항 “시험공부, 과제를 할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응답결과, 동의 36.2%, 비동의 43.7%, 보통 20.1%로 ‘시험·과제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는 데 동의보다 비동의가 다소 우세했다(평균 2.8점).

집단별 차이는 성별,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 47.2%는 남학생 33.0%보다 고카페인 음료를 시험공부와 과제 시 즐겨마시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학업성취가 ‘상’인 집단의 동의율이 67.7%로 중 40.8%, 하 29.3%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시험 기간 각성·집중을 위한 전략적 섭취를 비교적 많이 사용함을 시사하며, 하위권은 카페인 의존 대신 생활리듬 불안정·학습몰입 저하 등 다른 요인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Ⅲ-55.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시험공부, 과제를 할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254) | 25.2                 | 18.5                 | 20.1          | 22.0     | 14.2           | 43.7             | 36.2       | 2.8 | 1.4      |             |
| 성별       | 남     | (200)                | 28.0                 | 18.5          | 20.5     | 20.5           | 46.5             | 33.0       | 2.7 | 1.4      | -2.233      |
|          | 여     | (53)                 | 15.1                 | 18.9          | 18.9     | 26.4           | 34.0             | 47.2       | 3.2 | 1.4      | *(0.026)    |
| 교급       | 중     | (71)                 | 32.4                 | 16.9          | 19.7     | 23.9           | 49.3             | 31.0       | 2.6 | 1.3      | -1.795      |
|          | 고     | (183)                | 22.4                 | 19.1          | 20.2     | 21.3           | 41.5             | 38.3       | 2.9 | 1.4      | (0.074)     |
| 학년       | 중1    | (3)                  | 33.3                 | 33.3          | 33.3     | 0.0            | 0.0              | 66.7       | 0.0 | 2.0      | 1.0         |
|          | 중2    | (30)                 | 30.0                 | 16.7          | 16.7     | 26.7           | 46.7             | 36.7       | 2.7 | 1.4      |             |
|          | 중3    | (38)                 | 34.2                 | 15.8          | 21.1     | 23.7           | 50.0             | 28.9       | 2.5 | 1.3      | 0.967       |
|          | 고1    | (61)                 | 19.7                 | 24.6          | 23.0     | 23.0           | 44.3             | 32.8       | 2.8 | 1.3      | (0.439)     |
|          | 고2    | (71)                 | 25.4                 | 15.5          | 15.5     | 21.1           | 40.8             | 43.7       | 3.0 | 1.5      |             |
|          | 고3    | (51)                 | 21.6                 | 17.6          | 23.5     | 19.6           | 39.2             | 37.3       | 2.9 | 1.4      |             |
| 성적       | 상     | (31)                 | 19.4                 | 9.7           | 3.2      | 32.3           | 29.0             | 67.7       | 3.5 | 1.5      | 6.895       |
|          | 중     | (49)                 | 14.3                 | 16.3          | 28.6     | 32.7           | 30.6             | 40.8       | 3.0 | 1.2      | *** (0.001) |
|          | 하     | (174)                | 29.3                 | 20.7          | 20.7     | 17.2           | 50.0             | 29.3       | 2.6 | 1.4      |             |
| 가구<br>소득 | 상     | (98)                 | 30.6                 | 11.2          | 16.3     | 27.6           | 41.8             | 41.8       | 2.8 | 1.5      | 2.086       |
|          | 중     | (91)                 | 24.2                 | 26.4          | 23.1     | 16.5           | 50.5             | 26.4       | 2.6 | 1.3      | (0.126)     |
|          | 하     | (64)                 | 18.8                 | 17.2          | 21.9     | 21.9           | 35.9             | 42.2       | 3.1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04)                | 27.5                 | 17.6          | 20.1     | 22.5           | 45.1             | 34.8       | 2.7 | 1.4      | -1.614      |
|          | 부정    | (50)                 | 16.0                 | 22.0          | 20.0     | 20.0           | 38.0             | 42.0       | 3.1 | 1.4      | (0.108)     |

문항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71.1%로 가장 많았고, 동의는 12.6%, 보통 16.2%로 나타났다. 평균은 2.0점으로 전반적으로 거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집단 비교에서는 성별·교급·학년·가구소득 및 자아긍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중간 성적 집단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고(약 18.8%), 상·하위 집단은 각각 12.9%, 10.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상위권은 장시간 게임 자체의 빈도가 낮고, 하위권은 게임을 하더라도 카페인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 비해, 중위권에서 장시간 게임 시 각성 유지 목적으로 일시적 섭취가 비교적 더 이루어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56.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전체    |    | (253) | 51.4           | 19.8           | 16.2      | 6.3      | 6.3         | 71.1          | 12.6       | 2.0 | 1.2   |                   |
| 성별    | 남  | (200) | 50.0           | 18.5           | 18.5      | 6.0      | 7.0         | 68.5          | 13.0       | 2.0 | 1.3   | 1.499<br>(0.135)  |
|       | 여  | (52)  | 57.7           | 25.0           | 7.7       | 5.8      | 3.8         | 82.7          | 9.6        | 1.7 | 1.1   |                   |
| 교급    | 중  | (70)  | 45.7           | 24.3           | 18.6      | 4.3      | 7.1         | 70.0          | 11.4       | 2.0 | 1.2   | 0.514<br>(0.608)  |
|       | 고  | (183) | 53.6           | 18.0           | 15.3      | 7.1      | 6.0         | 71.6          | 13.1       | 1.9 | 1.2   |                   |
| 학년    | 중1 | (3)   | 33.3           | 66.7           | 0.0       | 0.0      | 0.0         | 100.0         | 0.0        | 1.7 | 0.6   | 0.430<br>(0.827)  |
|       | 중2 | (30)  | 50.0           | 13.3           | 20.0      | 6.7      | 10.0        | 63.3          | 16.7       | 2.1 | 1.4   |                   |
|       | 중3 | (37)  | 43.2           | 29.7           | 18.9      | 2.7      | 5.4         | 73.0          | 8.1        | 2.0 | 1.1   |                   |
|       | 고1 | (61)  | 54.1           | 24.6           | 8.2       | 9.8      | 3.3         | 78.7          | 13.1       | 1.8 | 1.1   |                   |
|       | 고2 | (71)  | 49.3           | 18.3           | 18.3      | 4.2      | 9.9         | 67.6          | 14.1       | 2.1 | 1.3   |                   |
|       | 고3 | (51)  | 58.8           | 9.8            | 19.6      | 7.8      | 3.9         | 68.6          | 11.8       | 1.9 | 1.2   |                   |
| 성적    | 상  | (31)  | 74.2           | 9.7            | 3.2       | 6.5      | 6.5         | 83.9          | 12.9       | 1.6 | 1.2   | 3.610<br>*(0.028) |
|       | 중  | (48)  | 39.6           | 16.7           | 25.0      | 8.3      | 10.4        | 56.3          | 18.8       | 2.3 | 1.4   |                   |
|       | 하  | (174) | 50.6           | 22.4           | 16.1      | 5.7      | 5.2         | 73.0          | 10.9       | 1.9 | 1.2   |                   |
| 가구 소득 | 상  | (97)  | 57.7           | 17.5           | 11.3      | 8.2      | 5.2         | 75.3          | 13.4       | 1.9 | 1.2   | 0.933<br>(0.395)  |
|       | 중  | (91)  | 47.3           | 24.2           | 17.6      | 5.5      | 5.5         | 71.4          | 11.0       | 2.0 | 1.2   |                   |
|       | 하  | (64)  | 46.9           | 17.2           | 21.9      | 4.7      | 9.4         | 64.1          | 14.1       | 2.1 | 1.3   |                   |
| 자아 긍정 | 긍정 | (203) | 52.2           | 19.7           | 14.8      | 5.4      | 7.9         | 71.9          | 13.3       | 2.0 | 1.3   | 0.157<br>(0.875)  |
|       | 부정 | (50)  | 48.0           | 20.0           | 22.0      | 10.0     | 0.0         | 68.0          | 10.0       | 1.9 | 1.1   |                   |

문항 “고카페인 음료를 평소에 즐겨 마시는 편이다”에 대해, 전체 응답의 47.0%가 부정, 31.6%가 동의, 21.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평균 2.7점). 일상적으로 즐겨 마신다고 밝힌 집단은 3분의 1 수준이며, 나머지는 대체로 절제적(부정 47.0%)이거나 아직 태도가 고정되지 않은 유보층(보통 21.3%)으로 분포되어 있다.

집단 간 뚜렷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즐거 마신다’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은 야간자율학습·학원 등 학업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수면 부족이 잦아 ‘각성’ 목적의 음료 의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동·소비 자율성과 용돈 규모가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며 편의점·카페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도 한가지 차이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래문화가 중학생보다 스터디카페 중심으로 형성되어 고카페인 음료 노출과 경험이 누적되기 쉽다. 물론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한계적 유의값을 가지므로 다른 요인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평소 즐기지 않는 집단이 10명 중 4-5명으로 일상적 선호를 보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고카페인을 더욱 즐겨마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57.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 음료를 평소에 즐겨 마시는 편이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53) | 26.5                 | 20.6                 | 21.3          | 17.8     | 13.8           | 47.0             | 31.6       | 2.7 | 1.4      |                   |
| 성별       | 남  | (199) | 24.1                 | 20.6                 | 24.1          | 17.1     | 14.1           | 44.7             | 31.2       | 2.8 | 1.4      | 1.008<br>(0.314)  |
|          | 여  | (53)  | 35.8                 | 20.8                 | 9.4           | 20.8     | 13.2           | 56.6             | 34.0       | 2.5 | 1.5      |                   |
| 교급       | 중  | (71)  | 29.6                 | 23.9                 | 21.1          | 22.5     | 2.8            | 53.5             | 25.4       | 2.5 | 1.2      | -1.934<br>(0.054) |
|          | 고  | (182) | 25.3                 | 19.2                 | 21.4          | 15.9     | 18.1           | 44.5             | 34.1       | 2.8 | 1.4      |                   |
| 학년       | 중1 | (3)   | 33.3                 | 33.3                 | 33.3          | 0.0      | 0.0            | 66.7             | 0.0        | 2.0 | 1.0      | 1.618<br>(0.156)  |
|          | 중2 | (30)  | 26.7                 | 20.0                 | 23.3          | 26.7     | 3.3            | 46.7             | 30.0       | 2.6 | 1.2      |                   |
|          | 중3 | (38)  | 31.6                 | 26.3                 | 18.4          | 21.1     | 2.6            | 57.9             | 23.7       | 2.4 | 1.2      |                   |
|          | 고1 | (60)  | 26.7                 | 25.0                 | 25.0          | 13.3     | 10.0           | 51.7             | 23.3       | 2.6 | 1.3      |                   |
|          | 고2 | (71)  | 26.8                 | 12.7                 | 19.7          | 19.7     | 21.1           | 39.4             | 40.8       | 3.0 | 1.5      |                   |
|          | 고3 | (51)  | 21.6                 | 21.6                 | 19.6          | 13.7     | 23.5           | 43.1             | 37.3       | 3.0 | 1.5      |                   |
| 성적       | 상  | (31)  | 32.3                 | 12.9                 | 25.8          | 16.1     | 12.9           | 45.2             | 29.0       | 2.6 | 1.4      | 0.203<br>(0.816)  |
|          | 중  | (49)  | 24.5                 | 26.5                 | 22.4          | 14.3     | 12.2           | 51.0             | 26.5       | 2.6 | 1.3      |                   |
|          | 하  | (173) | 26.0                 | 20.2                 | 20.2          | 19.1     | 14.5           | 46.2             | 33.5       | 2.8 | 1.4      |                   |
| 가구<br>소득 | 상  | (98)  | 36.7                 | 14.3                 | 18.4          | 16.3     | 14.3           | 51.0             | 30.6       | 2.6 | 1.5      | 1.476<br>(0.231)  |
|          | 중  | (90)  | 21.1                 | 27.8                 | 20.0          | 18.9     | 12.2           | 48.9             | 31.1       | 2.7 | 1.3      |                   |
|          | 하  | (64)  | 17.2                 | 20.3                 | 28.1          | 18.8     | 15.6           | 37.5             | 34.4       | 3.0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03) | 26.6                 | 22.7                 | 20.2          | 15.8     | 14.8           | 49.3             | 30.5       | 2.7 | 1.4      | -0.572<br>(0.568) |
|          | 부정 | (50)  | 26.0                 | 12.0                 | 26.0          | 26.0     | 10.0           | 38.0             | 36.0       | 2.8 | 1.4      |                   |

문항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에 대한 인식 결과, 전체적으로 부정 응답이 77.2%로 다수를 차지했고, 동의는 9.4%, 보통은 13.4%였다. 평균은 1.8점으로, 일상 유지에 카페인 ‘필수’라고 느끼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집단별 차이는 교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학생(동의 1.4%)보다 고등학생(동의 12.6%)이 ‘카페인 미섭취 시 힘들’을 더 자주 호소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수면 부족 등 고등학생의 생활 리듬이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점과 맞물려, 카페인을 ‘하루 컨디션 유지용’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중학생보다 다소 많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카페인 의존도는 낮지만, 고등학생에서의 체감 의존 신호가 보이는 만큼 학교 단계별 수면·피로 관리와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안내를 고등학교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Ⅲ-58.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54) | 57.9                 | 19.3                 | 13.4          | 6.3      | 3.1            | 77.2             | 9.4        | 1.8 | 1.1      |                     |
| 성별       | 남  | (200) | 57.0                 | 19.5                 | 14.0          | 6.5      | 3.0            | 76.5             | 9.5        | 1.8 | 1.1      | 0.319<br>(0.750)    |
|          | 여  | (53)  | 60.4                 | 18.9                 | 11.3          | 5.7      | 3.8            | 79.2             | 9.4        | 1.7 | 1.1      |                     |
| 교급       | 중  | (71)  | 63.4                 | 22.5                 | 12.7          | 1.4      | 0.0            | 85.9             | 1.4        | 1.5 | 0.8      | -2.785<br>**(0.006) |
|          | 고  | (183) | 55.7                 | 18.0                 | 13.7          | 8.2      | 4.4            | 73.8             | 12.6       | 1.9 | 1.2      |                     |
| 학년       | 중1 | (3)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2.053<br>(0.072)    |
|          | 중2 | (30)  | 63.3                 | 20.0                 | 16.7          | 0.0      | 0.0            | 83.3             | 0.0        | 1.5 | 0.8      |                     |
|          | 중3 | (38)  | 60.5                 | 26.3                 | 10.5          | 2.6      | 0.0            | 86.8             | 2.6        | 1.6 | 0.8      |                     |
|          | 고1 | (61)  | 60.7                 | 21.3                 | 8.2           | 9.8      | 0.0            | 82.0             | 9.8        | 1.7 | 1.0      |                     |
|          | 고2 | (71)  | 50.7                 | 16.9                 | 16.9          | 7.0      | 8.5            | 67.6             | 15.5       | 2.1 | 1.3      |                     |
|          | 고3 | (51)  | 56.9                 | 15.7                 | 15.7          | 7.8      | 3.9            | 72.5             | 11.8       | 1.9 | 1.2      |                     |
| 성적       | 상  | (31)  | 71.0                 | 6.5                  | 9.7           | 6.5      | 6.5            | 77.4             | 12.9       | 1.7 | 1.3      | 0.397<br>(0.673)    |
|          | 중  | (49)  | 53.1                 | 18.4                 | 16.3          | 10.2     | 2.0            | 71.4             | 12.2       | 1.9 | 1.1      |                     |
|          | 하  | (174) | 56.9                 | 21.8                 | 13.2          | 5.2      | 2.9            | 78.7             | 8.0        | 1.8 | 1.1      |                     |
| 가구<br>소득 | 상  | (98)  | 64.3                 | 19.4                 | 7.1           | 6.1      | 3.1            | 83.7             | 9.2        | 1.6 | 1.1      | 1.231<br>(0.294)    |
|          | 중  | (91)  | 51.6                 | 23.1                 | 16.5          | 5.5      | 3.3            | 74.7             | 8.8        | 1.9 | 1.1      |                     |
|          | 하  | (64)  | 56.3                 | 14.1                 | 18.8          | 7.8      | 3.1            | 70.3             | 10.9       | 1.9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04) | 59.3                 | 18.6                 | 11.8          | 6.9      | 3.4            | 77.9             | 10.3       | 1.8 | 1.1      | -0.319<br>(0.750)   |
|          | 부정 | (50)  | 52.0                 | 22.0                 | 20.0          | 4.0      | 2.0            | 74.0             | 6.0        | 1.8 | 1.0      |                     |

문항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에 동의한 청소년은 14.6%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59.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통’은 25.7%였다(평균 2.1점). 즉, 중단·절감 시도 경험은 소수이며 다수는 이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학생 15%, 여학생 13.2%로 성별 격차는 미미했고, 교급도 중학생 14.1%, 고등학생 14.8%로 유사했다. 학년별로는 중1·중2에서 20% 내외로 다소 높고(중1은 표본이 매우 작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중3에서 7.9%로 낮아지며, 고등학교 단계 또한 15% 안팎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성적 상·중 집단은 각각 22.6%, 22.4%로 시도 비율이 높은 반면 성적 하 집단은 10.9%에 머물렀다. 가구소득은 상 11.2%, 중 16.5%, 하 17.2% 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절감·중단 시도가 다소 높았다. 자아긍정감은 긍정 15.7%, 부정 20.0%로 자기평가가 낮은 집단에서 시도 비율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고카페인 섭취를 줄이거나 끊어보려는 행동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다. 다만, 빈도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 소득이 다소 낮은 집단,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에서 시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며, 이는 건강·수면·비용 등의 부담을 인지했거나 자기조절 필요성을 체감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II-59.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54) | 41.7                 | 28.0                 | 15.7          | 8.3      | 6.3            | 69.7             | 14.6       | 2.1 | 1.2      |                   |
| 성별       | 남  | (200) | 40.0                 | 27.0                 | 18.0          | 8.5      | 6.5            | 67.0             | 15.0       | 2.1 | 1.2      | 1.178<br>(0.240)  |
|          | 여  | (53)  | 47.2                 | 32.1                 | 7.5           | 7.5      | 5.7            | 79.2             | 13.2       | 1.9 | 1.2      |                   |
| 교급       | 중  | (71)  | 43.7                 | 28.2                 | 14.1          | 8.5      | 5.6            | 71.8             | 14.1       | 2.0 | 1.2      | -0.427<br>(0.670) |
|          | 고  | (183) | 41.0                 | 27.9                 | 16.4          | 8.2      | 6.6            | 68.9             | 14.8       | 2.1 | 1.2      |                   |
| 학년       | 중1 | (3)   | 33.3                 | 33.3                 | 0.0           | 33.3     | 0.0            | 66.7             | 33.3       | 2.3 | 1.5      | 0.383<br>(0.860)  |
|          | 중2 | (30)  | 43.3                 | 26.7                 | 10.0          | 10.0     | 10.0           | 70.0             | 20.0       | 2.2 | 1.4      |                   |
|          | 중3 | (38)  | 44.7                 | 28.9                 | 18.4          | 5.3      | 2.6            | 73.7             | 7.9        | 1.9 | 1.0      |                   |
|          | 고1 | (61)  | 32.8                 | 37.7                 | 14.8          | 11.5     | 3.3            | 70.5             | 14.8       | 2.1 | 1.1      |                   |
|          | 고2 | (71)  | 47.9                 | 23.9                 | 14.1          | 7.0      | 7.0            | 71.8             | 14.1       | 2.0 | 1.2      |                   |
|          | 고3 | (51)  | 41.2                 | 21.6                 | 21.6          | 5.9      | 9.8            | 62.7             | 15.7       | 2.2 | 1.3      |                   |
| 성적       | 상  | (31)  | 41.9                 | 22.6                 | 12.9          | 12.9     | 9.7            | 64.5             | 22.6       | 2.3 | 1.4      | 2.484<br>(0.085)  |
|          | 중  | (49)  | 36.7                 | 20.4                 | 20.4          | 12.2     | 10.2           | 57.1             | 22.4       | 2.4 | 1.4      |                   |
|          | 하  | (174) | 43.1                 | 31.0                 | 14.9          | 6.3      | 4.6            | 74.1             | 10.9       | 2.0 | 1.1      |                   |
| 가구<br>소득 | 상  | (98)  | 45.9                 | 31.6                 | 11.2          | 4.1      | 7.1            | 77.6             | 11.2       | 1.9 | 1.2      | 1.598<br>(0.204)  |
|          | 중  | (91)  | 35.2                 | 27.5                 | 20.9          | 8.8      | 7.7            | 62.6             | 16.5       | 2.3 | 1.2      |                   |
|          | 하  | (64)  | 43.8                 | 23.4                 | 15.6          | 14.1     | 3.1            | 67.2             | 17.2       | 2.1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04) | 41.7                 | 27.9                 | 14.7          | 9.3      | 6.4            | 69.6             | 15.7       | 2.1 | 1.2      | 0.354<br>(0.724)  |
|          | 부정 | (50)  | 42.0                 | 28.0                 | 20.0          | 4.0      | 6.0            | 70.0             | 10.0       | 2.0 | 1.2      |                   |

문항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에 대한 응답 결과, 청소년의 자기통제 실패 경험은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81.1%가 ‘그렇지 않다’로 답했고, ‘보통이다’는 12.6%, ‘그렇다’는 6.3%에 머물렀다(평균 1.7점). 즉, ‘끊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소수이며, 대다수는 스스로 소비를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집단별로 차이는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기술 통계적으로만 살펴보자면, 성별에서는 여학생(9.4%)이 남학생(5.5%)보다 ‘잘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동의 비율이 소폭 높아지는 패턴이 관찰된다(고



1 3.3%, 고2 8.5%, 고3 9.8%). 중학생보다 학업·수면 불규칙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카페인 음료 의존감이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상대적 취약 구간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성적·가구소득에 따른 격차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청소년은 고카페인 음료를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지만, 여학생·고등학생에서 미세한 취약 신호가 보였다.

**표 III-60. 커피 및 고카페인 음료 사용행태 및 의존도 -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54) | 58.7                 | 22.4                 | 12.6          | 2.8      | 3.5            | 81.1             | 6.3        | 1.7 | 1.0      |         |
| 성별       | 남  | (200) | 57.0                 | 23.0                 | 14.5          | 2.5      | 3.0            | 80.0             | 5.5        | 1.7 | 1.0      | 0.343   |
|          | 여  | (53)  | 64.2                 | 20.8                 | 5.7           | 3.8      | 5.7            | 84.9             | 9.4        | 1.7 | 1.1      | (0.732) |
| 교급       | 중  | (71)  | 64.8                 | 21.1                 | 9.9           | 1.4      | 2.8            | 85.9             | 4.2        | 1.6 | 0.9      | -1.329  |
|          | 고  | (183) | 56.3                 | 23.0                 | 13.7          | 3.3      | 3.8            | 79.2             | 7.1        | 1.8 | 1.1      | (0.185) |
| 학년       | 중1 | (3)   | 66.7                 | 33.3                 | 0.0           | 0.0      | 0.0            | 100.0            | 0.0        | 1.3 | 0.6      |         |
|          | 중2 | (30)  | 63.3                 | 16.7                 | 13.3          | 3.3      | 3.3            | 80.0             | 6.7        | 1.7 | 1.1      |         |
|          | 중3 | (38)  | 65.8                 | 23.7                 | 7.9           | 0.0      | 2.6            | 89.5             | 2.6        | 1.5 | 0.9      | 0.468   |
|          | 고1 | (61)  | 47.5                 | 34.4                 | 14.8          | 1.6      | 1.6            | 82.0             | 3.3        | 1.8 | 0.9      | (0.800) |
|          | 고2 | (71)  | 62.0                 | 15.5                 | 14.1          | 1.4      | 7.0            | 77.5             | 8.5        | 1.8 | 1.2      |         |
|          | 고3 | (51)  | 58.8                 | 19.6                 | 11.8          | 7.8      | 2.0            | 78.4             | 9.8        | 1.7 | 1.1      |         |
| 성적       | 상  | (31)  | 64.5                 | 12.9                 | 12.9          | 3.2      | 6.5            | 77.4             | 9.7        | 1.7 | 1.2      | 0.074   |
|          | 중  | (49)  | 51.0                 | 26.5                 | 20.4          | 2.0      | 0.0            | 77.6             | 2.0        | 1.7 | 0.9      | (0.928) |
|          | 하  | (174) | 59.8                 | 23.0                 | 10.3          | 2.9      | 4.0            | 82.8             | 6.9        | 1.7 | 1.0      |         |
| 가구<br>소득 | 상  | (98)  | 64.3                 | 21.4                 | 10.2          | 2.0      | 2.0            | 85.7             | 4.1        | 1.6 | 0.9      |         |
|          | 중  | (91)  | 52.7                 | 28.6                 | 14.3          | 2.2      | 2.2            | 81.3             | 4.4        | 1.7 | 0.9      | 2.032   |
|          | 하  | (64)  | 57.8                 | 15.6                 | 14.1          | 4.7      | 7.8            | 73.4             | 12.5       | 1.9 | 1.3      | (0.133) |
| 자아<br>긍정 | 긍정 | (204) | 61.3                 | 22.1                 | 10.8          | 2.5      | 3.4            | 83.3             | 5.9        | 1.6 | 1.0      | -1.689  |
|          | 부정 | (50)  | 48.0                 | 24.0                 | 20.0          | 4.0      | 4.0            | 72.0             | 8.0        | 1.9 | 1.1      | (0.092) |

## 5. 의료용 마약류/약물

### 1)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살면서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수면제, 신경안정제/항불안제, ADHD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근육강화제, 마취제,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모두 ‘없다’는 응답이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ADHD치료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0.8%로 가장 높았고, 수면제(8.1%),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6.4%), 신경안정제/항불안제(5.4%), 식욕억제제(4.7%), 마취제(2.7%), 마약성 진통제(1.3%), 근육강화제(1.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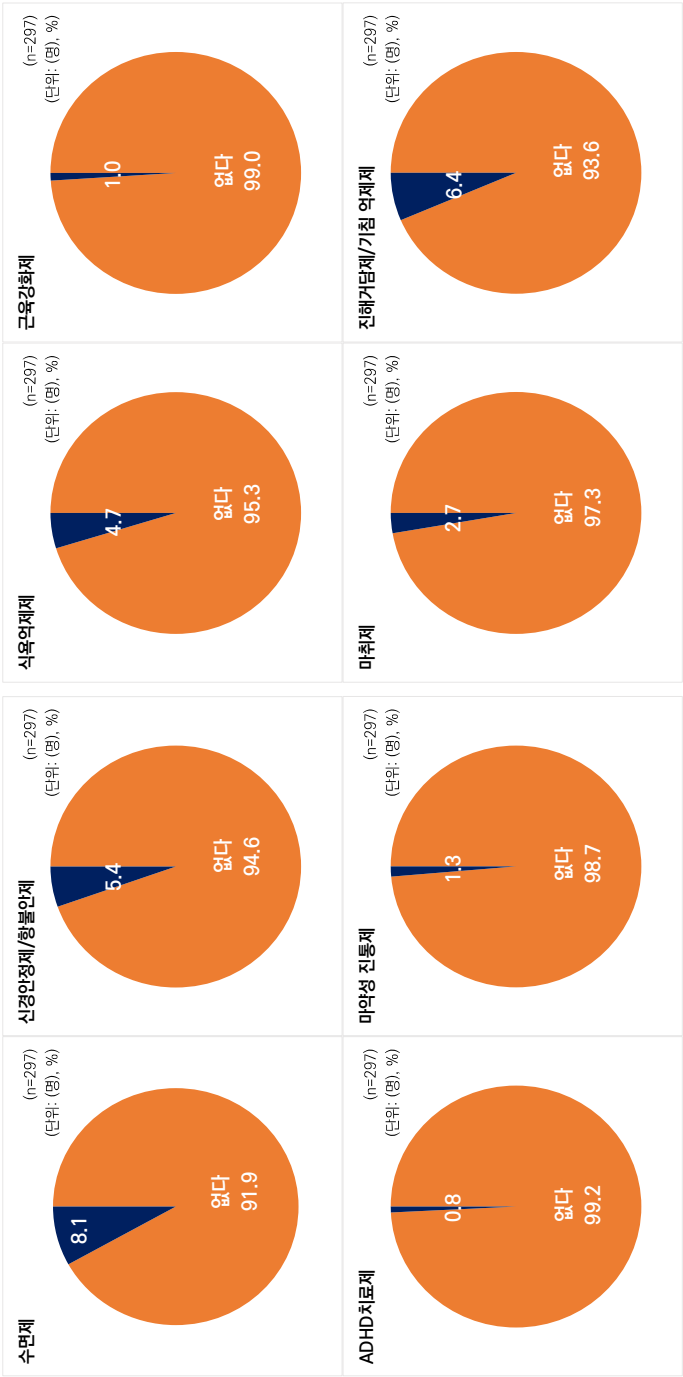


그림 III-15.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 ①

그림 III-16.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 ②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최초 경험 시기를 물었을 때, 수면제는 ‘중3(15세)’(39.1%), 신경안정제/항불안제는 ‘중3(15세)’(50.0%), ADHD치료제는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26.7%), 식욕억제제는 ‘중1(13세)’(38.5%), 마취제는 ‘중3(15세)’(42.9%),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는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41.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중1(13세)’, ‘중2(14세)’, ‘중3(15세)’,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하나씩 있었으며, 근육강화제는 ‘중3(15세)’,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에 경험했다는 응답이 하나씩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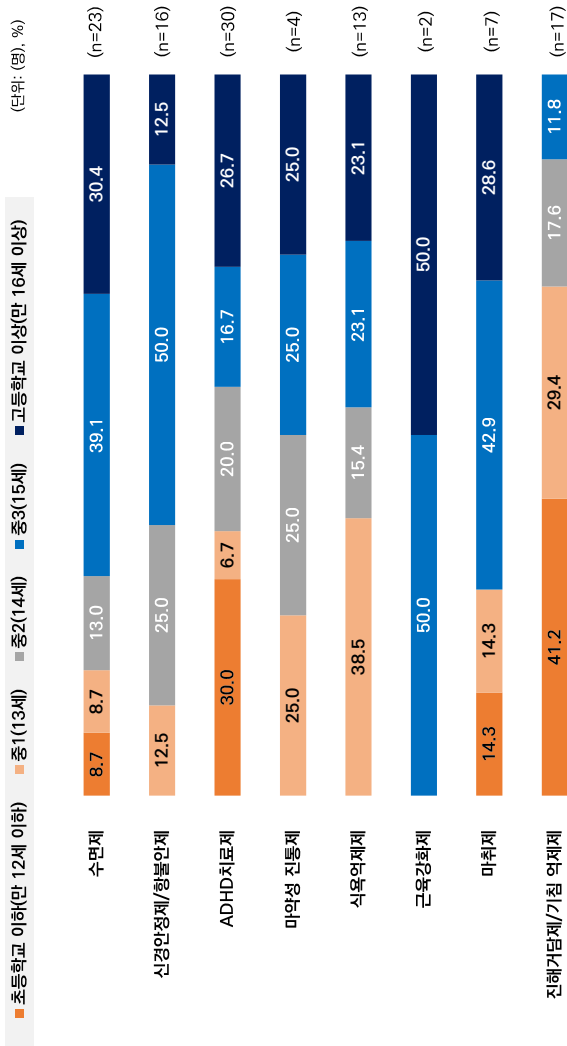


그림 III-17. 의료용 마약류 최초 경험 시기

다음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음의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스트레스 해소, 외모 개선, 집중력 향상, 학업/운동 성과 향상 등)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경험 유무와 최초 경험 시기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수면제를 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의 8.1%가 비의료적 사용을 경험했고, 남학생 4.8%에 비해 여학생이 20.0%로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고급·학년별로는 중1·중2에서 0%인 반면 중3 이후부터 응답이 나타나 고교 단계에서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적별로는 상집단 0%, 중집단 13%, 하집단 8.2%로 ‘중간 성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긍정감에서는 ‘부정’ 집단이 17.9%로 ‘긍정’ 5.8%보다 현저히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최초 사용 시기는 다수가 중3 39.1%, 고등이상 30.4%로 집중되어 있었다. 정리하면, 비의료적 수면제 사용은 전체적으로 소수이지만 여학생 및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작 시점은 중3과 고교 단계에 집중된다.

표 III -61.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수면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91.9  | 8.1  |               | (23)     | 8.7   | 8.7  | 13.0 | 39.1 | 30.4  |                |
| 성별    | 남  | (231) | 95.2  | 4.8  | 15.809        | (10)     | 10.0  | 0.0  | 20.0 | 30.0 | 40.0  | 3.138          |
|       | 여  | (65)  | 80.0  | 20.0 | (1)***        | (13)     | 7.7   | 15.4 | 7.7  | 46.2 | 23.1  | (4)            |
| 교급    | 중  | (86)  | 95.3  | 4.7  | 1.917         | (3)      | 33.3  | 33.3 | 33.3 | 0.0  | 0.0   | 8.306          |
|       | 고  | (211) | 90.5  | 9.5  | (1)           | (20)     | 5.0   | 5.0  | 10.0 | 45.0 | 35.0  | (4)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7.292<br>(5)  | (0)      | -     | -    | -    | -    | -     | 11.896<br>(12)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91.7  | 8.3  |               | (3)      | 33.3  | 33.3 | 33.3 | 0.0  | 0.0   |                |
|       | 고1 | (67)  | 94.0  | 6.0  |               | (4)      | 0.0   | 0.0  | 0.0  | 75.0 | 25.0  |                |
|       | 고2 | (89)  | 86.5  | 13.5 |               | (12)     | 8.3   | 8.3  | 16.7 | 33.3 | 33.3  |                |
|       | 고3 | (55)  | 92.7  | 7.3  |               | (4)      | 0.0   | 0.0  | 0.0  | 50.0 | 5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4.812<br>(2)  | (0)      | -     | -    | -    | -    | -     | 3.572<br>(4)   |
|       | 중  | (54)  | 87.0  | 13.0 |               | (6)      | 0.0   | 0.0  | 16.7 | 66.7 | 16.7  |                |
|       | 하  | (208) | 91.8  | 8.2  |               | (17)     | 11.8  | 11.8 | 11.8 | 29.4 | 35.3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5.7  | 4.3  | 4.168<br>(2)  | (5)      | 20.0  | 20.0 | 20.0 | 40.0 | 0.0   | 7.931<br>(8)   |
|       | 중  | (103) | 88.3  | 11.7 |               | (11)     | 0.0   | 9.1  | 18.2 | 27.3 | 45.5  |                |
|       | 하  | (76)  | 90.8  | 9.2  |               | (7)      | 14.3  | 0.0  | 0.0  | 57.1 | 28.6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4.2  | 5.8  | 8.880         | (14)     | 0.0   | 0.0  | 14.3 | 50.0 | 35.7  | 7.672          |
|       | 부정 | (56)  | 82.1  | 17.9 | (1)**         | (9)      | 22.2  | 22.2 | 11.1 | 22.2 | 22.2  | (4)            |

“신경안정제/항불안제 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가 비의료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으며, 남학생(2.2%)보다 여학생(16.9%)이 현저히 높아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내재화 문제’(예: 불안, 우울, 수면곤란 등)의 유병률과 도움요청 경향이 여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가족·지인 처방약에 대한 노출 및 수급 경로의 차이, 체중·수면·정소 조절과 관련된 자기관리 요구가 생활패턴에 맞물린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성적 중위권(13.0%)이 상위권(2.9%)·하위권(3.8%)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14.3%)이 높은 집단(7.3%)보다 유의하게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성적 집단에서 중위권이 가장 높은 이유로는 ‘이중 압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상위권은 규범순응·위협회피 성향이 강하고, 학교·가정의 관리가 촘촘한 반면, 하위권은 성취압박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접근·비용·정보가 부족해 시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중위권은 상향 이동에 대한 압박과 하락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공식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닿아 잔여 처방약과 같은 ‘비공식적 단기완화 수단’에 기댈 유인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에서의 높은 비율은 낮은 자기 효능감·부정 정서 민감성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약물적 대처(운동·시간 관리 등)보다 즉각적 완화를 주는 약물에 기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남이 쓰던 약이라도 괜찮다’는 안전성 판단의 왜곡과 보건 정보 이해도 취약성이 결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최초 사용 시기는 응답자가 16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중2와 중3 시기에 75%가 사용 경험이 있다.

표 III-62.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94.6  | 5.4  |                  | (16)     | 0.0   | 12.5 | 25.0 | 50.0  | 12.5  |
| 성별    | 남  | (231) | 97.8  | 2.2  | 21.609<br>(1)*** | (5)      | 0.0   | 0.0  | 40.0 | 60.0  | 0.0   |
|       | 여  | (65)  | 83.1  | 16.9 |                  | (11)     | 0.0   | 18.2 | 18.2 | 45.5  | 18.2  |
| 교급    | 중  | (86)  | 97.7  | 2.3  | 2.226<br>(1)     | (2)      | 0.0   | 50.0 | 0.0  | 50.0  | 0.0   |
|       | 고  | (211) | 93.4  | 6.6  |                  | (14)     | 0.0   | 7.1  | 28.6 | 50.0  | 14.3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944<br>(5)     | (0)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중3 | (48)  | 95.8  | 4.2  |                  | (2)      | 0.0   | 50.0 | 0.0  | 50.0  | 0.0   |
|       | 고1 | (67)  | 94.0  | 6.0  |                  | (4)      | 0.0   | 0.0  | 0.0  | 100.0 | 0.0   |
|       | 고2 | (89)  | 91.0  | 9.0  |                  | (8)      | 0.0   | 12.5 | 50.0 | 25.0  | 12.5  |
|       | 고3 | (55)  | 96.4  | 3.6  |                  | (2)      | 0.0   | 0.0  | 0.0  | 50.0  | 50.0  |
| 성적    | 상  | (35)  | 97.1  | 2.9  | 7.489<br>(2)*    | (1)      | 0.0   | 0.0  | 0.0  | 100.0 | 0.0   |
|       | 중  | (54)  | 87.0  | 13.0 |                  | (7)      | 0.0   | 14.3 | 14.3 | 71.4  | 0.0   |
|       | 하  | (208) | 96.2  | 3.8  |                  | (8)      | 0.0   | 12.5 | 37.5 | 25.0  | 25.0  |
| 가구 소득 | 상  | (117) | 93.2  | 6.8  | 0.939<br>(2)     | (8)      | 0.0   | 25.0 | 25.0 | 37.5  | 12.5  |
|       | 중  | (103) | 96.1  | 3.9  |                  | (4)      | 0.0   | 0.0  | 25.0 | 50.0  | 25.0  |
|       | 하  | (76)  | 94.7  | 5.3  |                  | (4)      | 0.0   | 0.0  | 25.0 | 75.0  | 0.0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6.7  | 3.3  | 10.721<br>(1)**  | (8)      | 0.0   | 12.5 | 12.5 | 75.0  | 0.0   |
|       | 부정 | (56)  | 85.7  | 14.3 |                  | (8)      | 0.0   | 12.5 | 37.5 | 25.0  | 25.0  |

다음으로 청소년의 ADHD 치료제(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은 전체의 10.8%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뚜렷했는데, 남학생 8.2%에 비해 여학생이 20.0%로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학업성취에서는 상 17.1%, 중 18.5%, 하 7.7%로, 성취압박이 큰 집단에서 ‘집중력·성적 향상’ 목적의 오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머지 학년별로는 고2에서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은 16.1%로 높은 집단의 9.5%보다 사용 경험이 많아 정서·자기효능 취약성이 비의료적 사용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초 사용 시기는 고등학교 이상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중2 20.0%, 중3 16.7%로 학업 부담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시작되는 경향도 확인된다. 종합

하면, ADHD 치료제의 비의료적 사용은 전체적으로 ‘소수이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며, 여학생, 상·중위권 성적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표 III-63.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ADHD치료제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89.2 | 10.8 |                | (30)     | 30.0  | 6.7  | 20.0 | 16.7 | 26.7  |                |
| 성별    | 남  | (231) | 91.8 | 8.2  | 7.294<br>(1)** | (18)     | 38.9  | 0.0  | 16.7 | 11.1 | 33.3  | 6.019<br>(4)   |
|       | 여  | (65)  | 80.0 | 20.0 |                | (12)     | 16.7  | 16.7 | 25.0 | 25.0 | 16.7  |                |
| 교급    | 중  | (86)  | 89.5 | 10.5 | 0.012<br>(1)   | (8)      | 62.5  | 12.5 | 25.0 | 0.0  | 0.0   | 9.261<br>(4)   |
|       | 고  | (211) | 89.1 | 10.9 |                | (22)     | 18.2  | 4.5  | 18.2 | 22.7 | 36.4  |                |
| 학년    | 중1 | (5)   | 80.0 | 20.0 | 6.352<br>(5)   | (1)      | 100.0 | 0.0  | 0.0  | 0.0  | 0.0   | 22.022<br>(20) |
|       | 중2 | (33)  | 90.9 | 9.1  |                | (3)      | 100.0 | 0.0  | 0.0  | 0.0  | 0.0   |                |
|       | 중3 | (48)  | 89.6 | 10.4 |                | (4)      | 25.0  | 25.0 | 50.0 | 0.0  | 0.0   |                |
|       | 고1 | (67)  | 92.5 | 7.5  |                | (5)      | 40.0  | 0.0  | 20.0 | 0.0  | 40.0  |                |
|       | 고2 | (89)  | 83.1 | 16.9 |                | (14)     | 7.1   | 7.1  | 21.4 | 28.6 | 35.7  |                |
|       | 고3 | (55)  | 94.5 | 5.5  |                | (3)      | 33.3  | 0.0  | 0.0  | 33.3 | 33.3  |                |
| 성적    | 상  | (35)  | 82.9 | 17.1 | 6.900<br>(2)*  | (5)      | 80.0  | 0.0  | 0.0  | 0.0  | 20.0  | 11.451<br>(8)  |
|       | 중  | (54)  | 81.5 | 18.5 |                | (9)      | 0.0   | 11.1 | 22.2 | 33.3 | 33.3  |                |
|       | 하  | (208) | 92.3 | 7.7  |                | (16)     | 31.3  | 6.3  | 25.0 | 12.5 | 25.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86.3 | 13.7 | 2.409<br>(2)   | (15)     | 40.0  | 13.3 | 26.7 | 6.7  | 13.3  | 7.833<br>(8)   |
|       | 중  | (103) | 89.3 | 10.7 |                | (10)     | 20.0  | 0.0  | 10.0 | 30.0 | 40.0  |                |
|       | 하  | (76)  | 93.4 | 6.6  |                | (5)      | 20.0  | 0.0  | 20.0 | 20.0 | 4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0.5 | 9.5  | 2.014<br>(1)   | (23)     | 30.4  | 4.3  | 21.7 | 13.0 | 30.4  | 2.252<br>(4)   |
|       | 부정 | (56)  | 83.9 | 16.1 |                | (7)      | 28.6  | 14.3 | 14.3 | 28.6 | 14.3  |                |

마약성 진통제의 의료목적 외 사용 경험은 전체의 1.3%로 4명에 불과했다. 4명의 응답자 모두 남학생이었지만, 성별·교급·학년·성적·가구소득·자아긍정 어느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경험 시기 역시 중·고교 각 학년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했다. 정리하면, 마약성 진통제의 비의료적 사용은 현재 표본에서 드문 수준이며 뚜렷한 취약집단도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64.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마약성 진통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98.7  | 1.3 |               | (4)      | 0.0   | 25.0  | 25.0  | 25.0  | 25.0  |
| 성별    | 남  | (231) | 98.3  | 1.7 | 1.141         | (4)      | 0.0   | 25.0  | 25.0  | 25.0  | 25.0  |
|       | 여  | (65)  | 100.0 | 0.0 | (1)           | (0)      | -     | -     | -     | -     | -     |
| 교급    | 중  | (86)  | 98.8  | 1.2 | 0.031         | (1)      | 0.0   | 0.0   | 100.0 | 0.0   | 0.0   |
|       | 고  | (211) | 98.6  | 1.4 | (1)           | (3)      | 0.0   | 33.3  | 0.0   | 33.3  | 33.3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110         | (0)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중3 | (48)  | 97.9  | 2.1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고1 | (67)  | 98.5  | 1.5 |               | (1)      | 0.0   | 100.0 | 0.0   | 0.0   | 0.0   |
|       | 고2 | (89)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3 | (55)  | 96.4  | 3.6 |               | (2)      | 0.0   | 0.0   | 0.0   | 50.0  | 50.0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596         | (0)      | -     | -     | -     | -     | -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하  | (208) | 98.6  | 1.4 |               | (3)      | 0.0   | 33.3  | 33.3  | 0.0   | 33.3  |
| 가구 소득 | 상  | (117) | 99.1  | 0.9 | 1.263         | (1)      | 0.0   | 0.0   | 0.0   | 100.0 | 0.0   |
|       | 중  | (103) | 99.0  | 1.0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하  | (76)  | 97.4  | 2.6 |               | (2)      | 0.0   | 50.0  | 0.0   | 0.0   | 50.0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8.3  | 1.7 | 0.942         | (4)      | 0.0   | 25.0  | 25.0  | 25.0  | 25.0  |
|       | 부정 | (56)  | 100.0 | 0.0 | (1)           | (0)      | -     | -     | -     | -     | -     |

의료용 마약류 중 식욕억제제 경험률은 전체 4.7%로 297명 중 13명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16.9%, 남학생이 1.3%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2 10.1%에서 정점(중3 6.3%, 고3 3.6%)을 보였고, 중1·2 및 고1에서의 사용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아긍정이 낮은 학생(12.5%)이 높은 학생(2.9%)보다 경험률이 높아 심리·정서 요인의 영향을 시사하였다. 최초 경험 시기는 전체 기준으로 중1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중3 및 고1 23.1%, 중2 15.4%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식욕억제제의 비의료적 사용은 전반적으로 드물지만 여학생·고2·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 대한 체중·외모 압박, 다이어트 문화, 포레 영향 등을 겨냥한 신체상 교육과 상담, 의료용 약물의 올바른 사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II-65.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식욕억제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95.3  | 4.7  |                | (13)     | 0.0   | 38.5 | 15.4 | 23.1 | 23.1  |
| 성별    | 남  | (231) | 98.7  | 1.3  | 27.482         | (2)      | 0.0   | 0.0  | 50.0 | 50.0 | 0.0   |
|       | 여  | (65)  | 83.1  | 16.9 | (1)***         | (11)     | 0.0   | 45.5 | 9.1  | 18.2 | 27.3  |
| 교급    | 중  | (86)  | 96.5  | 3.5  | 0.405          | (3)      | 0.0   | 66.7 | 33.3 | 0.0  | 0.0   |
|       | 고  | (211) | 94.8  | 5.2  | (1)            | (10)     | 0.0   | 30.0 | 10.0 | 30.0 | 30.0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11.364<br>(5)* | (0)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중3 | (48)  | 93.8  | 6.3  |                | (3)      | 0.0   | 66.7 | 33.3 | 0.0  | 0.0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2 | (89)  | 89.9  | 10.1 |                | (8)      | 0.0   | 37.5 | 12.5 | 25.0 | 25.0  |
|       | 고3 | (55)  | 96.4  | 3.6  |                | (2)      | 0.0   | 0.0  | 0.0  | 50.0 | 50.0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4.285<br>(2)   | (0)      | -     | -    | -    | -    | -     |
|       | 중  | (54)  | 90.7  | 9.3  |                | (5)      | 0.0   | 20.0 | 20.0 | 40.0 | 20.0  |
|       | 하  | (208) | 95.7  | 4.3  |                | (8)      | 0.0   | 50.0 | 12.5 | 12.5 | 25.0  |
| 가구 소득 | 상  | (117) | 94.9  | 5.1  | 0.253<br>(2)   | (6)      | 0.0   | 33.3 | 33.3 | 16.7 | 16.7  |
|       | 중  | (103) | 96.1  | 3.9  |                | (3)      | 0.0   | 33.3 | 0.0  | 0.0  | 66.7  |
|       | 하  | (76)  | 94.7  | 5.3  |                | (4)      | 0.0   | 50.0 | 0.0  | 50.0 | 0.0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7.1  | 2.9  | 9.315          | (6)      | 0.0   | 33.3 | 33.3 | 33.3 | 0.0   |
|       | 부정 | (56)  | 87.5  | 12.5 | (1)**          | (7)      | 0.0   | 42.9 | 0.0  | 14.3 | 42.9  |

의료용 마약류 중 근육강화제 경험은 전체 1.0%로 응답자 297명 중 2명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본 조사에서 다른 다른 약물 사용 항목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근육강화제 사용 경험이 전무함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학생의 0.9%, 여학생의 1.1%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1.2%, 고등학생 0.9%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근육강화제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최초 사용 시기는 중3 50.0%, 고등학교 이후 50.0%로 나타났다. 이는 근육강화제 사용이 청소년기 초반보다는 신체 이미지 형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일부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의료 목적 외 근육강화제 사용은 전체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 경험 시기가 중3·고등학교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체 이미지 관련 약물 사용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I-66.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근육강화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무응답   |              |
| 전체    |    | (297) | 99.0  | 1.0 |              | (3)      | 0.0   | 0.0 | 0.0 | 33.3  | 33.3  | 33.3  |              |
| 성별    | 남  | (231) | 99.1  | 0.9 | 0.229<br>(1)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3.000<br>(2) |
|       | 여  | (65)  | 98.5  | 1.5 |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86)  | 98.8  | 1.2 | 0.028<br>(1)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3.000<br>(2) |
|       | 고  | (211) | 99.1  | 0.9 |              | (2)      | 0.0   | 0.0 | 0.0 | 0.0   | 50.0  | 50.0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1.995<br>(5) | (0)      | 0.0   | 0.0 | 0.0 | 0.0   | 0.0   | 0.0   | 6.000<br>(4) |
|       | 중2 | (33)  | 100.0 | 0.0 |              | (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중3 | (48)  | 97.9  | 2.1 |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
|       | 고1 | (67)  | 100.0 | 0.0 |              | (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89)  | 98.9  | 1.1 |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고3 | (55)  | 98.2  | 1.8 |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745<br>(2) | (0)      | 0.0   | 0.0 | 0.0 | 0.0   | 0.0   | 0.0   | 3.000<br>(2)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
|       | 하  | (208) | 99.0  | 1.0 |              | (2)      | 0.0   | 0.0 | 0.0 | 50.0  | 0.0   | 5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9.1  | 0.9 | 0.100<br>(2)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6.000<br>(4) |
|       | 중  | (103) | 99.0  | 1.0 |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
|       | 하  | (76)  | 98.7  | 1.3 |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2  | 0.8 | 0.415<br>(1)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3.000<br>(2) |
|       | 부정 | (56)  | 98.2  | 1.8 |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다음 결과는 의료 목적 외 마취제 사용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사용 경험은 2.7%로 297명 중 7명으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자가 9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위 항목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세부 비율을 보면 여학생 3.1%, 남학생 2.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3.3%)이 중학생(1.2%)보다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2(4.5%), 고1(3.0%)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고3(1.8%)에서 다시 낮아지는 모습이다.

최초 사용 시기는 경험이 있는 7명을 기준으로 보면, 중3(42.9%)과 고등학교 이상(28.6%) 시기에 집중이 뚜렷하였으며, 초등 이하와 중1 시기도 각각 14.3%로 나타났다. 이는 경험 자체가 매우 드문 가운데, 있더라도 대부분 고등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석 시 유의점도 필요하다. 본 문항은 경험률이 2.7%로 극저빈도이고, ‘최초 시기’의 경우 응답자 기준이라 집단별 소수 사례(1-2명)로 인해 비율이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마취제 사용은 극히 드물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67.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마취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df)$  |
| 전체    |    | (297) | 97.3  | 2.7 |              | (7)      | 14.3  | 14.3 | 0.0 | 42.9  | 28.6  |               |
| 성별    | 남  | (231) | 97.4  | 2.6 | 0.044<br>(1) | (6)      | 16.7  | 16.7 | 0.0 | 50.0  | 16.7  | 2.917<br>(3)  |
|       | 여  | (65)  | 96.9  | 3.1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86)  | 98.8  | 1.2 | 1.082<br>(1) | (1)      | 0.0   | 0.0  | 0.0 | 100.0 | 0.0   | 1.556<br>(3)  |
|       | 고  | (211) | 96.7  | 3.3 |              | (6)      | 16.7  | 16.7 | 0.0 | 33.3  | 33.3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2.404<br>(5) | (0)      | -     | -    | -   | -     | -     | 10.111<br>(9)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97.9  | 2.1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 고1 | (67)  | 97.0  | 3.0 |              | (2)      | 50.0  | 50.0 | 0.0 | 0.0   | 0.0   |               |
|       | 고2 | (89)  | 95.5  | 4.5 |              | (3)      | 0.0   | 0.0  | 0.0 | 33.3  | 66.7  |               |
|       | 고3 | (55)  | 98.2  | 1.8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성적    | 상  | (35)  | 97.1  | 2.9 | 1.857<br>(2) | (1)      | 100.0 | 0.0  | 0.0 | 0.0   | 0.0   | 7.000<br>(3)  |
|       | 중  | (54)  | 100.0 | 0.0 |              | (0)      | -     | -    | -   | -     | -     |               |
|       | 하  | (208) | 96.6  | 3.4 |              | (6)      | 0.0   | 16.7 | 0.0 | 50.0  | 33.3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8.3  | 1.7 | 0.904<br>(2) | (2)      | 50.0  | 0.0  | 0.0 | 0.0   | 50.0  | 7.194<br>(6)  |
|       | 중  | (103) | 97.1  | 2.9 |              | (3)      | 0.0   | 0.0  | 0.0 | 66.7  | 33.3  |               |
|       | 하  | (76)  | 96.1  | 3.9 |              | (2)      | 0.0   | 50.0 | 0.0 | 5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7.5  | 2.5 | 0.203<br>(1) | (6)      | 16.7  | 16.7 | 0.0 | 50.0  | 16.7  | 2.917<br>(3)  |
|       | 부정 | (56)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의료 목적 외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사용 경험률은 6.4%로 낮은 편이며, 무경험은 93.6%였다. 집단 간에는 성별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 4.3%에 비해 여학생은 13.8%로 높게 나타났다. 교급·학년·성적 등 다른 하위 변인의 경우 고3(5.5%)·성적

상 집단(14.3%)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최초 사용 시기는 응답자 17명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이하 41.2%, 중1 29.4%, 중2 17.6%, 중3 11.8%, 고등 이상 0%로, 비교적 어린 시기에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나 표본수가 매우 적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기침약은 가정 내 상비약으로 접근성이 좋고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인식이 강해 용도 외 사용(예: 과용, 집중유지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표 Ⅲ-68.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 -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 (단위: (명),%) |    |       |       |      |               |          |       |      |      |      |       |               |
|-------------|----|-------|-------|------|---------------|----------|-------|------|------|------|-------|---------------|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93.6  | 6.4  |               | (17)     | 41.2  | 29.4 | 17.6 | 11.8 | 0.0   |               |
| 성별          | 남  | (231) | 95.7  | 4.3  | 7.649         | (9)      | 44.4  | 33.3 | 11.1 | 11.1 | 0.0   | 0.620         |
|             | 여  | (65)  | 86.2  | 13.8 | (1)**         | (8)      | 37.5  | 25.0 | 25.0 | 12.5 | 0.0   | (3)           |
| 교급          | 중  | (86)  | 97.7  | 2.3  | 3.352         | (2)      | 50.0  | 0.0  | 50.0 | 0.0  | 0.0   | 2.321         |
|             | 고  | (211) | 91.9  | 8.1  | (1)           | (15)     | 40.0  | 33.3 | 13.3 | 13.3 | 0.0   | (3)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808         | (0)      | -     | -    | -    | -    | -     | 15.921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95.8  | 4.2  |               | (2)      | 50.0  | 0.0  | 50.0 | 0.0  | 0.0   |               |
|             | 고1 | (67)  | 91.0  | 9.0  |               | (6)      | 66.7  | 33.3 | 0.0  | 0.0  | 0.0   |               |
|             | 고2 | (89)  | 91.0  | 9.0  |               | (6)      | 33.3  | 33.3 | 33.3 | 0.0  | 0.0   |               |
|             | 고3 | (55)  | 94.5  | 5.5  |               | (3)      | 0.0   | 33.3 | 0.0  | 66.7 | 0.0   |               |
| 성적          | 상  | (35)  | 85.7  | 14.3 | 4.607         | (5)      | 60.0  | 20.0 | 20.0 | 0.0  | 0.0   | 8.128         |
|             | 중  | (54)  | 92.6  | 7.4  |               | (4)      | 75.0  | 0.0  | 25.0 | 0.0  | 0.0   |               |
|             | 하  | (208) | 95.2  | 4.8  |               | (8)      | 12.5  | 50.0 | 12.5 | 25.0 | 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4.9  | 5.1  | 0.639         | (6)      | 83.3  | 0.0  | 16.7 | 0.0  | 0.0   | 9.872         |
|             | 중  | (103) | 92.2  | 7.8  |               | (7)      | 14.3  | 42.9 | 14.3 | 28.6 | 0.0   |               |
|             | 하  | (76)  | 93.4  | 6.6  |               | (4)      | 25.0  | 50.0 | 25.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4.6  | 5.4  | 2.148         | (12)     | 50.0  | 25.0 | 16.7 | 8.3  | 0.0   | 1.472         |
|             | 부정 | (56)  | 89.3  | 10.7 | (1)           | (5)      | 20.0  | 40.0 | 20.0 | 20.0 | 0.0   | (3)           |

## 2)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횟수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몇 회 정도 했는지 물었을 때, 수면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29.2%)와 '한 달 평균 20회 이상'(2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신경안정제/항불안제와 ADHD 치료제는 '한 달 평균 20회 이상'(50.0%)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마취제,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0.0%, 35.7%, 66.7%, 85.7%, 52.6%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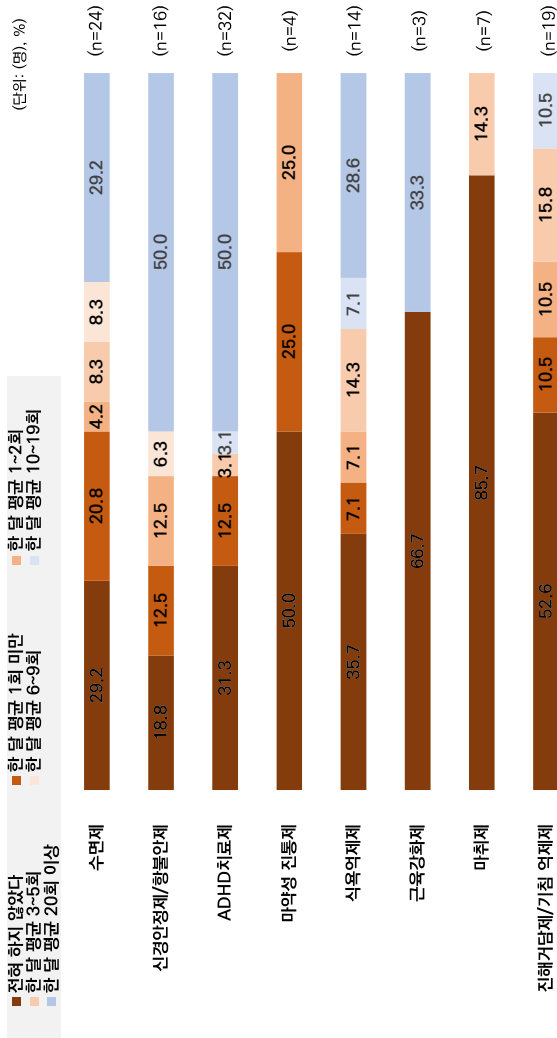


그림 III-18.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한 달 평균 횟수

최근 6개월간 의료목적 외 수면제 사용빈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 24명 기준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29.2%였고, 나머지는 사용경험이 있었다. 사용군의 빈도 분포는 ‘한달평균 20회 이상’이 29.2%로 가장 높았고, ‘한달평균 1회 미만’이 20.8%, ‘3-5회·6-9회’가 각각 8.3% 수준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잦은(월 20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빈도적으로 본다면 남학생의 무사용은 54.5%인 반면, 여학생은 7.7%로 낮고 월 20회 이상 30.8% 등 상대적으로 사용·빈도 모두 높았다. 학년별로는 고2가 사례수 12명으로, 한달평균 20회 이상 33.3%, 한달평균 3-5회 8.3%, 한달평균 6-9회 16.7%로 비교적 높은 고빈도 사용이 관찰되었고, 고3은 비복용이 50.0%로 낮았다.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은 월 20회 이상이 40.0%로, 긍정 집단(21.4%)보다 뚜렷하게 높았으며, 비복용 집단 역시 자아긍정집단은 42.9%인 반면 자아부정집단은 10.0%로 정서적 취약성과 고빈도 사용의 연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본 수가 24명으로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나, 여학생과 고2,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의료 목적 외 수면제의 잦은 사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69.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수면제

| (단위: (명),%) |      |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하지 않았다 | 한 달 평균 1회 미만 | 한 달 평균 1~2회 | 한 달 평균 3~5회 | 한 달 평균 6~9회 | 한 달 평균 10~19회 | 한 달 평균 20회 이상 | $\chi^2$ (df)  |
| 전체          | (24) | 29.2      | 20.8         | 4.2         | 8.3         | 8.3         | 0.0           | 29.2          |                |
| 성별          | 남    | (11)      | 54.5         | 9.1         | 0.0         | 0.0         | 9.1           | 0.0           | 8.406<br>(5)   |
|             | 여    | (13)      | 7.7          | 30.8        | 7.7         | 15.4        | 7.7           | 0.0           |                |
| 교급          | 중    | (4)       | 25.0         | 50.0        | 0.0         | 0.0         | 0.0           | 0.0           | 3.017<br>(5)   |
|             | 고    | (20)      | 30.0         | 15.0        | 5.0         | 10.0        | 1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14.171<br>(15) |
|             | 중2   | (0)       | -            | -           | -           | -           | -             | -             |                |
|             | 중3   | (4)       | 25.0         | 50.0        | 0.0         | 0.0         | 0.0           | 25.0          |                |
|             | 고1   | (4)       | 25.0         | 25.0        | 0.0         | 0.0         | 0.0           | 50.0          |                |
|             | 고2   | (12)      | 25.0         | 16.7        | 0.0         | 8.3         | 16.7          | 0.0           |                |
|             | 고3   | (4)       | 50.0         | 0.0         | 25.0        | 25.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2.979<br>(5)   |
|             | 중    | (7)       | 28.6         | 28.6        | 0.0         | 0.0         | 0.0           | 42.9          |                |
|             | 하    | (17)      | 29.4         | 17.6        | 5.9         | 11.8        | 11.8          | 0.0           |                |
| 가구 소득       | 상    | (5)       | 20.0         | 0.0         | 0.0         | 20.0        | 0.0           | 60.0          | 6.947<br>(10)  |
|             | 중    | (12)      | 33.3         | 25.0        | 8.3         | 8.3         | 0.0           | 16.7          |                |
|             | 하    | (7)       | 28.6         | 28.6        | 0.0         | 0.0         | 14.3          | 28.6          |                |
| 자아 긍정       | 긍정   | (14)      | 42.9         | 21.4        | 0.0         | 7.1         | 7.1           | 0.0           | 4.369<br>(5)   |
|             | 부정   | (10)      | 10.0         | 20.0        | 10.0        | 10.0        | 10.0          | 40.0          |                |

최근 6개월 내 ‘신경안정제/항불안제’를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결과(표본 16명),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18.8%에 그친 반면, ‘월 20회 이상’ 고빈도 사용이 50.0%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월 1회 미만 12.5%, 월 1-2회 12.5%, 월 6-9회 6.3% 수준으로 분포해, 소수이지만 습관적·상시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집단별로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성별로 보면(표본: 남 5명, 여 11명) 여학생은 ‘월 20회 이상’이 54.5% 높았고(무사용 27.3%), 남학생은 월 1-2회 40.0%와 월 20회 이상 40.0%로 저빈도와 고빈도가 양극화된 양상이었다. 교급에서 고등생의 경우(중 2명, 고 14명) 한달평균 20회 이상이 57.1%로 절반 이상이 고빈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년·성적·가구소득 등 다른 집단별 결과는 사례수가 10명 미만으로 추정오차가 클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표본이 작아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 6개월 내 사용 경험자 중 절반이 ‘월 20회 이상’을 보고하여 상당한 고빈도 복용군이 확인된다. 이는 불안·수면 문제에 대한 자기치료적 사용 가능성과 함께 의존·내성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관리 등이 필요하다.

표 Ⅲ-70.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16) | 18.8         | 12.5            | 12.5           | 0.0            | 6.3            | 0.0              | 50.0             |               |
| 성별       | 남    | (5)          | 0.0             | 0.0            | 40.0           | 0.0            | 20.0             | 0.0              | 9.018         |
|          | 여    | (11)         | 27.3            | 18.2           | 0.0            | 0.0            | 0.0              | 54.5             | (4)           |
| 교급       | 중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5.333         |
|          | 고    | (14)         | 14.3            | 14.3           | 7.1            | 0.0            | 7.1              | 0.0              | (4)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15.000        |
|          | 중2   | (0)          | -               | -              | -              | -              | -                | -                |               |
|          | 중3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
|          | 고1   | (4)          | 0.0             | 25.0           | 25.0           | 0.0            | 0.0              | 50.0             |               |
|          | 고2   | (8)          | 12.5            | 0.0            | 0.0            | 0.0            | 12.5             | 0.0              |               |
|          | 고3   | (2)          | 50.0            | 5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14.286        |
|          | 중    | (7)          | 42.9            | 14.3           | 14.3           | 0.0            | 0.0              | 0.0              |               |
|          | 하    | (8)          | 0.0             | 12.5           | 0.0            | 0.0            | 12.5             | 0.0              |               |
| 가구<br>소득 | 상    | (8)          | 25.0            | 0.0            | 12.5           | 0.0            | 12.5             | 0.0              | 10.000        |
|          | 중    | (4)          | 25.0            | 50.0           | 0.0            | 0.0            | 0.0              | 0.0              |               |
|          | 하    | (4)          | 0.0             | 0.0            | 25.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25.0            | 12.5           | 25.0           | 0.0            | 0.0              | 0.0              | 3.833         |
|          | 부정   | (8)          | 12.5            | 12.5           | 0.0            | 0.0            | 12.5             | 0.0              | (4)           |



최근 6개월 내 ‘ADHD 치료제’를 의료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32명의 응답 결과, ‘월 20회 이상’의 고빈도 사용이 50.0%로 절반을 차지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음’ 31.3%, ‘월 1회 미만’ 12.5%, ‘월 3-5회 및 월 10-19회’가 각각 3.1% 수준이었다.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여학생의 월 20회 이상 고빈도 사용 비중이 53.8%로 남학생 47.4%보다 약간 높았고, 남학생은 ‘미사용(36.8%)’과 ‘고빈도’가 양극단으로 분포하는 모습이었다. 교급·학년에서는 대체로 고빈도 사용(월 20회 이상 50% 내외)이 공통적으로 관찰되며, 특히 일부 학년(예: 중3, 고1)에서 고빈도 비중이 60% 수준까지 나타났지만, 각각의 사례수가 5명 수준으로 작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성적 집단 간에도 큰 차이는 없으나, 모든 집단에서 월 20회 이상이 40-50%대로 나타났으며, 자아긍정감이 낮은 집단은 월 20회 이상이 66.7%로 상대적으로 높아 정서·자기평가 요인과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표본 규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 외 ADHD 치료제 사용자는 상시적·습관적 복용군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는 학업·집중력 향상 등을 이유로 한 오남용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학교 차원의 안전교육, 정기 스크리닝 등의 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표 III-71.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ADHD치료제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않았다 | 한 달<br>평균<br>1회 미만 | 한 달<br>평균<br>1~2회 | 한 달<br>평균<br>3~5회 | 한 달<br>평균<br>6~9회 | 한 달<br>평균<br>10~19회 | 한 달<br>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32) | 31.3      | 12.5               | 0.0               | 3.1               | 0.0               | 3.1                 | 50.0                |                |
| 성별       | 남    | (19)      | 36.8               | 10.5              | 0.0               | 5.3               | 0.0                 | 47.4                | 2.824<br>(4)   |
|          | 여    | (13)      | 23.1               | 15.4              | 0.0               | 0.0               | 0.0                 | 53.8                |                |
| 교급       | 중    | (9)       | 44.4               | 0.0               | 0.0               | 0.0               | 0.0                 | 55.6                | 3.123<br>(4)   |
|          | 고    | (23)      | 26.1               | 17.4              | 0.0               | 4.3               | 0.0                 | 47.8                |                |
| 학년       | 중1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15.840<br>(20) |
|          | 중2   | (3)       | 66.7               | 0.0               | 0.0               | 0.0               | 0.0                 | 33.3                |                |
|          | 중3   | (5)       | 40.0               | 0.0               | 0.0               | 0.0               | 0.0                 | 60.0                |                |
|          | 고1   | (5)       | 0.0                | 20.0              | 0.0               | 20.0              | 0.0                 | 60.0                |                |
|          | 고2   | (15)      | 26.7               | 13.3              | 0.0               | 0.0               | 0.0                 | 53.3                |                |
|          | 고3   | (3)       | 66.7               | 33.3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6)       | 16.7               | 0.0               | 0.0               | 0.0               | 16.7                | 66.7                | 9.020<br>(8)   |
|          | 중    | (10)      | 40.0               | 10.0              | 0.0               | 10.0              | 0.0                 | 40.0                |                |
|          | 하    | (16)      | 31.3               | 18.8              | 0.0               | 0.0               | 0.0                 | 50.0                |                |
| 가구<br>소득 | 상    | (16)      | 37.5               | 6.3               | 0.0               | 0.0               | 6.3                 | 50.0                | 7.140<br>(8)   |
|          | 중    | (11)      | 27.3               | 9.1               | 0.0               | 9.1               | 0.0                 | 54.5                |                |
|          | 하    | (5)       | 20.0               | 40.0              | 0.0               | 0.0               | 0.0                 | 4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39.1               | 13.0              | 0.0               | 4.3               | 0.0                 | 43.5                | 5.287<br>(4)   |
|          | 부정   | (9)       | 11.1               | 11.1              | 0.0               | 0.0               | 11.1                | 66.7                |                |

최근 6개월 내 마약성 진통제를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빈도는 표본 4명으로, 6개월 내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50.0%, 월 1회 미만인 25.0%, 월 1-2회 25.0%로 나타나 대체로 저빈도 수준이었다. 응답자는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성적 하위권이 3명, 중위권이 1명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마약성 진통제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0.0              |               |
| 성별       | 남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             |
|          | 여   | (0)          | -               | -              | -              | -              | -                | -                |               |
| 교급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1.333<br>(2)  |
|          | 고   | (3)          | 33.3            | 33.3           | 33.3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4.000<br>(4)  |
|          | 중2  | (0)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0)          | -               | -              | -              | -              | -                | -                |               |
|          | 고3  | (2)          | 0.0             | 50.0           | 5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4.000<br>(2)  |
|          | 중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 하   | (3)          | 66.7            | 33.3           | 0.0            | 0.0            | 0.0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5.000<br>(4)  |
|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2)          | 50.0            | 50.0           | 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             |
|          | 부정  | (0)          | -               | -              | -              | -              | -                | -                |               |

최근 6개월 동안 의료 목적 외 식욕억제제 사용은 표본 13명으로, 사용 패턴은 두 갈래로 갈렸다. 전체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으나, 월 20회 이상 고빈도 사용도 28.6%로 적지 않게 관찰되었고, 월 3-5회 14.3%, 월 10-19회, 월 1-2회, 1회 미만도 각각 7.1%로 나타났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성별로는 여학생에서 경험이 집중되며(남학생 3명, 여학생 11명), 여학생 집단에서도 월 20회 이상이 36.4%로 고빈도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는 고2에서 월 20회 이상 44.4%, 월 3~5회 22.2%로 가장 두드러졌고, 사례수 또한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 수준에서는 ‘하’ 집단이 총 9명으로 사용횟수 또한 고르게 분포하는 등 학업이 부진할수록 사용 패턴의 고빈도가 확인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상위 소득 집단이 20회 이상 33.3%로 가장 높았으며, 빈도수도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용 마약류 중 식욕억제제는 유독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만큼, 학교 및 현장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예방·모니터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Ⅲ-73.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식욕억제제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14) | 35.7         | 7.1             | 7.1            | 14.3           | 0.0            | 7.1              | 28.6             |                |
| 성별       | 남  | (3)  | 66.7         | 0.0             | 0.0            | 33.3           | 0.0            | 0.0              | 0.0              | 3.903<br>(5)   |
|          | 여  | (11) | 27.3         | 9.1             | 9.1            | 9.1            | 0.0            | 9.1              | 36.4             |                |
| 교급       | 중  | (3)  | 66.7         | 33.3            | 0.0            | 0.0            | 0.0            | 0.0              | 0.0              | 6.873<br>(5)   |
|          | 고  | (11) | 27.3         | 0.0             | 9.1            | 18.2           | 0.0            | 9.1              | 36.4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14.933<br>(10)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중3 | (3)  | 66.7         | 33.3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고2 | (9)  | 22.2         | 0.0             | 0.0            | 22.2           | 0.0            | 11.1             | 44.4             |                |
|          | 고3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4.418<br>(5)   |
|          | 중  | (5)  | 60.0         | 0.0             | 0.0            | 0.0            | 0.0            | 0.0              | 40.0             |                |
|          | 하  | (9)  | 22.2         | 11.1            | 11.1           | 22.2           | 0.0            | 11.1             | 22.2             |                |
| 가구<br>소득 | 상  | (6)  | 50.0         | 0.0             | 0.0            | 0.0            | 0.0            | 16.7             | 33.3             | 9.917<br>(10)  |
|          | 중  | (4)  | 0.0          | 25.0            | 25.0           | 25.0           | 0.0            | 0.0              | 25.0             |                |
|          | 하  | (4)  | 50.0         | 0.0             | 0.0            | 25.0           | 0.0            | 0.0              | 25.0             |                |
| 자아<br>긍정 | 긍정 | (7)  | 57.1         | 0.0             | 0.0            | 14.3           | 0.0            | 0.0              | 28.6             | 4.800<br>(5)   |
|          | 부정 | (7)  | 14.3         | 14.3            | 14.3           | 14.3           | 0.0            | 14.3             | 28.6             |                |

최근 6개월 동안 의료 목적 외 근육강화제 사용은 표본 내 사례 3명으로 매우 드물었다. 이들 가운데 66.7%는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았고, 33.3%는 월 20회 이상 고빈도 사용에 해당해, 전반적으로 사용자는 거의 없으나 소수의 고위험 사용자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집단별로는 남학생 2명 중 1명이 월 20회 이상, 여학생 1명은 미사용이었으며, 교급·학년별로는 중3 시기 1명, 고등학생에 2명이었다. 다만 집단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III-74.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근육강화제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br>않았다 | 한 달 평균<br>1회 미만 | 한 달 평균<br>1~2회 | 한 달 평균<br>3~5회 | 한 달 평균<br>6~9회 | 한 달 평균<br>10~19회 | 한 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3) | 66.7         | 0.0             | 0.0            | 0.0            | 0.0            | 0.0              | 33.3             |               |
| 성별       | 남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750<br>(1)  |
|          | 여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750<br>(1)  |
|          | 고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3.000<br>(2)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고2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3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3.000<br>(1)  |
|          | 중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          | 하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3.000<br>(2)  |
|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750<br>(1)  |
|          | 부정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최근 6개월 내 의료 목적 외 마취제 사용은 표본 7명 중 14.3%가 월 3-5회 수준의 사용을 보고했고, 나머지 85.7%는 사용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1명이며 여학생은 전원 미사용이었다. 학년별로도 고2 일부(33.3%)에만 사용 응답이 있었다. 집단별 사례수가 매우 작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월 6회 이상의 사용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5.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마취제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 않았다 | 한달 평균<br>1회 미만 | 한달 평균<br>1~2회 | 한달 평균<br>3~5회 | 한달 평균<br>6~9회 | 한달 평균<br>10~19회 | 한달 평균<br>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7) | 85.7      | 0.0            | 0.0           | 14.3          | 0.0           | 0.0             | 0.0             |               |
| 성별    | 남  | (6) | 83.3      | 0.0            | 0.0           | 16.7          | 0.0           | 0.0             | 0.0             | 0.194<br>(1)  |
|       | 여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194<br>(1)  |
|       | 고  | (6) | 83.3      | 0.0            | 0.0           | 16.7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1.556<br>(3)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3) | 66.7      | 0.0            | 0.0           | 33.3          | 0.0           | 0.0             | 0.0             |               |
|       | 고3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194<br>(1)  |
|       | 중  | (0) | -         | -              | -             | -             | -             | -               | -               |               |
|       | 하  | (6) | 83.3      | 0.0            | 0.0           | 16.7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1.556<br>(2)  |
|       | 중  | (3)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3) | 66.7      | 0.0            | 0.0           | 33.3          | 0.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6) | 83.3      | 0.0            | 0.0           | 16.7          | 0.0           | 0.0             | 0.0             | 0.194<br>(1)  |
|       | 부정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최근 6개월 내 의료 목적 외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사용(복용) 빈도는 표본 19명 기준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52.6%로 절반이 넘었다. 사용 집단은 월 1회 미만 및 월 1-2회 10.5%, 월 3-5회 15.8%로, 대다수가 월 5회 이하의 저빈도에 머물렀다. 다만

월 10-19회 수준의 비교적 높은 빈도 응답도 10.5% 관찰되어, 일부 학생에게서는 상습적 자기 투여 가능성을 시사한다.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등학생 사례수가 17명으로 대다수에 속하며, 월 20회 이상은 없으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일상적 사용에 대한 유의성이 보인다.

표 III-76. 최근 6개월 이내 의료용 마약류(의료 목적 외) 사용 횟수 -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하지 않았다 | 한 달 평균 1회 미만 | 한 달 평균 1~2회 | 한 달 평균 3~5회 | 한 달 평균 6~9회 | 한 달 평균 10~19회 | 한 달 평균 20회 이상 | $\chi^2$ (df) |
|-------|----|------|-----------|--------------|-------------|-------------|-------------|---------------|---------------|---------------|
| 전체    |    | (19) | 52.6      | 10.5         | 10.5        | 15.8        | 0.0         | 10.5          | 0.0           |               |
| 성별    | 남  | (10) | 60.0      | 10.0         | 10.0        | 10.0        | 0.0         | 10.0          | 0.0           | 0.683<br>(4)  |
|       | 여  | (9)  | 44.4      | 11.1         | 11.1        | 22.2        | 0.0         | 11.1          | 0.0           |               |
| 교급    | 중  | (2)  | 50.0      | 0.0          | 0.0         | 50.0        | 0.0         | 0.0           | 0.0           | 2.366<br>(4)  |
|       | 고  | (17) | 52.9      | 11.8         | 11.8        | 11.8        | 0.0         | 11.8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7.943<br>(12)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중3 | (2)  | 50.0      | 0.0          | 0.0         | 50.0        | 0.0         | 0.0           | 0.0           |               |
|       | 고1 | (6)  | 50.0      | 16.7         | 0.0         | 16.7        | 0.0         | 16.7          | 0.0           |               |
|       | 고2 | (8)  | 37.5      | 12.5         | 25.0        | 12.5        | 0.0         | 12.5          | 0.0           |               |
|       | 고3 | (3)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5)  | 40.0      | 20.0         | 0.0         | 20.0        | 0.0         | 20.0          | 0.0           | 6.238<br>(8)  |
|       | 중  | (4)  | 25.0      | 0.0          | 25.0        | 25.0        | 0.0         | 25.0          | 0.0           |               |
|       | 하  | (10) | 70.0      | 10.0         | 10.0        | 10.0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6)  | 16.7      | 16.7         | 0.0         | 33.3        | 0.0         | 33.3          | 0.0           | 12.867<br>(8) |
|       | 중  | (8)  | 87.5      | 0.0          | 12.5        | 0.0         | 0.0         | 0.0           | 0.0           |               |
|       | 하  | (5)  | 40.0      | 20.0         | 20.0        | 20.0        | 0.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13) | 46.2      | 15.4         | 15.4        | 15.4        | 0.0         | 7.7           | 0.0           | 2.493<br>(4)  |
|       | 부정 | (6)  | 66.7      | 0.0          | 0.0         | 16.7        | 0.0         | 16.7          | 0.0           |               |

### 3)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관련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 목적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ADHD 치료제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경안정제/항불안제(20.5%), 수면제(17.9%) 순이었다.

(n=3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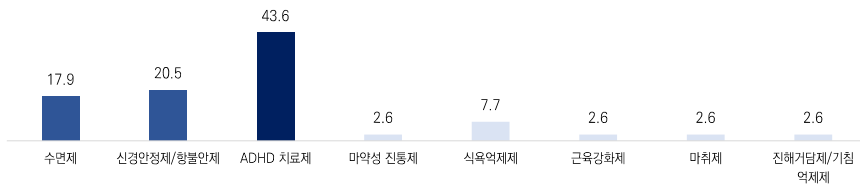


그림 Ⅲ-19. 최근 6개월 이내 가장 많이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을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약국 또는 병원'이라는 응답이 6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8.3%) 순이었다.

(n=3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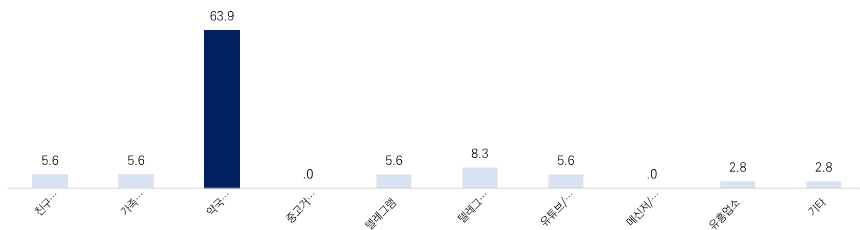


그림 Ⅲ-20. 의료용 마약류 인지 경로

구입 경로 또한 ‘약국 또는 병원’이라는 응답이 7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8.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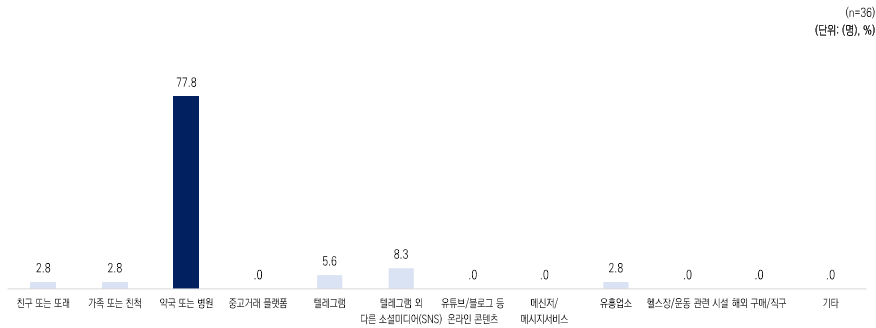


그림 Ⅲ-21. 의료용 마약류 구입 경로

약물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27.8%), ‘외모를 개선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11.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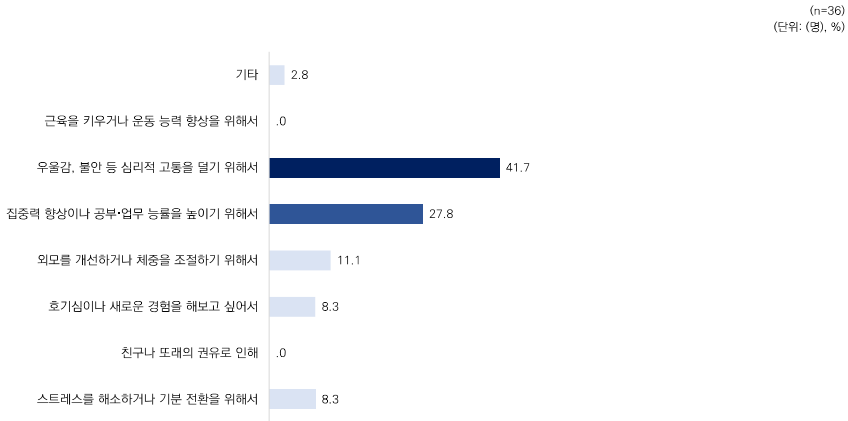


그림 Ⅲ-22.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유



약물을 사용한 이후에 느낀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평균 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평균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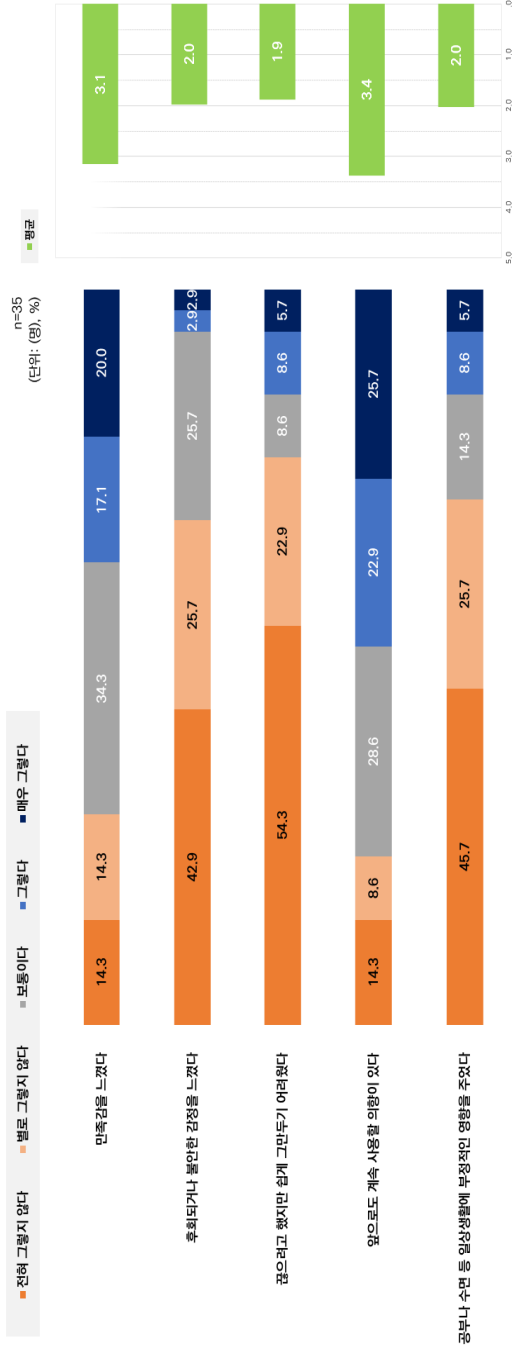


그림 III-23.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최근 6개월 이내에 의료 목적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을 한 가지로 고르게 한 결과(사용자 총 39명), ADHD 치료제가 최다(43.6%)였고, 이어 신경안정제/항불안제(20.5%), 수면제(17.9%) 순이었다. 식욕억제제(7.7%)는 소수였으며, 마약성 진통제, 근육강화제, 마취제, 진해거담제/기침억제제는 각각 2.6%로 드물게 나타났다.

세부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ADHD 치료제 비중이 50.0%로 가장 높고(수면제 10%, 신경안정제/항불안제 20%), 여학생도 ADHD 치료제 36.8%가 가장 많았으나 수면제(26.3%)와 신경안정제/항불안제(21.1%) 선택도 상대적으로 많아 ‘진정·수면 계열’의 분포가 보였다. 중학생 71.4%가 ADHD 치료제를 꼽아 고등학생(37.5%)보다 편중도가 높았고, 고등학생은 ADHD 외에 수면제(18.8%), 항불안제(21.9%), 마약성 진통제·마취제·진해거담제(각 3.1%) 등 선택이 다양하였다. 학년별로는 고1에서 ADHD(55.6%) 비중이 가장 높고, 고2는 항불안제(27.8%)와 ADHD 치료제(33.3%)가 엇비슷하였으며, 고3은 수면제 40%, ADHD 치료제 20%, 마약성 진통제 20% 등 개별 사례의 이질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ADHD 치료제(상 83.3%, 중 57.1%)가 압도적이었던 반면, 학업성취 하위의 경우 ADHD 치료제의 비율도 33.3%로 높았으나 신경안정제/항불안제 28.6%, 수면제 19%, 마약성 진통제 4.8%, 식욕억제제 9.5%, 마취제 4.8% 수준으로 종류가 분산되었다.

표 III-77. 최근 6개월 이내 의료 목적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39) | 17.9 | 20.5 | 43.6  | 2.6  | 7.7  | 2.6  | 2.6  | 2.6  |                |
| 성별    | 남  | (20) | 10.0 | 20.0 | 50.0  | 5.0  | 5.0  | 5.0  | 5.0  | 0.0  | 6.127<br>(7)   |
|       | 여  | (19) | 26.3 | 21.1 | 36.8  | 0.0  | 10.5 | 0.0  | 0.0  | 5.3  |                |
| 교급    | 중  | (7)  | 14.3 | 14.3 | 71.4  | 0.0  | 0.0  | 0.0  | 0.0  | 0.0  | 3.273<br>(7)   |
|       | 고  | (32) | 18.8 | 21.9 | 37.5  | 3.1  | 9.4  | 3.1  | 3.1  | 3.1  |                |
| 학년    | 중1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26.769<br>(35) |
|       | 중2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 중3 | (5)  | 20.0 | 20.0 | 6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9)  | 22.2 | 22.2 | 55.6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18) | 11.1 | 27.8 | 33.3  | 0.0  | 16.7 | 0.0  | 5.6  | 5.6  |                |
|       | 고3 | (5)  | 40.0 | 0.0  | 20.0  | 20.0 | 0.0  | 20.0 | 0.0  | 0.0  |                |
| 성적    | 상  | (6)  | 0.0  | 16.7 | 83.3  | 0.0  | 0.0  | 0.0  | 0.0  | 0.0  | 12.464<br>(14) |
|       | 중  | (12) | 25.0 | 8.3  | 41.7  | 0.0  | 8.3  | 8.3  | 0.0  | 8.3  |                |
|       | 하  | (21) | 19.0 | 28.6 | 33.3  | 4.8  | 9.5  | 0.0  | 4.8  | 0.0  |                |
| 가구 소득 | 상  | (14) | 7.1  | 28.6 | 57.1  | 0.0  | 0.0  | 7.1  | 0.0  | 0.0  | 19.676<br>(14) |
|       | 중  | (15) | 33.3 | 6.7  | 46.7  | 0.0  | 13.3 | 0.0  | 0.0  | 0.0  |                |
|       | 하  | (10) | 10.0 | 30.0 | 20.0  | 10.0 | 10.0 | 0.0  | 10.0 | 1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6) | 19.2 | 11.5 | 46.2  | 3.8  | 7.7  | 3.8  | 3.8  | 3.8  | 5.252<br>(7)   |
| 긍정    | 부정 | (13) | 15.4 | 38.5 | 38.5  | 0.0  | 7.7  | 0.0  | 0.0  | 0.0  |                |

① 수면제

② 신경안정제/항불안제

③ ADHD 치료제

④ 마약성 진통제

⑤ 식욕억제제

⑥ 근육강화제

⑦ 마취제

⑧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다음은 의료용 약물 인지 경로에 대한 응답이다. 36명 중 '약국 또는 병원'과 같이 공식 의료 채널이 가장 큰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63.9%). 그 다음은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8.3%, 친구/또래·가족/친척·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텔레그램이 각각 5.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유흥업소와 같은 온라인 판매처 인지는 극히 낮았다(2.8%).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비밀채팅방은 없었다.

집단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의료기관 경로가 1순위이지만, 일부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의료기관 비중이 더 높고(72.2%), SNS를 통한 인지도(1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학생은 의료기관 비중(55.6%)이 낮아지는 대신 친구(11.1%), 가족(5.6%), 온라인 콘텐츠(11.1%) 등 비공식 경로의 비중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학년별로는 고1에서 의료기관을 통한 인지가 100%로 특히 높았으며, 고3처럼 사례수가 적은 집단에서는 텔레그램·오픈라인 등 비공식 항목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적 하·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는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 사용이 각각 15.8%, 22.2%로 온라인 경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보 접근이 공식 채널 밖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Ⅲ-78. 의료용 약물 인지 경로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전체    |    | (36) | 5.6  | 5.6   | 63.9  | 0.0 | 5.6  |
| 성별    | 남  | (18) | 0.0  | 5.6   | 72.2  | 0.0 | 5.6  |
|       | 여  | (18) | 11.1 | 5.6   | 55.6  | 0.0 | 5.6  |
| 교급    | 중  | (7)  | 0.0  | 14.3  | 71.4  | 0.0 | 0.0  |
|       | 고  | (29) | 6.9  | 3.4   | 62.1  | 0.0 | 6.9  |
| 학년    | 중1 | (1)  | 0.0  | 0.0   | 100.0 | 0.0 | 0.0  |
|       | 중2 | (1)  | 0.0  | 100.0 | 0.0   | 0.0 | 0.0  |
|       | 중3 | (5)  | 0.0  | 0.0   | 80.0  | 0.0 | 0.0  |
|       | 고1 | (8)  | 0.0  | 0.0   | 100.0 | 0.0 | 0.0  |
|       | 고2 | (18) | 11.1 | 5.6   | 50.0  | 0.0 | 5.6  |
|       | 고3 | (3)  | 0.0  | 0.0   | 33.3  | 0.0 | 33.3 |
| 성적    | 상  | (6)  | 0.0  | 16.7  | 83.3  | 0.0 | 0.0  |
|       | 중  | (11) | 0.0  | 0.0   | 72.7  | 0.0 | 9.1  |
|       | 하  | (19) | 10.5 | 5.3   | 52.6  | 0.0 | 5.3  |
| 가구 소득 | 상  | (14) | 7.1  | 7.1   | 64.3  | 0.0 | 14.3 |
|       | 중  | (13) | 7.7  | 0.0   | 61.5  | 0.0 | 0.0  |
|       | 하  | (9)  | 0.0  | 11.1  | 66.7  | 0.0 | 0.0  |
| 자아 긍정 | 긍정 | (23) | 0.0  | 4.3   | 69.6  | 0.0 | 4.3  |
|       | 부정 | (13) | 15.4 | 7.7   | 53.8  | 0.0 | 7.7  |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

표 III-78. 의료용 약물 인지 경로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⑩   | $\chi^2$ (df)  |
|----------|----|------|------|------|-----|-----|-----|----------------|
| 전체       |    | (36) | 8.3  | 5.6  | 0.0 | 2.8 | 2.8 |                |
| 성별       | 남  | (18) | 11.1 | 0.0  | 0.0 | 5.6 | 0.0 | 6.725<br>(7)   |
|          | 여  | (18) | 5.6  | 11.1 | 0.0 | 0.0 | 5.6 |                |
| 교급       | 중  | (7)  | 14.3 | 0.0  | 0.0 | 0.0 | 0.0 | 3.570<br>(7)   |
|          | 고  | (29) | 6.9  | 6.9  | 0.0 | 3.4 | 3.4 |                |
| 학년       | 중1 | (1)  | 0.0  | 0.0  | 0.0 | 0.0 | 0.0 | 36.728<br>(35) |
|          | 중2 | (1)  | 0.0  | 0.0  | 0.0 | 0.0 | 0.0 |                |
|          | 중3 | (5)  | 20.0 | 0.0  | 0.0 | 0.0 | 0.0 |                |
|          | 고1 | (8)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18) | 11.1 | 5.6  | 0.0 | 5.6 | 5.6 |                |
|          | 고3 | (3)  | 0.0  | 33.3 | 0.0 | 0.0 | 0.0 |                |
| 성적       | 상  | (6)  | 0.0  | 0.0  | 0.0 | 0.0 | 0.0 | 11.622<br>(14) |
|          | 중  | (11) | 0.0  | 9.1  | 0.0 | 0.0 | 9.1 |                |
|          | 하  | (19) | 15.8 | 5.3  | 0.0 | 5.3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4) | 0.0  | 0.0  | 0.0 | 0.0 | 7.1 | 15.257<br>(14) |
|          | 중  | (13) | 7.7  | 15.4 | 0.0 | 7.7 | 0.0 |                |
|          | 하  | (9)  | 22.2 | 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13.0 | 0.0  | 0.0 | 4.3 | 4.3 | 10.559<br>(7)  |
|          | 부정 | (13) | 0.0  | 15.4 | 0.0 | 0.0 | 0.0 |                |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

다음 표는 의료용 약물을 비의료적 목적으로 구입한 경로를 묻는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주된 구입 경로는 약국·병원(77.8%)으로, 비의료적 사용이더라도 합법적 유통망에서의 구입이 그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텔레그램(5.6%), 텔레그램 외 SNS(6.3%)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뒤를 이었고, 친구·또래 2.8%, 가족·친척 2.8%, 유흥업소 2.8%는 소수였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약국·병원에서의 구입 의존도가 높지만(각각 77.8%), 남학생은 SNS(11.1%)·메신저(5.6%)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온라인 경로

노출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로가 다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고3은 친구·또래 33.3%, 약국·병원 33.3%, 텔레그램 33.3%로 분산되어 있었다. 또한 성적 ‘상’ 집단은 거의 전부가 약국·병원에서 구입하였다면, 성적 ‘하’ 집단은 약국·병원(63.2%)뿐 아니라 SNS(15.8%), 유흥업소(5.3%), 친구(10.5%) 등 비공식 채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 중·하와 자아긍정 부정 집단에서는 SNS·지인 경로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79. 의료용 약물 구입 경로 - ①

|                        |    | (단위: (명),%) |      |      |                          |     |      |      |
|------------------------|----|-------------|------|------|--------------------------|-----|------|------|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전체                     |    | (36)        | 2.8  | 2.8  | 77.8                     | 0.0 | 5.6  | 8.3  |
| 성별                     | 남  | (18)        | 0.0  | 0.0  | 77.8                     | 0.0 | 5.6  | 11.1 |
|                        | 여  | (18)        | 5.6  | 5.6  | 77.8                     | 0.0 | 5.6  | 5.6  |
| 교급                     | 중  | (7)         | 0.0  | 0.0  | 85.7                     | 0.0 | 0.0  | 14.3 |
|                        | 고  | (29)        | 3.4  | 3.4  | 75.9                     | 0.0 | 6.9  | 6.9  |
| 학년                     | 중1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중2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중3 | (5)         | 0.0  | 0.0  | 80.0                     | 0.0 | 0.0  | 20.0 |
|                        | 고1 | (8)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고2 | (18)        | 0.0  | 5.6  | 72.2                     | 0.0 | 5.6  | 11.1 |
|                        | 고3 | (3)         | 33.3 | 0.0  | 33.3                     | 0.0 | 33.3 | 0.0  |
| 성적                     | 상  | (6)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중  | (11)        | 0.0  | 0.0  | 90.9                     | 0.0 | 9.1  | 0.0  |
|                        | 하  | (19)        | 5.3  | 5.3  | 63.2                     | 0.0 | 5.3  | 15.8 |
| 가구 소득                  | 상  | (14)        | 0.0  | 0.0  | 85.7                     | 0.0 | 14.3 | 0.0  |
|                        | 중  | (13)        | 7.7  | 0.0  | 76.9                     | 0.0 | 0.0  | 7.7  |
|                        | 하  | (9)         | 0.0  | 11.1 | 66.7                     | 0.0 | 0.0  | 22.2 |
| 자아 긍정                  | 긍정 | (23)        | 0.0  | 0.0  | 78.3                     | 0.0 | 4.3  | 13.0 |
|                        | 부정 | (13)        | 7.7  | 7.7  | 76.9                     | 0.0 | 7.7  | 0.0  |
| ① 친구 또는 또래             |    |             |      |      |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     |      |      |
| ② 가족 또는 친척             |    |             |      |      |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     |      |      |
| ③ 약국 또는 병원             |    |             |      |      | ⑨ 유흥업소                   |     |      |      |
| ④ 중고거래 플랫폼             |    |             |      |      |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     |      |      |
| ⑤ 텔레그램                 |    |             |      |      | ⑪ 해외 구매/직구               |     |      |      |
|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    |             |      |      | ⑫ 기타                     |     |      |      |

표 III-79. 의료용 약물 구입 경로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chi^2$ (df)  |
|-------|----|------|-----|-----|-----|-----|-----|-----|----------------|
| 전체    |    | (36) | 0.0 | 0.0 | 2.8 | 0.0 | 0.0 | 0.0 |                |
| 성별    | 남  | (18) | 0.0 | 0.0 | 5.6 | 0.0 | 0.0 | 0.0 | 3.333<br>(5)   |
|       | 여  | (18)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7)  | 0.0 | 0.0 | 0.0 | 0.0 | 0.0 | 0.0 | 1.647<br>(5)   |
|       | 고  | (29) | 0.0 | 0.0 | 3.4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1)  | 0.0 | 0.0 | 0.0 | 0.0 | 0.0 | 0.0 | 21.538<br>(25) |
|       | 중2 | (1)  | 0.0 | 0.0 | 0.0 | 0.0 | 0.0 | 0.0 |                |
|       | 중3 | (5)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8)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18) | 0.0 | 0.0 | 5.6 | 0.0 | 0.0 | 0.0 |                |
|       | 고3 | (3)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6)  | 0.0 | 0.0 | 0.0 | 0.0 | 0.0 | 0.0 | 7.099<br>(10)  |
|       | 중  | (11) | 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19) | 0.0 | 0.0 | 5.3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14) | 0.0 | 0.0 | 0.0 | 0.0 | 0.0 | 0.0 | 13.195<br>(10) |
|       | 중  | (13) | 0.0 | 0.0 | 7.7 | 0.0 | 0.0 | 0.0 |                |
|       | 하  | (9)  | 0.0 | 0.0 | 0.0 | 0.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3) | 0.0 | 0.0 | 4.3 | 0.0 | 0.0 | 0.0 | 5.968<br>(5)   |
|       | 부정 | (13) | 0.0 | 0.0 | 0.0 | 0.0 | 0.0 | 0.0 |                |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⑪ 해외 구매/직구

⑫ 기타

다음은 의료용 약물을 비의료적으로 사용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이다. 전체 응답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완화(41.7%)였고, 다음이 집중력·학업 성과 향상(27.8%), 외모 개선 및 체중 조절(11.1%), 호기심·새로운 경험(8.3%)이 뒤를 이었다.

집단별 특징을 보면, 남녀학생 모두 우울감·불안 등 심리적 고통 완화 및 집중력·학업 성과 향상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외모 개선 및 체중 조절 또한 16.7% 차지해 정서·신체 이미지 요인이 두드러졌다. 반면, 남학생은 호기심 11.1%, 기분 전환

11.1%로 높은 편에 속해, 감정적 요소로 인한 사용이 발견되었다. 학업성취수준에서는 성적 ‘상’ 학생은 집중력 향상과 공부 능력 향상이 50%로 가장 많았으나, 성적 ‘하’ 학생의 경우 심리적 고통 완화가 47.4%였다. 상위권은 성적 압박·몰입 동기인 반면, 하위권은 정서적 부담·고통 완화 동기가 주요 촉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비의료적 약물 사용의 중심 동기는 ‘쾌락 추구’보다는 ‘정서적 고통 완화와 수행(학업)압박 대응’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 차원의 우울·불안 관련 심리상담 접근성 확대, 시험·입시 시기 비약물적 집중·수면·시간관리 코칭 및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과 상담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80.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36) | 8.3   | 0.0 | 8.3  | 11.1 | 27.8  | 41.7 | 0.0 | 2.8 |                |
| 성별    | 남  | (18) | 11.1  | 0.0 | 11.1 | 5.6  | 33.3  | 38.9 | 0.0 | 0.0 | 3.133          |
|       | 여  | (18) | 5.6   | 0.0 | 5.6  | 16.7 | 22.2  | 44.4 | 0.0 | 5.6 | (5)            |
| 교급    | 중  | (7)  | 14.3  | 0.0 | 14.3 | 0.0  | 42.9  | 28.6 | 0.0 | 0.0 | 3.015          |
|       | 고  | (29) | 6.9   | 0.0 | 6.9  | 13.8 | 24.1  | 44.8 | 0.0 | 3.4 | (5)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26.733<br>(25) |
|       | 중2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 중3 | (5)  | 0.0   | 0.0 | 20.0 | 0.0  | 40.0  | 40.0 | 0.0 | 0.0 |                |
|       | 고1 | (8)  | 0.0   | 0.0 | 0.0  | 0.0  | 25.0  | 75.0 | 0.0 | 0.0 |                |
|       | 고2 | (18) | 5.6   | 0.0 | 11.1 | 22.2 | 22.2  | 33.3 | 0.0 | 5.6 |                |
|       | 고3 | (3)  | 33.3  | 0.0 | 0.0  | 0.0  | 33.3  | 33.3 | 0.0 | 0.0 |                |
| 성적    | 상  | (6)  | 16.7  | 0.0 | 0.0  | 0.0  | 50.0  | 33.3 | 0.0 | 0.0 | 5.980<br>(10)  |
|       | 중  | (11) | 9.1   | 0.0 | 9.1  | 9.1  | 36.4  | 36.4 | 0.0 | 0.0 |                |
|       | 하  | (19) | 5.3   | 0.0 | 10.5 | 15.8 | 15.8  | 47.4 | 0.0 | 5.3 |                |
| 가구 소득 | 상  | (14) | 21.4  | 0.0 | 0.0  | 7.1  | 35.7  | 35.7 | 0.0 | 0.0 | 10.871<br>(10) |
|       | 중  | (13) | 0.0   | 0.0 | 7.7  | 15.4 | 23.1  | 46.2 | 0.0 | 7.7 |                |
|       | 하  | (9)  | 0.0   | 0.0 | 22.2 | 11.1 | 22.2  | 44.4 | 0.0 | 0.0 |                |
| 자아    | 긍정 | (23) | 8.7   | 0.0 | 13.0 | 13.0 | 30.4  | 34.8 | 0.0 | 0.0 | 4.575          |
| 긍정    | 부정 | (13) | 7.7   | 0.0 | 0.0  | 7.7  | 23.1  | 53.8 | 0.0 | 7.7 | (5)            |

- 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 ② 친구나 또래의 권유로 인해
- ③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 ④ 외모를 개선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 ⑤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 ⑥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
- ⑦ 근육을 키우거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 ⑧ 기타



다음은 약물을 사용한 이후 응답자가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이다. 먼저 “만족감을 느꼈다”에 대한 결과, 전체 평균은 3.1점으로 중립에 가까웠다.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8.6%, ‘그렇다’ 37.1%, ‘보통이다’ 34.3%로, 비의로직 약물 사용이 확실한 만족감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3-4명 정도 수준이었다.

집단별로는 여학생 평균(3.4점)과 ‘그렇다’ 비율(47.1%)이 남학생(2.9점, 27.8%)보다 높아, 여학생이 단기적 정서 완화·효과 체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만족한 비율이 46.4%이나, 중학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없었으나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그렇다’의 비율이 41.7%로 높은 집단(30.4%)보다 응답율이 높아 정서적 취약성이 있을수록 단기적 만족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약물 사용 후 만족감은 전반적으로 보통의 수준이었으나, 정서 조절이나 수행 압박을 크게 느끼는 일부 집단에서는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III-81.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35) | 14.3                 | 14.3                 | 34.3          | 17.1     | 20.0           | 28.6             | 37.1       | 3.1 | 1.3      |                   |
| 성별       | 남  | (18) | 16.7                 | 11.1                 | 44.4          | 22.2     | 5.6            | 27.8             | 27.8       | 2.9 | 1.1      | -1.188<br>(0.243) |
|          | 여  | (17) | 11.8                 | 17.6                 | 23.5          | 11.8     | 35.3           | 29.4             | 47.1       | 3.4 | 1.5      |                   |
| 교급       | 중  | (7)  | 14.3                 | 28.6                 | 57.1          | 0.0      | 0.0            | 42.9             | 0.0        | 2.4 | 0.8      | -1.654<br>(0.108) |
|          | 고  | (28) | 14.3                 | 10.7                 | 28.6          | 21.4     | 25.0           | 25.0             | 46.4       | 3.3 | 1.4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2.418<br>(0.060)  |
|          | 중2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0 | -        |                   |
|          | 중3 | (5)  | 0.0                  | 40.0                 | 60.0          | 0.0      | 0.0            | 40.0             | 0.0        | 2.6 | 0.5      |                   |
|          | 고1 | (8)  | 25.0                 | 0.0                  | 50.0          | 12.5     | 12.5           | 25.0             | 25.0       | 2.9 | 1.4      |                   |
|          | 고2 | (17) | 0.0                  | 17.6                 | 23.5          | 23.5     | 35.3           | 17.6             | 58.8       | 3.8 | 1.1      |                   |
|          | 고3 | (3)  | 66.7                 | 0.0                  | 0.0           | 33.3     | 0.0            | 66.7             | 33.3       | 2.0 | 1.7      |                   |
| 성적       | 상  | (6)  | 16.7                 | 0.0                  | 50.0          | 0.0      | 33.3           | 16.7             | 33.3       | 3.3 | 1.5      | 0.103<br>(0.903)  |
|          | 중  | (11) | 9.1                  | 18.2                 | 36.4          | 18.2     | 18.2           | 27.3             | 36.4       | 3.2 | 1.3      |                   |
|          | 하  | (18) | 16.7                 | 16.7                 | 27.8          | 22.2     | 16.7           | 33.3             | 38.9       | 3.1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4) | 7.1                  | 7.1                  | 42.9          | 14.3     | 28.6           | 14.3             | 42.9       | 3.5 | 1.2      | 1.054<br>(0.360)  |
|          | 중  | (13) | 23.1                 | 15.4                 | 30.8          | 23.1     | 7.7            | 38.5             | 30.8       | 2.8 | 1.3      |                   |
|          | 하  | (8)  | 12.5                 | 25.0                 | 25.0          | 12.5     | 25.0           | 37.5             | 37.5       | 3.1 | 1.5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17.4                 | 13.0                 | 34.8          | 21.7     | 13.0           | 30.4             | 34.8       | 3.0 | 1.3      | -0.891<br>(0.379) |
|          | 부정 | (12) | 8.3                  | 16.7                 | 33.3          | 8.3      | 33.3           | 25.0             | 41.7       | 3.4 | 1.4      |                   |

다음은 약물 사용 후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평균은 2.0점으로 부정적 정서가 전반적으로 강하지 않았고, 응답 분포도 ‘그렇지 않다’가 68.6%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통’은 23.4%, ‘그렇다’는 5.7%에 그쳐, 실제 약물 사용 후 후회·불안을 느낀 비율은 약 20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집단별 차이에서는 여학생(5.9%)이 남학생(5.6%)보다 약간 높아 후회·불안 응답이 소폭 많았고, 학년에서도 고2에서 ‘그렇다’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11.8%) 전체 경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평균 2.3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아, 정서적 취약성이 있는 학생에게 후회·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세부 집단의 표본 수가 작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다. 종합하면, 비의료적 약물 사용 후 즉각적인 후회나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은 소수이지만, 자아긍정이 낮거나 특정 학년에서 체감 위험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표 III-82.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단위: (명), %)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35) | 42.9                 | 25.7                 | 25.7          | 2.9      | 2.9            | 68.6             | 5.7        | 2.0 | 1.0      |                   |
| 성별       | 남  | (18) | 44.4                 | 16.7                 | 33.3          | 5.6      | 0.0            | 61.1             | 5.6        | 2.0 | 1.0      | 0.164<br>(0.870)  |
|          | 여  | (17) | 41.2                 | 35.3                 | 17.6          | 0.0      | 5.9            | 76.5             | 5.9        | 1.9 | 1.1      |                   |
| 교급       | 중  | (7)  | 57.1                 | 28.6                 | 14.3          | 0.0      | 0.0            | 85.7             | 0.0        | 1.6 | 0.8      | -1.140<br>(0.263) |
|          | 고  | (28) | 39.3                 | 25.0                 | 28.6          | 3.6      | 3.6            | 64.3             | 7.1        | 2.1 | 1.1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519<br>(0.760)  |
|          | 중2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중3 | (5)  | 40.0                 | 40.0                 | 20.0          | 0.0      | 0.0            | 80.0             | 0.0        | 1.8 | 0.8      |                   |
|          | 고1 | (8)  | 37.5                 | 25.0                 | 37.5          | 0.0      | 0.0            | 62.5             | 0.0        | 2.0 | 0.9      |                   |
|          | 고2 | (17) | 35.3                 | 29.4                 | 23.5          | 5.9      | 5.9            | 64.7             | 11.8       | 2.2 | 1.2      |                   |
|          | 고3 | (3)  | 66.7                 | 0.0                  | 33.3          | 0.0      | 0.0            | 66.7             | 0.0        | 1.7 | 1.2      |                   |
| 성적       | 상  | (6)  | 66.7                 | 0.0                  | 16.7          | 16.7     | 0.0            | 66.7             | 16.7       | 1.8 | 1.3      | 0.124<br>(0.884)  |
|          | 중  | (11) | 27.3                 | 36.4                 | 36.4          | 0.0      | 0.0            | 63.6             | 0.0        | 2.1 | 0.8      |                   |
|          | 하  | (18) | 44.4                 | 27.8                 | 22.2          | 0.0      | 5.6            | 72.2             | 5.6        | 1.9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4) | 42.9                 | 21.4                 | 21.4          | 7.1      | 7.1            | 64.3             | 14.3       | 2.1 | 1.3      | 0.621<br>(0.544)  |
|          | 중  | (13) | 30.8                 | 38.5                 | 30.8          | 0.0      | 0.0            | 69.2             | 0.0        | 2.0 | 0.8      |                   |
|          | 하  | (8)  | 62.5                 | 12.5                 | 25.0          | 0.0      | 0.0            | 75.0             | 0.0        | 1.6 | 0.9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47.8                 | 30.4                 | 17.4          | 4.3      | 0.0            | 78.3             | 4.3        | 1.8 | 0.9      | -1.511<br>(0.140) |
|          | 부정 | (12) | 33.3                 | 16.7                 | 41.7          | 0.0      | 8.3            | 50.0             | 8.3        | 2.3 | 1.2      |                   |

약물 사용 후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다”에 대한 결과로, ‘그렇지 않다’가 77.1%로 다수였고, ‘그렇다’는 14.3%, ‘보통이다’는 8.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그렇다’의 응답이 각각 16.7%, 11.8%였으며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소수 집단에서 ‘끊기 어려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3(표본 3명)의 경우 33.3%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적 중 집단(27.3%), 가구소득 상 집단 28.6%로 일부에서 동의율이 다소 높았다. 이는 수능·입시 등 고강도 학업 스트레스 상황이나 구매력이 있을 경우 약물의 ‘도구적 사용’이 습관화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군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83.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다

(단위: (명), %)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35) | 54.3                 | 22.9                 | 8.6           | 8.6      | 5.7            | 77.1             | 14.3       | 1.9 | 1.2      |                   |
| 성별       | 남  | (18) | 61.1                 | 11.1                 | 11.1          | 16.7     | 0.0            | 72.2             | 16.7       | 1.8 | 1.2      | -0.255<br>(0.800) |
|          | 여  | (17) | 47.1                 | 35.3                 | 5.9           | 0.0      | 11.8           | 82.4             | 11.8       | 1.9 | 1.3      |                   |
| 교급       | 중  | (7)  | 71.4                 | 14.3                 | 14.3          | 0.0      | 0.0            | 85.7             | 0.0        | 1.4 | 0.8      | -1.102<br>(0.279) |
|          | 고  | (28) | 50.0                 | 25.0                 | 7.1           | 10.7     | 7.1            | 75.0             | 17.9       | 2.0 | 1.3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368<br>(0.866)  |
|          | 중2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중3 | (5)  | 60.0                 | 20.0                 | 20.0          | 0.0      | 0.0            | 80.0             | 0.0        | 1.6 | 0.9      |                   |
|          | 고1 | (8)  | 37.5                 | 25.0                 | 12.5          | 25.0     | 0.0            | 62.5             | 25.0       | 2.3 | 1.3      |                   |
|          | 고2 | (17) | 52.9                 | 29.4                 | 5.9           | 0.0      | 11.8           | 82.4             | 11.8       | 1.9 | 1.3      |                   |
|          | 고3 | (3)  | 66.7                 | 0.0                  | 0.0           | 33.3     | 0.0            | 66.7             | 33.3       | 2.0 | 1.7      |                   |
| 성적       | 상  | (6)  | 83.3                 | 0.0                  | 0.0           | 16.7     | 0.0            | 83.3             | 16.7       | 1.5 | 1.2      | 1.840<br>(0.175)  |
|          | 중  | (11) | 27.3                 | 36.4                 | 9.1           | 18.2     | 9.1            | 63.6             | 27.3       | 2.5 | 1.4      |                   |
|          | 하  | (18) | 61.1                 | 22.2                 | 11.1          | 0.0      | 5.6            | 83.3             | 5.6        | 1.7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4) | 57.1                 | 14.3                 | 0.0           | 21.4     | 7.1            | 71.4             | 28.6       | 2.1 | 1.5      | 0.543<br>(0.586)  |
|          | 중  | (13) | 46.2                 | 30.8                 | 15.4          | 0.0      | 7.7            | 76.9             | 7.7        | 1.9 | 1.2      |                   |
|          | 하  | (8)  | 62.5                 | 25.0                 | 12.5          | 0.0      | 0.0            | 87.5             | 0.0        | 1.5 | 0.8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52.2                 | 26.1                 | 8.7           | 13.0     | 0.0            | 78.3             | 13.0       | 1.8 | 1.1      | -0.392<br>(0.698) |
|          | 부정 | (12) | 58.3                 | 16.7                 | 8.3           | 0.0      | 16.7           | 75.0             | 16.7       | 2.0 | 1.5      |                   |

약물 사용 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 대한 결과, ‘그렇다’는 48.6%, ‘그렇지 않다’는 22.9%, ‘보통이다’ 28.6%, 평균 점수 3.4점으로, 10명 중 5명 정도는 지속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성별과 자아긍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33.3%)보다 여학생(64.7%)이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의사가 66.7%로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 39.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비사용 의사는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고1의 경우 약 65%가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과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계속 사용할 의향’이 높게 나온 것은 동기구조와 지각된 효용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은 외모·체중·각성도 관리 같은 기능적 측면이 비교적 분명하여 잠재 위험보다는 잠재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할 경향이 크다.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정서 조절 및 수행 불안 관리에서 약물을 외적 도구 의존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소수의 ‘효과 경험’이 자기효능감의 대체물로 작동하여 습관화 경로에 진입할 가능성도 클 것이다. 이에 ‘위험 경고’의 개입만으로는 그 관리가 부족하며,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84.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35) | 14.3                 | 8.6                  | 28.6          | 22.9     | 25.7           | 22.9             | 48.6       | 3.4 | 1.4      |                     |
| 성별       | 남  | (18) | 27.8                 | 0.0                  | 38.9          | 27.8     | 5.6            | 27.8             | 33.3       | 2.8 | 1.3      | -2.624<br>*(0.013)  |
|          | 여  | (17) | 0.0                  | 17.6                 | 17.6          | 17.6     | 47.1           | 17.6             | 64.7       | 3.9 | 1.2      |                     |
| 교급       | 중  | (7)  | 28.6                 | 14.3                 | 28.6          | 14.3     | 14.3           | 42.9             | 28.6       | 2.7 | 1.5      | -1.461<br>(0.153)   |
|          | 고  | (28) | 10.7                 | 7.1                  | 28.6          | 25.0     | 28.6           | 17.9             | 53.6       | 3.5 | 1.3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2.332<br>(0.068)    |
|          | 중2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4.0 | -        |                     |
|          | 중3 | (5)  | 20.0                 | 20.0                 | 40.0          | 0.0      | 20.0           | 40.0             | 20.0       | 2.8 | 1.5      |                     |
|          | 고1 | (8)  | 25.0                 | 12.5                 | 25.0          | 25.0     | 12.5           | 37.5             | 37.5       | 2.9 | 1.5      |                     |
|          | 고2 | (17) | 0.0                  | 5.9                  | 29.4          | 23.5     | 41.2           | 5.9              | 64.7       | 4.0 | 1.0      |                     |
|          | 고3 | (3)  | 33.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2.7 | 1.5      |                     |
| 성적       | 상  | (6)  | 16.7                 | 0.0                  | 33.3          | 33.3     | 16.7           | 16.7             | 50.0       | 3.3 | 1.4      | 0.183<br>(0.834)    |
|          | 중  | (11) | 9.1                  | 27.3                 | 27.3          | 9.1      | 27.3           | 36.4             | 36.4       | 3.2 | 1.4      |                     |
|          | 하  | (18) | 16.7                 | 0.0                  | 27.8          | 27.8     | 27.8           | 16.7             | 55.6       | 3.5 | 1.4      |                     |
| 가구<br>소득 | 상  | (14) | 7.1                  | 7.1                  | 28.6          | 28.6     | 28.6           | 14.3             | 57.1       | 3.6 | 1.2      | 0.576<br>(0.568)    |
|          | 중  | (13) | 23.1                 | 7.7                  | 23.1          | 30.8     | 15.4           | 30.8             | 46.2       | 3.1 | 1.4      |                     |
|          | 하  | (8)  | 12.5                 | 12.5                 | 37.5          | 0.0      | 37.5           | 25.0             | 37.5       | 3.4 | 1.5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21.7                 | 13.0                 | 26.1          | 26.1     | 13.0           | 34.8             | 39.1       | 3.0 | 1.4      | -2.744<br>**(0.010) |
|          | 부정 | (12) | 0.0                  | 0.0                  | 33.3          | 16.7     | 50.0           | 0.0              | 66.7       | 4.2 | 0.9      |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에 대한 응답 전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부정 응답은 71.4%로 과반을 넘어섰고, 평균 점수도 2.0으로 대체로 부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세부 집단을 보면 여학생(29.4%)이 남학생(0.0%)보다 부정적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하’·‘자아긍정 부정’ 집단에서도 ‘그렇다’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각각 16.7%, 25.0%). 즉, 전체적으로는 생활 저해 경험이 흔치 않지만, 정서·자기평가가 낮거나 학업 스트레스가 큰 일부 집단에서는 수면 교란·집중력 저하 등 기능적 부정을 체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II-85. 약물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35) | 45.7                 | 25.7                 | 14.3          | 8.6      | 5.7            | 71.4             | 14.3       | 2.0 | 1.2      |                   |
| 성별       | 남  | (18) | 50.0                 | 33.3                 | 16.7          | 0.0      | 0.0            | 83.3             | 0.0        | 1.7 | 0.8      | -1.832<br>(0.080) |
|          | 여  | (17) | 41.2                 | 17.6                 | 11.8          | 17.6     | 11.8           | 58.8             | 29.4       | 2.4 | 1.5      |                   |
| 교급       | 중  | (7)  | 71.4                 | 14.3                 | 14.3          | 0.0      | 0.0            | 85.7             | 0.0        | 1.4 | 0.8      | -1.474<br>(0.150) |
|          | 고  | (28) | 39.3                 | 28.6                 | 14.3          | 10.7     | 7.1            | 67.9             | 17.9       | 2.2 | 1.3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597<br>(0.702)  |
|          | 중2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중3 | (5)  | 60.0                 | 20.0                 | 20.0          | 0.0      | 0.0            | 80.0             | 0.0        | 1.6 | 0.9      |                   |
|          | 고1 | (8)  | 12.5                 | 50.0                 | 25.0          | 12.5     | 0.0            | 62.5             | 12.5       | 2.4 | 0.9      |                   |
|          | 고2 | (17) | 47.1                 | 23.5                 | 5.9           | 11.8     | 11.8           | 70.6             | 23.5       | 2.2 | 1.5      |                   |
|          | 고3 | (3)  | 66.7                 | 0.0                  | 33.3          | 0.0      | 0.0            | 66.7             | 0.0        | 1.7 | 1.2      |                   |
| 성적       | 상  | (6)  | 50.0                 | 16.7                 | 16.7          | 0.0      | 16.7           | 66.7             | 16.7       | 2.2 | 1.6      | 0.090<br>(0.914)  |
|          | 중  | (11) | 36.4                 | 27.3                 | 27.3          | 9.1      | 0.0            | 63.6             | 9.1        | 2.1 | 1.0      |                   |
|          | 하  | (18) | 50.0                 | 27.8                 | 5.6           | 11.1     | 5.6            | 77.8             | 16.7       | 1.9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4) | 50.0                 | 21.4                 | 14.3          | 7.1      | 7.1            | 71.4             | 14.3       | 2.0 | 1.3      | 0.174<br>(0.841)  |
|          | 중  | (13) | 38.5                 | 38.5                 | 15.4          | 7.7      | 0.0            | 76.9             | 7.7        | 1.9 | 1.0      |                   |
|          | 하  | (8)  | 50.0                 | 12.5                 | 12.5          | 12.5     | 12.5           | 62.5             | 25.0       | 2.3 | 1.6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 | 47.8                 | 30.4                 | 13.0          | 4.3      | 4.3            | 78.3             | 8.7        | 1.9 | 1.1      | -1.066<br>(0.294) |
|          | 부정 | (12) | 41.7                 | 16.7                 | 16.7          | 16.7     | 8.3            | 58.3             | 25.0       | 2.3 | 1.4      |                   |

#### 4) 의료용 마약류/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의료용 마약류/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와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은 각각 평균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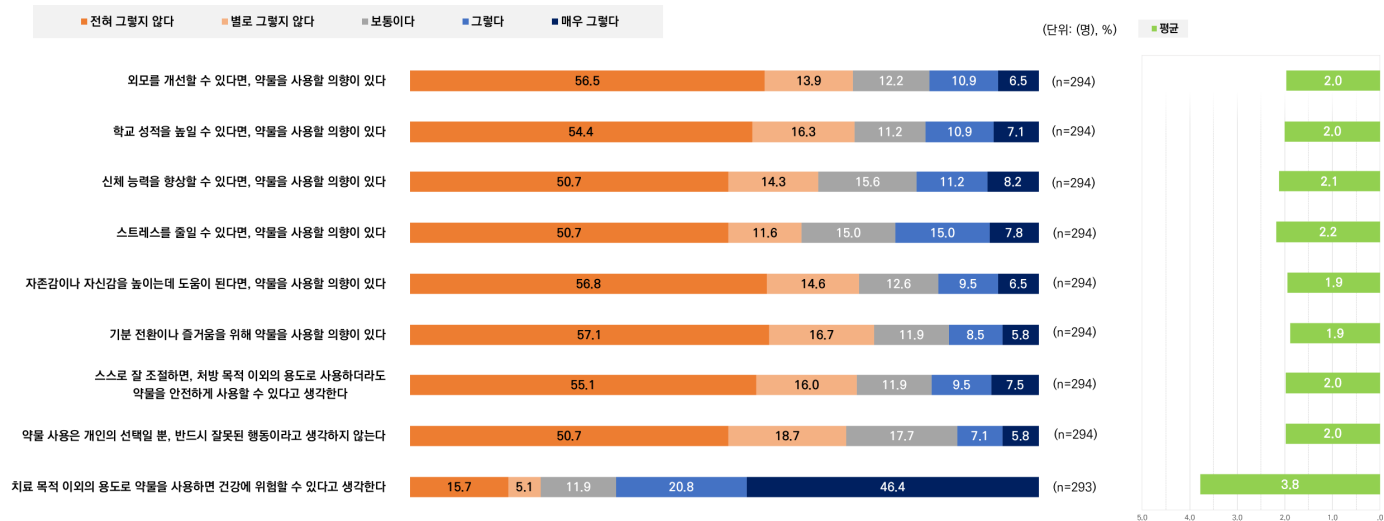


그림 III-24. 의료용 마약류/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

다음은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이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0.4%였으며, 동의하는 비율은 17.3, 보통이다의 비율은 12.2%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성별, 교급, 자아 긍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동의 32.3% 비중과 평균 2.5점으로 남학생(13.2%, 평균 1.8점)보다 높아, 외모·체형 규범에 대한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급에서는 고등학생(19.7%)이 중학생(11.6%)보다 동의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는 또래 문화·입시 스트레스와 함께 체형·이미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의 동의는 30.4%로 비동의 14.3% 응답의 절반 수준으로, 신체만족도 등이 낮을수록 외모 개선 목적의 약물 사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시사해, 지속적인 관찰 필요성이 보인다.

표 III-86.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94) | 56.5                 | 13.9                 | 12.2          | 10.9     | 6.5            | 70.4             | 17.3       | 2.0 | 1.3      |                          |
| 성별       | 남  | (228) | 61.4                 | 14.5                 | 11.0          | 8.8      | 4.4            | 75.9             | 13.2       | 1.8 | 1.2      | -3.615<br>***<br>(0.000) |
|          | 여  | (65)  | 40.0                 | 12.3                 | 15.4          | 18.5     | 13.8           | 52.3             | 32.3       | 2.5 | 1.5      |                          |
| 교급       | 중  | (86)  | 64.0                 | 12.8                 | 11.6          | 8.1      | 3.5            | 76.7             | 11.6       | 1.7 | 1.2      | -2.035<br>*(0.043)       |
|          | 고  | (208) | 53.4                 | 14.4                 | 12.5          | 12.0     | 7.7            | 67.8             | 19.7       | 2.1 | 1.4      |                          |
| 학년       | 중1 | (5)   | 80.0                 | 20.0                 | 0.0           | 0.0      | 0.0            | 100.0            | 0.0        | 1.2 | 0.4      |                          |
|          | 중2 | (33)  | 72.7                 | 9.1                  | 12.1          | 6.1      | 0.0            | 81.8             | 6.1        | 1.5 | 0.9      |                          |
|          | 중3 | (48)  | 56.3                 | 14.6                 | 12.5          | 10.4     | 6.3            | 70.8             | 16.7       | 2.0 | 1.3      | 1.763<br>(0.120)         |
|          | 고1 | (66)  | 53.0                 | 16.7                 | 16.7          | 12.1     | 1.5            | 69.7             | 13.6       | 1.9 | 1.2      |                          |
|          | 고2 | (87)  | 55.2                 | 11.5                 | 6.9           | 10.3     | 16.1           | 66.7             | 26.4       | 2.2 | 1.6      |                          |
|          | 고3 | (55)  | 50.9                 | 16.4                 | 16.4          | 14.5     | 1.8            | 67.3             | 16.4       | 2.0 | 1.2      |                          |
| 성적       | 상  | (34)  | 55.9                 | 11.8                 | 11.8          | 14.7     | 5.9            | 67.6             | 20.6       | 2.0 | 1.4      |                          |
|          | 중  | (54)  | 63.0                 | 11.1                 | 9.3           | 13.0     | 3.7            | 74.1             | 16.7       | 1.8 | 1.3      | 0.367<br>(0.693)         |
|          | 하  | (206) | 54.9                 | 15.0                 | 13.1          | 9.7      | 7.3            | 69.9             | 17.0       | 2.0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5.5                 | 10.3                 | 6.0           | 12.1     | 6.0            | 75.9             | 18.1       | 1.8 | 1.3      |                          |
|          | 중  | (101) | 51.5                 | 13.9                 | 16.8          | 10.9     | 6.9            | 65.3             | 17.8       | 2.1 | 1.3      | 1.067<br>(0.345)         |
|          | 하  | (76)  | 50.0                 | 19.7                 | 15.8          | 9.2      | 5.3            | 69.7             | 14.5       | 2.0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60.9                 | 14.7                 | 10.1          | 9.2      | 5.0            | 75.6             | 14.3       | 1.8 | 1.2      | -3.523<br>***<br>(0.001) |
|          | 부정 | (56)  | 37.5                 | 10.7                 | 21.4          | 17.9     | 12.5           | 48.2             | 30.4       | 2.6 | 1.5      |                          |



다음은 “학교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294명 중 70.7%가 ‘그렇지 않다’, 18.0%가 ‘그렇다’, 11.2%가 ‘보통이다’로 전반적으로 학교 성적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학생의 ‘그렇다’ 응답 비율이 14.9%로 여학생 29.2%보다 낮아,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약물 사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수준별로는 상·중·하 모두 부정 응답이 다수였으나, 상위권 20.6%가 긍정으로 대답하여 경쟁과 압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평균 2.0 내외로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련성은 낮은 편이었다. 반면, 자아긍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은 15.1%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 집단에서는 30.4% 답하여 자아긍정이 부정적일수록 성적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을 비교적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7.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학교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4.4                 | 16.3                 | 11.2          | 10.9     | 7.1            | 70.7             | 18.0       | 2.0 | 1.3      |                      |
| 성별       | 남  | (228) | 57.5                 | 15.8                 | 11.8          | 9.6      | 5.3            | 73.2             | 14.9       | 1.9 | 1.2      | -2.311<br>*(0.023)   |
|          | 여  | (65)  | 44.6                 | 16.9                 | 9.2           | 15.4     | 13.8           | 61.5             | 29.2       | 2.4 | 1.5      |                      |
| 교급       | 중  | (86)  | 62.8                 | 12.8                 | 11.6          | 10.5     | 2.3            | 75.6             | 12.8       | 1.8 | 1.2      | -2.097<br>*(0.037)   |
|          | 고  | (208) | 51.0                 | 17.8                 | 11.1          | 11.1     | 9.1            | 68.8             | 20.2       | 2.1 | 1.4      |                      |
| 학년       | 중1 | (5)   | 80.0                 | 20.0                 | 0.0           | 0.0      | 0.0            | 100.0            | 0.0        | 1.2 | 0.4      | 1.451<br>(0.206)     |
|          | 중2 | (33)  | 66.7                 | 15.2                 | 3.0           | 15.2     | 0.0            | 81.8             | 15.2       | 1.7 | 1.1      |                      |
|          | 중3 | (48)  | 58.3                 | 10.4                 | 18.8          | 8.3      | 4.2            | 68.8             | 12.5       | 1.9 | 1.2      |                      |
|          | 고1 | (66)  | 50.0                 | 22.7                 | 12.1          | 10.6     | 4.5            | 72.7             | 15.2       | 2.0 | 1.2      |                      |
|          | 고2 | (87)  | 51.7                 | 16.1                 | 6.9           | 6.9      | 18.4           | 67.8             | 25.3       | 2.2 | 1.6      |                      |
|          | 고3 | (55)  | 50.9                 | 14.5                 | 16.4          | 18.2     | 0.0            | 65.5             | 18.2       | 2.0 | 1.2      |                      |
| 성적       | 상  | (34)  | 52.9                 | 11.8                 | 14.7          | 11.8     | 8.8            | 64.7             | 20.6       | 2.1 | 1.4      | 0.331<br>(0.719)     |
|          | 중  | (54)  | 53.7                 | 20.4                 | 13.0          | 9.3      | 3.7            | 74.1             | 13.0       | 1.9 | 1.2      |                      |
|          | 하  | (206) | 54.9                 | 16.0                 | 10.2          | 11.2     | 7.8            | 70.9             | 18.9       | 2.0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59.5                 | 15.5                 | 8.6           | 8.6      | 7.8            | 75.0             | 16.4       | 1.9 | 1.3      | 0.551<br>(0.577)     |
|          | 중  | (101) | 50.5                 | 14.9                 | 16.8          | 11.9     | 5.9            | 65.3             | 17.8       | 2.1 | 1.3      |                      |
|          | 하  | (76)  | 52.6                 | 19.7                 | 7.9           | 11.8     | 7.9            | 72.4             | 19.7       | 2.0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57.6                 | 17.2                 | 10.1          | 9.7      | 5.5            | 74.8             | 15.1       | 1.9 | 1.2      | -2.837<br>***(0.006) |
|          | 부정 | (56)  | 41.1                 | 12.5                 | 16.1          | 16.1     | 14.3           | 53.6             | 30.4       | 2.5 | 1.5      |                      |



다음은 “신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294명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는 65.0%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렇다’는 19.4%, 보통은 15.6%였으며, 평균 2.1점으로 전반적으로 신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약물 사용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의 부정 응답이 66%, 긍정 응답은 18.4%였고, 여학생은 각각 61.5%, 23.1%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허용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않았다. 학교급과 학년에서도 대체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허용성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교급·학년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적 수준별로는 하위권(동의 19.9%)일수록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 허용을 비교적 더 인정하지만(상 17.6%, 중 18.5%), 세 집단 모두에서 부정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반면, 자아긍정 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아긍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동의비율이 15.1%인 반면 부정적 집단은 37.5%로, 자아긍정 수준이 낮을수록 신체 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 사용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88.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신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294)    | 50.7                 | 14.3                 | 15.6          | 11.2     | 8.2            | 65.0             | 19.4       | 2.1 | 1.4      |                     |
| 성별       | 남 (228)  | 51.3                 | 14.9                 | 15.4          | 11.0     | 7.5            | 66.2             | 18.4       | 2.1 | 1.3      | -0.772<br>(0.441)   |
|          | 여 (65)   | 49.2                 | 12.3                 | 15.4          | 12.3     | 10.8           | 61.5             | 23.1       | 2.2 | 1.4      |                     |
| 교급       | 중 (86)   | 54.7                 | 14.0                 | 19.8          | 9.3      | 2.3            | 68.6             | 11.6       | 1.9 | 1.2      | -1.886<br>(0.061)   |
|          | 고 (208)  | 49.0                 | 14.4                 | 13.9          | 12.0     | 10.6           | 63.5             | 22.6       | 2.2 | 1.4      |                     |
| 학년       | 중1 (5)   | 60.0                 | 40.0                 | 0.0           | 0.0      | 0.0            | 100.0            | 0.0        | 1.4 | 0.5      | 1.358<br>(0.240)    |
|          | 중2 (33)  | 57.6                 | 6.1                  | 21.2          | 15.2     | 0.0            | 63.6             | 15.2       | 1.9 | 1.2      |                     |
|          | 중3 (48)  | 52.1                 | 16.7                 | 20.8          | 6.3      | 4.2            | 68.8             | 10.4       | 1.9 | 1.2      |                     |
|          | 고1 (66)  | 47.0                 | 25.8                 | 12.1          | 9.1      | 6.1            | 72.7             | 15.2       | 2.0 | 1.2      |                     |
|          | 고2 (87)  | 47.1                 | 11.5                 | 13.8          | 10.3     | 17.2           | 58.6             | 27.6       | 2.4 | 1.6      |                     |
|          | 고3 (55)  | 54.5                 | 5.5                  | 16.4          | 18.2     | 5.5            | 60.0             | 23.6       | 2.1 | 1.4      |                     |
| 성적       | 상 (34)   | 50.0                 | 17.6                 | 14.7          | 5.9      | 11.8           | 67.6             | 17.6       | 2.1 | 1.4      | 0.002<br>(0.998)    |
|          | 중 (54)   | 48.1                 | 16.7                 | 16.7          | 11.1     | 7.4            | 64.8             | 18.5       | 2.1 | 1.3      |                     |
|          | 하 (206)  | 51.5                 | 13.1                 | 15.5          | 12.1     | 7.8            | 64.6             | 19.9       | 2.1 | 1.4      |                     |
| 가구<br>소득 | 상 (116)  | 60.3                 | 12.1                 | 12.9          | 7.8      | 6.9            | 72.4             | 14.7       | 1.9 | 1.3      | 2.766<br>(0.065)    |
|          | 중 (101)  | 43.6                 | 16.8                 | 15.8          | 13.9     | 9.9            | 60.4             | 23.8       | 2.3 | 1.4      |                     |
|          | 하 (76)   | 46.1                 | 14.5                 | 19.7          | 11.8     | 7.9            | 60.5             | 19.7       | 2.2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238) | 53.8                 | 16.0                 | 15.1          | 8.8      | 6.3            | 69.7             | 15.1       | 2.0 | 1.3      | -3.306<br>**(0.001) |
|          | 부정 (56)  | 37.5                 | 7.1                  | 17.9          | 21.4     | 16.1           | 44.6             | 37.5       | 2.7 | 1.5      |                     |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294명 중 ‘그렇지 않다’는 62.2%, ‘그렇다’는 22.8%, ‘보통이다’는 15.0%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완화를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 의향은 낮은 편이다.

집단별 차이를 보면,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1%, 그렇다는 응답이 17.1%(평균 2.0)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2%, 그렇다는 응답이 41.5%로, 여학생의 허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급과 학년에 따라서는 고등학생(25.0%)이 중학생(17.4%)보다 약물 사용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학년별로는 상급학년일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지는 모습이지만, 학년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는 근접하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자아긍정 수준에 따른 차이는 매우 뚜렷했다.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은 평균 2.0점으로 ‘그렇지 않다’가 68.1%로 높았으나, 부정적인 집단은 평균 3.1점, 약물 사용 의향 비율이 46.4%로 높았다. 이는 자아긍정 저하가 스트레스 대처수단으로 약물 사용을 고려하게 만드는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III-89.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0.7                 | 11.6                 | 15.0          | 15.0     | 7.8            | 62.2             | 22.8       | 2.2 | 1.4      |                  |
| 성별       | 남  | (228) | 53.9                 | 13.2                 | 15.8          | 11.8     | 5.3            | 67.1             | 17.1       | 2.0 | 1.3      | -3.295           |
|          | 여  | (65)  | 40.0                 | 6.2                  | 12.3          | 24.6     | 16.9           | 46.2             | 41.5       | 2.7 | 1.6      | **(0.001)        |
| 교급       | 중  | (86)  | 53.5                 | 14.0                 | 15.1          | 16.3     | 1.2            | 67.4             | 17.4       | 2.0 | 1.2      | -1.717           |
|          | 고  | (208) | 49.5                 | 10.6                 | 14.9          | 14.4     | 10.6           | 60.1             | 25.0       | 2.3 | 1.5      | (0.088)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20.0          | 0.0      | 0.0            | 80.0             | 0.0        | 1.6 | 0.9      | 2.120<br>(0.063) |
|          | 중2 | (33)  | 57.6                 | 9.1                  | 15.2          | 18.2     | 0.0            | 66.7             | 18.2       | 1.9 | 1.2      |                  |
|          | 중3 | (48)  | 50.0                 | 16.7                 | 14.6          | 16.7     | 2.1            | 66.7             | 18.8       | 2.0 | 1.2      |                  |
|          | 고1 | (66)  | 50.0                 | 24.2                 | 15.2          | 9.1      | 1.5            | 74.2             | 10.6       | 1.9 | 1.1      |                  |
|          | 고2 | (87)  | 49.4                 | 4.6                  | 14.9          | 11.5     | 19.5           | 54.0             | 31.0       | 2.5 | 1.6      |                  |
|          | 고3 | (55)  | 49.1                 | 3.6                  | 14.5          | 25.5     | 7.3            | 52.7             | 32.7       | 2.4 | 1.5      |                  |
| 성적       | 상  | (34)  | 50.0                 | 11.8                 | 17.6          | 11.8     | 8.8            | 61.8             | 20.6       | 2.2 | 1.4      | 0.039<br>(0.962) |
|          | 중  | (54)  | 51.9                 | 11.1                 | 16.7          | 13.0     | 7.4            | 63.0             | 20.4       | 2.1 | 1.4      |                  |
|          | 하  | (206) | 50.5                 | 11.7                 | 14.1          | 16.0     | 7.8            | 62.1             | 23.8       | 2.2 | 1.4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57.8                 | 10.3                 | 11.2          | 14.7     | 6.0            | 68.1             | 20.7       | 2.0 | 1.4      | 1.524<br>(0.220) |
|          | 중  | (101) | 47.5                 | 12.9                 | 18.8          | 11.9     | 8.9            | 60.4             | 20.8       | 2.2 | 1.4      |                  |
|          | 하  | (76)  | 44.7                 | 11.8                 | 15.8          | 18.4     | 9.2            | 56.6             | 27.6       | 2.4 | 1.4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55.9                 | 12.2                 | 14.7          | 13.4     | 3.8            | 68.1             | 17.2       | 2.0 | 1.3      | -4.790           |
|          | 부정 | (56)  | 28.6                 | 8.9                  | 16.1          | 21.4     | 25.0           | 37.5             | 46.4       | 3.1 | 1.6      | *** (0.000)      |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294명 중 71.4% 약물 사용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16.0%가 약물 사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9점으로, 전반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대한 약물 사용 의향은 낮은 편이다.

지반별로는 성별, 학년, 자아긍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은 ‘그렇다’의 응답이 11.4%인 것에 반해, 여학생은 32.3%로 남학생보다 허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학년별 차이도 유의미했는데, 고2가 그렇다의 비율이 26.4%, 고3이 18.2%, 고1이 6.1%로 상급 학년일수록 허용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짐작컨대 입시·진학 등 심리적 압력과 사회적 비교가 심화될수록 ‘자신감 향상’ 명목의 약물 사용을 더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긍정 수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은 평균 1.8점으로 허용 비율이 10.9%임에 반해,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평균 2.7점으로 허용 비율이 37.5%로 약물 사용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낮은 자아긍정은 약물 사용 의향을 강화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90.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6.8                 | 14.6                 | 12.6          | 9.5      | 6.5            | 71.4             | 16.0       | 1.9 | 1.3      |             |
| 성별       | 남  | (228) | 60.1                 | 14.5                 | 14.0          | 7.5      | 3.9            | 74.6             | 11.4       | 1.8 | 1.2      | -2.992      |
|          | 여  | (65)  | 44.6                 | 15.4                 | 7.7           | 16.9     | 15.4           | 60.0             | 32.3       | 2.4 | 1.6      | ** (0.004)  |
| 교급       | 중  | (86)  | 62.8                 | 14.0                 | 11.6          | 9.3      | 2.3            | 76.7             | 11.6       | 1.7 | 1.1      | -1.826      |
|          | 고  | (208) | 54.3                 | 14.9                 | 13.0          | 9.6      | 8.2            | 69.2             | 17.8       | 2.0 | 1.3      | (0.069)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20.0          | 0.0      | 0.0            | 80.0             | 0.0        | 1.6 | 0.9      |             |
|          | 중2 | (33)  | 66.7                 | 18.2                 | 9.1           | 6.1      | 0.0            | 84.8             | 6.1        | 1.5 | 0.9      |             |
|          | 중3 | (48)  | 60.4                 | 10.4                 | 12.5          | 12.5     | 4.2            | 70.8             | 16.7       | 1.9 | 1.3      |             |
|          | 고1 | (66)  | 60.6                 | 19.7                 | 13.6          | 4.5      | 1.5            | 80.3             | 6.1        | 1.7 | 1.0      | 2.583       |
|          | 고2 | (87)  | 50.6                 | 14.9                 | 8.0           | 10.3     | 16.1           | 65.5             | 26.4       | 2.3 | 1.6      | *(0.026)    |
|          | 고3 | (55)  | 52.7                 | 9.1                  | 20.0          | 14.5     | 3.6            | 61.8             | 18.2       | 2.1 | 1.3      |             |
| 성적       | 상  | (34)  | 55.9                 | 17.6                 | 11.8          | 5.9      | 8.8            | 73.5             | 14.7       | 1.9 | 1.3      |             |
|          | 중  | (54)  | 59.3                 | 18.5                 | 11.1          | 5.6      | 5.6            | 77.8             | 11.1       | 1.8 | 1.2      | 0.436       |
|          | 하  | (206) | 56.3                 | 13.1                 | 13.1          | 11.2     | 6.3            | 69.4             | 17.5       | 2.0 | 1.3      | (0.647)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3.8                 | 12.1                 | 10.3          | 9.5      | 4.3            | 75.9             | 13.8       | 1.8 | 1.2      |             |
|          | 중  | (101) | 52.5                 | 16.8                 | 12.9          | 8.9      | 8.9            | 69.3             | 17.8       | 2.0 | 1.4      | 1.342       |
|          | 하  | (76)  | 52.6                 | 15.8                 | 15.8          | 9.2      | 6.6            | 68.4             | 15.8       | 2.0 | 1.3      | (0.263)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62.2                 | 14.3                 | 12.6          | 7.6      | 3.4            | 76.5             | 10.9       | 1.8 | 1.1      | -4.396      |
|          | 부정 | (56)  | 33.9                 | 16.1                 | 12.5          | 17.9     | 19.6           | 50.0             | 37.5       | 2.7 | 1.6      | *** (0.000) |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294명 중 ‘그렇지 않다’는 73.8%, ‘그렇다’는 14.3%, ‘보통이다’는 11.9%로 나타났다. 평균은 1.9점으로, 비의료적 목적을 위한 약물 사용 의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별, 교급, 학년 및 자아긍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약물사용 의향이 있는 남학생은 11.4%, 전체 평균 1.8점으로 부정의 태도가 강한 반면, 약물사용 의향이 있는 여학생은 24.6%, 전체 평균 2.3점으로 남학생보다 허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으로 보면, 중학생의 허용성은 8.1%, 고등학생은 16.8%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고2에서 수용성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아긍정의 경우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은 허용성이 12.6%(평균 1.8점)인 반면,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은 허용성이 21.4%(평균 2.4점)으로 약물 사용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긍정의 정도가 쾌락·기분 전환 목적의 약물 사용 동조성을 강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표 Ⅲ-91.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7.1                 | 16.7                 | 11.9          | 8.5      | 5.8            | 73.8             | 14.3       | 1.9 | 1.2      |            |
| 성별       | 남  | (228) | 60.5                 | 16.7                 | 11.4          | 7.5      | 3.9            | 77.2             | 11.4       | 1.8 | 1.2      | -2.543     |
|          | 여  | (65)  | 46.2                 | 16.9                 | 12.3          | 12.3     | 12.3           | 63.1             | 24.6       | 2.3 | 1.5      | *(0.013)   |
| 교급       | 중  | (86)  | 62.8                 | 16.3                 | 12.8          | 7.0      | 1.2            | 79.1             | 8.1        | 1.7 | 1.0      | -2.141     |
|          | 고  | (208) | 54.8                 | 16.8                 | 11.5          | 9.1      | 7.7            | 71.6             | 16.8       | 2.0 | 1.3      | *(0.033)   |
| 학년       | 중1 | (5)   | 60.0                 | 20.0                 | 0.0           | 20.0     | 0.0            | 80.0             | 20.0       | 1.8 | 1.3      |            |
|          | 중2 | (33)  | 69.7                 | 18.2                 | 3.0           | 9.1      | 0.0            | 87.9             | 9.1        | 1.5 | 0.9      |            |
|          | 중3 | (48)  | 58.3                 | 14.6                 | 20.8          | 4.2      | 2.1            | 72.9             | 6.3        | 1.8 | 1.1      | 2.530      |
|          | 고1 | (66)  | 60.6                 | 19.7                 | 12.1          | 6.1      | 1.5            | 80.3             | 7.6        | 1.7 | 1.0      | *(0.029)   |
|          | 고2 | (87)  | 51.7                 | 16.1                 | 5.7           | 9.2      | 17.2           | 67.8             | 26.4       | 2.2 | 1.6      |            |
|          | 고3 | (55)  | 52.7                 | 14.5                 | 20.0          | 12.7     | 0.0            | 67.3             | 12.7       | 1.9 | 1.1      |            |
| 성적       | 상  | (34)  | 61.8                 | 20.6                 | 5.9           | 2.9      | 8.8            | 82.4             | 11.8       | 1.8 | 1.3      | 0.813      |
|          | 중  | (54)  | 61.1                 | 16.7                 | 13.0          | 5.6      | 3.7            | 77.8             | 9.3        | 1.7 | 1.1      | (0.445)    |
|          | 하  | (206) | 55.3                 | 16.0                 | 12.6          | 10.2     | 5.8            | 71.4             | 16.0       | 2.0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3.8                 | 10.3                 | 11.2          | 7.8      | 6.9            | 74.1             | 14.7       | 1.8 | 1.3      | 0.162      |
|          | 중  | (101) | 53.5                 | 18.8                 | 14.9          | 7.9      | 5.0            | 72.3             | 12.9       | 1.9 | 1.2      | (0.851)    |
|          | 하  | (76)  | 52.6                 | 23.7                 | 7.9           | 10.5     | 5.3            | 76.3             | 15.8       | 1.9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61.3                 | 17.2                 | 8.8           | 8.4      | 4.2            | 78.6             | 12.6       | 1.8 | 1.2      | -3.157     |
|          | 부정 | (56)  | 39.3                 | 14.3                 | 25.0          | 8.9      | 12.5           | 53.6             | 21.4       | 2.4 | 1.4      | ** (0.002) |

다음은 “스스로 잘 조절하면, 처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294명 중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1.1%, ‘그렇다’ 17.0%, ‘보통이다’가 11.9%로 나타났다. 평균 2.0점으로, 비의료적 사용을 스스로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집단간 비교에서는 하위 항목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부정 71.1%, 72.3%로 두 집단 모두 부정 인식이 높았으며, 교급별로도 중학생 73.3%, 고등학생 70.2%로 중학생이 약물 사용 안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 않았다. 이외 학년, 성적, 소득, 자아긍정에서의 집단 간 차이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92.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스스로 잘 조절하면, 처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5.1                 | 16.0                 | 11.9          | 9.5      | 7.5            | 71.1             | 17.0       | 2.0 | 1.3      |                   |
| 성별       | 남  | (228) | 54.4                 | 16.7                 | 13.6          | 9.2      | 6.1            | 71.1             | 15.4       | 2.0 | 1.3      | -0.298<br>(0.766) |
|          | 여  | (65)  | 58.5                 | 13.8                 | 6.2           | 10.8     | 10.8           | 72.3             | 21.5       | 2.0 | 1.4      |                   |
| 교급       | 중  | (86)  | 59.3                 | 14.0                 | 15.1          | 7.0      | 4.7            | 73.3             | 11.6       | 1.8 | 1.2      | -1.223<br>(0.222) |
|          | 고  | (208) | 53.4                 | 16.8                 | 10.6          | 10.6     | 8.7            | 70.2             | 19.2       | 2.0 | 1.4      |                   |
| 학년       | 중1 | (5)   | 60.0                 | 0.0                  | 40.0          | 0.0      | 0.0            | 60.0             | 0.0        | 1.8 | 1.1      | 1.474<br>(0.198)  |
|          | 중2 | (33)  | 60.6                 | 15.2                 | 18.2          | 6.1      | 0.0            | 75.8             | 6.1        | 1.7 | 1.0      |                   |
|          | 중3 | (48)  | 58.3                 | 14.6                 | 10.4          | 8.3      | 8.3            | 72.9             | 16.7       | 1.9 | 1.3      |                   |
|          | 고1 | (66)  | 57.6                 | 15.2                 | 13.6          | 9.1      | 4.5            | 72.7             | 13.6       | 1.9 | 1.2      |                   |
|          | 고2 | (87)  | 50.6                 | 13.8                 | 8.0           | 11.5     | 16.1           | 64.4             | 27.6       | 2.3 | 1.6      |                   |
|          | 고3 | (55)  | 52.7                 | 23.6                 | 10.9          | 10.9     | 1.8            | 76.4             | 12.7       | 1.9 | 1.1      |                   |
| 성적       | 상  | (34)  | 55.9                 | 17.6                 | 14.7          | 5.9      | 5.9            | 73.5             | 11.8       | 1.9 | 1.2      | 0.294<br>(0.745)  |
|          | 중  | (54)  | 57.4                 | 11.1                 | 7.4           | 13.0     | 11.1           | 68.5             | 24.1       | 2.1 | 1.5      |                   |
|          | 하  | (206) | 54.4                 | 17.0                 | 12.6          | 9.2      | 6.8            | 71.4             | 16.0       | 2.0 | 1.3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60.3                 | 13.8                 | 9.5           | 10.3     | 6.0            | 74.1             | 16.4       | 1.9 | 1.3      | 0.615<br>(0.541)  |
|          | 중  | (101) | 51.5                 | 17.8                 | 11.9          | 9.9      | 8.9            | 69.3             | 18.8       | 2.1 | 1.4      |                   |
|          | 하  | (76)  | 52.6                 | 15.8                 | 15.8          | 7.9      | 7.9            | 68.4             | 15.8       | 2.0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56.3                 | 15.5                 | 10.9          | 10.5     | 6.7            | 71.8             | 17.2       | 2.0 | 1.3      | -0.671<br>(0.502) |
|          | 부정 | (56)  | 50.0                 | 17.9                 | 16.1          | 5.4      | 10.7           | 67.9             | 16.1       | 2.1 | 1.4      |                   |

다음은 “약물 사용은 개인의 선택일 뿐,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결과, 전체 294명 중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4%로 다수였으며, ‘그렇다’는 12.9%, ‘보통이다’는 17.7%였다. 평균은 2.0점으로, 학생 전반은 약물 사용을 ‘개인적 선택’으로 정상화하는 관점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10명 중 7명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학생(그렇다 18.5%)이 남학생(11.4%)보다 다소 관대하였으며, 고등학생의 동의 비율이 14.9%로 중학생 동의 비율 8.1%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다. 다만, 모든 하위 영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 않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93.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약물 사용은 개인의 선택일 뿐,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4) | 50.7                 | 18.7                 | 17.7          | 7.1      | 5.8            | 69.4             | 12.9       | 2.0 | 1.2      |         |
| 성별       | 남  | (228) | 50.4                 | 19.7                 | 18.4          | 6.1      | 5.3            | 70.2             | 11.4       | 2.0 | 1.2      | -0.587  |
|          | 여  | (65)  | 52.3                 | 15.4                 | 13.8          | 10.8     | 7.7            | 67.7             | 18.5       | 2.1 | 1.3      | (0.558) |
| 교급       | 중  | (86)  | 53.5                 | 20.9                 | 17.4          | 3.5      | 4.7            | 74.4             | 8.1        | 1.8 | 1.1      | -1.242  |
|          | 고  | (208) | 49.5                 | 17.8                 | 17.8          | 8.7      | 6.3            | 67.3             | 14.9       | 2.0 | 1.3      | (0.215) |
| 학년       | 중1 | (5)   | 60.0                 | 0.0                  | 20.0          | 0.0      | 20.0           | 60.0             | 20.0       | 2.2 | 1.8      |         |
|          | 중2 | (33)  | 57.6                 | 24.2                 | 15.2          | 3.0      | 0.0            | 81.8             | 3.0        | 1.6 | 0.9      |         |
|          | 중3 | (48)  | 50.0                 | 20.8                 | 18.8          | 4.2      | 6.3            | 70.8             | 10.4       | 2.0 | 1.2      | 1.811   |
|          | 고1 | (66)  | 43.9                 | 27.3                 | 19.7          | 6.1      | 3.0            | 71.2             | 9.1        | 2.0 | 1.1      | (0.111) |
|          | 고2 | (87)  | 48.3                 | 11.5                 | 18.4          | 9.2      | 12.6           | 59.8             | 21.8       | 2.3 | 1.5      |         |
|          | 고3 | (55)  | 58.2                 | 16.4                 | 14.5          | 10.9     | 0.0            | 74.5             | 10.9       | 1.8 | 1.1      |         |
| 성적       | 상  | (34)  | 47.1                 | 20.6                 | 20.6          | 5.9      | 5.9            | 67.6             | 11.8       | 2.0 | 1.2      | 0.032   |
|          | 중  | (54)  | 51.9                 | 18.5                 | 14.8          | 7.4      | 7.4            | 70.4             | 14.8       | 2.0 | 1.3      | (0.968) |
|          | 하  | (206) | 51.0                 | 18.4                 | 18.0          | 7.3      | 5.3            | 69.4             | 12.6       | 2.0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58.6                 | 17.2                 | 12.9          | 6.0      | 5.2            | 75.9             | 11.2       | 1.8 | 1.2      | 1.948   |
|          | 중  | (101) | 42.6                 | 22.8                 | 18.8          | 9.9      | 5.9            | 65.3             | 15.8       | 2.1 | 1.2      | (0.144) |
|          | 하  | (76)  | 50.0                 | 14.5                 | 23.7          | 5.3      | 6.6            | 64.5             | 11.8       | 2.0 | 1.2      |         |
| 자아       | 긍정 | (238) | 53.8                 | 16.4                 | 16.8          | 7.1      | 5.9            | 70.2             | 13.0       | 1.9 | 1.2      | -1.065  |
| 긍정       | 부정 | (56)  | 37.5                 | 28.6                 | 21.4          | 7.1      | 5.4            | 66.1             | 12.5       | 2.1 | 1.2      | (0.288) |



다음은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293명 중 동의가 67.2%, 비동의가 20.8%, 보통이 11.9%였으며,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학생이 비의료적 약물 사용의 건강상 위험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교급·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 집단 간에는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상위권에서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79.4%). 반면,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소득이 상인 집단이 동의 77.6%(평균 4.0점)으로 위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중·하소득 집단은 각각 동의 60.0%, 60.5%으로 ‘상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III-94. 의료 목적 외 의료용 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3) | 15.7                 | 5.1                  | 11.9          | 20.8     | 46.4           | 20.8             | 67.2       | 3.8 | 1.5      |                   |
| 성별       | 남    | (227) | 16.3                 | 5.7                  | 13.2          | 21.1     | 43.6           | 22.0             | 64.8       | 3.7 | 1.5      | -1.452<br>(0.148) |
|          | 여    | (65)  | 13.8                 | 3.1                  | 7.7           | 20.0     | 55.4           | 16.9             | 75.4       | 4.0 | 1.4      |                   |
| 교급       | 중    | (86)  | 16.3                 | 2.3                  | 14.0          | 20.9     | 46.5           | 18.6             | 67.4       | 3.8 | 1.5      | 0.145<br>(0.885)  |
|          | 고    | (207) | 15.5                 | 6.3                  | 11.1          | 20.8     | 46.4           | 21.7             | 67.1       | 3.8 | 1.5      |                   |
| 학년       | 중1   | (5)   | 20.0                 | 0.0                  | 20.0          | 0.0      | 60.0           | 20.0             | 60.0       | 3.8 | 1.8      | 0.310<br>(0.907)  |
|          | 중2   | (33)  | 18.2                 | 3.0                  | 6.1           | 24.2     | 48.5           | 21.2             | 72.7       | 3.8 | 1.5      |                   |
|          | 중3   | (48)  | 14.6                 | 2.1                  | 18.8          | 20.8     | 43.8           | 16.7             | 64.6       | 3.8 | 1.4      |                   |
|          | 고1   | (65)  | 16.9                 | 7.7                  | 13.8          | 21.5     | 40.0           | 24.6             | 61.5       | 3.6 | 1.5      |                   |
|          | 고2   | (87)  | 13.8                 | 5.7                  | 10.3          | 17.2     | 52.9           | 19.5             | 70.1       | 3.9 | 1.5      |                   |
|          | 고3   | (55)  | 16.4                 | 5.5                  | 9.1           | 25.5     | 43.6           | 21.8             | 69.1       | 3.7 | 1.5      |                   |
| 성적       | 상    | (34)  | 8.8                  | 2.9                  | 8.8           | 20.6     | 58.8           | 11.8             | 79.4       | 4.2 | 1.3      | 2.035<br>(0.133)  |
|          | 중    | (53)  | 18.9                 | 9.4                  | 13.2          | 17.0     | 41.5           | 28.3             | 58.5       | 3.5 | 1.6      |                   |
|          | 하    | (206) | 16.0                 | 4.4                  | 12.1          | 21.8     | 45.6           | 20.4             | 67.5       | 3.8 | 1.5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3.8                 | 3.4                  | 5.2           | 20.7     | 56.9           | 17.2             | 77.6       | 4.0 | 1.4      | 3.159<br>*(0.044) |
|          | 중    | (100) | 17.0                 | 7.0                  | 16.0          | 21.0     | 39.0           | 24.0             | 60.0       | 3.6 | 1.5      |                   |
|          | 하    | (76)  | 17.1                 | 5.3                  | 17.1          | 19.7     | 40.8           | 22.4             | 60.5       | 3.6 | 1.5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7) | 16.9                 | 5.1                  | 11.4          | 19.4     | 47.3           | 21.9             | 66.7       | 3.8 | 1.5      | -0.486<br>(0.628) |
| 부정       | (56) | 10.7  | 5.4                  | 14.3                 | 26.8          | 42.9     | 16.1           | 69.6             | 3.9        | 1.3 |          |                   |

## 6. 환각물질

### 1) 환각물질 사용 경험

지금까지 살면서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부탄가스,ライター가스’ 경험이 ‘있다’는 2.0%, ‘기타’ 경험이 ‘있다’는 1.0%였으며, ‘해피벌룬(아산화질소)’과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는 각각 0.3%였다. 최초 사용 시기를 물었을 때 ‘부탄가스,ライター가스’는 ‘중1’이 66.7%,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은 ‘초등학교 이하’가 100.0%,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는 ‘중2’가 100.0%였으며, ‘기타’는 ‘중1’, ‘중2’, ‘고등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하나씩 있었다.

환각물질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경험을 물었을 때,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부탄가스,ライター가스’ 사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100.0%’, ‘33.3%’, ‘3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피벌룬(아산화질소)’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동안의 횟수는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가 ‘3~5회’(100.0%), ‘부탄가스,ライター가스’가 ‘1~2회’(50.0%)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10회 이상’(100.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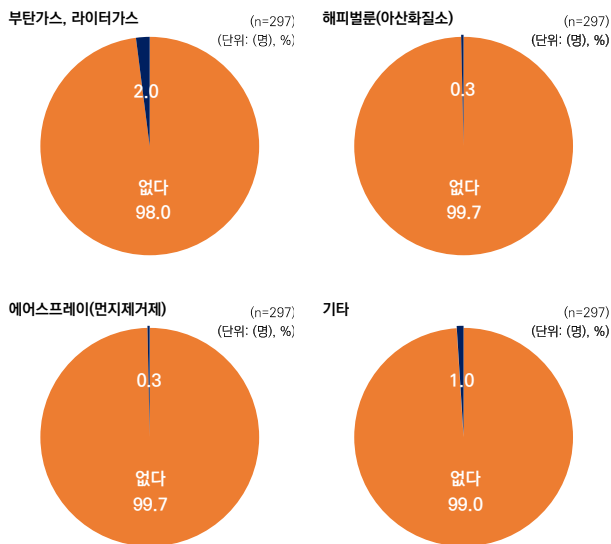


그림 III-25. 환각물질 사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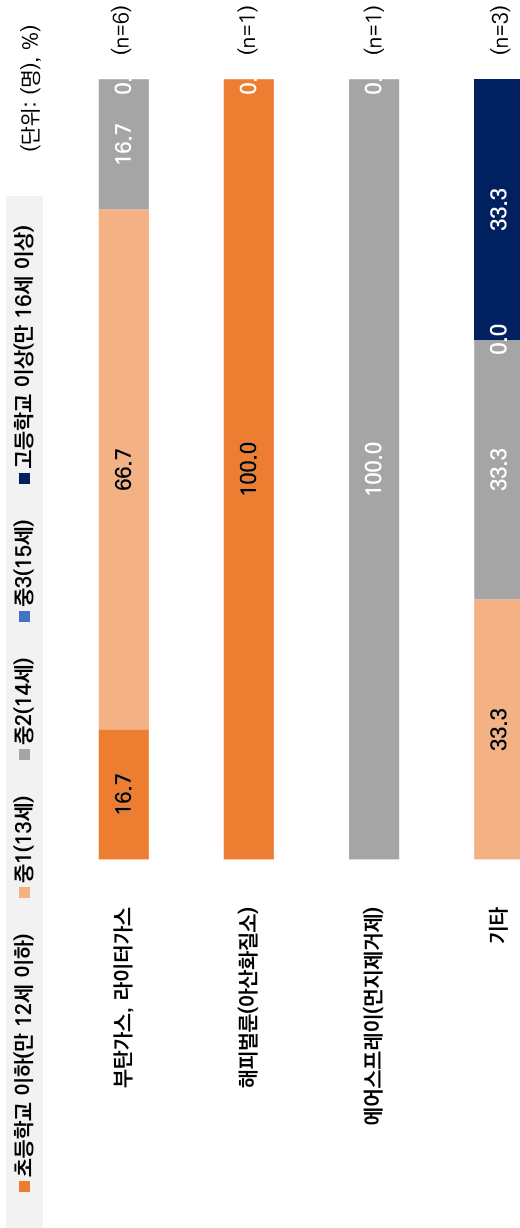


그림 III-26. 환경물질 최초 경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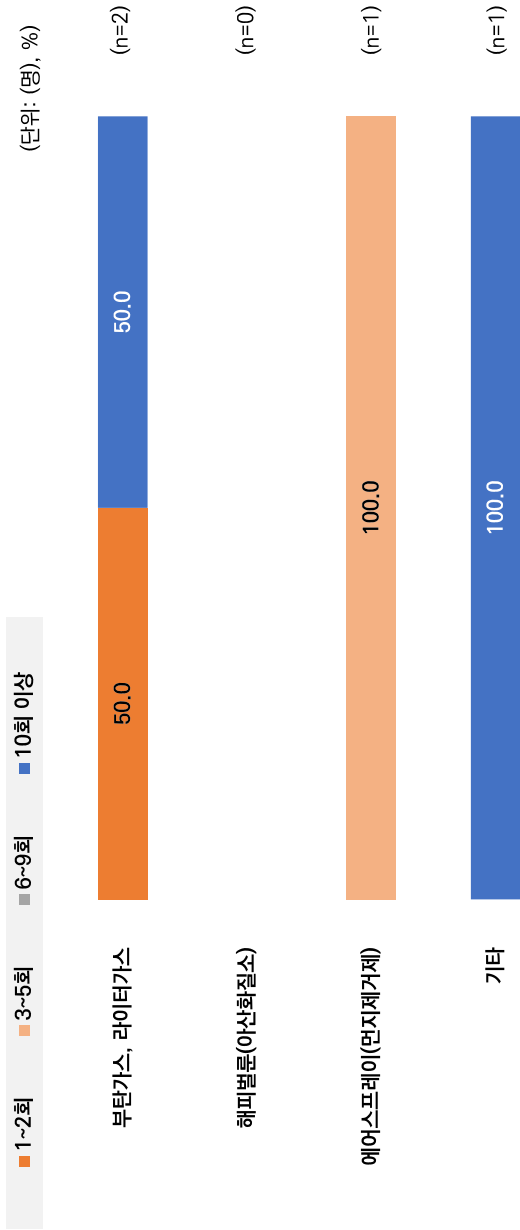


그림 III-27.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부탄가스·라이터가스” 사용 경험은 전체 297명 중 2.0%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무경험 98.0%). 최초 사용 시기는 보고된 6건 가운데 중학교 1학년 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초등학교 이하 16.7%, 중학교 2학년 16.7%였으며 중3·고등 이상 시점은 응답이 없었다. 즉, 경험 자체는 드물지만 초기 청소년기 초입에 사용시점이 집중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집단별 분포를 보면, 성별에서 남학생 2.2%, 여학생 1.5%로 경험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최초 사용 시기의 분포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랐다. 남학생은 중1(80.0%), 중2(20.0%)로 분산된 반면, 여학생은 보고된 단일 사례가 초등학교 이하에 분포되어 있었다. 교급, 학년, 성적 수준, 가구소득, 자아긍정 등 다른 하위집단에서는 경험률 또는 최초 시기 분포의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기술통계적으로는 성적 상위권에서 무경험(100%)이 확인되었고, 가구소득 하 집단의 경험률(3.9%)이 상 집단(0.9%)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유의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부탄가스·라이터가스 사용은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했다면 대체로 초등시절 및 중학생 구간에서 처음 경험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성별 차이는 경험의 여부보다는 ‘처음 사용하는 시점’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그 외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 -95. 환각물질 사용 경험 -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 전체    |    | (297) | 98.0  | 2.0  |              | (6)      | 16.7  | 66.7  | 16.7  | 0.0 | 0.0   |               |
| 성별    | 남  | (231) | 97.8  | 2.2  | 0.100<br>(1) | (5)      | 0.0   | 80.0  | 20.0  | 0.0 | 0.0   | 6.000<br>(2)* |
|       | 여  | (65)  | 98.5  | 1.5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86)  | 97.7  | 2.3  | 0.057<br>(1) | (2)      | 0.0   | 50.0  | 50.0  | 0.0 | 0.0   | 2.625<br>(2)  |
|       | 고  | (211) | 98.1  | 1.9  |              | (4)      | 25.0  | 75.0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5)   | 80.0  | 20.0 | 8.976<br>(5) | (1)      | 0.0   | 100.0 | 0.0   | 0.0 | 0.0   | 8.250<br>(8)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97.9  | 2.1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고1 | (67)  | 98.5  | 1.5  |              | (1)      | 0.0   | 100.0 | 0.0   | 0.0 | 0.0   |               |
|       | 고2 | (89)  | 97.8  | 2.2  |              | (2)      | 50.0  | 50.0  | 0.0   | 0.0 | 0.0   |               |
|       | 고3 | (55)  | 98.2  | 1.8  |              | (1)      | 0.0   | 10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1.505<br>(2) | (0)      | -     | -     | -     | -   | -     | 1.500<br>(2)  |
|       | 중  | (54)  | 96.3  | 3.7  |              | (2)      | 0.0   | 100.0 | 0.0   | 0.0 | 0.0   |               |
|       | 하  | (208) | 98.1  | 1.9  |              | (4)      | 25.0  | 50.0  | 25.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9.1  | 0.9  | 2.225<br>(2) | (1)      | 0.0   | 100.0 | 0.0   | 0.0 | 0.0   | 3.000<br>(4)  |
|       | 중  | (103) | 98.1  | 1.9  |              | (2)      | 0.0   | 100.0 | 0.0   | 0.0 | 0.0   |               |
|       | 하  | (76)  | 96.1  | 3.9  |              | (3)      | 33.3  | 33.3  | 33.3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7.9  | 2.1  | 0.019<br>(1) | (5)      | 20.0  | 60.0  | 20.0  | 0.0 | 0.0   | 0.600<br>(2)  |
|       | 부정 | (56)  | 98.2  | 1.8  |              | (1)      | 0.0   | 100.0 | 0.0   | 0.0 | 0.0   |               |

“해피별론(아산화질소)” 사용 경험은 전체 297명 중 0.3%로, 조사 전반에서 사례 1건에 그쳤다(무경험 99.7%). 유일한 경험 사례의 최초 사용 시기는 ‘초등학생 이하’였다. 하위집단 분포를 보면, 여학생, 고등시절(고3)의 경험, 성적 하, 가구소득 중,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 포함되었다. 표본 내 그 수가 1건에 불과하므로, 집단 간 차이나 시기적 패턴에 대한 일반화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III -96. 환각물질 사용 경험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 전체    |    | (297) | 99.7  | 0.3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성별    | 남  | (231) | 100.0 | 0.0 | 3.566<br>(1)  | (0)      | -     | -   | -   | -   | -     | -            |
|       | 여  | (65)  | 98.5  | 1.5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0.409<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9.5  | 0.5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415<br>(5)  | (0)      | -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3 | (55)  | 98.2  | 1.8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429<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100.0 | 0.0 |               | (0)      | -     | -   | -   | -   | -     |              |
|       | 하  | (208) | 99.5  | 0.5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00.0 | 0.0 | 1.880<br>(2)  | (0)      | -     | -   | -   | -   | -     | -            |
|       | 중  | (103) | 99.0  | 1.0 |               | (1)      | 100.0 | 0.0 | 0.0 | 0.0 | 0.0   |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100.0 | 0.0 | 4.318<br>(1)* | (0)      | -     | -   | -   | -   | -     | -            |
|       | 부정 | (56)  | 98.2  | 1.8 |               | (1)      | 100.0 | 0.0 | 0.0 | 0.0 | 0.0   |              |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사용 경험은 전체 297명 중 1명(0.3%)로 나타났으며, 무경험은 99.7%였다. 유일한 경험 사례의 최초 경험 시기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1건의 응답자는 남학생으로, 현재 고1이며, 학업성취수준 중위권, 가구소득 중간 집단 및 자아긍정감은 긍정 집단이었다.

표 III-97. 환각물질 사용 경험 -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 전체    |    | (297) | 99.7  | 0.3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성별    | 남  | (231) | 99.6  | 0.4 | 0.282<br>(1)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 여  | (65)  | 100.0 | 0.0 |              | (0)      | -     | -   | -     | -   | -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0.409<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9.5  | 0.5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3.444<br>(5) | (0)      | -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98.5  | 1.5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고2 | (89)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3 | (55)  | 100.0 | 0.0 |              | (0)      | -     | -   | -     | -   | -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4.515<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하  | (208) | 100.0 | 0.0 |              | (0)      | -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00.0 | 0.0 | 1.880<br>(2) | (0)      | -     | -   | -     | -   | -     | -            |
|       | 중  | (103) | 99.0  | 1.0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6  | 0.4 | 0.233<br>(1)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 부정 | (56)  | 100.0 | 0.0 |              | (0)      | -     | -   | -     | -   | -     |              |

“환각물질 중 기타 물질” 사용 경험은 전체 297명 중 1.0%(사례 3건)로 매우 희소하였다(무경험 99.0%). 최초 사용시기는 보고된 3건이 중1, 중2, 고등이상에 각각 1건씩 분산되어(각 33.3%)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위집단 분포를 보면, 경험 사례는 모두 남학생에게서만 보고되었으며(1.3%), 교급으로는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확인되었다(1.4%). 학년별로는 고1 1건, 고2 2건이었으며,

이들의 최초 사용 시기는 각각 중1(고1 사례), 중2와 고등 이상(고2 사례 2건)이었다. 학업성취별로는 모두 하위권이었으며(1.4%), 가구소득별로는 중간소득 2건, 하 소득 1건이었다. 자아긍정에서는 모두 긍정 집단의 범주였다. 다만, 모든 교차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 -98. 환각물질 사용 경험 - 기타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 (df) | 최초 경험 시기 |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 전체    |    | (297) | 99.0  | 1.0 |               | (3)      | 0.0   | 33.3  | 33.3  | 0.0 | 33.3  |               |
| 성별    | 남  | (231) | 98.7  | 1.3 | 0.853<br>(1)  | (3)      | 0.0   | 33.3  | 33.3  | 0.0 | 33.3  | -             |
|       | 여  | (65)  | 100.0 | 0.0 |               | (0)      | -     | -     | -     | -   | -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1.235<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8.6  | 1.4 |               | (3)      | 0.0   | 33.3  | 33.3  | 0.0 | 33.3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2.957<br>(5)  | (0)      | -     | -     | -     | -   | -     | 3.000<br>(2)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98.5  | 1.5 |               | (1)      | 0.0   | 100.0 | 0.0   | 0.0 | 0.0   |               |
|       | 고2 | (89)  | 97.8  | 2.2 |               | (2)      | 0.0   | 0.0   | 50.0  | 0.0 | 50.0  |               |
|       | 고3 | (55)  | 100.0 | 0.0 |               | (0)      | -     | -     | -     | -   | -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1.297<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100.0 | 0.0 |               | (0)      | -     | -     | -     | -   | -     |               |
|       | 하  | (208) | 98.6  | 1.4 |               | (3)      | 0.0   | 33.3  | 33.3  | 0.0 | 33.3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00.0 | 0.0 | 2.152<br>(2)  | (0)      | -     | -     | -     | -   | -     | 3.000<br>(2)  |
|       | 중  | (103) | 98.1  | 1.9 |               | (2)      | 0.0   | 50.0  | 0.0   | 0.0 | 50.0  |               |
|       | 하  | (76)  | 98.7  | 1.3 |               | (1)      | 0.0   | 0.0   | 100.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8.8  | 1.2 | 0.704<br>(1)  | (3)      | 0.0   | 33.3  | 33.3  | 0.0 | 33.3  | -             |
|       | 부정 | (56)  | 100.0 | 0.0 |               | (0)      | -     | -     | -     | -   | -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중 “부탄가스/라이터가스”의 결과값이다. 전체 표본 297명 중, 최근 6개월 이내 사용 여부가 파악된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실제 사용이 보고된 사례는 2건(33.3%)이었다(미사용 66.7%). 사용 빈도 분포는 ‘1-2회’ 50.0%, ‘10회 이상’ 50.0%로, 극단적으로 낮은 빈도와 매우 높은 빈도로 양분화되어 나타났다. 하위집단을 보면, 성별은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업성취도 및 가구소득은 중위권과 하위권, 자아긍정 수준은 모두 긍정집단이었다. 모든 교차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없었다.

표 III-99.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부탄가스, 라이터가스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6)   | 66.7  | 33.3  |               | (2)             | 50.0  | 0.0  | 0.0  | 50.0   |               |
| 성별       | 남  | (5)   | 60.0  | 40.0  | 0.600<br>(1)  | (2)             | 50.0  | 0.0  | 0.0  | 50.0   | -             |
|          | 여  | (1)   | 100.0 | 0.0   |               | (0)             | -     | -    | -    | -      |               |
| 교급       | 중  | (2)   | 100.0 | 0.0   | 1.500<br>(1)  | (0)             | -     | -    | -    | -      | -             |
|          | 고  | (4)   | 50.0  | 50.0  |               | (2)             | 50.0  | 0.0  | 0.0  | 50.0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6.000<br>(4)  | (0)             | -     | -    | -    | -      | 2.000<br>(1)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고1 | (1)   | 0.0   | 100.0 |               | (1)             | 0.0   | 0.0  | 0.0  | 100.0  |               |
|          | 고2 | (2)   | 100.0 | 0.0   |               | (0)             | -     | -    | -    | -      |               |
|          | 고3 | (1)   | 0.0   | 100.0 |               | (1)             | 10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0.375<br>(1)  | (0)             | -     | -    | -    | -      | 2.000<br>(1)  |
|          | 중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 하  | (4)   | 75.0  | 25.0  |               | (1)             | 100.0 | 0.0  | 0.0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750<br>(2)  | (0)             | -     | -    | -    | -      | 2.000<br>(1)  |
|          | 중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 하  | (3)   | 66.7  | 33.3  |               | (1)             | 10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5)   | 60.0  | 40.0  | 0.600<br>(1)  | (2)             | 50.0  | 0.0  | 0.0  | 50.0   | -             |
|          | 부정 | (1)   | 100.0 | 0.0   |               | (0)             | -     | -    | -    | -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중 “해피벌룬(아산화질소)”와 관련된 결과로, 전체 표본 1건에서 최근 6개월 이내 해피벌룬 사용은 0건으로 나타나, 최근 사용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표 III-100.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해피벌룬(아산화질소)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1)   | 100.0 | 0.0 |              | (0)             | -    | -    | -    | -      |              |
| 성별    | 남  | (0)   | -     | -   | -            | (0)             | -    | -    | -    | -      | -            |
|       | 여  | (1)   | 100.0 | 0.0 |              | (0)             | -    | -    | -    | -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1)   | 100.0 | 0.0 |              | (0)             | -    | -    | -    | -      |              |
| 학년    | 중1 | (0)   | -     | -   | -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0)   | -     | -   |              | (0)             | -    | -    | -    | -      |              |
|       | 고3 | (1)   | 100.0 | 0.0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0)   | -     | -   |              | (0)             | -    | -    | -    | -      |              |
|       | 하  | (1)   | 100.0 | 0.0 |              | (0)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0)   | -     | -   | -            | (0)             | -    | -    | -    | -      | -            |
|       | 부정 | (1)   | 100.0 | 0.0 |              | (0)             | -    | -    | -    | -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중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와 관련된 결과로, 전체 경험자 1명 중 최근 6개월 내 사용 보고 또한 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례의 사용 빈도는 3-5회였다. 하위집단 분포에서 이 단일 사례는 남학생, 고등학교 1학년, 성적 중위권, 중간 소득, 자아긍정 긍정 집단에 속하였다.

표 III-101.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에어스프레이(먼지제거제)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chi^2(df)$ |
| 전체    |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성별    | 남  | (1)   | 0.0 | 100.0 | -            | (1)             | 0.0  | 100.0 | 0.0  | 0.0    | -            |
|       | 여  | (0)   | -   | -     |              | (0)             | -    | -     | -    | -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고2 | (0)   | -   | -     |              | (0)             | -    | -     | -    | -      |              |
|       | 고3 | (0)   | -   | -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1)   | 0.0 | 100.0 | -            | (1)             | 0.0  | 100.0 | 0.0  | 0.0    | -            |
|       | 부정 | (0)   | -   | -     |              | (0)             | -    | -     | -    | -      |              |

다음은 환각물질 중 기타 물질의 최근 6개월간 사용 횟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표본 3건 중 기타 환각물질의 최근 6개월 사용 횟수는 1건으로, 이 단일 사례의 사용 빈도는 ‘10회 이상’이었다. 하위집단 분포를 보면, 해당 사례는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 성적성취 하위 집단, 가구 소득 중간 집단, 자아긍정 긍정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Ⅲ-102. 최근 6개월 이내 환각물질 사용 횟수 - 기타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chi^2(df)$ |
| 전체       |    | (3)   | 66.7  | 33.3 |              | (1)             | 0.0  | 0.0  | 0.0  | 100.0  |              |
| 성별       | 남  | (3)   | 66.7  | 33.3 | -            | (1)             | 0.0  | 0.0  | 0.0  | 100.0  | -            |
|          | 여  | (0)   | -     | -    |              | (0)             | -    | -    | -    | -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3)   | 66.7  | 33.3 |              | (1)             | 0.0  | 0.0  | 0.0  | 100.0  |              |
| 학년       | 중1 | (0)   | -     | -    | 0.750<br>(1)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고2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 고3 | (0)   | -     | -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0)   | -     | -    |              | (0)             | -    | -    | -    | -      |              |
|          | 하  | (3)   | 66.7  | 33.3 |              | (1)             | 0.0  | 0.0  | 0.0  | 100.0  |              |
| 가구<br>소득 | 상  | (0)   | -     | -    | 0.750<br>(1) | (0)             | -    | -    | -    | -      | -            |
|          | 중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 하  | (1)   | 100.0 | 0.0  |              | (0)             | -    | -    | -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3)   | 66.7  | 33.3 | -            | (1)             | 0.0  | 0.0  | 0.0  | 100.0  | -            |
|          | 부정 | (0)   | -     | -    |              | (0)             | -    | -    | -    | -      |              |

## 2) 환각물질 사용 관련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호기심 또는 재미로’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심심하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20.0%) 순이었다.

환각물질을 사용한 이후 느낀 경험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만족감을 느꼈다’,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2.8점, 1.8점 순으로 높았으며,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1.4점, 1.7점, 1.7점 순으로 낮았다.

(n=1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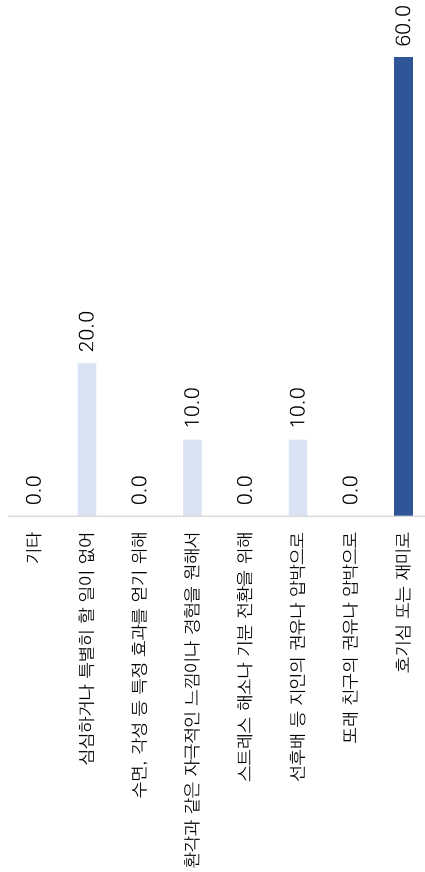


그림 III -28.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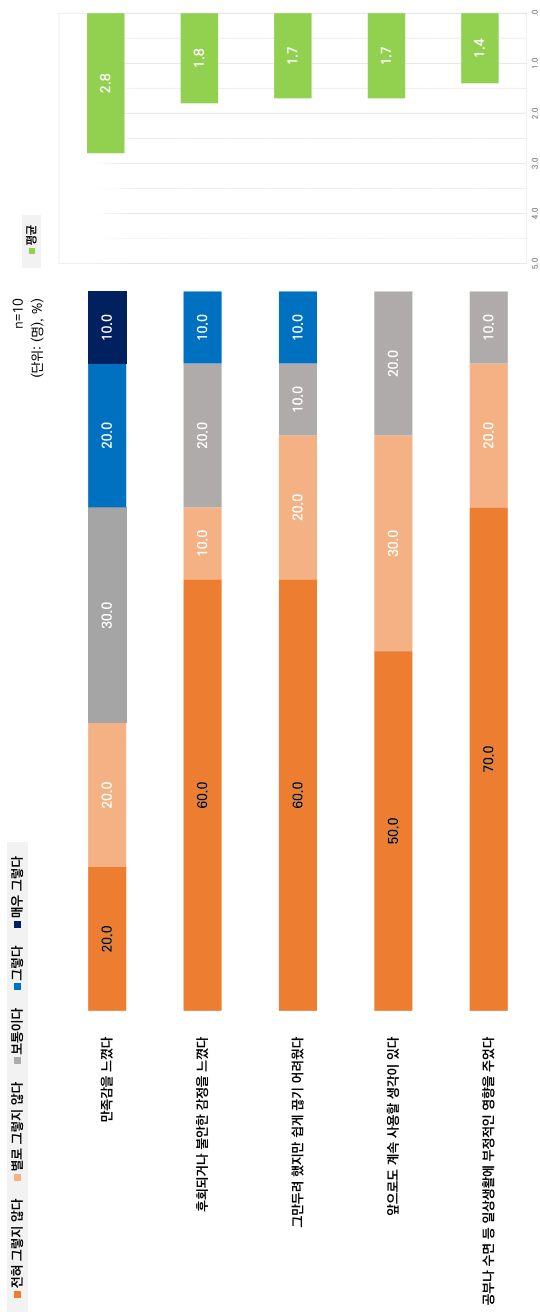


그림 III -29. 환경물질을 사용한 이후 느낀 경험

다음은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의 결과이다. 전체 10건의 사례 중 ‘호기심/재미’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심심해서/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가 20.0%, 그 외에는 ‘지인의 권유·압박’, ‘환각과 같은 자극적 경험을 위해서’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친구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 공부·각성 등 특정 효과 추구는 처음 사용의 주된 계기로 확인되지 않았다. 즉, 첫 사용은 기능적 목적보다는 비기능적·상황적 호기심 및 무료함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하위집단 분포를 기술통계 수준에서 보면, 남학생은 호기심(62.5%)이 다수를 이루 되, 지인권유·자극권유·심심함이 각 12.5%로 분포했으며, 여학생은 호기심 50.0%와 심심함 50.0%로만 보고되었다. 고급에서는 고등학생 응답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학생 사례에서도 ‘호기심’ 또는 ‘심심함’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해당 표본에서 초기 사용의 핵심 동인은 호기심이며, 지속적 스트레스 완화나 성취·각성 같은 ‘목적 지향적 동기’는 초기 진입의 주된 계기로 작동하지 않았다.

표 III-103. 처음 환각물질을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10) | 60.0  | 0.0 | 10.0 | 0.0 | 10.0 | 0.0 | 20.0  | 0.0 |                |
| 성별       | 남  | (8)  | 62.5  | 0.0 | 12.5 | 0.0 | 12.5 | 0.0 | 12.5  | 0.0 | 1.667<br>(3)   |
|          | 여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
| 교급       | 중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1.667<br>(3)   |
|          | 고  | (8)  | 62.5  | 0.0 | 12.5 | 0.0 | 12.5 | 0.0 | 12.5  | 0.0 |                |
| 학년       | 중1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1.250<br>(12)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1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고2 | (4)  | 50.0  | 0.0 | 0.0  | 0.0 | 25.0 | 0.0 | 25.0  | 0.0 |                |
|          | 고3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1.667<br>(3)   |
|          | 중  | (2)  | 50.0  | 0.0 | 0.0  | 0.0 | 0.0  | 0.0 | 50.0  | 0.0 |                |
|          | 하  | (8)  | 62.5  | 0.0 | 12.5 | 0.0 | 12.5 | 0.0 | 12.5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7.750<br>(6)   |
|          | 중  | (5)  | 80.0  | 0.0 | 0.0  | 0.0 | 20.0 | 0.0 | 0.0   | 0.0 |                |
|          | 하  | (4)  | 50.0  | 0.0 | 25.0 | 0.0 | 0.0  | 0.0 | 25.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50.0  | 0.0 | 12.5 | 0.0 | 12.5 | 0.0 | 25.0  | 0.0 | 1.667<br>(3)   |
|          | 부정 | (2)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① 호기심 또는 재미로
- ② 또래 친구의 권유나 압박으로
- ③ 선후배 등 지인의 권유나 압박으로
- ④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 ⑤ 환각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위해서
- ⑥ 수면, 각성 등 특정 효과를 얻기 위해
- ⑦ 심심하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어
- ⑧ 기타

다음은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만족감을 느꼈다”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가 40.0%, ‘보통’ 30.0%, ‘그렇다’가 30.0%로 분포하였다. 평균은 2.8점으로, 사용 후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응답이 부정·보통·긍정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집단별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은 남학생 25.0%, 여학생 50.0%가 만족하였고, 평균 각각 2.6점, 3.5점으로 평균 차가 보이나 표본수가 10명으로 매우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교급에서는 고등학생의 만족도 수준이 37.5%였으나 중학생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한 건도 없었다. 이 외에 학업성취도, 가구소득 및 자아긍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04.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10) | 20.0                 | 20.0                 | 30.0          | 20.0     | 10.0           | 40.0             | 30.0       | 2.8 | 1.3      |                   |
| 성별       | 남  | (8)  | 25.0                 | 25.0                 | 25.0          | 12.5     | 12.5           | 50.0             | 25.0       | 2.6 | 1.4      | -0.826<br>(0.433) |
|          | 여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3.5 | 0.7      |                   |
| 교급       | 중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0.956<br>(0.367) |
|          | 고  | (8)  | 12.5                 | 25.0                 | 25.0          | 25.0     | 12.5           | 37.5             | 37.5       | 3.0 | 1.3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375<br>(0.818)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0 | -        |                   |
|          | 고1 | (2)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3.0 | 1.4      |                   |
|          | 고2 | (4)  | 25.0                 | 25.0                 | 0.0           | 25.0     | 25.0           | 50.0             | 50.0       | 3.0 | 1.8      |                   |
|          | 고3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2.971<br>(0.123)  |
|          | 중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 하  | (8)  | 12.5                 | 12.5                 | 37.5          | 25.0     | 12.5           | 25.0             | 37.5       | 3.1 | 1.2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1.227<br>(0.349)  |
|          | 중  | (5)  | 0.0                  | 40.0                 | 20.0          | 20.0     | 20.0           | 40.0             | 40.0       | 3.2 | 1.3      |                   |
|          | 하  | (4)  | 25.0                 | 0.0                  | 50.0          | 25.0     | 0.0            | 25.0             | 25.0       | 2.8 | 1.3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25.0                 | 12.5                 | 25.0          | 25.0     | 12.5           | 37.5             | 37.5       | 2.9 | 1.5      | 0.342<br>(0.741)  |
|          | 부정 | (2)  | 0.0                  | 50.0                 | 50.0          | 0.0      | 0.0            | 50.0             | 0.0        | 2.5 | 0.7      |                   |

다음은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의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그렇지 않다’가 70.0%, ‘보통’ 20.0%, ‘그렇다’ 10.0%로 분포하였다. 평균은 1.8점으로, 사용 직후의 정서 반응에서 후회·불안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집단별 분포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경향만 기술하면, 남학생의 12.5%는 후회·불안의 감정을 느꼈으나(평균 1점), 여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평균 2점). 교급에서는 중학생 모두가 후회·불안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62.5%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별로는 하위권의 경우 모두 불안과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으며, 중위권은 각각 50.0%로 기술적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05.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10) | 60.0                 | 10.0                 | 20.0          | 10.0     | 0.0            | 70.0             | 10.0       | 1.8 | 1.1      |                  |
| 성별       | 남  | (8)  | 62.5                 | 12.5                 | 12.5          | 12.5     | 0.0            | 75.0             | 12.5       | 1.8 | 1.2      | -0.264           |
|          | 여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0.799)          |
| 교급       | 중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2.366           |
|          | 고  | (8)  | 50.0                 | 12.5                 | 25.0          | 12.5     | 0.0            | 62.5             | 12.5       | 2.0 | 1.2      | *(0.050)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318<br>(0.855)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고1 | (2)  | 50.0                 | 0.0                  | 0.0           | 50.0     | 0.0            | 50.0             | 50.0       | 2.5 | 2.1      |                  |
|          | 고2 | (4)  | 50.0                 | 25.0                 | 25.0          | 0.0      | 0.0            | 75.0             | 0.0        | 1.8 | 1.0      |                  |
|          | 고3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0.945<br>(0.360) |
|          | 중  | (2)  | 50.0                 | 0.0                  | 0.0           | 50.0     | 0.0            | 50.0             | 50.0       | 2.5 | 2.1      |                  |
|          | 하  | (8)  | 62.5                 | 12.5                 | 25.0          | 0.0      | 0.0            | 75.0             | 0.0        | 1.6 | 0.9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259<br>(0.779) |
|          | 중  | (5)  | 60.0                 | 20.0                 | 0.0           | 20.0     | 0.0            | 80.0             | 20.0       | 1.8 | 1.3      |                  |
|          | 하  | (4)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62.5                 | 0.0                  | 25.0          | 12.5     | 0.0            | 62.5             | 12.5       | 1.9 | 1.2      | 0.398            |
|          | 부정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0.701)          |



다음은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의 결과이다. 전체 사례 10건 중 ‘그렇지 않다’는 80.0%, 보통 10.0%, 긍정 10.0%로, 사용 이후 금단·집착을 시사하는 경험 보고는 소수에 그쳤다. 평균은 1.7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나머지 하위 항목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06.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10) | 60.0                 | 20.0                 | 10.0          | 10.0     | 0.0            | 80.0             | 10.0       | 1.7 | 1.1      |                   |
| 성별       | 남  | (8)  | 62.5                 | 12.5                 | 12.5          | 12.5     | 0.0            | 75.0             | 12.5       | 1.8 | 1.2      | 0.283<br>(0.784)  |
|          | 여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교급       | 중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1.051<br>(0.324) |
|          | 고  | (8)  | 50.0                 | 25.0                 | 12.5          | 12.5     | 0.0            | 75.0             | 12.5       | 1.9 | 1.1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946<br>(0.508)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고1 | (2)  | 50.0                 | 0.0                  | 0.0           | 50.0     | 0.0            | 50.0             | 50.0       | 2.5 | 2.1      |                   |
|          | 고2 | (4)  | 75.0                 | 25.0                 | 0.0           | 0.0      | 0.0            | 100.0            | 0.0        | 1.3 | 0.5      |                   |
|          | 고3 | (2)  | 0.0                  | 50.0                 | 50.0          | 0.0      | 0.0            | 50.0             | 0.0        | 2.5 | 0.7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1.506<br>(0.255)  |
|          | 중  | (2)  | 50.0                 | 0.0                  | 0.0           | 50.0     | 0.0            | 50.0             | 50.0       | 2.5 | 2.1      |                   |
|          | 하  | (8)  | 62.5                 | 25.0                 | 12.5          | 0.0      | 0.0            | 87.5             | 0.0        | 1.5 | 0.8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428<br>(0.668)  |
|          | 중  | (5)  | 40.0                 | 40.0                 | 0.0           | 20.0     | 0.0            | 80.0             | 20.0       | 2.0 | 1.2      |                   |
|          | 하  | (4)  | 75.0                 | 0.0                  | 25.0          | 0.0      | 0.0            | 75.0             | 0.0        | 1.5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75.0                 | 0.0                  | 12.5          | 12.5     | 0.0            | 75.0             | 12.5       | 1.6 | 1.2      | -0.427<br>(0.681) |
|          | 부정 | (2)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0.0      |                   |

다음은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의 결과이다. 전체 사례 10건 중 ‘그렇지 않다’는 80.0%, ‘보통이다’ 20.0%, ‘그렇다’ 0%로, 향후 계속 사용 의향은 사실상 부재했다. 집단별 차이는 ‘그렇다’의 응답이 부재하므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Ⅲ-107.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10) | 50.0                 | 30.0                 | 20.0          | 0.0      | 0.0            | 80.0             | 0.0        | 1.7 | 0.8      |                   |
| 성별       | 남  | (8)  | 50.0                 | 25.0                 | 25.0          | 0.0      | 0.0            | 75.0             | 0.0        | 1.8 | 0.9      | 0.365<br>(0.724)  |
|          | 여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교급       | 중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0.365<br>(0.724) |
|          | 고  | (8)  | 50.0                 | 25.0                 | 25.0          | 0.0      | 0.0            | 75.0             | 0.0        | 1.8 | 0.9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1.096<br>(0.449)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        |                   |
|          | 고1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
|          | 고2 | (4)  | 75.0                 | 25.0                 | 0.0           | 0.0      | 0.0            | 100.0            | 0.0        | 1.3 | 0.5      |                   |
|          | 고3 | (2)  | 0.0                  | 50.0                 | 50.0          | 0.0      | 0.0            | 50.0             | 0.0        | 2.5 | 0.7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0.306<br>(0.595)  |
|          | 중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
|          | 하  | (8)  | 50.0                 | 37.5                 | 12.5          | 0.0      | 0.0            | 87.5             | 0.0        | 1.6 | 0.7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347<br>(0.718)  |
|          | 중  | (5)  | 40.0                 | 40.0                 | 20.0          | 0.0      | 0.0            | 80.0             | 0.0        | 1.8 | 0.8      |                   |
|          | 하  | (4)  | 50.0                 | 25.0                 | 25.0          | 0.0      | 0.0            | 75.0             | 0.0        | 1.8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62.5                 | 12.5                 | 25.0          | 0.0      | 0.0            | 75.0             | 0.0        | 1.6 | 0.9      | -1.158<br>(0.285) |
|          | 부정 | (2)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0.0      |                   |

다음은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의 결과이다. 전체 사례 10건 중 ‘그렇지 않다’ 90.0%, ‘보통’ 10.0%, ‘그렇다’ 0.0%로 표본 전반에서 환각물질 사용 후 학습·수면 등 일상기능에 가시적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례가 없어, 집단별로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08. 환각물질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10) | 70.0                 | 20.0                 | 10.0          | 0.0      | 0.0            | 90.0             | 0.0        | 1.4 | 0.7      |                   |
| 성별       | 남  | (8)  | 62.5                 | 25.0                 | 12.5          | 0.0      | 0.0            | 87.5             | 0.0        | 1.5 | 0.8      | 1.871<br>(0.104)  |
|          | 여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
| 교급       | 중  | (2)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0.0      | -1.871<br>(0.104) |
|          | 고  | (8)  | 62.5                 | 25.0                 | 12.5          | 0.0      | 0.0            | 87.5             | 0.0        | 1.5 | 0.8      |                   |
| 학년       | 중1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442<br>(0.775)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
|          | 고1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 고2 | (4)  | 75.0                 | 25.0                 | 0.0           | 0.0      | 0.0            | 100.0            | 0.0        | 1.3 | 0.5      |                   |
|          | 고3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0.046<br>(0.836)  |
|          | 중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 하  | (8)  | 75.0                 | 12.5                 | 12.5          | 0.0      | 0.0            | 87.5             | 0.0        | 1.4 | 0.7      |                   |
| 가구<br>소득 | 상  | (1)  | 10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 | -        | 0.167<br>(0.850)  |
|          | 중  | (5)  | 60.0                 | 40.0                 | 0.0           | 0.0      | 0.0            | 100.0            | 0.0        | 1.4 | 0.5      |                   |
|          | 하  | (4)  | 75.0                 | 0.0                  | 25.0          | 0.0      | 0.0            | 75.0             | 0.0        | 1.5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8)  | 75.0                 | 12.5                 | 12.5          | 0.0      | 0.0            | 87.5             | 0.0        | 1.4 | 0.7      | -0.214<br>(0.836) |
|          | 부정 | (2)  | 50.0                 | 50.0                 | 0.0           | 0.0      | 0.0            | 100.0            | 0.0        | 1.5 | 0.7      |                   |

## 7. 마약류

### 1) 마약류 사용 경험

지금까지 살면서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합성대마’,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7%, 2.0%, 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초 사용 시기는 ‘합성대마’,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모두 ‘고등학교 이후’에 사용했다는 응답이 각각 57.1%, 100.0%, 100.0%였다.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여부를 물었을 때,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각각 75.0%, 66.7%였고, ‘합성대마’, ‘케타민, K(케이)’, ‘대마초, 마리화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50.0%였다.

최근 6개월 동안의 사용 횟수를 물었을 때, ‘엑스터시’는 ‘1~2회’(66.7%)가 가장 높았으며, ‘메스암페타민’은 ‘10회 이상’(50.0%), ‘합성대마’는 ‘10회 이상’(66.7%), ‘케타민’은 ‘3~5회’, ‘10회 이상’(50.0%), ‘대마초, 마리화나’는 ‘3~5회’(100%)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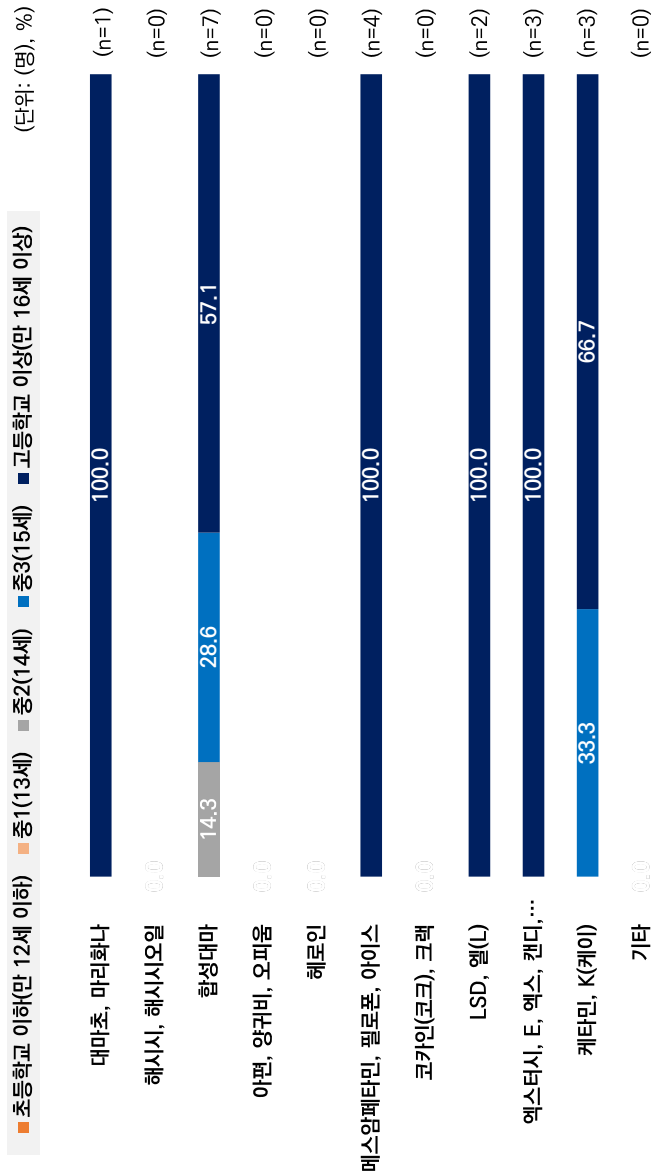


그림 III-30. 마약류 최초 경험 시기

다음은 마약류 중 “대마초/마리화나”의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용 경험은 0.7%로 매우 낮았다(‘없다’ 99.3%). 최초 사용 시기 1건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사용한 것으로, 해당 표본에서의 대마 첫 사용은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였다. 다만, 최초 경험 시기의 하위 집단별 기술통계를 보면, 남학생 0.4%, 여학생 1.5%로 차이가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 최초 경험 시기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아 최초 경험 시기의 사례수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1명에 그친다. 응답자는 고2 1.1%, 고3 1.8%였으며, 성적은 하위권 1%, 가구소득 중 1.9%, 자아긍정감은 긍정 0.4%, 부정 1.8%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09. 마약류 사용 경험 - 대마초, 마리화나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99.3  | 0.7 |              | (1)      | 0.0   | 0.0 | 0.0 | 0.0 | 100.0 |
| 성별    | 남  | (231) | 99.6  | 0.4 | 0.924<br>(1) | (1)      | 0.0   | 0.0 | 0.0 | 0.0 | 100.0 |
|       | 여  | (65)  | 98.5  | 1.5 |              | (0)      | -     | -   | -   | -   |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0.821<br>(1) | (0)      | -     | -   | -   | -   | -     |
|       | 고  | (211) | 99.1  | 0.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2.385<br>(5) | (0)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2 | (89)  | 98.9  | 1.1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고3 | (55)  | 98.2  | 1.8 |              | (0)      | -     | -   | -   | -   |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862<br>(2) | (0)      | -     | -   | -   | -   | -     |
|       | 중  | (54)  | 100.0 | 0.0 |              | (0)      | -     | -   | -   | -   | -     |
|       | 하  | (208) | 99.0  | 1.0 |              | (1)      | 0.0   | 0.0 | 0.0 | 0.0 | 100.0 |
| 가구 소득 | 상  | (117) | 100.0 | 0.0 | 3.773<br>(2) | (0)      | -     | -   | -   | -   | -     |
|       | 중  | (103)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6  | 0.4 | 1.277<br>(1) | (1)      | 0.0   | 0.0 | 0.0 | 0.0 | 100.0 |
|       | 부정 | (56)  | 98.2  | 1.8 |              | (0)      | -     | -   | -   | -   | -     |

다음은 마약류 중 “합성대마”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표본에서 사용 경험률은 2.7%(7건)으로 나타났다(미사용 97.3%). 최초 사용 시기는 고등학교 이상 57.1%, 중3 28.6%, 중2 14.3%로 나타나, 합성대마의 첫 노출은 대체로 중학교 후반~고등 단계에 분포하였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의 경험률(7.7%)이 남학생(1.3%)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자아긍정 부정 집단(7.1%)이 긍정 집단(1.7%)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 및 학년에서는 중학생 0%, 고등학생 3.8%였으며, 학년별로 고2 6.7%, 고3 3.6%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적과 가구소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요약하면, 합성대마 경험은 희소하나, 성별과 자아긍정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가 관찰되었고, 첫 사용 시기는 고등 단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10. 마약류 사용 경험 - 합성대마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97.3  | 2.7 |                | (7)      | 0.0   | 0.0 | 14.3 | 28.6  | 57.1  |               |
| 성별    | 남  | (231) | 98.7  | 1.3 | 7.885<br>(1)** | (3)      | 0.0   | 0.0 | 0.0  | 33.3  | 66.7  | 0.875<br>(2)  |
|       | 여  | (65)  | 92.3  | 7.7 |                | (4)      | 0.0   | 0.0 | 25.0 | 25.0  | 50.0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3.351<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6.2  | 3.8 |                | (7)      | 0.0   | 0.0 | 14.3 | 28.6  | 57.1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9.986<br>(5)   | (0)      | -     | -   | -    | -     | -     | 2.917<br>(2)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93.3  | 6.7 |                | (6)      | 0.0   | 0.0 | 16.7 | 16.7  | 66.7  |               |
|       | 고3 | (55)  | 96.4  | 3.6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1.473<br>(2)   | (0)      | -     | -   | -    | -     | -     | 2.917<br>(2)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 하  | (208) | 96.6  | 3.4 |                | (6)      | 0.0   | 0.0 | 16.7 | 16.7  | 66.7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6.6  | 3.4 | 2.885<br>(2)   | (4)      | 0.0   | 0.0 | 0.0  | 50.0  | 50.0  | 2.917<br>(2)  |
|       | 중  | (103) | 96.1  | 3.9 |                | (3)      | 0.0   | 0.0 | 33.3 | 0.0   | 66.7  |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8.3  | 1.7 | 5.212<br>(1)*  | (4)      | 0.0   | 0.0 | 0.0  | 25.0  | 75.0  | 1.896<br>(2)  |
|       | 부정 | (56)  | 92.9  | 7.1 |                | (3)      | 0.0   | 0.0 | 33.3 | 33.3  | 33.3  |               |

다음은 마약류 중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사용 경험률은 2.0%(사례 4건)로 매우 낮았다(경험 없음 98.0%). 최초 사용 시기는 고등학교 이상이 100%로, 본 표본에서의 첫 경험은 고등 단계 이후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하위집단 분포를 기술통계 수준에서 보면, 남학생 1.7%, 여학생 3.1%였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교급은 중학생 0%, 고등학생 2.8%였고, 학년별로는 고2 4.5%, 고3 3.5%였으나 통계적으로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성취수준(상 0%, 중 1.9%, 하 2.4%), 가구소득(상 2.6%, 중 1.9%, 하 1.3%), 자아긍정(긍정 1.7%, 부정 3.6%)의 차이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본 표본에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사용 경험은 극히 드물고, 첫 사용 시점이 고등 단계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성별·학교급/학년·성적·소득·자아긍정 등 집단 간 차이는 표본의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은 소수 사례에 대한 기술적 수준에 머문다.

표 III-111. 마약류 사용 경험 -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98.0  | 2.0 |               | (4)      | 0.0   | 0.0 | 0.0 | 0.0 | 100.0 |               |
| 성별    | 남  | (231) | 98.3  | 1.7 | 0.462<br>(1)  | (3)      | 0.0   | 0.0 | 0.0 | 0.0 | 100.0 | -             |
|       | 여  | (65)  | 96.9  | 3.1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2.496<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7.2  | 2.8 |               | (4)      | 0.0   | 0.0 | 0.0 | 0.0 | 100.0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6.633<br>(5)  | (0)      | -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95.5  | 4.5 |               | (3)      | 0.0   | 0.0 | 0.0 | 0.0 | 100.0 |               |
|       | 고3 | (55)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884<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하  | (208) | 97.6  | 2.4 |               | (3)      | 0.0   | 0.0 | 0.0 | 0.0 | 10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7.4  | 2.6 | 0.367<br>(2)  | (2)      | 0.0   | 0.0 | 0.0 | 0.0 | 100.0 | -             |
|       | 중  | (103)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하  | (76)  | 98.7  | 1.3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8.3  | 1.7 | 0.839<br>(1)  | (3)      | 0.0   | 0.0 | 0.0 | 0.0 | 100.0 | -             |
|       | 부정 | (56)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다음은 마약류 중 “코카인(코크), 크랙”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용 경험률은 0.3%로, 표본 전반에서 극소수에 불과했다(무경험 99.7%).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최초 경험 시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아 사례수는 0건으로 집계되었다. 경험 유무만의 기술 통계를 보면, 남학생, 중3, 성적 하집단, 가구소득 하집단, 자아긍정 부정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대부분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긍정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례수가 극소수여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I-112. 마약류 사용 경험 - 코카인(코크), 크랙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 (df) |
| 전체    |    | (297) | 99.7  | 0.3 |               | (0)      | -     | -  | -  | -  | -     |               |
| 성별    | 남  | (231) | 99.6  | 0.4 | 0.282<br>(1)  | (0)      | -     | -  | -  | -  | -     | -             |
|       | 여  | (65)  | 100.0 | 0.0 |               | (0)      | -     | -  | -  | -  | -     |               |
| 교급    | 중  | (86)  | 98.8  | 1.2 | 2.462<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100.0 | 0.0 |               | (0)      | -     | -  | -  | -  | -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5.205<br>(5)  | (0)      | -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97.9  | 2.1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3 | (55)  | 100.0 | 0.0 |               | (0)      | -     | -  | -  | -  | -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429<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100.0 | 0.0 |               | (0)      | -     | -  | -  | -  | -     |               |
|       | 하  | (208) | 99.5  | 0.5 |               | (0)      | -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117) | 100.0 | 0.0 | 2.905<br>(2)  | (0)      | -     | -  | -  | -  | -     | -             |
|       | 중  | (10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하  | (76)  | 98.7  | 1.3 |               | (0)      |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100.0 | 0.0 | 4.318<br>(1)* | (0)      | -     | -  | -  | -  | -     | -             |
|       | 부정 | (56)  | 98.2  | 1.8 |               | (0)      | -     | -  | -  | -  | -     |               |

다음은 마약류 중 “LSD, 엘(L)”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용 경험률은 1.0%로 매우 낮았다(무경험 99.0%). 최초 사용 시기를 보고한 사례 2건은 모두 고등학생

이상(100%)으로, 본 표본에서의 첫 사용은 후기 청소년기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을 기술통계 수준에서 보면, 여학생 3.1%, 남학생 0.4%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급은 고등학생 1.4%로, 고2 1.1%, 고3 3.6%였으며 상급 학년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취수준과 가구소득에서도 집단간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자아긍정에서는 부정집단이 3.6%가 긍정집단 0.4%보다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집단 간 차이는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II-113. 마약류 사용 경험 - LSD, 엘(L)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_{(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_{(df)}$ |
| 전체    |    | (297) | 99.0  | 1.0 |                 | (2)      | 0.0   | 0.0 | 0.0 | 0.0 | 100.0 |                 |
| 성별    | 남  | (231) | 99.6  | 0.4 | 3.535<br>(1)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 여  | (65)  | 96.9  | 3.1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1.235<br>(1)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8.6  | 1.4 |                 | (2)      | 0.0   | 0.0 | 0.0 | 0.0 | 100.0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5.367<br>(5)    | (0)      | -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98.9  | 1.1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고3 | (55)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745<br>(2)    | (0)      | -     | -   | -   | -   | -     | -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하  | (208) | 99.0  | 1.0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8.3  | 1.7 | 1.345<br>(2)    | (2)      | 0.0   | 0.0 | 0.0 | 0.0 | 100.0 | -               |
|       | 중  | (103) | 99.0  | 1.0 |                 | (0)      | -     | -   | -   | -   | -     |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6  | 0.4 | 4.528<br>(1)*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 부정 | (56)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다음은 마약류 중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용 경험률은 1.3%(사례 3건)로 매우 낮았으며, 무경험은 98.7%였다. 최초 사용 시기를 보고한 모든 사례가 고등학교 이상(100%)에 해당해, 본 표본에서의 첫 사용은 후기 청소년기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기술통계를 보면, 여학생 3.1%, 남학생 0.9%로 여학생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2 2.2%, 고3 3.6%로 상급 학년에서 다소 높았다. 성적 수준은 상 0%, 중 1.9%, 하 1.4%, 가구소득은 상 1.7%, 중 1.9%, 하 0%로 큰 차이가 없었다. 자아긍정 수준은 부정집단 3.6%, 긍정집단 0.8%로 격차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엑스터시 등의 사용 경험은 극히 희소하고, 첫 사용은 고등 단계 이후에서만 관찰되었다. 하위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14. 마약류 사용 경험 -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단위: (명), %)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 전체    |    | (297) | 98.7  | 1.3 |               | (3)      | 0.0   | 0.0 | 0.0 | 0.0 | 100.0 |
| 성별    | 남  | (231) | 99.1  | 0.9 | 1.860         | (2)      | 0.0   | 0.0 | 0.0 | 0.0 | 100.0 |
|       | 여  | (65)  | 96.9  | 3.1 | (1)           | (1)      | 0.0   | 0.0 | 0.0 | 0.0 | 100.0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1.653         | (0)      | -     | -   | -   | -   | -     |
|       | 고  | (211) | 98.1  | 1.9 | (1)           | (3)      | 0.0   | 0.0 | 0.0 | 0.0 | 100.0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802         | (0)      | -     | -   | -   | -   | -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2 | (89)  | 97.8  | 2.2 |               | (2)      | 0.0   | 0.0 | 0.0 | 0.0 | 100.0 |
|       | 고3 | (55)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596         | (0)      | -     | -   | -   | -   | -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하  | (208) | 98.6  | 1.4 |               | (2)      | 0.0   | 0.0 | 0.0 | 0.0 | 100.0 |
| 가구 소득 | 상  | (117) | 98.3  | 1.7 | 1.423         | (2)      | 0.0   | 0.0 | 0.0 | 0.0 | 100.0 |
|       | 중  | (103)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하  | (76)  | 100.0 | 0.0 |               | (0)      |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2  | 0.8 | 2.571         | (2)      | 0.0   | 0.0 | 0.0 | 0.0 | 100.0 |
|       | 부정 | (56)  | 96.4  | 3.6 | (1)           | (1)      | 0.0   | 0.0 | 0.0 | 0.0 | 100.0 |

다음은 마약류 중 “케타민, K(케이)”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표본의 사용 경험률은 1.3%(3건)로 매우 낮았으며, 최초 사용 시기는 고등학교 이상 66.7%, 중학교 3학년 33.3%로 나타났다. 하위 집단에서는 성별과 자아긍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 0.4%에 비해 여학생 4.6%로 그 사용률이 현저히 높았으며, 자아긍정 부정 집단 5.4%로 긍정 집단 0.4%보다 높았다. 다만,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케타민 사용이 여자가 더 많이 복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외의 하위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15. 마약류 사용 경험 - 케타민, K(케이)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초 경험 시기 |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초등 이하 | 중1  | 중2  | 중3    | 고등 이상 | $\chi^2(df)$ |
| 전체    |    | (297) | 98.7  | 1.3 |              | (3)      | 0.0   | 0.0 | 0.0 | 33.3  | 66.7  |              |
| 성별    | 남  | (231) | 99.6  | 0.4 | 6.656        | (1)      | 0.0   | 0.0 | 0.0 | 0.0   | 100.0 | 0.750        |
|       | 여  | (65)  | 95.4  | 4.6 | (1)**        | (2)      | 0.0   | 0.0 | 0.0 | 50.0  | 50.0  | (1)          |
| 교급    | 중  | (86)  | 100.0 | 0.0 | 1.653        | (0)      | -     | -   | -   | -     | -     | -            |
|       | 고  | (211) | 98.1  | 1.9 | (1)          | (3)      | 0.0   | 0.0 | 0.0 | 33.3  | 66.7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4.802<br>(5) | (0)      | -     | -   | -   | -     | -     | 0.750<br>(1) |
|       | 중2 | (33)  | 100.0 | 0.0 |              | (0)      | -     | -   | -   | -     | -     |              |
|       | 중3 | (48)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1 | (67)  | 100.0 | 0.0 |              | (0)      | -     | -   | -   | -     | -     |              |
|       | 고2 | (89)  | 97.8  | 2.2 |              | (2)      | 0.0   | 0.0 | 0.0 | 50.0  | 50.0  |              |
|       | 고3 | (55)  | 96.4  | 3.6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0.596<br>(2) | (0)      | -     | -   | -   | -     | -     | 0.750<br>(1) |
|       | 중  | (54)  | 98.1  | 1.9 |              | (1)      | 0.0   | 0.0 | 0.0 | 0.0   | 100.0 |              |
|       | 하  | (208) | 98.6  | 1.4 |              | (2)      | 0.0   | 0.0 | 0.0 | 50.0  | 50.0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8.3  | 1.7 | 0.225<br>(2) | (2)      | 0.0   | 0.0 | 0.0 | 0.0   | 100.0 | 3.000<br>(1) |
|       | 중  | (103) | 99.0  | 1.0 |              | (0)      | -     | -   | -   | -     | -     |              |
|       | 하  | (76)  | 98.7  | 1.3 |              | (1)      | 0.0   | 0.0 | 0.0 | 10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241) | 99.6  | 0.4 | 8.354        | (1)      | 0.0   | 0.0 | 0.0 | 0.0   | 100.0 | 0.750        |
|       | 부정 | (56)  | 94.6  | 5.4 | (1)**        | (2)      | 0.0   | 0.0 | 0.0 | 50.0  | 50.0  | (1)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대마초/마리화나”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본 문항의 유효사례는 2건으로, 최근 6개월 내 사용경험이 ‘있다’ 1건(50.0%), ‘없다’ 1건(50.0%)으로 나타났다.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건의 빈도는 ‘3-5회’로 저·중빈도에 해당하였다. 하위집단의 기술통계를 보면, 최근 사용 1건은 남학생, 고등학교 2학년, 성적 하위권, 중간 소득 및 자아긍정 긍정범주에 위치하였다.

표 III-116.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대마초, 마리화나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2)   | 50.0  | 50.0  |               | (1)             | 0.0  | 100.0 | 0.0  | 0.0    |               |
| 성별    | 남  | (1)   | 0.0   | 100.0 | 2.000<br>(1)  | (1)             | 0.0  | 100.0 | 0.0  | 0.0    | -             |
|       | 여  | (1)   | 100.0 | 0.0   |               | (0)             | -    | -     | -    | -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2)   | 50.0  | 50.0  |               | (1)             | 0.0  | 100.0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2.000<br>(1)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고3 | (1)   | 100.0 | 0.0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0)   | -     | -     |               | (0)             | -    | -     | -    | -      |               |
|       | 하  | (2)   | 50.0  | 50.0  |               | (1)             | 0.0  | 10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2)   | 50.0  | 50.0  |               | (1)             | 0.0  | 100.0 | 0.0  | 0.0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1)   | 0.0   | 100.0 | 2.000<br>(1)  | (1)             | 0.0  | 100.0 | 0.0  | 0.0    | -             |
|       | 부정 | (1)   | 100.0 | 0.0   |               | (0)             | -    | -     | -    | -      |               |

다음은 마약류 중 “합성대마”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표본의 사용 경험률은 ‘있다’ 4건(50.0%), ‘없다’ 4건(50.0%)이었으며, 최근 6개월 내 사용이 있다고 응답한

3건의 분포는 ‘1-2회’ 33.3%, ‘10회 이상’ 66.7%로, 소수사례지만 저빈도 사용과 고빈도 반복 사용이 병존하는 양상이었다.

하위집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최근 6개월 사용 사례가 1건으로 1-2회 100%였으며, 여학생에서는 2건 모두 ‘10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은 고등학교에서만 사례가 존재했고, 학년별로는 고2(최근 사용 2건: 1-2회 및 10회 이상), 고3(1건: 10회 이상)이었다. 학업성취 수준에서는 하위 집단에서만 최근 사용 3건이 확인되었고, 가구소득은 상·중 각각 1건과 2건으로 나타났다. 자아긍정 수준별로는 긍정집단 1건(1-2회), 부정 집단 2건(모두 10회 이상)이었다. 하위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17.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합성대마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df)$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8)   | 50.0  | 50.0 |              | (3)             | 33.3  | 0.0  | 0.0  | 66.7   |              |
| 성별       | 남  | (3)   | 66.7  | 33.3 | 0.533<br>(1) | (1)             | 100.0 | 0.0  | 0.0  | 0.0    | 3.000<br>(1) |
|          | 여  | (5)   | 40.0  | 60.0 |              | (2)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8)   | 50.0  | 50.0 |              | (3)             | 33.3  | 0.0  | 0.0  | 66.7   |              |
| 학년       | 중1 | (0)   | -     | -    | 0.000<br>(1) | (0)             | -     | -    | -    | -      | 0.750<br>(1)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6)   | 50.0  | 50.0 |              | (2)             | 50.0  | 0.0  | 0.0  | 50.0   |              |
|          | 고3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성적       | 상  | (0)   | -     | -    | 1.143<br>(1) | (0)             | -     | -    | -    | -      | -            |
|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하  | (7)   | 42.9  | 57.1 |              | (3)             | 33.3  | 0.0  | 0.0  | 66.7   |              |
| 가구<br>소득 | 상  | (4)   | 50.0  | 50.0 | 0.000<br>(1) | (1)             | 0.0   | 0.0  | 0.0  | 100.0  | 0.750<br>(1) |
|          | 중  | (4)   | 50.0  | 50.0 |              | (2)             | 50.0  | 0.0  | 0.0  | 50.0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50.0  | 50.0 | 0.000<br>(1) | (1)             | 100.0 | 0.0  | 0.0  | 0.0    | 3.000<br>(1) |
|          | 부정 | (4)   | 50.0  | 50.0 |              | (2)             | 0.0   | 0.0  | 0.0  | 100.0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유효사례는 6건으로, 이 중 최근 6개월 내 사용 ‘있다’가 66.7%, ‘없다’가 33.3%로 집계되었다. 최근 사용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경험자 6명 중 4명으로, 10회 이상이 50%, 3-5회 25.0%, 6-9회 25.0%로 사용 횟수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하위집단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2건(3-5회 50%, 6-9회 50%), 여학생 2건(10회 이상 100.0%)였다. 교급은 고등학생에서만 최근 사용이 보고되었고, 고2 2건(6-9회 50%, 10회 이상 50%), 고3 2건(3-5회 50%, 10회 이상 50%)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성취 수준은 중위 1건, 하위 3건이며, 가구소득은 상 2건, 중 1건, 하 1건으로 분포했다. 마지막으로 자아긍정 수준별로는 긍정 2건, 부정 2건이었으면 부정의 경우는 두 건 모두 최근 6개월 내 10회 이상 사용하였다.

표 III-118.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아이스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6)   | 33.3 | 66.7  | 1.500<br>(1)  | (4)             | 0.0  | 25.0  | 25.0  | 50.0   | 4.000<br>(2)  |
| 성별    | 남  | (4)   | 50.0 | 50.0  |               | (2)             | 0.0  | 50.0  | 50.0  | 0.0    |               |
|       | 여  | (2)   | 0.0  | 100.0 |               | (2)             | 0.0  | 0.0   | 0.0   | 100.0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6)   | 33.3 | 66.7  |               | (4)             | 0.0  | 25.0  | 25.0  | 50.0   |               |
| 학년    | 중1 | (0)   | -    | -     | 1.500<br>(1)  | (0)             | -    | -     | -     | -      | 2.000<br>(2)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4)   | 50.0 | 50.0  |               | (2)             | 0.0  | 0.0   | 50.0  | 50.0   |               |
|       | 고3 | (2)   | 0.0  | 100.0 |               | (2)             | 0.0  | 50.0  | 0.0   | 50.0   |               |
| 성적    | 상  | (0)   | -    | -     | 0.600<br>(1)  | (0)             | -    | -     | -     | -      | 4.000<br>(2)  |
|       | 중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하  | (5)   | 40.0 | 60.0  |               | (3)             | 0.0  | 0.0   | 33.3  | 66.7   |               |
| 가구 소득 | 상  | (3)   | 33.3 | 66.7  | 0.750<br>(2)  | (2)             | 0.0  | 50.0  | 0.0   | 50.0   | 5.000<br>(4)  |
|       | 중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 하  | (1)   | 0.0  | 100.0 |               | (1)             | 0.0  | 0.0   | 10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4)   | 50.0 | 50.0  | 1.500         | (2)             | 0.0  | 50.0  | 50.0  | 0.0    | 4.000         |
|       | 부정 | (2)   | 0.0  | 100.0 | (1)           | (2)             | 0.0  | 0.0   | 0.0   | 100.0  | (2)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코카인(코크), 크랙”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본 문항에서는 1건의 “코카인(코크), 크랙”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6개월 이내에는 사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코카인(코크), 크랙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 (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chi^2$ (df) |
| 전체    |    | (1)   | 100.0 | 0.0 | -             | (0)             | -    | -    | -    | -      | -             |
| 성별    | 남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여  | (0)   | -     | -   | -             | (0)             | -    | -    | -    | -      | -             |
| 교급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 고  | (0)   | -     | -   |               | (0)             | -    | -    | -    | -      |               |
| 학년    | 중1 | (0)   | -     | -   | -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0)   | -     | -   |               | (0)             | -    | -    | -    | -      |               |
|       | 고3 | (0)   | -     | -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0)   | -     | -   |               | (0)             | -    | -    | -    | -      |               |
|       | 하  | (1)   | 100.0 | 0.0 |               | (0)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0)   | -     | -   |               | (0)             | -    | -    | -    | -      |               |
|       | 하  | (1)   | 100.0 | 0.0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0)   | -     | -   | -             | (0)             | -    | -    | -    | -      | -             |
|       | 부정 | (1)   | 100.0 | 0.0 |               | (0)             | -    | -    | -    | -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LSD, 엘(L)”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본 문항에서는 3건의 “LSD, 엘(L)” 사용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6개월 이내에는 사용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0.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LSD, 엘(L)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chi^2$ (df)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 (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3)   | 100.0 | 0.0 |               | (0)             | -    | -    | -    | -      |               |
| 성별    | 남  | (1)   | 100.0 | 0.0 | -             | (0)             | -    | -    | -    | -      | -             |
|       | 여  | (2)   | 100.0 | 0.0 |               | (0)             | -    | -    | -    | -      |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3)   | 100.0 | 0.0 |               | (0)             | -    | -    | -    | -      |               |
| 학년    | 중1 | (0)   | -     | -   | -             | (0)             | -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고3 | (2)   | 100.0 | 0.0 |               | (0)             | -    | -    | -    | -      |               |
| 성적    | 상  | (0)   | -     | -   | -             | (0)             | -    | -    | -    | -      | -             |
|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하  | (2)   | 100.0 | 0.0 |               | (0)             | -    | -    | -    | -      |               |
| 가구 소득 | 상  | (2)   | 100.0 | 0.0 | -             | (0)             | -    | -    | -    | -      | -             |
|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1)   | 100.0 | 0.0 | -             | (0)             | -    | -    | -    | -      | -             |
|       | 부정 | (2)   | 100.0 | 0.0 |               | (0)             | -    | -    | -    | -      |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본 문항의 유효사례는 4건으로, 이 중 최근 6개월 내 사용이 ‘있다’가 3건(75.0%), ‘없다’가 1건(25.0%)였다. 사용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례의 횟수 빈도 분포는 4명 중 3명만이 응답하였고, 1~2회 66.7%, 3~5회 33.3%였다. 응답자는 모두 고등학생에서 나타났으며, 고2 1건(1~2회), 고3 2건(1~2회, 3~5회 각 1건)으로 집계되었다. 성적 성취수준은 중위 1건, 하위 2건이었으며, 가구소득은 상 2건, 중1건, 자아긍정은 긍정 1건과 부정 2건으로 분포했다. 다만 모든 하위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6개월 내 MDMA 사용은 소수 사례에 한정되고,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중빈도(5회 미만)에 머무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표 III-121.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엑스터시, E, 엑스, 캔디, MDMA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chi^2(df)$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 전체    |    | (4)   | 25.0 | 75.0  |              | (3)             | 66.7  | 33.3  | 0.0  | 0.0    |              |
| 성별    | 남  | (2)   | 50.0 | 50.0  | 1.333        | (1)             | 0.0   | 100.0 | 0.0  | 0.0    | 3.000        |
|       | 여  | (2)   | 0.0  | 100.0 | (1)          | (2)             | 100.0 | 0.0   | 0.0  | 0.0    | (1)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       | 고  | (4)   | 25.0 | 75.0  |              | (3)             | 66.7  | 33.3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1.333<br>(1) | (0)             | -     | -     | -    | -      | 0.750<br>(1)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 고2 | (2)   | 50.0 | 50.0  |              | (1)             | 100.0 | 0.0   | 0.0  | 0.0    |              |
|       | 고3 | (2)   | 0.0  | 100.0 |              | (2)             | 50.0  | 5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0.444<br>(1) | (0)             | -     | -     | -    | -      | 3.000<br>(1) |
|       | 중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 하  | (3)   | 33.3 | 66.7  |              | (2)             | 100.0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2)   | 0.0  | 100.0 | 1.333<br>(1) | (2)             | 50.0  | 50.0  | 0.0  | 0.0    | 0.750<br>(1) |
|       | 중  | (2)   | 50.0 | 50.0  |              | (1)             | 100.0 | 0.0   | 0.0  | 0.0    |              |
|       | 하  | (0)   | -    | -     |              | (0)             |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2)   | 50.0 | 50.0  | 1.333        | (1)             | 0.0   | 100.0 | 0.0  | 0.0    | 3.000        |
|       | 부정 | (2)   | 0.0  | 100.0 | (1)          | (2)             | 100.0 | 0.0   | 0.0  | 0.0    | (1)          |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를 묻는 것으로 “케타민, K(케이)” 사용 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유효사례는 4건으로, 최근 6개월 내 사용이 ‘있다’ 2건(50.0%), ‘없다’ 2건(50.0%)이었다. 최근 6개월간 사용이 있었다고 응답한 2건의 빈도 분포는 ‘3~5회’ 1건, ‘10회 이상’이 1건으로, 확인된 사례가 극소수이지만 중빈도와 고빈도에 각각 1건씩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사용 2건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급에서만 관찰되었다. 고2에서 ‘10회 이상’ 1건, 고3에서 ‘3~5회’ 1건으로 각각 1건씩 분산되었다. 성취수준은 하위 집단에서만 최근 사용 2건이 확인되었고, 가구소득은 상 1건, 중 1건이었다. 자아긍정 수준별로는 부정 집단에서만 2건이 보고되었다. 다만, 모든 하위 범주는 통계적으로 집단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기술통계 수준의 분포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표 III-122.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 사용 횟수 - 케타민, K(케이)

(단위: (명),%)

|       |    | 경험 유무 |       |       |              | 최근 6개월 동안 사용 횟수 |      |       |      |        |
|-------|----|-------|-------|-------|--------------|-----------------|------|-------|------|--------|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사례수             | 1~2회 | 3~5회  | 6~9회 | 10회 이상 |
| 전체    |    | (4)   | 50.0  | 50.0  |              | (2)             | 0.0  | 50.0  | 0.0  | 50.0   |
| 성별    | 남  | (1)   | 100.0 | 0.0   | 1.333<br>(1) | (0)             | -    | -     | -    | -      |
|       | 여  | (3)   | 33.3  | 66.7  |              | (2)             | 0.0  | 50.0  | 0.0  | 50.0   |
| 교급    | 중  | (0)   | -     | -     | -            | (0)             | -    | -     | -    | -      |
|       | 고  | (4)   | 50.0  | 50.0  |              | (2)             | 0.0  | 50.0  | 0.0  | 50.0   |
| 학년    | 중1 | (0)   | -     | -     | 0.000<br>(1) | (0)             | -    | -     | -    | -      |
|       | 중2 | (0)   | -     | -     |              | (0)             | -    | -     | -    | -      |
|       | 중3 | (0)   | -     | -     |              | (0)             | -    | -     | -    | -      |
|       | 고1 | (0)   | -     | -     |              | (0)             | -    | -     | -    | -      |
|       | 고2 | (2)   | 50.0  | 50.0  |              | (1)             | 0.0  | 0.0   | 0.0  | 100.0  |
|       | 고3 | (2)   | 50.0  | 50.0  |              | (1)             | 0.0  | 100.0 | 0.0  | 0.0    |
| 성적    | 상  | (0)   | -     | -     | 1.333<br>(1) | (0)             | -    | -     | -    | -      |
|       | 중  | (1)   | 100.0 | 0.0   |              | (0)             | -    | -     | -    | -      |
|       | 하  | (3)   | 33.3  | 66.7  |              | (2)             | 0.0  | 50.0  | 0.0  | 50.0   |
| 가구 소득 | 상  | (2)   | 50.0  | 50.0  | 2.000<br>(2) | (1)             | 0.0  | 0.0   | 0.0  | 100.0  |
|       | 중  | (1)   | 0.0   | 100.0 |              | (1)             | 0.0  | 100.0 | 0.0  | 0.0    |
|       | 하  | (1)   | 100.0 | 0.0   |              | (0)             | -    | -     | -    | -      |
| 자아 긍정 | 긍정 | (1)   | 100.0 | 0.0   | 1.333<br>(1) | (0)             | -    | -     | -    | -      |
|       | 부정 | (3)   | 33.3  | 66.7  |              | (2)             | 0.0  | 50.0  | 0.0  | 50.0   |

## 2) 최근 6개월간 마약류 사용 경험 상세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합성대마’, ‘메스암페타민’, ‘대마초/마리화나’, ‘엑스터시’의 순이었으며, 각각 33.3%, 33.3%, 16.7%, 16.7%였다.

최근 6개월 이내 마약을 사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인지 경로를 물었을 때, ‘텔레그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포레’(33.3%),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16.7%) 순이었다.

마약류 구입 경로는 ‘텔레그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포레’(16.7%),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16.7%) 순이었다.

(n=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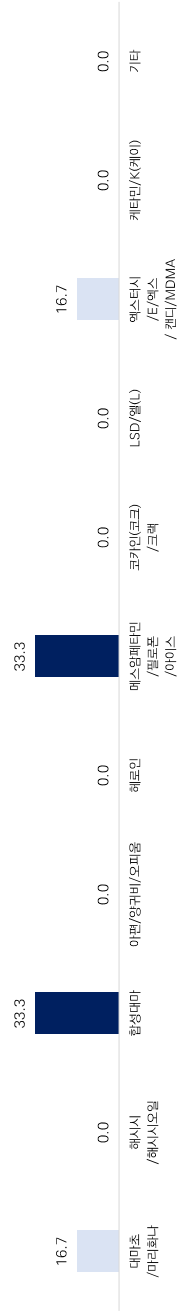


그림 III -31.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n=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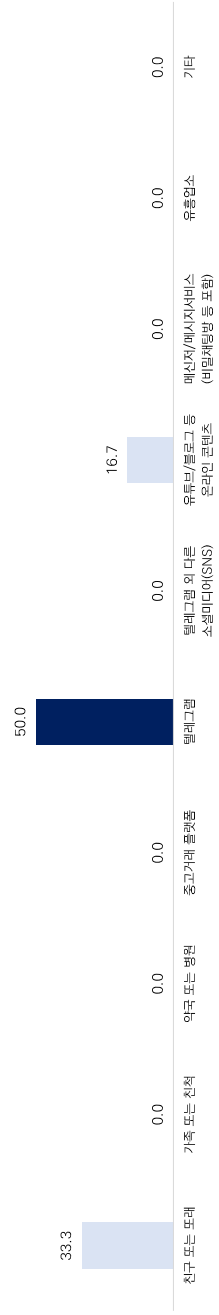


그림 III -32. 마약류 인지 경로

(n=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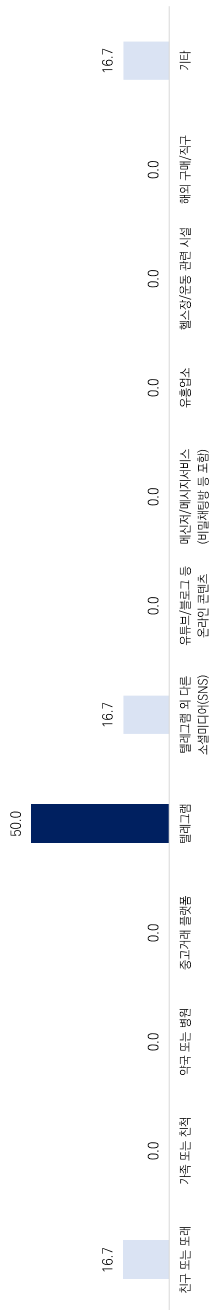


그림 III -33. 마약류 구입 경로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가 50.0%로 가장 높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떨기 위해서’가 각각 16.7%였다.

(n=6)  
(단위: (명), %)



그림 III-34.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의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로 지목된 것은 ‘합성대마(33.3%)’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아이사, 이하 메스암페타민, 33.3%’이 공동 1순위였고, ‘대마초/마리화나(이하 대마초, 16.7%)’와 ‘엑스터시/E/엑스/캔디/MDMA(이하 엑스터시, 16.7%)’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해시시, 아편, 헤로인, 코카인, LSD, 케타민, 기타 마약류는 응답자가 없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대마초,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가 각 33.3%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여학생은 합성대마 66.7%, 메스암페타민 33.3%로 나타났다. 사례는 모두 고등학생에서 관찰되었으며, 고2는 대마 25.0%, 합성대마 25.0%, 메스암페타민 50%, 고3은 합성대마 50.0%, 엑스터시 50.0%로 나타나 학년별 우세 약물이 달랐다. 성적 성취수준별로는 하위 집단에서 합성대마(40.0%)와 메스암페타민(40.0%)의 비중이 컸다. 가구 소득별로는 상 집단은 대마초, 합성대마, 엑스터시 각각 나타났다. 자아긍정 수준에서는 부정 집단의 ‘합성대마’가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만, 각 범주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위 결과는 기술적 통계에 한정된다.

표 III-123.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 (6) | 16.7 | 0.0 | 33.3 | 0.0 | 0.0 | 33.3  |
| 성별    | 남  | (3) | 33.3 | 0.0 | 0.0  | 0.0 | 0.0 | 33.3  |
|       | 여  | (3) | 0.0  | 0.0 | 66.7 | 0.0 | 0.0 | 33.3  |
| 교급    | 중  | (0) | -    | -   | -    | -   | -   | 0.0   |
|       | 고  | (6) | 16.7 | 0.0 | 33.3 | 0.0 | 0.0 | 33.3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중2 | (0)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고2 | (4) | 25.0 | 0.0 | 25.0 | 0.0 | 0.0 | 50.0  |
|       | 고3 | (2) | 0.0  | 0.0 | 50.0 | 0.0 | 0.0 | 0.0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중  | (1) | 0.0  | 0.0 | 0.0  | 0.0 | 0.0 | 0.0   |
|       | 하  | (5) | 20.0 | 0.0 | 40.0 | 0.0 | 0.0 | 40.0  |
| 가구 소득 | 상  | (3) | 0.0  | 0.0 | 33.3 | 0.0 | 0.0 | 33.3  |
|       | 중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       | 하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자아 긍정 | 긍정 | (4) | 25.0 | 0.0 | 25.0 | 0.0 | 0.0 | 25.0  |
| 긍정    | 부정 | (2) | 0.0  | 0.0 | 50.0 | 0.0 | 0.0 | 50.0  |

① 대마초/마리화나

② 해시시/해시시오일

③ 합성대마

④ 아편/양귀비/오피움

⑤ 헤로인

⑥ 메스암페타민/필로폰/아이스

⑦ 코카인(코크)/크랙

⑧ LSD/엘(L)

⑨ 엑스터시/E/엑스/ 캔디/MDMA

⑩ 케타민/K(케이)

⑪ 기타



표 III-123. 최근 6개월 이내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chi^2$ (df) |
|----------|----|-----|-----|-----|-------|-----|-----|---------------|
| 전체       |    | (6) | 0.0 | 0.0 | 16.7  | 0.0 | 0.0 |               |
| 성별       | 남  | (3) | 0.0 | 0.0 | 33.3  | 0.0 | 0.0 | 4.000<br>(3)  |
|          | 여  | (3)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고  | (6) | 0.0 | 0.0 | 16.7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3.750<br>(3)  |
|          | 중2 | (0)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고2 | (4) | 0.0 | 0.0 | 0.0   | 0.0 | 0.0 |               |
|          | 고3 | (2) | 0.0 | 0.0 | 5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6.000<br>(3)  |
|          | 중  | (1) | 0.0 | 0.0 | 100.0 | 0.0 | 0.0 |               |
|          | 하  | (5) | 0.0 | 0.0 | 0.0   | 0.0 | 0.0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0.0 | 33.3  | 0.0 | 0.0 | 5.500<br>(6)  |
|          | 중  | (2)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1) | 0.0 | 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0.0 | 25.0  | 0.0 | 0.0 | 1.500<br>(3)  |
|          | 부정 | (2) | 0.0 | 0.0 | 0.0   | 0.0 | 0.0 |               |

① 대마초/마리화나

② 해시시/해시시오일

③ 합성대마

④ 아편/양귀비/오피움

⑤ 헤로인

⑥ 메스암페타민/필로폰/아이스

⑦ 코카인(코크)/크랙

⑧ LSD/엘(L)

⑨ 엑스터시/E/엑스/ 캔디/MDMA

⑩ 케타민/K(케이)

⑪ 기타

다음은 “마약류 인지 경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마약류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텔레그램(50.0%)’이 가장 많았고, 친구·포래(33.3%),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16.7%)가 뒤를 이었다. 가족·친척, 약국·병원, 중고거래 플랫폼, 일반 메신저, 유흥업소나 기타 경로에서 인지된 사례는 없었다.

하위 집단별로 보면, 남학생은 텔레그램 66.7%, 온라인 콘텐츠 33.3%로 온라인 기반 경로가 중심이었고, 여학생은 친구·포래 66.7%, 텔레그램 33.3%로 포래 네트워크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례는 모두 고등학생에게서만 관찰되었으며, 고2는 친구·포레(50.0%), 텔레그램 및 온라인 각각 25.0%로 분산된 반면, 고3은 텔레그램이 100%로 특정 경로 집중 양상을 보였다. 학업성취수준에서는 중위권이 텔레그램 100%, 하위권은 친구·포레 및 텔레그램이 각각 40.0%, 온라인이 20.0%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중간소득에서 텔레그램과 온라인이 50.0%, 하 소득에서는 텔레그램 100%로 집계되었다. 자아긍정 수준은 긍정 집단에서 텔레그램 50.0%, 친구·포레 및 온라인 각각 25.0%, 부정 집단에서 친구·포레 50.0%, 텔레그램 50.0%였다. 다만, 하위 항목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24. 마약류 인지 경로 - ①

(단위: (명),%)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전체    | (6) | 33.3 | 0.0  | 0.0 | 0.0 | 50.0  |
| 성별    | 남   | (3)  | 0.0  | 0.0 | 0.0 | 66.7  |
|       | 여   | (3)  | 66.7 | 0.0 | 0.0 | 33.3  |
| 교급    | 중   | (0)  | -    | -   | -   | -     |
|       | 고   | (6)  | 33.3 | 0.0 | 0.0 | 50.0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중2  | (0)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고2  | (4)  | 50.0 | 0.0 | 0.0 | 25.0  |
|       | 고3  | (2)  | 0.0  | 0.0 | 0.0 | 100.0 |
| 성적    | 상   | (0)  | -    | -   | -   | -     |
|       | 중   | (1)  | 0.0  | 0.0 | 0.0 | 100.0 |
|       | 하   | (5)  | 40.0 | 0.0 | 0.0 | 40.0  |
| 가구 소득 | 상   | (3)  | 66.7 | 0.0 | 0.0 | 33.3  |
|       | 중   | (2)  | 0.0  | 0.0 | 0.0 | 50.0  |
|       | 하   | (1)  | 0.0  | 0.0 | 0.0 | 100.0 |
| 자아 긍정 | 긍정  | (4)  | 25.0 | 0.0 | 0.0 | 50.0  |
|       | 부정  | (2)  | 50.0 | 0.0 | 0.0 | 50.0  |

① 친구 또는 포레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

표 III-124. 마약류 인지 경로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⑩   | $\chi^2$ (df) |
|-------|----|-----|-----|------|-----|-----|-----|---------------|
| 전체    |    | (6) | 0.0 | 16.7 | 0.0 | 0.0 | 0.0 |               |
| 성별    | 남  | (3) | 0.0 | 33.3 | 0.0 | 0.0 | 0.0 | 3.333<br>(2)  |
|       | 여  | (3)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고  | (6) | 0.0 | 16.7 | 0.0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3.000<br>(2)  |
|       | 중2 | (0)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고2 | (4) | 0.0 | 25.0 | 0.0 | 0.0 | 0.0 |               |
|       | 고3 | (2)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1.200<br>(2)  |
|       | 중  | (1)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5) | 0.0 | 20.0 | 0.0 | 0.0 | 0.0 |               |
| 가구 소득 | 상  | (3) | 0.0 | 0.0  | 0.0 | 0.0 | 0.0 | 4.667<br>(4)  |
|       | 중  | (2) | 0.0 | 50.0 | 0.0 | 0.0 | 0.0 |               |
|       | 하  | (1) | 0.0 | 0.0  | 0.0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4) | 0.0 | 25.0 | 0.0 | 0.0 | 0.0 | 0.750<br>(2)  |
|       | 부정 | (2) | 0.0 | 0.0  | 0.0 | 0.0 | 0.0 |               |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

다음은 “마약류 구입 경로”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온라인 기반 경로가 우세했는데, 텔레그램이 50.0%로 가장 높았고, 친구·또래 16.7%, 텔레그램 외 소셜미디어 16.7%, 기타 16.7%가 뒤를 이었다. 가족·친척, 약국·병원, 중고거래 플랫폼, 일반 메신저, 유흥업소, 해외직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집단별 분포를 보면, 사례는 모두 고등학생에서만 관찰되었다. 고2는 친구·또래·텔레그램·SNS·기타가 각각 25.0%로 경로가 분산된 반면, 고3은 텔레그램 100%로 특정 경로 집중 양상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텔레그램 외 소셜미디어 33.3%·텔레그램 33.3%·기타 33.3%로 온라인 편중이 뚜렷했고, 여학생은 텔레그램 66.7%와 친구·또래 33.3%로 또래 네트워크의 비율도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성취 수준에서는 중위권

100%가 텔레그램, 하위권은 텔레그램, 친구·포래, 기타가 혼재했고, 가구소득은 중간 소득에서 텔레그램 50.0%와 SNS 50.0%로 양분, 상 소득은 텔레그램 66.7%와 기타 33.3%였다. 자아긍정 수준은 긍정 집단이 네 경로(텔레그램, 친구·포래, 소셜미디어, 기타)를 각 25.0%로 고르게 사용한 반면, 부정 집단은 텔레그램 100%\*\*단일 경로에 치중했다.

정리하면, 본 6건의 표본에서 구입의 통로는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기반 경로와 포래 네트워크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고3의 경로 집중은 거래가 비공개·폐쇄형 채널로 수렴하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텔레그램 의존도가 100%로 나타난 점은 더 은밀한·비대면적 채널 선호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해석은 사례 수가 매우 적은 기술통계이므로(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집단 간 차이나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표 III-125. 마약류 구입 경로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전체    | 남  | (6) | 16.7 | 0.0 | 0.0 | 0.0 | 50.0  | 16.7  |
|       | 여  | (3) | 0.0  | 0.0 | 0.0 | 0.0 | 33.3  | 33.3  |
| 성별    | 중  | (3) | 33.3 | 0.0 | 0.0 | 0.0 | 66.7  | 0.0   |
|       | 고  | (0) | -    | -   | -   | -   | -     | -     |
| 교급    | 중1 | (6) | 16.7 | 0.0 | 0.0 | 0.0 | 50.0  | 16.7  |
|       | 중2 | (0) | -    | -   | -   | -   | -     | -     |
| 학년    | 중3 | (0)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고2 | (4) | 25.0 | 0.0 | 0.0 | 0.0 | 25.0  | 25.0  |
|       | 고3 | (2) | 0.0  | 0.0 | 0.0 | 0.0 | 100.0 | 0.0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중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       | 하  | (5) | 20.0 | 0.0 | 0.0 | 0.0 | 40.0  | 20.0  |
| 가구 소득 | 상  | (3) | 33.3 | 0.0 | 0.0 | 0.0 | 66.7  | 0.0   |
|       | 중  | (2) | 0.0  | 0.0 | 0.0 | 0.0 | 50.0  | 0.0   |
|       | 하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 자아 긍정 | 긍정 | (4) | 25.0 | 0.0 | 0.0 | 0.0 | 25.0  | 25.0  |
|       | 부정 | (2) | 0.0  | 0.0 | 0.0 | 0.0 | 100.0 | 0.0   |

① 친구 또는 포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⑪ 해외 구매/직구  
 ⑫ 기타

표 III-125. 마약류 구입 경로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⑦   | ⑧   | ⑨   | ⑩   | ⑪   | ⑫    | $\chi^2$ (df) |
|----------|----|-----|-----|-----|-----|-----|-----|------|---------------|
| 전체       |    | (6) | 0.0 | 0.0 | 0.0 | 0.0 | 0.0 | 16.7 |               |
| 성별       | 남  | (3) | 0.0 | 0.0 | 0.0 | 0.0 | 0.0 | 33.3 | 3.333<br>(3)  |
|          | 여  | (3) | 0.0 | 0.0 | 0.0 | 0.0 | 0.0 | 0.0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고  | (6) | 0.0 | 0.0 | 0.0 | 0.0 | 0.0 | 16.7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3.000<br>(3)  |
|          | 중2 | (0)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0.0 | 0.0 | 0.0 | 0.0 | 25.0 |               |
|          | 고3 | (2) | 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1.200<br>(3)  |
|          | 중  | (1) | 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5) | 0.0 | 0.0 | 0.0 | 0.0 | 0.0 | 20.0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0.0 | 0.0 | 0.0 | 0.0 | 0.0  | 8.667<br>(6)  |
|          | 중  | (2) | 0.0 | 0.0 | 0.0 | 0.0 | 0.0 | 50.0 |               |
|          | 하  | (1) | 0.0 | 0.0 | 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0.0 | 0.0 | 0.0 | 0.0 | 25.0 | 3.000<br>(3)  |
|          | 부정 | (2) | 0.0 | 0.0 | 0.0 | 0.0 | 0.0 | 0.0  |               |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⑪ 해외 구매/직구

⑫ 기타

다음은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이 지목된 이유는 ‘호기심/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50.0%)였다. 그밖에 ‘스트레스 해소·기분 전환’(16.7%), ‘집중력·공부/업무 능력 향상’(16.7%), ‘우울·불안 등 심리적 고통 완화’(16.7%)가 각각 1건씩 보고되었다. 친구·또래 권유, 외모·체중 조절, 운동 능력 향상, 기타는 이번 표본에서 ‘가장 큰 이유’로는 선택되지 않았다.

하위집단 기술치로 보면, 여학생은 ‘호기심(66.7%)’ 응답 비중이 높았고, 남학생은 ‘호기심(33.3%)’ 외에 ‘스트레스 해소(33.3%)’와 ‘심리적 고통 완화(33.3%)’가 분산되어 나타났다. 응답은 모두 고등학생에서만 관찰되었으며, 고2에서는 ‘호기심(50.0%)’과 함께 ‘능력 향상(25.0%)’·‘심리적 고통 완화(25.0%)’가 일부 보고되었고, 고3에서는 ‘호기심(50.0%)’과 ‘스트레스 해소(50.0%)’가 절반씩을 차지했다. 학업성취 수준별로는 중위 성취 집단에서 ‘호기심’이 전부를 차지했고, 하위 성취 집단은 ‘호기심(60.0%)’·‘능력 향상(20.0%)’·‘심리적 고통 완화(20.0%)’가 혼재했다. 소득별로는 중간 소득 집단에서 ‘호기심’과 ‘심리적 고통 완화’가 각각 절반, 하위 소득 집단에서는 ‘심리적 고통 완화’가 단일 이유로 보고되었다. 자아긍정감은 긍정 집단에서 ‘호기심’(50.0%)이 중심이었고, 부정 집단은 ‘능력 향상’과 ‘심리적 고통 완화’가 각각 절반이었다.

해석하면, 본 표본에서 마약류 사용의 1차 동기는 탐색적 동기(호기심)가 핵심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 조절(예: 스트레스 완화/우울/불안 완화)과 성과 지향(예: 집중력·능력 향상)의 동기가 소수 나타났다. 특히 자아긍정감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하위 집단에서 ‘심리적 고통 완화’ 동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점은 일부 청소년의 자기치료적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전체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에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표 III-126.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6) | 16.7  | 0.0 | 50.0  | 0.0 | 16.7  | 16.7 | 0.0 | 0.0 |              |
| 성별       | 남  | (3) | 33.3  | 0.0 | 33.3  | 0.0 | 33.3  | 0.0  | 0.0 | 0.0 | 3.333<br>(3) |
|          | 여  | (3) | 0.0   | 0.0 | 66.7  | 0.0 | 0.0   | 33.3 | 0.0 | 0.0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16.7  | 0.0 | 50.0  | 0.0 | 16.7  | 16.7 | 0.0 | 0.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3.000<br>(3)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0.0 | 50.0  | 0.0 | 25.0  | 25.0 | 0.0 | 0.0 |              |
|          | 고3 | (2) | 50.0  | 0.0 | 5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6.000<br>(3) |
|          | 중  | (1)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5) | 0.0   | 0.0 | 60.0  | 0.0 | 20.0  | 20.0 | 0.0 | 0.0 |              |
| 가구<br>소득 | 상  | (3) | 33.3  | 0.0 | 33.3  | 0.0 | 0.0   | 33.3 | 0.0 | 0.0 | 8.667<br>(6) |
|          | 중  | (2)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 하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25.0  | 0.0 | 50.0  | 0.0 | 25.0  | 0.0  | 0.0 | 0.0 | 3.000<br>(3) |
|          | 부정 | (2) | 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0.0 |              |

- 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② 친구나 또래의 권유로 인해  
 ③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④ 외모를 개선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⑤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⑥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  
 ⑦ 근육을 키우거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⑧ 기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을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만족감을 느꼈다’,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4.5점, 3.5점 순으로 높았으며,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3.0점, 3.3점, 3.3점 순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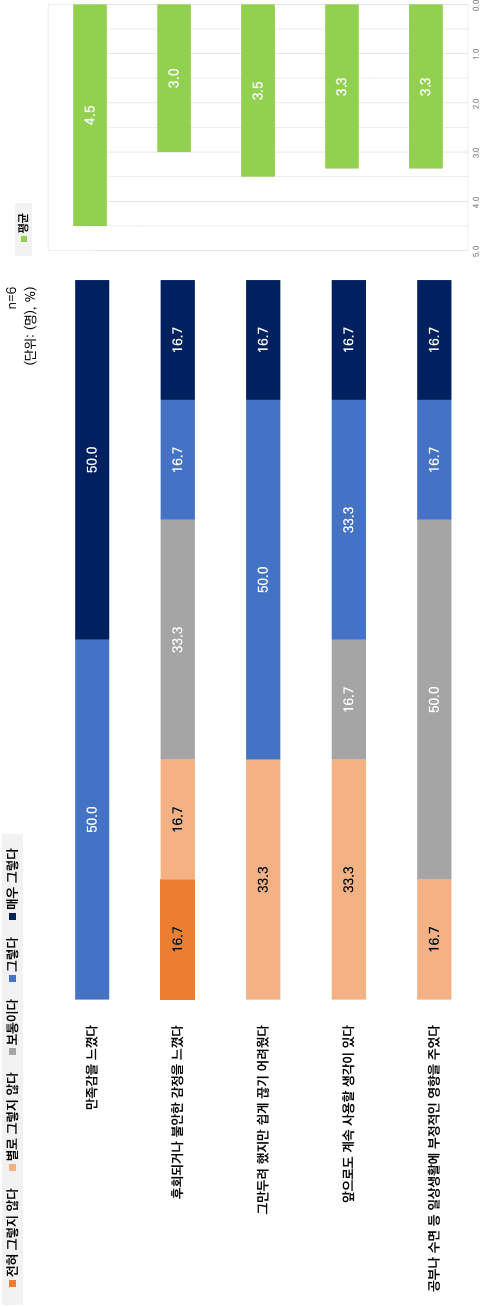


그림 III -35.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다음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중 “만족감을 느꼈다”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이다. 6명 전원이 모두 ‘그렇다’로 답하여 응답자 모두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별 평균은 대체로 모두 4점 이상으로 분포하는 등 그 만족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전체 평균 4.5점보다 높은 4.7점이었으며, 고2, 성적 성취수준 하, 가구소득 하는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 정리하면, 본 표본에서 마약류 사용 후 만족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만족감을 느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6)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5      |                   |
| 성별       | 남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100.0      | 4.3 | 0.6      | -0.707<br>(0.519) |
|          | 여  | (3) | 0.0                  | 0.0                  | 0.0           | 33.3     | 66.7           | 0.0              | 100.0      | 4.7 | 0.6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5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 4.000<br>(0.116)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0.0                  | 0.0           | 25.0     | 75.0           | 0.0              | 100.0      | 4.8 | 0.5      |                   |
|          | 고3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4.0 | 0.0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1.000<br>(0.374)  |
|          | 중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4.0 | -        |                   |
|          | 하  | (5) | 0.0                  | 0.0                  | 0.0           | 40.0     | 60.0           | 0.0              | 100.0      | 4.6 | 0.5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0.0                  | 0.0           | 33.3     | 66.7           | 0.0              | 100.0      | 4.7 | 0.6      | 1.875<br>(0.296)  |
|          | 중  | (2)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4.0 | 0.0      |                   |
|          | 하  | (1) | 0.0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5.0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6      | 0.000             |
|          | 부정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7      | (1.000)           |

다음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중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이다. 전체 분포는 비동의 33.3%, 보통 33.3%, 동의 33.3%<sup>\*\*</sup>로 평균 3.0점의 중앙 수준의 응답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일 표본에서 보고된 높은 주관적 만족(질문 만족감을 느꼈다)과 대비하여, 사용 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양가성을 시사한다.

표 III-128.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6) | 16.7                 | 16.7                 | 33.3          | 16.7     | 16.7           | 33.3             | 33.3       | 3.0 | 1.4      |                   |
| 성별       | 남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0 | 1.0      | 0.000<br>(1.000)  |
|          | 여  | (3) | 33.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3.0 | 2.0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16.7                 | 16.7                 | 33.3          | 16.7     | 16.7           | 33.3             | 33.3       | 3.0 | 1.4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 8.308<br>*(0.045)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25.0                 | 25.0                 | 50.0          | 0.0      | 0.0            | 50.0             | 0.0        | 2.3 | 1.0      |                   |
|          | 고3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7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0.545<br>(0.501)  |
|          | 중  | (1) | 0.0                  | 0.0                  | 0.0           | 100.0    | 0.0            | 0.0              | 100.0      | 4.0 | -        |                   |
|          | 하  | (5) | 20.0                 | 20.0                 | 40.0          | 0.0      | 20.0           | 40.0             | 20.0       | 2.8 | 1.5      |                   |
| 가구<br>소득 | 상  | (3) | 33.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2.7 | 1.5      | 0.136<br>(0.878)  |
|          | 중  | (2) | 0.0                  | 50.0                 | 0.0           | 0.0      | 50.0           | 50.0             | 50.0       | 3.5 | 2.1      |                   |
|          | 하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0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25.0                 | 25.0                 | 25.0          | 25.0     | 0.0            | 50.0             | 25.0       | 2.5 | 1.3      | -1.309<br>(0.261) |
|          | 부정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4.0 | 1.4      |                   |

다음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중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이다. ‘그렇다’가 66.7%, ‘그렇지 않다’가 33.3%로 나타나 과반이 중단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보통이다’ 응답이 전혀 없고 평균이 3.5점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 경험자 내부에서 끊기 어려움의 체감은 중간 수준을 넘어 있다/없다로 뚜렷이 양분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집단별로는 여학생이 전원 동의하여 평균 4.3점으로 높았던 반면, 남학생은 동의가 33.3%(평균 2.7점)에 그쳤다. 학년별로도 고2에서 75.0%, 고3에서 100%가 동의하여 상급 학년일수록 중단 곤란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성취수준 하 집단(평균 3.8점)과 자아긍정 부정 집단(평균 4.5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가 관찰되었다. 가구소득은 중위 소득 집단에서 전원 동의(평균 4.5점), 하위 소득 집단에서 전원 비동의라는 극단적 분포가 나타났으나, 표본이 매우 작아 일반화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만족감’(평균 4.5점)과 나란히, 사용 직후 경험이 즉시적 보상과 중단의 곤란을 동시에 동반하는 양가적 경험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고3 및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동의가 높았다는 점은 수험·졸업기 압박과 자기평가의 취약성이 끊기 어려움의 체감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모든 비교는 사례 수가 0~2건인 기술통계 수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표 III-129.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6) | 0.0                  | 33.3                 | 0.0           | 50.0     | 16.7           | 33.3             | 66.7       | 3.5 | 1.2      |                   |
| 성별       | 남  | (3) | 0.0                  | 66.7                 | 0.0           | 33.3     | 0.0            | 66.7             | 33.3       | 2.7 | 1.2      | -2.236<br>(0.089) |
|          | 여  | (3) | 0.0                  | 0.0                  | 0.0           | 66.7     | 33.3           | 0.0              | 100.0      | 4.3 | 0.6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0.0                  | 33.3                 | 0.0           | 50.0     | 16.7           | 33.3             | 66.7       | 3.5 | 1.2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 0.000<br>(1.000)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25.0                 | 0.0           | 75.0     | 0.0            | 25.0             | 75.0       | 3.5 | 1.0      |                   |
|          | 고3 | (2) | 0.0                  | 50.0                 | 0.0           | 0.0      | 50.0           | 50.0             | 50.0       | 3.5 | 2.1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2.250<br>(0.208)  |
|          | 중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        |                   |
|          | 하  | (5) | 0.0                  | 20.0                 | 0.0           | 60.0     | 20.0           | 20.0             | 80.0       | 3.8 | 1.1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33.3                 | 0.0           | 66.7     | 0.0            | 33.3             | 66.7       | 3.3 | 1.2      | 2.053<br>(0.274)  |
|          | 중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7      |                   |
|          | 하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3.0 | 1.2      | -1.633<br>(0.178) |
|          | 부정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7      |                   |

다음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중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이다. 전체 분포는 동의 50.0%, 비동의 33.3%, 보통 16.7%로, 절반이 향후 사용 의향을 표명하였다. 평균은 3.3점으로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한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은 동의 66.7%로 남학생(동의 33.3%)보다 높았다. 학년별(모두 고등부)로는 고2에서 동의 75.0%로 가장 높았고, 고3은 비동의 50.0%·보통 50.0%로 나타나 상급 학년일수록 의향이 약화되는 양상이었다(고2 평균 3.8점, 고3 평균 2.5점). 학업성취 수준은 하 집단에서 동의 60.0%(평균 3.4점), 중 집단은 전원이 ‘보통’(평균 3.0점)이었다. 가구소득은 상 집단에서 동의 66.7%(평균 4.0점), 중 집단 동의 50.0%, 하 집단 비동의 100%(평균 2.0점)로 집단 간 변동폭이 컸다. 자아긍정 수준은 긍정 집단

평균 3.5점(동의 50.0%), 부정 집단 평균 3.0점(동의 50.0%)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모든 하위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사례수가 적어 비교는 기술통계 수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표본에서 향후 사용 의향은 적지 않게 존재(50%)하며, 특히 여학생과 고2, 상위 소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3과 하위 소득 집단에서는 의향이 낮거나 부정적 응답이 우세해, 진학·졸업을 앞둔 시점의 책임감/환경 변화와 경제적 맥락이 향후 사용 기대를 조정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전체적으로는 같은 조사에서 보고된 높은 즉시 만족감과 결합되어, 일부 청소년에게서 사용의 지속성 위험이 내재함을 보여준다.

표 III-130.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6) | 0.0                  | 33.3                 | 16.7          | 33.3     | 16.7           | 33.3             | 50.0       | 3.3 | 1.2      |                   |
| 성별       | 남  | (3) | 0.0                  | 33.3                 | 33.3          | 33.3     | 0.0            | 33.3             | 33.3       | 3.0 | 1.0      | -0.632<br>(0.561) |
|          | 여  | (3) | 0.0                  | 33.3                 | 0.0           | 33.3     | 33.3           | 33.3             | 66.7       | 3.7 | 1.5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0.0                  | 33.3                 | 16.7          | 33.3     | 16.7           | 33.3             | 50.0       | 3.3 | 1.2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 1.587<br>(0.276)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25.0                 | 0.0           | 50.0     | 25.0           | 25.0             | 75.0       | 3.8 | 1.3      |                   |
|          | 고3 | (2) | 0.0                  | 50.0                 | 50.0          | 0.0      | 0.0            | 50.0             | 0.0        | 2.5 | 0.7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        | 0.074<br>(0.799)  |
|          | 중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3.0 | -        |                   |
|          | 하  | (5) | 0.0                  | 40.0                 | 0.0           | 40.0     | 20.0           | 40.0             | 60.0       | 3.4 | 1.3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0.0                  | 33.3          | 33.3     | 33.3           | 0.0              | 66.7       | 4.0 | 1.0      | 1.250<br>(0.403)  |
|          | 중  | (2)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3.0 | 1.4      |                   |
|          | 하  | (1)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2.0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25.0                 | 25.0          | 25.0     | 25.0           | 25.0             | 50.0       | 3.5 | 1.3      | 0.436<br>(0.685)  |
|          | 부정 | (2) | 0.0                  | 50.0                 | 0.0           | 50.0     | 0.0            | 50.0             | 50.0       | 3.0 | 1.4      |                   |

다음은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중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에 대한 응답(유효사례 6건) 결과이다. 전체 분포는 비동의 16.7%, 보통 50.0%, 동의 33.3%였으며, 평균 3.3점(표준편차 1.0)으로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했다. 즉, 사용 후 일상 기능 저하에 대한 자각은 ‘뚜렷한 부정’보다는 “보통~약한 동의”에 넓게 퍼져 있는 양상이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평균 3.7점)이 남학생(3.3점) 보다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나타냈으며, 학년별로는 고2 평균 3.3점(동의 25.0%)에 비해 고3 평균 3.5점(동의 50.0%)으로 상급 학년에서 체감이 다소 강화되었다. 학업성취 수준에서는 성적 중이 ‘별로 그렇지 않다’ 100%(평균 2.0점)로 가장 낮았고, 성적 하는 동의 40.0%(평균 3.6점)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은 상위 소득 비동의 66.7%(평균 2.7점), 중위 소득 동의 50.0%(평균 4.0점), 하위 소득 ‘보통’ 100%(평균 3.0점)로 집단 간 변동폭이 다소 컸다. 자아긍정감은 긍정 집단이 ‘보통’ 50.0%, 동의 25.0%, 부정 집단이 동의 50.0%(평균 3.0점)로, 자기평가가 낮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표본에서는 마약류 사용 후 일상생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중간대에 머물지만, 여학생·고3·하위 성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다만 각 하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I-131. 마약류 사용 이후 느낀 경험 -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6) | 0.0                  | 16.7                 | 50.0          | 16.7     | 16.7           | 16.7             | 33.3       | 3.3 | 1.0      |                   |
| 성별       | 남   | (3)                  | 0.0                  | 33.3          | 33.3     | 0.0            | 33.3             | 33.3       | 3.0 | 1.0      | -0.756<br>(0.492) |
|          | 여   | (3)                  | 0.0                  | 0.0           | 66.7     | 0.0            | 0.0              | 33.3       | 3.7 | 1.2      |                   |
| 교급       | 중   | (0)                  | -                    | -             | -        | -              | -                | -          | -   | -        | -                 |
|          | 고   | (6)                  | 0.0                  | 16.7          | 50.0     | 16.7           | 16.7             | 33.3       | 3.3 | 1.0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0.063<br>(0.813)  |
|          | 중2  | (0)                  | -                    | -             | -        | -              | -                | -          | -   | -        |                   |
|          | 중3  | (0)                  | -                    | -             | -        | -              | -                | -          | -   | -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고2  | (4)                  | 0.0                  | 0.0           | 75.0     | 25.0           | 0.0              | 25.0       | 3.3 | 0.5      |                   |
|          | 고3  | (2)                  | 0.0                  | 50.0          | 0.0      | 0.0            | 50.0             | 50.0       | 3.5 | 2.1      |                   |
| 성적       | 상   | (0)                  | -                    | -             | -        | -              | -                | -          | -   | -        | 2.667<br>(0.178)  |
|          | 중   | (1)                  | 0.0                  | 100.0         | 0.0      | 0.0            | 100.0            | 0.0        | 2.0 | -        |                   |
|          | 하   | (5)                  | 0.0                  | 0.0           | 60.0     | 20.0           | 0.0              | 40.0       | 3.6 | 0.9      |                   |
| 가구<br>소득 | 상   | (3)                  | 0.0                  | 33.3          | 66.7     | 0.0            | 33.3             | 0.0        | 2.7 | 0.6      | 1.500<br>(0.354)  |
|          | 중   | (2)                  | 0.0                  | 0.0           | 50.0     | 0.0            | 0.0              | 50.0       | 4.0 | 1.4      |                   |
|          | 하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4.0 | -        |                   |
| 자아<br>긍정 | 긍정  | (4)                  | 0.0                  | 25.0          | 50.0     | 25.0           | 25.0             | 25.0       | 3.0 | 0.8      | -1.155<br>(0.312) |
|          | 부정  | (2)                  | 0.0                  | 0.0           | 50.0     | 0.0            | 0.0              | 50.0       | 4.0 | 1.4      |                   |





다음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순위”에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분포를 보면, 공급 차단형 대책이 뚜렷하게 선호되었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36.1%)이었고, 다음으로 ② 수사 강화(18.4%)가 뒤를 이었다. ④ 사용자 처벌 강화(15.6%), ③ 유통자 처벌 강화(10.5%)가 그 다음 순서를 이루었으며, ⑥ 홍보·캠페인(8.8%),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약 11% 내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⑦ 상담·치료 지원 강화(0.7%),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6.8%), ⑨ 기타(3.1%)는 1순위 응답 비중이 매우 작았다.

하위집단을 비교해도 큰 흐름은 동일하다. ① 해외 유입·온라인 단속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1순위 최다 응답이었고, 특히 고2(43.2%), 성취 상(41.2%), 가구소득 상(39.3%) 집단에서 높았다. 반면 ② 수사 강화는 남녀·학년 전반에 걸쳐 두 번째 선택으로 수렴했고, ④ 사용자 처벌과 ③ 유통자 처벌은 집단별 편차가 있으나 중상위권에 머물렀다. 예방·치료 중심 대책(⑤ 예방 교육, ⑦ 상담·치료, ⑥ 캠페인, ⑧ 환경 개선)은 법집행·단속 중심 대책에 비해 1순위 선택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해석하면, 청소년들은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 차단과 법집행 강화를 가장 즉효적인 중요한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시에 예방 교육(⑤)과 환경 개선(⑧), 치료 지원(⑦)에 대한 1순위 선택은 제한적이어서, 치료·회복 및 예방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132.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순위)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전체       |    | (294) | 36.1 | 18.4 | 10.5 | 15.6 | 8.8  |
| 성별       | 남  | (228) | 35.5 | 20.2 | 10.5 | 16.2 | 9.6  |
|          | 여  | (65)  | 36.9 | 12.3 | 10.8 | 13.8 | 6.2  |
| 교급       | 중  | (85)  | 32.9 | 17.6 | 9.4  | 22.4 | 11.8 |
|          | 고  | (209) | 37.3 | 18.7 | 11.0 | 12.9 | 7.7  |
| 학년       | 중1 | (5)   | 40.0 | 20.0 | 20.0 | 20.0 | 0.0  |
|          | 중2 | (33)  | 27.3 | 15.2 | 12.1 | 24.2 | 15.2 |
|          | 중3 | (47)  | 36.2 | 19.1 | 6.4  | 21.3 | 10.6 |
|          | 고1 | (66)  | 30.3 | 22.7 | 15.2 | 18.2 | 6.1  |
|          | 고2 | (88)  | 43.2 | 18.2 | 10.2 | 10.2 | 4.5  |
|          | 고3 | (55)  | 36.4 | 14.5 | 7.3  | 10.9 | 14.5 |
| 성적       | 상  | (34)  | 41.2 | 20.6 | 5.9  | 14.7 | 5.9  |
|          | 중  | (53)  | 35.8 | 20.8 | 5.7  | 15.1 | 15.1 |
|          | 하  | (207) | 35.3 | 17.4 | 12.6 | 15.9 | 7.7  |
| 가구<br>소득 | 상  | (117) | 39.3 | 17.1 | 7.7  | 17.9 | 8.5  |
|          | 중  | (101) | 35.6 | 22.8 | 6.9  | 14.9 | 6.9  |
|          | 하  | (75)  | 32.0 | 14.7 | 20.0 | 12.0 | 12.0 |
| 자아       | 긍정 | (238) | 37.8 | 20.2 | 8.4  | 17.2 | 8.8  |
| 긍정       | 부정 | (56)  | 28.6 | 10.7 | 19.6 | 8.9  | 8.9  |

-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 ② 수사 강화
- ③ 유통자 처벌 강화
- ④ 사용자 처벌 강화
-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 ⑥ 홍보·캠페인
-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강화
-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 ⑨ 기타

표 III-132.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chi^2(df)$    |
|----------|----|-------|-----|------|-----|-----|-----------------|
| 전체       |    | (294) | 0.7 | 6.8  | 3.1 | 0.0 |                 |
| 성별       | 남  | (228) | 0.9 | 4.4  | 2.6 | 0.0 | 12.790<br>(7)   |
|          | 여  | (65)  | 0.0 | 15.4 | 4.6 | 0.0 |                 |
| 교급       | 중  | (85)  | 0.0 | 4.7  | 1.2 | 0.0 | 8.065<br>(7)    |
|          | 고  | (209) | 1.0 | 7.7  | 3.8 | 0.0 |                 |
| 학년       | 중1 | (5)   | 0.0 | 0.0  | 0.0 | 0.0 | 26.008<br>(35)  |
|          | 중2 | (33)  | 0.0 | 6.1  | 0.0 | 0.0 |                 |
|          | 중3 | (47)  | 0.0 | 4.3  | 2.1 | 0.0 |                 |
|          | 고1 | (66)  | 0.0 | 4.5  | 3.0 | 0.0 |                 |
|          | 고2 | (88)  | 1.1 | 9.1  | 3.4 | 0.0 |                 |
|          | 고3 | (55)  | 1.8 | 9.1  | 5.5 | 0.0 |                 |
| 성적       | 상  | (34)  | 2.9 | 8.8  | 0.0 | 0.0 | 11.566<br>(14)  |
|          | 중  | (53)  | 0.0 | 3.8  | 3.8 | 0.0 |                 |
|          | 하  | (207) | 0.5 | 7.2  | 3.4 | 0.0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0.9 | 6.0  | 2.6 | 0.0 | 14.646<br>(14)  |
|          | 중  | (101) | 1.0 | 7.9  | 4.0 | 0.0 |                 |
|          | 하  | (75)  | 0.0 | 6.7  | 2.7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0.4 | 4.6  | 2.5 | 0.0 | 21.877<br>(7)** |
|          | 부정 | (56)  | 1.8 | 16.1 | 5.4 | 0.0 |                 |

-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 ② 수사 강화
- ③ 유통자 처벌 강화
- ④ 사용자 처벌 강화
-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 ⑥ 홍보·캠페인
-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강화
-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 ⑨ 기타

다음은 “청소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순위와 2순위 합”과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분포를 보면, 공급 차단·법집행 강화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기준 최다 선택은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44.9%였고, 이어 ② 수사 강화 39.1%, ④ 사용자 처벌 강화 34.0%, ③ 유통자 처벌 강화 32.7%가 비슷한 규모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책 가운데서는 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17.0%,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17%로 중위권을 형성했으며,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9.5%, ⑥ 홍보·캠페인 3.1%는 그보다 낮았다. ⑨ 기타는 9.5%였다.

하위 집단별로 보아도 큰 흐름은 동일했다. 모든 성별·학년·성취·가구소득 집단에서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이 최다 선택이었고, ② 수사 강화와 ③·④ 유통자·사용자 처벌 강화가 그 다음 축을 이뤘다. 전반적으로는 ‘단속·수사·처벌’ + ‘예방 교육’의 조합이 청소년이 인식하는 핵심 대응축이며, 홍보·캠페인(⑥) 및 치료지원강화(⑦)·환경 개선(⑧)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평가되었다.

표 III-133.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2순위) - ①

|          |    | (단위: (명),%) |      |      |      |      |      |
|----------|----|-------------|------|------|------|------|------|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전체       |    | (294)       | 44.9 | 39.1 | 32.7 | 34.0 | 17.0 |
| 성별       | 남  | (228)       | 44.7 | 43.4 | 33.3 | 31.6 | 18.4 |
|          | 여  | (65)        | 44.6 | 24.6 | 30.8 | 41.5 | 12.3 |
| 교급       | 중  | (85)        | 43.5 | 36.5 | 28.2 | 43.5 | 22.4 |
|          | 고  | (209)       | 45.5 | 40.2 | 34.4 | 30.1 | 14.8 |
| 학년       | 중1 | (5)         | 60.0 | 60.0 | 40.0 | 20.0 | 0.0  |
|          | 중2 | (33)        | 48.5 | 33.3 | 33.3 | 42.4 | 24.2 |
|          | 중3 | (47)        | 38.3 | 36.2 | 23.4 | 46.8 | 23.4 |
|          | 고1 | (66)        | 39.4 | 43.9 | 39.4 | 36.4 | 13.6 |
|          | 고2 | (88)        | 50.0 | 39.8 | 35.2 | 28.4 | 10.2 |
|          | 고3 | (55)        | 45.5 | 36.4 | 27.3 | 25.5 | 23.6 |
| 성적       | 상  | (34)        | 52.9 | 41.2 | 26.5 | 35.3 | 8.8  |
|          | 중  | (53)        | 39.6 | 45.3 | 20.8 | 37.7 | 26.4 |
|          | 하  | (207)       | 44.9 | 37.2 | 36.7 | 32.9 | 15.9 |
| 가구<br>소득 | 상  | (117)       | 47.9 | 39.3 | 28.2 | 39.3 | 15.4 |
|          | 중  | (101)       | 44.6 | 45.5 | 30.7 | 30.7 | 18.8 |
|          | 하  | (75)        | 41.3 | 30.7 | 42.7 | 29.3 | 17.3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45.8 | 41.2 | 31.9 | 34.0 | 16.4 |
|          | 부정 | (56)        | 41.1 | 30.4 | 35.7 | 33.9 | 19.6 |

-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 ② 수사 강화
- ③ 유통자 처벌 강화
- ④ 사용자 처벌 강화
-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 ⑥ 홍보·캠페인
-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강화
-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 ⑨ 기타

표 III-133.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1+2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chi^2(df)$   |
|----------|----|-------|------|------|------|-----|----------------|
| 전체       |    | (294) | 3.1  | 17.7 | 9.5  | 1.4 |                |
| 성별       | 남  | (228) | 3.1  | 14.5 | 9.2  | 1.8 | 20.075<br>(9)* |
|          | 여  | (65)  | 3.1  | 29.2 | 10.8 | 0.0 |                |
| 교급       | 중  | (85)  | 4.7  | 11.8 | 8.2  | 1.2 | 12.979<br>(9)  |
|          | 고  | (209) | 2.4  | 20.1 | 10.0 | 1.4 |                |
| 학년       | 중1 | (5)   | 20.0 | 0.0  | 0.0  | 0.0 | 48.000<br>(45) |
|          | 중2 | (33)  | 6.1  | 6.1  | 3.0  | 3.0 |                |
|          | 중3 | (47)  | 2.1  | 17.0 | 12.8 | 0.0 |                |
|          | 고1 | (66)  | 0.0  | 15.2 | 10.6 | 1.5 |                |
|          | 고2 | (88)  | 3.4  | 21.6 | 8.0  | 2.3 |                |
|          | 고3 | (55)  | 3.6  | 23.6 | 12.7 | 0.0 |                |
| 성적       | 상  | (34)  | 5.9  | 17.6 | 11.8 | 0.0 | 17.020<br>(18) |
|          | 중  | (53)  | 1.9  | 18.9 | 9.4  | 0.0 |                |
|          | 하  | (207) | 2.9  | 17.4 | 9.2  | 1.9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4.3  | 14.5 | 9.4  | 1.7 | 19.081<br>(18) |
|          | 중  | (101) | 2.0  | 15.8 | 8.9  | 2.0 |                |
|          | 하  | (75)  | 2.7  | 25.3 | 9.3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8) | 2.9  | 16.4 | 9.7  | 1.7 | 5.768<br>(9)   |
|          | 부정 | (56)  | 3.6  | 23.2 | 8.9  | 0.0 |                |

-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② 수사 강화  
 ③ 유통자 처벌 강화  
 ④ 사용자 처벌 강화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⑥ 홍보·캠페인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강화  
 ⑧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개선  
 ⑨ 기타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은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를 듣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판매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4.0점', '3.8점'으로 높았으며,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각각 평균 '3.3점'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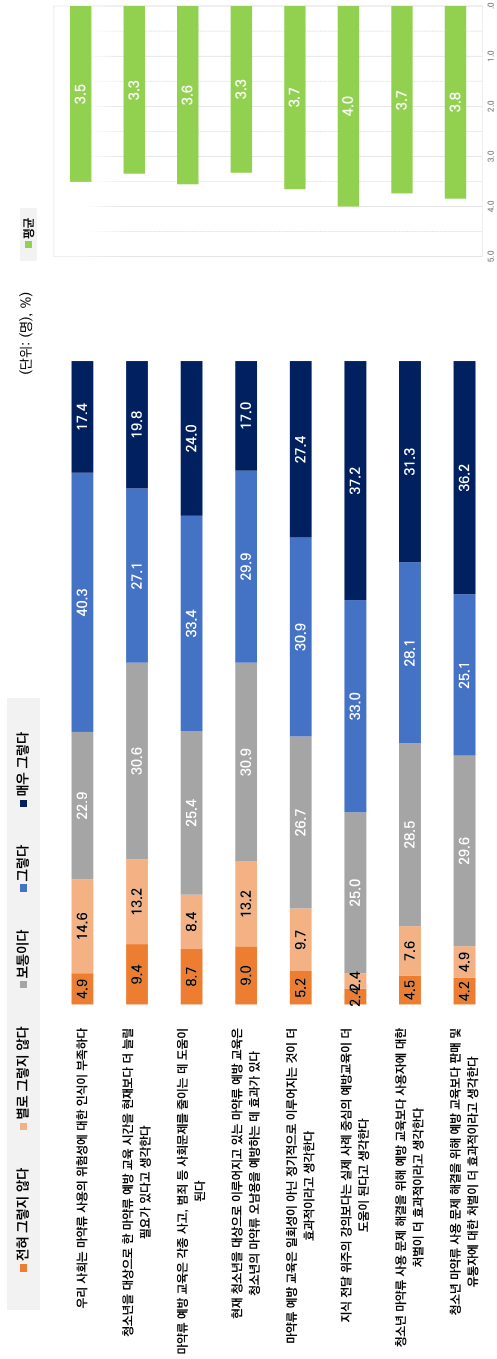


그림 III -37.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다음은 “우리 사회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동의 57.6%, 보통 22.9%, 비동의 19.4%로, 과반이 사회적 위험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균은 3.5점으로 중간값(3)을 상회한다.

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동의 비율이 66.2%\* 남학생(55.4%)보다 소폭 높아(각 평균 3.6점, 3.5점) 위험성 인식 부족에 더 비판적으로 응답했다. 교급(중·고)과 학년별로도 전반적으로 동의가 과반을 넘었으며, 중학교(58.3%) 집단이 고등학교(57.4%) 집단보다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차이는 작다. 성취수준(상·중·하)과 가구소득(상·중·하), 자아긍정감(긍정·부정)에서도 모두 동의가 과반을 차지했고, 평균은 3.5~3.7점 범위에 머물렀다. 다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청소년 다수는 사회 전체의 마약류 위험성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 평가는 남녀·학교급·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향후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에서 위험 인식 제고와 예방 메시지의 도달성·가독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만 본 결과는 자기보고식 인식 자료에 근거하므로, 실제 사회 인식 수준과의 괴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다 정교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표 III-134.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8) | 4.9                  | 14.6                 | 22.9          | 40.3     | 17.4           | 19.4             | 57.6       | 3.5 | 1.1      |                   |
| 성별       | 남  | (222) | 5.4                  | 14.4                 | 24.8          | 37.4     | 18.0           | 19.8             | 55.4       | 3.5 | 1.1      | -0.767<br>(0.444) |
|          | 여  | (65)  | 3.1                  | 15.4                 | 15.4          | 50.8     | 15.4           | 18.5             | 66.2       | 3.6 | 1.0      |                   |
| 교급       | 중  | (84)  | 3.6                  | 15.5                 | 22.6          | 42.9     | 15.5           | 19.0             | 58.3       | 3.5 | 1.0      | 0.050<br>(0.961)  |
|          | 고  | (204) | 5.4                  | 14.2                 | 23.0          | 39.2     | 18.1           | 19.6             | 57.4       | 3.5 | 1.1      |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20.0          | 40.0     | 0.0            | 40.0             | 40.0       | 2.8 | 1.3      | 1.093<br>(0.364)  |
|          | 중2 | (33)  | 0.0                  | 12.1                 | 18.2          | 51.5     | 18.2           | 12.1             | 69.7       | 3.8 | 0.9      |                   |
|          | 중3 | (46)  | 4.3                  | 17.4                 | 26.1          | 37.0     | 15.2           | 21.7             | 52.2       | 3.4 | 1.1      |                   |
|          | 고1 | (65)  | 4.6                  | 15.4                 | 29.2          | 38.5     | 12.3           | 20.0             | 50.8       | 3.4 | 1.0      |                   |
|          | 고2 | (84)  | 4.8                  | 11.9                 | 26.2          | 34.5     | 22.6           | 16.7             | 57.1       | 3.6 | 1.1      |                   |
|          | 고3 | (55)  | 7.3                  | 16.4                 | 10.9          | 47.3     | 18.2           | 23.6             | 65.5       | 3.5 | 1.2      |                   |
| 성적       | 상  | (34)  | 5.9                  | 17.6                 | 8.8           | 47.1     | 20.6           | 23.5             | 67.6       | 3.6 | 1.2      | 0.341<br>(0.712)  |
|          | 중  | (52)  | 9.6                  | 13.5                 | 21.2          | 38.5     | 17.3           | 23.1             | 55.8       | 3.4 | 1.2      |                   |
|          | 하  | (202) | 3.5                  | 14.4                 | 25.7          | 39.6     | 16.8           | 17.8             | 56.4       | 3.5 | 1.0      |                   |
| 가구<br>소득 | 상  | (115) | 6.1                  | 13.9                 | 20.0          | 43.5     | 16.5           | 20.0             | 60.0       | 3.5 | 1.1      | 2.012<br>(0.136)  |
|          | 중  | (98)  | 6.1                  | 16.3                 | 25.5          | 38.8     | 13.3           | 22.4             | 52.0       | 3.4 | 1.1      |                   |
|          | 하  | (74)  | 1.4                  | 13.5                 | 23.0          | 37.8     | 24.3           | 14.9             | 62.2       | 3.7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5.6                  | 14.2                 | 22.7          | 40.3     | 17.2           | 19.7             | 57.5       | 3.5 | 1.1      | -0.429<br>(0.668) |
|          | 부정 | (55)  | 1.8                  | 16.4                 | 23.6          | 40.0     | 18.2           | 18.2             | 58.2       | 3.6 | 1.0      |                   |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각종 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7건 중 동의 57.5%, 보통 25.4%, 비동의 17.1%로 나타났다. 평균은 3.6점으로 중간값(3)보다 높아, 다수의 응답자가 예방 교육의 사회문제 감소 효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별 기술통계를 보면 큰 흐름은 유사하다. 남학생의 동의 비율은 57.9%(평균 3.6점)로 여학생 55.4%(3.4점)보다 소폭 높았다. 교급에서는 중 고 모두 동의가 과반(중 59.5%, 고 56.7%)이었고 평균은 각각 3.7, 3.5점이다. 학년별로는 중2가 동의 72.7%로 가장



높았으며, 중3(54.3%, 3.6점), 고1(동의 59.5%, 3.6점) 및 고3은 동의 60.0%(3.5점)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에서는 상(동의 64.7%)·중(61.5%)이 하(55.2%)보다 높았고, 가구소득은 상·중·하 순으로 동의 62.3% → 58.2% → 48.3%로 완만히 감소했다. 자아긍정감 역시 긍정 집단 59.9%(3.6점)가 부정 집단 47.3%(3.4점) 보다 높아, 자아긍정감이 높을수록 예방교육의 효용을 더 크게 본 경향이 었보인다. 다만 집단 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표본 전반에서 예방교육을 사회문제 감소에 기여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평가는 대부분의 하위집단에서 과반 동의로 일관된다.

표 III-135.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각종 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전체    |    | (287) | 8.7            | 8.4            | 25.4      | 33.4     | 24.0        | 17.1          | 57.5       | 3.6 | 1.2   |                  |
| 성별    | 남  | (221) | 6.3            | 8.6            | 27.1      | 33.9     | 24.0        | 14.9          | 57.9       | 3.6 | 1.1   | 1.178            |
|       | 여  | (65)  | 16.9           | 7.7            | 20.0      | 30.8     | 24.6        | 24.6          | 55.4       | 3.4 | 1.4   | (0.242)          |
| 교급    | 중  | (84)  | 8.3            | 8.3            | 23.8      | 26.2     | 33.3        | 16.7          | 59.5       | 3.7 | 1.3   | 1.107            |
|       | 고  | (203) | 8.9            | 8.4            | 26.1      | 36.5     | 20.2        | 17.2          | 56.7       | 3.5 | 1.2   | (0.269)          |
| 학년    | 중1 | (5)   | 40.0           | 20.0           | 20.0      | 0.0      | 20.0        | 60.0          | 20.0       | 2.4 | 1.7   | 2.057<br>(0.071) |
|       | 중2 | (33)  | 3.0            | 12.1           | 12.1      | 27.3     | 45.5        | 15.2          | 72.7       | 4.0 | 1.2   |                  |
|       | 중3 | (46)  | 8.7            | 4.3            | 32.6      | 28.3     | 26.1        | 13.0          | 54.3       | 3.6 | 1.2   |                  |
|       | 고1 | (64)  | 7.8            | 4.7            | 25.0      | 48.4     | 14.1        | 12.5          | 62.5       | 3.6 | 1.1   |                  |
|       | 고2 | (84)  | 10.7           | 7.1            | 32.1      | 27.4     | 22.6        | 17.9          | 50.0       | 3.4 | 1.2   |                  |
|       | 고3 | (55)  | 7.3            | 14.5           | 18.2      | 36.4     | 23.6        | 21.8          | 60.0       | 3.5 | 1.2   |                  |
| 성적    | 상  | (34)  | 11.8           | 5.9            | 17.6      | 35.3     | 29.4        | 17.6          | 64.7       | 3.6 | 1.3   | 0.220<br>(0.803) |
|       | 중  | (52)  | 13.5           | 3.8            | 21.2      | 30.8     | 30.8        | 17.3          | 61.5       | 3.6 | 1.3   |                  |
|       | 하  | (201) | 7.0            | 10.0           | 27.9      | 33.8     | 21.4        | 16.9          | 55.2       | 3.5 | 1.1   |                  |
| 가구 소득 | 상  | (114) | 7.9            | 8.8            | 21.1      | 31.6     | 30.7        | 16.7          | 62.3       | 3.7 | 1.2   | 1.612<br>(0.201) |
|       | 중  | (98)  | 9.2            | 5.1            | 27.6      | 37.8     | 20.4        | 14.3          | 58.2       | 3.6 | 1.1   |                  |
|       | 하  | (74)  | 9.5            | 12.2           | 29.7      | 29.7     | 18.9        | 21.6          | 48.6       | 3.4 | 1.2   |                  |
| 자아 긍정 | 긍정 | (232) | 8.2            | 7.8            | 24.1      | 35.3     | 24.6        | 15.9          | 59.9       | 3.6 | 1.2   | 1.343            |
|       | 부정 | (55)  | 10.9           | 10.9           | 30.9      | 25.5     | 21.8        | 21.8          | 47.3       | 3.4 | 1.3   | (0.180)          |

다음은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동의 46.9%, 보통 30.9%, 비동의(①·②) 22.2%였고, 평균 3.3점으로 중간값(3)을 소폭 상회하였다. 즉, 현행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되 확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집단별로는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고(남 동의 46.8%, 동의 여 46.2%), 교급은 중학교 동의 52.4%(평균 3.5점)가 고등학교 44.6%(3.2점)보다 다소 높았다(교급 차이는 유의성이 경계선 수준이다,  $p \approx .051$ ). 학년 비교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중2(동의 63.6%, 평균 3.8점)와 중3(50.0%, 3.6점)이 가장 높고, 고2(40.5%, 3.1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업성취 수준(상·중·하)과 가구소득(상·중·하), 자아긍정감(긍정·부정)은 모두 동의가 40%대 수준으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자아긍정 집단(동의 48.5%, 평균 3.4점)이 부정 집단(40.0%, 3.2점)보다 효과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응답자 전반은 현행 예방교육의 효과를 ‘있다’고 보지만 과반의 강한 확신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간대 인식을 보였다. 특히 중학교, 그중에서도 중2에서 효과 인식이 가장 높고, 고2에서 낮은 패턴이 유의하게 확인되어, 학년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강도·내용 조정이 시사된다.

표 III-136.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88) | 9.0                  | 13.2                 | 30.9          | 29.9     | 17.0           | 22.2             | 46.9       | 3.3 | 1.2      |                    |
| 성별       | 남  | (222) | 6.8                  | 14.9                 | 31.5          | 28.4     | 18.5           | 21.6             | 46.8       | 3.4 | 1.1      | 1.212<br>(0.227)   |
|          | 여  | (65)  | 16.9                 | 7.7                  | 29.2          | 33.8     | 12.3           | 24.6             | 46.2       | 3.2 | 1.3      |                    |
| 교급       | 중  | (84)  | 4.8                  | 10.7                 | 32.1          | 31.0     | 21.4           | 15.5             | 52.4       | 3.5 | 1.1      | 1.957<br>(0.051)   |
|          | 고  | (204) | 10.8                 | 14.2                 | 30.4          | 29.4     | 15.2           | 25.0             | 44.6       | 3.2 | 1.2      |                    |
| 학년       | 중1 | (5)   | 40.0                 | 20.0                 | 40.0          | 0.0      | 0.0            | 60.0             | 0.0        | 2.0 | 1.0      | 3.534<br>**(0.004) |
|          | 중2 | (33)  | 0.0                  | 12.1                 | 24.2          | 36.4     | 27.3           | 12.1             | 63.6       | 3.8 | 1.0      |                    |
|          | 중3 | (46)  | 4.3                  | 8.7                  | 37.0          | 30.4     | 19.6           | 13.0             | 50.0       | 3.5 | 1.0      |                    |
|          | 고1 | (65)  | 10.8                 | 13.8                 | 30.8          | 36.9     | 7.7            | 24.6             | 44.6       | 3.2 | 1.1      |                    |
|          | 고2 | (84)  | 16.7                 | 9.5                  | 33.3          | 23.8     | 16.7           | 26.2             | 40.5       | 3.1 | 1.3      |                    |
|          | 고3 | (55)  | 1.8                  | 21.8                 | 25.5          | 29.1     | 21.8           | 23.6             | 50.9       | 3.5 | 1.1      |                    |
| 성적       | 상  | (34)  | 11.8                 | 17.6                 | 23.5          | 26.5     | 20.6           | 29.4             | 47.1       | 3.3 | 1.3      | 0.675<br>(0.510)   |
|          | 중  | (52)  | 13.5                 | 15.4                 | 28.8          | 25.0     | 17.3           | 28.8             | 42.3       | 3.2 | 1.3      |                    |
|          | 하  | (202) | 7.4                  | 11.9                 | 32.7          | 31.7     | 16.3           | 19.3             | 48.0       | 3.4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5) | 7.8                  | 14.8                 | 28.7          | 29.6     | 19.1           | 22.6             | 48.7       | 3.4 | 1.2      | 0.175<br>(0.840)   |
|          | 중  | (98)  | 11.2                 | 11.2                 | 29.6          | 33.7     | 14.3           | 22.4             | 48.0       | 3.3 | 1.2      |                    |
|          | 하  | (74)  | 8.1                  | 13.5                 | 36.5          | 24.3     | 17.6           | 21.6             | 41.9       | 3.3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8.2                  | 13.7                 | 29.6          | 30.5     | 18.0           | 21.9             | 48.5       | 3.4 | 1.2      | 1.147<br>(0.252)   |
|          | 부정 | (55)  | 12.7                 | 10.9                 | 36.4          | 27.3     | 12.7           | 23.6             | 40.0       | 3.2 | 1.2      |                    |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동의 46.9%, 보통 30.6%, 비동의 22.6%로 나타났다. 평균은 3.3점으로 중간값(3)을 다소 상회하여, 표본 전반에서 교육 시간 확대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인된다.

하위집단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의 동의 비율이 46.2%로 남학생(47.3%)보다 약간 낮았으나 평균은 여학생이 3.4점, 남학생이 3.3점으로 더 높았고, 교급에서는 고등학생 동의 47.9%, 중학생 동의 45.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별로는 전반적으로 동의가

40%~50% 수준을 유지하였다. 학업성취 수준은 상(평균 3.5점)·중(3.4점)·하(3.3점) 순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고, 가구소득 역시 상(3.5점)→중(3.3점)→하(3.2점)의 완만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자아긍정감은 긍정 집단 평균 3.4점, 부정 집단 3.2점으로, 자아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교육 확대에 다소 더 우호적이었다. 다만,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청소년 다수는 현행보다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인식은 남녀·학교급·사회경제적 배경 전반에 광범위하게 공유된다.

표 Ⅲ-137.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 전체    |    | (288) | 9.4            | 13.2           | 30.6      | 27.1     | 19.8        | 22.6          | 46.9       | 3.3 | 1.2   |                   |
| 성별    | 남  | (222) | 9.5            | 13.5           | 29.7      | 28.4     | 18.9        | 23.0          | 47.3       | 3.3 | 1.2   | -0.274<br>(0.784) |
|       | 여  | (65)  | 9.2            | 12.3           | 32.3      | 23.1     | 23.1        | 21.5          | 46.2       | 3.4 | 1.2   |                   |
| 교급    | 중  | (84)  | 8.3            | 15.5           | 31.0      | 25.0     | 20.2        | 23.8          | 45.2       | 3.3 | 1.2   | -0.125<br>(0.900) |
|       | 고  | (204) | 9.8            | 12.3           | 30.4      | 27.9     | 19.6        | 22.1          | 47.5       | 3.4 | 1.2   |                   |
| 학년    | 중1 | (5)   | 40.0           | 20.0           | 0.0       | 20.0     | 20.0        | 60.0          | 40.0       | 2.6 | 1.8   | 1.240<br>(0.290)  |
|       | 중2 | (33)  | 3.0            | 12.1           | 27.3      | 27.3     | 30.3        | 15.2          | 57.6       | 3.7 | 1.1   |                   |
|       | 중3 | (46)  | 8.7            | 17.4           | 37.0      | 23.9     | 13.0        | 26.1          | 37.0       | 3.2 | 1.1   |                   |
|       | 고1 | (65)  | 9.2            | 12.3           | 24.6      | 35.4     | 18.5        | 21.5          | 53.8       | 3.4 | 1.2   |                   |
|       | 고2 | (84)  | 9.5            | 11.9           | 38.1      | 16.7     | 23.8        | 21.4          | 40.5       | 3.3 | 1.2   |                   |
|       | 고3 | (55)  | 10.9           | 12.7           | 25.5      | 36.4     | 14.5        | 23.6          | 50.9       | 3.3 | 1.2   |                   |
| 성적    | 상  | (34)  | 11.8           | 14.7           | 17.6      | 26.5     | 29.4        | 26.5          | 55.9       | 3.5 | 1.4   | 0.392<br>(0.676)  |
|       | 중  | (52)  | 11.5           | 9.6            | 25.0      | 32.7     | 21.2        | 21.2          | 53.8       | 3.4 | 1.3   |                   |
|       | 하  | (202) | 8.4            | 13.9           | 34.2      | 25.7     | 17.8        | 22.3          | 43.6       | 3.3 | 1.2   |                   |
| 가구 소득 | 상  | (115) | 7.0            | 13.9           | 28.7      | 27.8     | 22.6        | 20.9          | 50.4       | 3.5 | 1.2   | 0.798<br>(0.451)  |
|       | 중  | (98)  | 11.2           | 14.3           | 30.6      | 26.5     | 17.3        | 25.5          | 43.9       | 3.2 | 1.2   |                   |
|       | 하  | (74)  | 10.8           | 10.8           | 32.4      | 27.0     | 18.9        | 21.6          | 45.9       | 3.3 | 1.2   |                   |
| 자아 긍정 | 긍정 | (233) | 9.9            | 12.9           | 27.5      | 29.6     | 20.2        | 22.7          | 49.8       | 3.4 | 1.2   | 0.757<br>(0.449)  |
|       | 부정 | (55)  | 7.3            | 14.5           | 43.6      | 16.4     | 18.2        | 21.8          | 34.5       | 3.2 | 1.1   |                   |

다음은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동의 58.3%, 보통 26.7%, 비동의(①·②) 14.9%로, 과반이 정기적·지속형 예방 교육의 효과성에 동의했다. 평균은 3.7점으로 중간값(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남학생 58.1%, 여학생 60.0%로 성별 격차는 미미했고(각 평균 3.7·3.6점), 교급은 중학생 60.7%(평균 3.7점)이 고등학생 57.4%(3.6점) 보다 다소 높았다. 학년으로 보면 대체로 중2(78.0%)·고3(61.8%)에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3에서 가장 낮은 편(50.0%)이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학년에서 ‘동의’가 과반을 유지했다. 학업성취 수준(상·중·하), 가구소득(상·중·하), 자아긍정감(긍·부정)에서도 동의가 모두 55-62% 범위로 유사하며 평균 역시 3.5-3.8점대에 분포한다. 다만, 하위 항목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응답자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특강형보다, 학기·학년 단위로 반복·누적되는 정기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향후 학교 기반 예방교육을 연속화(예: 정기 편성, 반복 노출, 학년별 난이도 조정 등)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38.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8) | 5.2                  | 9.7                  | 26.7          | 30.9     | 27.4           | 14.9             | 58.3       | 3.7 | 1.1      |                  |
| 성별       | 남  | (222) | 3.6                  | 10.8                 | 27.5          | 32.0     | 26.1           | 14.4             | 58.1       | 3.7 | 1.1      | 0.100<br>(0.921) |
|          | 여  | (65)  | 10.8                 | 6.2                  | 23.1          | 27.7     | 32.3           | 16.9             | 60.0       | 3.6 | 1.3      |                  |
| 교급       | 중  | (84)  | 3.6                  | 13.1                 | 22.6          | 27.4     | 33.3           | 16.7             | 60.7       | 3.7 | 1.2      | 0.786<br>(0.433) |
|          | 고  | (204) | 5.9                  | 8.3                  | 28.4          | 32.4     | 25.0           | 14.2             | 57.4       | 3.6 | 1.1      |                  |
| 학년       | 중1 | (5)   | 20.0                 | 20.0                 | 20.0          | 20.0     | 20.0           | 40.0             | 40.0       | 3.0 | 1.6      | 1.552<br>(0.174) |
|          | 중2 | (33)  | 3.0                  | 9.1                  | 9.1           | 33.3     | 45.5           | 12.1             | 78.8       | 4.1 | 1.1      |                  |
|          | 중3 | (46)  | 2.2                  | 15.2                 | 32.6          | 23.9     | 26.1           | 17.4             | 50.0       | 3.6 | 1.1      |                  |
|          | 고1 | (65)  | 6.2                  | 6.2                  | 32.3          | 38.5     | 16.9           | 12.3             | 55.4       | 3.5 | 1.0      |                  |
|          | 고2 | (84)  | 8.3                  | 6.0                  | 29.8          | 26.2     | 29.8           | 14.3             | 56.0       | 3.6 | 1.2      |                  |
|          | 고3 | (55)  | 1.8                  | 14.5                 | 21.8          | 34.5     | 27.3           | 16.4             | 61.8       | 3.7 | 1.1      |                  |
| 성적       | 상  | (34)  | 5.9                  | 11.8                 | 20.6          | 26.5     | 35.3           | 17.6             | 61.8       | 3.7 | 1.2      | 0.112<br>(0.894) |
|          | 중  | (52)  | 5.8                  | 13.5                 | 23.1          | 23.1     | 34.6           | 19.2             | 57.7       | 3.7 | 1.2      |                  |
|          | 하  | (202) | 5.0                  | 8.4                  | 28.7          | 33.7     | 24.3           | 13.4             | 57.9       | 3.6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5) | 6.1                  | 9.6                  | 26.1          | 30.4     | 27.8           | 15.7             | 58.3       | 3.6 | 1.2      | 0.019<br>(0.981) |
|          | 중  | (98)  | 4.1                  | 11.2                 | 23.5          | 36.7     | 24.5           | 15.3             | 61.2       | 3.7 | 1.1      |                  |
|          | 하  | (74)  | 5.4                  | 8.1                  | 31.1          | 24.3     | 31.1           | 13.5             | 55.4       | 3.7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3.9                  | 9.9                  | 27.5          | 30.0     | 28.8           | 13.7             | 58.8       | 3.7 | 1.1      | 1.336<br>(0.182) |
|          | 부정 | (55)  | 10.9                 | 9.1                  | 23.6          | 34.5     | 21.8           | 20.0             | 56.4       | 3.5 | 1.2      |                  |

다음은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70.1%가 동의했고, 25.0%는 보통, 4.9%는 비동의로 응답했으며, 평균은 4.0점으로 중립값을 뚜렷이 상회하였다. 즉, 표본 전반에서 사례 중심·경험 기반 예방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보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위 집단별로는 여학생(87.7%)이 남학생(65.3%)보다 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급별로는 고등학생(71.6%)이 중학생(66.7%)보다 사례 중심 교육을 조금 더 선호했다. 학년에서는 고3(80.0%)이 가장 높고, 중3이 상대적으로 낮았

다.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서는 상(85.3%), 중(63.5%), 하(69.3%)의 순으로 격차가 컸고,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상(73.0%)·중(66.3%)·하(70.3%)로 비교적 작았다. 자아긍정은 부정 집단(76.4%)이 긍정 집단(68.7%)보다 동의가 높았다. 다만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러한 차이는 경향적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지식 주입형 강의보다는 현실 사건·동료 경험·회복자 증언·역할극/시뮬레이션 등 상황적 학습 요소가 포함된 교육을 더 유익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고학년·여학생·학업성취 상 집단에서 그 선호가 두드러지며, 비교적 낮은 학년(예: 중3)에서는 사례의 난이도·몰입 방식(예: 연령에 적합한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기반 마약 예방교육이 정기적 운영 속에 사례 중심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39.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8) | 2.4                  | 2.4                  | 25.0          | 33.0     | 37.2           | 4.9              | 70.1       | 4.0 | 1.0      |             |
| 성별       | 남  | (222) | 2.7                  | 3.2                  | 28.8          | 35.1     | 30.2           | 5.9              | 65.3       | 3.9 | 1.0      | -4.471      |
|          | 여  | (65)  | 1.5                  | 0.0                  | 10.8          | 26.2     | 61.5           | 1.5              | 87.7       | 4.5 | 0.8      | *** (0.000) |
| 교급       | 중  | (84)  | 2.4                  | 6.0                  | 25.0          | 23.8     | 42.9           | 8.3              | 66.7       | 4.0 | 1.1      | -0.126      |
|          | 고  | (204) | 2.5                  | 1.0                  | 25.0          | 36.8     | 34.8           | 3.4              | 71.6       | 4.0 | 0.9      | (0.900)     |
| 학년       | 중1 | (5)   | 20.0                 | 0.0                  | 20.0          | 20.0     | 40.0           | 20.0             | 60.0       | 3.6 | 1.7      |             |
|          | 중2 | (33)  | 0.0                  | 6.1                  | 24.2          | 27.3     | 42.4           | 6.1              | 69.7       | 4.1 | 1.0      |             |
|          | 중3 | (46)  | 2.2                  | 6.5                  | 26.1          | 21.7     | 43.5           | 8.7              | 65.2       | 4.0 | 1.1      | 0.417       |
|          | 고1 | (65)  | 4.6                  | 0.0                  | 26.2          | 36.9     | 32.3           | 4.6              | 69.2       | 3.9 | 1.0      | (0.837)     |
|          | 고2 | (84)  | 2.4                  | 0.0                  | 29.8          | 31.0     | 36.9           | 2.4              | 67.9       | 4.0 | 0.9      |             |
|          | 고3 | (55)  | 0.0                  | 3.6                  | 16.4          | 45.5     | 34.5           | 3.6              | 80.0       | 4.1 | 0.8      |             |
| 성적       | 상  | (34)  | 2.9                  | 0.0                  | 11.8          | 47.1     | 38.2           | 2.9              | 85.3       | 4.2 | 0.9      |             |
|          | 중  | (52)  | 5.8                  | 3.8                  | 26.9          | 25.0     | 38.5           | 9.6              | 63.5       | 3.9 | 1.2      | 1.067       |
|          | 하  | (202) | 1.5                  | 2.5                  | 26.7          | 32.7     | 36.6           | 4.0              | 69.3       | 4.0 | 0.9      | (0.346)     |
| 가구<br>소득 | 상  | (115) | 4.3                  | 2.6                  | 20.0          | 33.9     | 39.1           | 7.0              | 73.0       | 4.0 | 1.0      |             |
|          | 중  | (98)  | 2.0                  | 3.1                  | 28.6          | 34.7     | 31.6           | 5.1              | 66.3       | 3.9 | 1.0      | 0.793       |
|          | 하  | (74)  | 0.0                  | 1.4                  | 28.4          | 29.7     | 40.5           | 1.4              | 70.3       | 4.1 | 0.9      | (0.453)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3.0                  | 2.6                  | 25.8          | 34.3     | 34.3           | 5.6              | 68.7       | 3.9 | 1.0      | -2.020      |
|          | 부정 | (55)  | 0.0                  | 1.8                  | 21.8          | 27.3     | 49.1           | 1.8              | 76.4       | 4.2 | 0.9      | *(0.044)    |

다음은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보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8건 중 59.4%가 동의했고, 28.5%는 보통, 12.2%는 비동의하였다. 평균은 3.7점으로 중립값(3점)을 상회하여, 표본 전반에서 ‘처벌 선호’가 다소 우세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하위집단별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남 57.2%, 여 67.7% 동의). 교급에서는 중학교 72.6%, 고등학교 53.9%로 중학생이 다소 더 높았고, 학년별로는 중2(84.8%)와 중3(6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1(53.8%)와 고2(50.0%)는 낮았다. 학업성취 수준은 상 52.9%, 중 61.5%, 하 59.9%로 성취수준 상보다 중·하의 동의 수준이 더 높았다. 가구소득은 하(64.9%)가 중(53.1%)·상(60.9%)보다 동의가 다소 높았고, 자아긍정은 긍정 집단 60.9%, 부정 집단 52.7%로 긍정 집단이 약간 높았다. 다만 교급과 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들 차이는 경향적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약하면, 응답자 다수는 예방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사용자 처벌이 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동시에 ‘보통’이 3명 중 1명(28.5%) 가까이로 적지 않아, 처벌 중심 접근과 교육·치료 중심 접근 사이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세대 내 이견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중2에서의 높은 동의(84.8%)와 고2에서의 상대적 저조(50.0%)는 학년·발달 단계에 따라 규범 인식과 처벌 효용에 대한 기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교육 설계 시, 처벌의 억지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방 교육·치료·회복 지원을 결합한 다층적 전략이 요구된다.



표 III-140.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8) | 4.5                  | 7.6                  | 28.5          | 28.1     | 31.3           | 12.2             | 59.4       | 3.7 | 1.1      |                   |
| 성별       | 남  | (222) | 3.2                  | 8.1                  | 31.5          | 27.5     | 29.7           | 11.3             | 57.2       | 3.7 | 1.1      | -0.474<br>(0.636) |
|          | 여  | (65)  | 9.2                  | 6.2                  | 16.9          | 30.8     | 36.9           | 15.4             | 67.7       | 3.8 | 1.3      |                   |
| 교급       | 중  | (84)  | 2.4                  | 4.8                  | 20.2          | 36.9     | 35.7           | 7.1              | 72.6       | 4.0 | 1.0      | 2.607             |
|          | 고  | (204) | 5.4                  | 8.8                  | 31.9          | 24.5     | 29.4           | 14.2             | 53.9       | 3.6 | 1.2      | ** (0.010)        |
| 학년       | 중1 | (5)   | 20.0                 | 0.0                  | 20.0          | 40.0     | 20.0           | 20.0             | 60.0       | 3.4 | 1.5      | 2.834<br>*(0.016) |
|          | 중2 | (33)  | 0.0                  | 3.0                  | 12.1          | 33.3     | 51.5           | 3.0              | 84.8       | 4.3 | 0.8      |                   |
|          | 중3 | (46)  | 2.2                  | 6.5                  | 26.1          | 39.1     | 26.1           | 8.7              | 65.2       | 3.8 | 1.0      |                   |
|          | 고1 | (65)  | 4.6                  | 6.2                  | 35.4          | 32.3     | 21.5           | 10.8             | 53.8       | 3.6 | 1.0      |                   |
|          | 고2 | (84)  | 9.5                  | 6.0                  | 34.5          | 20.2     | 29.8           | 15.5             | 50.0       | 3.5 | 1.2      |                   |
|          | 고3 | (55)  | 0.0                  | 16.4                 | 23.6          | 21.8     | 38.2           | 16.4             | 60.0       | 3.8 | 1.1      |                   |
| 성적       | 상  | (34)  | 5.9                  | 14.7                 | 26.5          | 14.7     | 38.2           | 20.6             | 52.9       | 3.6 | 1.3      | 0.166<br>(0.847)  |
|          | 중  | (52)  | 1.9                  | 9.6                  | 26.9          | 30.8     | 30.8           | 11.5             | 61.5       | 3.8 | 1.1      |                   |
|          | 하  | (202) | 5.0                  | 5.9                  | 29.2          | 29.7     | 30.2           | 10.9             | 59.9       | 3.7 | 1.1      |                   |
| 가구<br>소득 | 상  | (115) | 7.8                  | 6.1                  | 25.2          | 28.7     | 32.2           | 13.9             | 60.9       | 3.7 | 1.2      | 2.528<br>(0.082)  |
|          | 중  | (98)  | 3.1                  | 11.2                 | 32.7          | 29.6     | 23.5           | 14.3             | 53.1       | 3.6 | 1.1      |                   |
|          | 하  | (74)  | 1.4                  | 5.4                  | 28.4          | 24.3     | 40.5           | 6.8              | 64.9       | 4.0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3.4                  | 6.9                  | 28.8          | 29.2     | 31.8           | 10.3             | 60.9       | 3.8 | 1.1      | 1.414             |
|          | 부정 | (55)  | 9.1                  | 10.9                 | 27.3          | 23.6     | 29.1           | 20.0             | 52.7       | 3.5 | 1.3      | (0.162)           |

다음은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교육보다 판매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응답이다. 전체 응답 287건 중 61.3%가 동의했고, 보통이 29.6%, 비동의를 9.1%에 그쳤다. 평균은 3.8점으로 중위값을 상회하여, 표본 전반에서 ‘공급자 처벌 우선’ 인식이 어느정도 우세함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경향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61.3%, 여학생 62.5%로 동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 62.7%, 고등학생 60.8%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는 중2(69.7%)·고3(65.5%)이 높고, 고1(58.5%)이 낮아, 각 교급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처벌 효과성에 대한 동의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학업성취 수준별 동의율은 하(63.2%), 상

(58.8%), 중(55.8%) 순이며, 가구소득은 하(68.5%), 상(58.8%), 중(56.1%) 순으로, 상대적으로 취약 집단(둘 다 하 집단)에서 ‘공급자 처벌’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인다. 자아긍정에 따른 격차는 크지 않다(긍정 60.5%, 부정 64.8%). 다만 모든 하위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아, 위 차이는 경향적 패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하면,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판매·유통 단계의 강력한 법집행을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며, 이는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다만 ‘보통’ 응답도 약 30%에 이르므로, 공급망 차단(처벌·단속)을 강화하되 학교 예방 교육·상담·치료 연계를 병행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141. 마약류 문제 및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판매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87) | 4.2                  | 4.9                  | 29.6          | 25.1     | 36.2           | 9.1              | 61.3       | 3.8 | 1.1      |                   |
| 성별       | 남  | (222) | 3.6                  | 5.0                  | 30.2          | 24.8     | 36.5           | 8.6              | 61.3       | 3.9 | 1.1      | 0.277<br>(0.782)  |
|          | 여  | (64)  | 6.3                  | 4.7                  | 26.6          | 26.6     | 35.9           | 10.9             | 62.5       | 3.8 | 1.2      |                   |
| 교급       | 중  | (83)  | 3.6                  | 8.4                  | 25.3          | 22.9     | 39.8           | 12.0             | 62.7       | 3.9 | 1.1      | 0.238<br>(0.812)  |
|          | 고  | (204) | 4.4                  | 3.4                  | 31.4          | 26.0     | 34.8           | 7.8              | 60.8       | 3.8 | 1.1      |                   |
| 학년       | 중1 | (5)   | 20.0                 | 0.0                  | 40.0          | 20.0     | 20.0           | 20.0             | 40.0       | 3.2 | 1.5      | 0.719<br>(0.609)  |
|          | 중2 | (33)  | 3.0                  | 6.1                  | 21.2          | 21.2     | 48.5           | 9.1              | 69.7       | 4.1 | 1.1      |                   |
|          | 중3 | (45)  | 2.2                  | 11.1                 | 26.7          | 24.4     | 35.6           | 13.3             | 60.0       | 3.8 | 1.1      |                   |
|          | 고1 | (65)  | 4.6                  | 1.5                  | 35.4          | 30.8     | 27.7           | 6.2              | 58.5       | 3.8 | 1.0      |                   |
|          | 고2 | (84)  | 4.8                  | 4.8                  | 31.0          | 19.0     | 40.5           | 9.5              | 59.5       | 3.9 | 1.2      |                   |
|          | 고3 | (55)  | 3.6                  | 3.6                  | 27.3          | 30.9     | 34.5           | 7.3              | 65.5       | 3.9 | 1.0      |                   |
| 성적       | 상  | (34)  | 5.9                  | 8.8                  | 26.5          | 17.6     | 41.2           | 14.7             | 58.8       | 3.8 | 1.2      | 0.708<br>(0.493)  |
|          | 중  | (52)  | 5.8                  | 9.6                  | 28.8          | 21.2     | 34.6           | 15.4             | 55.8       | 3.7 | 1.2      |                   |
|          | 하  | (201) | 3.5                  | 3.0                  | 30.3          | 27.4     | 35.8           | 6.5              | 63.2       | 3.9 | 1.0      |                   |
| 가구<br>소득 | 상  | (115) | 6.1                  | 7.8                  | 25.2          | 21.7     | 39.1           | 13.9             | 60.9       | 3.8 | 1.2      | 1.209<br>(0.300)  |
|          | 중  | (98)  | 3.1                  | 3.1                  | 37.8          | 26.5     | 29.6           | 6.1              | 56.1       | 3.8 | 1.0      |                   |
|          | 하  | (73)  | 2.7                  | 2.7                  | 26.0          | 27.4     | 41.1           | 5.5              | 68.5       | 4.0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33) | 3.9                  | 5.2                  | 30.5          | 24.9     | 35.6           | 9.0              | 60.5       | 3.8 | 1.1      | -0.338<br>(0.735) |
|          | 부정 | (54)  | 5.6                  | 3.7                  | 25.9          | 25.9     | 38.9           | 9.3              | 64.8       | 3.9 | 1.1      |                   |

## 2) 마약류 예방 교육 실효성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9%였고, 이 중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2.0%,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0%로 평균 2.9점이었다.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n=295)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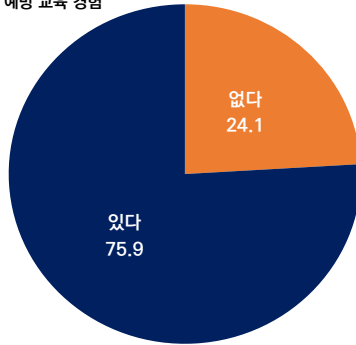


그림 III-38.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n=21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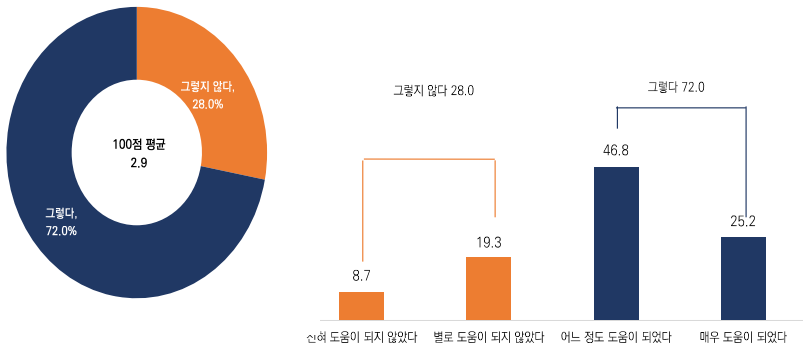


그림 III-39. 마약류 예방 교육의 도움 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했을 때, 1순위는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가 2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라는 응답이 23.9%로 높았다. 1, 2순위 응답을 종합해 보면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가 50.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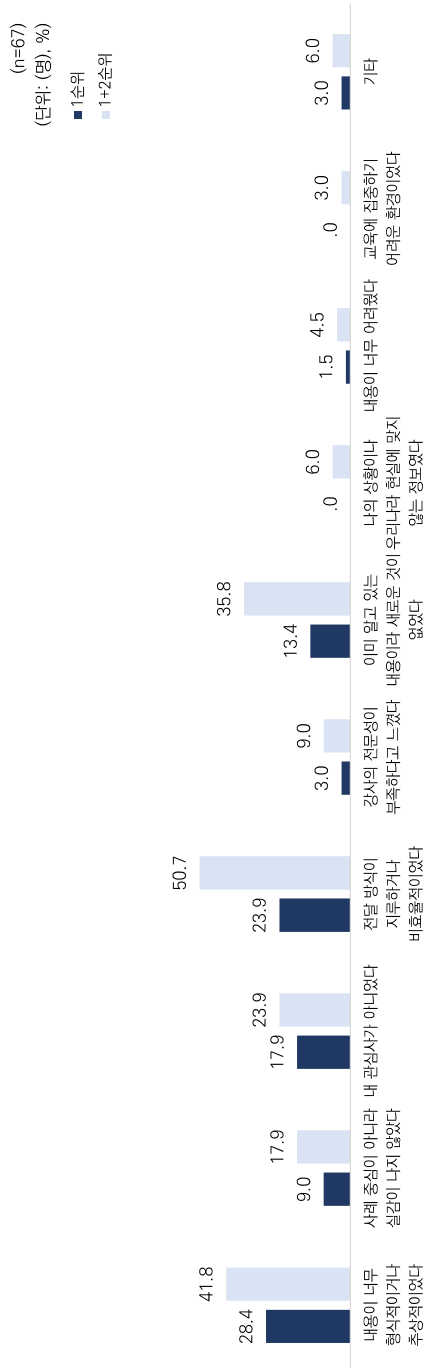


그림 III-40.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던 이유

다음은 “최근 1년 이내에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295명 중 75.9%가 최근 1년 이내 학교 또는 외부 기관의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 교육의 도달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95.3%가 예방 교육 경험이 있으며, 이는 남학생의 교육 경험 70.4%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중 79.1%, 고 74.6%)과 학년(중1 60.0%, 중2 87.9%, 중3 75.0%, 고1 69.2%, 고2 77.5%, 고3 76.4%)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상 88.6%, 중 75.9%, 하 73.8%로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가구소득에서는 상 88.6%, 중 66.7%, 하 76.3%의 순으로 예방 교육 경험 격차가 나타났고, 이는 유의한 차이였다. 자아긍정감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긍정 75.4%, 부정 78.2%).

요약하면, 본 표본에서는 예방 교육 경험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나, 성별(여)·남과 사회경제적 자원(상)·중·하에 따라 접근성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남학생과 중간 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 참여를 촉진하는 표적화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II-142.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 경험

(단위: (명),%)

|          |    | 사례수   | 아니오  | 예    | $\chi^2(df)$     |
|----------|----|-------|------|------|------------------|
| 전체       |    | (295) | 24.1 | 75.9 |                  |
| 성별       | 남  | (230) | 29.6 | 70.4 | 16.917<br>(1)*** |
|          | 여  | (64)  | 4.7  | 95.3 |                  |
| 교급       | 중  | (86)  | 20.9 | 79.1 | 0.654<br>(1)     |
|          | 고  | (209) | 25.4 | 74.6 |                  |
| 학년       | 중1 | (5)   | 40.0 | 60.0 | 5.021<br>(5)     |
|          | 중2 | (33)  | 12.1 | 87.9 |                  |
|          | 중3 | (48)  | 25.0 | 75.0 |                  |
|          | 고1 | (65)  | 30.8 | 69.2 |                  |
|          | 고2 | (89)  | 22.5 | 77.5 |                  |
|          | 고3 | (55)  | 23.6 | 76.4 |                  |
| 성적       | 상  | (35)  | 11.4 | 88.6 | 3.578<br>(2)     |
|          | 중  | (54)  | 24.1 | 75.9 |                  |
|          | 하  | (206) | 26.2 | 73.8 |                  |
| 가구<br>소득 | 상  | (116) | 16.4 | 83.6 | 8.529<br>(2)*    |
|          | 중  | (102) | 33.3 | 66.7 |                  |
|          | 하  | (76)  | 23.7 | 76.3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0) | 24.6 | 75.4 | 0.187<br>(1)     |
|          | 부정 | (55)  | 21.8 | 78.2 |                  |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은 도움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2.0%, 부정적인 평가는 28.0%로 나타났다. 4점 척도 결과 평균은 3.2점으로, 전반적 교육 효과에 대한 체감은 중립에 가까운 약한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76.7%)이 남학생(70.0%)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고, 중학생(78.1%)이 고등학생(69.5%)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큰 격차라고 보기 어렵다. 성적 수준, 가구소득, 자아긍정감 수준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가 대체로 평균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의 비슷한 범위에 머문다. 요약하면, 현재의 예방 교육은 10명 중 7명 정도가 “도움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방식(예: 참여·사례 중심, 생활 맥락 적용)의 질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이다.

표 III-143. 마약류 예방 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도움되지<br>않음<br>① | 별로<br>도움되지<br>않음<br>② | 어느정도<br>도움이 됨<br>③ | 매우<br>도움이 됨<br>④ | 도움되지<br>않음<br>①+② | 도움됨<br>③+④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18) | 8.7                   | 19.3                  | 46.8               | 25.2             | 28.0              | 72.0       | 2.9 | 0.9      |                   |
| 성별       | 남  | (157) | 8.3                   | 21.0                  | 48.4               | 22.3             | 29.3              | 70.7       | 2.8 | 0.9      | -1.138<br>(0.256) |
|          | 여  | (60)  | 10.0                  | 13.3                  | 43.3               | 33.3             | 23.3              | 76.7       | 3.0 | 0.9      |                   |
| 교급       | 중  | (64)  | 7.8                   | 14.1                  | 46.9               | 31.3             | 21.9              | 78.1       | 3.0 | 0.9      | 1.404             |
|          | 고  | (154) | 9.1                   | 21.4                  | 46.8               | 22.7             | 30.5              | 69.5       | 2.8 | 0.9      | (0.162)           |
| 학년       | 중1 | (2)   | 0.0                   | 50.0                  | 50.0               | 0.0              | 50.0              | 50.0       | 2.5 | 0.7      | 0.736<br>(0.597)  |
|          | 중2 | (29)  | 13.8                  | 10.3                  | 44.8               | 31.0             | 24.1              | 75.9       | 2.9 | 1.0      |                   |
|          | 중3 | (33)  | 3.0                   | 15.2                  | 48.5               | 33.3             | 18.2              | 81.8       | 3.1 | 0.8      |                   |
|          | 고1 | (45)  | 6.7                   | 11.1                  | 68.9               | 13.3             | 17.8              | 82.2       | 2.9 | 0.7      |                   |
|          | 고2 | (68)  | 13.2                  | 22.1                  | 33.8               | 30.9             | 35.3              | 64.7       | 2.8 | 1.0      |                   |
|          | 고3 | (41)  | 4.9                   | 31.7                  | 43.9               | 19.5             | 36.6              | 63.4       | 2.8 | 0.8      |                   |
| 성적       | 상  | (31)  | 3.2                   | 22.6                  | 45.2               | 29.0             | 25.8              | 74.2       | 3.0 | 0.8      | 1.102<br>(0.334)  |
|          | 중  | (39)  | 5.1                   | 15.4                  | 51.3               | 28.2             | 20.5              | 79.5       | 3.0 | 0.8      |                   |
|          | 하  | (148) | 10.8                  | 19.6                  | 45.9               | 23.6             | 30.4              | 69.6       | 2.8 | 0.9      |                   |
| 가구<br>소득 | 상  | (96)  | 6.3                   | 25.0                  | 42.7               | 26.0             | 31.3              | 68.8       | 2.9 | 0.9      | 0.670<br>(0.513)  |
|          | 중  | (66)  | 7.6                   | 12.1                  | 56.1               | 24.2             | 19.7              | 80.3       | 3.0 | 0.8      |                   |
|          | 하  | (55)  | 14.5                  | 18.2                  | 41.8               | 25.5             | 32.7              | 67.3       | 2.8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176) | 5.1                   | 20.5                  | 49.4               | 25.0             | 25.6              | 74.4       | 2.9 | 0.8      | 1.635             |
|          | 부정 | (42)  | 23.8                  | 14.3                  | 35.7               | 26.2             | 38.1              | 61.9       | 2.6 | 1.1      | (0.108)           |

다음은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 1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사례수 67명)에게 1순위 이유를 묻은 결과,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28.4%)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23.9%),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17.9%),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13.4%), ‘⑨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② 사례 중심이 아니었다’(9.0%), ‘⑤ 강의자 전문성이 부족했다’(3.0%), ‘⑧ 내용이 어려웠다’(1.5%), ‘⑦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0%)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집단별로 보면, 남학생은 ‘형식적·추상적’(33.3%)과 ‘전달 방식 문제’(23.9%)를, 여학생 또한 ‘형식적·추상적’(40.0%), ‘이미 알고 있는 내용’(20.0%), ‘사례 부족’(13.3%), ‘전달 방식 문제’(13.3%) 등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지적했다. 고등학생은 전체와 유사하게 ‘형식적·추상적’(28.6%)·‘전달 방식’(20.7%)등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은 ‘전달 방식’(33.3%)·‘비 관심사’(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체감하는 예방내용의 무용감 핵심은 콘텐츠의 추상성/형식성과 지루한 전달 방식이라는 ‘내용-방법’ 문제이며, 여기에 학습자 관심·사전지식과의 부합, 집중 가능한 물리·심리적 환경이 추가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예방교육의 유용성을 높이려면, 구체적 사례 중심 구성, 상호작용·참여형 교수법, 수준·흥미를 반영한 난이도 조절과 차별화, 학습환경 관리(소음·시간대·집중 방해 요소 최소화), 강사 전문성 강화 등이 우선적 개선 과제로 제시된다.

표 III-144.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1순위)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전체    |    | (67) | 28.4 | 9.0  | 17.9 | 23.9  | 3.0  |
| 성별    | 남  | (51) | 25.5 | 7.8  | 19.6 | 27.5  | 3.9  |
|       | 여  | (15) | 40.0 | 13.3 | 6.7  | 13.3  | 0.0  |
| 교급    | 중  | (18) | 11.1 | 16.7 | 22.2 | 33.3  | 0.0  |
|       | 고  | (49) | 34.7 | 6.1  | 16.3 | 20.4  | 4.1  |
| 학년    | 중1 | (2)  | 0.0  | 0.0  | 0.0  | 100.0 | 0.0  |
|       | 중2 | (7)  | 0.0  | 14.3 | 14.3 | 42.9  | 0.0  |
|       | 중3 | (9)  | 22.2 | 22.2 | 33.3 | 11.1  | 0.0  |
|       | 고1 | (8)  | 25.0 | 0.0  | 12.5 | 37.5  | 12.5 |
|       | 고2 | (25) | 32.0 | 8.0  | 20.0 | 16.0  | 4.0  |
|       | 고3 | (16) | 43.8 | 6.3  | 12.5 | 18.8  | 0.0  |
| 성적    | 상  | (8)  | 25.0 | 0.0  | 12.5 | 37.5  | 0.0  |
|       | 중  | (10) | 20.0 | 20.0 | 10.0 | 20.0  | 10.0 |
|       | 하  | (49) | 30.6 | 8.2  | 20.4 | 22.4  | 2.0  |
| 가구 소득 | 상  | (31) | 22.6 | 6.5  | 22.6 | 29.0  | 3.2  |
|       | 중  | (15) | 13.3 | 26.7 | 6.7  | 13.3  | 0.0  |
|       | 하  | (21) | 47.6 | 0.0  | 19.0 | 23.8  | 4.8  |
| 자아 긍정 | 긍정 | (50) | 30.0 | 6.0  | 22.0 | 22.0  | 2.0  |
|       | 부정 | (17) | 23.5 | 17.6 | 5.9  | 29.4  | 5.9  |

-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
-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 ⑤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
- ⑦ 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
-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 ⑨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⑩ 기타



표 III-144.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1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⑩    | $\chi^2$ (df)    |
|----------|----|------|------|-----|-----|-----|------|------------------|
| 전체       |    | (67) | 13.4 | 0.0 | 1.5 | 0.0 | 3.0  |                  |
| 성별       | 남  | (51) | 11.8 | 0.0 | 0.0 | 0.0 | 3.9  | 8.503<br>(7)     |
|          | 여  | (15) | 20.0 | 0.0 | 6.7 | 0.0 | 0.0  |                  |
| 교급       | 중  | (18) | 11.1 | 0.0 | 0.0 | 0.0 | 5.6  | 7.138<br>(7)     |
|          | 고  | (49) | 14.3 | 0.0 | 2.0 | 0.0 | 2.0  |                  |
| 학년       | 중1 | (2)  | 0.0  | 0.0 | 0.0 | 0.0 | 0.0  | 27.762<br>(35)   |
|          | 중2 | (7)  | 14.3 | 0.0 | 0.0 | 0.0 | 14.3 |                  |
|          | 중3 | (9)  | 11.1 | 0.0 | 0.0 | 0.0 | 0.0  |                  |
|          | 고1 | (8)  | 12.5 | 0.0 | 0.0 | 0.0 | 0.0  |                  |
|          | 고2 | (25) | 16.0 | 0.0 | 4.0 | 0.0 | 0.0  |                  |
|          | 고3 | (16) | 12.5 | 0.0 | 0.0 | 0.0 | 6.3  |                  |
| 성적       | 상  | (8)  | 12.5 | 0.0 | 0.0 | 0.0 | 12.5 | 9.506<br>(14)    |
|          | 중  | (10) | 20.0 | 0.0 | 0.0 | 0.0 | 0.0  |                  |
|          | 하  | (49) | 12.2 | 0.0 | 2.0 | 0.0 | 2.0  |                  |
| 가구<br>소득 | 상  | (31) | 9.7  | 0.0 | 0.0 | 0.0 | 6.5  | 30.370<br>(14)** |
|          | 중  | (15) | 40.0 | 0.0 | 0.0 | 0.0 | 0.0  |                  |
|          | 하  | (21) | 0.0  | 0.0 | 4.8 | 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50) | 14.0 | 0.0 | 0.0 | 0.0 | 4.0  | 8.550<br>(7)     |
|          | 부정 | (17) | 11.8 | 0.0 | 5.9 | 0.0 | 0.0  |                  |

-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⑤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  
 ⑦ 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⑨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⑩ 기타

다음은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1순위와 2순위 합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항목은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50.7%). 다음으로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41.8%),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움이 없었다’(35.8%)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23.9%),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17.9%), ‘⑤ 강사의 전문성 부족’(9.0%), ‘⑩ 기타’(9.0%),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4.5%)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고1(75.0%)과 중2(71.4%)에서 ④의 비중이 특히 높아, 중2~고1 시기의

강의 중심·일방향 전달에 대한 피로와 비효율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효과가 낮았다’는 평가는 ‘어떻게 가르쳤는가(전달·운영)’에 대한 불만이 1차 원인이었고, 여기에 ‘무엇을 가르쳤는가(형식적·추상적 콘텐츠, 새로움 부족)’와 ‘수업적 맥락(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은 참여·경험 중심의 방법(토론, 시나리오·사례 기반 활동 등)으로 전환하고, 생활 밀착형·구체적 사례 중심 내용을 확대하며, 학습 환경과 시간 설계(짧고 빈번한 세션, 소그룹 운영 등)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구성이 요구된다.

표 III-145.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1+2순위) - ①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전체 | (67) | 41.8 | 17.9 | 23.9 | 50.7  | 9.0  |
| 성별    | 남  | (51) | 37.3 | 13.7 | 27.5 | 56.9  | 11.8 |
|       | 여  | (15) | 60.0 | 33.3 | 6.7  | 26.7  | 0.0  |
| 교급    | 중  | (18) | 11.1 | 16.7 | 22.2 | 66.7  | 16.7 |
|       | 고  | (49) | 53.1 | 18.4 | 24.5 | 44.9  | 6.1  |
| 학년    | 중1 | (2)  | 0.0  | 0.0  | 0.0  | 100.0 | 50.0 |
|       | 중2 | (7)  | 0.0  | 14.3 | 14.3 | 71.4  | 28.6 |
|       | 중3 | (9)  | 22.2 | 22.2 | 33.3 | 55.6  | 0.0  |
|       | 고1 | (8)  | 50.0 | 25.0 | 12.5 | 75.0  | 25.0 |
|       | 고2 | (25) | 52.0 | 16.0 | 28.0 | 36.0  | 4.0  |
|       | 고3 | (16) | 56.3 | 18.8 | 25.0 | 43.8  | 0.0  |
| 성적    | 상  | (8)  | 62.5 | 12.5 | 12.5 | 62.5  | 0.0  |
|       | 중  | (10) | 40.0 | 20.0 | 20.0 | 60.0  | 20.0 |
|       | 하  | (49) | 38.8 | 18.4 | 26.5 | 46.9  | 8.2  |
| 가구 소득 | 상  | (31) | 35.5 | 12.9 | 25.8 | 58.1  | 12.9 |
|       | 중  | (15) | 33.3 | 40.0 | 20.0 | 46.7  | 0.0  |
|       | 하  | (21) | 57.1 | 9.5  | 23.8 | 42.9  | 9.5  |
| 자아 긍정 | 긍정 | (50) | 44.0 | 14.0 | 26.0 | 50.0  | 8.0  |
|       | 부정 | (17) | 35.3 | 29.4 | 17.6 | 52.9  | 11.8 |

-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
-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 ⑤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
- ⑦ 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
-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 ⑨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⑩ 기타

표 III-145. 마약류 예방 교육이 도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 (1+2순위) - ②

(단위: (명),%)

|       |    | 사례수  | ⑥    | ⑦    | ⑧    | ⑨    | ⑩    | $\chi^2$ (df)   |
|-------|----|------|------|------|------|------|------|-----------------|
| 전체    |    | (67) | 35.8 | 6.0  | 4.5  | 3.0  | 6.0  |                 |
| 성별    | 남  | (51) | 31.4 | 7.8  | 3.9  | 3.9  | 5.9  | 18.959<br>(10)* |
|       | 여  | (15) | 53.3 | 0.0  | 6.7  | 0.0  | 6.7  |                 |
| 교급    | 중  | (18) | 27.8 | 11.1 | 11.1 | 5.6  | 11.1 | 19.981<br>(10)* |
|       | 고  | (49) | 38.8 | 4.1  | 2.0  | 2.0  | 4.1  |                 |
| 학년    | 중1 | (2)  | 50.0 | 0.0  | 0.0  | 0.0  | 0.0  | 54.195<br>(50)  |
|       | 중2 | (7)  | 28.6 | 0.0  | 14.3 | 14.3 | 14.3 |                 |
|       | 중3 | (9)  | 22.2 | 22.2 | 11.1 | 0.0  | 11.1 |                 |
|       | 고1 | (8)  | 12.5 | 0.0  | 0.0  | 0.0  | 0.0  |                 |
|       | 고2 | (25) | 44.0 | 4.0  | 4.0  | 4.0  | 4.0  |                 |
|       | 고3 | (16) | 43.8 | 6.3  | 0.0  | 0.0  | 6.3  |                 |
| 성적    | 상  | (8)  | 25.0 | 0.0  | 12.5 | 0.0  | 12.5 | 11.267<br>(20)  |
|       | 중  | (10) | 30.0 | 10.0 | 0.0  | 0.0  | 0.0  |                 |
|       | 하  | (49) | 38.8 | 6.1  | 4.1  | 4.1  | 6.1  |                 |
| 가구 소득 | 상  | (31) | 32.3 | 3.2  | 3.2  | 6.5  | 9.7  | 21.508<br>(20)  |
|       | 중  | (15) | 46.7 | 6.7  | 0.0  | 0.0  | 6.7  |                 |
|       | 하  | (21) | 33.3 | 9.5  | 9.5  | 0.0  | 0.0  |                 |
| 자아 긍정 | 긍정 | (50) | 36.0 | 6.0  | 4.0  | 4.0  | 8.0  | 5.452<br>(10)   |
|       | 부정 | (17) | 35.3 | 5.9  | 5.9  | 0.0  | 0.0  |                 |

-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⑤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  
 ⑦ 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⑨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⑩ 기타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다수의 학생은 예방교육 이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과반을 넘어

(58.8%), 교육이 인지적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집단 비교에서는 성별, 교급·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감 등 거의 모든 하위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경각심 증대 효과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예방교육이 보편적 효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응답의 분산을 고려하면 개인차는 존재하므로, 이후 교육 설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례 중심·참여형·상호작용형 요소를 강화하여 학습자 몰입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Ⅲ-146.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 (단위: (명),%) |       |                |                |            |          |             |               |            |       |       |                     |
|-------------|-------|----------------|----------------|------------|----------|-------------|---------------|------------|-------|-------|---------------------|
|             | 사례수   | 전혀 그렇지 않다<br>① | 별로 그렇지 않다<br>② | 보통 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 그렇다<br>⑤ | 그렇지 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 편차 | t/F                 |
| 전체          | (221) | 6.3            | 14.5           | 20.4       | 30.8     | 28.1        | 20.8          | 58.8       | 3.6   | 1.2   |                     |
| 성별          | 남     | (160)          | 6.3            | 13.1       | 24.4     | 31.9        | 24.4          | 19.4       | 56.3  | 3.6   | 1.2                 |
|             | 여     | (60)           | 6.7            | 16.7       | 10.0     | 28.3        | 38.3          | 23.3       | 66.7  | 3.8   | 1.3                 |
| 교급          | 중     | (67)           | 3.0            | 9.0        | 14.9     | 37.3        | 35.8          | 11.9       | 73.1  | 3.9   | 1.1                 |
|             | 고     | (154)          | 7.8            | 16.9       | 22.7     | 27.9        | 24.7          | 52.6       | 3.4   | 1.2   | 2.983<br>** (0.003) |
| 학년          | 중1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4.5   | 0.7                 |
|             | 중2    | (29)           | 0.0            | 13.8       | 10.3     | 34.5        | 41.4          | 13.8       | 75.9  | 4.0   | 1.1                 |
|             | 중3    | (36)           | 5.6            | 5.6        | 19.4     | 38.9        | 30.6          | 11.1       | 69.4  | 3.8   | 1.1                 |
|             | 고1    | (45)           | 6.7            | 8.9        | 26.7     | 40.0        | 17.8          | 15.6       | 57.8  | 3.5   | 1.1                 |
|             | 고2    | (67)           | 10.4           | 23.9       | 14.9     | 20.9        | 29.9          | 34.3       | 50.7  | 3.4   | 1.4                 |
|             | 고3    | (42)           | 4.8            | 14.3       | 31.0     | 26.2        | 23.8          | 19.0       | 50.0  | 3.5   | 1.2                 |
| 성적          | 상     | (30)           | 3.3            | 3.3        | 23.3     | 30.0        | 40.0          | 6.7        | 70.0  | 4.0   | 1.1                 |
|             | 중     | (41)           | 7.3            | 12.2       | 19.5     | 31.7        | 29.3          | 19.5       | 61.0  | 3.6   | 1.2                 |
|             | 하     | (150)          | 6.7            | 17.3       | 20.0     | 30.7        | 25.3          | 24.0       | 56.0  | 3.5   | 1.2                 |
| 가구 소득       | 상     | (96)           | 5.2            | 14.6       | 19.8     | 29.2        | 31.3          | 19.8       | 60.4  | 3.7   | 1.2                 |
|             | 중     | (68)           | 7.4            | 14.7       | 20.6     | 32.4        | 25.0          | 22.1       | 57.4  | 3.5   | 1.2                 |
|             | 하     | (56)           | 7.1            | 14.3       | 21.4     | 30.4        | 26.8          | 21.4       | 57.1  | 3.6   | 1.2                 |
| 자아 긍정       | 긍정    | (179)          | 5.6            | 12.3       | 20.7     | 33.0        | 28.5          | 17.9       | 61.5  | 3.7   | 1.2                 |
|             | 부정    | (42)           | 9.5            | 23.8       | 19.0     | 21.4        | 26.2          | 33.3       | 47.6  | 3.3   | 1.4                 |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의 강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다수의 학생은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의 강사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했다. 전체 응답(221명)에서 ‘그렇다’가 62.0%, ‘보통’이 29.0%, ‘그렇지 않다’가 9.0%로, 평균 3.8점이었다. 성별(남 61.9%, 여 61.7%)과 교급(중 65.7%, 고 60.4%)로 나타났으며, 중2 65.5%, 중3 66.7%, 고2 64.2%, 고3 61.9%로 각 교급에서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강사 전문성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엿보였다. 학업성취가 ‘상’인 집단의 80.0% 전문성에 동의하였으나 ‘하’집단은 57.3%에 불과했다. 한편 자아 긍정 부정 집단은 동의가 50.0%로 긍정집단 64.8%보다 평가가 낮았다.

요약하면, 표본 전반에서 강사 전문성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6할 이상 동의)이며,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각 교급에서의 상급 학년·자아긍정감 수준에 따라 인식이 소폭 달라지는 양상이 관찰되며, 이는 학습동기나 수업 몰입도와 연관된 평가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47.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의 강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21) | 3.2                  | 5.9                  | 29.0          | 36.2     | 25.8           | 9.0              | 62.0       | 3.8 | 1.0      |                   |
| 성별       | 남  | (160) | 3.8                  | 5.0                  | 29.4          | 39.4     | 22.5           | 8.8              | 61.9       | 3.7 | 1.0      | -0.752<br>(0.453) |
|          | 여  | (60)  | 1.7                  | 8.3                  | 28.3          | 28.3     | 33.3           | 10.0             | 61.7       | 3.8 | 1.0      |                   |
| 교급       | 중  | (67)  | 3.0                  | 4.5                  | 26.9          | 43.3     | 22.4           | 7.5              | 65.7       | 3.8 | 1.0      | 0.199<br>(0.842)  |
|          | 고  | (154) | 3.2                  | 6.5                  | 29.9          | 33.1     | 27.3           | 9.7              | 60.4       | 3.7 | 1.0      |                   |
| 학년       | 중1 | (2)   | 0.0                  | 0.0                  | 50.0          | 50.0     | 0.0            | 0.0              | 50.0       | 3.5 | 0.7      | 0.548<br>(0.740)  |
|          | 중2 | (29)  | 3.4                  | 6.9                  | 24.1          | 37.9     | 27.6           | 10.3             | 65.5       | 3.8 | 1.0      |                   |
|          | 중3 | (36)  | 2.8                  | 2.8                  | 27.8          | 47.2     | 19.4           | 5.6              | 66.7       | 3.8 | 0.9      |                   |
|          | 고1 | (45)  | 4.4                  | 6.7                  | 35.6          | 35.6     | 17.8           | 11.1             | 53.3       | 3.6 | 1.0      |                   |
|          | 고2 | (67)  | 3.0                  | 7.5                  | 25.4          | 28.4     | 35.8           | 10.4             | 64.2       | 3.9 | 1.1      |                   |
|          | 고3 | (42)  | 2.4                  | 4.8                  | 31.0          | 38.1     | 23.8           | 7.1              | 61.9       | 3.8 | 1.0      |                   |
| 성적       | 상  | (30)  | 0.0                  | 10.0                 | 10.0          | 50.0     | 30.0           | 10.0             | 80.0       | 4.0 | 0.9      | 1.351<br>(0.261)  |
|          | 중  | (41)  | 4.9                  | 0.0                  | 29.3          | 39.0     | 26.8           | 4.9              | 65.9       | 3.8 | 1.0      |                   |
|          | 하  | (150) | 3.3                  | 6.7                  | 32.7          | 32.7     | 24.7           | 10.0             | 57.3       | 3.7 | 1.0      |                   |
| 가구<br>소득 | 상  | (96)  | 1.0                  | 8.3                  | 25.0          | 36.5     | 29.2           | 9.4              | 65.6       | 3.8 | 1.0      | 0.756<br>(0.471)  |
|          | 중  | (68)  | 4.4                  | 4.4                  | 27.9          | 41.2     | 22.1           | 8.8              | 63.2       | 3.7 | 1.0      |                   |
|          | 하  | (56)  | 5.4                  | 3.6                  | 37.5          | 28.6     | 25.0           | 8.9              | 53.6       | 3.6 | 1.1      |                   |
| 자아<br>긍정 | 긍정 | (179) | 2.2                  | 5.0                  | 27.9          | 39.7     | 25.1           | 7.3              | 64.8       | 3.8 | 0.9      | 1.283<br>(0.205)  |
|          | 부정 | (42)  | 7.1                  | 9.5                  | 33.3          | 21.4     | 28.6           | 16.7             | 50.0       | 3.5 | 1.2      |                   |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다수의 학생은 ‘최근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데 비교적 긍정적이다. 전체 응답자 221명 중 ‘그렇다’가 56.6%, ‘보통’ 31.2%, ‘그렇지 않다’ 12.2%였으며, 평균 점수는 3.7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집단별로 보면, 여학생의 동의는 66.7%로 남학생(53.1%, 3.6점)보다 눈높이 적합성을 더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 이외의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증가했으며(상 70.0%, 중 56.1%, 하 54.0%).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이 동의 60.3%로 낮은 집단의 40.5%보다 높았다.

종합하면, 예방 교육의 눈높이 적합성은 10명 중 5-6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학업성취 상·자아긍정 높은 집단에서 긍정 인식이 강하다. 반대로 고등학생, 자아 긍정감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여, 학령·심리적 요인에 맞춘 세분화된 난이도 조정과 참여형 설계가 보완 과제로 제시된다.

표 III-148.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  
행되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21) | 5.9                  | 6.3                  | 31.2          | 29.9     | 26.7           | 12.2             | 56.6       | 3.7 | 1.1      |          |
| 성별       | 남  | (160) | 6.3                  | 6.3                  | 34.4          | 31.3     | 21.9           | 12.5             | 53.1       | 3.6 | 1.1      | -2.008   |
|          | 여  | (60)  | 5.0                  | 6.7                  | 21.7          | 26.7     | 40.0           | 11.7             | 66.7       | 3.9 | 1.2      | *(0.046) |
| 교급       | 중  | (67)  | 4.5                  | 7.5                  | 28.4          | 26.9     | 32.8           | 11.9             | 59.7       | 3.8 | 1.1      | 0.963    |
|          | 고  | (154) | 6.5                  | 5.8                  | 32.5          | 31.2     | 24.0           | 12.3             | 55.2       | 3.6 | 1.1      | (0.337)  |
| 학년       | 중1 | (2)   | 0.0                  | 0.0                  | 50.0          | 0.0      | 50.0           | 0.0              | 50.0       | 4.0 | 1.4      |          |
|          | 중2 | (29)  | 3.4                  | 13.8                 | 27.6          | 17.2     | 37.9           | 17.2             | 55.2       | 3.7 | 1.2      |          |
|          | 중3 | (36)  | 5.6                  | 2.8                  | 27.8          | 36.1     | 27.8           | 8.3              | 63.9       | 3.8 | 1.1      | 0.353    |
|          | 고1 | (45)  | 8.9                  | 0.0                  | 37.8          | 40.0     | 13.3           | 8.9              | 53.3       | 3.5 | 1.0      | (0.880)  |
|          | 고2 | (67)  | 7.5                  | 9.0                  | 25.4          | 25.4     | 32.8           | 16.4             | 58.2       | 3.7 | 1.2      |          |
|          | 고3 | (42)  | 2.4                  | 7.1                  | 38.1          | 31.0     | 21.4           | 9.5              | 52.4       | 3.6 | 1.0      |          |
| 성적       | 상  | (30)  | 3.3                  | 0.0                  | 26.7          | 33.3     | 36.7           | 3.3              | 70.0       | 4.0 | 1.0      |          |
|          | 중  | (41)  | 4.9                  | 9.8                  | 29.3          | 31.7     | 24.4           | 14.6             | 56.1       | 3.6 | 1.1      | 1.705    |
|          | 하  | (150) | 6.7                  | 6.7                  | 32.7          | 28.7     | 25.3           | 13.3             | 54.0       | 3.6 | 1.1      | (0.184)  |
| 가구<br>소득 | 상  | (96)  | 5.2                  | 6.3                  | 31.3          | 29.2     | 28.1           | 11.5             | 57.3       | 3.7 | 1.1      |          |
|          | 중  | (68)  | 5.9                  | 5.9                  | 29.4          | 32.4     | 26.5           | 11.8             | 58.8       | 3.7 | 1.1      | 0.208    |
|          | 하  | (56)  | 7.1                  | 7.1                  | 32.1          | 28.6     | 25.0           | 14.3             | 53.6       | 3.6 | 1.2      | (0.812)  |
| 자아<br>긍정 | 긍정 | (179) | 5.0                  | 5.6                  | 29.1          | 33.5     | 26.8           | 10.6             | 60.3       | 3.7 | 1.1      | 1.754    |
|          | 부정 | (42)  | 9.5                  | 9.5                  | 40.5          | 14.3     | 26.2           | 19.0             | 40.5       | 3.4 | 1.2      | (0.081)  |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으로, “마약예방 교육은 지루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의 예방교육 경험 평가에서 동의가 47.1%로 비동의 약 20.8%를 상회하였다. 성별, 교급·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긍정감 등 하위 집단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특정 집단에 한정된 인식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형식성·지루함을 경험했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인되었다.

표 Ⅲ-149. 가장 최근 받은 예방교육에 대한 생각 - 예방 교육은 지루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별로<br>그렇지<br>않다<br>② | 보통<br>이다<br>③ | 그렇다<br>④ | 매우<br>그렇다<br>⑤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④+⑤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21) | 11.3                 | 9.5                  | 32.1          | 23.1     | 24.0           | 20.8             | 47.1       | 3.4 | 1.3      |                   |
| 성별       | 남  | (160) | 9.4                  | 8.8                  | 32.5          | 25.6     | 23.8           | 18.1             | 49.4       | 3.5 | 1.2      | 1.341<br>(0.181)  |
|          | 여  | (60)  | 16.7                 | 11.7                 | 31.7          | 15.0     | 25.0           | 28.3             | 40.0       | 3.2 | 1.4      |                   |
| 교급       | 중  | (67)  | 14.9                 | 7.5                  | 32.8          | 19.4     | 25.4           | 22.4             | 44.8       | 3.3 | 1.3      | -0.471<br>(0.638) |
|          | 고  | (154) | 9.7                  | 10.4                 | 31.8          | 24.7     | 23.4           | 20.1             | 48.1       | 3.4 | 1.2      |                   |
| 학년       | 중1 | (2)   | 50.0                 | 0.0                  | 50.0          | 0.0      | 0.0            | 50.0             | 0.0        | 2.0 | 1.4      | 1.597<br>(0.162)  |
|          | 중2 | (29)  | 10.3                 | 6.9                  | 24.1          | 17.2     | 41.4           | 17.2             | 58.6       | 3.7 | 1.4      |                   |
|          | 중3 | (36)  | 16.7                 | 8.3                  | 38.9          | 22.2     | 13.9           | 25.0             | 36.1       | 3.1 | 1.3      |                   |
|          | 고1 | (45)  | 6.7                  | 8.9                  | 44.4          | 26.7     | 13.3           | 15.6             | 40.0       | 3.3 | 1.0      |                   |
|          | 고2 | (67)  | 16.4                 | 9.0                  | 23.9          | 22.4     | 28.4           | 25.4             | 50.7       | 3.4 | 1.4      |                   |
|          | 고3 | (42)  | 2.4                  | 14.3                 | 31.0          | 26.2     | 26.2           | 16.7             | 52.4       | 3.6 | 1.1      |                   |
| 성적       | 상  | (30)  | 10.0                 | 3.3                  | 23.3          | 36.7     | 26.7           | 13.3             | 63.3       | 3.7 | 1.2      | 1.861<br>(0.158)  |
|          | 중  | (41)  | 14.6                 | 9.8                  | 41.5          | 19.5     | 14.6           | 24.4             | 34.1       | 3.1 | 1.2      |                   |
|          | 하  | (150) | 10.7                 | 10.7                 | 31.3          | 21.3     | 26.0           | 21.3             | 47.3       | 3.4 | 1.3      |                   |
| 가구<br>소득 | 상  | (96)  | 13.5                 | 10.4                 | 26.0          | 27.1     | 22.9           | 24.0             | 50.0       | 3.4 | 1.3      | 0.093<br>(0.911)  |
|          | 중  | (68)  | 10.3                 | 10.3                 | 32.4          | 19.1     | 27.9           | 20.6             | 47.1       | 3.4 | 1.3      |                   |
|          | 하  | (56)  | 8.9                  | 7.1                  | 41.1          | 21.4     | 21.4           | 16.1             | 42.9       | 3.4 | 1.2      |                   |
| 자아<br>긍정 | 긍정 | (179) | 11.7                 | 10.6                 | 30.2          | 25.1     | 22.3           | 22.3             | 47.5       | 3.4 | 1.3      | -0.768<br>(0.444) |
|          | 부정 | (42)  | 9.5                  | 4.8                  | 40.5          | 14.3     | 31.0           | 14.3             | 45.2       | 3.5 | 1.3      |                   |



9. 학교 징계, 법적 처벌, 상담·치료 경험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은 ‘없다’가 92.6%, ‘있다’가 7.4%였다.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은 ‘없다’가 96.3%, ‘있다’가 3.7%였다. 또한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은 ‘없다’가 95.6%, ‘있다’가 4.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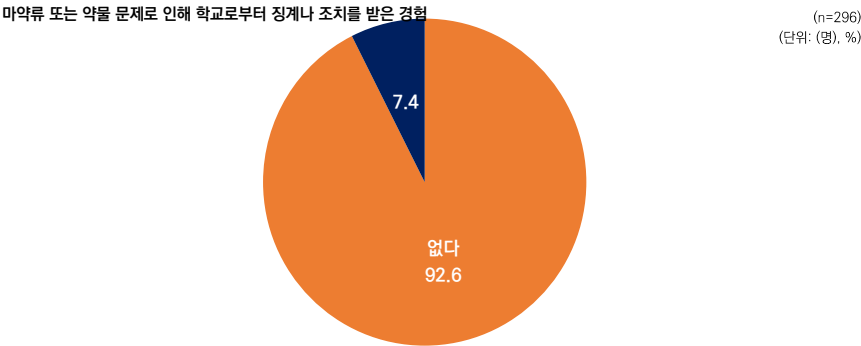


그림 III-41.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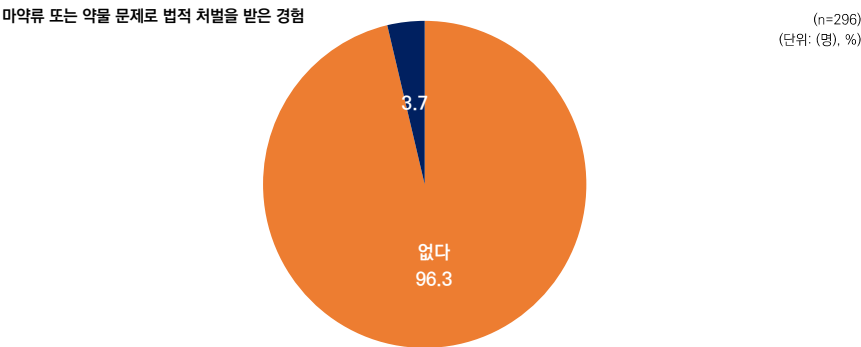


그림 III-42.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

(n=29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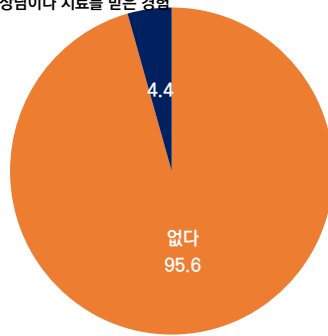


그림 III-43.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은 ‘없다’가 92.6%, ‘있다’가 7.4%로 나타났다. 즉, 징계나 조치 관련 경험 자체는 비교적 저빈도이지만, 소수 위험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성별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서 남학생의 5.2%가 징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15.4%로 나타나 약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의 비행·일탈률이 높게 보고되는 기존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여학생의 약물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긍정 수준에 따른 차이는 매우 의미있게 나타났다. 자아긍정이 긍정적인 집단은 4.6%만이 징계 경험이 있었던 반면, 부정적 자아존중감 집단은 19.6%로 약 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긍정이 약물 관련 문제행동 및 학교 규범 위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자기평가가 낮을수록 정서적 불안, 충동적 행동, 또래영향에 취약해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표 III-150.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

(단위: (명),%)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
| 전체       |    | (296) | 92.6  | 7.4  |                  |
| 성별       | 남  | (230) | 94.8  | 5.2  | 7.591<br>(1)**   |
|          | 여  | (65)  | 84.6  | 15.4 |                  |
| 교급       | 중  | (86)  | 88.4  | 11.6 | 3.101<br>(1)     |
|          | 고  | (210) | 94.3  | 5.7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6.720<br>(5)     |
|          | 중2 | (33)  | 87.9  | 12.1 |                  |
|          | 중3 | (48)  | 87.5  | 12.5 |                  |
|          | 고1 | (67)  | 98.5  | 1.5  |                  |
|          | 고2 | (88)  | 92.0  | 8.0  |                  |
|          | 고3 | (55)  | 92.7  | 7.3  |                  |
| 성적       | 상  | (35)  | 97.1  | 2.9  | 3.074<br>(2)     |
|          | 중  | (54)  | 96.3  | 3.7  |                  |
|          | 하  | (207) | 90.8  | 9.2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94.0  | 6.0  | 2.852<br>(2)     |
|          | 중  | (102) | 94.1  | 5.9  |                  |
|          | 하  | (76)  | 88.2  | 11.8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0) | 95.4  | 4.6  | 14.967<br>(1)*** |
|          | 부정 | (56)  | 80.4  | 19.6 |                  |

전체 조사대상자 296명 중 3.7%가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비율로, 대다수 청소년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경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 집단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1.7%만이 법적 처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10.8%로 남학생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마약류 문제에서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존 연구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본 조사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약물 관련 문제 노출 또는 신고·처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자아긍정이 높은 집단에서는 1.3%만이 법적 처벌 경험이 있었던 반면,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14.3%가 처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자아긍정이 낮을수록 자기통

제력 저하, 비행행동 수용, 사회적 낙인에 대한 민감성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마약류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아긍정 향상은 마약 및 약물 문제 예방을 위한 핵심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학업 성취도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정서적 맥락이 법적 처벌 경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151.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

(단위: (명),%)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
| 전체       |    | (296) | 96.3  | 3.7  |                  |
| 성별       | 남  | (230) | 98.3  | 1.7  | 11.512<br>(1)*** |
|          | 여  | (65)  | 89.2  | 10.8 |                  |
| 교급       | 중  | (86)  | 95.3  | 4.7  | 0.296<br>(1)     |
|          | 고  | (210) | 96.7  | 3.3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3.947<br>(5)     |
|          | 중2 | (33)  | 93.9  | 6.1  |                  |
|          | 중3 | (48)  | 95.8  | 4.2  |                  |
|          | 고1 | (67)  | 100.0 | 0.0  |                  |
|          | 고2 | (88)  | 95.5  | 4.5  |                  |
|          | 고3 | (55)  | 94.5  | 5.5  |                  |
| 성적       | 상  | (35)  | 100.0 | 0.0  | 1.582<br>(2)     |
|          | 중  | (54)  | 96.3  | 3.7  |                  |
|          | 하  | (207) | 95.7  | 4.3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98.3  | 1.7  | 4.375<br>(2)     |
|          | 중  | (102) | 93.1  | 6.9  |                  |
|          | 하  | (76)  | 97.4  | 2.6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0) | 98.8  | 1.3  | 21.564<br>(1)*** |
|          | 부정 | (56)  | 85.7  | 14.3 |                  |

다음은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296명 중 4.4%가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 청소년은 약물 문제와 관련한 전문적 개입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상담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지 개입을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겪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학생의 2.6%만이 상담·치료 경험이 있었던 반면, 여학생은 10.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약물 사용 이후의 대응 방식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긍정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자아긍정이 부정적인 집단의 14.3%가 상담·치료 경험을 보고한 반면, 긍정적인 집단에서는 2.1%에 불과했다. 이는 자아긍정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약물 관련 문제를 경험하거나 이후 전문기관의 개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전문기관 상담·치료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여학생, 자아긍정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약물 문제 개입 정책에서 심리적 취약성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III-152.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

(단위: (명),%)

|       |    | 사례수   | 없다    | 있다   | $\chi^2(df)$     |
|-------|----|-------|-------|------|------------------|
| 전체    |    | (296) | 95.6  | 4.4  |                  |
| 성별    | 남  | (230) | 97.4  | 2.6  | 8.011<br>(1)**   |
|       | 여  | (65)  | 89.2  | 10.8 |                  |
| 교급    | 중  | (86)  | 94.2  | 5.8  | 0.584<br>(1)     |
|       | 고  | (210) | 96.2  | 3.8  |                  |
| 학년    | 중1 | (5)   | 100.0 | 0.0  | 8.757<br>(5)     |
|       | 중2 | (33)  | 97.0  | 3.0  |                  |
|       | 중3 | (48)  | 91.7  | 8.3  |                  |
|       | 고1 | (67)  | 100.0 | 0.0  |                  |
|       | 고2 | (88)  | 92.0  | 8.0  |                  |
|       | 고3 | (55)  | 98.2  | 1.8  |                  |
| 성적    | 상  | (35)  | 97.1  | 2.9  | 0.352<br>(2)     |
|       | 중  | (54)  | 96.3  | 3.7  |                  |
|       | 하  | (207) | 95.2  | 4.8  |                  |
| 가구 소득 | 상  | (117) | 96.6  | 3.4  | 1.179<br>(2)     |
|       | 중  | (102) | 96.1  | 3.9  |                  |
|       | 하  | (76)  | 93.4  | 6.6  |                  |
| 자아 긍정 | 긍정 | (240) | 97.9  | 2.1  | 16.101<br>(1)*** |
|       | 부정 | (56)  | 85.7  | 14.3 |                  |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학교 징계나 조치 후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이 50.0%,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이 31.8%,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이 22.7%로 나타났다.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법적 처벌 후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이 45.5%,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과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이 각각 36.4%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한해 병원 상담 및 치료 후 변화가 있었는지 물었을 때,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다시 사용하게 되었음’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다시 사용하게 되었음’이 각각 30.8%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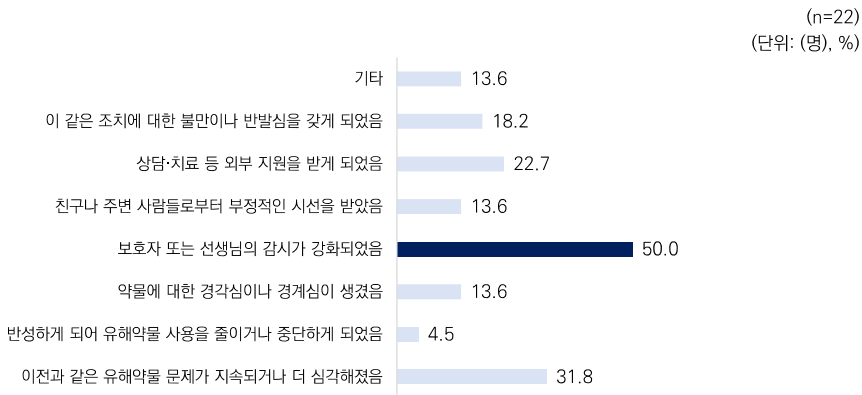


그림 Ⅲ-44.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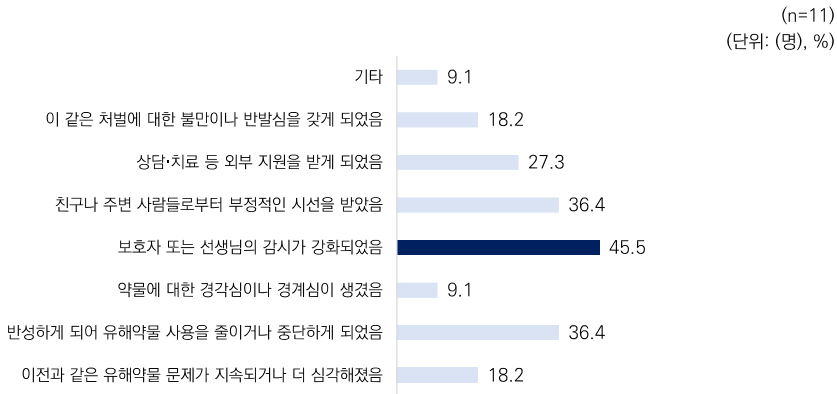


그림 Ⅲ-45. 법적 처벌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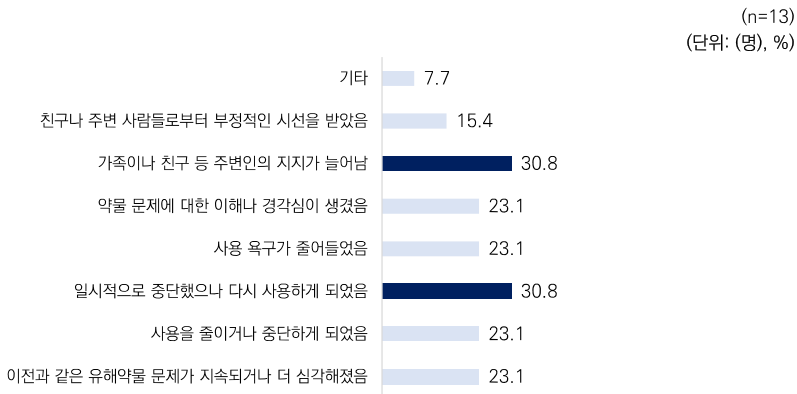


그림 Ⅲ-46. 상담 및 치료 이후 본인에게 생긴 변화

다음은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응답자 22명 중 약 절반(50.0%)이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50.0%)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징계 이후 학생 개인의 인식 변화보다, 주변의 통제와 관리 강화가 가장 즉각적이고 뚜렷한 변화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약과 같은

유해물질 문제를 자주 생각하게 됨'(①, 31.8%), '상담·전문 도움을 받게 됨'(⑥, 22.7%), '징계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심을 갖게 됨'(⑦, 18.2%) 순으로 나타나, 징계 이후에도 일정 부분에서는 반발적 정서나 부정적 또래관계가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성별에서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은 '보호자 또는 교사의 감시 강화'(④, 70.0%) 응답이 남학생(33.3%)보다 높았고, '유해물질 문제를 자주 생각하게 됨'(①, 40.0%)에서도 남학생(25.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학생은 통제 강화와 자기성찰 중심의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징계 이후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개인의 내적 변화보다 외부의 감시와 통제 강화(보호자·교사 중심)로 나타났다.

표 III-153.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 (단위: (명),%) |      |      |       |      |      |       |       |       |       |              |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전체          | (22) | 31.8 | 4.5   | 13.6 | 50.0 | 13.6  | 22.7  | 18.2  | 13.6  |              |
| 성별          | 남    | (12) | 25.0  | 8.3  | 25.0 | 33.3  | 0.0   | 16.7  | 8.3   | 25.0         |
|             | 여    | (10) | 40.0  | 0.0  | 0.0  | 70.0  | 30.0  | 30.0  | 30.0  | 0.0          |
| 교급          | 중    | (10) | 40.0  | 10.0 | 30.0 | 30.0  | 10.0  | 20.0  | 10.0  | 10.0         |
|             | 고    | (12) | 25.0  | 0.0  | 0.0  | 66.7  | 16.7  | 25.0  | 25.0  | 16.7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 중2   | (4)  | 50.0  | 25.0 | 0.0  | 50.0  | 25.0  | 0.0   | 0.0   | 0.0          |
|             | 중3   | (6)  | 33.3  | 0.0  | 50.0 | 16.7  | 0.0   | 33.3  | 16.7  | 16.7         |
|             | 고1   | (1)  | 0.0   | 0.0  | 0.0  | 100.0 | 0.0   | 100.0 | 0.0   | 0.0          |
|             | 고2   | (7)  | 28.6  | 0.0  | 0.0  | 85.7  | 28.6  | 28.6  | 28.6  | 14.3         |
|             | 고3   | (4)  | 25.0  | 0.0  | 0.0  | 25.0  | 0.0   | 0.0   | 25.0  | 25.0         |
| 성적          | 상    | (1)  | 100.0 | 0.0  | 0.0  | 100.0 | 100.0 | 100.0 | 100.0 | 0.0          |
|             | 중    | (2)  | 50.0  | 0.0  | 50.0 | 50.0  | 0.0   | 50.0  | 0.0   | 0.0          |
|             | 하    | (19) | 26.3  | 5.3  | 10.5 | 47.4  | 10.5  | 15.8  | 15.8  | 15.8         |
| 가구 소득       | 상    | (7)  | 71.4  | 14.3 | 0.0  | 42.9  | 28.6  | 42.9  | 28.6  | 0.0          |
|             | 중    | (6)  | 33.3  | 0.0  | 16.7 | 50.0  | 0.0   | 16.7  | 33.3  | 16.7         |
|             | 하    | (9)  | 0.0   | 0.0  | 22.2 | 55.6  | 11.1  | 11.1  | 0.0   | 22.2         |
| 자아 긍정       | 긍정   | (11) | 36.4  | 9.1  | 9.1  | 54.5  | 0.0   | 27.3  | 18.2  | 27.3         |
| 긍정          | 부정   | (11) | 27.3  | 0.0  | 18.2 | 45.5  | 27.3  | 18.2  | 18.2  | 0.0          |

- ①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 ②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 ③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
-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
- ⑤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 ⑥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 ⑦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
- ⑧ 기타



다음은 징계나 조치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1명 중 45.5%가 법적 처벌 이후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다’(36.4%),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27.3%)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심각해졌음’ 및 ‘불만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각각 18.2%)이나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다’(9.1%)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법적 처벌이 치료나 교정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제와 낙인 경험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집단 간 비교에서 하위 항목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교급에서 중학생에게 생긴 변화는 ‘이전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25.0%, ‘감시 심화’ 25.0%,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부정적 시선’ 50.0%로 그 변화가 3가지였으나, 고등학교는 모두 다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법적 처벌은 청소년에게 재활보다는 낙인과 통제의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II-154. 법적 처벌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단위: (명),%)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 (df) |
|-------|------|------|------|-------|------|-------|-------|------|------|---------------|
| 전체    | (11) | 18.2 | 36.4 | 9.1   | 45.5 | 36.4  | 27.3  | 18.2 | 9.1  |               |
| 성별    | 남    | (4)  | 25.0 | 25.0  | 0.0  | 50.0  | 25.0  | 25.0 | 0.0  | 3.621         |
|       | 여    | (7)  | 14.3 | 42.9  | 14.3 | 42.9  | 28.6  | 28.6 | 14.3 | (8)           |
| 교급    | 중    | (4)  | 25.0 | 0.0   | 0.0  | 25.0  | 50.0  | 0.0  | 0.0  | 10.365        |
|       | 고    | (7)  | 14.3 | 57.1  | 14.3 | 57.1  | 28.6  | 42.9 | 28.6 | (8)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 중2   | (2)  | 50.0 | 0.0   | 0.0  | 0.0   | 50.0  | 0.0  | 0.0  |               |
|       | 중3   | (2)  | 0.0  | 0.0   | 0.0  | 50.0  | 50.0  | 0.0  | 0.0  | 32.338        |
|       | 고1   | (0)  | -    | -     | -    | -     | -     | -    | -    | (24)          |
|       | 고2   | (4)  | 25.0 | 25.0  | 0.0  | 75.0  | 50.0  | 75.0 | 50.0 |               |
|       | 고3   | (3)  | 0.0  | 100.0 | 33.3 | 33.3  | 0.0   | 0.0  | 0.0  |               |
|       | 상    | (0)  | -    | -     | -    | -     | -     | -    | -    |               |
| 성적    | 중    | (2)  | 0.0  | 50.0  | 0.0  | 100.0 | 0.0   | 0.0  | 0.0  | 7.019         |
|       | 하    | (9)  | 22.2 | 33.3  | 11.1 | 33.3  | 44.4  | 33.3 | 22.2 | (8)           |
| 가구 소득 | 상    | (2)  | 0.0  | 0.0   | 0.0  | 50.0  | 100.0 | 50.0 | 50.0 |               |
|       | 중    | (7)  | 28.6 | 42.9  | 14.3 | 57.1  | 14.3  | 28.6 | 14.3 | 14.443        |
|       | 하    | (2)  | 0.0  | 50.0  | 0.0  | 0.0   | 50.0  | 0.0  | 0.0  | (16)          |
| 자아 긍정 | 긍정   | (3)  | 33.3 | 66.7  | 0.0  | 66.7  | 0.0   | 33.3 | 0.0  | 7.197         |
|       | 부정   | (8)  | 12.5 | 25.0  | 12.5 | 37.5  | 50.0  | 25.0 | 12.5 | (8)           |

- ①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②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③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  
 ⑤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⑥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⑦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  
 ⑧ 기타

다음은 “상담이나 치료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자 13명 중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30.8%), ‘상담 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됨’(30.8%)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전과 같은 유해물 문제가 지속/심화’(23.1%), ‘반성하여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23.1%), ‘보호자·교사의 감시 강화’(23.1%), ‘주변의 부정적 시선 경험’(23.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불만·반발심 형성’(15.4%), ‘기타’(7.7%)가 뒤를 이었다. 이는 제재·상담이 일부에게는 경각심과 치료 연계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감시 강화·낙인 인식·행동 지속/감소가 혼재된 다층적 효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집단 비교에서는 성별, 교급, 학년, 성적,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결과는 특정 하위집단의 차이라기보다, 처벌·상담 이후 청소년이 경험하는 전반적 양상을 보여주는 기술통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III-155. 상담이나 치료 이후 본인과 주변에게 생긴 변화

(단위: (명),%)

|          |    | 사례수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chi^2(df)$   |
|----------|----|------|-------|------|-------|------|------|-------|-------|------|----------------|
| 전체       |    | (13) | 23.1  | 23.1 | 30.8  | 23.1 | 23.1 | 30.8  | 15.4  | 7.7  |                |
| 성별       | 남  | (6)  | 16.7  | 33.3 | 33.3  | 16.7 | 33.3 | 33.3  | 0.0   | 16.7 | 5.195<br>(8)   |
|          | 여  | (7)  | 28.6  | 14.3 | 28.6  | 28.6 | 14.3 | 28.6  | 28.6  | 0.0  |                |
| 교급       | 중  | (5)  | 20.0  | 40.0 | 20.0  | 20.0 | 0.0  | 40.0  | 0.0   | 0.0  | 6.757<br>(8)   |
|          | 고  | (8)  | 25.0  | 12.5 | 37.5  | 25.0 | 37.5 | 25.0  | 25.0  | 12.5 |                |
| 학년       | 중1 | (0)  | -     | -    | -     | -    | -    | -     | -     | -    | 15.836<br>(24) |
|          | 중2 | (1)  | 0.0   | 0.0  | 0.0   | 0.0  | 0.0  | 100.0 | 0.0   | 0.0  |                |
|          | 중3 | (4)  | 25.0  | 50.0 | 25.0  | 25.0 | 0.0  | 25.0  | 0.0   | 0.0  |                |
|          | 고1 | (0)  | -     | -    | -     | -    | -    | -     | -     | -    |                |
|          | 고2 | (7)  | 28.6  | 14.3 | 28.6  | 28.6 | 42.9 | 28.6  | 28.6  | 14.3 |                |
|          | 고3 | (1)  | 0.0   | 0.0  | 100.0 | 0.0  | 0.0  | 0.0   | 0.0   | 0.0  |                |
| 성적       | 상  | (1)  | 100.0 | 0.0  | 100.0 | 0.0  | 0.0  | 0.0   | 100.0 | 0.0  | 17.844<br>(16) |
|          | 중  | (2)  | 0.0   | 50.0 | 50.0  | 50.0 | 0.0  | 50.0  | 0.0   | 0.0  |                |
|          | 하  | (10) | 20.0  | 20.0 | 20.0  | 20.0 | 30.0 | 30.0  | 10.0  | 10.0 |                |
| 가구<br>소득 | 상  | (4)  | 50.0  | 25.0 | 25.0  | 25.0 | 0.0  | 50.0  | 25.0  | 0.0  | 13.555<br>(16) |
|          | 중  | (4)  | 25.0  | 25.0 | 25.0  | 25.0 | 50.0 | 50.0  | 0.0   | 25.0 |                |
|          | 하  | (5)  | 0.0   | 20.0 | 40.0  | 20.0 | 20.0 | 0.0   | 20.0  | 0.0  |                |
| 자아<br>긍정 | 긍정 | (5)  | 40.0  | 40.0 | 20.0  | 40.0 | 20.0 | 60.0  | 0.0   | 20.0 | 10.888<br>(8)  |
|          | 부정 | (8)  | 12.5  | 12.5 | 37.5  | 12.5 | 25.0 | 12.5  | 25.0  | 0.0  |                |

- ①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 ②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 ③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
-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
- ⑤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 ⑥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 ⑦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
- ⑧ 기타

10. 주변인의 유해약물 사용 수준에 대한 인식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응답에 전체의 68.7%가 그렇다고 응답해 평균 2.9점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훨씬 높은 평균을 보여 3.5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아 긍정과 관련해 자아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평균 3.2점으로 주변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되었으며, 유의미한 차이임을 확인했다. 여타 유형별 비교에는 큰 차이 없이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56.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그렇지<br>않다<br>② | 그렇다<br>③ | 매우<br>그렇다<br>④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③+④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7) | 10.8                 | 20.5           | 35.0     | 33.7           | 31.3             | 68.7       | 2.9 | 1.0      |                  |
| 성별       | 남  | (231) | 13.9                 | 21.6           | 39.4     | 25.1           | 35.5             | 64.5       | 2.8 | 1.0      | -5.326           |
|          | 여  | (65)  | 0.0                  | 16.9           | 20.0     | 63.1           | 16.9             | 83.1       | 3.5 | 0.8      | ***<br>(0.000)   |
| 교급       | 중  | (86)  | 14.0                 | 18.6           | 32.6     | 34.9           | 32.6             | 67.4       | 2.9 | 1.0      | -0.358           |
|          | 고  | (211) | 9.5                  | 21.3           | 36.0     | 33.2           | 30.8             | 69.2       | 2.9 | 1.0      | (0.720)          |
| 학년       | 중1 | (5)   | 40.0                 | 40.0           | 20.0     | 0.0            | 80.0             | 20.0       | 1.8 | 0.8      | 1.790<br>(0.115) |
|          | 중2 | (33)  | 9.1                  | 12.1           | 42.4     | 36.4           | 21.2             | 78.8       | 3.1 | 0.9      |                  |
|          | 중3 | (48)  | 14.6                 | 20.8           | 27.1     | 37.5           | 35.4             | 64.6       | 2.9 | 1.1      |                  |
|          | 고1 | (67)  | 14.9                 | 17.9           | 38.8     | 28.4           | 32.8             | 67.2       | 2.8 | 1.0      |                  |
|          | 고2 | (89)  | 11.2                 | 18.0           | 30.3     | 40.4           | 29.2             | 70.8       | 3.0 | 1.0      |                  |
|          | 고3 | (55)  | 0.0                  | 30.9           | 41.8     | 27.3           | 30.9             | 69.1       | 3.0 | 0.8      |                  |
| 성적       | 상  | (35)  | 14.3                 | 17.1           | 31.4     | 37.1           | 31.4             | 68.6       | 2.9 | 1.1      | 1.079<br>(0.341) |
|          | 중  | (54)  | 14.8                 | 29.6           | 22.2     | 33.3           | 44.4             | 55.6       | 2.7 | 1.1      |                  |
|          | 하  | (208) | 9.1                  | 18.8           | 38.9     | 33.2           | 27.9             | 72.1       | 3.0 | 0.9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2.8                 | 21.4           | 33.3     | 32.5           | 34.2             | 65.8       | 2.9 | 1.0      | 1.250<br>(0.288) |
|          | 중  | (103) | 9.7                  | 24.3           | 35.9     | 30.1           | 34.0             | 66.0       | 2.9 | 1.0      |                  |
|          | 하  | (76)  | 9.2                  | 14.5           | 36.8     | 39.5           | 23.7             | 76.3       | 3.1 | 1.0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1.6                 | 22.4           | 35.3     | 30.7           | 34.0             | 66.0       | 2.9 | 1.0      | -2.386           |
|          | 부정 | (56)  | 7.1                  | 12.5           | 33.9     | 46.4           | 19.6             | 80.4       | 3.2 | 0.9      | *<br>(0.018)     |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78.8%가 그렇다고 응답되어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율 비교에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평균이 더 높아 3.6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하 다른 유형별 비율 비교에는 큰 차이 없이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57.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그렇지<br>않다<br>② | 그렇다<br>③ | 매우<br>그렇다<br>④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③+④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97) | 9.1                  | 12.1           | 39.7     | 39.1           | 21.2             | 78.8       | 3.1 | 0.9      |             |
| 성별       | 남  | (231) | 11.7                 | 13.4           | 42.9     | 32.0           | 25.1             | 74.9       | 3.0 | 1.0      | -4.756      |
|          | 여  | (65)  | 0.0                  | 7.7            | 29.2     | 63.1           | 7.7              | 92.3       | 3.6 | 0.6      | *** (0.000) |
| 교급       | 중  | (86)  | 10.5                 | 10.5           | 41.9     | 37.2           | 20.9             | 79.1       | 3.1 | 0.9      | -0.346      |
|          | 고  | (211) | 8.5                  | 12.8           | 38.9     | 39.8           | 21.3             | 78.7       | 3.1 | 0.9      | (0.729)     |
| 학년       | 중1 | (5)   | 20.0                 | 0.0            | 40.0     | 40.0           | 20.0             | 80.0       | 3.0 | 1.2      |             |
|          | 중2 | (33)  | 9.1                  | 9.1            | 42.4     | 39.4           | 18.2             | 81.8       | 3.1 | 0.9      |             |
|          | 중3 | (48)  | 10.4                 | 12.5           | 41.7     | 35.4           | 22.9             | 77.1       | 3.0 | 1.0      | 0.543       |
|          | 고1 | (67)  | 13.4                 | 13.4           | 37.3     | 35.8           | 26.9             | 73.1       | 3.0 | 1.0      | (0.743)     |
|          | 고2 | (89)  | 10.1                 | 11.2           | 31.5     | 47.2           | 21.3             | 78.7       | 3.2 | 1.0      |             |
|          | 고3 | (55)  | 0.0                  | 14.5           | 52.7     | 32.7           | 14.5             | 85.5       | 3.2 | 0.7      |             |
| 성적       | 상  | (35)  | 14.3                 | 17.1           | 28.6     | 40.0           | 31.4             | 68.6       | 2.9 | 1.1      | 2.354       |
|          | 중  | (54)  | 13.0                 | 20.4           | 31.5     | 35.2           | 33.3             | 66.7       | 2.9 | 1.0      | (0.097)     |
|          | 하  | (208) | 7.2                  | 9.1            | 43.8     | 39.9           | 16.3             | 83.7       | 3.2 | 0.9      |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1.1                 | 12.8           | 36.8     | 39.3           | 23.9             | 76.1       | 3.0 | 1.0      | 0.353       |
|          | 중  | (103) | 6.8                  | 15.5           | 40.8     | 36.9           | 22.3             | 77.7       | 3.1 | 0.9      | (0.703)     |
|          | 하  | (76)  | 9.2                  | 6.6            | 43.4     | 40.8           | 15.8             | 84.2       | 3.2 | 0.9      |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0.0                 | 13.3           | 39.4     | 37.3           | 23.2             | 76.8       | 3.0 | 1.0      | -1.771      |
|          | 부정 | (56)  | 5.4                  | 7.1            | 41.1     | 46.4           | 12.5             | 87.5       | 3.3 | 0.8      | (0.078)     |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64.6%가 그렇다고 응답되어 평균 2.8점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평균 3.1점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급별 비교에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은 평균으로 확인되어 2.9점이었으며, 유의미한 차이에 있었다. 다른 유형별 비율 비교에는 큰 차이 없이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158.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그렇지<br>않다<br>② | 그렇다<br>③ | 매우<br>그렇다<br>④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③+④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 전체       | (297) | 12.1                 | 23.2           | 38.0     | 26.6           | 35.4             | 64.6       | 2.8  | 1.0      |     |           |
| 성별       | 남     | (231)                | 13.4           | 25.1     | 40.3           | 21.2             | 38.5       | 61.5 | 2.7      | 1.0 | -3.320    |
|          | 여     | (65)                 | 7.7            | 16.9     | 29.2           | 46.2             | 24.6       | 75.4 | 3.1      | 1.0 | **(0.001) |
| 교급       | 중     | (86)                 | 14.0           | 29.1     | 39.5           | 17.4             | 43.0       | 57.0 | 2.6      | 0.9 | -2.127    |
|          | 고     | (211)                | 11.4           | 20.9     | 37.4           | 30.3             | 32.2       | 67.8 | 2.9      | 1.0 | *(0.034)  |
| 학년       | 중1    | (5)                  | 20.0           | 40.0     | 40.0           | 0.0              | 60.0       | 40.0 | 2.2      | 0.8 |           |
|          | 중2    | (33)                 | 12.1           | 15.2     | 54.5           | 18.2             | 27.3       | 72.7 | 2.8      | 0.9 |           |
|          | 중3    | (48)                 | 14.6           | 37.5     | 29.2           | 18.8             | 52.1       | 47.9 | 2.5      | 1.0 | 1.787     |
|          | 고1    | (67)                 | 14.9           | 20.9     | 40.3           | 23.9             | 35.8       | 64.2 | 2.7      | 1.0 | (0.115)   |
|          | 고2    | (89)                 | 11.2           | 20.2     | 33.7           | 34.8             | 31.5       | 68.5 | 2.9      | 1.0 |           |
|          | 고3    | (55)                 | 7.3            | 21.8     | 40.0           | 30.9             | 29.1       | 70.9 | 2.9      | 0.9 |           |
| 성적       | 상     | (35)                 | 11.4           | 22.9     | 22.9           | 42.9             | 34.3       | 65.7 | 3.0      | 1.1 |           |
|          | 중     | (54)                 | 16.7           | 16.7     | 33.3           | 33.3             | 33.3       | 66.7 | 2.8      | 1.1 | 0.840     |
|          | 하     | (208)                | 11.1           | 25.0     | 41.8           | 22.1             | 36.1       | 63.9 | 2.8      | 0.9 | (0.433)   |
| 가구<br>소득 | 상     | (117)                | 12.8           | 25.6     | 35.9           | 25.6             | 38.5       | 61.5 | 2.7      | 1.0 |           |
|          | 중     | (103)                | 11.7           | 26.2     | 34.0           | 28.2             | 37.9       | 62.1 | 2.8      | 1.0 | 0.571     |
|          | 하     | (76)                 | 10.5           | 15.8     | 47.4           | 26.3             | 26.3       | 73.7 | 2.9      | 0.9 | (0.565)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12.4           | 25.7     | 36.1           | 25.7             | 38.2       | 61.8 | 2.8      | 1.0 | -1.484    |
|          | 부정    | (56)                 | 10.7           | 12.5     | 46.4           | 30.4             | 23.2       | 76.8 | 3.0      | 0.9 | (0.139)   |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마약류를 사용해본 사람이 많은지에 대한 응답에는 그렇다고 응답된 비율이 12.1%로 나타나 10명 중 1.2명이 주변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평균이 더 높아 1.8점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볼 때 26.2%로 나타나 10명 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 2.6명이 주변에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유형별 비율 비교에는 큰 차이 없이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Ⅲ-159. 정신 건강 및 생활환경 -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마약류를 사용해 본 사람이 많다

(단위: (명),%)

|          |    | 사례수   | 전혀<br>그렇지<br>않다<br>① | 그렇지<br>않다<br>② | 그렇다<br>③ | 매우<br>그렇다<br>④ | 그렇지<br>않다<br>①+② | 그렇다<br>③+④ | 평균  | 표준<br>편차 | t/F         |
|----------|----|-------|----------------------|----------------|----------|----------------|------------------|------------|-----|----------|-------------|
| 전체       |    | (297) | 74.1                 | 13.8           | 9.8      | 2.4            | 87.9             | 12.1       | 1.4 | 0.8      |             |
| 성별       | 남  | (231) | 80.1                 | 11.7           | 6.9      | 1.3            | 91.8             | 8.2        | 1.3 | 0.7      | -3.816      |
|          | 여  | (65)  | 53.8                 | 20.0           | 20.0     | 6.2            | 73.8             | 26.2       | 1.8 | 1.0      | *** (0.000) |
| 교급       | 중  | (86)  | 77.9                 | 14.0           | 7.0      | 1.2            | 91.9             | 8.1        | 1.3 | 0.7      | -1.416      |
|          | 고  | (211) | 72.5                 | 13.7           | 10.9     | 2.8            | 86.3             | 13.7       | 1.4 | 0.8      | (0.158)     |
| 학년       | 중1 | (5)   | 80.0                 | 0.0            | 20.0     | 0.0            | 80.0             | 20.0       | 1.4 | 0.9      |             |
|          | 중2 | (33)  | 84.8                 | 12.1           | 3.0      | 0.0            | 97.0             | 3.0        | 1.2 | 0.5      |             |
|          | 중3 | (48)  | 72.9                 | 16.7           | 8.3      | 2.1            | 89.6             | 10.4       | 1.4 | 0.7      | 2.675       |
|          | 고1 | (67)  | 82.1                 | 11.9           | 6.0      | 0.0            | 94.0             | 6.0        | 1.2 | 0.6      | (0.022)     |
|          | 고2 | (89)  | 64.0                 | 16.9           | 12.4     | 6.7            | 80.9             | 19.1       | 1.6 | 0.9      |             |
|          | 고3 | (55)  | 74.5                 | 10.9           | 14.5     | 0.0            | 85.5             | 14.5       | 1.4 | 0.7      |             |
| 성적       | 상  | (35)  | 91.4                 | 0.0            | 8.6      | 0.0            | 91.4             | 8.6        | 1.2 | 0.6      |             |
|          | 중  | (54)  | 75.9                 | 14.8           | 9.3      | 0.0            | 90.7             | 9.3        | 1.3 | 0.6      | 2.485       |
|          | 하  | (208) | 70.7                 | 15.9           | 10.1     | 3.4            | 86.5             | 13.5       | 1.5 | 0.8      | (0.085)     |
| 가구<br>소득 | 상  | (117) | 71.8                 | 16.2           | 8.5      | 3.4            | 88.0             | 12.0       | 1.4 | 0.8      |             |
|          | 중  | (103) | 79.6                 | 7.8            | 10.7     | 1.9            | 87.4             | 12.6       | 1.3 | 0.8      | 0.423       |
|          | 하  | (76)  | 69.7                 | 18.4           | 10.5     | 1.3            | 88.2             | 11.8       | 1.4 | 0.7      | (0.655)     |
| 자아<br>긍정 | 긍정 | (241) | 75.9                 | 13.3           | 8.7      | 2.1            | 89.2             | 10.8       | 1.4 | 0.7      | -1.466      |
|          | 부정 | (56)  | 66.1                 | 16.1           | 14.3     | 3.6            | 82.1             | 17.9       | 1.6 | 0.9      | (0.1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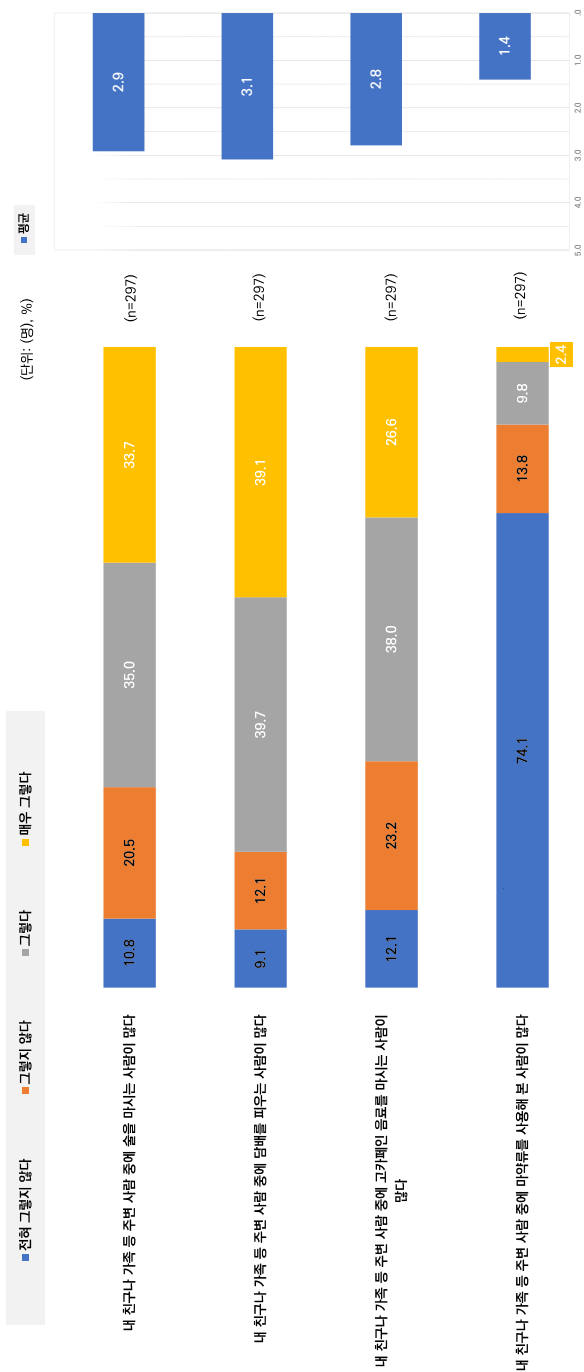


그림 III-47. 주변 사람들의 유해약물 사용에 대한 인식

## 11.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 분석 변수 설정 및 이론적 근거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의 유해약물 인식 구조를 분석하여, 약물에 대한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이 각각 어떠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두 인식 유형은 서로 대립적인 독립 요인이 아니라, 청소년의 약물 태도를 설명하는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긍정 인식은 중독 경향성을 강화하는 태도적 결과로, 부정 인식은 위험 인식을 높여 중독 가능성을 낮추는 태도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약물 인식은 단순한 지식 수준이 아니라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평가’가 결합된 태도(attitude)의 차원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은 또래 또는 미디어를 통해 약물 사용을 관찰·모방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김학신, 2012; 이정혁·강동욱, 2018). 반면,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예방교육과 규범적 통제의 효과를 반영한다(박선영·박현나, 2023a). 한편, 인지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청소년이 약물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기대할수록 긍정적 인식이 강화되며, 반대로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수록 위험 회피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박선영·박현나, 2023a). 또한, 인지행동이론(Cognitive Behavioral Theory)은 사고가 감정과 행동을 매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물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행동 억제에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Beck, 1976).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로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 하위 차원으로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을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인식을 두 개의 태도적 결과 변수, 즉 ① 긍정 인식(약물에 대한 정당화·수용 태도)과 ② 부정 인식(위험성과 해악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인식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며, 긍정 인식은 위험 인식의 약화(태도적 촉진), 부정 인식은 위험 인식의 강화(태도적 억제)를 각각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개인 심리, 사회관계, 사회구조, 환경·유통 요인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① 긍정 인식(정당화·수용 태도)과 ② 부정 인식(위험·해악 인식)의 두 차원으로 나타나며, 그 형성 요인은 개인 수준에서 사회·환경적 수준까지 다차원적으로 작동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긍정·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의 네 범주(개인심리, 사회관계, 사회구조, 환경·유통 요인)로 구분하였다.

### (1) 개인심리 요인

청소년의 내적 특성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다.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 따르면 낮은 자기통제는 비행과 중독 행동의 대표적 예측 요인이며,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마약류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혁·강동욱, 2018; 공태명, 2019). 반면 자기효능감은 약물 거절 및 회피 행동을 강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약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andura, 1997; 박선영·박현나, 2023a).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는 약물을 정서적 회피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위험 인식을 저하시키는 반면(Wills et al., 2001), 친사회성은 규범적 행동 통제를 강화하는 완충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정혁·강동욱, 2018). 또한 자극 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새롭고 강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긍정 인식이 강화되며(Zuckerman, 2007), 스마트폰 의존도와 의료용 마약 경험 역시 즉각적 보상 민감도 및 약물 접근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Kwon et al., 2013; 김학신, 2012).

### (2) 사회관계 요인

또래·가족·교사 등 청소년의 대인 관계망과 규범적 환경에 해당하는 요인이다. 사회학습 이론(Bandura, 1997)은 청소년이 또래의 행동을 관찰·모방하며 태도를 습득한다고 설명하며, 실제로 또래의 약물 수용성이 높을수록 긍정 인식이 강화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김태우, 2021). 반면 가족 및 교사와의 신뢰 기반 관계는 사회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여 약물 수용 태도를 억제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이정혁·강동욱, 2018). 또한 대면적 관계망은 비공식적 규범 통제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적 고립은 오히려 일탈 행동의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공태명, 2019). 예방교육에 대한 신뢰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교육 내용을 신뢰할수록 부정 인식이 강화되고 긍정 인식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박선영·박현나, 2023a).

### (3) 사회구조 요인

사회경제적 환경 및 제도·규범 인식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이다. 긴장이론(Strain Theory; Merton, 1938; Agnew, 1992)은 구조적 불평등과 좌절된 기회가 일탈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며, 실제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사회 규범 내면화 수준이 낮고 약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약화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학신, 2012). 또한 교육 성취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성공에 대한 대체적 욕구로 일탈 행동이 유발될 수 있으며(Agnew, 1992),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약물의 ‘치유 효과’를 과대평가하며 위험 행동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혁·강동욱, 2018). 마약 처벌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 요인으로, 처벌을 약하다고 평가하는 집단일수록 약물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박선영·박현나, 2023a). 이와 유사하게 Reingle et al.(2012)은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 남용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 (4) 환경·유통 요인

약물 노출 가능성과 관련 정보 접근성을 포함한 환경적 요인이다. 약물 접근성이 높을수록 호기심 및 사용 의도 가능성이 증가하며, 불법 유통 경로가 다양할수록 위험 행동으로의 전이가 용이해진다(이정혁·강동욱, 2018). 미디어는 청소년에게 강력한 사회화 및 이데올로기 전달체제로 작용하는데, 미디어의 반복적 노출이 현실 인식을 왜곡시킨다는 Gerbner(1998)의 배양이론에 따르면 반복적 미디어 노출은 약물 사용을 일상적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어 긍정 인식을 강화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미디어 속 흡연·음주 장면은 청소년의 마약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선영·박현나, 2023a). 카페인 음료에 대한 관대함은 ‘합법적 자극제’로서의 심리적 정당화를 제공하며(이정혁·강동욱, 2018), 스마트폰 이용시간 증가는 디지털 자극 과잉 및 충동성 증가를 통해 인지적 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Kwon et al. 2013).

지금까지 살핀 네 개의 범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면, 개인심리 요인은 청소년의 내적 통제력과 충동성의 수준과 연관되며, 사회관계 요인은 사회적 학습과 지지의 질을 매개로 인식 형성에 작용한다. 사회구조 요인은 사회경제적 박탈과 규범 내면화 수준의 차이에 따라 약물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고, 환경·유통 요인은 일상적 노출 환경과 미디어 자극을 통해 약물에 대한 인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2) 변수 구성 및 요인 체계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구성과 측정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0.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 관련 변수 구성 및 측정 개요

| 구분             | 주요 개념 및 이론적 근거                                                                                                                                            | 변수명(코드)                                                                                                                                                              | 대응 설문문항(요약)                                                                                                                       | 문항수<br>(n) |
|----------------|-----------------------------------------------------------------------------------------------------------------------------------------------------------|----------------------------------------------------------------------------------------------------------------------------------------------------------------------|-----------------------------------------------------------------------------------------------------------------------------------|------------|
| 종속<br>변수       | 유해약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br>— 약물의 효용성·호기심·사회적<br>수용성 인식 (태도적 결과 변수)                                                                                                | 유해약물 긍정인식                                                                                                                                                            | 유해약물 사용은 스트레<br>스 해소·삶의 질 향상·창<br>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br>등 6문항 평균                                                                       | 6          |
| 개인<br>심리<br>요인 | 개인의 내적 심리자원 및 통제력,<br>정서, 자극 추구 경향이 인식에 영<br>향을 미침 자기통제이론(Hirschi,<br>1969; Gottfredson & Hirschi,<br>1990), 청소년 위험행동 연구(이<br>정혁·강동욱, 2018; 공태명,<br>2019) | 음주흡연경험<br>흡연경험<br>음주경험<br>의료약물경험여부<br>경험의료마약종류수<br>환각물질경험여부<br>마약류경험여부<br>스마트폰의존도<br>자기통제력<br>자기효능감<br>부정적정서<br>친사회성<br>강한자극                                         | 친한 친구의 제안을 거절<br>한다 / 나는 자신감이 있<br>다 / 요즘 의욕이 떨어진<br>다 / 타인의 감정을 잘 이<br>해한다 / 위험한 일도 시<br>도 / 스마트폰 충동 사용<br>/ 의료용 마약 사용 종류<br>수 등 | 31         |
| 사회<br>관계<br>요인 | 가족·또래·교사 관계망과 규범적<br>지지가 인식 방향을 규정 사회학습<br>이론(Bandura, 1977),<br>국내 연구(김태우, 2021)                                                                         | 사회적약물심각성<br>청소년접근성<br>사회적흡연음주수용성<br>예방교육긍정인식<br>예방교육부정인식<br>예방교육경험<br>학교징계경험<br>상담치료경험<br>주1회연락자인수<br>한달한번이상대면자인수<br>고민터놓을지인수<br>종교참여정도<br>6개월내피해경험<br>가족지지<br>사회적고립 | 청소년 흡연·음주 허용 /<br>예방교육은 효과적이다<br>/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br>/ 나는 외롭다 / 한 달에<br>한 번 이상 만나는 지인<br>수 등                                         | 15         |
| 사회<br>구조<br>요인 | 사회경제적 조건과 제도 인식이 태<br>도에 간접적 영향 (사회구조적 긴<br>장이론 등)사회구조적 접근<br>(Agnew, 1992; Merton,                                                                       | 유해약물처벌필요인식<br>법적처벌경험<br>성적<br>가정소득                                                                                                                                   | 성적 수준 / 가정의 소득<br>수준 / 신체 건강 상태 /<br>유해약물 단속·처벌 강<br>화 필요성 등                                                                      | 6          |

| 구분               | 주요 개념 및 이론적 근거                                                                                      | 변수명(코드)                                                    | 대응 설문문항(요약)                                                                    | 문항수<br>(n) |
|------------------|-----------------------------------------------------------------------------------------------------|------------------------------------------------------------|--------------------------------------------------------------------------------|------------|
|                  | 1938), 국내 연구(이정혁·강동욱, 2018)                                                                         | 건강상태                                                       |                                                                                |            |
| 환경·<br>유통 요<br>인 | 일상 노출환경 및 매체 경험이 인식 형성에 작용 (노출이론, 미디어 영향이론)미디어 영향 연구 (Gerbner, 1998; Bandura, 1997; 박선영·박현나, 2023a) | 미디어속흡연음주긍정<br>카페인음료긍정인식<br>카페인음료부정인식<br>스마트폰이용시간<br>위험환경노출 |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구하기 쉬움 / 미디어 속 음주·흡연 장면 / 고카페인 음료 효용 인식 / 주변의 술·담배 노출 / 스마트폰 이용시간 등 | 14         |
| 통제<br>변수         | 개인 특성 통제 목적                                                                                         | 성별,<br>나이,<br>학적여부                                         | 성별 / 연령(출생연도) / 학교 재학 여부                                                       | 3          |

모든 변수는 사전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거쳐 구성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동일 요인으로 묶인 문항은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경험 유무형 문항은 ‘있다=1, 없다=0’으로 코딩하였다.

인구통계 요인은 성별, 나이, 학적 여부 등 기본적 배경 특성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나이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5 - 출생연도 + 1로 계산하였다. 학적 여부는 재학 중(1), 비재학(0)으로 처리하였다.

사회관계 요인은 청소년이 속한 가족·또래·교사 관계 및 사회적 규범 인식을 반영하였다. ‘사회적 약물 심각성 인식’은 사회 전반과 청소년 집단의 약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 접근성 인식’은 약물 및 유해물질을 구하기 쉽다고 느끼는 정도를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은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사회가 일정 부분 용인한다고 보는 태도로, 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예방교육 인식 및 경험’은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참여 경험 여부(예/아니오)를 포함하였고 대관계 변수는 최근 한 달 내 대면 접촉 빈도, 주 1회 이상 연락한 지인 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수를 1~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족지지’는 부모의 신뢰, 수용, 문제 해결 지원을 묻는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사회적 고립감’은 외로움·소외감·무가치감을 묻는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종교활동 참여 정도와 최근 6개월 내 피해 경험(폭력·사이버·성추행·금전 갈취 등) 여부도 포함하였다.

사회구조 요인은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제도적 규범 인식을 반영한다. ‘마약 처벌 필요성 인식’은 단속 강화, 사용자 처벌 강화, 판매자 처벌 강화에 대한 3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성적 수준’은 학급 내 상대적 학업 위치(1=하위권~5=상위권), ‘가정소득 수준’은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1=하위~5=상위), ‘건강상태’는 평소 신체 건강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약물에 대한 부정 인식이 약화되고(김학신, 2012), 사회규범의 내면화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약물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이정혁·강동욱, 2018). 해외 연구 역시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약물 남용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하였다(Reingle et al., 2012). 따라서 사회구조 요인은 단순한 배경 변수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사회적 규범 내면화와 위험 인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환경 요인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심리 요인은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행동적 성향, 그리고 약물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친사회성’은 각각 3~6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 심리자원을 의미한다. ‘부정적 정서’는 우울, 무가치감, 걱정, 불안 등 정서적 취약성을 반영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이 큰 상태를 의미한다. ‘자극추구성’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행동에 대한 흥미 및 쾌락적 자극 추구 경향을 2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과도한 사용 충동과 SNS 몰입을 측정하였다. ‘흡연·음주 경험’은 각 항목별로 ‘있다=1, 없다=0’으로 코딩하였고, ‘의료용 마약 사용경험’과 ‘환각물질·마약류 사용경험’은 사용 여부를 이진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사용 종류 수를 합산하여 추가 변수로 구성하였다.

환경·유통 요인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외부 자극과 매체 경험을 포함하였다. ‘미디어 속 음주·흡연 긍정 인식’은 TV·영화·유튜브 등에서의 흡연·음주 장면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매력적으로 인식하는지를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카페인 음료 긍정 인식’은 ‘집중력 향상’, ‘피로회복’, ‘효율 증가’ 등 긍정 문항 4개 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카페인 음료 부정 인식’은 ‘건강 위해’, ‘중독 위험’을 묻는 2문항으로 산출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일 평균 이용시간(①=1시간 미만~⑥=6시간 이상)으로, ‘위험환경 노출도’는 주변에서 술·담배·고카페인 음료를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을 묻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마약류 사용을 스트레스 해소·삶의 질 향상·창의력 증진 등 긍정적 효용이 있다고 평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하는 태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변수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Cronbach's  $\alpha$ 는 .754로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변수 체계는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자원,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사회구조적 조건, 일상적 노출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형성된다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약물 인식을 단일 차원의 태도나 경험으로 환원하기보다, 사회·심리·환경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다층적 산물로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석 설계이다.

회귀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각 변수를 산출 코딩한 방식과 값을 정리한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161. 변수 생성 및 구성

| 생성 방법       | 변수 설명                                                                                                                                                                                                                                           |                                                                                                                                                            |
|-------------|-------------------------------------------------------------------------------------------------------------------------------------------------------------------------------------------------------------------------------------------------|------------------------------------------------------------------------------------------------------------------------------------------------------------|
| 이분형 재코딩(14) | <div>성별</div> <div>학적여부</div> <div>음주/흡연경험</div> <div>흡연경험</div> <div>음주경험</div> <div>의료약물 경험여부</div> <div>환각물질 경험여부</div>                                                                                                                      | <div>마약류 경험여부</div> <div>예방교육 경험</div> <div>학교징계 경험</div> <div>법적처벌 경험</div> <div>상담치료 경험</div> <div>6개월내 일탈경험</div> <div>6개월내 피해경험</div>                  |
| 합산형(1)      | 경험의료약물종류수                                                                                                                                                                                                                                       |                                                                                                                                                            |
| 척도평균(20)    | <div>사회적약물 심각성</div> <div>청소년 접근성</div> <div>유해약물 긍정인식</div> <div>유해약물 처벌 필요인식</div> <div>유해약물 부정인식</div> <div>미디어속 흡연음주 긍정</div> <div>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div> <div>카페인음료 긍정인식</div> <div>카페인음료 부정인식</div> <div>예방교육 긍정인식</div> <div>예방교육 부정인식</div> | <div>스마트폰 의존도</div> <div>자기통제력</div> <div>가족지지</div> <div>자기효능감</div> <div>부정적 정서</div> <div>위험환경노출</div> <div>친사회성</div> <div>사회적고립</div> <div>강한자극</div> |
| 단일문항(9)     | <div>나이</div> <div>스마트폰 이용시간</div> <div>주1회 연락지인수</div> <div>한달 한번이상 대면 지인수</div> <div>고민 터놓을 지인수</div>                                                                                                                                         | <div>성적</div> <div>가정소득</div> <div>건강상태</div> <div>종교참여정도</div>                                                                                            |

### 3) 분석 결과

#### (1) 요인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계된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유해약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된 39개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 3개를 최종 추출하였다.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을 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유해약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마약중독의 긍정적 인식이 중독단계 이전에 선행되거나(박선영 & 박현나, 2023) 유해약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태도 변수로써 중독행동을 예측 가능하게(박선영 & 박현나, 2023a)한다는 논지에 기초하여 유해약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치화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마약류 인식 관련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KMO=.69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15)=821.369$ ,  $p<.001$ 로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Varimax 회전)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분산의 74.3%를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요인1은 '사회적 약물문제 심각성', 요인2는 '청소년의 약물 접근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약류 인식 문항(Q1~Q16) 중 문항-전체 상관이 낮은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거한 결과, 6개 문항(또래 수용성·스트레스 해소·호기심·삶의 질 향상·창의력 향상·사회적 용인 가능성)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87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 6개 문항에 대한 EFA 결과 KMO=.822, Bartlett  $\chi^2(15)=442.307$ ,  $p<.001$ 로 적합성이 확인되었고, 단일 요인이 전체 분산의 48.8%를 설명하여 이를 '마약류 긍정 인식'으로 설정하고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제외된 문항들은 별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마약류 처벌 필요 인식'(Q13, 14, 16)과 '마약류 부정 인식'(Q5, 6, 8, 9, 11)이라는 두 요인으로 분리되었으며, 각각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추가 분석 변수로 활용하였다.

#### (2)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변수 중 긍정/부정이 동시에 투입되면 해석이 어려운 예방교육과 카페인음용에 관한 긍정/부정인식 중 한개씩을 선택하였고, R3의 경우 종속변수를 선택한 질문들과 동일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았다.

회귀분석을 통해 케이스별 진단을 통해 표준화잔차가 +/- 2이상인 변수중 제일 높은 것을 기준으로, 분석 전 결측치를 제거하였으며, 표본 261명 중 표준화 잔차가 ±2를 초과하는 사례를 이상치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제거한 결과 총 9개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분석은 252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회귀 결과( $R=.182$ ,  $R^2=.033$ )에서 쓰인 독립변수로 구성된 모델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은 변수 평균이 2~3점 정도이고, 표준편차가 0.7~1.1로 비슷한 응답항목이 많아 분산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LASSO)<sup>16)</sup> 방법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이론적 고려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7개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마약류 긍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 1에는 인구학적 특성(성별, 나이)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더하여 개인심리 특성, 사회관계 특성, 사회구조 특성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긍정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표 III -162. 청소년 마약류 긍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252)

| No | 특성                    | 변수                | B                | SE   | $\beta$ | t        | TOL  | VIF   |
|----|-----------------------|-------------------|------------------|------|---------|----------|------|-------|
| 1  | (상수)                  |                   | 1.373            | .655 |         | 2.097*   |      |       |
|    | 인구통계                  | 성별                | -.300            | .117 | -.161   | -2.569*  | .984 | 1.016 |
|    |                       | 나이                | .038             | .037 | .065    | 1.041    | .984 | 1.016 |
|    | $R^2$<br>(Adj $R^2$ ) |                   | 0.033<br>(0.025) |      |         |          |      |       |
|    | F(p)                  |                   | 4.243*(0.015)    |      |         |          |      |       |
| 2  | (상수)                  |                   | 1.307            | .577 |         | 2.263*   |      |       |
|    | 인구통계                  | 성별                | .033             | .099 | .018    | 0.333    | .683 | 1.465 |
|    |                       | 나이                | -.044            | .027 | -.076   | -1.640   | .911 | 1.098 |
|    | 개인심리                  | 경험의료<br>약물<br>종류수 | .175             | .038 | .220    | 4.552*** | .830 | 1.205 |
|    |                       | 스마트폰              | .089             | .038 | .122    | 2.315*   | .701 | 1.427 |

16) 투입변수 결정 방법 -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LASSO) 변수가 많을 때 중요한 변수를 고르고 다중공선성 위험이 있는 변수 중 일부만 선택해 주는 틀.



| No | 특성          | 변수             | B                 | SE   | $\beta$ | t        | TOL  | VIF   |
|----|-------------|----------------|-------------------|------|---------|----------|------|-------|
|    |             | 의존도            |                   |      |         |          |      |       |
|    |             | 부정적 정서         | .067              | .056 | .063    | 1.190    | .693 | 1.442 |
|    |             | 친사회성           | -.077             | .056 | -.068   | -1.381   | .803 | 1.245 |
|    |             | 강한자극           | .276              | .067 | .217    | 4.155*** | .705 | 1.419 |
|    | 사회관계        | 사회적 악물 심각성     | -.031             | .024 | -.068   | -1.334   | .753 | 1.327 |
|    |             | 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   | .113              | .037 | .164    | 3.058**  | .670 | 1.494 |
|    |             | 예방교육 긍정인식      | -.036             | .044 | -.039   | -0.810   | .852 | 1.173 |
|    |             | 한달한번 이상 대면 지인수 | -.123             | .038 | -.158   | -3.222** | .808 | 1.238 |
|    |             | 고민터놓을 지인수      | -.052             | .038 | -.072   | -1.377   | .698 | 1.432 |
|    |             | 가족지지           | -.031             | .055 | -.030   | -0.568   | .708 | 1.412 |
|    | 사회구조        | 가정소득           | .007              | .031 | .011    | 0.230    | .828 | 1.208 |
|    | 환경·유통       | 청소년 접근성        | .019              | .019 | .052    | 1.007    | .719 | 1.391 |
|    |             | 미디어 속 흡연음주 긍정  | .160              | .045 | .201    | 3.590*** | .616 | 1.624 |
|    |             | 카페인 음료 긍정인식    | .164              | .043 | .200    | 3.835*** | .714 | 1.401 |
|    | R2 (Adj R2) |                | 0.548 (0.515)     |      |         |          |      |       |
|    | F(p)        |                | 16.691***(<0.001) |      |         |          |      |       |

\*p<.05, \*\*p<.01, \*\*\*p<.001  
Durbin-Watson: 2.165

### (3) 결과 분석

모형 1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만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긍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2.5%(Adj.  $R^2=.025$ )로 낮았으며,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성별만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B=-.300, p<.05$ ). 이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마약에 대해 다소 더 관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모형 2에서는 개인심리, 사회관계, 사회구조, 환경·유통 요인을 위계적으로 추가 투입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결정계수(Adj.  $R^2$ )는 .515로 크게 증가하여, 확장된 모형이 청소년의 마약류 긍정 인식을 약 51.5%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691, p<.001$ ).

개별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심리 요인 중에서는 의료용 유해약물 경험 종류 수( $B=.175, p<.001$ )와 강한 자극 추구 성향( $B=.276, p<.001$ )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즉, 경험한 약물 종류가 많고 새롭고 강렬한 감각 경험을 추구하는 청소년일수록 마약류를 호기심과 효용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 역시 유의한 정적 영향( $B=.089, p<.05$ )을 보여 디지털 기반 자극 추구 성향이 약물 인식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관계 요인에서는 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 $B=.113, p<.01$ )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면하는 지인 수( $B=-.123, p<.01$ )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였다. 즉, 흡연·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마약류 인식까지 느슨하게 만들지만, 실제 대면 관계망이 활발한 청소년은 위험 행동에 대한 억제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속 흡연·음주 장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B=0.160, p<.001$ )와 카페인 음료에 대해 효용 중심으로 인식하는 태도( $B=.164, p<.001$ )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극적 콘텐츠나 합법적 자극 물질을 긍정적으로 경험할수록, 해당 자극을 위험 요소가 아닌 ‘일상적이고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축소 평가하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형 1에서는 성별이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B=-.300, p<.05$ ), 모형 2에서 개인심리·사회관계·환경 요인을 추가한 후에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이는 성별 효과가 독립적인 영향이라기보다, 강한 자극 추구 성향이나 미디어 노출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매개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구조적 효과임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구조 요인으로 투입된 가정소득 수준 역시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 배경 변수(성별, 연령, 소득 수준)는 마약류 인식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며,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미디어 노출 경험에 의해 더욱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의료용 유해약물 경험 종류 수( $\beta = .220$ )와 강한 자극 추구 성향( $\beta = .217$ )이 가장 강한 영향 요인이었고, 미디어 속 흡연·음주 긍정 인식( $\beta = .201$ ), 카페인 음료 긍정 인식( $\beta = .200$ ), 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 $\beta = .164$ )이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의존도( $\beta = .122$ )는 유의한 정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면하는 지인의 수( $\beta = -.158$ )는 유일하게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마약류 긍정 인식이 성별·연령·소득 등 전통적 인구통계 요인보다, 심리적 자극 추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스마트폰 과의존, 사회문화적 수용 규범 등에 의해 더 강하게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 예방 정책은 심리적 충동 조절,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관계망 회복 등을 통합한 다차원적 접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12. 요약 및 시사점

### 1) 설문조사 기초 분석

본 조사는 전국 만 13~18세 위기청소년 297명을 대상으로, 유해약물·마약류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접근 용이성, 정부정책 평가, 그리고 일상 언어·미디어 표현의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은 남학생 78.0%, 여학생 22.0%, 중학생 29.0%, 고등학생 71.0%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응답자들은 사회 전반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를 대체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심각하다’(6-10점)로 답한 비율이 84.5%에 달했고, 평균점수도 7.5점으로 높았다. 이는 위기청소년 다수가 합법 경계선의 유해약물(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등)이 청소년 환경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이미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마약류 사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86.8%

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평균은 7.7점으로 조사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위기청소년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약류는 사회문제로서의 위험성이 분명히 인지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9-10점) 응답의 비중도 적지 않아 강한 위기의식이 확인된다. 초점을 ‘청소년 집단의 문제’로 좁혀도 높은 경각심은 유지되었다.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사용 문제는 평균 7.7점으로, 응답의 다수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는 평균 7.3점으로 유해약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심각’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즉, 위기청소년에게서 ‘청소년 약물 문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약물(음주·흡연 등)에 대해서는 마약류 못지 않게 높은 경각심이 관찰된다. 접근 가능성에 대한 체감 또한 경각심과 나란히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제외) 접근 용이성은 ‘구하기 쉽다’는 인식이 81.5%였고 평균 7.6점을 기록했다. 이는 실생활 속에 술·담배·환각성 생활용품 등으로의 진입 장벽이 낮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용이성도 평균 6.1점으로, ‘접근이 쉽다’는 응답이 61.6%로 과반을 넘겼다. 즉, 불법성을 감안해도 온라인, 지인, 유흥공간 등 복합 채널을 통해 마약류 접근성도 결코 낮지 않다는 체감이 확인된다.

반면, 정부의 마약 및 유해약물 관리정책 시행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6-10점)는 응답이 55.9%로 과반이긴 하나, 평균은 5.8점에 그쳐 문제의 심각성·접근 용이성 인식에 비해 정책 신뢰가 따르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났다. 이는 대응정책의 체감 효과, 전달력, 접근성(특히 취약계층·위기군 대상)에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마약’ 표현의 영향에 대해서는 평균 5.2점으로 ‘영향이 있다’고 본 비율이 45.5%로 과반에는 못 미쳤다. 그럼에도 응답자 중 상당수가 언어·미디어 노출이 인식과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청소년 환경의 문화·언어적 정상화 효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심각성 인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단순한 경각심 제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 차단·온라인 유통 통제·조기예방·회복지원 및 상담 연계 등 다층적 개입으로 실제 행동과 환경을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한다.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긍·부정 인식과 관련된 설문이다. 위기청소년은 마약류의 해악과 파괴성에 매우 강하게 동의한다. ‘마약류는 한 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문항에서 강한 동의(평균 4.4점)나타났고, ‘정신 건강에 해롭다(평균 4.6점)’, ‘신체 건강에 해롭다(평균 4.6점)’는 항목은 평균이 가장 높은 축이었다. 특히 ‘마약류 사용은 일상생활이 무너

질 수 있다'는 문항에는 93.2%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건강 악화 차원을 넘어 학업·대인관계·일상 루틴 붕괴까지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계적 피해 인식도 뚜렷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항목에 동의률이 85.8%로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부정 인식은 정신적·신체적뿐만 아니라 관계·일상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높게 형성되었다. 이와 맞물려 정책 태도는 대체로 강경 기조로 수렴한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사용자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판매자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평균 4.3~4.4점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이며, 특히 판매자·유통 고리에 대한 강한 처벌의 선호가 더 두드러진다(동의비율 83.8%). 이는 위기청소년 다수가 해법을 공급·유통 차단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보다 접근 경로의 구조적 차단을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인식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다. '포레와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된다', '행복감을 높인다',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된다' 같은 사회·정서·외모 효용 문항은 평균이 1점대 초중반에 머물며,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가 다수를 이룬다. 특히 외모 관련 효용은 최저 수준으로, 마약류를 '패션 소품'이나 '자기관리 도구'로 받아들이는 시각은 사실상 부재하다.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항목도 낮은 평균(1.7점)에 그쳐, 직접적 호기심 자체가 넓게 확산된 양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건부 경제적 긍정의 흔적은 일부 남아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는 항목은 다른 긍정 문항보다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아(각각 2.2점) 소수 집단이 일시적 완화나 상황적 용인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발각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에도 '보통/그렇다' 응답이 2~3할 일정 비중 존재해, 일부는 적발 회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세 가지—스트레스 해소 기대, 부분적 사회적 용인, 적발 회피 가능성—이 위기청소년 내 취약 하위군의 인지적 균열로 작동하며, 단순 경고만으로는 바뀌기 어려운 지점임이 드러난다.

위기청소년이 유해약물 확산의 사회적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문항에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온라인 정보 접근 용이성'(1·2순위 합 46.3%)이 꼽혀, 온라인 환경이 약물 확산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극적 유희환경과 오락시설의 증가'(40.8%),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3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 정부 관리 부재, 취업환경 악화 등 구조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어,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과 디지털 영향력을 중시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해약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묻는 문항 결과로,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이 '친구의 권유'(1·2순위 합 62.4%)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단순한 호기심'(52.2%)과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욕구'(29.5%)가 뒤를 이었다. 반면, 학업 스트레스, 가족 불안정, 학교생활 부적응 등은 10% 미만으로 낮았다. 즉, 위기청소년에게 유해약물 확산은 개인 내적 불안이나 가정환경보다 '또래관계와 일시적 호기심'이 핵심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또래압력 예방교육과 감정 조절·스트레스 대체체험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음주·흡연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위기청소년은 청소년 음주·흡연의 사회적 용인성을 중간 이하로 평가했다(각 평균 3.0점 수준). 반면 미디어 노출 빈도는 높아, TV·영화·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을 자주 본다는 응답이 과반(동의 응답 51.7%, 평균 3.4점), 흡연 장면은 이보다 더 높다(동의 응답 54.7%, 평균 3.5점). 장면의 매력도는 전반적으로 낮지만, 흡연 장면은 매력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평균 2.7점으로 음주 장면 평균 2.3점보다 높아, 흡연 관련 미디어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드러난다. 즉, 사회적 용인은 낮지만 노출은 많고, 특히 흡연 장면의 매력 지각이 일부에서 높게 나타나 미디어 환경 관리와 비판적 시청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위기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률은 매우 높다. 음주 경험이 82.8%, 일반 담배 흡연 경험이 89.6%, 액상형 전자담배 83.5%, 관련형 전자담배 69.7%로 전자담배 유형을 포함하면 대다수가 흡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초 경험시기가 중학교 시기(13~15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2~중3 시점에 첫 음주·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 즉, 위기청소년의 음주·흡연 진입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예방 개입의 핵심 시기가 중학교 초반임을 시사한다. 위기청소년의 최근 6개월 내 음주 및 흡연 빈도는, 음주 경험자의 절반 이상(약 55%)은 월 1~5회 수준으로 '가끔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흡연의 경우 일반 담배는 77.1%가 월 20회 이상 상시 흡연자 수준이었다. 전자담배도 월 20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액상 40.7%, 껌 36.7%로 나타나, 전통적 흡연에서 전자담배로의 이중·다체 사용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위기청소년의 커피 및 카페인 음료에 대한 긍·부정 인식 결과, 응답자는 카페인 음료의 기능적 효용을 꽤 인정하고 있다. '공부·아르바이트 등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아(평균 3.7점),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3.3점 수준이었다. 동시에 부정인식도 분명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중독 위험이 있다'

역시 3.4점으로 위험인식이 뚜렷하다. 즉, 커피 및 카페인(집중·피로완화)과 위험(건강·의존)을 함께 가진 양가적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며, 과다섭취 경고와 올바른 사용 가이드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커피·카페인 섭취는 월 10~19회(20.1%)가 가장 많았으며, 6~9회(13.9%) 등 '상당 빈도'가 두드러져 전반적 섭취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카페인 음료도 월 3~5회(22.2%), 1~2회(18.8%)가 중심으로, 커피보다 빈도 분포가 낮았다(무섭취 14.3%). 이렇듯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주된 이유는 '맛'으로, 긍정 응답이 평균 3.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험·과제 등 상황적·기호적 섭취가 뒤따랐다. 반면, 의존·금단 신호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위기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경험(의료 목적 외)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항목인 수면제 사용 경험이 8.1%, 그다음으로 진해거담제·기침억제제 6.4%, 신경안정제/항불안제 5.4%, 식욕억제제 4.7% 순이었다. 그 외 ADHD 치료제(0.8%), 근육강화제(1.0%), 마취제(2.7%) 등은 거의 없었다. 초기 경험 시기는 대체로 고등학교 시기(16세 이후)가 많지만, 진해거담제·기침억제제와 ADHD 치료제의 경우 일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기부터 복용 경험이 보고되어, 조기 노출의 위험성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의료용 약물 남용 수준은 낮지만, 일부 약물의 저연령 노출은 예방교육과 가정·학교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6개월 내 의료용 마약류·약물의 정기적 복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일부 약물에서는 빈번한 사용 경향이 보인다. 수면제는 월 10회 이상 복용이 약 37.5%, 신경안정제·항불안제와 ADHD 치료제도 각각 절반이 월 10회 이상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마취제·근육강화제·마약성 진통제 등은 거의 복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즉, 의료용 약물 중에서도 수면제·정신 안정제·집중력 관련 약물이 상대적으로 상습 복용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어, 처방 약물의 관리 및 청소년 대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사용자 36명 중에서는 ADHD 치료제 사용이 4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안정제·항불안제(20.5%), 수면제(17.9%) 순이었다. 인지 경로는 약국 또는 병원(63.9%)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구입 경로 또한 약국·병원 77.8%로 나타나 대부분 의료기관을 통한 합법적 취득이었다. 사용 이유는 우울감·불안 해소(41.7%)와 집중력·학습능력 향상(27.8%)이 주를 이루며, 위기청소년의 의료용 약물 사용이 정신적 부담 완화와 성취 압박 대응이라는 심리·학습 요인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의료용 마약류·약물 사용 후 만족감은 평균 3.1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 평균

3.4점, 소수 표본이지만 효과 체감이 지속사용 의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후회·불안(평균 2.0점), 그만두기 어려움(평균 1.9점), 일상 부정영향(평균 2.0점)은 전반적으로 낮아 부정적 자각은 크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즉, 해당 사용자군은 즉시적 효용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의료적 모니터링과 사용가이드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관련하여 위기청소년은 의료용 마약류·약물의 비치료 목적 사용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외모 개선, 학업 성취, 스트레스 완화 등 비의료 목적 사용 의향이 있다'는 항목은 모두 평균 2.0~2.2점 수준으로 낮았으며, 응답자의 과반(50~60%)이 이를 부정했다. 반면 '치료 목적 이외로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하다'고 본 응답은 평균 3.8점으로 높아, 비치료적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기청소년은 약물의 유혹이나 기능적 기대보다는 '건강 위해'라는 부정 인식을 중심으로 한 자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위기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 경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체 297명 중 2~3명(1~2%) 내외만이 사용 경험(부탄가스·라이터가스(6명), 해피벌룬, 에어스프레이, 기타)을 보고했다. 이 소수 사례는 주로 중학교 시기에 처음 사용했으며, 최근 6개월 내에도 일부(1~2명)가 간헐적으로 사용(부탄가스·라이터가스, 기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환각물질 사용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며, 확산 위험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환각물질을 처음 사용한 이유는 '호기심이나 재미'(60.0%)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일부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20.0%), 또는 '주변 권유'(10.0%)로 응답했다. 사용 후에는 '후회·불안감'(평균 1.8점)과 '그만두기 어려움'(평균 1.7점)이 낮게 나타나, 대체로 일시적 호기심에 의한 경험임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지속적 사용 의향은 낮고(평균 1.7점), 일상에 부정적 영향(평균 1.4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마약류 사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97명 중 극히 일부(약 1~3%)만이 합성대마, 필로폰, LSD, 케타민 등 특정 물질 사용 경험을 보고했으며, 대부분은 "없다"고 응답했다. 사용 경험이 있는 소수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처음 접한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이는 일부 청소년이 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노출되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6개월 이내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은 6명으로 매우 소수였다. 이 중 합성대마(33.3%)와 필로폰·아이스·메스암페타민(33.3%)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터시·MDMA 및 대마초·마리화나도 16.7%로 집계되었다. 마약류 인지 경로는 '텔레그램'(50%)과 '친구 또는 포레'(33.3%)가 가장 높았으며,



구입 경로 역시 ‘텔레그램’(50%)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일부 청소년이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류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마약류를 사용한 위기청소년(6명)의 절반인 50%가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16.7%), ‘집중력 향상이나 기분 전환 목적’(각 16.7%) 등이 일부 나타났다. 이는 쾌락이나 문제 회피보다 호기심 기반의 일회성 사용 경향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마약류 사용 후 대부분이 ‘만족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50%), 평균 점수도 4.5점으로 매우 높았다. 반면, ‘후회나 불안감’(3.0점)이나 ‘그만두기 어려움’(3.5점) 항목에서도 일정 수준의 응답이 나타나, 일부는 사용 후 심리적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3.3점)는 응답이 존재해, 일부 청소년의 반복 사용 가능성도 시사된다.

위기청소년들은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44.9%)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수사 강화’(39.1%)와 ‘사용자 처벌 강화’(34.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예방 교육’(17.0%)이나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17.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소년들이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을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위기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도움이 된다’(평균 4.0점)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실질적·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의 필요성’(3.3점)과 ‘현재의 교육이 청소년의 약물 사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3.3점)는 응답도 중간 이상으로, 예방 교육의 확대 필요성과 실효성 강화 요구가 함께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체 위기청소년의 75.9%가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72%는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여 전반적인 교육 효과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는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41.8%), ‘비효율적인 전달 방식’(50.7%),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중심’(35.8%) 등이 지적되어, 교육 내용의 실질성·현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약류나 약물 문제로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전체 위기청소년 중 7.4%,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도 4.4%로 집계됐다. 이는 약물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의 상당수가 문제 노출 이후의 사후관리 및 전문상담 연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징계나 처벌 이후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보호자 또는 교사의 감시가 강화되었다’(징계 50.0%, 처벌 45.5%)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전보다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졌다’(징계 31.8%, 처벌 18.2%)거나 ‘주변의 부정적 시선 경험’(징계 13.6%, 처벌 36.4%)이 적지 않아, 징계·처벌이 행동 개선보다 낙인과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도 드러났다. 일부는 상담·치료 지원을 받았거나(징계 22.7%, 처벌 27.3%) 약물 사용을 중단했다(처벌 36.4%)고 응답해, 사후 개입의 질과 연계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담·치료를 받은 청소년의 30.8%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지지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나, 같은 비율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고 답해, 상담의 긍정적 효과와 재사용 가능성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끝으로, 위기청소년들은 주변에 술(68.7%)과 담배(78.8%)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 섭취자도 64.6%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류 사용자를 주변에서 본 경험은 12.1%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위기청소년이 마약류의 해악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해물질·마약류 모두에 대해 접근이 비교적 쉽다고 체감하고 있고, 실제 행동에서는 음주·흡연(특히 전자담배)의 조기 진입과 높은 사용 빈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확산 경로는 온라인(텔레그램 등)과 또래 영향이 핵심이며, 소수지만 호기심·스트레스 해소 기대를 이유로 일회성 시도와 반복 의향이 포착되었다. 예방 교육은 필요성 인식이 높지만 형식성과 전달 방식 한계로 행동 변화 효과가 제한되고, 징계·처벌 중심 대응은 감시 강화·낙인을 낳는 반면, 전문 상담·치료 연계는 부족하다. 따라서 중학교 단계 조기개입, 디지털 공급망 차단·가시적 단속과 판매자 강력 처벌, 고위험 하위군(상습 흡연층, 수면제·항불안제·ADHD 약물 사용자) 맞춤형 상담·의료 모니터링, 체험형·사례기반 예방교육과 가족·지역 사회 지지체계를 결합한 다층 통합 예방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높은 위험 인식이 행동 억제와 환경 통제로 이어질수있도록 디지털·또래·가정·학교를 아우르는 정밀 타겟팅-회복 중심의 개입 설계가 요구된다.

## 2) 설문조사 심층 분석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마약류 인식은 단순한 인구통계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과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단계적으로 결합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마약류에 대한 태도는 개인 내부

요인과 외부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는 구조 속에서 양가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개인 심리 요인 중에서는 의료용 유해약물 사용 경험, 자극 추구 성향,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유의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각적 쾌락 추구 성향과 약물 경험의 축적이 위험 인식을 둔화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관계 요인에서는 사회적 흡연·음주 수용성이 높을수록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강화되는 반면, 대면적 관계망이 풍부할수록 긍정 인식이 억제되는 보호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또래 규범과 관계 구조가 청소년의 약물 인식 형성에 중요한 사회적 학습 경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셋째, 미디어를 통한 왜곡된 가치관 노출은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예방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음주·흡연 수용성 역시 마약류 긍정 인식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이는 초기 자극성 물질 경험이 보다 강한 약물로의 인식 확장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관문 이론의 설명력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예방 교육이 청소년의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심리·사회적 동기 조절, 공감 기반 접근, 참여형 학습 구조를 결합한 실천 중심 교육 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제4장 마약류 사용 경험 위기청소년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2. 면접참여자 배경 및 특성
- 3. 심층면접 분석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 1. 조사개요

### 1) 심층면접 대상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불법마약류사용과 관련된 청소년 6명, 청년(청소년기 마약류 경험자)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년은 청소년기에 마약류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회고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년 면접 대상자의 연령층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약류 사용 경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20대로 제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의 성별은 여성 8명, 남성 2명이다. 면접을 위해 방문한 기관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통계 현황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성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특성이 본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20세 이하 연령대의 남녀 성별 차이는 약 7대 3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17) 이 장은 김남희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8)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는 연령별, 성별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경찰청 자료를 활용함.

표 IV-1. 2023년 경찰청 마약범죄 성별, 연령대별 현황

| 사례           | 전체(명)        | 남자 인원수     | 남자 비율        | 여자 인원수     | 여자 비율        |
|--------------|--------------|------------|--------------|------------|--------------|
| 전연령대         | 17,995       | 11,644     | 64.7%        | 6,351      | 35.3%        |
| <b>20세이하</b> | <b>1,380</b> | <b>402</b> | <b>29.1%</b> | <b>978</b> | <b>70.9%</b> |
| 21-30세       | 5,429        | 3,722      | 68.6%        | 1,707      | 31.4%        |
| 31-40세       | 3,590        | 2,678      | 74.6%        | 912        | 25.4%        |
| 41-50세       | 2,378        | 1,987      | 83.6%        | 391        | 16.4%        |
| 51-60세       | 1,803        | 1,448      | 80.3%        | 355        | 19.7%        |
| 61-70세       | 1,464        | 737        | 50.3%        | 727        | 49.7%        |
| 71세이상        | 1,951        | 670        | 34.3%        | 1,281      | 65.7%        |

\*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찰청범죄통계, '피의자 범행시 성별 연령'. 원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3, 2025.09.02, 피의자 범행시 성별 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04\\_A057&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04_A057&conn_path=12)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주: 연령 미상 제외

면접조사 참여자 유형을 구분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다섯 개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분 기준은 1) 투약/거래, 2) 남/여, 3) 청소년/청년으로 하였다. 마약류 투약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A), 청소년기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여성 청년(D)이 각각 세 명씩으로 다수이다. 자세한 집단 유형별 대상자 수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은 비율이 적어 남성 청소년 1명, 남성 청년 1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표 IV-2. 면접조사 사례유형 및 대상자 수

| 유형 | 구분                               | 대상자 수 |
|----|----------------------------------|-------|
| A  |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             | 3     |
| B  | 투약 경험 없이 마약류 불법 거래 경험이 있는 여성 청소년 | 2     |
| C  |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청소년             | 1     |
| D  | 청소년기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여성 청년         | 3     |
| E  | 청소년기 마약류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청년         | 1     |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합성대마 또는 액상대마를 사용한 경험 이 다수였으며, 청년층은 필로폰 경험자가 3명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청소년 중에는 투약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포함되었는데, 투약은 하지 않았지만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위해 불법구매를 하거나 판매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다(B집단). 위 두 사례는 실제 마약류 투약 경험은 없지만 불법 투약을 시도하였고(B1) 그 과정에서 또래친구(B2)와 판매에 연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전반에서 ‘사용’의 의미는 마약류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거래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활용하였다.

표 IV-3. 위기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정보

| 구분 | 연령층 | 성별 | 투약/판매 | 주요 마약류           | 최초 마약류 사용 시기 | 정신건강                           |
|----|-----|----|-------|------------------|--------------|--------------------------------|
| A1 | 청소년 | 여성 | 투약    | 케타민, 코카인         | 중2           | 트라우마                           |
| A2 | 청소년 | 여성 | 투약    | 합성대마, 케타민, 몰리    | 중2~3         | 충동조절장애, 행동장애, 우울증, ADHD, 자살 시도 |
| A3 | 청소년 | 여성 | 투약    | 합성대마             | 중3           | -                              |
| B1 | 청소년 | 여성 | 거래    | 디에타민(구입, 판매)     | 고2           | 가면성 우울증                        |
| B2 | 청소년 | 여성 | 거래    | 디에타민(중개 판매)      | 고2           | ADHD, 자해/자살 시도                 |
| C1 | 청소년 | 남성 | 투약    | 대마, 합성대마         | 중2           | ADD                            |
| D1 | 청년  | 여성 | 투약    |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 고2           | 양극성정동장애, PTSD, 경계선지능장애         |
| D2 | 청년  | 여성 | 투약    | 대마, 엑스터시, LSD    | 고2           | -                              |
| D3 | 청년  | 여성 | 투약    | ADHD, 필로폰        | 고3           | ADHD                           |
| E1 | 청년  | 남성 | 투약    | 필로폰              | 고3           | -                              |

주: 1) 연구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참여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직·간접적 개인정보를 최대한 삭제함

2) 최초 마약류 사용 시기: 마약류 투약, 거래 등 최초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시기

## 2) 조사방법

마약류 범죄에 관여된 청소년들은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환경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표집방법은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연구윤리 승인 완료 후 절차에 따라 마약류와 관련된 청소년 및 청년과 대면 가능한 주요 기관(법무부, 소년원, 보호관찰소, 치료재활기관 등) 및 온라인을 통해 면접 가능한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기관 동의, 청소년 보호자 구두 동의, 그리고 청소년 본인 동의하에 일정을 조율하고 면접참여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기관을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청년은 청년 본인 동의하에 면접일정 및 장소를 조율하여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 및 사례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서명을 득하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종료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현금 또는 상품권(시설입소 청소년)으로 지급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는 2025년 7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수행되었다. 면접시간은 약 90분 내외로 진행하였고, 충분한 경험 진술이 필요한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추가시간을 확보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면접진행자와 참여자 1대1로 진행되되, 공동연구진 참관이 필요한 경우 동석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10명 중 9명은 직접 대면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1명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3) 조사내용

면접조사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마약류 노출 위험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마약류 노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기 마약류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접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사용 마약류에 집중하여, 마약류 사용 유입과 진행 과정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주로 사용한 마약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최초 마약류 사용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불법 마약류로의 전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두 번째는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물었다. 마약류 사용 이후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상의 변화를 탐색하고, 추가적인 범죄 확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응답의 불편감을 고려하여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이나 도움 필요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변화 시도에 대한 경험은 청소년기 마약류 경험을 했지만 현재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험이 중심이 되었다. 구체적인 면접영역과 면접내용은 아래 표에 기술되어 있다.

표 IV-4. 위기청소년 면접영역 및 면접내용

| 면접영역               | 면접내용                                                                                                                                             |
|--------------------|--------------------------------------------------------------------------------------------------------------------------------------------------|
| 마약류 사용 유입과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주사용 약물</li> <li>- 최초 약물 사용 경험과 유입 경로</li> <li>-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의 진전</li> </ul>                 |
| 정체성 변화와 마약류 범죄의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인식 및 생활 상의 변화</li> <li>- 마약류 범죄 확대 (※ 주변 친구 경험으로 응답)</li> </ul>                                      |
| 변화시도와 도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li> <li>- 사법체계 및 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li> <li>- 마약류 예방교육 경험과 제안</li> <li>- 필요한 지원과 도움</li> </ul> |

## 2. 면접참여자 배경 및 특성

먼저 면접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사례들의 개인사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연구윤리 측면에서 개인 특정이 가능한 직간접적인 정보, 즉 구체적인 연령이나 지명을 삭제하고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으로 생애사를 정리하였다.

### 1) A1, 마약류범죄자였던 온라인 게임 친구

A1은 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이다. 중학교 때부터 음주, 흡연을 했다. 중학생 2학년 때 온라인게임 친구였던 성인 남성을 만나 케타민, 코카인을 경험했다. A1의 가족은 초등학교 이전에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친부는 사망하고 양부가 있다. 양부는 A1을 성추행해 오다 성폭행을 하였고, A1이 직접 신고하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다. A1에게 여러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이가 나쁘지 않다. A1은 엄마를 ‘촌데레’라고 표현한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SPO와 연결되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학교 동급생한테 집단폭행을 당한 이후 동급생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선배들과 또래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초등 4학년부터 온라인 게임에서 소통하던 성인 남성을 중학교 때 처음 대면했는데, 그때 케타민을 경험했다. 가해남성이 A1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하며

지역 안내를 부탁했고, A1은 엄마의 허락하에 남성을 만났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남성은 마약 이야기를 꺼내며 전자담배를 권했고, A1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전자담배를 거부감 없이 흡입했다. 신체적으로 이상함을 느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엄마한테 알리지 않았다. 남성에게 간단한 사과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남성은 A1 몰래 코카인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다. A1은 콜라를 마신 후 신체증상을 경험하며 무서움을 느껴 이를 엄마에게 알렸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화되었다. A1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마약공급책임을 알게 되었다.

A1은 마약류 사용이 두 번에 불과했지만, 신체적으로 상당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SPO의 도움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방문하여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2) A2, 아는 오빠들과 만나며 마약

A2는 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이다. 초등 고학년부터 흡연을 했고, 중등 저학년부터 음주를 시작했다. 원래 흡연을 했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중학교 고학년 때, 동네 오빠들과 어울리며 전자담배를 돌려 피우는 과정에서 그것이 대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2는 일탈행동을 할 당시 부모님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가족 분위기는 좋았다고 기억한다. 재혼가정이기는 하지만 친모, 양부 그리고 동생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

A2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A2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가까워지기를 꺼려 했다고 말했다. A2는 자신이 왕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 외 행동장애, ADHD,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친구, 그리고 같이 노는 오빠들, 소개받은 오빠들과 술 마시고 놀며 처음 전자담배로 액상대마를 하게 되었고, 이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다. 액상대마 이외에 케이(K), 대마초, 물리를 경험하였다. 주로 아는 오빠, 클럽에서 만난 성인남성과 유흥을 하며 마약을 사용했다.

### 3) A3,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

A3은 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이다. 중학교 3학년 시기 액상대마를 두 번 사용했다. A3가 사고를 칠 때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는 했지만, 보통은 가족 간 대화가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었다.

중학교 때 학교 친구는 거의 없었고 주로 학교 밖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A3는 중2때부터 ‘놀이’ 시작했다. 성인 래퍼 선배로부터 마약을 구한 친구가 계속 친구들에게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권유했고, A3는 이를 거절했었다. 하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 모인 친구들이 대부분 흡연을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흡입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다. 얼마 후 새벽에 친구들과 놀다가 자취하는 친구집에 갔는데 애들끼리 있으면서 액상대마를 한 번 더 사용했다. 그 이후로는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다. A3는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액상대마를 하는 것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다. 하지만 친구들이 권해서 마약을 사용한 사례다.

### 4) B1, 살을 빼고 싶지만

B1은 고등학교 여성청소년이다. 1년 전쯤 변화가 길거리 매대에서 ‘다이어트보조제’라고 적힌 것을 보고 구경하는데 판매상인이 다른 것도 있다고 하면서 다이어트약(나비약)을 권하였다. 처방약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합법적 의료용 마약류였지만,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처방약으로 복용하는 것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길거리에서 나비약을 구입했다. 구입하기는 했지만 이후 나비약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실제 복용을 하지는 않았다. B1은 구입한 나비약을 먹지 않을 거라서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SNS에 익숙한 친구(B2)에게 이를 온라인으로 팔아달라고 부탁했고, 실제로 더 어린 청소년에게 판매가 이루어졌다. 수개월 후에 이것이 사건화되었다. 친구(B2)와 함께 공범으로 현재 보호관찰 중이다.

초등 고학년 때 처음 흡연을 경험하고, 중학교 때 처음 음주를 경험했다. 현재는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흡연만 한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양호하다. 학교는 재미가 없었고 학교 친구들과도 친하지 않았다. B1은 학교친구보다 다른 학교의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과 주로 시간을 보냈다.

## 5) B2, 친구를 도와 마약류 범죄로

B2는 고등학년 여성청소년이다. 마약을 복용한 경험은 없다. 친구(B1)의 요청으로 SNS에서 다이어트약 판매를 중개하였고 수개월 후 경찰에 단속되어 현재 보호관찰 중이다.

B2는 친구 B1과 동급생이지만 한 살 많다. 친구 B1이 다이어트약을 팔아달라고 부탁해 SNS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고, 연락처를 전해주고,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다. 친구 B1이 개설된 통장이 없어 자신의 통장으로 대신 다이어트약 판매 대금을 송금받아 전해주었다.

중학교 저학년 때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우기 시작했고, 음주는 중학교 저학년 때 처음 경험한 이후 중학교 고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는 것이 귀찮고 가기 싫어 출석일수가 모자랐다. 학교에서 퇴학보다 자퇴를 권유하여 자퇴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가끔 친구를 만난다.

어머니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있지만 함께 살지 않는다. B2는 혼자 자취한다. 중학교 때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1주일 정도 복용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약물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ADHD 진단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챙겨 먹으려고는 하지만 까먹고 먹지 못하는 날도 있다. 잠이 안 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면유도제를 먹는다.

## 6) C1, 마약과 불법 환경의 한 가운데

C1은 고등학년 남성청소년이다. 중학교 때 음악하는 친구 권유로 대마초를 처음 접했다. 이후 주변 친구들이 합성대마, LSD, 케타민 등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본인 사용 여부 무응답).

중학교 때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자취하며 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나, 학교 가기가 귀찮아 자퇴를 하고 나서 부모님이 지원을 중단하였다. 코인 거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C1은 주위 사람들이 불법의 영역에서 고액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꾸준히 목격해 왔다.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이용했고 이후 계속 외래 치료를 받고 있다. C1은 주치의 상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치의 진단과 제안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C1은 자신이 ADHD는 아니지만, 치료제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계속 복용을 하고 있다. 때문에 치료제를 다 먹으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한다. 병원 외래의 주 목적은 중독치료보다 약물 처방이다.

### 7) D1, 돌아보니 가스라이팅

D1은 여성 청년이다. 고등학교 때, SNS에서 무작위로 뿌려진 마약권유 DM(‘찬술할래?’)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후 OO(지역명)에 내려가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경험했다. 이후 다시 마약을 찾다가 30~40대 남성을 만나 동거하며 필로폰, 대마초, 허브, 액상대마, 케타민, 캔디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경험했다.

SNS DM으로 마약광고를 접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평범하게 살아왔다. 중학교 때 아빠 담배를 몰래 빼서 피우기 시작했는데, 엄마한 태도 덕분에 잠시 중단하기는 했다. 하지만 중학교 고학년 때 학업스트레스를 받으며 담배의 독한 맛이 생각나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마약을 투약한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마약을 처음 했을 때는 구토까지 하며 힘들어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번에는 괜찮겠지’하고 투약을 재시도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찾아다녔다. 그 과정에서 만난 30~40대 남성과 약 1년간 동거를 했는데 당시 거의 매일 마약을 투약했다고 한다. 남성은 처음에는 D1에게 잘해주는 남자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폭행을 하거나 손대손 마약거래를 시키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폭행을 하면서도 팔베개로 잠을 재워주는 사람이었다.

### 8) D2, 외국은 괜찮아!

D2는 여성 청년이다. 고등학교 때 유학으로 1년 정도 해외에 머물렀다. 현지 친구들과 하우스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대마초를 경험했다.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평범한 학생으로 생활했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고등학교 유학시절 현지 친구들이 D2에게 대마초를 권하였고 별다른 생각없이 대마초를 피웠다. 이후 하우스파티, 모임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나중에는 엑스터시도 경험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단했다. 대마초는 피우고 싶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지만 엑스터시는 가끔 생각이 났다.

이후 20대 초에 또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며 다시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1~2주에 한 번 대마초를 피웠고, 엑스터시, LSD도 경험했다. 현지에는 대마초샵이 있어서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대마초를 구입해 피웠다. 하지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D2는 외국에서는 길거리 노숙자도 대마초를 하지만 경찰이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아 경각심이 낮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인생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D2는 자신이 마약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마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 9) D3, 진짜가 나타났다

D3는 여성 청년이다. 고등학교 고학년 때 친구가 준 ADHD 치료제 사용을 시작으로 식욕억제제, 필로폰을 경험했고, 잠시 마약을 끊은 동안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경험했다. 처음에는 ADHD 치료제를 한 알씩 얻어 먹었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병원처방을 받아 ADHD 치료제를 복용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실제로 ADHD로 진단이 내려졌다. ADHD를 진단받기는 했지만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고등학생의 최종 목표인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공부를 잘하기 위해 ADHD 치료제를 복용하려 했으나 숨은 의도는 다른 것이었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어머니의 통제가 심하다고 느꼈고 갈등이 있었는데, 마약에 중독되면서 어머니의 통제, 갈등은 더 커졌다.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코로나로 학교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대신 온라인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온라인 친구들은 음악을 하는 친구, 자퇴한 친구, 우울 등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오남용을 하는 친구도 있었다. 온라인 친구들과 만남은 대면으로도 이어졌다.

흡연도 고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했고, 당시 음주는 많이 하지 않았다. 대학교 입학 후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시도하며 텔레그램으로 마약공급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엄마의 신고로 곧바로 단속되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약을 복용 중이다. 정량을 복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 목적은 비만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 10) E1, 강력한 필로폰 입문

E1은 남성 청년이다. 고등학교 고학년 때 처음 필로폰을 경험했다. 비교적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가족 내에서 명확하게 기억나는 갈등 상황은 없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E1의 아버지는 E1을 ‘어른’처럼 대해주려 했지만, E1은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려 했다고 회상했다. E1이 인식하는 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은 분이었다. E1은 어머니의 교육열로 선행학습을 하며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다 초등 중반 즈음, 가족과 떨어져 해외 친척 집에서 약 1년 반을 생활했다. E1은 이 시기를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귀국 후 다시 학업에 열중하는 생활을 해야 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학업, 학교 생활보다 학교밖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했다. 그 친구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렇게 E1은 ‘방황하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3 중반 무렵 여자친구가 필로폰을 경험했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는 마음으로 필로폰을 경험했다. 이후 심각한 중독과 도태됨을 경험하고, 20대 초반에 자발적으로 상담기관과 경찰서를 찾았다. 거주치료재활기관에서 생활한 경험도 있고, 현재는 대학교를 다니며 회복과정을 밟고 있다.

## 3. 심층면접 분석결과

마약류 경험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기에 마약류 경험이 있는 청년, 총 10명의 면접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마약류 경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의 생활 배경은 청소년들이 마약류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먼저 면접참여자들의 생활배경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어 마약류 사용 경험과 대처, 인식변화, 도움 필요도 및 정책제언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 1) 생활 배경

#### (1) 가족 배경

면접참여자들의 성장배경을 보면, 가족관계가 평범했다고 표현하는 참여자들이 다수였고, 그 외 사별, 재혼,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배경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취약한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기는 했지만, 다수는 평범한 가족 배경에 있었다. 부모와의 갈등 상황은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그 당시 상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러한 문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때는 부모와의 갈등상황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소통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기는 하였다.

새아버지하고도 사이는 너무 좋고 어머니하고도 좋고 동생들하고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제가 혼자 방황해 가지고. (A2)

부모님하고 관계 좋았고 학교가 재미없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B1)

(친부관계) 좋아요. 그때는 좀 안 좋았죠. 학교를 잘 안 가 가지고. (B2)

(마약투약사건발생) 이때만 사이 안 좋은 거예요. (...) 저희 가족은 서로 표현을 안 해요.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 이러면 나 속상하다 이런 표현, 절대, 절대 안 해요. (...) 그거 때문에 점점 오해가 엄청 쌓인 거죠. (A1)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자가 체감했던 것은 참여자들이 부모 이야기를 제한적으로 언급한다는 점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단답으로 답변하거나 보호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모와의 관계를 거의 단절한 경우 그에 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자취를 하거나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또는 부모의 잔소리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 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제한적이었다. 즉, 부모와의 관계가 갈등상황은 아니어도 파듯한 가족애를 표현하지도 않았다.

(아빠)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좀 그런. (A2)

보호자가 왜 있어야 돼요? (...) 고양이 한 마리랑... (C1)

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 부모 감독에서 거의 벗어나면서 오히려 학교 출석일수가 모자라 자퇴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학교 자퇴 후 부모의 경제적

지원마저 중단되어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가버리니까 자퇴를 하고, 지원이 끊기고 힘들게 살았죠, 그때는.  
(C1)

면접참여자 청소년들은 다수가 부모 감독의 부재 상황에 있었지만 그와 완전히 반대로 강한 부모 통제하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면접 내용만 보면 수험생에 대한 통상적인 부모 감독 수준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면접참여자는 어머니의 통제가 너무 심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부모 통제로 일탈이나 마약사용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다.

[엄마에 대한 표현] 통제가 심한 사람 (...) 인터넷에서 만난 애들이라고 하고, 성인도 섞여 있다 이러면은 (엄마가) 엄청, 계속 연락하면서 걱정하시고 참견하시고. (D3)

표 IV-5.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가족 배경

| 주제      | 내용                                                                                                                                                                                                                                                                                                                                                                                                                                                                                                                                                             |
|---------|----------------------------------------------------------------------------------------------------------------------------------------------------------------------------------------------------------------------------------------------------------------------------------------------------------------------------------------------------------------------------------------------------------------------------------------------------------------------------------------------------------------------------------------------------------------|
| 가족 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범한 가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비교적 평범한 가족 배경이었음 (B1, B2, D1, D2, E1)</li><li>- 서로 속상할 것 같은 말은 절대 안 함. 아버지와 별로 소통을 하지 않음 (A1, E1)</li><li>-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받았음(D1, D2, D3, E1)</li><li>- 집에 안 들어가니 걱정을 하시고 밥은 먹고 다니라고 이야기함 (E1)</li></ul></li><li>• 사별, 재혼, 다문화 가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별, 재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했음. 가족관계 좋음 (A2)</li><li>- (사별) 엄마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음 (B2)</li><li>- (사별, 재혼, 다문화) 초등 입학 전 한국으로 이민 왔고, 얼마 되지 않아 친부사망, 엄마가 재혼함 (A1)</li></ul></li></ul> |
| 부모와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높은 부모 기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머니의 교육열이 높아 어릴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녔음. 공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음 (E1)</li></ul></li><li>• 무애정, 무갈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취를 하며 필요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할 때만 부득이하게 연락함. 보호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B2, C1)</li></ul></li></ul>                                                                                                                                                                                                                                                         |

| 주제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탈행동이 있거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부모 꾸중도 듣고 싸우기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일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로 돌아갔음 (A1, B1, B2)</li> </ul> </li> <li>• 부모 감독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이후에는 오히려 학교를 더 가지 않아 자퇴를 하게 됨 (B2, C1)</li> <li>- 학교를 자퇴한 이후 부모의 경제적 지원도 중단됨 (C1)</li> <li>- 혼자 유학을 가서 홈스테이를 했음. 홈스테이 아주머니도 기본적인 것은 해 주었으나 케어를 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음 (D2)</li> </ul> </li> <li>• 강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추적기, 시간제한어플, 인터넷 안되는 핸드폰 사용 등 엄마의 통제가 심했음. 추후 가출 및 더 심각한 마약 사용으로 진전함 (D3)</li> </ul> </li> </ul> |

## (2) 사회적 관계

또래 관계를 종합하면 학교내, 동급생 중심이 아닌 학교밖, 상급생 중심의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보였다. 학교를 다니고 있기는 했지만 몸만 학교에 있었을 뿐, 학교 중심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고, 방과 후에 실질적인 또래관계가 시작되었다.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는 자의나 타의에 의해 관계가 소원해졌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그들과 스스로 멀어지기로 작정하거나,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따로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교 친구들과 일정한 거리를 만들었다. 학교 출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원래 중학교 입학할 때는 친구 많았는데 (집단폭행 피해 후)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나쁜 애라고 소문 다 퍼져 가지고, 친구랑 관계 다 사이 안 좋아 가지고. 그 이후로는 동갑 친구랑 안 놀고 선배, 차이 나는데 같이 만나고. (A1)

중학교 가 가지고 학교 친구는 그냥 학교 친구라고만 생각해서 학교에서만 놀고. 항상 부평, 주안 이런 데 가서 노는 친구들이 따로 있었어요. (B1)

일부는 청소년기의 방황, 일탈 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스스로 ‘방황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여러 이유로 가족보다 친구들과 무리지어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밤 늦게까지 혹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며 ‘노는’ 친구들과 함께 했다.

제 계획대로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됐고, 그 무리 내에서 중심도 잡으면서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뭐 타지에서 굴러 들어온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그 멋스러운 장벽이 있었는데, 저를 안 들여 보내 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같이 융화되기 시작한 건데. (E1)

학교 친구는 거의 없었지만, SNS를 통해 친구들이 만들어졌다. 이때 SNS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친구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동네 친구들과 SNS로 소통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킹이 펼쳐지고 동네 친구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학교 밖 친구들, 동네 아는 오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성인들로 관계가 서서히 넓어졌다. 온라인 관계망의 확대는 오프라인, 대면 관계 확장의 수단이 되었다.

그 친구들 서울 올라오면 얼굴도 보고 그냥 사이버에서 만나긴 했지만, 꽤 잘 알던 친구들이었는데. (D3)

같은 지역인데 다른 학교 (...) 건너 건너 아는 친구 있고, 개도 친구들이 있으니깐 같이 계속 놀다가, 그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런 것도 많이 했을 때니까. (A3)

그 오빠랑 저랑 성인인 운전자, 그렇게 같이 모텔로 술을 마시러 갔는데요. (A2)

표 IV-6.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회적 관계

| 주제            | 내용                                                                                                                                                                                                                                                                                                                                            |
|---------------|-----------------------------------------------------------------------------------------------------------------------------------------------------------------------------------------------------------------------------------------------------------------------------------------------------------------------------------------------|
| 의미있는 또래<br>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원한 학교 친구 vs 의미있는 학교 밖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으로 동급생과의 관계를 이탈해 선배들과 놀기 시작함 (A1)</li> <li>- 학교 친구와 별개로, 노는 것은 방과후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 (B1, A3)</li> <li>- 학교를 잘 안 나가서 학교 친구가 없음 (B2, C1)</li> <li>- 학교중심이 아니라 지역중심으로 노는 친구들이 변화가에 모임 (A3, B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는’, ‘멋져 보이는’, ‘방황하는’ 무리 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서 멋져 보이는 친구들은 그들만의 ‘멋스러운 장벽’이 있어, 같은 무리가 되려 노력함. 결국 그 무리에 들어가 ‘방황하는 친구들’ 무리가 되었음 (E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가하지 않는 노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갈등의 여부를 떠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밖에서 노는 것이 좋았음. 집에 들어가지 않고 늦은 밤, 새벽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li> </ul> </li> </ul>                                                                                                                                     |

| 주제         | 내용                                                                                                                                                                                                                                                                                                                                                                                                         |
|------------|------------------------------------------------------------------------------------------------------------------------------------------------------------------------------------------------------------------------------------------------------------------------------------------------------------------------------------------------------------------------------------------------------------|
|            | <p>집에 들어가기도 함 (A2, B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 잘 들어가지는 아니었지만 가출은 아니었음 (A1)</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학 중 마약을 하는 현지 친구들</li> <li>- 유학 중 현지 친구들과 하우스 파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대마초를 거부감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D2)</li> </ul>                                                                                                                                                                                                                                                                 |
| 학교밖 관계의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밖 관계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의 친구, 친구의 아는 오빠 등 학교밖 친구들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 학교밖 네트워크가 점점 넓어짐 (B1)</li> <li>- SNS를 통해 지인의 지인을 알아가는 관계가 확장되어 감. SNS 지인의 지인의 관계 확장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이어감 (A2, B1, D3)</li> </ul> </li> <li>• 성인과의 관계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의 지인으로 관계가 확장되면서 성인들과의 관계도 확장되고 성인문화로 흡수됨 (A2)</li> </ul> </li> </ul> |

### (3) 생활 변화

면접참여자들이 일탈행동에 진입하는 시기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중학교 시기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시기 유학 중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생활상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이후 일탈행동이 누적되거나 특정 사건을 경험하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서서히 이어졌다. 면접참여자 스스로 인식하는 생활상의 지각변동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다. 주요하게는 학교급의 전환이 언급되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무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기억했다. 또한 주거지의 변화, 특히 혼자 생활하는 자취 형태로의 변화는 부모감독 부재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생활상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유학도 혼자 생활하는 생활상의 변화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간 D2는 그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친구들의 권유에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어린 초등학교 시절 유학을 갔던 E1은 자유로운 외국 생활을 경험하며 다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학업에 흥미를 잃고 ‘멋있어 보이는’, ‘노는’, ‘방황하는’ 친구들과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생활환경을 변화시켰다.

(유학 이후) 집에서 파티하는 거 갔다가 친구들이 해보라고 해서, 그때 대마 처음 해봤습니다.  
(D2)

초등학교 때까지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OO(외국) 갔다 와서 (...) 거기에서는 기억이

행복해요. 학원도 안 가도 되고 (...) ○○로 이사오면서 다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 학원은 다니는데 학원 내에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E1)  
학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를 제가 딴 데로 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E1)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과업을 부여했다. SNS 사용이 익숙한 청소년들은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 SN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친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친구들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친구들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B2는 이사 후 그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상황에 놓이면서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으며 관계를 넓혀갔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친구도 그렇게 알게 된 친구였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학교) 잘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말쯤에 여기로 이사를 와 가지고 (...)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연락하던 좀 친한 애가 ○○(이주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 그 친구도 좀 담배 피고, 좀 그런 친구였는데. 그리고 제가 이사 와서 친구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친구 소개시켜 주고... (B2)

C1, B2는 학교가 가기 싫어 부모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면 등교를 하겠다고 거래를 시도했고, 부모가 이에 응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취를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국 더욱 학교에 가지 않고 자퇴를 하게 되었다.

(중2때) 학교 가기 멀다고 그냥 근처에 자취방 잡아주면은 학교 가겠다고 해 가지고 혼자 살았죠. (C1)

(고2때) 제가 통학하는 게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를. (자취방을) 학교 근처로 잡았어요. (B2)

다양한 생활사건도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와의 사별은 중학생인 B2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다. 그 외 다른 참여자들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사건 등이 청소년 시기에 휘몰아치듯이 그들의 삶을 덮쳤다. 반면, D1은 다른 위기청소년들과 달리 매우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다 ○○(지역명) 여행을

하면서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끼며 마약류를 경험하기도 했다.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은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그냥 먼 동네에 왔으니까... 약간 여행 느낌이, 내가 책가방 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게 아니라 여행, 웃도 싹 갈아입고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 처해져서 (...) ○○ (지역명) 여행도 가는 김에 그것(마약)도 해보면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D1)

펜데믹을 겪으며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D3는 그 이후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펜데믹 시기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더 어울렸다. 온라인에서는 서로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기 때문에 왕따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었다고 회상하였다. 펜데믹이라는 사회환경이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등학교 1~2학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친구를 만날 계기도 없었고, 학교 친구들과하고 그렇게 가까워질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이에 만났던 사이버 친구들이 더 가까워져 있었고 (...) 영통(영상통화)하고 대화하고 노는 거니까 왕따나 이런 것도 없고. (D3)

표 IV-7.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생활 변화

| 주제      | 내용                                                                                                                  |
|---------|---------------------------------------------------------------------------------------------------------------------|
| 학교급의 전환 | • 노는 무리로의 학교 진급<br>- 계속 학원만 왔다갔다 하는 생활을 하다가 노는 친구들 무리가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남 (E1)                               |
|         | • 유학, 마약의 일상화<br>- 고등학교 교환학생으로 떠난 외국 현지에서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만남 (D2)                                                       |
|         | • 학업 스트레스<br>- 초등학교 시절 잠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로운 학습분위기를 경험함. 국내로 돌아와 다시 이전의 학원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멋있어 보이는' 친구들과 어울림 (E1) |
| 주거지 변화  | • 낯선 곳에서 친구 만들기<br>- 이사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이사가는 지역이 좋다고 했음. 이사 후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나 그 지역의 친구들을 만들어 감 (B2)                |



| 주제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가기 싫어서 자취방을 얻어주면 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과 거래를 함. 자취방을 얻는 것은 학교를 가기 위한 목적보다 부모감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음. 결국은 학교를 안 가게 되어 자퇴함 (B2, C1)</li> <li>- 고등학교 때 혼자 유학을 가서 부모감독이 부재하였음. 홈스테이 가족과도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음 (D2)</li> </ul> </li> </ul> |
| 생활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음.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음 (B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부 사별 후 어머니가 재혼함. 양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함 (A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가·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나 학교에내 내가 나쁜 아이로 소문이 남 (A1)</li> <li>- 짜증나면 사람들을 때려서 폭력, 폭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음 (B1, B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을 벗어난 자유 만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으로 ○○(지역명) 여행을 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며 자유로움을 느꼈고, 그 느낌이 좋았음 (D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펜데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이후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음. 오히려 코로나 기간동안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들과 관심사도 통일되고 잘 지냈음 (D3)</li> </ul> </li> </ul>                                                                                                                |

#### (4) 정신 건강

면접참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성을 보면, ADHD,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의 문제, 그 외 자살시도 경험이 있기도 했고 경계선지능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마약문제보다 다른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로 보였다.

A2는 마약류 문제에 연루되기 전부터 충동성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일탈행동 이후 엄마와 같이 상담소에 다니면서 ADHD, 우울증 진단을 받기도 했다. ADHD 증상에 대해 원래 자신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밝게 웃고 있는데도 우울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울증이 라길래 좀 의아했기도 했고. (A2)

청소년들이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스스로 정신과적 질환이나 지적장애에 대해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약류와도 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했다. B1은 치료상담을 받는 과정 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우울증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ADHD) 전 저만의 특성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A2)

‘가면성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아직까지 부정하고 있어서 전 정신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B1)

청소년기 마약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삶을 회고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기성찰 능력이 마약류 문제 진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청년이면서 재활기관을 이용 중인 D1은 마약을 구하려고 만나 알게 된 남성과 가스라이팅 수준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마약류 판매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기기도 했다. 하지만 남성과 함께 살고 있던 당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발달론적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자기성찰 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다. D1은 면접과정에서 최근 자신이 경계선지능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했다. 다량의 마약사용으로 지적능력에 제약일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약을 시작하고 진전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성찰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년도 2월 달에 검사한 건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경계선지능장애. (D1)

반면 E1, D2는 학창시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E1은 스스로 학교를 다닐 때 자신이 ‘천재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했다. 이 두 청년은 마약을 사용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마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했다. 그리고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유학 후 직장에 다니며 일상을 살아 나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으로 살펴보면, 자기성찰 능력이 마약문제의 진전을 차단하거나 가속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뭔가 약간 '뒤쳐지고 있나'라는, 처음으로 그 뒤쳐짐을 느껴본 것 같아요, (...) 제가 진짜 약물을 사용 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도 조절 못하는 저를 (...)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살 때부터 이 약물을 그만 사용해야겠다,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E1)

그런데 저는 제 삶에 좀 애착이 강하고 삶을 망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OO(유학간 나라)에 있을 때 여기서 좀 더 오래 있으면 '진짜 어디 공중화장실에서 주사기 꽂고 발견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D2)

표 IV-8.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정신 건강

| 주제     | 내용                                                                                                                                                                                                            |
|--------|---------------------------------------------------------------------------------------------------------------------------------------------------------------------------------------------------------------|
| 정신과 진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사건 발생 전 정신과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사건이 일어나기 전) 중1 때 충동성 조절이 안되어 계속 치료 약물을 복용하였음 (A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치료상담 중 정신과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 행동장애, ADHD,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받음 (다수)</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해, 자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약을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시도함 (A2)</li> <li>- 과거 자해, 자살 시도 경험 있음 (B2)</li> </ul> </li> </ul>                            |
| 지적 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선지능장애와 가스라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독치료를 받으면서 지능검사를 했는데 경계선지능장애 진단을 받음 (마약판매 남성과 동거하며 집안살림, 마약판매를 요구받거나 폭행당한 경험 있음) (D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능력과 자기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며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했었음 (이후 마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청년초기 빠르게 단약, 회복과정에 진입함) (D2, E1)</li> </ul> </li> </ul>      |

## 2) 마약류 관련 범죄 유입과 진행

### (1) 범죄 유발 환경 조성

면접 참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잠시나마 음주, 흡연을 경험하고, 이후 중학교 진학 후에도 노는 친구, 노는 선배들과 함께 다니며 학교 생활환경에서 점점 멀어졌다.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의 생활양식을 보이며, 전형적인 중고등학생들과 다른 생활상을 보였다. 앞서 생활 배경에서도 학교와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는데, 본격적인 범법행동의 발현은 학교와 멀어지며 성인처럼 행동하고, 불법영역의 성인들과 가까워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먼저 음주, 흡연을 위해 성인 신분이 필요했고 이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공문서부정행사죄). 직접적으로는 신분 도용이 필요했지만, 신분도용이 아니어도 지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재하지 않는 업소를 이용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도 성인처럼 유흥문화를 접하거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 언니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우리 클럽 갔다 왔는데' 해 가지고, 제가 그 증을 사고 그 친구는 제가 증 산 거로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A2)

집 근처에 좀 할머니들이 하는 곳에 가서, 호프집이나 그런. 딱히 막 어디서 먹으면서 '너 (성인) 아니지?' 이렇게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B2)

[담배구입] 독서실 근처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편의점 말고. 거기는 아예 (신분증 확인을) 안 하셔서 (...) 그냥 할아버지가 하시는. (D3)

마약류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으로 돈을 버는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접하며 불법적 생활환경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불법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범죄 가담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범죄 가담에 대해서는 본인 응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변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했다. 면접참여자들의 주변 친구들을 보면 보이스 피싱, 개인정보불법판매 등의 불법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범죄 가담을 권유받고, 실제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마약과 관련해서는 '던지기'를 권유받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관여도 목격되었다.

주위에 그냥 다 되게 많죠. (마약) 판매하는 애도 있고 아예 (...) 실제로 중국 가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애도 있고. (C1)

주변에 뽑기방 이런 거를 털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조건 만남, 여자애들 데리고, 조건 사기로. 보이스피싱 돈 배달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E1)

친구가 텔레그램 하면서 같이 '마약 던지기 이런 거 할래?'라고. (A2)

표 IV-9.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범죄 유발 환경 조성

| 주제      | 내용                                                                                                                                                                                                                                                                                          |
|---------|---------------------------------------------------------------------------------------------------------------------------------------------------------------------------------------------------------------------------------------------------------------------------------------------|
| 성인처럼 행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적 음주,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확인을 잘 하지 않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운영하는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심 (B2)</li> <li>- 편의점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함 (D3)</li> <li>- 나이들어 보이는 친구가 담배를 구입하거나, 선배가 담배를 사서 재판매했음 (A2, B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시설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 클럽, 모텔 등을 아는 오빠들과 함께 감 (A2)</li> <li>- 온라인 게임상에서 소통했던 성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감 (A1)</li> </ul> </li> </ul>                                                                                          |
| 범죄환경 노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영역과 친숙한 관계로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 관계 범위에 마약판매책, 보이스피싱, 개인정보불법판매, 전세대출사기 등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들어옴 (C1, E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에 가담한 성인들과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는 오빠, 아는 형이 불법적으로 수익을 내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잘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함 (C1)</li> <li>- 유흥업소에서 만난 중년 남성들과 자리를 옮겨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 곳에서 마약이야기를 들음 (A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가담을 권유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인 남성을 공갈협박하는 범죄에 가담함 (B2)</li> <li>- 마약배달 권유를 받았으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절함 (A2)</li> </ul> </li> </ul>                                                                                   |

## (2) 마약류 사용 유입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의 시작은 친구, 선배를 포함한 또래무리에서 시작하게 되거나, 잠재적 위험 성인에 의해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D3는 자신이 기분이 안 좋다고 말한 것을 듣고 친구가 우울한 거 좀 나아질 거라고 자신이 복용하던 처방약을 나눠주면서 마약류 사용으로 유입된 사례였다. 친구가 준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료용 마약류였다.

제가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ADHD 약을 하나 줬어요. (...) 이거 먹으면 좀 무기력한 거, 기분 안 좋고 우울한 거 좀 나아질 거더라고 하고 그냥 하나를 줘서 그걸 먹어봤어요. (D3)

D3는 학교 친구로부터 처방약을 받아 투약하기는 했지만, D3 역시도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기 전 1~2년 사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자퇴한 친구나 정신과 약물을 오남용하는 친구들을 이미 만나고 있었다.

또래무리로 인한 마약류 사용 유입의 경로는 앞서 살펴본 대로 학교생활을 벗어나 지역의 ‘노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A3는 애당초 선배가 액상대마라는 것을 알려주고 흡입을 권유했는데, A3도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며 피우고 계속 권유하여 결국 자신도 전자담배를 통해 액상대마를 흡입하게 되었다. A3는 그 이후에도 친구들 무리에서 다시 한번 액상대마를 흡입했지만,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해 더 이상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친구도 계속 그 선배 따라서 마약을 하다가 저희랑 계속 어울려 다니니까 저희한테도 한번 같이 해보자 해 가지고, 처음엔 계속 거절했거든요. 근데 계속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다 하고 해 가지고. 어느 날 노래방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처음 하게 됐어요. (A3)

한편 ‘노는’ 아이들의 무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동네에서 자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무리 안에 마약이 자리잡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E1은 여자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속상한 마음에 아는 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형도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고, 후에는 그 형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형에게서 마약을 구해 투약을 하게 되었다. E1이 함께 했던 동네 노는 친구들, ‘방황하는 친구들’ 주변에서 마약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그 동네 형도 약물 사용 경험자였더라구요. (...) 이 동네에 나이 많은 형 통해서 이 약물을 접했더라고요. (...) ‘약은 어떤데?’ 라는 식으로 저한테 호기심이 들어왔고 그러다가 경험했던 그 형과 같이 약물을 하게 됐어요. (E1)

위와 같이 친구, 아는 오빠나 형들로부터 마약을 전해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안면이 없는 모르는 성인들에 의해 마약사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친구였던 사람을 만나 마약을 경험하게 되거나, 길거리 상인이 불법으로 처방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클럽에서 종업원들에게 끌려 다니며 중년 남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마약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었다. B1은 다이어트보조제를 파는 길거리

상인으로부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구입하였다.

판매할 때는 이렇게, 상품을 보여줄 때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만 했다가 다른 것도 있다 하면서 이제 약으로, 이 약(마약류 식욕억제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한 거예요. (B1)

또래무리 또는 잠재적 위험 성인에 의해 마약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배경들이 정말 우발적으로 사고처럼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소년을 마약에 끌어들이기 위해 주변인들은 지속적으로 마약 이야기를 하며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작업을 하였다. 마약뿐만 아니라 범죄나 일탈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이미 사전에 조성되고 그 배경하에서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 사람이 장난으로 마약 뭐 어찌고 저찌고 (...)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했겠지 생각하고 그 그러다가 (...) 전자(담배)더라고 하고 그냥 넘겨줬어요. (...) 전혀 몰랐다니깐요. (A1)

너무 주변에서도 흔하고 저는 처음에 그 마약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자주 들었다 했잖아요.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익숙해지고, 마약이라는 말을 들어도 이제 좀 되게 친근한데 '친구 같은 단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됐거든요. (A2)

마약에 대한, 뭔가 듣는 게 좀 약간 친근해지도록 그렇게 뭔가 말하다가 (...)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니까, 그냥 전자담배 필래? 하면서 술 먹으면서 다 같이 전자담배를 계속 돌렸거든요. (A2)

청소년들은 자신이 마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면접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대체로 마약에 노출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며,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D3도 애초부터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것이 마약일 것이라는 짐작은 해도 그것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D3는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옳지 않은 것임은 짐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과 약물, 비단 정신과 약물이 아니더라도

약을 함부로 주고받는다든 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감기약이더라도 그때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냥 받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D3)

맨 처음부터 그냥, 거의 처음부터 그냥. 애초에 그 약을 처음 친구한테 받았을 때부터 의도가 ADHD를 치료하겠다는 거 아니었잖아요. (D3)

그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법 뭐, 이걸 팔면 안 되고 이런 생각 (...) 어느 정도 제가 무의식 속에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트위터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팔았겠죠. (B1)

특히 전자담배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로 액상대마를 흡입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낮았다. 전자담배 기기는 청소년들이 마약, 특히 액상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면접 참여자 모두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다수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자담배 기기로 호환가능한 액상대마 키트로 청소년들이 쉽게 액상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저한테 이거 그거라 했어요. 그냥 전자담배. 제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니까 그냥 '전자담배 필래?' 하면서 술 먹으면서 다 같이 전자담배를 그냥 계속 이렇게 돌렸거든요. 같이 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마였고. (A2)

그 사람은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담배 액상이라 필로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텔 가서 했는데. (D1)

한번 허물어진 경계를 다시 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한번 경계선을 넘은 후에는 자진해서 마약을 구하기도 하고, 처음 경험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던 D1, E1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마약 투약을 시도하고 중독상태로 나아갔다.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지다 보니까 1대1로 만나게 됐어요. 밤에 또 할 게 없어 가지고 모텔로 갔어요. 모텔로 가 가지고, 그 오빠가 전자담배(액상대마)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나도 줘' 이렇게 해 가지고. (A2)



근데 첫 (마약) 경험이 아팠어서, 이게 좋은 건가라는 물음표를 느꼈어서 (...) 약물도 또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안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다시 살아가다가 그 형이 오랜만에 또 보자 해서 그러면 뭐 가겠다 하고 갔는데 (...) 조금만 해보는 거 어떨냐 아팠으니까 하고 조금 해봐서 (...) 그때 이후로 매일 약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E1)

한번 마약을 투약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마약을 구할 수 있었다. 사실 청소년들은 마약을 하기 전에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처음 마약을 권유한 주변인들이 마약을 주면서 동시에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소개해 주었다. 때문에 이후에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 마약 구입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마약에 대한 정보를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얻기도 했다.

(텔레그램으로 약을 구하는 방법을) 그 처음 만난 남자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찾지는 알려줬어요. (D1)

(친구가) 텔레그램에서 ‘몰리<sup>19)</sup>가 뭐예요?’ 하면서 그 방, 아이스 방? 아이스 방에서 물어 봤는데 몰리가 되게 성적으로 환각제라 했나? 아무튼 ‘치사량이 몇이다’ 하고. (A2)

표 IV-10.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유형

| 주제          | 내용                                                                                                                                                                                                                                                                            |
|-------------|-------------------------------------------------------------------------------------------------------------------------------------------------------------------------------------------------------------------------------------------------------------------------------|
| 처방약 나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약 나눔으로 친구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분이 안좋다고 하니 한 친구가 자신이 복용하던 ADHD치료제, 페니데이트 성분 처방약을 하나 나눠 줌 (D3)</li> </ul> </li> </ul>                                                                                        |
| 노는 무리에 스며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무리와 자연스럽게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의 친구를 만났는데 액상대마를 하는 친구였고 그 친구의 권유로 처음 액상대마를 하게 됨 (C1)</li> <li>- 유흥 중 하우스파티 친구들의 권유로 대마초를 피움 (D2)</li> <li>- 온라인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들이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었음 (D3)</li> </ul> </li> </ul> |

19) 몰리(Molly): MDMA는 몰리 또는 엑스터시라고 불리지만 차이가 있음. 몰리는 가루 또는 결정 형태로 캡슐 복용, 코킹, 음용 등의 방법으로 복용함. 알약 형태인 엑스터시보다 순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음.

※ 출처: DEA. (n.d.). Ecstasy Or MDMA (also Known As Molly). <https://www.dea.gov/factsheets/ecstasy-or-mdma-also-known-molly>  
 Illinois recovery center (n.d.). MDMA vs. Moll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https://illinoisrecoverycenter.com/mdma-vs-molly/>

| 주제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 노는 무리에 뿌리내린 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친구가 마약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는 형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형도 마약을 하는 형이었음. 그 형이 다시 동네 아는 형에게 마약을 구해 와 함께 투약함 (E1)</li> </ul> </li> </ul>                                                                                                                                                                                                     |
| 잠재적 위험<br>성인과의 만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게임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상에서 소통했던 성인을 오프라인에서 만났는데 전자담배, 음료에 마약을 몰래 넣어 권유함 (A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거리 상인이 처방약 불법 사용을 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번화가 시장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보조제를 구경하는데 상인이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구매를 권유함 (B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럽 종업원(MD)와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럽MD에게 이끌려 성인남성들을 만나고 성인남성들과 따로 만남을 가지며 마약에 노출됨 (A2)</li> </ul> </li> </ul>                                                                                                                                                                                                                                               |
| 경계선 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숙해지는 '마약'이라는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했던 주변인들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마약에 대한 경계가 낮아짐 (A1, A2, A3)</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르는 척 선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ADHD 치료제를 친구에게 받았을 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D3)</li> <li>-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길거리에서 사거나, 온라인으로 재판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 그래서 트위터 어플을 이용해서 판매한 것임 (B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담배로 쉽게 선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는 오빠, 친구들이 전자담배에 액상대마를 넣어 권하여 흡입함 (A2, A3)</li> <li>- 온라인 친구였던 성인이 케타민을 넣은 전자담배를 권하여 투약함 (A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계를 넘은 쉬운 두 번째, 세 번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경험이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투약을 시도함 (D1)</li> <li>- 첫 번째 투약 시 몸이 아파서 다시 마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같이 투약했던 형을 다시 만나면서 다시 투약을 시도함. 이후 마약을 계속했음 (E1)</li> <li>- 처음 마약을 하고 난 이후 두 번째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서 자발적으로 마약을 달라고 함 (A2)</li> <li>- 마약을 하면서 만난 남성이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줌 (D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그램 이용법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마약을 준 남성이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하는 방법을 알려줌 (D1)</li> </ul> </li> </ul>                                                                                                                                                                                                                                                              |
| 텔레그램과<br>가까워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그램에서 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몰리'를 투약하고 나서 텔레그램에 몰리가 무엇이고, 치사량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물어봄 (A2)</li> </ul> </li> </ul>                                                                                                                                                                                                                                       |

### (3) 마약류 사용 후 반응과 변화

처음 마약류 사용 후 반응은 면접 참여자마다 차이를 나타냈다. 마약류에 따라 체감하는 신체적 증상에 차이가 있고, 인지적 반응도 차이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필로폰, 코카인, LSD 등 강성마약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마약류의 강력한 효과를 경험한 것은 유사했지만, 그로 인한 태도는 차이를 보였다. 몇몇은 투약 이후 위험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몇몇은 빠른 속도로 마약에 빠져 들어갔다. E1과 D1은 처음 필로폰 경험이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이후 재차 마약사용을 시도하며 심각한 중독에 빠졌다. 하지만 D2는 LSD 사용 후 환각을 경험하고 ‘너무 마약같이’ 느껴져 무서움을 느끼고 이후에는 LSD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코카인을 경험한 A1도 마약의 경험은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D2와 A1은 그러한 마약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심했다.

[필로폰] 그때 거의 처음 약물을 느껴봤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매일 약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E1)

[필로폰] 머리가 타이어에 짓밟힌 듯이 되게 아팠어요 (두 번째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했던 거 같아요 (...) 그리고 나서 아예 망가지기 시작했으니까. (D1)

[LSD] 무섭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진짜 나중에 잘못될 것 같아서 (...) 막 환각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마약같이 느껴져서. (D2)

[코카인] 아직도 트라우마 생겨 가지고 (...) 그냥 죽는 느낌, ‘나는 이미 죽었다’ 이 생각만 했죠, 그때 당시에. (A1)

인상적인 것은 마약류 경험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점이었다. A2는 ‘마약하는 친구들 주변에는 마약하는 친구들만 모인다’고 표현했다. B1은 본인이 마약문제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소문이 난 이후로 주변 친구들이 스스로 마약투약 사실을 이야기하며 친밀하게 다가오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마약범죄) 이런 걸 한번 걸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술술 말하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 제가 그런 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로폰,

캔디, 케이, 브랙.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내가 뭐 브랙을 했는데 어찌고 저찌고. (B1)

청소년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주변에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단속되지 않고 계속 마약을 하고 있으며,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D1은 주사기 약물(필로폰)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어 현재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마약에 노출이 심하게 많이 돼 있는 친구예요. (...) 주사까지 꼽을 정도면 진짜 심각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아는 언니도 마약을 하다가 자살해 가지고 죽었거든요. (...)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너무 저도 걱정돼요. 아직 경찰서에 진이 하나도 접수가 안 되는데, 그 주사(자국)까지 보여준 친구. (A2)

마약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일탈조직망도 점차 확장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마약을 하는 오빠가 일탈조직망이 점차 넓어지면서 그 오빠와 친하게 지내는 A2의 일탈망도 점차 확장되어 갔다. A2는 그것을 ‘포도송이’, ‘그물’이라고 표현했다.

30대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 포도송이처럼 엄청, 이렇게 그물처럼 내려가 있어요. 통해 통해서 다 (...) 그 오빠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었고, 강페? 그런 조직에 막 가입도 하고 (...) 이 오빠가 막 소개도 시켜줘요. ‘오빠 지금 어디야?’ 하면 막 30살 형님하고도 계시고. 그러면 ‘어이구 내 딸내미도 있는데, 나이가 거의 비슷하네’ 이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만나기도 했어요. (A2)

주변 또래들의 사례를 소개한 C1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합성마약을 다시 합성하여 약물검사에 걸리지 않는 합성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곳을 알고 그곳에서 계속 마약을 공급받는 지인들도 있고, 돈이 없으면 마약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은닉처 털기’를 한다고 설명한다. 범망을 벗어나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양수기함 아시죠? 그런 데, 계기함에다 숨겨놓으면은 5시간, 4시간 해서 계속 털면 나오니까, 개도 (...) CCTV도 없는 건물일 거고, 그리고 허름한 건물에 주로 다 깔아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C1)

마약을 경험한 모든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은 너무나 빠르게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했다. 고3 여름, 처음 마약을 접했던 E1은 결국 수능시험 날에도 마약투약으로 시험장에 가지 못했고, 성년이 되어도 다른 친구들처럼 연말연시를 즐기지 못하고 혼자 모텔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3 초에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D3는 과도한 약물투약 후 입시를 보러가서 시험을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19살 때 수능 날에도 수능 보러 안 가고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약간 뭔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주변 친구들은 수능 때 맞춰서 수능 보러 가는데 (...) 스무 살에도 처음 성년이 되어 가지고 1월 1일 친구들끼리 술도 먹고 이러는데 저만 모텔방에 갇혀 있더라고요. (E1)

OO대 면접 때 이상한 소리 한 거는 ADHD 약 때문에 그랬어요. (...) 과용량으로 먹어서 좀 정신이 나갔었는지.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들었죠. 나는 약 때문에 입시를 망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D3)

중독되어 계속 마약을 하며 가족, 학교를 떠나 생활하게 되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체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돌아가도 '내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다. 집을 나와 마약을 하는 성인과 동거할 때, 폭력과 판매강요에 시달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느꼈다.

항상 저는 이 고등학교 때 방황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도 돌아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울렸는데, 이 약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가야지' 했는데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처음으로. (E1)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가도, 내 원래 집에 가도 약간 내 자리가 없는 거 같고, 나를 못 받아줄 것 같고, 약간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다시 돌아가기엔 나도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D1)

표 IV-11.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후 반응과 변화

| 주제            | 내용                                                                                                                                                                                                                                                                                                                                                                                                                                                                                                      |
|---------------|---------------------------------------------------------------------------------------------------------------------------------------------------------------------------------------------------------------------------------------------------------------------------------------------------------------------------------------------------------------------------------------------------------------------------------------------------------------------------------------------------------|
| 초기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 투약으로도 심각한 증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마비, 환각, 환시, 식욕상실, 불면 등을 경험하고 나서, 겁이 났고 트라우마를 경험함 (A1)</li> <li>- 필로폰 처음 투약 시 두통, 구토 등을 경험함 (D1)</li> <li>- 투약 방법을 몰라 잘못 투약하여 두통, 혈액구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함 (E1)</li> <li>- LSD의 환각을 경험하고 '너무 마약같이' 느껴져 무서웠음 (D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사용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 사용이 빠르게 증가함 (E1, D1)</li> <li>- ADHD 치료제를 '처음부터 그냥 업계열 약물의 효과를 느끼겠다'는 의도로 사용했고, 복용 후 한두 달 후에는 학교에서 '코킹'까지 시도했음 (D3)</li> <li>-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마약도 많이 했고, 성폭력도 많이 일어남 (A2)</li> </ul> </li> </ul>                                                                                                                                                                                           |
| 마약&일탈 네트워크 확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인들의 커밍아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마약사건에 연루된 것이 소문나면서 주변에 마약과 관련한 친구들이 투약사실을 이야기하며 다가옴 (B1)</li> <li>- 마약하는 사람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만 모임 (A2)</li> </ul> </li> <li>• 단속되지 않는 친구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주사까지 꼽을 정도'의 심각한 친구가 있는데 단속된 적 없음 (A2)</li> </ul> </li> <li>• 확장되는 일탈조직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하는 오빠의 일탈조직망이 포도송이, 그물처럼 내려가 있고 그 오빠를 통해 일탈조직망에 있는 성인들을 만남 (A2)</li> </ul> </li> </ul>        |
| 법망을 벗어난 마약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리지 않는 신종 합성마약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화학성분을 계속 합성해서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곳을 알아서 걸리지 않는 마약을 계속 공급받음 (C1)</li> </ul> </li> <li>• 은닉처 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돈이 없으면 CCTV 없고 허름한 건물 주변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양수기함, 계기함을 뒤지고 다니며 마약을 탈고 다님 (C1)</li> </ul> </li> </ul>                                                                                                                                                  |
| 내 삶의 자리를 잃어버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제불가능한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수능시험날에도 마약을 투약하여 시험장에 가지 못함 (E1)</li> <li>- ADHD 치료제를 과다복용하면서 대학입시를 망침. '약 때문에 입시를 망친 건가'라는 생각을 함 (D3)</li> </ul> </li> <li>• 돌아갈 자리를 잃어버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언제든 학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음. 하지만 마약을 한 이후에는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음 (E1)</li> <li>- 마약하는 남성과 동거하기 위해 집을 나온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 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음 (D1)</li> </ul> </li> </ul> |

#### (4) 마약류 사용 후 대처

마약을 사용하고 난 이후 청소년들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부모에게 알린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심각하게 진전되고 난 후에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야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다. 처음 마약에 노출된 것을 알고 난 이후 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부모님에게 ‘혼날까 봐’, 부모님이 ‘쓰러지실까 봐’라고 대답하였다.

아 그때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도 없고 그래 가지고. 방법도 모르고.  
(A1)

마약을 했다 하면 어머니 쓰러지실 것 같아서 숨기고. (A2)

처음 마약을 하고 부득이하게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약을 하게 된 상황이나 자신이 사용한 마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마치 우발적 사고를 당한 것처럼 부모님께 이야기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주사기를 사용해서 필로폰을 했다는 사실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처음 했을 때는 바로 필로폰 주사로 사용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 저는 그때 당시 바로 (부모님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 근데 ‘막 그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제가 대충 설명했어요. (...) ‘아는 형이랑 음... 그냥 했어’. 더 깊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E1)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힘든 상황을 나누려 하면 오히려 마찰이 더 커지고 싸움이 일어나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엄마한테 이런 제 힘든 거를 말을 어느 정도 할 때마다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에 더 있기 싫고 짜증 나고. (D1)

부모님 반응, 처음에 안 좋았긴 했는데 (...)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마약이야?’ 하시면서 (C1)

부모 이외에 기관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질문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아예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질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위클래스 도움 요청) 전혀. 거기에다 말하면 다 알려지겠다 싶었어요. (D1)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된 E1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너무나 힘든 중독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성인이 되어 비로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게 찾은 기관도 자신의 마약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회상했다. 도움이 필요했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곧바로 사법절차에 진입하게 되었다.

약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일단 뭐 모르니까 관찰부터 했었어요. (...) (상담기관 방문 후) 그때 별다른 조치 없이 저를 보내셨어요. (...) 아, 내가 이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경찰 밖에 없나 해서 신고를 했어요. (E1)

표 IV-12.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마약류 사용 후 대처

| 주제       | 내용                                                                                                                                                                                                                                                                                        |
|----------|-------------------------------------------------------------------------------------------------------------------------------------------------------------------------------------------------------------------------------------------------------------------------------------------|
| 부모 도움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마약에 노출되었을 때 엄마가 화낼까 봐 무서워서 알리지 못했음 (A1)</li> <li>- 자취하며 혼자 생활을 하면서 마약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대답하지 않았음. 혼자 해결하려고 했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알렸음 (B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에게 현실적 도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어 부모님께 변호사 선임을 부탁함 (B1)</li> <li>- 마약 때문에 두통, 토혈을 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모에게 마약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얼버무렸음 (E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마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에게 힘든 점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 가족과 더 멀어짐 (D1)</li> </ul> </li> </ul>                                                                                                                   |
| 기관 도움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요청할 생각을 아예 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군가에게 혹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은 아예 들지 않았음 (A3)</li> </ul> </li> <li>• 도움요청의 장벽</li> </ul>                                                                                                   |



| 주제 |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다 소문이 퍼질 것이라 생각해서 도움요청 안함 (D1)</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해결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독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기 시작함 (E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절차로 직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민간재활시설 상담사를 연결해 주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돌려보냄.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자수 함 (E1)</li> </ul> </li> </ul> |

### 3) 여성청소년의 취약성

앞서 통계에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청소년 마약사범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여성청소년들이 위험노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주로 아는 남성 친구, 아는 오빠들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

제가 처음으로 마약을 하게 된 그 경우에는, 그게, 그 오빠의 또 친한 형이었어요. (A2)

남자인 그 친구가 (...) 선배한테 돈을 주고, 그 선배가 마약을 준 거예요. (...) 궁금하면 너 해보라고 기분 좋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A3)

마약은 섹스드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여성 상대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여성청소년 역시도 스스로 마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 남성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마약을 공급받고 성관계를 하며, 수동적인 입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다. 특히 일탈행동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여성청소년에게는 돈, 유흥을 빌미로 접근하여 마약까지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게 마련이다.

여자가 약을 구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구제’라고 하죠. 돈이 없는데 약을 하고 싶으면 구제해달라고 하고, 약을 받는 그걸로 섹스드럭으로 활용하고. (D1)

(클럽MD가) 이 형님분들 돈 많은 분들이라고 (...) 그 사람들하고 2차로 갔어요. (...) 그때 상황이 일어났어요. 몰리 사건이. (A2)

채팅 어플에서 한 남자가 저한테 ‘드라이브 할래?’ 이런 식으로 (...) ‘같이 마약할래?’ 해 가지고 (...) 하고 나서 성관계 해 가지고. (A2)

제가 마약을 처음에 했었을 땐 모르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A2)

청소년이 범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면 사랑인지 착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며 가사 일을 시키거나, 마약 판매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여성,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이 결합하여 여성청소년들은 자타의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판의 한가운데에 던져져 있었다. 여성청소년들은 그 당시에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때 성폭력 당한 거를, 이 오빠가 그거를 신고하자, 신고해서 돈을 받자 (...) 저를 또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예요. 저는 뭇도 모르고 (...) 저를 이용해 먹으려 했던 애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A2)

확실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노련미가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 줘 가지고 되게 의지가 많이 됐었는데 (...) 한 6개월 뒤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때리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끝은 항상 팔베개 해주면서 재우니까. (D1)  
(마약 살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살 사람을 구해오라고. 물건, ‘약은 내가 줄 테니까 넌 (마약) 넘기고 돈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때렸어요. 많이. (...) 뭐가 잘못된 건지도 하나로 모르고 살았어요. (D1)

표 IV-13.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여성청소년의 취약성

| 주제            | 내용                                                                                                                                                                                                                                                                                                                  |
|---------------|---------------------------------------------------------------------------------------------------------------------------------------------------------------------------------------------------------------------------------------------------------------------------------------------------------------------|
| 수동적<br>마약사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를 찾는 여자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아이들은 주로 아는 오빠, 아는 성인 남성이 마약을 줘야 할 수 있는 상황임 (B1)</li> <li>-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성인 남성, 랜덤 채팅방에서 만난 성인 남성, 아는 오빠를 통해 마약을 받음 (A1, A2, A3)</li> <li>-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줄 수 있는 남성을 찾아 ‘구제’를 요청함 (D3)</li> </ul> </li> </ul>         |
| 성폭행<br>& 성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행을 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투약하며 성폭행을 당함 (A2)</li> </ul> </li> <li>•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하면서 성관계를 함 (D3)</li> <li>- 성폭력은 아니었지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건이 걸리면서 처벌을 받음 (A1, A2)</li> </ul> </li> </ul> |
| 범죄수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행을 사건화하여 갈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는 오빠가 본인이 성폭행 당한 사건으로 상대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음. 나중에 알았지만 주위 친구들과 그 사건으로 돈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음 (A2)</li> </ul> </li> </ul>                                                                                    |
| 가스라이팅<br>& 착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하며 가사, 마약판매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같이 하던 남성이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함. 처음에는 잘해줬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리고, 집안일을 시키고, 손대손 마약판매 등을 시켰음 (D1)</li> </ul> </li> </ul>                                                                                                     |

#### 4) 사법체계, 치료상담, 예방교육 경험

마약사용 이후 사법체계에서의 처분 경험, 치료, 재활, 교육 그리고 과거 예방교육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사법체계 내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치료적, 교육적 개입을 경험한 사례는 소수로 파악되었다.

경찰, 검찰, 재판 단계 그리고 법집행 단계에서 특별히 도움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청소년은 드물었다. 일부 청소년이 특정인에 대해 친절했다 또는 불친절했다 등의 태도의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단약이나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진술하는 사례는 적었다. 사법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의미있었던 진술은 SPO의 개입이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A1은 해당 사건 때문에 친해졌던 SPO가 있었고, 마약사건 발생 후 SPO와 함께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방문하여 치료상담을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SPO 선생님 알게 돼 가지고 한번 마약센터(마약퇴치운동본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보자 (...) ‘너 혼자 가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매번 데리러 가고 같이 가고 데려다 줄게’ 그러면서. ‘너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같이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림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A1)

강력한 사법체계의 개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마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입소하여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 호송차에 실려 재판을 받으러 갔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B1은 이전에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마약판매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경험이나 법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등을 유의미하게 기억했다.

호송차 타고 가는 거고 원래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손 잡고 롤러랄라 갔다가 그냥 판사님 이 하는 말 한 귀로 흘러들고 그러고 그냥 나가고 ‘아 나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전부였는데, 그때는 진짜 간절해가지고 저 반성문도 진짜 많이 썼고. (B1)

보호관찰과 소변검사도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제재 장치가 되었다. 보호관찰의 시간통제는 청소년들이 야간시간에 범죄유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고, 자주 실시하는 소변검사는 청소년들의 투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아무래도 소변검사를, 거의 매주 볼렀던 것 같아요. 집에 방문하실 때도 소변검사는 꼭 받으시고, 출석해서도 항상 받으시고 해가지고, 약물을 3개를 검사를 한 것 같아요. LSD 그다음에 코카인 이런 것들 키트로 해 가지고 (...) 저한테는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마약을 더 했을 것 같아요. (A2)

치료보호기관 경험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와 함께 ‘약도 그냥 공짜로 주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을 보면 치료보호제도를 통해 자비부담 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지속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치료보호제도가 회복에 기여하는지는 명확하게 진술되지는 않았지만 치료의 지속성에는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간 상담가들은 상담기술 측면에서

는 도움이 되었으나 문제가 반복되면서 상담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A1은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위로를 받아 좋은 경험을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A1은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청소년이었는데, 상담으로 위로를 받던 중 갑자기 그림그리기와 같은 활동프로그램을 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청소년에 맞는 활동프로그램 개발이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을 집단으로만 인식하고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했던 결과로 보인다.

상담 위로를 해줬을 때 그때 도움이 됐는데, 갑자기 바뀌 가지고. 프로그램 더 재밌게 그림그리기 그런 거 하자고 해 가지고. 제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활동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상담하면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싫어해 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하면서 머릿속에 '아 이거 언제 끝나' 이 생각만 했어요. (A1)

그동안 경험한 예방교육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예방교육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거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예방교육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학교를 거의 가지 않거나, 학교에 가더라도 잠만 자는 등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도 각종 예방교육을 수업 마지막 시간에 배정하는 듯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였다. 실제 예방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의 방법이나 중요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따라 예방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수의 면접참여자들이 예방교육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매주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A2는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이 중독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시설 퇴원 후에는 도움을 받아볼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지금 여기서 마약 교육을 받았거든요. 10주 정도 받았는데, 매주에 한 번씩 마약 교육 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약 예방 교육을 하는데, 처음 회기 때 제가 되게 힘들어 했어요. 마약 얘기를 듣자마자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막 몸이 막, 손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만지게 되고, 다리도 저도 모르게 떨고 있고, 너무 갑자기 제 몸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 저는 마약에 중독이 됐다는 걸 여기서 처음 알게 됐고 며칠 전에 알게 된 거여가지고, 나가 가지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해요. (A2)

표 IV-14.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법체계, 치료상담, 예방교육 경험

| 주제         | 내용                                                                                                                                                                                                                                                                              |
|------------|---------------------------------------------------------------------------------------------------------------------------------------------------------------------------------------------------------------------------------------------------------------------------------|
| 사법체계<br>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O의 개인중심 밀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알게 된 SPO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상담프로그램 참여시 동행하며 지원해 주었음 (A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 처분으로 인한 경각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년원에 입소했는데 마약사범이라서 독방에 있었음. 대화할 상대도 없고 힘들었음 (A3)</li> <li>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어 자유가 박탈되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음 (B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관찰과 소변검사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관찰 시간 위반 3번을 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 때문에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음 (B1)</li> <li>자주 소변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며 마약을 더 했을 것임 (A2)</li> </ul> </li> </ul>                                                   |
| 치료상담<br>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성 있는 주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보호기관 주치의는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느껴짐. 치료약도 그냥 공짜로 주고 잘 맞는 것 같음 (C1)</li> <li>주치의가 약을 막 처방하지는 않았음. 특히 정신과 약이 문제인 사람에게는 약 처방을 신중하게 해 줌. 수면제를 더 처방해 달라고 해도 잘 눌러주지 않았음 (D3)</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지속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와 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상담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반복되면서 연락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음 (A2)</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이 아닌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은 것은 도움이 되었으나 하기 싫은 활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짜증 났음 (A1)</li> </ul> </li> </ul>                                                                                             |
| 예방교육<br>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교육 기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류, 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기억이 없음. 학교에 거의 가지 않거나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한 이유도 있음 (다수)</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교육 효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교육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효과는 없는 것 같음. 그 시간에 다들 안 듣고 잠 (D3)</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교육을 듣고 내가 중독인 걸 알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에서 단체로 듣는 예방교육에서 내가 중독인 것을 알게 됨 (A2)</li> </ul> </li> </ul>                                                                                                              |

## 5) 사각지대와 개선요구도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질문했다. 면접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문화 속에서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 마약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음악하는 친구와 친분이 있는 C1은 홍대 음악클럽에 대해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문화공간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 ‘음악’, ‘클럽’의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전자담배’의 접근용이성이 상호작용하며 마약사용이 목격되는 것으로 보였다. 정부에서 클럽 등 유흥시설을 단속하기는 하지만 술을 판매하지 않고 낮시간에만 운영하는, 청소년들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를 할 거면은 제일 중요한 거 홍대 쪽 거기 청소년 클럽이나 음악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 술도 안 팔고 (...)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밑바닥에서 (음악)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제일 많이 마약하고 한니까 (...) 브랙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데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이게 법적인 거 문제 안 되게 아침부터, 그래서 8시 7시에 끝낼걸요? (...) 이거 하는 애들도 거의 다 인생 말아먹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딱 겉으로 봤을 때 그냥... (C1)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을 범죄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다라도 온라인 게임에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성인이 청소년을 마약 투약으로 유인하고, 때로는 SNS DM을 통해 무작위로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낚시를 하듯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마약을 공급한 이후에는 SNS 마약소통방에 대한 정보를 주며 추가 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이 사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곳이므로 보호자가 모니터링 어플을 이용해서 감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D1은 사이버공간에 대해 정부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SNS 어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진입을 막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A1은 온라인 미팅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지 않게, 청소년들이 경계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텔레그램 안 하니까 요새. 또 들려오는 게 시그널이라고, 또 다른 경로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 그냥 그런 거는 정부에서 좀 막는 게 좋지 않을까... (D1)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친구 불러서 집에만 가만히 노는 게 더 낫다, 밖에 나가면 이런 사고 생길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냥 그 말 해주고 싶어요. 그냥 집에서만 놀고 집에만 있어라 (...) 게임에서는 게임을 해도 되는데 너무 쉽게 그 상대방을 믿지 마라. 그리고 게임에서만, 게임에서만 만나고 게임에서만 놀자 밖에 실제로 만나지 말자 (A1)

마약사범 사이에 초범 형량이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성인이 된 D2는 과거 자신의 생각을 회상하며 너무 낮은 형량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인이 된 D2가 돌아본 청소년기의 모습을 현재 청소년인 C1이 그대로 보여주었다. C1은 자신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면 전과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마약문제로 단속되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범은 벌금형이라고 들었어요. (...) 옛날에는 ‘아 그럼 그냥 돈 내고 말지’ 막 이렇게 한 적도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초범이라고 막 봐주고 이런 것도 좀... (D2)

이게 어차피 전과 기록도 미성년자라서 20살이면 지워지고 (...) (부모님이) 왜 화를 내는지도 이해 안 가고. (C1)

C1은 사법체계 안에서 법집행공무원을 만나면서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 공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었다. 그러한 대화는 청소년과 법집행자 간 라포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법집행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너무 ‘을’, 그거라서 이게 성인이 왔을 때는 그런 대접을 안 받거든요. (...) 반말하고 욕하고 하니까 짜증나죠. (C1)

C1의 경험은 법집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경험들의 축적이었다. 법집행자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쌓지 못했지만, 친구 사례의 언급을 통해서도 법체계에 대한 신뢰도



가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C1은 친구가 심각한 마약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지 않는 것은 보며 집안 배경이 좋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 사례] 그러니까 걸린 게 미성년자 마약 교부랑, 미성년자 마약 또 교부랑 또 흡입, 흡입, 판매 이런 건데도 집안이 빵빵해선가 안 잡히던데 그냥 아예 안 걸리던데 (...) 그냥 집안 빨인거죠? (C1)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발언 내용들도 있었다. C1은 지인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호관찰을 받으러 갈 때 ‘브액’을 피우면서 가도 약물검사에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진술에서 중요한 점은 소변검사기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사실 자체보다 국가법집행의 허점으로 법집행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외국에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도 단속되지 않는 점, 마약전이 마약을 잡아내지 못했던 경험이 첩첩이 쌓여 법집행이 허점투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브액 자체가 합성대마니까 안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 그냥 (브액) 피면서 (보호관찰소) 가요. (C1)

D1 역시도 약물검사를 받을 때 물통으로 교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표면적으로는 보호관찰을 잘 받고 있는 대상자였다고 회상했다.

소변을 뺐죠, 그냥 (...) 물약통에 소변을 담아 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 (마약) 하고 간 날도 안 걸렸어요. (D1)

해외 유학시 대마를 경험했던 D2는 예방교육할 때 마약의 실제 ‘모양’을 알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는 (마약)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처음에 그걸(대마초) 할 때,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마약이란 걸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D2)

A2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일탈행동이나 범죄환경에 대한 노출강도가 높은 청소년이었다. 주변에 마약을 하는 또래들도 많았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A2는 ‘단속의 두려움’으로 ‘도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음을 묘사하였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욱 심각하게 마약중독에 빠져가는 친구를 보며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랐으나 그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저희 청소년들이 어른한테 쉽게 도움을 청할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익명이라도 좋으니까, 확 청소년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앱이라든지 (...) 그런 거에서 청소년들이 익명으로라도 제보하고 ‘제 친구가 이런데 도와주세요’라고,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마약하는 애들이 자기가 처벌을 받을까 봐 이렇게 도움을 못 청하는 것 같아요. (A2)

좀더 포괄적으로 마약에 친숙한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D3는 같은 마약문제로 똑같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는 했지만 자신과 전혀 다른 생활환경에 있는 또래를 보며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 친구는 ○○구 출신이었어요. (...) ○○도 사실 되게 좀 질 안 좋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 그 친구의 삶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친구는 애초에 그냥 필로폰이었고 (...) 그런 친구들은 아는 딜러 오빠들,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 나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사실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그냥 똑같이 입원복 입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D3)

표 IV-15. 위기청소년 심층면접: 사각지대와 개선요구도

| 주제             | 내용                                                                                                                                                                                                                                                                                                              |
|----------------|-----------------------------------------------------------------------------------------------------------------------------------------------------------------------------------------------------------------------------------------------------------------------------------------------------------------|
| 홍대 음악클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대 음악클럽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대 음악클럽에서 전자담배로 브랙을 사용함. 술을 판매하지 않고 낮시간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임 (C1)</li> </ul> </li> </ul>                                                                                                                     |
| 범죄수단이 되는 사이버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게임, 랜덤채팅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차원에서 제재조치 필요함 (D1)</li> <li>- 온라인 관계가 대면 관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A1)</li> </ul> </li> <li>• 텔레그램은 무조건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같은 아이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을 하는 건 무조건 불법임 (A2)</li> </ul> </li> </ul> |

| 주제            | 내용                                                                                                                                                                                                                                                                                  |
|---------------|-------------------------------------------------------------------------------------------------------------------------------------------------------------------------------------------------------------------------------------------------------------------------------------|
| 허술한 단속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키트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검사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이 많음. 주변 친구 중에 보호관찰소 가는 당일 날 브랙을 피우고 가는 친구가 있었음. 그래도 검출되지 않았음. 소변검사 키트를 업그레이드하고 모발검사를 해야 함 (C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검사의 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검사할 때 물통을 가져가서 바꿔치기를 했는데 한번도 걸린 적 없음 (D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유입 단속 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대마를 포함해서 마약을 종류별로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단속되지 않음. 마약견이 앞에 있어도 잡아내지 못했음 (C1)</li> <li>- 매직머쉬룸 포자를 구매했으나 단속 안 됨 (C1)</li> </ul> </li> </ul>                                                    |
| 법체계 신뢰도 저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적 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집행 단계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야 이 ○○야'라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음. 법집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대응을 하지는 않았음 (C1)</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무죄 무전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에 심각하게 마약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집이 잘 살기 때문인 것 같음 (C1)</li> </ul> </li> </ul>                                                                                                 |
| 예방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교육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이 좋음 (D2)</li> <li>- 마약의 모양을 실제로 보여주는 교육이 필요함 (D2)</li> </ul> </li> </ul>                                                                                        |
| 도움 접근성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 등 청소년들이 익명으로라도 쉽게 제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함 (A2)</li> <li>- 도움을 청할 때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 같음 (A2)</li> </ul> </li> </ul>                                           |
| 마약에 친숙한 환경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하게 만드는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을 하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임. 같이 병원에 입원한 다른 마약중독자 친구를 만났는데 질이 안 좋다고 소문난 지역에 사는 친구였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었음. 살아 온 환경이 너무 달랐음 (D3)</li> </ul> </li> </ul> |

#### 4. 요약 및 시사점

마약류 관련 경험이 있는 청소년 6명, 그리고 청소년기 마약류 경험이 있는 청년 4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들의 마약류 사용 경험에 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20대 청년들의 회고적 면접은 청소년기 마약류 사용이 성인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면접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참여자들의 가족 배경은, 사별, 재혼, 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는 했지만, 평범한 다수였다. 부모와의 갈등은 주로 참여자들의 문제행동 시기에 집중되었으며, 문제 해결 시 갈등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족 간 소통 부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묘사하는 가족관계는 매우 평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족관계 역동이 마약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해 보였다. 참여자들은 부모에 대한 언급을 제한적으로 하였으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보호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 중에는 자취를 하며 혼자 생활하거나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등 부모 감독의 부재 상황에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때로 당연히 보호자가 필요한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등 극단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강한 부모 통제하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과도한 부모 통제가 오히려 청소년의 이탈행동이나 마약사용을 강화하는 역설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면접참여자들의 또래관계는 학교, 동급생 중심이 아닌 학교밖, 상급생 중심의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출석하기는 해도 학교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또래관계는 방과 후에 시작되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 학교 밖 친구들을 만나면서 학교 친구들과 관계에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일부 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방황과 이탈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스스로 '방황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하였다. 온라인매체, SNS는 새로운 관계 형성의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게임 등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대면 관계로 전환되거나, 지역 동네 친구들과의 SNS 소통을 통해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친구로 관계망이 확장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밖 친구들, 동네 선배, 성인들로 관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온라인 관계망은 다시 오프라인 관계망이 확장되는 데 기여했다.

면접참여자 대부분 마약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주요한 생활상의 변화가 있었다.

생활상의 주요 변화는 학교급 전환, 주거지 변화, 그 외 부모 사별, 성폭력 등 생활사건들이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친구 무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학교급 전환 시기가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 과업을 부여하였고, SNS를 활용한 지역 중심의 친구 관계 형성으로 이어졌다. 혼자 생활하는 자취 형태의 주거 변화는 부모 감독 부재와 상호작용하며 생활상의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일부 참여자들은 학교 등교를 조건으로 자취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결석이 잦아지며 자퇴에 이르고 마약류 포함 여러 범죄환경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 외 주요한 생활사건들이 마약류 사용에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와의 사별, 성폭력,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등의 외상적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반면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여행 등)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학교생활의 제약과 온라인 친구 관계 의존을 증가시켰는데, 그러한 친구들 중 약물을 오남용하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마약류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의 정신건강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ADHD,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경계선지능장애의 인지적 문제를 보였다. 일부는 자해, 자살 시도 경험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인식을 보였다. ADHD를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거나, 우울증 진단에 대해 ‘우울증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지적능력, 특히 자기성찰 능력도 마약류 사용과 관련한 배경요인이 되었다. 지적능력과 마약류 문제 진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이후 마약류 문제의 진전을 막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보였다. 청소년기 때 높은 학업성적을 보였던 청년들의 사례를 보면, 마약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려 하거나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련 사건에 유입되기 전, 청소년들의 주변은 이미 다양한 범죄 유발 환경이 조성되었다. 면접참여자들은 노는 친구, 노는 선배들과 어울리며 학교에서 점차 멀어졌다. 음주, 흡연, 늦은 귀가 등 전형적인 중고등학생과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며 성인처럼 행동하려 했다. 또한 성인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에 가담해야만 했다. 음주, 흡연을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공문서부정행사죄를 범하고, 일부는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업소를 이용하며 성인문화에 접근하였다. 그 외에도 범죄 활동으로 돈을 버는 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접하며 불법적 생활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에 대한 경계가 희미해지고 범죄 가담을 권유받기도 하고, 실제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시작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되었다. 첫째는 친구, 선배를 포함한 또래 무리, 둘째는 잠재적 위험 성인이었다. 또래 무리를 통한 노출에서는 친구가 ADHD 처방약을 나눠주는 사례나 지역의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액상대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은 ‘노는’ 무리 안에 마약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지역에서는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성인에 의한 노출에서는 온라인 게임친구, 랜덤채팅방 대화상대, 길거리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상인, 클럽 종업원을 통한 중년 남성과의 접촉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마약사용의 유입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체계적인 경계심 약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마약을 하는 주변인들이 지속적으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져 범죄나 일탈행동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다. 전자담배는 특히 액상대마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도구로 활용되었다. 면접 참여자 모두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다수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자담배 기기와 호환 가능한 키트로 액상대마를 사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마약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마약 사용 당시 그것이 불법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다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지는 못했다. 한번 마약을 사용하는 경계선을 넘은 후에는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첫 번째 투약경험에서 부정적 반응을 경험한 청소년들조차도 마약사용은 계속되었고, 결국 중독 상태로 진행되었다. 마약사용의 유입 과정에서 흔히 알려져 있는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 활용은 오히려 면대면으로 마약을 경험한 후, 추가적인 마약류 사용 접근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텔레그램 사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으나 마약을 권한 주변인들이 이후에 SNS로 마약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후 반응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강성마약을 사용한 청소년들은 모두 강력한 효과를 경험했으나 이후 태도는 크게 달랐다. 일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중단했지만, 일부는 첫 경험이 부정적이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중독에 빠져들었다. 면접참여자들은 마약류 경험이 알려진 후 주변에 마약 사용자들이 모여드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반대로 자신이 마약경험이 있다보니 주변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마약사용 여부를 쉽게 인지하기도 하였다.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단속되지 않고 심각한 마약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다.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빠른

속도로 일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3 여름에 처음 필로폰을 경험한 사례는 그해 수능시험날에 시험장에 가지 못할 정도로 중독되었다. 고3 초반,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한 사례 역시 약 때문에 입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 중독으로 인해 가족, 학교를 떠나 생활하게 된 청소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마약류 사용 후 대처의 핵심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는 점이다. 마약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사건이 진전되어 본인이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에게 도움을 청했다. 부득이하게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마약 사용 상황이나 사용한 마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마치 우발적 사고를 당한 것처럼 상황을 축소하였고, 마약류 지식이 부족한 부모는 그 상황을 그대로 넘겼다. 도움을 요청하거나 힘든 상황을 나누려 할 때 오히려 마찰이 커지고 싸움이 일어나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의 마약사용 문제를 인지한 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부모-자녀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부모 이외 기관이나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모두 알려질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청소년 시기를 거쳐 성인이 된 사례는 심각한 중독 과정을 거친 후 성인이 되어야 비로소 도움을 찾기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고, 경찰에 자수하며 치료나 상담이 아닌 사법절차로 진입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었는데, 면접 내용을 전반에 걸쳐 여성청소년이 마약류 범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맥락이 파악되었다. 여성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주로 주위 아는 오빠나 성인 남성들에 의한 것이었다. 여성청소년들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마약에 접근하기보다는 남성들의 권유나 제공을 통해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섹스드럭으로 사용되는 마약은 그 특성상, 성인 남성이 여성 상대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여성청소년들은 스스로 마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인 남성에게 ‘구제’를 요청하며 마약을 공급받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탈행동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여성청소년에게는 돈, 유흥을 미끼로 접근하여 마약까지 제공하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성인 남성들은 청소년이 범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하는데, 심각하게는 사랑인지 착취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며 여성 청소년에게 매일 마약을 공급하고, 마약 판매 또는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두 가지 취약 요인이 결합하여 여성청소년들은 자타의에 의해 어느 새 범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사법체계, 치료상담, 예방교육에 대한 경험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특별히 도움받은 것을 기억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특정 개인에 대한 태도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단약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진술하는 사례는 적었다. 그러나 그중에서 특히 SPO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SPO는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를 포함하여 마약류 치료상담을 위한 전반의 과정에 청소년과 친밀하게 소통했고, 해당 청소년은 SPO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강력한 사법체계의 개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마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설에 입소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경험, 호송차에 실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주었다. 보호관찰 소변검사는 청소년들의 추가적인 마약류 투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치료보호기관 경험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치료보호제도를 통해 자비부담없이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지속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한편 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한 청소년은 자신이 싫어하는 활동프로그램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활동프로그램을 좋아할 것이라는 집단화된 접근의 부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예방교육에 대한 평가 역시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다수의 청소년들이 예방교육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거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예방교육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면접참여자들이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도 각종 예방교육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점 등이 다각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였다. 실제 예방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방교육의 방법이나 중요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따라 예방교육의 효과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미 마약 경험이 있었던 사례는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중독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마약에 이미 노출되었거나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마약사용의 진전을 막거나 치료상담의 경로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 마약문제 대응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에 바라는 점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각지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시각이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들의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홍대’, ‘음악’, ‘클럽’의 복합적인 문화 속에서 ‘전자담배’ 접근 용이성이 상호작용하며 마약이 쉽게 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사이버 공간은 청소년을 범죄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성인, SNS DM을 통한 무작위 낚시 광고, SNS 마약소통방에 대한 정보 공유로 청소년들을 마약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등에 대해 정부가 제재해 주기를 요구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SNS 어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막을 수는 없고, 오히려 처음부터 진입을 막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초기 마약 사범 사이에 초범의 형량이 낮다는 인식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그러한 노력은 법집행자가 청소년을 만나는 일선에서의 태도부터 거시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한편, 법집행의 허점은 사법체계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마약단속을 위한 과학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소변검사 등 법집행도 보다 철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예방교육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9명의 연구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열 번째 면접참여자인 D3와의 대화에서 핵심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소위 ‘위기청소년’으로 마약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서서히 조성되며, 여러 범죄와도 이미 상당 부분 가까워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현장의 한복판에서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불법적 요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위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 마약류 사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스텝처럼 보였다.

대안이 없을 것 같은 면접을 이어가며, 우리 사회가 거시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중심을 제시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결국 청소년 마약의 문제는 단순히 마약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마약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키워 주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손도 못 대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환경의 차이**라는 거죠.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사실 입문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위험성이나 법적인 거 다 무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안 하던 애를 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보통 마약 교육 같은 거 하면 내용이 ‘이거 위험하다’, ‘이거 몸에 안 좋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입문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친구들이면 이미 그런 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권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래? 펜타닐 해볼래? 필로폰 해볼래?’ 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마약을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다는 말이 가장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호기심으로 인생을 망친다’ 이런 표어가 제일 많잖아요, 그 마약 방지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저는 그건 진짜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뭐 다들 장난식으로 ‘마약이 뭐길래 얼마나 좋길래 그러는 거야’ 이렇게는 하겠지만, 그 **호기심으로 마약이라는 거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주변 환경이, 마약이든 불법이든 이런 거랑 너무 밀접해 있거나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거나 이러면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호기심이라는 단어에 너무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핑계겠죠. 저도 마약 다큐 같은 거 챙겨보는데 모자이크 되서 나온 사람들이 ‘남자친구가 한 번 줬는데 호기심 때문에 제가 중독자 됐어요’ 이렇게 인터뷰 하잖아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속 뜻은, **그 사람의 주변에는 마약과 관련된 것이 있었고, 마약하고 항상 같이 밀접하게 따라다니는 불법적인 요소들, 유흥업소라든지 도박,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다 있었고, 그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것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황치즈 맛 마카롱이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호기심이 들어서 먹어봤어요’라고 하면은 ‘집 주변에 마카롱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황치즈 맛을 팔아서 궁금해서 먹었다’ 이거잖아요. **이미 주변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호기심이 생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겠죠. 일반적인 사람 눈앞에다가 갖다 놔도, 그리고 주사가 다 해 준다고 해도 안 하죠. 어떤 독극물을 몸에 집어넣는 거고 범죄자가 되는 건데, 아무리 그 쾌락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도 안 하지 않을까요?

- 중독과 회복의 중간 어디쯤에서, 여전히 도움을 찾고 있는 D3의 이야기 -



## 제5장 정책 제언

- 1. 정책 개발 수립 절차 및 시사점
- 2. 정책 제언



## 1. 정책 개발 수립 절차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약물별 노출 경로와 파급효과를 규명하며, 기존 정책 대응의 한계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유해약물 문제는 개별 약물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초기 약물 경험에 더 강한 약물 또는 다른 위험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차위험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여전히 단일 약물 중심의 예방·단속·치료라는 분절적 접근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확산과 재유입 등 변화된 유통 환경과 청소년의 실제 위험 노출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유해약물 문제에 대해 처벌 중심이 아닌 치료와 회복을 전제로 한 회복적 접근과 위해를 현실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전략(harm reduction)이 정책 체계 내에서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황 진단부터 실행 가능성 검토까지 단계적으로 근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환경 진단 단계, ② 실증 분석 단계, ③ 정책 도출 단계의 3개 축, 6단계 절차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우선 환경 진단 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의 현황과 정책·학술적 논의 흐름을 정리하고, 음주·흡연 및 고카페인부터 의료용·불법 마약류에 이르는 유해약물 스펙트럼 전반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 수록된 문헌연구 내용은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범위를 차별화하였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20) 이 장은 배상률·김영지·모상현(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남희·조제성(이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다운(상지대학교), 홍서아(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과제 1: 위기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마약류를 중심으로 최근 청소년 마약 사용의 현안과 쟁점, 위험 요인 및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과제 2: 중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음주·흡연과 고카페인부터 의료용·불법 마약류까지를 포괄하는 유해약물 전반에 대한 문헌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미국, 독일, 호주, 일본의 정책·제도 및 거버넌스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처벌 중심에서 치료·회복 및 위해감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제적 정책 흐름과 다부처 연계형 통합 대응 구조의 전략적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실증분석 단계에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를 연계하여 청소년 약물 사용의 실태와 메커니즘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중·고등학생 및 교정시설 및 보호시설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 실태와 진입·이탈 경로의 통계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어 약물 유형별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정량 분석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실제 사용 맥락과 위험행동 전환 계기, 재유입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정량조사에서 확인된 통계적 결과에 대한 해석적 깊이와 정책 개입 시점에 대한 실증적 단서를 보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상별로 분리하여, 〈과제 1〉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과제 2〉에서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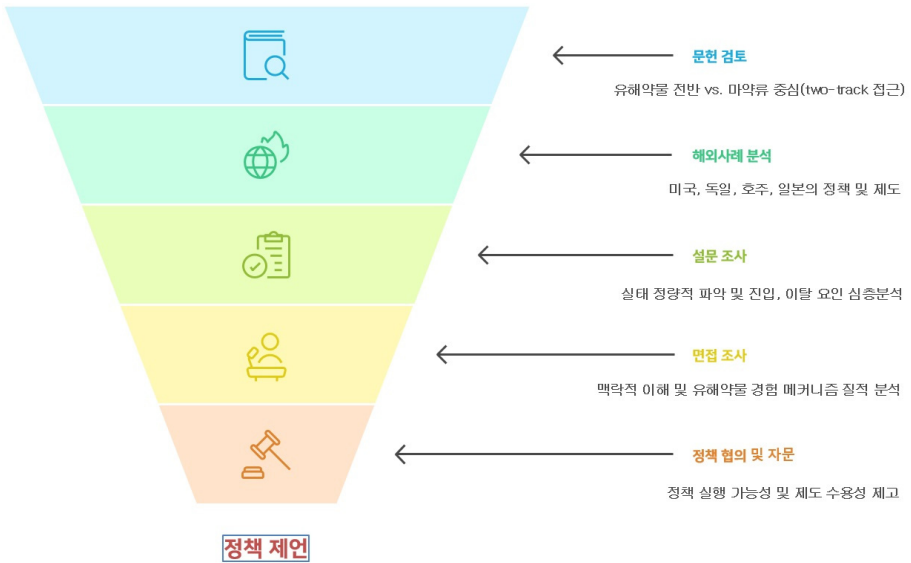


그림 V-1. 정책 제언 도출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정책 도출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담당자 및 공공기관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표 V-1) 참고)을 정책 언어로 전환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정교화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상술한 절차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목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추진 단계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특징                                                     |
|----------------|--------|----------------------------------------------------------------------------------------------------------------------------------------------------------------------------------------------------------|--------------------------------------------------------|
| 환경<br>진단<br>단계 | Step 1 | 문헌연구<br><br>[과제1] 유해약물 전반<br>: 음주·흡연, 고카페인부터 마약류까지 포괄적 접근<br><br>[과제2] 마약류 중심<br>: 청소년 마약류 사용 현황과 쟁점, 마약 경험 요인 등                                                                                         | Two track 접근<br>: 일반청소년 vs. 위기청소년                      |
|                | Step 2 | 해외사례 분석<br><br>[미국] 연방 기반 다부처·지역 협력, 위해 감소(harm reduction)접근<br><br>[독일] 공중보건 관점의 중독 예방 전략, 사전 예방과 효과 검증 제도화<br><br>[호주] 보건+사법 공동 책임형 통합 거버넌스, 법제 기반 강력 규제 구조<br><br>[일본] 법·제도 기반의 강력한 중앙 통제, 한국 시스템과 유사 | 4개국 정책제도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 및 개선방향 도출                         |
| 실증<br>분석<br>단계 | Step 3 | 설문조사<br><br>청소년 대상별 정량조사<br>[과제1] 전국 중·고등학교<br>[과제2]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 사용 실태 정량적 파악, 사용 진압·이탈 요인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심층분석             |
|                | Step 4 | 면접조사<br><br>유해약물 유형별 면접조사<br>: 음주·흡연, 고카페인, 의료용 마약류, 마약 등                                                                                                                                                | 사용 동기, 접근 경로, 진압·이탈의 전환 계기를 중심으로 관련 위험행동 발생 메커니즘 질적 분석 |
| 정책<br>도출<br>단계 | Step 5 | 정책실무협의회 & 전문가 자문<br><br>관계부처 기관 및 학계 전문가 대상                                                                                                                                                              | 정책 실행 가능성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                | Step 6 | 정책 제언<br><br>정책 방향성 및 세부정책 방안 도출                                                                                                                                                                         | 실효성 강화된 증거 기반 정책화                                      |

그림 V-2. 연구 설계 및 단계별 수행 체계

표 V-1. 조사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조사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현황 및 정책분석 | • 유해약물은 음주흡연에서 마약류로 이어지는 교차·연계적 위험구조로 확산                  | • 단일 물질 중심이 아닌 '통합적 유해약물 정책 체계' 필요                         |
|           | • SNS·다크웹·메신저 기반의 비대면 유통 확산으로 청소년 접근 장벽 급격히 약화            |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민간·플랫폼 사업자 연계 거버넌스 필요                       |
|           | • 현행 정책은 단속사후처벌 중심으로 '예방·조기개입·회복지원' 연계 미흡                 | • 전주기(Prevention-Intervention-Recovery) 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           | • 교육부·복지부·법무부·경찰·방동위 등 부처별 단편 대응이 지속                      | • 국가 컨트롤타워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필요                               |
|           | •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는 암수범죄 영역으로 통계 기반 정책설계 한계                    | • 실태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위기청소년 대상 정밀 조사체계 강화 필요                    |
|           | • 유해약물 노출 경로가 시·추천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으로 급격히 이동                   | • 디지털 환경 및 알고리즘 위험 요인을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
| 해외사례 조사   | •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가동 및 통합적 접근(합법/불법/행동 중독 포함)                | •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컨트롤타워) 필요                |
|           | • 마약류 공급망 차단, 예방, 치료·회복 병행, 연구 및 데이터 체계 구축.               | •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조기개입·치료·재활·복귀로 이어지는 전주기 단계별 개입 필요 |
|           | • 학교·지역사회 기반 연계형 예방교육: 상황예방, 조기예방 심리사회정서 등과 연계된 통합프로그램 운영 | • 사회정서, 학교폭력예방 등과 연계된 학생 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 체계 강화               |
|           | • 예방 교육 필수화 전략 및 전문가 역량 강화 필요                             | • 유해약물 예방 역량 강화 및 생활지도 품질 향상을 위한 예비교원 및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
| 설문조사      | • 유해약물 접근이 '쉽다'고 인식하며, 온라인 기반 정보·유통 경로 확산                 | • 온라인 플랫폼 및 비대면 유통에 대한 실시간 감시·차단 체계 구축 필요                  |
|           | • 유해약물 진입은 '호기심'보다 스트레스·우울·관계 갈등 등 정서적 취약성이 핵심 요인         | • 정서 기반 예방·상담 개입 및 정신건강 연계형 조기개입 체계 강화 필요                  |
|           | • 고카페인·처방약 등 기능/성과 지향적 약물 사용이 일상화                         | • '성과압박·정서압력' 기반 맞춤형 위험 인식 교육 및 의료 관리 강화 필요                |
|           | • 학교 징계는 낙인·반발로 이어지고, 법적 개입과 상담치로는 회복 계기로 작용              | • 단순 처벌 중심 아닌 회복적 정의·중단 유도형 대응체계 전환 필요                     |



| 조사   | 주요 내용                                                                                                   | 시사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 차단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인식 (예방보다 공급 차단 요구 강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 경로 차단과 예방·회복 연계형 전주기 통합 정책 설계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정보 접근 격차로 자발적 회복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 회복 지원 인프라 및 다기관 연계형 지원 체계 확충 필요</li> </ul>                              |
| 심층면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약물에 진입, 접촉하게 되는 경로와 계기가 주로 온라인(SNS), 친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약물 유통과 접근에 대한 강력 규제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 사회정서적 취약성이 유해환경 접촉을 이끄는 도움 요청할 곳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약물 전문성과 청소년 치유·회복 역량이 있는 전문기관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물남용 예방교육 효과 부재, 유해약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참여 중심 예방교육 필요</li> <li>유해약물에 대한 정보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종합정보시스템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담배, 고카페인 음료, 의료용 마약류 등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신종약물의 등장과 확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의 유해약물 유인을 끌어내는 각각의 약물에 대해 접촉 차단 법제도 필요</li> </ul>                      |

## 2. 정책 제언

### 1)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에 대한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과제1.** 국가 컨트롤타워 및 전달체계 구축; **과제2.**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과 인력 전문성 강화; **과제3.** 데이터 기반 위험 감시 및 정보 시스템 구축; **과제4.** 전자담배·의료용 마약 등 유형별 법·제도 정비; **과제5.** 치유·회복 지원 인프라 확충.

|                                                   |                                                                                                       |
|---------------------------------------------------|-------------------------------------------------------------------------------------------------------|
| 정책목표 : 청소년 유해약물의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                                                                                                       |
| <b>정책과제1.</b><br>국가 통합<br>거버넌스 구축                 | 1-1. 국가 차원의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 수립<br>1-2.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br>1-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b>정책과제2.</b><br>유해약물 교육<br>역량 강화                 | 2-1. 학생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br>2-2.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br>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
| <b>정책과제3.</b><br>데이터 기반 모니터링<br>체계 고도화            | 3-1. 과학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br>3-2. 유해약물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br>3-3.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
| <b>정책과제4.</b><br>유해약물 유형별<br>법·제도 개선              | 4-1. 전자담배 및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법·제도 개선<br>4-2.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법·제도 개선<br>4-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약물 유통·접근 차단      |
| <b>정책과제5.</b><br>청소년 치유·회복 지원<br>인프라 구축           | 5-1.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br>5-2. 청소년 전담 치유 지원 센터 설립                                                      |

그림 V-3.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 2)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 정책 과제 1

###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과제로 첫째, 국가 차원의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 수립, 둘째, 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셋째,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1-1 국가 차원의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 수립

##### 제안 배경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관련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약물 유통 방식은 온라인화·비대면화되고 있다(김남희, 이선형, 이다미, 김경희, 2023).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의 35% 이상으로 급등하였고, 약물의 종류는 펜타닐, MDMA,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희 외, 2024). 청소년의 약물 문제는 단순 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 악화, 정체성 혼란, 폭력 및 비행의 확산 등 2차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마약류 남용은 우울, 불안, 충동조절 장애 등과 관련되어 있고, 학교폭력이나 온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광래, 이상열, 2024). 이러한 현상은 단속과 처벌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예방-조기 대응-치료·회복-사회 복귀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은 국가마약정책청(ONDCP)을 중심으로 연방·주·지역 단위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 기반의 피해감소(Harm Reduction)형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2012년 수립된 ‘국가 약물 및 중독 전략(Nationale Drogen- und Suchtstrategie)’에 따라 예방·치료·재활을 포괄하는 국가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모든 중독 예방사업의 사전 효과 검증을 의무화하였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5개년 약물남용 방지 전략을 지방정부와 연계해 시행하며, 학교·약사회·경찰 등 지역자원을 결합한 예방모델을 발전시켰다. 호주는 보건과 사법 분야 공동책임 원칙 하에 ‘국가 약물전략위원회(NDSC)’를 중심으로 정책 설계-집행-평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약물·알코올 예방을 필수 요소로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도 단기적 약물 문제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와 지속가능한 청소년 약물관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예방교육의 정규화,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회복지원 기반의 사회복귀 체계 확립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중 약물대책이,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중 청소년 대상 정책이 하위 영역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심화되는 청소년 약물 문제에 집중한 국가적 수준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 추진 내용

국가 차원의 중장기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은 단기적 단속과 처벌을 넘어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이 선순환하는 통합적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범정부 협업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청소년약물대응위원회(가칭)’를 신설하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소년 정책 및 정신건강, 중독치료, 학교안전, 지역사회 복지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플랫폼을 운영한다. 둘째, 예방단계에서는 사회정서학습(SEL)을 기반으로 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 교과화하고, 학생의 자기조절력, 스트레스 관리, 거절기술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약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위험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사회복지사와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네트워크를 확충한다. 셋째, 조기대응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청소년 약물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학교, 교육청, 경찰, 의료 및 복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대상의 위기대응 전문연수를 의무화한다. 또한 미국의 Monitoring the Future(MTF) 조사체계처럼 국가 단위 청소년 약물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근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넷째, 회복 및 재활단계에서는 청소년 회복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여 심리치료, 의료지원, 가족상담을 통합 제공하고, 약물 사용 경험 청소년이 학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적 대화, 포레 멘토링, 가족 동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일본의 지역 연계형 회복모델과 같이 약사회, 지역 NGO, 교정기관 등과 협력하는 다기관 재활 네트워크를 제도화하

며,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부 보호관찰소 연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의 실행 및 효과를 평가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청소년약물 통합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약물 관련 통계, 예방교육 참여율, 치료·재활 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 국가 청소년약물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법적 로드맵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독일과 호주의 사례처럼 정책 설계-집행-평가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청소년 약물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대응 기반을 공고히 한다. 청소년 약물 문제는 단일 부처의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으로 교육, 보건, 사법, 복지 분야의 통합적 개입이 전제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프레임은 정착시킴으로써, 단기적 단속·제재·처벌이 아닌 치료·복지·회복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약물 관련 치료·재활이 중요한 청소년 집단의 경우 특히 처벌과 제재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건강과 복지적 관점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한 유해약물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1-2 통합 콘트롤타워(거버넌스체계) 구축

### 제안 배경

최근 국내 청소년 사이에서 나타나는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사회와 문화전반에 걸친 충격과 함께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얹혀 있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약물 남용 문제는 정신건강 악화, 학교폭력, 자살위험, 범죄 연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행의 분절된 대응 구조(보건복지부의 치료정책, 교육부의 예방교육, 법무부의 보호·교정정책)는 청소년의 실제 회복 경로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단일한 보건·교육 중심 대책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예방-치료-재활이 연계된 전 주기적 관점에서의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연 2회) 등을 운영하며 1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복지부·식약처·경찰청 등)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지만, 범정부 대응의 기본 성격은 ‘단속·조정’ 중심으로 학교(예방)-정신건강

(치료)-재활-복귀를 상설로 통합 관리하는 청소년 전담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통합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가약물통제정책청(ONDCP)은 보건복지부(SAMHSA), 법무부, 교육부, 질병통제센터(CDC) 등이 공동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 사용 예방을 국가 차원의 건강·복지·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의제로 다루고 있다 (THE WHITE HOUS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24). 호주의 National Drug Strategy 2022-2031(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은 중앙정부, 주정부, 보건기관, 교육기관, 경찰, NGO가 협력하는 “공공안전-정신건강 통합 대응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 기반 예방·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1년 「EU Drugs Strategy 2021-2025」(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1)에서, 약물 남용을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공공보건과 정신건강이 연계된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치료·사회복귀를 포괄하는 다기관 협력 모델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한국에서도 청소년 유해약물 및 오남용 문제를 교육·보건·법무·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의 협력적 프레임 안에서 전주기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학교, 전문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작동이 필요하다.

#### 추진 내용

현행 우리의 경우 범정부 마약 대응 협의·단속 체계와 법·관리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 예방·치료·재활-정신건강을 한 프레임에 묶는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화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의 실체적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치료-재활-사회복귀라는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각 주체를 상호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조정과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단위의 거버넌스 체계를 총괄 운영하는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 유해약물 및 중독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신설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을 가능케 할 필요가 있다. 협의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국가차원의 약물정책 목표와 전략을 총괄하고, 부처 간 기능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조율하며, 예산 배분·사업평가·성과관리까지 통합 수행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제도 정비 및 근거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단위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관련 정보와 자료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등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형태로 이 시스템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정신건강실태, 응급실·경찰 접수 사례, SNS 약물 유통 정보 등을 통합 수집·분석하여 조기경보(early warning) 체계로 활용한다. 이는 미국의MTF (Monitoring the Future) 모델처럼, 청소년 약물 사용의 추세·유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가 근거기반 정책 DB로의 전환이 기능하게 된다(Johnston, et al., 2023). 이를 통해 조기개입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셋째, 지방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실행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 각 시·도별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교육청, 지자체 관련부서가 상시 협력하는 원스톱 실무협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지역별 약물 오남용 실태 및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위험 학생의 조기발견·상담·의료 연계를 통합 관리하며, 지역 맞춤형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를 연계한다. 미국의 DFC (Drug-Free Communities)처럼 지방정부·학교·가정·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다부문 연합체(Coalition) 모델을 적용 할 수 있다(The White House, 2021).

넷째, 지역 내 시·도교육청을 통해 예방 및 대응 역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사회정서 역량증진, 생명존중, 보건교육을 통합한 정신건강 연계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 단위로 학교 위기개입 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약물 사용 의심 학생 발생 시 즉시 상담·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학교 내에서 기반 예방·조기 개입 시스템 정착을 위한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약물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 및 상담체계를 긴급 가동 할 수 있도록 교사·보건교사·상담교사 간 밀접한 협력을 통해, 의심 사례 발생 시 학교·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프로토콜을 표준화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공공-민간-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작동이 필요하다. 약사회, 병원협회, 청소년단체, 언론사, ICT 기업 등과 연계한 정책 포럼등을 제안한다.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학교-전문기관이 참여하는 5단계 협력 구조를 통해 정보 공유·인력 교류·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추진체계는 단순한 행정조직의 연계를 넘어, 정책 설계(중앙) - 집행(지자체·교육청) - 실천(학교·전문기관) - 회복(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순환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과 회복지원이 지소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표를 통해 통합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역할 및 기능 등이 정리·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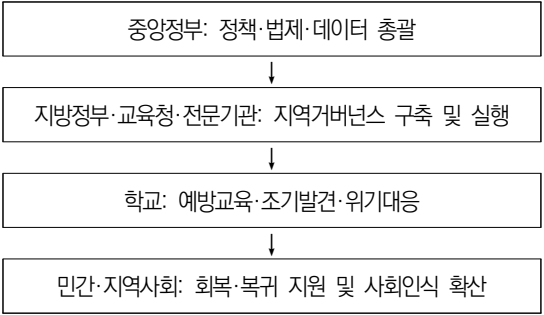


그림 V-4. 거버넌스 체제 간 연계 구성 및 흐름도

표 V-2.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 거버넌스 단위             | 주요주체                                        | 역할과 기능                                                                                                                                                                                                         | 연계 흐름<br>(예방→치료→재활→복귀)                |
|---------------------|---------------------------------------------|----------------------------------------------------------------------------------------------------------------------------------------------------------------------------------------------------------------|---------------------------------------|
| 중앙정부                |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법무부·식약처·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거버넌스 총괄 및 정책조정: 국무조정실</li> <li>법률 제정·제도 개선: 유관 부처</li> <li>부처 간 협력 및 예산 배분: 유관 부처</li> <li>통합 데이터 관리(청소년 약물위기 DB): 법무부 및 경찰청</li> <li>국가 실태조사 및 연구: 보건복지부</li> </ul> | 예방정책 총괄 → 법·제도 개선 →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 지방정부<br>및 시도<br>교육청 | 시·도청·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복지상담센터·시도교육청·지자체 관련 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단위 통합거버넌스 구축</li> <li>지역 약물안전통합지원센터 운영</li> <li>실태조사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기획</li> <li>치료·상담·재활 기관 네트워크 운영</li> </ul>                                                          | 중앙 정책 실행 →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 현장 지원 및 피드백 |



| 거버넌스 단위            | 주요주체                             | 역할과 기능                                                                                                                                                | 연계 흐름<br>(예방→치료→재활→복귀)                 |
|--------------------|----------------------------------|-------------------------------------------------------------------------------------------------------------------------------------------------------|----------------------------------------|
| 교육현장               | 학교장·교사·보건교사·<br>상담교사·학생자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교육 및 조기 발견 체계 운영</li> <li>• 약물위기 조기경보팀 운영</li> <li>• 회복학생 학업복귀 지원</li> <li>• 학생 주도 캠페인 및 또래 멘토링</li> </ul> | 예방교육 → 조기발견 → 상담연계 → 학업복귀 지원           |
| 민간·전문단체<br>및 지역 사회 | 약 사회·병원 협회·NGO·기업·대학연<br>구소·언론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민간 협력형 캠페인 전개</li> <li>• 미디어 기반 약물예방 홍보</li> <li>• 청소년 회복 후 사회참여 확대</li> <li>• 연구·홍보·사회공헌 연계</li> </ul>   | 회복·복귀 단계 지원 → 사회적 인식 개선 → 공동체 회복 문화 조성 |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약물 대응은 교육·복지·사법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주기적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면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제도화되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 할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 협의 기구를 통해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정책 의사결정이 일원화되며, 정책 목표·지표·성과관리 체계가 공유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설 거버넌스는 미국 ONDCP (국가마약정책청)처럼 연방·주·교육기관이 함께 예산과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와 유사하며, 한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전략적 조정력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실행력이 동시에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제고되고, 정부 내 정보 공유와 위기 대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1-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제안 배경

급속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 약물 문제는 단순히 개별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심리·정서, 또래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압력 요인 등이 교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 약물 사용 동기 및 원인, 약물별 노출 경로 및 이후 일탈 행동 양태 등은 개인의 발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명해야 있다.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가족 갈등 및 또래 관계, 디지털 매체 환경적 특성 및 정책·제

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과 상호작용이 유해 약물 이용 행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약물 사용의 전이(trasfer) 지점(초기 사용 → 반복 사용 → 중독 위험)을 규명하고, 예방·조기개입·치료·재활·복귀로 이어지는 전주기 단계별 정책 개입에 대한 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각 단계 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 표에는 전주기 단계 별 서비스 제공 전략과 전달 체계상 기대성고가 예시되어 있다.

표 V-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기능과 전달체계 별 예상 성과

| 전주기 단계                                 | 서비스 기능                                                                                            | 전달체계                        | 예상성과                          |
|----------------------------------------|---------------------------------------------------------------------------------------------------|-----------------------------|-------------------------------|
| ① 예방<br>(Preven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통합 운영</li> <li>• 디지털 기반 약물예방홍보 강화</li> </ul>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청소년 기관, 언론사 | 청소년 약물 접근 차단, 위험인식 강화         |
| ② 치료<br>(Treat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통합회복클리닉 운영</li> <li>• 정신건강-약물 통합치료체계 구축</li> </ul>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 센터, 병원        | 전문치료 접근성 향상, 재발 방지            |
| ③ 재활<br>(Rehabilit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캠프·가족상담·멘토링 운영</li> <li>• 회복청소년 사례관리</li> </ul>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약 퇴치운동본부, NGO   | 회복 지속률 향상, 가족·또래 지지 강화        |
| ④ 복귀<br>(Recovery/<br>Resocializ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청소년 학업복귀·자립지원</li> <li>• 민간협력형 사회공헌 연계</li> </ul>      | 학교, 지자체, 기업, 대학             | 사회적 통합·자존감 회복·낙인감소 효과·사회인식 확산 |

추진 내용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방-치료-재활-사회복귀라는 전 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달체계 상 각 주체를 상호 연계하는 다층적 협력체계 기반의 정책 방안을 마련과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 조율·관리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선행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기반 예방 및 초기 대응체계의 강화로 약물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차위험 요인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초기 개입이 가능한 핵심 현장이다. 예방교육, 정신건강, 학교폭력, 자살예방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 체계를 통합형 교육모델로 전환하면, 학생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감지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예방 및 학교 조기경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건교사·상담교사·담임교사가 연계된 위기 개입 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히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정신건강 악화·학교폭력·자살 위험 등 교차 문제를 통합 관리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한다. 특히, 호주의

MindMatters 프로그램처럼 정서관리와 사회적 기술 훈련을 포함한 예방교육이 정규 교과 내에 포함될 경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동시에 강화되어 장기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와 인력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치료 접근성과 지역사회 기반 회복 프로그램이 대폭 향상될 것이다. 청소년 약물 문제의 특성상 초기 개입의 신속성과 회복 지원의 지속성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주요 기관의 청소년 전담기능을 확충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중독 상담사·사회복지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면, 청소년이 치료와 회복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지역 기반 재활 모델처럼, 치료 후 청소년이 다시 학업과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학교·지자체·복지기관이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회복과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건강과 연계된 통합적 예방 모델을 통해 약물 사용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기 개입이 가능해진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약물 남용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호기심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기존중감 등 정서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교육부의 위센터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연계된 정신건강-약물통합 클리닉 모델이 작동할 경우, 약물 사용 이전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약물 사용을 단순한 행위로 보지 않고, 정신건강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위험신호로 해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 SAMHSA(약물남용정신건강 서비스국)의 청소년 통합치료 프로그램 사례에서도,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병행한 집단의 재발률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정신건강 연계형 예방 모델은 단기적 중독 차단뿐 아니라 장기적 건강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효과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민간·지역사회 연계 협력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 보호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 약물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부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사회문제이므로, 민간·언론·기업·대학·NGO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력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약사회, 병원협회, 방송사, 포털 및 SNS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럼과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을 연계한 예방캠페인(예: ‘Drug Free Youth’ 캠페인)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 약물예방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The White House, 2021). 해외사례 연구에서 예시했듯이 독일의 국가중독전략(Drogen- und Suchtstrategie)이나 호주의 국가약

물전략(National Drug Strategy)처럼, 다부처·다기관 협력 체계를 법적 제도로 제도화하면, 청소년 약물 문제를 범죄나 도덕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 건강의 영역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촉진하고, 청소년이 약물 문제를 숨기거나 낙인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복 중심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본 제안은 국가-지자체-학교-전문기관-민간이 연계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청소년 약물 문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치료와 회복, 사회복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청소년 전 주기(예방-치료-재활-정신건강)를 하나로 묶는 상설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청소년은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움 속에서 회복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선순환적 예방 및 회복 생태계속에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에 전주기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유해약물 대응을 위한 전주기 전달체계 별 과제와 정책효과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V-4. 유해약물 대응을 위한 전주기 전달체계 별 과제와 정책효과

| 주요의제                      | 전달체계 별 과제                                       | 정책효과                                                                                                                                                                         |
|---------------------------|-------------------------------------------------|------------------------------------------------------------------------------------------------------------------------------------------------------------------------------|
| ① 통합 거버넌스 기반 다층적 전달 체계 구축 | 중앙-지방정부·교육청-전문 기관 간 상호연계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간 정책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li> <li>• 중앙과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 간 정책 조율 강화 및 전달체계 기관의 실행력 확보</li> <li>• 통합적 관리 및 운영 체계 제고</li> </ul> |
| ② 학교 기반 예방·조기 대응 강화       | 예방-정신건강-학교폭력·자살예방의 통합 교육체계 운영 기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약물 접근 차단 및 조기개입 가능성 향상</li> <li>• 교사·상담·보건 인력 협업으로 위기 즉시 대응</li> <li>• 교차 문제(중독·폭력·정신건강)의 동시 관리</li> </ul>                       |
| ③ 전문기관·인력 확충 및 회복 지원 강화   | 정신건강센터·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재활 지속성 확보</li> <li>• 지역 기반 회복·재활 프로그램 활성화</li> <li>• 학업 복귀·사회적 자립 지원 강화</li> </ul>                                 |
| ④ 정신건강 연계형 통합 예방 모델 구축    | 약물 오남용의 근본 원인(우울·불안·스트레스·가족 및 친구 관계 문제 등) 조기 개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요인 중심의 근본적 예방 실현</li> <li>• 정신건강-약물 통합 관리를 통한 재발률 감소</li> <li>• 장기적 건강관리 및 회복탄력성 등 사회정서 역량 증진</li> </ul>                         |
| ⑤ 공공·민간·지역사회 협력 강화        | 공공·민간-언론-기업 연계 거버넌스 제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li> <li>• 사회공헌(CSR) 기반 예방홍보 활동 활성화</li> <li>• 약물 문제를 공동체 공공의 정신 과제로 인식 확산</li> </ul>                     |
| 종합                        | 예방-치료-재활·복귀 전주기 선순환 체계 안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약물 문제의 근본적 예방과 회복 실현</li> <li>• 사회적 낙인 감소 및 공동체 회복 문화 확산</li> <li>• 지속가능한 국가 청소년 건강정책 기반 마련</li> </ul>                          |

유해약물 교육 역량 강화 과제로 첫째, 청소년 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 둘째,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셋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 2-1 학생 참여 중심 통합 예방 교육

### 제안 배경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반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또래 관계와의 갈등, 온라인 선정 자극에 대한 잦은 노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폭력, 따돌림, 흡연·음주·약물남용 등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근본에는 정서조절 능력 부족, 스트레스 관리 미숙, 또래 압력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공통된 원인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계획·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감정 인식, 조절, 공감, 대인관계 기술 등)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정서프로그램도 시도 단위에서 의무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몇몇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는 연 3~6회기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24.12.). 마찬가지로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도 법을 통해 의무화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교 보건교육과 안전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마약예방)은 보건교육 차원에서 단발적 교육이나 온라인 강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타 다른 교육과 달리 전문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약물사용이 불법 도박, 불법 촬영 등과 같은 신종 범죄와 청소년 성매매 범죄, 학교 폭력 등과의 결합하거나 확대되는 문제에 대하여도 중장기적인 교육 및 통합적 예방정책의 접근이 요구된다. 분리된 예방교육 진행 방식은 한정된 시간 내에 시간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학생 참여율 저조, 실질적 행동 변화 부족

등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과 유해약물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연계·운영하여, 학생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생활 밀착형 예방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 모델 구축을 통한 접근방식은 해외의 여러 사례에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① 미국의 Life Skills Training(LST) 프로그램은 자기통제력·대인관계 기술·문제 해결력등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약물 남용과 폭력 행동 감소(Botvin. et al., 2003).
- ② 캐나다의 Fourth R(Respect, Relationships, Responsibility) 프로그램은 관계 중심 학습을 강조, 폭력 예방과 함께 약물 사용 및 위험 행동 전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Temple, et al., 2021)
- ③ 호주의 MindMatters 프로그램 역시 정신건강, 약물 예방, 폭력 예방을 통합한 학교 기반 참여·체험·실천 중심 예방교육으로 긍정적 행동 변화와 청소년의 정서 안정 및 학교 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침.
- ④ 유럽연합(EU)은 학교폭력과 약물문제를 사회적 안전의 핵심 과제로 보고, 'Whole School Approach(학교 전체 접근법)'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BO·Oxford Wellbeing Centre,2025).
- ⑤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Positive Behaviour Support(PBS)'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예방 모델을 운영, 학생 개인의 행동 개선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Lekamge, et al., 2025)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모두 통합적 접근과 학생 참여 중심 학습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이라는 제도적 틀을 활용하여 유해약물예방교육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약물 남용은 다양한 사회·정서적 취약 및 대인관계 요인 등과 상호 연결된 위험 행동으로, 예방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통합운영 방식의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해약물예방교육을 여타 교육과 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방 효과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다.

**추진 내용**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사회정서 교육의 연간 의무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유해약물예방교육을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 예방교육이라는 틀로서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단순 정보 전달식 교육은 지양하고, 학생이 직접 체험·실천하는 참여·생활

밀착형 교육 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폭력과 약물의 상관성을 이해하고, 자기정서 조절과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켜 실제 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통합 예방교육의 핵심은 학생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인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에서 벗어나 체험형·참여형 학습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및 역할극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또래의 권유나 폭력적 상황, 약물 유혹 등 실제와 유사한 갈등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본다. 이러한 ‘상황기반 학습(situation-based learning)’은 단순한 지식 습득보다 감정·인지·행동의 통합적 학습 효과를 높인다. 미국의 Project ALERT 프로그램은 실제 또래 간 대화 상황을 기반으로 한 역할극을 통해 약물 거절 기술을 강화하고(Ellickson, et al., 1993), 캐나다 Fourth R 프로그램은 폭력 상황 속 의사소통·협상 기술을 체험 기반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함으로써 높은 효과를 보였다(CrimeSolutions.gov, 2012/2011).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생이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행동’을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함으로써 실제적 행동으로의 변화로 촉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나 또래 학생들이 함께 주도하는 캠페인형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교육의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홍보·실행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자기 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둘째, 프로그램 주제 선정 시 생활밀착형 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합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의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밀착형 주제 구성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예방교육은 추상적이거나 교과 외적 내용으로 인해 학생의 몰입도가 낮았던 반면, 본 프로그램은 학교생활·또래관계·온라인 환경 등 청소년이 실제로 마주하는 일상적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 속 스트레스와 유해약물’, ‘SNS상 폭력과 약물유혹’, ‘친구 관계 속 약물 거절 기술’ 등 학생이 직접 경험하는 문제 상황과 밀접하다. 이러한 현실 주제 중심 접근(Real-life Thematic Approach)은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습득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기 전향(self-transfer)으로 유도할 수 있다. 호주의 MindMatters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약물 문제뿐 아니라 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적응, 자기 존중감,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하는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였다.

셋째, 디지털 기반 예방 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Z세대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고려할 때, 디지털에 기반한 학습은 학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다. 학생 친화적인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과 참여 활동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형 학습 구조를 구성할 경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카드뉴스, 짧은 영상(숏폼), 웹툰, 인터랙티브 퀴즈, AR(증강현실)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약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한 부정적 결과를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다. AR 포스터를 통해 폭력·약물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거나, 모바일 앱 기반 ‘(가칭)약물 거절 미션 게임’을 통해 올바른 상황 대처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학습의 몰입도와 지속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학생이 스스로 재학습할 수 있는 확장된 학습 생태계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의 Digital Health Literacy Program 사례(Marsch, et al., 2020)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교육은 기존 강의식 교육보다 수업 참여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 기억 지속률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넷째, 또래 주도 학습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예방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중심의 단기 교육에서 벗어나 또래(peer) 주도적 학습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래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으로, 또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때 예방효과는 훨씬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미국의 Peer Education Program for Substance Prevention과 영국의 Buddy Support Scheme 사례에서는 또래 리더가 주도하는 예방활동이 교사 중심 교육보다 예방 행동 지속 기간이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Turner, et al., 1999). 또래 리더십 강화는 단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 문화를 조성하여 학교폭력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 예방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자율적 확산 구조(Self-sustaining Model)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표 V-5. 통합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방식,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추진주제             | 접근방식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
|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 설계 | 역할극, 캠페인, 시뮬레이션       | 실질적 행동 변화, 자기통제력 강화      |
| 생활밀착형 주제 선정      | 현실·현안 중심적 이슈   | SNS, 스트레스, 또래 갈등 관계 등 | 몰입도 향상, 실생활 적용성 확대       |
| 디지털 기반 학습 생태계 조성 | 시각적·인터랙티브 학습   | AR, 영상, 카드뉴스 등 활용     | 학습 흥미 증진, 지속적 참여 유도      |
| 또래 주도 학습구조 강화    | 학생 주도 확산 구조    | 또래 중심 프로그램·서포터즈 운영    | 장기적 예방효과 유지, 학교예방교육문화 개선 |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다수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통합 예방교육은 복합적 위험 행동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각의 예방 영역을 따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행동 변화의 전이 효과(spillover effect)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통합형 접근은 교육 현장의 관련 예방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상호 연계·통합된 운영을 통해 교육 시수의 중복을 줄이고, 서로 관련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해외 해외사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교 차원의 총체적 지속가능 예방 구조(Sustainable Whole-School Prevention Framework)”와 맥락을 같이한다. 학교의 생활지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및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연동된 체계로 작동할 때, 단편적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체험적 중심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학생 주도적·참여형 교육 방식은 해외 연구에서도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의 Project ALERT는 학생이 직접 토론, 역할극, 시뮬레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단순 강의식 교육보다 약물 및 폭력 인식 개선률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방식은 한국 청소년의 참여 성향과 맞물려 생활 밀착형, 실천 중심형 예방교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학교문화의 장기적 변화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 예방교육을 통해 단기적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는 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형 예방교육은 국가 차원의 청소년 건강정책 및 학교폭력예방정책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외의 선진 사례처럼,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제안은 학교폭력과 사회정서문제 그리고 유해약물이라는 다양한 청소년의 문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 예방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2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 제안 배경

최근 학교현장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노출 증가,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화, 학교폭력과 사이버 괴롭힘의 확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이 주요 통로로 확인되고 있다(대검찰청, 2025).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약물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불안·자존감 저하·또래 압력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긴밀히 얽혀 있는 사회정서적 문제로 진단된다. 이에 따라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의 교과교육을 넘어, 정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위기 대응 역량을 길러주는 가디언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양성체제는 이론과 교과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폭력예방·생활지도·정서지원·약물예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우지향, 한유나, 2024). 특히 교직의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예비교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직면할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구조적 한계로 평가된다. 예비교원들은 학생의 심리적 위기나 약물 유혹 상황에 대해 이론적 지식은 배우지만, 상담·개입·예방 프로그램 설계 등 실제적 대응 기술을 훈련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정서역량 및 사회성 증진 등 상담 관련 과목이 주로 이론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상담·예방프로그램 설계 등의 실천 역량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학교와 청소년 기관 모두에서 청소년의 위기 행동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천형 전문인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컨대, 호주의 MindMatters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지도자에게도 정신

건강 및 약물예방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OECD(2023) 또한, 교사와 청소년지도자가 모두 ‘Learning Guardian’, 즉 학습자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조력자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예비교원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유해약물 전문성 강화 교육은 단순한 보건교육의 확장이 아니라, 정서지원·폭력예방·생활지도·청소년상담·지역사회 연계 역량을 아우르는 통합형 역량 강화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추진 내용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의 유해약물 예방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생활지도 교육·사회정서역량 교육을 연계한 통합 강좌 구성 및 실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음의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교육과정의 통합 재구성이 필요하다. 예비교원 양성기관 내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이해」, 「생활지도 및 상담」, 「정서·관계역량교육」 등을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연계된 하나의 통합 또는 연계 모듈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지도사 양성기관에서도 청소년 상담 혹은 청소년 복지 교과 등에 유해약물 예방과 연계된 교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둘째, 참여형·실습형 적용이 가능한 교수 학습 형태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학습 구조 및 내용 약물 유해성이나 관련 내용만을 전달하는 구조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상황을 기반으로 상황인식 및 대응, 역할극, 토론 갈등 관계 개선, 위기대응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한다. 예컨대, 청소년이 또래에 의해 유해약물을 접촉할 상황을 설정하고, 거절기술 지도, 상담유도,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법 등을 실습하게 한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 청소년 지도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과 함께 직접 이를 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수행 매뉴얼의 개발과 보급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UNESCO가 교사 및 지도자를 위한 ‘Skills for Drug Education in Schools’ 매뉴얼(2009)에서 제안한 스스로 학생의 유해물질 관련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술, 상담 및 자원과 연계된 지식을 반영한다.

셋째, 현장 연계형 실습 및 지역기관 협업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이 필요하다. 예비교원 및 지도자가 이론 수업과 병행하여 현장 및 지역사회 약물 지원기관(위센터,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마약예방교육강사 양성기관, 보건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실습 및 사례형 학습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약물예방 교육에 관심이 있는 예비 청소년 지도자 대상 전문적인 현장 실습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약물사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제 상황에서 현장 대응 및 대처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다. 실습 경험을 통해 약물 사용과 관련된 전주기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방 지도안 및 현장 실습서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기초 실무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정서역량(SEL: Social Emotional Learning)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가 요구 된다. 학생의 정서조절, 또래관계 형성, 역량 및 회복탄력성 강화와 관련된 시수 단위를 포함시켜 '정서적 위협(스트레스·불안·우울) → 유해약물 접근 위험'이라는 경로를 이해하고 이를 지도·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한다. 다섯째, 디지털 및 멀티미디어 기반 유해 약물 예방 콘텐츠 활용을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향후 학교나 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약물·폭력·정서교육 콘텐츠를 수업지도안으로 직접 설계해보게 한다. 예컨대, 카드뉴스·짧은 영상·AR(증강현실) 체험형 자료 등을 제작하여 또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활동 등을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디지털 매체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과 청소년시설 모두에서 청소년의 위험 행동을 조기에 인식하고, 정서적 요인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지도·상담·연계가 가능한 포괄적 전문인력으로 양성 될 수 있다. 유해약물 예방 전문역량은 학교폭력, 정서지원, 생활교육과 분리된 별개 주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삶 전반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통합적 축으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다음의 표는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의 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연계 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V-6. 예비교원(청소년 지도자) 유해약물 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연계 방안

| 추진방향                  | 주요내용                                        | 세부추진방안                                                                                                                    |
|-----------------------|---------------------------------------------|---------------------------------------------------------------------------------------------------------------------------|
| 교육과정 통합 재구성           | 학교폭력예방·생활지도·정서<br>역량 교육을 연계한 통합 교직<br>모델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과목에 ‘유해약물 예방·정신건강’ 단위 포함</li> <li>• 공통과목 필수화 및 교육부 및 관련 학과 표준모델 제시</li> </ul> |
| 참여형·실습형 교수법<br>적용     | 사례 중심·역할극·위기대응<br>모의훈련 등 체험형 학습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현장 상황 기반 시뮬레이션</li> <li>• 청소년의 거절기술·상담유도·관계회복 실습 강화</li> </ul>                |
| 현장연계형 실습 및<br>협력 강화   | 위센터, 지역<br>청소년상담복지센터,<br>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실습·사례연구 병행</li> <li>• 학교-지역-기관 협업 체계 경험</li> </ul>                            |
| 사회정서역량(SEL)<br>강화     | 정서조절·회복탄력성·도래관<br>계 지도 역량 향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정서적 위험요인 조기 인식·대응</li> <li>• SEL 기반 약물유혹 대처교육 설계 역량 강화</li> </ul>           |
| 디지털 기반 예방교육<br>콘텐츠 개발 | 카드뉴스·영상·AR 등 미디어<br>활용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교원(지도자)의 디지털 교육 역량 향상</li> <li>• 청소년 친화적 예방홍보 콘텐츠 제작</li> </ul>                |

위에서 제시한 제안을 통한 다음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①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의 유해약물 예방 역량 강화 ② 정서역량 증진을 통한 학생(청소년)생활지도 품질 향상 ③ 약물, 폭력, 정서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한 현장의 대응력 강화 ④ 교원(지도자)양성기관과 학교-지역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V-7. 예비교원(청소년지도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통한 성과

| 기대요인               | 기대효과                           | 기대성과                                                                                                       |
|--------------------|--------------------------------|------------------------------------------------------------------------------------------------------------|
| 전문성 강화             | 예비교원(지도자)의 유해약물<br>예방·지도 역량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천형 예방자·상담자로 성장</li> <li>• 예방자·상담자로서 역할 수행 가능</li> </ul>          |
| 생활지도·정서지원<br>역량 향상 |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통합<br>지도 능력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적 상담·회복적 대화 능력 향상</li> <li>• 생활교육 중심 현장 문화 정착</li> </ul>        |
| 학교·청소년기관<br>대응력 강화 | 폭력·약물·정서문제 교차위기<br>통합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및 약물사례 조기 발견 및 개입</li> <li>• 다기관 협력 중심 위기대응 체계 강화</li> </ul> |
| 지역사회 협력 확대         | 학교·청소년기관·지역기관<br>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지속적 협력 구축</li> <li>• 지역 기반 예방 네트워크 활성화</li> </ul>      |
| 청소년 보호·문화<br>개선    | 건강한 생활지도 및 청소년<br>문화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약물·폭력 발생률 감소</li> <li>• 정서적 안정과 회복 중심의 문화 확산</li> </ul>         |

## 제안 배경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접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중고등학생들은 유해약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용이성’과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경각심 약화’ 등 디지털 환경 요인을 가장 먼저 지목하였다. 또한, ‘자극적 유희환경’과 ‘일시적 쾌락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 가치관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역시 유해약물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디어가 오늘날의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형성하고 전파하는 핵심 체계로 기능한다는 점(Gitlin, 1980)을 고려할 때, 청소년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해약물 확산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은 본 연구의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은 트위터(X),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해약물을 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화·드라마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거나, 왜곡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마른 몸매를 이상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자극 짤’ 등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왜곡된 미적 기준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체중감량 또는 자기관리 목적의 약물 사용 욕구를 강화하는 경향도 관찰되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유해약물을 접한 청소년들은 그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마초의 중독성이 낮다는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 접한 후 실제로 시도한 사례, 필로폰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영화 속 설정을 사실로 믿고 복용한 사례, 성인의 흡연·음주 장면을 ‘멋있다’거나 ‘재미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따라 하게 된 사례 등이 다수 보고되었다.

심층분석 결과 역시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미디어의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음주 및 흡연 장면에 자주 노출되고 있었고,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TV,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가 재현하는 음주·흡연 장면에 긍정적인 매력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 같은 음주·흡연 장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성은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긍정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스마트폰 및 SNS에 대한 집착 성향 또한 마약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왜곡된 미디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소비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의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되거나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자극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건강·뷰티 관련 콘텐츠 이용이 증가할수록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부정적 외모 대화(negative appearance talk)를 더 자주 나누게 되며, 이는 마른 몸매의 이상화와 자기 신체에 대한 비교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셜미디어 속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와의 지속적인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이상의·이숙정, 2019). 유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활동(게임, SNS, OTT 등) 중에서도 특히 SNS 이용 시간만이, 중·고등학생의 ‘나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불법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Bai, 2024)도 존재한다. 이는 SNS가 또래 집단과의 실시간 비교와 외모에 대한 평가·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환경을 제공하고 왜곡된 신체적 미의 기준을 내재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SNS는 ‘이상화된 이미지에 노출되고 소비되는 공간’으로, 외모와 관련된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와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 추진 내용

왜곡된 가치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은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명확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단순히 미디어가 전달하는 콘텐츠 및 정보에 접근하고 수용하는 일상적 소비 차원을 넘어, 미디어가 메시지를 구성하고 의미를 재현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생애 최초 미디어 사용 시기가 저연령화되면서, 청소년은 무분별한 정보 소비로 인한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위험이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불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동시에 미디어의 순기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청소년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미디어 프로슈머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다음의 해외 사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유해약물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들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정책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대표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관인 MediaSmarts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알코올 마케팅을 분석·비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 숏 브랜드 웹사이트와 SNS 광고 등을 직접 분석하며, 청소년이 광고 속 설득 전략, 청소년 유도 요소, 누락된 위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순한 경고 중심 교육이 아니라 실제 미디어 환경에서 작동하는 마케팅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존 약물 예방 교육과 차별화된다.

(캐나다 MediaSmarts)

미국의 미디어 메시지 분석 기반 예방 프로그램인 'Media Detective'는 초등학교의 미디어 메시지 비판적 해석 능력 향상을 통해 담배·주류 사용 의도 감소를 목표로 개발된 10차시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예방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학생은 알코올 브랜드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기존에 음주·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추가 사용 의도가 낮아지고 거절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유해약물 관련 인지가 충분히 변화 가능하며, Media Detective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접근이 보편적 예방뿐 아니라 고위험군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Kupersmidt et al. 2010)

이탈리아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기반 성능·외모 향상 약물(PAESs: Performance & Appearance Enhancing Substances) 예방 프로그램이 실제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디어가 전파하는 도핑 및 체형 미화 메시지를 분석하고, PAES 사용의 사회적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효과성 검증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핑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감소하고, 합법 보충제(legal PAESs) 실제 사용을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등학교 또한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도록 개입할 경우, 약물 관련 인식과 행동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이 PAES와 같이 외모·성공 중심 약물 사용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탈리아 Lucidi et al., 2017)



앞서 살핀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단순한 강의식 지식 전달만으로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위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미디어 기반 위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유해약물을 포함한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와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유해약물 관련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안팎을 포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교사와 청소년지도사 등 현장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 연수 및 인증 체계를 제도화하고, 학교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접점 기관의 지도자까지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 교육 효과가 입증된 MediaSmarts(캐나다), Media Detective(미국) 등과 같은 참여형·비판적 분석 기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연령별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예방교육 모듈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전달 콘텐츠가 아닌 SNS 알고리즘, 광고 전략, 미디어 기업 및 플랫폼 기업의 수익창출 메커니즘 등 실제 청소년이 마주하는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대응 역량을 키우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더불어 정규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교육 시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뿐 아니라 교과 연계형 모델로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재학생에 한정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기관과의 연계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학부모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및 온라인 기반 가정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초기 미디어 습관 형성과 가치관 형성 단계에서부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보호 및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학교교육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 교육법 제정은 2007년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총 8차례 추진되었음에도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5). 한편, 2025년 10월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2025년 1월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 수 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5).

이 중 가장 최근인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조항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존 법률은 학교에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을 두고 있었으나,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의무나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교육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문화체육부 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내용을 유아·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학교 현장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법적 의무에 기반한 체계적 교육으로 안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학령기 청소년을 넘어 영유아기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고령층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디어교육 역시 생애주기 맞춤형 체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가칭 「미디어교육 활성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유해약물을 포함한 디지털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략을 총괄적으로 조정·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첫째, 과학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둘째, 유해약물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셋째,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을 제안하였다.

### 3-1 과학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

#### 제안 배경

연구조사를 통해 청소년 마약류범죄 증가폭이 크고 향정사범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는 특성 등이 파악되고 있으나 청소년 마약류범죄 특성은 아직 베일에 가려진 영역이 많다.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실태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파악을 통해 근거기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김남희, 이선형, Weisheit 외, 2023). 청소년 마약사범의 재범률과 치료적 개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단위 표준화된 통계체계가 필요하며, 현행 범죄통계와 의료기록, 상담기관 데이터를 통합한 ‘약물사용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김남희 외, 2024).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 약물 문제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국가 단위 데이터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거나 사법, 보건, 복지 영역별로 단편적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부처 간 연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 약물 관련 종합적 데이터 부재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부족, 대응 정책의 일관성 결여, 예방·치료·재활 정책의 분절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단위의 과학적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은 Monitoring the Future(MTF)와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NSDUH)를 통해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 인식, 환경요인을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국가마약통제정책청(ONDCP)의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근거로 활용된다. 호주는 3년마다 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NDSHS)를 기반으로 약물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 있다. 청소년 약물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책 수립의 핵심은 데이터의 일관성, 연속성,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소년 약물 정책을 단속과 대응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추진 내용

청소년 약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조사체계와 통합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예방-조기경보-치료-회복지원에 이르는 전 주기적 데이터 연계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통계정비를 넘어, 청소년 약물정책을 증거기반(Evidence-based Policy)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학적 인프라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처와 기관에서 산재된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안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설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 청소년약물데이터 통합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센터가 약물 사용 실태, 범죄동향, 치료 및 상담 이력, 학교 내 예방교육 현황 등을 종합 관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향후 청소년 약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평가, 예산 배분, 연구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며, 국가 차원의 상시모니터링 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청소년 약물 실태조사 체계를 정례화한다. 교육청 단위 학교조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조사, 경찰·법무부 사법 통계, 복지부 의료치료 통계 등을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종합조사체계를 마련한다. 조사 내용은 약물의 종류와 사용 동기, 횟수, 접근 경로뿐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 또래관계, 온라인 노출 등 심리사회적 요인까지 포함하고, 동일한 항목으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약물 문제의 추세를 과학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지역 기반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각 시도별로 청소년 약물 예방 및 대응센터를 지정하고, 현장 중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역노드(Node) 형태의 분산형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한다. 이들은 지역 내 학교, 보건소, 상담센터, 경찰서, NGO 등에서 발생하는 약물 관련 사건과 상담, 치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중앙 데이터 허브로 전송한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데이터 수집 방식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중앙정부의 대응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나아가 지역센터는 정성적 자료(사례연구, 인터뷰, 학교 내 위험요인 조사)도 병행하여, 통계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청소년

약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해석하는 질적 데이터 축적 기능도 담당한다.

셋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및 예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 약물사용의 경로, 재범률, 치료성과, 사회복귀율 등 주요 지표를 머신러닝 기반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경보(Early Warning System)를 고도화한다. 예컨대 SNS 텍스트 분석이나 약물 관련 검색 트렌드 데이터를 결합하여 온라인 확산조짐을 조기 탐지할 수 있으며, 학교별·지역별 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지표는 교육부의 예방예산 편성, 복지부의 치료자원 배분, 법무부의 사법정책 등에 의사결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과관리 지표를 정립한다. 독일의 사전효과 검증제도처럼 모든 청소년 약물 관련 사업은 추진 전 단계에서 ‘근거자료 검증(Evidence Review)’을 거치고, 추진 후에는 통합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효과(사용률 변화, 재범률 감소, 치료율 향상 등)를 정량 평가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예산 조정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류한다. 연구기관·대학·비영리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포털을 구축하여, 청소년 약물 예방 연구와 정책 평가가 민간 차원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사회적 캠페인과 예방교육으로 확산시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식제고와 청소년 보호문화 형성을 도모한다.

과학적 기초 데이터 구축은 청소년 약물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경험적 추정이 아닌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Data-driven Governance) 체계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도록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빅데이터 분석은 중요한 데이터 구축생산 작업의 하나이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 전 과정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보고 입력 편의성을 높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그림 V-1], [그림 V-2]).<sup>21)</sup>

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현황 파악을 통해 위험군을 예측하거나 지역별, 연령대별, 회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김남희, 이선형, Weisheit, 2023). 구체적으로 처방량, 처방건 등에 추가로 품목허가사항, 안전사용기준 등을 벗어난 처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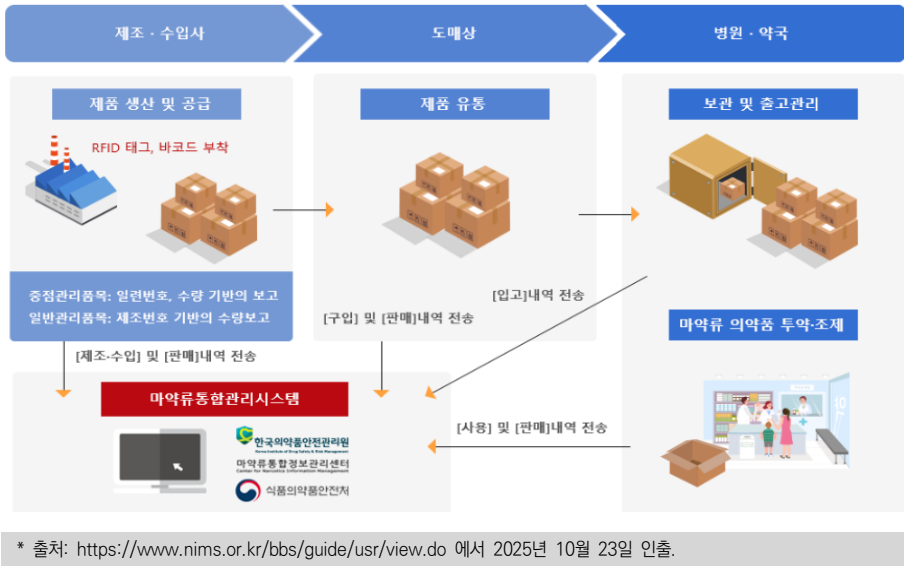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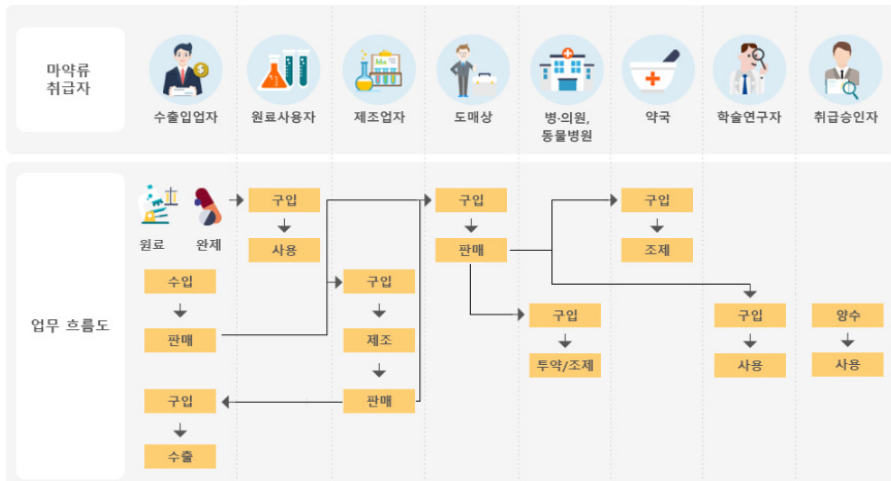


그림 V-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 : 마약류 취급업무 흐름도



\* 출처: <https://www.nims.or.kr/bbs/guide/usr/view.do> 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그림 V-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반복 또는 지속 등 종합적·전반적 처방사례 분석, 청소년 등 젊은층 대상 오남용 의심사례 집중 점검, 의사 셀프처방을 통한 오남용 의심 사례 점검 등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고도화 및 집중화가 가능하다(관계부처 합동, 2024.3.: 50).

한편 2024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최초로 전국단위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기초 연구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설계되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연구제목 :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시범조사, 연구책임 : 장옥진).<sup>22)</sup> 또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해 약물 관련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도록 한다. 청소년 마약 실태 패널 구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일반 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분리 표집하고 연 1회 여러 영역(행동, 정신건강, 디지털 노출, 처방, 압수물 접촉 등)에 대해 추적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던 연령의 하향화나 항정신성의약품의 비중 확대 그리고 신종 합성 마약의 확산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약물관련 다양한 양상과 의미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하는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 대시보드의 가동으로 해당 데이터를 통해 단속, 압수, 처방, 학교에서의 징후(Red Flag), 플랫폼 광고 차단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3-2 유해약물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제안 배경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면접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도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도움요청 경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보호자나 부모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마약류 범죄에 이차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경험에 기반해 보면, 청소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범죄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범죄심각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에게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및 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원활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부모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녀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또는 마약에 대해 질문하거나 관련 내용을 언급할 때 자녀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약예방교육은 청소년에 앞서 부모 또는 교사, 주변 어른들에게 더욱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들은 마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코카인, LSD 등 강성마약은 ‘너무 마약같이’ 느껴져서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대마,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마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대마, 엑스터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청소년도 있었다. 마약의 종류와 유해한 효과와 증세, 마약의 불법성과 처벌 기준 등도 청소년 약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므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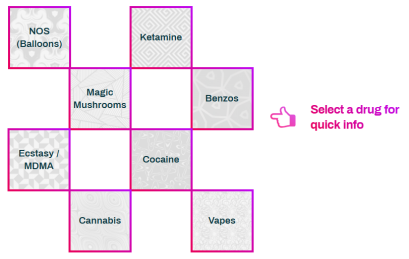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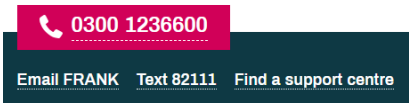
#### 추진 내용

정부는 청소년들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 비대면, 익명 등 다채널 상담장치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경로에 노출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면접 사례 중 ‘몰리’라는 마약 이름을 처음 듣고 궁금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그램의 마약소통방 채널을 이용했다는 진술 내용이 있었다. 마약류의 약효나 치사량에 대한 정보를 마약소통방에 물어보면 마약류에 호의적인 편향된 정보만 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일원화된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영국 ‘FRANK’는 마약에 대한 질문, 상담을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FRANK는 영국 보건부에서 운영하는데, 마약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마약류 사용 폐해, 치료기관 정보까지 심플한 웹디자인으로 제공해 준다. FRANK는 자체 홈페이지 이외에 정신건강, 중독과 관련한 다양한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표 V-8. 영국 마약류 정보 제공 사이트, 'talk to Frank' 사례

| 내용                                                                                  | 설명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ANK 홈페이지 첫 화면</li> <li>• 약물에 대한 솔직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설명</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에 대한 위험 경고</li> <li>• 간단한 화면 구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가 되는 주요 마약류를 첫 화면에 구성</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물에 대한 주요 뉴스, 축제에서 주의 사항 등 안내</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자녀, 부모에게 약물문제가 있을 때, 또래 압력을 느낄 때, 응급상황일 때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대처법 안내</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화, 이메일, 채팅 안내</li> <li>• 지원기관 검색 안내</li> </ul>                              |

\* 출처: Frank. <http://talktofrank.com> 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와 마약류 관련 불법성과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종합정보가 서비스될 필요가 있다.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대마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청소년들의 대마사용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대마나 엑스터시 등을 마약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기제로 작동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대마나 엑스터시, 그외 클럽마약에 대해 미온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객관적 정보에 기반한 정보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이 안내하는 정보에는 마약류에 대한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마약류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대마 투약 시 기본 1년 ~ 2년 6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sup>23)</sup> 면접 참여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한 ‘브랙’은 액상형 합성대마로 이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한다.<sup>24)</sup>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은 대마보다 형량이 높아 기본 1년 ~ 4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합성대마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 기본 5년 ~ 9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러한 법적 처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청소년은 외국에서 대마초 사용이 용인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 국내에서 마약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마약에 대한 일반 정보, 약효에 초점화한 예방교육보다 마약류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마약류범죄에 연루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교육도 유용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청소년들이 유해약물과 관령하여 궁급하거나 필요할 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1342 용기 한걸음센터’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을 통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병원 등), ‘함께 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어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 제공 형태와 내용, 시스템 운영 면에서 보다 청소년 친화적 방법과 전략을

23) 대법원 양형위원회 (n.d.). 마약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tic\\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tic_01.jsp)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24)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pp.19-21.

수립하여 청소년의 관심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약물 초기 단계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의 약물 예방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3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 제안 배경

변화하는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사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면접대상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홍대 음악 클럽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한 브랙, 액상 합성대마 흡입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선의 전자담배 판매처에서는 특정 전자담배기기가 액상대마 흡입에 사용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 위와 같은 청소년의 피드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과제는 단순히 홍대음악클럽을 단속해야 한다거나, 특정 전자담배기기 구입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다.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오가는 곳에서 마약류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며 현장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추진 내용

미국의 NDEWS(National Drug Early Warning System)은 전국 17개 주요 거점 지역에서 매월 주말, 클럽 등 약물사용이 빈번한 특정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Rapid Street Reporting(RSR)'<sup>25)</sup>을 발간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직접 대면으로 진행하며 설문 참여자 동의를 얻어 모발 검사 등도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최근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 정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보고서를 발행하여 대중에게 신종합성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2025년 8월 15-17일 간 덴버에서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최근 자료로 게시되었다. RSR은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례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현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본인의 약물사용에 대한 경험을 응답하기에

25) NDEWS (2025.9.17.). National Drug Early Warning System, Rapid Street Reporting. (2025.9.17.). <https://ndews.org/novel-surveillance/rapid-street-reporting/>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NDEWS는 또한 'Reddit'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약물 관련 주제 내용을 분석하고 신종합성마약 조기감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신종마약 정보 모니터링 강화<sup>26)</sup>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UNODC 등 국제기구가 이미 구축해 놓은 조기경보시스템 활용에 기반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지 실시간 탐색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신속한 현장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 역시 느리다. 그러다 보니 면접대상자인 한 청소년의 사례처럼 보호관찰을 받으러 가는 길에 신종합성마약 브랙을 흡입하며 가도 약물검사키트에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탐색 및 보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불법·신종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하수역학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2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였다.<sup>27)</sup> 약 10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역학 조사는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체계 중 하나로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 지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하수역학 조사는 사후 조사의 성격이 강하여 시의성과 현장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약류 문제에 즉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종마약류 유입이 가장 빠른 청년과 청소년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중심 신속 조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하수역학 조사처럼 법제화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26) 관계부처합동 (2024.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과제별 '25년 세부 이행계획. 과제1-3-6. 해외 신종마약류 정보수집 역량 강화.

2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7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2024.2.6. 신설]

유해약물 유형별 법·제도 개선 과제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전자담배 및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법·제도 개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법·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약물 유통·접근 차단을 제안하였다.

#### 4-1 전자담배 및 고카페인에 대한 법제도 개선

##### 제안 배경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4.4%에서 3.6%로 줄어들었으나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4년 3.0%로 증가하고(2020년 1.9%),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율도 1.1%에서 1.9%로 상승하면서 청소년 금연정책 대상을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5).

연초 흡연을 하는 성인에게는 전자담배가 흡연을 감소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청소년 및 청년에게는 그와 반대로 흡연(연초)으로 넘어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Golder, et al., 2025). 연구에 의하면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연을 하게 될 가능성은 전자담배 비사용자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는 마리화나를 사용할 확률이 최소 2.7배에서 최대 6.0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담배가 마리화나 사용에 관문 작용(gateway effect)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전자담배가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것 역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Breitbarth, Morgan & Jones, 2018). 관련 조사에 의하면, 전자담배로 기호용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39.5%로 조사되었고, 마리화나 사용이 18.0%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전자담배의 일상적 유통은 청소년들에게 불법약물의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언급했듯이 본인확인 의무화, 거래 단계별 연령확인 의무화, 오프라인 신분증 스캔 및 안면대조 등의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규제는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 국가들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sup>28)</sup>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변국들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였고<sup>29)</sup>, 영국과 호주 등도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위험성을 경고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sup>30)31)</sup> 청소년의 건강과 마약류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추진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면접 대상 청소년 대부분도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어디서든 몰래 피우기 용이하고 다양한 종류의 향이 있어 고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다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의 틈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경우 건강상 부작용이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잠을 줄이거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주3회 이상 고카페인음료 섭취율은 전체 23.5%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게 나타났다(고3은 35.3%)(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3개를 마시기도 하고 공부를 위해 인터넷으로 카페인 알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 건강 대책이 필요하다.

## 추진 내용

전자담배 액상은 연초의 잎에서 유래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등 규제 등에서

28) WHO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20.2.24.). E-Cigarette Ban & Regulation: Global Status as of February 2020. ※ 2020년 2월 기준 41개국 이 전자담배 판매 금지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kh/TIInterference/e-cigarette-ban-regulation-global-status-february-2020> 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29) Donahue, T. (2025.8.4.). Vaping Rules Vary Across Southeast Asia. Tobacco Asia. Tabaco Asia.  
<https://www.tobaccoasia.com/features/vaping-rules-vary-across-southeast-asia/> 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3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last updated 25.6.23.). About vaping and e-cigarettes. ※ 2024.7.1.부터 모든 전자담배는 약국에서만 판매(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 불법)  
<https://www.health.gov.au/topics/smoking-vaping-and-tobacco/about-vaping>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31) GOV.UK. (2025.5.31.). Single-use vapes banned form 1 June 200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ingle-use-vapes-banned-from-1-june-2025>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배제되어 청소년 흡연을 상승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안이유).

다행히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9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되고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2025.12.23. 개정, 2026.4.24. 시행).<sup>32)</sup>

한편 현재 청소년 보호법 및 하위 행정규칙에 따라 전자담배 구성품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 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매장에서는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무인 판매점 내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신분증 도용 등 성인인증 절차의 허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5: 298). 그 외 가향담배 규제 관련 실질적 방안,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법안, 전자담배기기 등에도 흡연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다양한 담배 유형의 출현으로 금연예방·지원사업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V-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규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br>-----.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 1.-----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br>-----<br>----- 다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예외로 한다. |

\*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suggestBillPage.do> 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32)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으로 2016년부터 매년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24년 합성니코틴도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매경이코노미, 2025.9.23.).

고카페인 음료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2018년부터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비롯하여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했고, 2021년에는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와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표시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식품의 학교 판매 제한과 주의 문구 표시를 확대하고 카페인 섭취 줄이기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학교만 나서면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판매 제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성장저해, 비만, 중독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면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발의된 적도 있었고 영국은 16세 미만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중단하기로 하였다(이지연, 하형석, 박지수, 2024). 본 연구 일환으로 실시한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결과 57.8%(여학생 67.0%, 남학생 51.0%)가 시험공부와 과제를 하느라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판매량 제한 기준이 없어 원하는대로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 시 카페인 함량, 음료 개수, 연령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적 판매를 하도록 하고, 부작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문구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4-2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법제도 개선

##### 제안 배경

본 연구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치료목적이 아닌 용도로 처방 약물을 사용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진해거담제·기침억제제 2.7%, 마취제 1.2%, 신경안정제·항불안제 0.8%, ADHD 치료제 0.8%, 수면제 0.7%, 마약성 진통제 0.5%, 식욕억제제 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 ADHD 치료제 10.8%, 수면제 8.1%, 진해거담제·기침억제제 6.4%, 신경안정제·항불안제 5.4%, 식욕억제제 4.7% 등의 경험을 보였다. 한편 면접대상자인 한 고등학교 여학생은 감기약류를 과다 복용하거나 다른 음료와 섞어마시면서 환각 경험을 하고 중독이 되어 끊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용 약은 처방을 해주는 병원을 알아놓거나 해외 직구를 하여 택배로 받거나 X(트위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와 처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펜타닐 등 진통제



처방량은 2022년 대비 9.5% 감소한 반면,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는 58.4% 증가하였다. 특히 텔레그램 등 37개의 SNS 조사를 통해 ADHD 치료제 거래방에서 본인 복용을 위해 처방받은 약을 일부 불법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손도난분실 사고나 의료쇼핑·셀프 처방 등 불법 유통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용 약이 환자가 필요한 경우만 처방투약받을 수 있게 관리시스템을 구축, 강화할 필요가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5.3).

정부는 2025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이행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제우편, 특송화물, 해외여행 등으로 국내 유입기회가 증가하고 비대면 플랫폼(텔레그램, 다크웹 등) 발달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었다고 보인다.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아진 상황이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박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집중 감시,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 확대(‘24년 펜타닐 → ’25년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시 처방을 거부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등의 제도가 도입 및 준비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5.1.).

#### 추진 내용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약물 복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부작용과 폐해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자발적 중단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전적 및 사후적 성격의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촘촘하게 감시·관리함으로써 오남용 방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보호자 알림, 복약 코칭, 잔량 회수 등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오남용 취약군이 되는 약물(다이어트약, ADHD 치료제 등)이나 감기약(진해거담제 등)까지도 구분하여 처방 과정에서 위험상황이 관리·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다기관 다중처방 약용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처방이나 조제에 대해 이중경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형 처방약 감시 프로그램(PDMP: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일 성분 동일 효능군 다중처방에 대해서 패턴을 감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약국 POS 자동경보를 연동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알림이나 의사 상담 연결을 기본값으로 둘 수 있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마약류 관리대책 일환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검토논의되고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 준비 등 적극적인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관계 부처 합동, 2025.1.; 관계부처 합동, 2025.3.). 기존에 환자가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던 의료형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두어 의료용 마약류 사용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2025년 도입 계획). 한편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효성을 위해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과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견된 마약류 오남용 분석을 위해 식약처장이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이 구축 완료되면 중복과다처방, 셀프처방 등 의심사례를 비롯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약물 및 마약류 남용 관련 세부정보가 정확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령대와 관련된 세분화된 정보 수집분석 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 4-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약물 유통·접근 차단

##### 제안 배경

본 연구에서 마약류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6개월 이내 가장 많이 사용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33.3%, 메스암페타민 33.3%, 대마초·마리화나

16.7%, 엑스터리시 16.7% 순이었고, 마약류 인지 경로는 텔레그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또래 33.3%,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16.7% 순이었다. 마약류 구입 경로는 텔레그램이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또는 또래 16.7%, 텔레그램 외의 소셜미디어(SNS) 16.7% 순이었다. 경험한 사례수가 많지 않아 비율은 유의하여 참고하더라도 마약류의 인지 및 구입 경로가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인 것을 볼 수 있듯이 마약류 관련 정보와 구매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도 유해약물 관련 정보와 구매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다.

### 추진 내용

의료 및 유통 경로에서의 조기 차단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과 선별·간단개입·치료연계(SBIRT)는 청소년 의료용 마약 노출을 예방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PDMP는 의료용 마약 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며, SBIRT는 선별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조기에 치료로 연결하는 통합형 모델이다. 이 제도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청소년 처방약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 보건교사와 지역 의료기관이 연계된 SBIRT 시범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자 처방의 윤리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합법적 의료 경로를 통한 약물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이정혁, 강동욱, 2018).

온라인 유통시 광고 등에 대한 문제로 AI 기반 노출되는 불법상품에 대한 광고의 차단과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상시 모니터링 의무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범 국가적 관리 체계를 두고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면접대상 청소년의 대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유해약물 정보를 얻고 불법구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식약처의 ‘AI 캡스’,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보다 고도화하고 대상을 확대 및 활성화함으로써 마약류 유통 차단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범죄집단)의 해석에 있어서 온라인 조직 유통에 대해 명시하여

사건 처리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거래나 던지기, 무인택배함을 이용한 거래 등 특별 가중사유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마약류 수사는 공조체계로 이루어져 합동 및 나아가 국제협력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청소년 마약류 수사와 관련해서는 첫째, 온라인 유통에 합동수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택배사, 카드사 등 다양한 협력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유통과정에서 합동으로 사건처리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나 우편물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 거래 추적과 압수 그리고 자금 차단 등을 통해 청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조직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지역 거점에 '던지기'에 대한 신속대응이 요구된다. 학교 주변 드롭존에 대해 핫스팟 지도를 만들고 현행 PreCASS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면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핫스팟 지도를 지역 주민이 이용가능한 제보앱을 개발해 유통하고 연동하는 과정에서 신고절차도 손쉽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자주 등장한 용어는 '불법 아르바이트'로 마약과 관련된 자의든 타의든 가담하는 형태의 돈벌이 수단으로도 청소년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청소년 알바 모집 문구나 텔레그램 리크루팅에 대해 패턴화된 탐지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실효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더 나아가 국제공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우편, 특송 통관 등 다양한 유통과정이 국제사회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해외 플랫폼이나 거래소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와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뿐만 아니라 가중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유인하거나 온라인 상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청소년 치유·회복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첫째,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둘째, 청소년 전담 치유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였다.

### 5-1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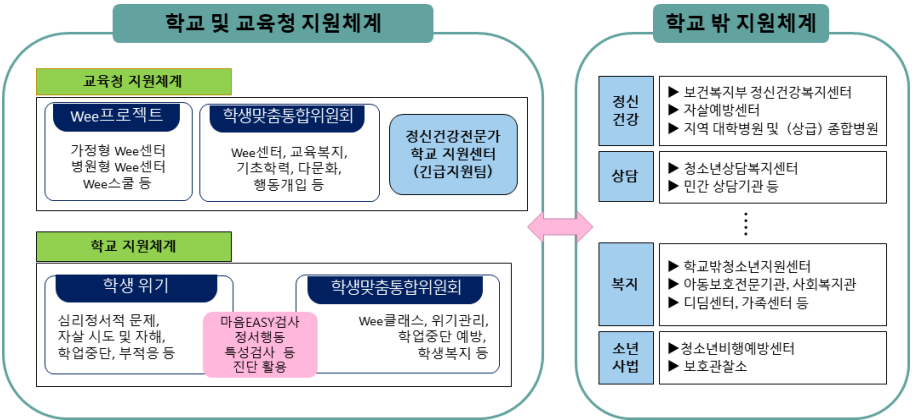
마음건강이 취약하고 정신건강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해약물에 의존하거나 바깥의 무언가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약물 의존 경험이 있는 면접대상 청소년의 많은 경우 우울감이나 자존감 결여, 학교에서 왕따나 괴롭힘 등의 경험이 있거나 친한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생활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거나 가정에서 부모님과 유대관계도 긴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로 위(Wee) 프로젝트가 있다. 학교 상담실인 위(Wee)클래스, 2차 안전망인 교육(지원)청 단위의 위(Wee)센터, 지역사회 3차 안전망으로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등의 학교상담 자원이 교육체계 내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평등가족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복지부)가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체계가 약물 관련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친사회적 행동, 규범 인식, 생활기술, 효능감, 대처능력 등 청소년의 내적인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전체 시스템이 약물중독이나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통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진 내용

교육부의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체계로서 위(Wee)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향한다. 학생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며, 선별검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춰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로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마음건강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위(Wee)클래스는 학교에서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1차 안전망으로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소속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기관이다. 2차 안전망인 위(Wee) 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단위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3차 안전망은 지역자원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등이다. 위(Wee) 스쿨은 고위험 학생 대상 중장기적인 치유교육을 제공하는 (위탁)교육시설로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등의 형태로 직영·위탁으로 운영한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학생에 대한 정서적지지, 생활환경 제공 및 보호, 상담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가정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중장기 위탁기관이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고위험 학생 대상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치료 위탁기관이다(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청소년의 심라정서 지원 수요와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해환경에 접촉하고 의존하기 전에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처: 교육부(2024.12).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p.15.

그림 V-7.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안)

예방-발견-치유-회복 등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과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회정서역량 등 마음돌봄 역량 강화, 상시검사로 위기징후의 조기 발견, 위기상황별 맞춤 상담, 치유회복지원,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 치료·교육 위탁기관 확대 등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4.8.). 청소년이 가정 내 갈등, 친구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고민이 있을 때, 위(Wee) 클래스와 같은 학교 내 상담시스템이나 학교밖의 상담망(문자상담 다들어줄게, 전화상담 109, 청소년상담 1388, SNS 상담 ‘라임’ 등)을 떠올리고 유해환경보다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상태가 궁금할 때는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 센터나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에서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을 마음을 들여다 보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어 다양한 마음건강 서비스 홍보도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상담 분야에서 약물과 마약류 중독 관련 이해와 상담방법에 대한 연구 및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8.).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p.13

그림 V-8. 예방-발견-치유-회복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한편 청소년기 마약류사용 경험이 있는 청년 4명을 심층면접에 참여했는데, 이중 2명은 재활과 회복과정을 밟으며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약류 사용 경험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삶에 대한 애착’과 ‘돌이킴’이 있었다. 미래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동년배 친구들처럼 일상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며 ‘돌이킴’의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명의 면접참여자 각기 다른 경험을 했듯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경로에서 정부,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마약류 사용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청소년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유럽 EUDA(European Union Drugs Agency)는 마약류 예방 프로그램 모범사례 포털(Best practice portal)을 운영하며 근거기반 예방프로그램 레지스트리 ‘엑스체인지(Xchange)’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 규범 인식, 생활기술, 효능감, 대처능력 등 청소년의 내적인 힘을 기르는 프로그램들이 유용한 프로그램들로 소개되고 있다.



표 V-10. 유럽 EUDA 모범사례 레지스트리 ‘Xchange’ 사례

내용

Search for programmes

Search

By age group

By setting

By outcomes targeted

By risk factor

Country

Xchange rating

Enter

- Any -

- Any -

- Any -

- Any -

- Any -

Beneficial

Apply

Reset

| Programme title                                                                                                                               | Date added | European countries where evaluated                               | Xchange rating |
|-----------------------------------------------------------------------------------------------------------------------------------------------|------------|------------------------------------------------------------------|----------------|
| <a href="#">Good Behaviour Game (GBG) - group-contingent positive reinforcement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ur</a>                         | 12.11.2024 | Belgium, Netherlands, Ireland, United Kingdom, Estonia           | Beneficial     |
| <a href="#">Unplugged - a Comprehensive Social Influence programme for schools: life skills training with correction of normative beliefs</a> | 12.11.2024 | Austria, Belgium, Czechia, Germany, Italy, Spain, Sweden, France | Beneficial     |
| <a href="#">BE smokeFREE - enhance students' self-efficacy to help them cope with social pressure in school</a>                               | 03.12.2019 | Norway                                                           | Beneficial     |
| <a href="#">Coping Power/Utrecht Coping Power (CPP) - an indicated programme for children with disruptive behaviour</a>                       | 18.10.2017 | Italy, Netherlands                                               | Beneficial     |
| <a href="#">A Stop Smoking in Schools Trial (ASSIST) - an educational, peer-led programme to promote non-smoking</a>                          | 18.10.2017 | United Kingdom                                                   | Beneficial     |

Unplugged - a Comprehensive Social Influence programme for schools: life skills training with correction of normative beliefs

At a glance

Country of origin  
Italy

Last reviewed:  
12.11.2024

Age group

Target group

Programme setting(s)

11-14 years

Children aged 12-14 years

School

Overview of results from the European studies

Studies overview

Evidence rating

The programme has been evaluated in a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RCT) involving children aged 12-14 years in several European countries: Austria, Belgium, Germany, Greece, Italy, Spain and Sweden (Caria et al., 2010; Faggiano et al., 2007, 2008, 2010; Giannotta et al., 2014; Vigna-Taglianti et

Beneficial

About Xchange ratings

설명

- Xchange 예방 프로그램 레지스트리 검색창
- 연령대, 대상, 문제영역, 위험 요인, 활용 국가, Xchange 평가 게시

- 프로그램 선택시 관련 내용 요약, 근거기반 제공
- 프로그램에서 타겟팅하는 보호요인, 위험요인, 성과목표 등 프로그램 특성 소개
- 프로그램 담당자 연락처 제공

\* 출처: EUDA(European Union Drugs Agency. 'Best practice portal' [https://www.euda.europa.eu/best-practice\\_en](https://www.euda.europa.eu/best-practice_en) 에서 2025년 10월 2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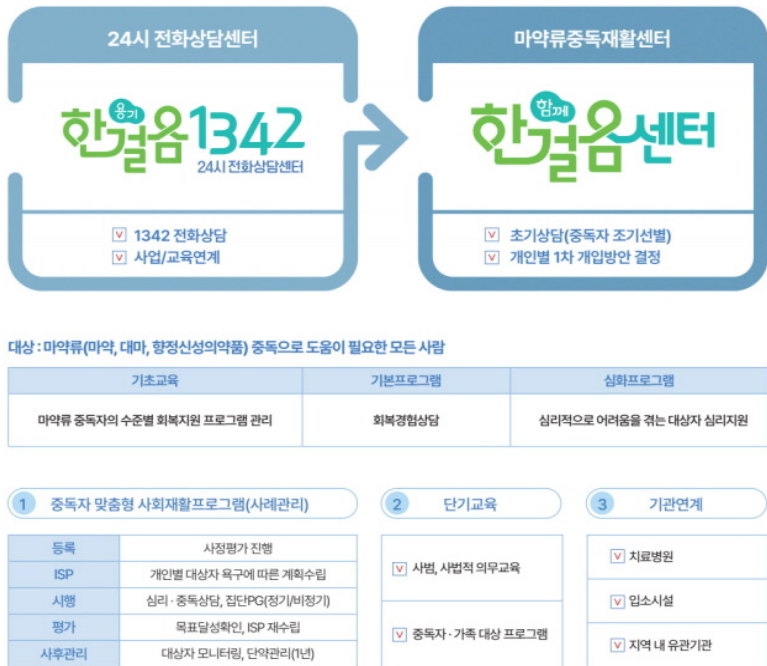
## 제안 배경

약물 중독 청소년, 다양한 유해환경과 유해물질 관련 상황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해진 청소년들에게는 치료,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특성에 맞는 개인 중심 치료상담이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치료보호제도는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지원을 위한 국가제도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면접대상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치료보호제도를 중독치료의 목적보다는 무료로 정신과약물을 처방받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치료보호제도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하면 제도 운영에 미비점이 발견된다. 물론 꾸준히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며 치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일차 목표는 마약류중독의 치료회복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말 기준 전국 31개가 운영되고 있다(대검찰청, 2025: 279). 이중 실제로 마약중독치료가 가능한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성인이 이용대상이다. 청소년은 발달론적 특성상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인 마약류 사범이 주로 이용하는 치료보호기관을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거나, 청소년이 집단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마약류 범죄 확산의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청소년에게 심도있는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개인별 치료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31개로 제한되어 있는 치료보호기관을 집중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약류 위험 요소가 집약되어 있는 공간으로 모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은 마약류 중독의 문제가 만성적인 성인 중독자들보다 경미하므로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가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시작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고 청소년 전문성과 역량을 확대하여 일부 센터를 청소년 특화 및 전담센터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추진 내용

한걸음프로젝트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며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용기 한걸음’, ‘함께 한걸음’, ‘희망 한걸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구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5.1.). ‘용기 한걸음’은 24시 상시 마약류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집중관리 필요 중독자를 ‘함께 한걸음센터’ 재활로 연계하고, ‘함께 한걸음센터’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실시한다. ‘희망 한걸음센터’는 시설에 입소하여 상담, 재활, 직업훈련 등 밀착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받는다(숙식형 재활센터 설립 준비). ‘함께 한걸음센터’는 전국 17개 센터가 마약류 오남용 및 재활상담·교육 등을 실시한다. 현재 대전지역이 청소년 전문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적 거리가 있으므로 청소년 전담 특화 센터를 지정하는 것과 더불어 각 센터에 청소년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하도록 한다.



\* 출처: <http://drug.or.kr/counsel> 에서 2025년 10월 22일 인출.

그림 V-9. 한걸음센터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중독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 34조의 2(환각물질 중독치료 등)에서는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각물질사범보다 마약류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sup>33)</sup> 기관의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청소년 약물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법률은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2025년 9월 현재 지정·운영 기관이 전무하여 법률 제정의 의미가 무색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법적 근거에 따라 복지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내 청소년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내 민간의료기관이 개인상담을 중심으로 청소년 약물중독 및 행위중독, 나아가 정신건강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기능의 대안적 방안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디딤센터(중앙, 대구)가 상담 및 치료 분야에서 약물중독 관련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본 조사에서 위기청소년의 유해약물·마약류 위험 인식은 매우 높았으나, 전문기관 상담·치료 이용률은 4.4%에 머물렀다. 이는 인지된 위험이 실제 도움요청과 서비스 이용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구조적 단절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하였듯 ‘처벌 이후 변화’에서 감시 강화·부정적 시선·반발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점은, 낙인과 통제의 경험이 도움 추구 동기를 억제하는 정서·사회적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학교 상담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를 윈스톱으로 통합함과 동시에, 웹(익명 채팅)·전화·메신저·대면 등 다채널 접근성을 구축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에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초기 접촉 단계에서 부모 동행·경제적 제약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법제처(2023.1.30.). 의안번호 1969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일례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국 FRANK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익명 다채널 단일 포털로, 정보제공-상담-치료기관 탐색까지 한 채널에서 제공한다. 또한 호주의 '헤드스페이스(headspace)'는 12-25세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는 서비스로, 2006년 호주 연방정부 주도로 센터를 설립하였다. 음주 및 기타 약물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체건강, 정신건강, 근무 및 학습 지원 등 4가지 핵심 분야의 지원과 서비스를 무료·저비용으로 제공한다(headspace, 2025). 센터는 전국에 150개가 넘는 거점으로 확산되었으며, eheadspace(온라인·전화)를 통한 1:1 상담은 익명·야간 접근성(22시까지 운영)도 보장하고 있어 운영 전략을 참고할 수 있다.

| 정책목표 : 청소년 유해약물의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                                            |      |     |                                                     |
|---------------------------------------------------|--------------------------------------------|------|-----|-----------------------------------------------------|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                                            | 추진시기 |     | 주관                                                  |
|                                                   |                                            | 단기   | 중장기 |                                                     |
| 정책과제1.<br>국가 통합<br>거버넌스 구축                        | 1-1. 국가 차원의 청소년 약물 대응 전략 수립                |      | ○   | 국무조정실 및<br>유관부처                                     |
|                                                   | 1-2.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 ○    |     | 국무조정실<br>교육부, 법무부,<br>경찰청, 지자체,<br>보건복지부,<br>성평등가족부 |
|                                                   | 1-3. 전주기 단계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 ○   | 성평등가족부,<br>교육부,<br>보건복지부,                           |
| 정책과제2.<br>유해약물<br>교육 역량 강화                        | 2-1. 학생 참여 중심 통합 예방교육                      | ○    |     | 교육부,<br>성평등가족부                                      |
|                                                   | 2-2. 예비교원 및 청소년 지도자 전문성 강화                 |      | ○   | 교육부<br>성평등가족부                                       |
|                                                   | 2-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화                       | ○    |     | 교육부, 교육청,<br>문화체육관광부,<br>성평등가족부,<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정책과제3.<br>데이터 기반<br>모니터링<br>체계 고도화                | 3-1. 과학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br>데이터 구축          |      | ○   | 보건복지부<br>식품의약품안전처<br>대검찰청                           |
|                                                   | 3-2. 유해약물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 ○   | 보건복지부<br>식품의약품안전처<br>대검찰청                           |
|                                                   | 3-3.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현장 중심<br>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 ○    |     | 식품의약품안전처<br>대검찰청                                    |
| 정책과제4.<br>유해약물<br>유형별<br>법·제도 개선                  | 4-1. 전자담배 및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br>법·제도 개선         | ○    |     | 보건복지부, 법무부<br>식품의약품안전처                              |
|                                                   | 4-2.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법제도 개선                     | ○    |     | 보건복지부, 법무부<br>식품의약품안전처                              |
|                                                   | 4-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해약물<br>유통·접근 차단       |      | ○   | 보건복지부<br>식품의약품안전처<br>대검찰청                           |
| 정책과제5.<br>청소년 치유·<br>회복 지원<br>인프라 구축              | 5-1. 청소년 마음건강 돌봄체계 강화                      | ○    |     | 교육부<br>보건복지부<br>성평등가족부                              |
|                                                   | 5-2. 청소년 전담 치유 지원 센터 설립                    |      | ○   | 보건복지부<br>식품의약품안전처<br>성평등가족부                         |

그림 V-10. 정책추진 로드맵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2023, 2025.09.02, 피의자 범행시 성별 연령.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04\\_A057&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04_A057&conn_path=I2) 에서 2025년 9월 9일 인출.
- 공태명(2019).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21(2), 45-72.
- 관계부처 합동(2023.5.).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 <https://nodrugzone.mfds.go.kr/home/kor/M484307511/board.do?act=detail&idx=cb00d1a0008a85e71a41b8741facbffe3d4db71855dd7b3532148e7a406cc31e>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2024.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과제별 '25년 세부 이행계획.
- 관계부처 합동(2024.8.).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 관계부처 합동(2025.1.)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서울: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2025.3.)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서울: 관계부처 합동.
- 교육부(2024.12).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 시범 사업 추진계획안.
- 교육부, 질병관리청(2024).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청.
-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5).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세종: 교육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2024). 마약류 감정 백서 2024.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3). 마약류 감정백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 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suggestBillPage.do> 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 국회입법조사처(2025).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IV 사회·문화 분야.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래, 이상열(2024).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80호, 185-205.
- 김남희, 이선행, Weisheit, R. A.(2023).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총서 23-AB-08).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남희, 이선행, 이다미, 김경희(2023).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 현황과 특성. 소년보호연구, 36(2), 2-35.
- 김남희, 이선행, 조제성, 박진실, 전진아(2024). 최근 마약류 범죄 변화 양상에 따른 실태 및 치료처우방안 연구(I):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지현, 도남희, 배윤진, 김혜진, 강규돈, 장현진(2022).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2022(한국아동패널 II) (연구보고 2022-27).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태우(2021). 사회경제적 요인과 청소년 약물태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연구, 32(5), 99-125.
- 김태우, 유수동(2021). 청소년 마약류범죄의 예방교육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서울 지방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35(1), 73-106.
- 김학신(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비행행동의 관계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9, 56-74.
- 대검찰청(2024).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대검찰청(2025). 2024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 대법원 양형위원회 (n.d.). 마약범죄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6/narcotic_01.jsp)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 대경이코노미(2025.9.23.).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37년만에 ‘정의’ 바뀐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7056?utm\\_source=chatgpt.com](https://www.mk.co.kr/news/business/11427056?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10월 22일 인출.
- 박선영, 박현나(2023a). 청소년 약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청소년정책연구, 30(2), 87-112.
- 박선영, 박현나(2023b).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교정담론, 17(1), 29-63.
- 박선영, 박현나, 배성희(2023).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36, 32-56.

박성수(2023). 마약류 범죄의 정책변화와 사회적 방향.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3(3), 39-66.

박소희, 홍가혜(2023). 청소년 마약범죄 문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13(3), 67-91.

박한술, 김민(2025). 마약류 연구와 청소년 마약류 연구의 실태와 동향 비교 분석: 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 모델링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83, 208-143.

박호정(2018).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8(1), 93-102.

배상률, Zhang Shuai, 김수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배상률, 김영한, 황현정(2023).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연구보고 23-기본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제처(2023.1.30.). 의안번호 1969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대표 발의.

성용은(2024). 한국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과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21(4), 59-81.

성혜연(2024). 마약중독자의 성장기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교정복지연구, 87, 87-114.

손애리, 김민혜, 양준용, 정재훈(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충북: 식품의약품안전처.

송혜진, 오세연(2023). 가상화폐를 이용한 청소년 마약범죄 진행과정 분석. 한국융합과학회지, 12(11), 133-145.

식품의약품안전처(2025.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상철(2020).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한 마약밀매범죄 해결방안 연구 - UN SDGs 16항을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77-98.

심혜인(2023).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36, 107-128.

안동현, 강지윤, 김양석, 김정유, 김진미, 김태호(2018). DSM-5 기반 아동정신건강 사례 및 치료가이드. 서울: 학지사

양혜정, 김채운(2022). 미국의 청소년 마약류 사용 대응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의 시사점.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4), 127-145.

오경희(1989). 아동의 또래동조성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오규철(2024). 마약 및 환각물질 흡입경험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표본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6(6), 252-282.

옥필훈(2025). 청소년 마약사범의 실태와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88, 1-25.

우지향, 한유나(2024) 교원양성기관의 생활지도 영역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교원교육, 40권 5호 pp. 33-56.

우현재, 김혜영(2025). 청소년의 주관적 체형인지와 체중조절 노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사용 경험에 미치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42(2), 13-23.

유재두, 노호래(2018). 해양 밀입국 실태와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보, 8(1), 129-143.

이경재, 정신교, 최자윤, 최주연(2021). 해상에서의 마약류 밀매 실태 및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35(3), 67-93.

이무송(2022). 청소년의 신종마약류중독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2), 35-53.

이봉한(2025).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27(1), 382-414.

이상의, 이숙정(2019). 소셜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외모 대화, 마른 몸매의 내면화, 외모 상향 비교,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학연구, 27(1), 57-84.

이용주, 이승욱, 방병선(2023). 마약류범죄의 특성과 예방대책: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 마약류범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33(3), 95-124.

이원상(2020).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69, 343-375.

이은영, 전연규(2022). 청소년 신종마약사범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3), 85-102.

이정혁, 강동욱(2018). 마약류 관리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청소년 보호대책. 형사정책연구, 29(2), 115-136.

이지연, 하형석, 박지수(202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현희, 전종설(2025).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과 범불안장애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45(1), 176-196.

장지수, 최승원, 황은주(2024). ARIMAX-Threshold 모형을 이용한 20대 이하 마약류

- 사범 검거 수 시계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6(4), 1015-1031.
- 조아라, 김종현, 박성근, 박시현, 이정배, 황기회(2024).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지식수준과 마약류 교육의 필요성 분석. 에듀테인먼트연구, 6(1), 13-26.
- 조운오(2018). 아세안 지역 인신매매 실태 및 피해자 신고 관련 요인 연구: UNODC 판결문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1), 251-272.
- 조제성, 강소영(2025). 마약관련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 15(3), 151-170.
- 조제성, 김다은(2024). 청소년 도박 경험과 범죄 가·피해 경험 연구 - 도박이용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4(1), 121-140.
- 최성훈(2025).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영산산학저널, 71, 169-194.
- 최유정, 신소라(2022). 청소년의 긴장요인이 약물남용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6), 1839-1849.
- 허원빈, 오영삼(2023). 청소년의 음주, 흡연, 마약 사용 간 관계: 관문이론을 활용하여. 사회과학연구, 31(2), 124-158.
-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PA(2024). DSM-5 관련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권준수, 역). 서울: 학지사, (원본출판 2022년)
- KOSIS. 의료용마약류취급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5&tblId=DT_145013_043&conn_path=I3)에서 2025년 9월 15일 인출.
- Agnew, R.(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7.
- Ali, M. O.(2023). Exploring drug and substance abuse implications. Scholars Academic Journal of Pharmacy, 12(7), 199-205.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last updated 25.6.23.). About vaping and e-cigarettes. <https://www.health.gov.au/topics/smoking-vaping-and-tobacco/about-vaping>에서 202년 10월 10일 인출.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2024). National Drug Strategy House

hold Survey 2022-2023. <https://www.aihw.gov.au/reports/illicit-use-of-drugs/national-drug-strategy-household-survey/contents/about>(2025년 10월 20일 인출)

Bai, S. Y. (2024). Korea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using controlled substances for appearance enhancement [Conference presentation].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Youth and Justice: Substance Abuse and Gambling Problem in Youth, Seoul,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 man.

Beck, A. T.(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Berndt, T. 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Botvin, Gilbert J.; Griffin, Kenneth W.; Paul, Elizabeth; Macaulay, Araxi P.(2003). Preventing Tobacco and Alcohol Us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Life Skills Training.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Substance Abuse*. 12(4): 1-17.

Breitbarth, A. K., Morgan, J., & Jones, A. L. (2018). E-cigarettes : An unintended illicit drug delivery system. *Drug and alcohol dependence*, 192, 98-111.

CND, International Drug Control Conventions. [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ND/Mandate\\_Functions/conventions.html](https://www.unodc.org/unodc/en/commissions/CND/Mandate_Functions/conventions.html)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1). EU Drugs Strategy 2021-2025.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49194/eu-drugs-strategy-booklet.pdf>?(2025년 10월 20일 인출)

CrimeSolutions.gov(2012/2011). Program Profile: Project ALERT. [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project-alert?utm\\_source=chatgpt.com](https://crimesolutions.ojp.gov/ratedprograms/project-alert?utm_source=chatgpt.com) (2025년 10월 20일 인출)

- Descormiers, K., Bouchard, M., & Corrado, R. R.(2011). Strain and social capital as predictors of opportunities to make money from crim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and Family Studies*, 1(2), 83-98.
- Donahue, T. (2025.8.4.). Vaping Rules Vary Across Southeast Asia. *Tabacco Asia*. Tabacco Asia. <https://www.tobaccoasia.com/features/vaping-rules-vary-across-southeast-asia/> 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 Ellickson, P. L., Bell, R. M., & McGuigan, K.(1993). Preventing adolescent drug use: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ALERT.<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614840/> (2025년 10월 20일 인출)
- EUDA(European Union Drugs Agency. ‘Best practice portal’ [https://www.euda.europa.eu/best-practice\\_en](https://www.euda.europa.eu/best-practice_en) 에서 2025년 10월 22일 인출.
- EUDA. Homepage. [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https://www.euda.europa.eu/publications/european-drug-report/2024/new-psychoactive-substances_en)에서 2025년 09월 11일 인출.
-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 and Drug Addiction.(2019). *European Drug Report*.
- FarrHenderson, M., Di Marco, M. H., & Evans, D. P.(2024). Perceptions of social capital before and after the perpetration of femicide, homicide, and other serious crimes: Evidence from Argentin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8). <https://doi.org/10.1177/08862605241265918>
- FEDERAL REGISTER. Homepage. Prohibition of Sale of Tobacco Products to Persons Younger Than 21 Years of Age,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30/2024-19481/prohibition-of-sale-of-tobacco-products-to-persons-younger-than-21-years-of-age?utm\\_source=chatgpt.com](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8/30/2024-19481/prohibition-of-sale-of-tobacco-products-to-persons-younger-than-21-years-of-age?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09월 03일 인출.
- Gerbner, G.(1998). Cultivation analysis: An overview. *Mass Communication & Society*, 1(3-4), 175-194.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er, S., Hartwell, G., Barnett, L. M., Nash, S. G., Petticrew, M., & Glover,

- R. E.(2025). Vaping and harm in young people : umbrella review. Tobacco Control.
- Gottfredson, M.R.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Redwood City, CA.
- GOV.UK. (2025.5.31.). Single-use vapes banned form 1 June 2005. <https://www.gov.uk/government/news/single-use-vapes-banned-from-1-june-2025>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 Government of Canada. Home page. [https://www.canada.ca/en/services/health/campaigns/cannabis/health-effects.html?utm\\_source=chatgpt.com](https://www.canada.ca/en/services/health/campaigns/cannabis/health-effects.html?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 Hans. C.Breiter, RandyL. Gollub, Robert. M. Weisskoff, David .N. Kennedy, D. Berke, Julie. M. Goodman, Kantor, David .R. Gastfriend, Jonn. P. Riorden, R. Thomas Mathew, Bruce. R. Rosen, and Steven. E. Hyman.(1997). AcuteEffects of Cocaine on Human Brain Activity and Emotion. Neuron, 19. 591-611.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BO·Oxford Wellbeing Centre(2025). Whole-School Approach to Well-being [https://ibo.org/globalassets/new-structure/research/pdfs/summary-whole-school-approach-eng\\_compressed.pdf](https://ibo.org/globalassets/new-structure/research/pdfs/summary-whole-school-approach-eng_compressed.pdf)?(2025년 10월 20일 인출)
- Jiang, M.(2024). A general overview on how brain mechanisms,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sonality traits affect the development of drug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 SHS Web of Conferences, 193(03010).
- Johnston, L. D., Miech, R. A., Patrick, M. E., O'Malley, P. M., Schulenberg, J. E., & Bachman, J. G.(2023). Monitoring the Future national survey results on drug use 1975-2022: Overview, key findings on adolescent drug use. Ann Arbor: ISR, University of Michigan.
- Kemppainen, T., Kemppainen, M., & Niemelä, M.(2024).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Theoretical Social Psychology. <https://doi.org/10.1002/jts5.21045>
- Kupersmidt, J. B., Scull, T. M., & Austin, E. W. (2010). Media literacy education



- for elementary school substance use prevention: Study of Media Detective. *Pediatrics*, 126(3), 525-531.
- Kwon M., Lee J-Y., Won W-Y., Park J-W., Min J-A., Hahn C. et al.(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martphone Addiction Scale (SAS)." *PLoS ONE* 8(2): e56936. DOI:10.1371/journal.pone.0056936.
- Lekamge, R. B., et al.(2025). Evidence and Gap Map of Whole-School Interventions Promoting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Risk Behaviours in Adolescence: Programme Component Mapping Within the Health-Promoting Schools Framework: An evidence and gap map.<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1891928/>? (2025년 10월 20일 인출)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cidi, F., Mallia, L., Alivernini, F., Chirico, A., Manganelli, S., Galli, F., Biasi, V., & Zelli, A. (2017). The effectiveness of a new school-based media literacy intervention on adolescents' doping attitudes and supplements use. *Frontiers in Psychology*, 8, 749
- Marsch et al.(2020) The application of Digital Health to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bstance Use Disorders: The past, current, and future role of the National Drug Abuse Treatment Clinical Trials Network<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7134325/>?(2025년 10월 20일 인출)
- McCarthy, B., & Hagan, J.(2001). When crime pays: Capital, competence, and criminal success. *Social Forces*, 79(3), 1035-1059.
- Mears, D. P., & Stafford, M. C.(2022). A reconceptualization of social bond theory to predict change sequences in offending. *Crime & Delinquency*, 70 (1), 64-86. <https://doi.org/10.1177/00111287221088000>
- MediaSmarts. (n.d.). Kids, Alcohol and Advertising (Lesson series). MediaSmarts: Canada's Centre for Digital and Media Literacy. <https://mediasmarts.ca>
- Merton, R. K.(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Mizuno, S., Shimane, T., Inoura, S., & Matsumoto, T.(2024).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abstinence from drugs: Panel data analysis of patients with drug use disorders in residential drug use treatment.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Reports*, 3(e174).
- Morselli, C., & Tremblay, P.(2004). Criminal achievement, offender networks and the benefits of low self-control. *Criminology*, 42(3), 773-804.
- NDEWS (2025.9.17.). National Drug Early Warning System, Rapid Street Reporting. (2025.9.17.). <https://ndews.org/novel-surveillance/rapid-street-reporting/>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 Niazi, M., Sadeghi Deh Cheshme, S., Hosseini, M. R., & Guoderzi, A.(2023). Structural model of socio-cultural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sustainable withdrawal from addi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ddiction specialists using Dimatel technique. *Sociology of Culture and Art*, 5(3), 86-104.
- OECD (2023). Teaching for the Future: Global Engagement, Sustainability and Digital Skills. 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OECD Publishing, Paris. DOI: 10.1787/d6b3d234-en.
-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 Reingle J.M, Staras S.A.S, Jennings W.G, Branchini J, Maldonado-Molina M.M.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juana 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ample. *J Interpers Violence* 27, 1562-1578.
- Rolová, G., Lukavská, K., Tibenská, A. G., Skorkovský, T., Miovský, M., Vevera, J., & Gabrhelik, R.(2023). Factors associated with abstinence in addiction inpatient treatment cohort: A five-year follow-up. *Journal of Substance Use*.
- Sampson, R. J., & Laub, J. H.(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Tando, B., & Damanik, E.(2024). The impact of 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n stress reduction and reintegration of ex-convicts. *Journal of Correctional*

Studies, 8(2), 12-29.

Temple, J. R., et al.(2021). A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Youth: A Cluster Randomized Trial.

THE WHITE HOUS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24)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4/05/2024-National-Drug-Control-Strategy.pdf> (2025년 10월 20일 인출)

The White House(2021). Drug-Free Communities National Evaluation Annual Report.

Turner, G., & Shepherd, J.(1999). Building Healthy Teen Relationship. [https://www.innovatingjustice.org/wp-content/uploads/2014/10/Building-Healthy-Teen-Relationships\\_4th-R-Evaluation-10.24.14.pdf](https://www.innovatingjustice.org/wp-content/uploads/2014/10/Building-Healthy-Teen-Relationships_4th-R-Evaluation-10.24.14.pdf) (2025년 10월 20일 인출)

UNODC.(1961).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UNODC.(2020). Global Synthetic Drugs Assessment 2020.

UNODC.(2024a). WORLD REPORT DRUG - CONTEMPORARY ISSUES ON DRUGS. UNODC Research. p. 1-148.

UNODC.(2024b). WORLD REPORT DRUG - KEY FINDINGS AND CONCLUSION S. UNODC Research. p. 1-82.

Verywell health. Homepage. [https://www.verywellhealth.com/understanding-cannabinoids-and-what-they-do-8636699?utm\\_source=chatgpt.com](https://www.verywellhealth.com/understanding-cannabinoids-and-what-they-do-8636699?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Wah, T. H., Ong, A. J. X., Naidu, K. N. C., Hanafi, S., Tan, K., Tan, A., Ong, T. J. J., Ong, E., Ho, D. W. S., Subramaniam, M., See, M. Y., & Tan, R. K. J.(2024). Navigating drug use, cessation, and recovery: A retrospective case notes review among sexual minority men at a community-based service in Singapore. Substance Abuse Treatment, Prevention, and Policy, 19(23).

WHO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20.2.24.). E-Cigarette Ban & Regulation: Global Status as of February 2020. <https://extranet.who.int/fctcapps/fctcapps/fctc/kh/TIInterference/e-cigarette-ban-regulation>

- n-global-status-february-2020 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 WHO.(1993). The ICD-10th Classification of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 Diagnostic criteria for research.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 WHO.(2025). WHO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 Wikipedia. Homepage. [https://en.wikipedia.org/wiki/Morphine?utm\\_source=chatgpt.com](https://en.wikipedia.org/wiki/Morphine?utm_source=chatgpt.com) 에서 2025년 9월 13일 인출.
- Wikipedia. Homepage. [https://en.wikipedia.org/wiki/Opium?utm\\_source=chatgpt.com](https://en.wikipedia.org/wiki/Opium?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9월 13일 인출.
- Wills, T. A., Sandy, J. M., Yaeger, A. M., Cleary, S. D., & Shinar, O.(2001). Coping dimensions, life stres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309-323.
- Wu, K., Li, S. D., & Yang, S.-L.(2024).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adolescent drug use in the Greater China Region. *Crime & Delinquency*, 1(27). <https://doi.org/10.1177/00111287241288501>
- Zainudinhasan, A., Adnan, A. J., Amanda, M., & Sadhana, P.(2023). Factors causing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in Bandar Lampung City. *Enrichment: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1(2), 39-43.
- Zuckerman, M.(2007). *Sensation Seeking and Risky Behavio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rank. <http://talktofrank.com> 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 <http://drug.or.kr/counsel> 에서 2025년 10월 22일 인출.
- <https://www.nims.or.kr/bbs/guide/usr/view.do> 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 <https://www.nims.or.kr/bbs/guide/usr/view.do> 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 ○ — 부 록

- 1. 설문지
- 2. 면접조사 질문지



# 부록

## 1. 설문지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 ID<br>(기록하지 마세요) |  |
|-----------------------------------------------------------------------|--|------------------|--|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                  |  |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                  |  |

###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은 청소년의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용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기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여러분의 응답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누구도 답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6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                                                                                                |                                                           |
|------|------------------------------------------------------------------------------------------------|-----------------------------------------------------------|
|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담당자: 배상률 선임연구위원<br>(drbai@nypi.re.kr, 044-415-2220)     |
| 수행기관 | 에스티아이                                                                                          | ※ 담당자: 김서영 연구원<br>(estherluvsya@goodsti.com, 02-785-9250) |

## [1유형\_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시설 입소 청소년용]

###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과제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태도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 실태와 인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행위의 특성과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증거기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 약물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조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대상 청소년은 본 설명문을 충분히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조사 문항 응답에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3. 수집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될까요?

설문은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사용 경험 여부 및 횟수, 사용 동기와 상황, 주변 환경 요인, 가치관 및 태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관련 정책과 예방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적 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수집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4.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사 참여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심리적 불안 또는 불편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문 후에도 조사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미 응답한 정보나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고 삭제될 것입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년, 키, 몸무게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7. 조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연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실시기관 : ㈜에스티아이               |
| 연구책임자 : 배상률 선임연구위원 (044-415-2220) | 조사책임자 : 김서영 연구원 (02-785-9250) |

만일 어느 때라도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4-415-2188



#### 연구 참여 동의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유해악물 사용 실태〉 관련 의견 수렴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년, 키, 몸무게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시 즉시 파기함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단

## [2유형, 3유형\_치료상담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이용 청소년용]

###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과제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태도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 실태와 인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행위의 특성과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증거기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 약물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조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대상 청소년은 본 설명문을 충분히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게 됩니다. 조사 문항 응답에 대략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 3. 수집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될까요?

설문은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사용 경험 여부 및 횟수, 사용 동기와 상황, 주변 환경 요인, 가치관 및 태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관련 정책과 예방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통계적 분석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는 무기명으로 수집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4.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사 참여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심리적 불안 또는 불편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응답을 해준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사립품(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5.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문 후에라도 조사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미 응답한 정보나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고 삭제될 것입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년, 키, 몸무게, 휴대전화번호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7. 조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연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사실시기관 : ㈜에스티아이               |
| 연구책임자 : 배상률 선임연구위원 (044-415-2220) | 조사책임자 : 김서영 연구원 (02-785-9250) |

만일 어느 때라도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4-415-2188

### 연구 참여 동의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소년 유해악물 사용 실태〉 관련 의견 수렴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역, 학년, 키, 몸무게, 휴대전화번호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시 즉시 파기함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종단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응답하는 방법

질문에 따라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처럼 ①~⑤ 보기로 제시된 경우,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 '별로 그렇지 않다'면 ②, '보통이다'면 ③, '그렇다'면 ④,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고<br>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

처음 표시한 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당 보기에는 가위표(X)를 하고, 새로 선택한 답에 동그라미(○)를 해 주세요.

지우개로 지우거나 볼펜으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 음주·흡연                                    | 전혀<br>하지<br>않았다 | 한 달<br>평균<br>1회 미만 | 한 달<br>평균<br>1~2회 | 한 달<br>평균<br>3~5회 | 한 달<br>평균<br>6~9회 | 한 달<br>평균<br>10~19회 | 한 달<br>평균<br>20회 이상 |
|------------------------------------------|-----------------|--------------------|-------------------|-------------------|-------------------|---------------------|---------------------|
| 1) 술(주류)<br>(성찬식, 제사 등에서<br>소량 마시는 것 제외) | <del>○</del>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어떤 문항에는 보기 오른쪽에 '→ 몇 번으로 가세요'와 같은 지시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답을 한 후 선택한 보기의 오른쪽에 적힌 번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3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고카페인 음료**(예: 핫식스, 몬스터, 레드불 등)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①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 V. **환각물질 섹션으로 이동**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2회      ④ 한 달에 3~5회      ⑤ 한 달에 10~19회  
⑥ 한 달에 10~19회      ⑦ 한 달에 20~29회      ⑧ 한 달에 30회 이상

어떤 문항에는 제시된 모든 항목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을 하는 경우,  
보기 하단에 '→ 몇 번으로 가세요'와 같은 지시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답을 한 후 선택한 보기의 아래쪽에 적힌 번호(색선)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우,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 최초 경험 시기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 음주·흡연                                 | 경험 유무            | 최초 경험 시기<br>(경험 유무에서 ②번 응답자만)                                                     |
|---------------------------------------|------------------|-----------------------------------------------------------------------------------|
| 1) 술(주류) (성찬식, 제사 등에서<br>소량 마시는 것 제외)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2) 일반담배(결련형)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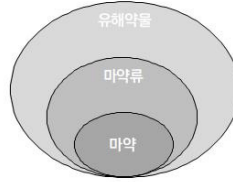
※ '경험 유무' 항목에 제시된 모든 항목에 ① '없다'고  
응답한 경우, <Ⅲ. 고카페인 음료> 섹션으로 바로  
이동해 주세요.



## 1.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서 규정한 유해약물이란 청소년의 정신이나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① **술과 담배**, ② **환각물질**(예: 헤피벌론, 부탄가스 등), ③ **중독성 및 내성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타 약물**(예: 고카페인 음료, 근육 성장 촉진제 등).



〈유해약물, 마약류, 마약의 개념 구조도〉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마약류**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① **마약**(예: 코카인, 헤로인 등),
- ② **향정신성의약품**(예: 디에타민, 암페타민, 프로포폴 등),
- ③ **대마**

1 아래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숫자(1~10)를 선택해 주세요.

1)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예: 술, 담배, 환각·중독성 물질 등)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보통 |   |   |   | 매우 심각하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2) 귀하는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보통 |   |   |   | 매우 심각하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3) 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예: 술, 담배, 환각·중독성 물질 등)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보통 |   |   |   | 매우 심각하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4) 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보통 |   |   |   | 매우 심각하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5) 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약류를 제외한 유해약물**(예: 술, 담배, 환각·중독성 물질 등)을 구하려 한다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구하기 어렵다 |   |   | 보통 |   |   |   | 매우 구하기 쉽다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6) 귀하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마약류를 구하려 한다면,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매우 구하기 어렵다 |   |   | ← 보통 → |   |   |   | 매우 구하기 쉽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7) 귀하는 정부의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약물 관리 정책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매우 못하고 있다 |   |   | ← 보통 → |   |   |   | 매우 잘하고 있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8)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과 같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음식명이나 상호에 사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친숙한 이미지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   | ← 보통 → |   |   |   | 매우 그렇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2**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사용하면 끊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마약류 사용은 또래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마약류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마약류 사용은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마약류 사용은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마약류 사용은 외모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마약류를 사용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마약류를 남용하면 일상생활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일부 마약류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마약류 사용은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마약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마약류를 판매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마약류 사용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마약류 사용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중 유해약물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사회 전반의 도덕성 약화
- ② 경제적 불평등 및 계층 격차
- ③ 실업 등 경제 불안과 경기 침체
- ④ 자극적 유흥 환경과 오락 시설의 증가
- 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단속 부족
- ⑥ 이혼 등 가족 해체와 가정의 불안정
- ⑦ 학업·취업 등 치열한 경쟁 환경
- ⑧ 미디어 콘텐츠로 인한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 약화
- ⑨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 ⑩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 ⑪ 기타(직접 작성 : \_\_\_\_\_)

4

다음 중 청소년이 유해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개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 ② 학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 ③ 가정 내 갈등이나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 ④ 친구의 권유로
- ⑤ 또래나 주변 사람의 압력 때문에
- ⑥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때문에
- ⑦ 일시적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 ⑧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 ⑨ 학업 성취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 ⑩ 운동 능력 향상 등 신체적 목적을 위해
- ⑪ 다이어트를 위해
- ⑫ 기타(직접 작성 : \_\_\_\_\_)

## II. 술 담배 사용

1 다음 문항에서 음주 및 흡연 관련 귀하의 생각에 동의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청소년의 음주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음주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TV,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자주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속 등장인물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귀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음주나 흡연한 경험이 있나요?

※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당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에는 괄호 안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 음주-흡연                              | 경험 유무            | 최초 경험 시기<br>(경험 유무에서 ②번 응답자만)                                                     |
|------------------------------------|------------------|-----------------------------------------------------------------------------------|
| 1) 술(주류) (성찬식, 제사 등에서 소량 마시는 것 제외)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2) 일반담배(결련형)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3) 액상형 전자담배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4) 결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                 | ① 없다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경험 유무' 항목에 제시된 모든 항목에 ① '없다'고 응답한 경우, <III. 고카페인 음료> 섹션으로 바로 이동해 주세요.

3

귀하는 최근 6개월 동안 음주 또는 흡연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한 달 평균 몇 회 정도 했는지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음주·흡연                                    | 전혀<br>하지<br>않았다 | 한 달<br>평균<br>1회 미만 | 한 달<br>평균<br>1~2회 | 한 달<br>평균<br>3~5회 | 한 달<br>평균<br>6~9회 | 한 달<br>평균<br>10~19회 | 한 달<br>평균<br>20회 이상 |
|------------------------------------------|-----------------|--------------------|-------------------|-------------------|-------------------|---------------------|---------------------|
| 1) 술(주류)<br>(성찬식, 제사 등에서<br>소량 마시는 것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일반담배(꺾련형)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액상형 전자담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꺾련형 전자담배<br>(가열담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III. 고카페인 음료

1

다음은 커피(예: 아메리카노, 라떼, 커피믹스 등)나 고카페인 음료(예: 핫식스, 몬스터, 레드불 등)의 섭취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공부, 아르바이트, 여가 활동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실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카페인 음료는 건강에 주는 해보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카페인 음료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카페인 음료는 집중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카페인 음료는 중독의 위험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카페인인 든 커피 음료(예: 아메리카노, 라떼, 커피믹스 등)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①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2회

④ 한 달에 3~5회

⑤ 한 달에 6~9회

⑥ 한 달에 10~19회

⑦ 한 달에 20~29회

⑧ 한 달에 30회 이상

3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고카페인 음료(예: 핫식스, 몬스터, 레드불 등)를 마신 적이 있습니까? 마신 적이 있다면, 최근 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얼마나 자주 마셨는지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①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 <IV. 의료용 마약류> 섹션으로 이동)

② 한 달에 1회 미만

③ 한 달에 1~2회

④ 한 달에 3~5회

⑤ 한 달에 6~9회

⑥ 한 달에 10~19회

⑦ 한 달에 20~29회

⑧ 한 달에 30회 이상

4

다음은 최근 6개월 이내 고카페인 음료를 한 번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읽고, 각 문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고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시험공부, 과제를 할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고카페인 음료를 평소와 다르게 즐겨 마시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IV. 의료용 마약류/약물 경험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음의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스트레스 해소, 위모 개선, 집중력 향상, 학업/운동 성과 향상 등)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당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에는 괄호 안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 의료용 마약류/약물 종류<br>(예시)                        | 경험 유무 |        | 최초 경험 시기<br>(경험 유무에서 ②번 응답자만)                                               |
|----------------------------------------------|-------|--------|-----------------------------------------------------------------------------|
| 1) 수면제<br>(예: 졸피뎀, 스릴녹스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2) 신경안정제/항불안제<br>(예: 자낙스,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벤조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3) ADHD치료제<br>(예: 콘서타, 메다카넷, 페티드, 에더달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4) 마약성 진통제<br>(예: 펜타닐, 옥시코돈, 페티딘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5) 식욕억제제<br>(예: 디에타민(나바약),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6) 근육강화제<br>(예: 스테로이드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7) 마취제<br>(예: 프로포폴(포폴), 에터미데이트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8)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br>(예: 코데인, 코부시럽, 런 등)       | ① 없다  | ② 있다 →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 '경험 유무' 항목에 제시된 모든 항목에 ① '없다'고 응답한 경우, 8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해 주세요.

**2**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스트레스 해소, 외모 개선, 집중력 향상, 학업/운동 성과 향상 등)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용한 경우, **한 달 평균 몇 회** 정도 했는지 아래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 의료용 마약류/약물 종류<br>(예시)                           | 전혀<br>하지<br>않았다 | 한 달<br>평균<br>1회 미만 | 한 달<br>평균<br>1~2회 | 한 달<br>평균<br>3~5회 | 한 달<br>평균<br>6~9회 | 한 달<br>평균<br>10~19회 | 한 달<br>평균<br>20회 이상 |
|-------------------------------------------------|-----------------|--------------------|-------------------|-------------------|-------------------|---------------------|---------------------|
| 1) 수면제<br>(예: 졸피뎀, 스틸녹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신경안정제/항불안제<br>(예: 자낙스, 알프라졸람,<br>디아제팜, 벤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ADHD치료제<br>(예: 콘서타, 메다카넷,<br>페니드, 예더럴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마약성 진통제<br>(예: 펜타닐, 옥시코돈,<br>페타딘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식욕억제제<br>(예: 디에타민(나비악),<br>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근육강화제<br>(예: 스테로이드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마취제<br>(예: 프로포폴(포폴),<br>에터미데이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br>(예: 코데인, 코부시람, 린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번 문항에 제시된 8개 의료용 마약류/약물에 모두 ①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8번 문항**으로 바로 이동해 주세요.

※ 2번 문항에 제시된 8개 항목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3번 문항부터 응답**해 주세요.

**3** 귀하께서 **최근 6개월 내에** 처방 약물을 치료 등 원래의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예: 스트레스 해소, 외모 개선, 집중력 향상, 학업/운동 성과 향상 등)로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무엇입니까? 해당 약물명을 아래 보기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일하게 많이 사용했다면, 응답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용한 약물을 선택해 주세요.

- |         |              |            |                |
|---------|--------------|------------|----------------|
| ① 수면제   | ② 신경안정제/항불안제 | ③ ADHD 치료제 | ④ 마약성 진통제      |
| ⑤ 식욕억제제 | ⑥ 근육강화제      | ⑦ 마취제      | ⑧ 진해거담제/기침 억제제 |

**4** 귀하가 3번 문항에서 선택한 약물은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직접 작성 : \_\_\_\_\_)

**5** 귀하가 3번 문항에서 선택한 약물을 어디에서 또는 어디를 통해 구하셨습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① 친구 또는 또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⑪ 해외 구매/직구                      ⑫ 기타(직접 작성 : \_\_\_\_\_)

**6** 귀하가 3번 문항에서 선택한 약물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② 친구나 또래의 권유로 인해  
 ③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④ 외모를 개선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⑤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⑥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달기 위해서  
 ⑦ 근육을 키우거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7** 귀하가 3번 문항에서 선택한 약물을 사용한 이후 귀하가 느낀 경험에 대해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만족감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끊으려고 했지만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다음은 의료용 마약류/약물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외모를 개선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학교 성적을 높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신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분 전환이나 즐거움을 위해 약물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스스로 잘 조절하면, 처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약물 사용은 개인의 선택일 뿐, 반드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V. 환각물질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음의 환각물질(흡입형 약물)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당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에는 괄호 안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1

| 종류                                   | 경험 유무                   | 최초 경험 시기<br>(경험 유무에서 ②번 응답자만)                                               | 최근<br>6개월 동안<br>사용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br>사용 횟수               |
|--------------------------------------|-------------------------|-----------------------------------------------------------------------------|-------------------------|----------------------------------|
| 1) 부탄가스,<br>라이터가스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2) 해피벌론<br>(아산화질소)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3) 에어스프레이<br>(면지제거제)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4) 기타<br>(이 외 사용한<br>환각물질<br>직접기입: )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②<br>있다<br>→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경험 유무' 항목에 제시된  
모든 물질에 '①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VI. 마약류 섹션으로 바로 이동해주세요.

※ '최근 6개월동안 사용 경험' 항목에 제시된  
모든 물질에 '①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2번부터 응답해 주세요.

2

귀하께서 환각물질을 처음 사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① 호기심 또는 재미로
- ② 또래 친구의 권유나 압박으로
- ③ 선후배 등 지인의 권유나 압박으로
- ④ 스트레스 해소나 기분 전환을 위해
- ⑤ 한각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원해서
- ⑥ 수면, 각성 등 특정 효과를 얻기 위해
- ⑦ 심상하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어
- ⑧ 기타(직접 작성 : )

3

귀하가 환각물질을 사용한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해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만족감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VI. 마약류

귀하께서는 다음의 마약류를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 최초 경험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당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경우에는 괄호 안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 종류                                     | 경험 유무                   | 생애 최초 사용 연령대<br>(만 나이)                                                      | 최근<br>6개월 동안<br>사용 경험   | 최근 6개월 동안<br>사용 횟수               |
|----------------------------------------|-------------------------|-----------------------------------------------------------------------------|-------------------------|----------------------------------|
| 1) 대마초,<br>마리화나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2) 해시시,<br>해시시오일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3) 합성대마<br>(예: 허브,<br>스파이스,<br>브레이크 등)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4) 아편,<br>양귀비, 오피움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5) 헤로인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6) 메스암페타민,<br>필로폰, 아이스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7) 코카인(코크),<br>크랙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8) LSD, 엘(L)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9) 엑스터시, E,<br>엑스, 캔디,<br>MDMA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10) 케타민,<br>K(케이)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11) 기타<br>(이 외<br>사용한 마약류<br>직접 작성 : )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초등학교 이하(만 12세 이하)<br>② 중1(13세) ③ 중2(14세) ④ 중3(15세)<br>⑤ 고등학교 이상(만 16세 이상) | ①<br>없다<br>→<br>②<br>있다 | ① 1~2회 ② 3~5회<br>③ 6~9회 ④ 10회 이상 |

※ '경험 유무' 항목에 제시된  
모든 물질에 '①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VII. 예방교육> 섹션으로 이동해 주세요.

※ '최근 6개월동안 사용 경험' 항목에 제시된  
모든 물질에 '① 없다'를 선택하신 경우,  
<VII. 예방교육> 섹션으로 이동해 주세요.

2

귀하께서 최근 6개월 내에 사용한 마약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약물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약물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대마초/마리화나      ② 해시시/해시시오일      ③ 합성대마      ④ 아편/암귀비/오피움  
 ⑤ 헤로인      ⑥ 메스암 페타민/필로폰/아이스      ⑦ 코카인(코크)/크랙      ⑧ LSD/엘(L)  
 ⑨ 엑스터시/E/엑스/캔디/MDMA      ⑩ 케타민/K(케이)      ⑪ 기타(직접 작성 : \_\_\_\_\_)

3

귀하가 2번 문항에서 선택한 마약류는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친구 또는 도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기타(직접 작성 : \_\_\_\_\_)

4

귀하가 2번 문항에서 선택한 마약류를 어디에서 또는 어디를 통해 구하셨습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경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친구 또는 도래      ② 가족 또는 친척      ③ 약국 또는 병원  
 ④ 중고거래 플랫폼      ⑤ 텔레그램      ⑥ 텔레그램 외 다른 소셜미디어(SNS)  
 ⑦ 유튜브/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⑧ 메신저/메시지서비스(비밀채팅방 등 포함)  
 ⑨ 유흥업소      ⑩ 헬스장/운동 관련 시설  
 ⑪ 해외 구매/직구      ⑫ 기타(직접 작성 : \_\_\_\_\_)

5

귀하가 2번 문항에서 선택한 마약류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 ①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② 친구나 도래의 권유로 인해  
 ③ 호기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④ 외모를 개선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⑤ 집중력 향상이나 공부·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⑥ 우울감,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해서  
 ⑦ 근육을 키우거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6

귀하가 2번 문항에서 선택한 마약류를 사용한 이후 느낀 경험에 대해 아래 문항에 응답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만족감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후회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그만두려 했지만 쉽게 끊기 어려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공부나 수면 등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VII 예방 교육

**1** 청소년의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책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1순위를 2순위를 각각 하나씩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해외 유입 및 온라인 유통 단속      ② 수사 강화      ③ 유통자 처벌 강화  
 ④ 사용자 처벌 강화      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⑥ 홍보·캠페인  
 ⑦ 상담 및 중독 치료 지원 강화      ⑧ 온·오프라인 유통환경 개선  
 ⑨ 기타(직접 작성 : \_\_\_\_\_)

**2** 다음은 마약류 문제와 예방교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우리 사회는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 교육 시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마약류 예방 교육은 각종 사고, 범죄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마약류 예방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지식 전달 위주의 강의보다는 실제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청소년 마약류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보다 판매 및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귀하는 최근 1년 이내에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아니요 (→ **VII. 기타 섹션**으로 이동)      ② 예 (→ **문항 4**로 이동)

**4**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문항 5**로 이동)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문항 5**로 이동)  
 ③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 **문항 6**으로 이동)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문항 6**으로 이동)

**5**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유로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었다
- ②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았다
- ③ 내 관심사가 아니었다
- ④ 전달 방식이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었다
- ⑤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 ⑥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새로운 것이 없었다
- ⑦ 나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정보였다
- ⑧ 내용이 너무 어려웠다
- ⑨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 ⑩ 기타(직접 작성 : \_\_\_\_\_)

**6** 귀하가 가장 최근에 받은 예방 교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가장 최근에 받은 마약류 예방 교육의 강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마약류 예방 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예방 교육은 지루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VII 기타

### 1 귀하께서는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문항 2로 이동)                      ② 있다 (→ 문항 1-1로 이동)

1-1

귀하가 가장 최근에 학교로부터 징계나 조치를 받은 이후, 귀하 자신과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 ②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 ③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
-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
- ⑤ 친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 ⑥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 ⑦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불안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 2 귀하께서는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문항 3으로 이동)                      ② 있다 (→ 문항 2-1로 이동)

2-1

귀하가 가장 최근에 법적 처벌(예: 보호처분, 소년원 등)을 받은 이후, 귀하 자신과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이전과 같은 유해약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 ② 반성하게 되어 유해약물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 ③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생겼음
- ④ 보호자 또는 선생님의 감시가 강화되었음
- ⑤ 친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 ⑥ 상담·치료 등 외부 지원을 받게 되었음
- ⑦ 이 같은 처벌에 대한 불안이나 반발심을 갖게 되었음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3 귀하께서는 마약류 또는 약물 문제로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문항 4으로 이동)                      ② 있다 (→ 문항 3-1로 이동)

귀하가 가장 최근에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이후, 귀하 자신과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이전과 같은 유행악물 문제가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졌음
- ②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음
- ③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다시 사용하게 되었음
- ④ 사용 욕구가 줄어들었음
- ⑤ 악물 문제에 대한 이해나 경각심이 생겼음
- ⑥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자지가 늘어남
- ⑦ 친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음
- ⑧ 기타(직접 작성 : \_\_\_\_\_)

귀하의 삶의 목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영향을 준 사람이나 대상이 없다고 생각되면 1순위에 '14 없음'을 선택하고, 문항 5로 이동해 주세요.

|     |  |     |  |
|-----|--|-----|--|
| 1순위 |  | 2순위 |  |
|-----|--|-----|--|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                      ④ 형제/자매  
⑤ 친척                        ⑥ 친구/선호배                      ⑦ 대중매체 (TV, 영화, 신문 등)  
⑧ 유튜브/틱톡                      ⑨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⑩ 정부/정치인  
⑪ 종교/종교인                      ⑫ 서적                      ⑬ 기타(직접 작성 : \_\_\_\_\_)  
⑭ 없음

최근 한 달 동안, 귀하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①번 스마트폰 없음을 선택하고 7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 ① 스마트폰 없음 (→ 문항 7로 이동)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⑥ 6시간 이상



**6** 귀하는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을 미루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스마트폰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민감하게 신경 쓰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은 귀하가 최근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각 미디어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사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항목                                            |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
| 1) 유튜브 (쇼츠 제외한 일반 영상 시청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숏폼 영상 콘텐츠 (쇼츠, 틱톡, 릴스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온라인/모바일 게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SNS (숏폼 영상 시청 제외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일반 활동 시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텔레비전 (휴식/오락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IX. 배경 질문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배문1**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0명 | 1~2명 | 3~5명 | 6~9명 | 10명 이상 |
|-------------------------------------------------------------------------------------------------|----|------|------|------|--------|
| 1) 최근 1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연락(문자, 전화, 채팅 등)을 주고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br>(가족, 친구, 친척, 선생님 등 포함 / SNS 댓글은 제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최근 1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적으로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br>(예: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한 친구, 가족, 지인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고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br>(예: 가족, 친구, 친척, 선생님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배문2** 귀하의 성적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최근 재학 당시의 성적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위권      ④ 중상위권      ⑤ 상위권

**배문3** 귀하가 속한 가정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하위권      ② 중하위권      ③ 중위권      ④ 중상위권      ⑤ 상위권

**배문4** 최근에 측정한 귀하의 키(신장)와 몸무게(체중)는 얼마입니까?

※ 소수점 없이 정수만 적어 주세요. (예: 키 165cm, 몸무게 55kg)

- 1) 키(신장) : \_\_\_\_\_cm  
2) 몸무게(체중) : \_\_\_\_\_kg

**배문5** 평소 귀하의 신체 건강 상태는 어떤 수준입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배문6** 귀하의 현재 거주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② 친척 집에서 살고 있다  
③ 하숙, 자취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경우 포함)  
④ 기숙사  
⑤ 아동양육시설, 원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⑥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시설  
⑦ 기타(직접 작성 : \_\_\_\_\_)

**배문7** 귀하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신앙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종교가 없다
- ② 특정 종교가 있으나, 정기적인 종교 활동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③ 특정 종교가 있으나, 정기적인 종교 활동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 ④ 특정 종교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배문8**

최근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전혀<br>없다 | 1~2번<br>있다 | 3~5번<br>있다 | 6~9번<br>있다 | 10번<br>이상<br>있다 |
|----------------------------------------|----------|------------|------------|------------|-----------------|
| 1) 무단결석(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가지 않은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가출(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은 경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배문9**

최근 6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항목별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법적 처분에 따른 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소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 전혀<br>없다 | 1~2번<br>있다 | 3~5번<br>있다 | 6~9번<br>있다 | 10번<br>이상<br>있다 |
|------------------------------|----------|------------|------------|------------|-----------------|
| 1) 신체적 폭력(구타 등) 피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사이버 폭력(사이버불링) 피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성추행/성폭행 피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금전 갈취(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김) 피해 | ①        | ②          | ③          | ④          | ⑤               |

**배문10** 다음에 제시하는 각 상황을 잘 읽고 귀하의 평소 태도와 얼마나 비슷한지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세요.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친한 친구들과 PC방 앞을 지나가다가 친구들은 PC방에서 놀다 가자고 하지만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혼자 집으로 간다 | ①               | ②         | ③   | ④         |
| 2) 친한 친구들이 학교 담벼락에 아무도 없을 때 낙서를 하자고 한다. 나는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낙서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3) 친한 친구들이 대화 중에 은어를 쓰는데 듣기에 가쉽린다. 친구들은 은어를 같이 쓰자고 하지만 나는 내키지 않아 쓰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배문11** 귀하께서는 아래의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나는 내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나는 요즘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 4) 나는 삶이 지루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는 내 자신이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는 자신감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7) 어떤 일을 처음에 잘못했다라도 나는 뭘 때까지 해본다             | ①         | ②      | ③   | ④      |
| 8) 나는 계획을 잘 때, 계획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실패는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든다                | ①         | ②      | ③   | ④      |
| 10) 나의 가족은 확복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1)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나는 걱정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나는 재미있으면 나에게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16)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믿어준다                        | ①         | ②      | ③   | ④      |
| 17) 부모님(보호자)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 ①         | ②      | ③   | ④      |
| 18) 부모님(보호자)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19)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나는 소외되어 있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2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기운 없이 앉아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말을 건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다른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나는 평소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나의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내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 중에 마약류를 사용해 본 사람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면접조사 질문지

### 연구 참여 설명문

#### 연구과제명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 태도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약물 사용 실태와 인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행위의 특성과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중거기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청소년 약물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제도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2. 조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면접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방식은 대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진과 단독으로 만나는 개별 면접조사와 2~3명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진행되는 집단면접조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의 진행 순서에 따라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개별면접조사는 총 1시간 30분 내외, 집단면접조사는 총 2시간 내외 소요될 예정입니다.

#### 3. 수집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됩니까?

본 면접조사에서는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 사용 경험, 사용 동기과 상황, 주변 환경 요인,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과 필요한 지원 등을 질문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의 유해약물 관련 정책과 예방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면접 조사 내용은 녹음될 예정이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이름, 나이, 성별 등)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관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4.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본 연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여하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조사 참여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심리적 불안 또는 불편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조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 면접 조사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응답을 해준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7만원 상당의 수당(현금 계좌이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사 참여를 통해 주신 의견은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관련 정책 대응 방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5.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접 조사 후에도 조사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수집된 연구 대상자의 기록 및 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면접 조사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나이, 성별 등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관련 정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 처리된 후 연구에 이용되며,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7. 조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배상률 선임연구위원 (044-415-2220)

조사실시기간 : (주)에스티아이

조사책임자 : 김서영 연구원 (02-785-9250)

만일 어느 때라도 조사 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4-415-2188

#### 연구 참여 동의서

1. 본인은 본인의 정보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추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로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는 익명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본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관련 의견 수렴 및 면접조사 수당 지급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시 즉시 파기함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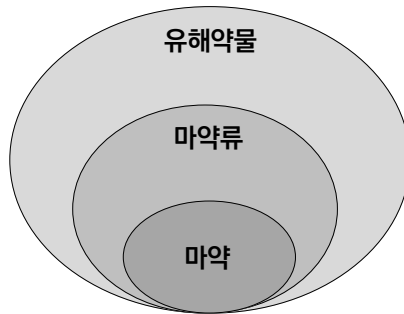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규정한 **유해약물**이란 청소년의 정신이나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약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약물이 포함됩니다.

- ① **술과 담배**
- ② **환각물질**(예: 해피벌론, 부탄가스 등)
- ③ **중독성 및 내성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타 약물**  
(예: 고카페인 음료, 근육 성장 촉진제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 마약류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① **마약**(예: 코카인, 헤로인 등)
- ② **향정신성의약품**(예: 디에타민, 암페타민, 프로포폴 등)
- ③ **대마**



〈유해약물, 마약류, 마약의 개념 구조도〉

※ 면접 시작 전에 연구진의 구두 설명 또는 시각자료 제시를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임.

## 위기청소년 개별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Part 0. 면담 오리엔테이션

1.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면담 진행자 소개
  - 조사 목적 및 내용 소개
2. 조사 진행 안내
  - 솔직하고 구체적인 의견 제시 요구
  - 개인 신상 및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 안내(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보고서 작성을 위한 녹음 양해 요청 및 소요 시간 안내
  - 개별심층면담에 대한 기관 담당자(보호관찰관 등) 및 참여자(본인) 동의 안내 고지
3. 청소년 참여자 자기소개
  - 면담 참여자 자기소개(나이, 건강, 가족, 친구, 학교생활 등)

### Part 1. 마약류 사용 유입과 과정

1.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주사용 약물
  - 지금까지 경험했던 약물에 대해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종류, 용량, 방법, 주기 등)
  - 주로 사용하는 약물은 어떤 것인가요? 그 약물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신이 약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요?(문제인식, 중독인식 등)
2. 최초 약물 사용 경험과 유입 경로
  - 처음 사용했던 약물은 어떤 것이었나요?(의료용, 불법 등)
  - 처음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권유, 호기심, PIED, 치료 등)
  - 처음 마약류를 구입하는 과정은 어떠했나요?(병원진료, 대리, SNS 등)
3. 불법 마약류 사용으로의 진전
  - **(※ 보호관찰 경험에 있는 청소년 대상 질문)** 지금 (보호관찰) 사건이 된 약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계기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나요?
  - 자신이 불법이라고 인지하고 마약류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일까요?
  -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입했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마약류를 하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디어콘텐츠나 SNS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주변에서 문제가 더 진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 Part 2. 정체성 변화와 마약류 범죄의 확대

### 1. 개인 인식 및 생활 상의 변화

- 마약류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 가족, 학교에서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 가족들이 처음 마약류 사용을 알게 되었을 때 반응이 어떠했나요? 지금 가족들의 태도는 어떤 것 같은가요?
- 마약류를 하는 것에 대해 주위 친구들이 알고 있나요?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마약류를 하면서 본인의 건강이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난 것 같나요?
- 자신과 주변에 마약류를 하지 않는 친구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2. 마약류 범죄 확대 (※ 주변 친구 경험으로 응답)

- 마약류 구입을 위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요? (그러한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나요? (그러한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소분, 운반, 드래퍼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한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 주변에서 용돈을 벌거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를 이용한 적이 있나요? (도박, 성관계 등) (그러한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 Part 3. 변화 시도와 도움

### 1.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

- 마약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했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 약물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수용 청소년 및 보호관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대상 질문

### 2. 사법체계 및 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 처음 경찰이나 검사를 만났을 때 경험은 어떠했나요? 수사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경찰이나 검사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 경찰,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등을 만날 때 받은 도움이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 최근 참여했던 교육, 치료,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중 특히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바뀌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 3. 마약류 예방교육 경험과 제언

-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은 시기는 언제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 그 교육이 실제로 약물 사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나요?
- 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4. 필요한 지원과 도움

-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이외에 국가에서 더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 처음 약물을 접했을 때, 처음 불법으로 마약류를 찾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자신과 같은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 지금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본인 삶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필요한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 Part 4. 마무리

### 1. 마무리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연구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 면접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가 단일 물질 중심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환경과 결합된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정서적 어려움, 온라인 기반 접근성 확대 등 복합 요인이 중첩되며 마약류 노출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밀하게 진단한 실태 자료와 정책 설계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술·담배, 고카페인, 환각물질, 의료용·불법 마약류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경험과 관련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단속·사후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주기적 보호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양적 조사에서는 일반 중고등학생 3,384명과 위기청소년 297명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위기청소년 표본을 중심으로 약물 인식, 접근 경로, 사용 경험, 정서·환경 요인, 사법 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10대 시절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10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입 경로, 사용 지속 및 중단 과정, 사법·상담 경험과 제도적 한계를 탐색하였다.

설문 결과, 위기청소년은 유해약물과 마약류 문제를 모두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접근이 “쉽다”는 인식도 높아 위험 인식과 접근 용이성이 공존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위기 수준에 비해 정책 체감도와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불균형이 드러났다. 확산 원인으로는 온라인(SNS·인터넷) 정보 접근 용이성, 자극적 유흥환경, 또래 권유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디지털 유통망과 또래 규범이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 수준에서는 음주·흡연, 특히 전자담배의 경험률과 사용 빈도가 높고, 최초 경험이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어 조기 진입 문제가 두드러졌다. 마약류 경험은 소수였으나, 실제 사용 사례에서는 텔레그램과 포대를 통한 노출 구입이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부정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일부 하위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기대나 적발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조건부 긍정 태도가 확인되어 단순 경고 중심 접근의 한계가 드러났다. 예방교육은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형식성과 전달 방식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징계·처벌은 낙인과 감시 강화로 이어지는 반면 전문 상담·치료 연계는 충분하지 않아 사후관리 체계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마약류 인식은 인구통계적 특성보다 의료용 약물 경험, 자극 추구 성향,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개인 심리 요인과 음주·흡연 수용성, 대면 관계망, 미디어 노출 등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단계적으로 결합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자극성 물질 경험과 이에 대한 긍정 태도는 마약류 긍정 인식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반면 예방교육 인식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어서 현행 교육의 태도 변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심층면접에서는 부모와의 소통 부족, 감독의 부재 또는 과도한 통제, 독립 생활 등 보호체계의 균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래관계는 학교 밖 관계망과 상급생·성인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라인 매체와 SNS는 관계 형성과 범죄 환경 진입의 매개로 작동하였다. 마약류 사용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또래·성인 집단을 통해 경계심이 단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으며, 전자담배는 액상대마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사용 이후에는 도움 요청이 단절되는 경향이 강했고, 특히 여성 참여자에게서는 성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성착취 위험과 결합되는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의 정책 목표를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을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참여형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고도화, 법·제도 개선, 치유·회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결합하여 마약류 사용의 유입-지속-중단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유해약물 정책 체계와 전주기 보호모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핵심어: 위기청소년; 마약류; 유해약물; 디지털 위험환경; 청소년 보호; 약물 오남용; PIED(Performance and Image Enhancing Drugs)

## ABSTRACT

**A Study on Improving Youth Protection Policy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I: Drug Use among  
System-Involved At-Risk Youth**

This study originates from the recognition that youth substance use, amid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 has evolved beyond isolated deviant behavior centered on specific substances into a structurally embedded risk intertwined with digit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at-risk adolescents face heightened exposure to narcotics due to overlapping vulnerabilities, including weakened social support networks, emotional difficulties, and expanded online accessibility. Despite these compounded risks, comprehensive empirical data and policy designs tailored to this population remain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youth substance use—including alcohol, tobacco, high-caffeine products, inhalants, prescription drugs, and illicit narcotics—and to provide an in-depth analysis of narcotics-related experiences among at-risk youth. By doing so, it seeks to diagnose the limitations of enforcement- and post-punishment-oriented responses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a life-cycle-based protective framework.

A mixed-methods design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was adopted. The quantitative survey was conducted

with 3,384 general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297 at-risk adolescents nationwide. This report focuses on the at-risk sample, analyzing perceptions of substances, access pathways, usage experiences, psychosocial factors, judicial experiences, and evaluations of prevention education. The qualitative component center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10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d narcotics use during adolescence, exploring pathways of exposure, processes of continuation and cessation, experiences with judicial and counseling system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Survey findings indicate that at-risk adolescents perceive both legal harmful substances and illicit narcotics as highly serious problems. At the same time, a substantial proportion reported that access to such substances is “easy,” revealing a structural coexistence of high risk awareness and high perceived accessibility. In contrast, evaluations of government policy performance were relatively lower, suggesting a gap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policy credibility. Key drivers of substance diffusion were identified as easy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e.g., SNS and internet platforms), stimulating nightlife environments, and peer influence, highlighting the central role of digital distribution channels and peer norms.

Behaviorally, alcohol and tobacco use—particularly e-cigarettes—showed high prevalence and frequency, with initiation concentrated in early middle school years, underscoring early entry risks. Although illicit narcotics use was reported by a small minority, cases revealed exposure and procurement primarily through peers and Telegram-based online channels. While overall perceptions of the harms of narcotics were strongly negative, a subgroup displayed conditional positive attitudes, such as expectations of stress relief or low perceived detection risk, indicating the limitations of

warning-based prevention approaches. Prevention education was widely regarded as necessary; however, its effectiveness was perceived as limited due to abstract content and delivery methods. Disciplinary and punitive measures were often associated with stigma and intensified monitoring, while access to professional counseling and treatment remained insufficient, exposing weaknesses in post-intervention support system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perceptions of narcotics were shaped more strongly by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tha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perience with prescription drugs, sensation-seeking tendencies, and smartphone dependency, along with permissive attitudes toward alcohol and tobacco, face-to-face social networks, and media expos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Early exposure to stimulant substances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m were associated with more favorable perceptions of narcotics. In contrast, perceptions of prevention educat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suggesting limited attitudinal impact of current educational programs.

In-depth interviews revealed recurring patterns of weakened protective structures, including limited parent-child communication, absence or excessive control of guardians, and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Peer networks frequently extended beyond school contexts to older peers and adults, with online platforms and SNS functioning as mediators connecting virtual interactions to offline environments. Drug initiation was rarely attributable to simple curiosity; rather, it emerged through gradual desensitization within environments closely linked to deviant or illicit contexts. E-cigarettes functioned as facilitating tools for access to liquid cannabis products.



After initiation, help-seeking was often delayed or avoided due to fear of stigma and punish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pathways were difficult to access. Female participants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exposure through adult males, with drug involvement intersecting with risks of sexual exploi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comprehensive policy shift toward a life-cycle-based protective framework encompassing prevention, early intervention, and recovery support. Key policy direction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national governance, participatory and experience-based prevention educ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 capacity, enhancement of data-driven monitoring system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and expansion of recovery and rehabilitation infrastructure.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incorporating digital environments and online distribution structures into policy design. By integrating large-scale survey data and qualitative case analysis of at-risk adolescen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grounding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structurally informed youth substance policy framework.

Key words: at-risk youth; illicit drugs; harmful substances; digital risk environment; youth protection; drug misuse; performance and image enhancing drugs (PIEDs)



##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25-기본01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 연구보고25-기본02    |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 연구보고25-기본03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 연구보고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 연구보고25-기본05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 연구보고25-기본06    |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 연구보고25-기본07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 연구보고25-기본08    |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 연구보고25-일반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 연구보고25-일반01-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 연구보고25-일반02    |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 연구보고25-일반02-01 |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 연구보고25-일반0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 연구보고25-일반06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 연구보고25-일반06-01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승                             |
| 연구보고25-일반07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 연구보고25-일반07-01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 연구보고25-일반07-02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 협동연구과제

|                                                  |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br>(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br>/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br>(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br>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br>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

## 수 시 과 제

|             |                                                      |
|-------------|------------------------------------------------------|
| 연구보고25-수시01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 연구보고25-수시02 |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br>양계민·권오영·안지현   |
| 연구보고25-수시03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br>권오영·남화성 |
| 연구보고25-수시04 |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                                                |
|--------------|------------------------------------------------|
| 연구보고25-연적금01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 연구보고25-연적금02 |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 연구보고25-연적금03 |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br>최용환·임지연·좌동훈 |
| 연구보고25-연적금04 | 청소년 유해악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

## 수 탁 과 제

### 〈 일 반 〉

|                |                                            |
|----------------|--------------------------------------------|
| 연구보고25-수탁01    |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
| 연구보고25-수탁02    |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
| 연구보고25-수탁03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
| 연구보고25-수탁04    |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4-01 |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5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                                                                                |
|----------------|--------------------------------------------------------------------------------|
| 연구보고25-수탁05-01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6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7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8    |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9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
| 연구보고25-수탁10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1    |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
| 연구보고25-수탁12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
| 연구보고25-수탁13    |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
| 연구보고25-수탁14    |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
| 연구보고25-수탁15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
| 연구보고25-수탁16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7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1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2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3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4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8    |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학폭01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2    |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 연구보고25-학폭03    |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4-01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2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3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                                                                                             |
|----------------|---------------------------------------------------------------------------------------------|
| 연구보고25-학폭04-04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5    |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 연구보고25-학폭06    |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 연구보고25-학폭07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 연구보고25-학폭08    |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 연구보고25-학폭09    |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 연구보고25-학폭10    |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대안01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 연구보고25-대안02 |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 연구보고25-대안03 |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위센터01 |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2 |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3 |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 연구보고25-위센터04 |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 연구보고25-위센터05 |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학중01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 연구보고25-학중02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 연구보고25-학중03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

## 자 료 집

###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 위 크 쑹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                                   |
|---------|-----------------------------------|
| 자료25-06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7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8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 자료25-09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 자료25-10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 자료25-11 |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 자료25-12 |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 자료25-13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 자료25-14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 자료25-15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 자료25-16 |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협동연구총서 25-37-01  
연구보고25-일반05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인 쇄 2025년 12월 31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044-865-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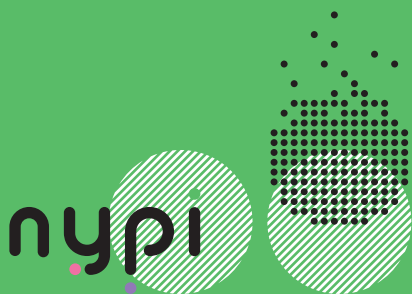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61-6

협동연구총서 25-37-01

연구보고25-일반05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61-6